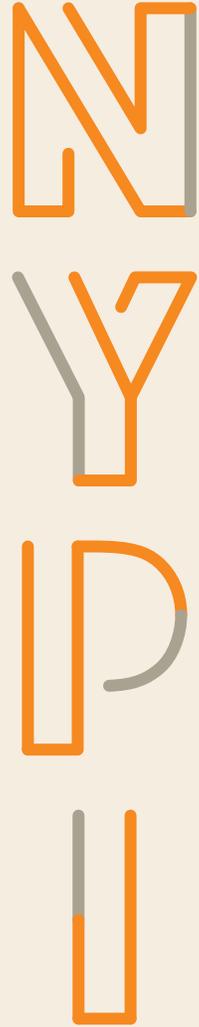


연구보고 20-R06

# 청년 사회 · 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Ⅴ

김형주 연보라 배정희





#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V

김형주, 연보라, 배정희



#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V

---

저 자 김형주, 연보라, 배정희

연구진 연구책임자\_ 김형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 연보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배정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연구보조원\_ 배진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사업운영원)



전체 5개년 연구의 5차년도 연구인 본 연구의 목적은 2020년 한국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기반으로 취업과 경제 생활,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 교육, 가치관, 신체 및 정신건강, 주거, 결혼, 양육, 출산, 문화생활 등 청년의 삶을 둘러싼 사회·경제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위한 핵심지표는 기존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의 연차별 연구의 핵심지표의 틀을 유지하여 인구와 가족, 교육과 훈련, 경제와 고용, 주거, 건강, 문화와 가치관, 관계와 참여 등 7가지 대분류를 중심으로 14개 소분류, 총 115개의 핵심지표로 구성된다. 전국단위 실태조사 결과와 더불어 기 공개된 통계자료에 대한 2차 분석을 통해 각 핵심지표별 실태를 파악하였다(김형주, 연보라, 유설희, 배진우, 2019). 특히 핵심지표를 개발한 첫해를 제외하고 2차년도부터 매년 우리 사회의 주요 청년 현안에 대해 부가조사를 통해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2차년도에는 청년 니트(NEET) 문제, 3차년도에는 학교 신규 졸업자(졸업예정자) 문제, 4차년도에는 청년 참여 문제, 금년도 5차년도에는 청년 주거 문제를 다룸으로써 청년들이 직접 제기하는 밀도 있는 삶의 얘기를 연구에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데이터를 청년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석을 해보기 위해 통계청 승인을 받은 2019년도 공개데이터에 대한 심층분석 연구를 함께 추진하였다. 금년도에는 청년의 학자금 대출이

주거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학교육, 고용안정, 주거소유 기대, 결혼 및 자녀출산의 구조적 관계 분석 연구, 부모로부터 독립 여부에 따른 비교를 중심으로 대졸 취업자의 이직의도 결정요인 분석 연구라는 3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연구를 하였다.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와 주거의식에 관한 심층면담을 토대로 ‘한국 청년의 삶 개선’이라는 비전하에 6개 분야 총 17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인구 및 교육·훈련 분야에서는 시도별 이주배경 청년지원센터 설치, 직업훈련 온라인 콘텐츠 오픈마켓 구축, 경제 및 고용 분야에서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청년 내일채움공제 확대 및 개선, 창업대학 지정 및 운영, 건강 및 문화 분야에서는 청년 국가건강검진 내실화, 청년 정신건강지원 사업 확대, 청년층 특화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관계 및 참여 분야에서는 청년 정책참여 거버넌스 제도화 및 확대, 청년 대상 온라인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청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카드 도입, 청년 1인가구 주택공급 확대, 세어하우스 공급 개선, 청년 주거상담센터 지정 및 운영, 법·제도 기반 분야에서는 생애 전반기 법령체계 연계, 국가청년진흥원 설치 및 운영, 청년지원전담공무원제 도입 등이다.

금년 전대미문의 보건 위기 사태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민경제를 비롯한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었고 더구나 청년들의 고용, 소득, 주거 등 청년을 둘러싼 일상의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청년들이 자신의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토대를 마련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기성세대와 기성정책들의 이해관계 조정과 배려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절실하다.

주제어: 청년, 핵심지표, 사회·경제 실태조사, 주거의식, 청년정책

# 연구요약

##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5개년 연차별 연구의 5차년도 연구로서 각 연도별 기본적인 연구목적은 공통되며, 금년도 연구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20년 한국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취업과 경제생활,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 그리고 교육, 가치관, 신체 및 정신 건강, 주거, 결혼, 양육, 출산, 문화생활 등 청년의 삶을 둘러싼 사회·경제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제시하고, 청년들의 주거의식과 주거문제에 대해서 심층면담조사를 통해 그 실태와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함
- 통계청으로부터 승인된 전년도 공개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 분야의 현안이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심층분석 연구를 하고자 함
-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와 주거의식 관련 심층면담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청년 정책비전과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2. 연구방법

- 문헌연구로서 청년의 개념과 청년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청년들의 일과 삶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및 청년사업의 동향 분석, 청년에 관한 법제도 입안 및 제정 현황 고찰, 청년에 대한 국가·사회적인 지원에 대한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하였음
-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로서 연구의 기본방향, 청년 핵심지표, 설문조사 항목 등에 대한 청년연구자 및 동분야 전문가의 검토, 청년정책 관련 자문회의, 국내외 사례 관련 유관기관 협의회 등을 추진하였음

- 5차년도 조사연구로서 2020년 한국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를 조사하는 것인데, 전국 17개 시·도 만18세-34세의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청년 3,500명 내외를 대상으로 가장 최신인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표본 추출틀로 활용하여 가구단위 개별방문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를 실시하였음
- 기존 발표된 공인 통계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2차 자료 분석으로서 청년 핵심지표 중 설문에 의한 전국단위 직접조사와 더불어 통계청 통계자료 및 행정통계 등에 대한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청년 핵심지표의 실태를 파악하였음
- 질적 연구로서 청년 주거의식에 대한 심층면담조사인데, 금년도 부가조사 주제인 청년의 주거의식에 대해 약 30명 내외의 청년을 대상으로 심층개별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조사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깊이 있는 현실 상황과 심도있는 의견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정책협의회의 운영으로서 금년도 청년 연구의 방향과 조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그리고 정책방안 도출과 관련하여 정책당국과 3차례에 걸쳐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3. 주요결과

#### 1) 청년정책 및 법제도 동향

- 정책대상인 청년에 대한 개념 논의, 청년 관련 선행연구 고찰, 청년 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동향, 청년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청년 관련 법률 현황 등을 고찰하였음
- 영국, 아일랜드, 미국의 청년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 청년정책의 추진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청년문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2) 2020년 한국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조사

-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 인구수는 2020년 현재 1,089만 명이며 청년층의 전체 인구수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임. 특히 19세-24세 청년층은 2019년 대비 2020년 11만여 명 감소로 저출산 심화로 인한 저연령층의 인구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음
-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은 2000년대 들어 99% 이상의 비율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통계 기준이 변경된 2011년 이래로 꾸준히 감소해 2016년 이후에는 60%대의 진학률을 보이다 2019년 다시 70%대로 진입하였음
- 20세-34세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9년 69.1%로 나타났는데, 20세-34세 청년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율(72.9%)은 15세 이상 전체 남성(73.5%)보다 0.6%p 낮았음
- 20세-34세 청년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율은 2019년 기준 59.6%로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8년 대비 2.5%p 상승하였는데, 2000년부터 2019년까지 1인 가구 비율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전부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2019년 기준 전체 1인 가구 비율(30.2%)과 비교했을 때 청년 1인 가구 비율은 59.6%로 약 두 배 가량 높고, 특히 20세-24세 청년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율은 83.1%로 전체 대비 52.9%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19년 기준 35세-39세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 당 28.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살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8년 대비 30세-34세는 1.0명 감소, 35-39세는 0.2명 감소하였음
- 일과 여가 중에서는 여가가 중요하다가 47.8%로 일이 중요하다(25.5%)보다 높게 나타났고, 현실과 이상 중에서는 현실이 중요하다가 68.8%로 이상이 중요하다(14.1%) 대비 높았음

- 기성세대(40, 50대)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세대라는데 대해 청년들의 65.5%가 동의하여 비동의하는 비율(7.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정치적 영향력이 과대하고 특히 다른 세대에 비해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음

### 3) 청년의 주거의식 심층면담

- 거주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청년들은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전월세에 대한 임대료는 주거 비용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금융대출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대출 연장이나 상황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고민으로 작용하였음.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증함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임
- 청년에게 주거는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가장 중요했음. 더불어 집값 상승률이 소득 상승률보다 높은 작금의 상황에서 주거는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서의 의미, 즉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투자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었음
- 향후 주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직장과의 거리나 교통 접근성 등 편리한 주거의 위치, 아파트, 신축 등 쾌적한 주택 상태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청년들은 한국사회에서 주거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이는 계층 간뿐 아니라 세대 간 주거불평등을 모두 포함하는데, 특히,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주거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존재하였음

#### 4) 전년도 공개데이터에 대한 심층분석연구(별도 보고서)

- 청년의 학자금 대출이 주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연구하였음
- 대학교육, 고용안정, 주거소유 기대, 결혼 및 자녀출산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 분석 연구하였음
- 대출 취업자의 이직의도 결정요인 분석을 부모로부터 독립 여부에 따른 비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4. 정책제언

- ‘한국 청년의 삶 개선’이라는 비전하에 6개 분야 총 17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 인구 및 교육·훈련 분야에서는 시도별 이주배경 청년지원센터 설치, 직업훈련 온라인 콘텐츠 오픈마켓 구축 등을 제안하였음
- 경제 및 고용 분야에서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청년 내일채움공제 확대 및 개선, 창업대학 지정 및 운영 등을 제안하였음
- 건강 및 문화 분야에서는 청년 국가건강검진 내실화, 청년 정신건강지원 사업 확대, 청년층 특화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등을 제안하였음
- 관계 및 참여 분야에서는 청년 정책참여 거버넌스 제도화 및 확대, 청년 대상 온라인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청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카드 도입 등을 제안하였음
-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1인가구 주택공급 확대, 세어하우스 공급 개선, 청년 주거상담센터 지정 및 운영 등을 제안하였음
- 법·제도 기반 분야에서는 생애 전반기 법령체계 연계, 국가청년진흥원 설치 및 운영, 청년지원전담공무원제 도입 등을 제안하였음



#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V

연구보고 20-R06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 2. 연차별 연구추진경과 ..... 9
- 3. 연구내용 ..... 11
- 4. 연구방법 ..... 13

## II. 국내외 청년 정책·사업 및 법률 현황

- 1. 청년 개념에 대한 논의 ..... 17
- 2. 청년 관련 선행연구 고찰 ..... 22
- 3. 청년 정책 및 사업 추진 동향 ..... 35
- 4. 청년 관련 법률 현황 ..... 61
- 5. 해외 청년정책 추진 동향 ..... 68

## III. 2020년 한국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

- 1. 청년 사회·경제 실태 핵심지표 ..... 97
- 2. 조사 개요 ..... 105
- 3. 2020년 핵심지표별 한국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 · 110

4. 2020년 부가설문조사: 주거 .....	378
<b>IV. 청년 주거의식 심층면담</b>	
1. 면담조사 개요 .....	403
2. 면담조사 분석 결과 .....	408
3. 소결 및 시사점 .....	505
<b>V. 정책 제언 및 결론</b>	
1. 정책 비전 및 분야 .....	519
2. 정책 제언 .....	520
3. 결론 .....	554
<b>참고문헌</b> .....	<b>561</b>
<b>부록</b> .....	<b>579</b>
1.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항목 .....	579
2.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표 .....	585
<b>ABSTRACT</b> .....	<b>629</b>

## 표 목차

표 Ⅰ-1.	청년 사회·경제실태 지표체계	12
표 Ⅱ-1.	청년 관련 법령 상 청년의 범위	19
표 Ⅱ-2.	청년 관련 지방자치단체(광역시) 청년기본조례상 청년의 범위	21
표 Ⅱ-3.	청년정책 분류체계	36
표 Ⅱ-4.	청년 일자리 정책 개별사업 현황	38
표 Ⅱ-5.	‘제1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 일자리 분야	40
표 Ⅱ-6.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 일자리 분야	42
표 Ⅱ-7.	청년 교육·훈련 정책 개별사업 현황	44
표 Ⅱ-8.	‘제1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 교육 분야	46
표 Ⅱ-9.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 교육 분야	48
표 Ⅱ-10.	청년 주거 정책 개별사업 현황	51
표 Ⅱ-11.	‘제1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 주거 분야	52
표 Ⅱ-12.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 주거 분야	53
표 Ⅱ-13.	청년 참여·권리 정책 개별사업 현황	54
표 Ⅱ-14.	‘제1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 참여·권리 분야	55
표 Ⅱ-15.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 참여·권리 분야	56
표 Ⅱ-16.	청년 생활 정책 개별사업 현황	57
표 Ⅱ-17.	‘제1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 복지 및 생활안정 분야	58
표 Ⅱ-18.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 복지 및 생활안정 분야	59
표 Ⅱ-19.	제20대 국회의 청년기본법안 입법 발의 현황	62
표 Ⅱ-20.	청년기본법 주요 내용	64
표 Ⅱ-21.	17개 시·도 청년기본조례 현황	65
표 Ⅲ-1.	2017~2020년도 청년 사회·경제 핵심지표 분류체계	98
표 Ⅲ-2.	청년 사회·경제실태 ‘인구와 가족’ 관련 핵심지표체계	99
표 Ⅲ-3.	청년 사회·경제실태 ‘교육과 훈련’ 관련 핵심지표체계	100
표 Ⅲ-4.	청년 사회·경제실태 ‘경제와 고용’ 관련 핵심지표체계	101
표 Ⅲ-5.	청년 사회·경제실태 ‘주거’ 관련 핵심지표체계	102

표 Ⅲ-6.	청년 사회·경제실태 ‘건강’ 관련 핵심지표체계	103
표 Ⅲ-7.	청년 사회·경제실태 ‘문화와 가치관’ 관련 핵심지표체계	104
표 Ⅲ-8.	청년 사회·경제실태 ‘관계와 참여’ 관련 핵심지표체계	104
표 Ⅲ-9.	연도별 청년층 인구수 추이	111
표 Ⅲ-10.	연도별 전체인구 대비 청년층 구성비 추이	113
표 Ⅲ-11.	연도별 체류외국인 수 추이	115
표 Ⅲ-12.	연도별 등록외국인 수 추이	116
표 Ⅲ-13.	연도별 단기체류외국인 수 추이	117
표 Ⅲ-14.	연도별 결혼이민자 외국인 수 추이	118
표 Ⅲ-15.	연도별 청년층 인구 전망 추이	120
표 Ⅲ-16.	연도별 청년 연령규정 추이	122
표 Ⅲ-17.	연도별 독립 의향 및 적정 독립 시기	124
표 Ⅲ-18.	연도별 결혼 의향 및 적정 결혼 시기	126
표 Ⅲ-19.	연도별 출산 의향 및 적정 출산 시기	128
표 Ⅲ-20.	연도별 해외이주 의사	130
표 Ⅲ-21.	연도별 해외이주 고려 이유	132
표 Ⅲ-22.	청년층 혼인건수 추이	134
표 Ⅲ-23.	청년층 혼인율 추이	135
표 Ⅲ-24.	연도별 성별 초혼 연령 추이	137
표 Ⅲ-25.	연도별 결혼준비 경험 추이	139
표 Ⅲ-26.	연도별 결혼 망설임 여부 추이	141
표 Ⅲ-27.	연도별 모 연령별 출생아 추이	143
표 Ⅲ-28.	연도별 모 연령별 출산율 추이	144
표 Ⅲ-29.	연도별 모의 평균 출산 연령 추이	145
표 Ⅲ-30.	연도별 맞벌이 여부	147
표 Ⅲ-31.	연도별 자녀 유무	149
표 Ⅲ-32.	연도별 자녀를 가질 계획	151
표 Ⅲ-33.	연도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추이	153
표 Ⅲ-34.	연도별 대학등록금 추이	155
표 Ⅲ-35.	연도별 대학등록금 대출자 비율 추이	157
표 Ⅲ-36.	연도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추이	159
표 Ⅲ-37.	연도별 학제별 대학졸업 소요기간 추이	161
표 Ⅲ-38.	연도별 대졸자 휴학 현황 추이	163
표 Ⅲ-39.	연도별 대학생 학업중단을 추이	165

표 III-40. 연도별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추이 .....	167
표 III-41. 졸업 유예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이유 .....	169
표 III-42. 연도별 전공과 직업 일치도 추이 .....	171
표 III-43. 연도별 추후 대학 진학 의사 추이 .....	173
표 III-44. 대학 미진학 사유 .....	175
표 III-45. 연도별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	177
표 III-46. 연도별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2)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	178
표 III-47. 연도별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3) 한국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	179
표 III-48. 연도별 대학교육 만족도_1) 나는 대학교육에 만족한다 ...	180
표 III-49. 연도별 대학교육 만족도_2) 나는 대학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181
표 III-50. 연도별 대학교육 만족도_3) 나는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182
표 III-51. 연도별 대학교육 만족도_4) 나는 내가 선택한 대학에서의 학과(전공)가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	183
표 III-52. 연도별 평생학습 형식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	185
표 III-53. 연도별 평생학습 비형식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	187
표 III-54. 연도별 평생학습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189
표 III-55. 연도별 직업교육 훈련 참여율 변화 추이 .....	191
표 III-56. 연도별 현재 취업 준비 여부 추이 .....	193
표 III-57. 연도별 고시생 및 공시생 현황 추이 .....	195
표 III-58. 연도별 경제활동 참여율 추이 .....	197
표 III-59. 연도별 고용률 추이 .....	199
표 III-60. 연도별 실업률 추이 .....	201
표 III-61. 연도별 전산업 기준 신설법인 수 및 비율 추이 .....	203
표 III-62. 연도별 청년 기업 고용주(대표)의 활동기업, 신생기업, 소멸기업 수 및 비율 추이 .....	205
표 III-63. 연도별 니트(NEET) 비율 추이(OECD 기준) .....	206
표 III-64. 연도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	208
표 III-65. 연도별 대졸 신입사원 경쟁률 추이 .....	209
표 III-66. 연도별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	211

표 III-67. 연령별 중소기업 취업 의향 .....	213
표 III-68. 연도별 중소기업 비취업 이유 .....	214
표 III-69. 연도별 창업 경험 .....	216
표 III-70. 연도별 창업 의사 .....	217
표 III-71. 연도별 직장에서 본인 조건에 맞는 대우 여부 .....	219
표 III-72. 연도별 이직 의향 및 이유 .....	221
표 III-73. 연도별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	
1) 우리사회는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	223
표 III-74. 연도별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	
2) 기성세대는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	225
표 III-75. 연도별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	
3)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227
표 III-76. 연도별 월임금총액 추이 .....	229
표 III-77. 연도별 청년 소비 추이 .....	231
표 III-78. 연도별 장년 대비 청년 상대임금 추이 .....	233
표 III-79. 연도별 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 추이 .....	235
표 III-80. 연도별 청년 가구주 부채 추이 .....	237
표 III-81. 연도별 적정 최저 임금 추이 .....	239
표 III-82. 연도별 한 달 생활비와 생활비 지원받는 비율 추이 .....	241
표 III-83. 연도별 채무 여부 .....	243
표 III-84.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	245
표 III-85.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	246
표 III-86.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	247
표 III-87.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	248
표 III-88.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	249
표 III-89.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	250
표 III-90.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	251
표 III-91.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	252

표 Ⅲ-92.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	253
표 Ⅲ-93.	연도별 청년층(가구주)의 연령별 주택 점유형태 .....	255
표 Ⅲ-94.	연도별 청년층(가구주)의 실주거비 .....	257
표 Ⅲ-95.	연도별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가구 비율 추이 .....	259
표 Ⅲ-96.	연도별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율 추이 .....	261
표 Ⅲ-97.	연도별 부모 동거 여부 .....	263
표 Ⅲ-98.	연도별 미혼 혼자 거주 여부 .....	265
표 Ⅲ-99.	연도별 현재 주거 형태 .....	266
표 Ⅲ-100.	연도별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주택 외 거주규모 비율 추이 .....	268
표 Ⅲ-101.	연도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구부채 비율 추이 .....	270
표 Ⅲ-102.	연도별 기숙사 수용률 추이 .....	272
표 Ⅲ-103.	연도별 주거 마련 시기 의견 추이 .....	274
표 Ⅲ-104.	연도별 공동주거 경험 .....	276
표 Ⅲ-105.	연도별 공동주거 의향 .....	278
표 Ⅲ-106.	연도별 평소 주거 생각_ 1) 내 명의의 집은 꼭 있어야 한다 .....	280
표 Ⅲ-107.	연도별 평소 주거 생각_ 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	282
표 Ⅲ-108.	연도별 평소 주거 생각_ 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284
표 Ⅲ-109.	연도별 정기적인 운동 실천율 추이_걷기 실천율 .....	286
표 Ⅲ-110.	연도별 정기적인 운동 실천율 추이_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	288
표 Ⅲ-111.	연도별 비만 유병률 추이 .....	290
표 Ⅲ-112.	연도별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 .....	292
표 Ⅲ-113.	연도별 우울장애 유병률 추이 .....	294
표 Ⅲ-114.	연도별 자살률 추이 .....	296
표 Ⅲ-115.	연도별 현재 흡연율 추이 .....	298
표 Ⅲ-116.	연도별 월간 음주율 추이 .....	300
표 Ⅲ-117.	연도별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	302
표 Ⅲ-118.	연도별 주관적인 신체건강 인식 .....	304
표 Ⅲ-119.	연도별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 .....	306
표 III-120.	연도별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	308
표 III-121.	연도별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	310
표 III-122.	연도별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	312
표 III-123.	연도별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	314
표 III-124.	연도별 청년 병원 이용율 추이 .....	316
표 III-125.	연도별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 추이 .....	318
표 III-126.	건강검진 수검 여부 .....	320
표 III-127.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 .....	322
표 III-128.	질환 발생 시,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	324
표 III-129.	연도별 성형수술 경험 .....	326
표 III-130.	연도별 성형수술 목적 .....	328
표 III-131.	평일 및 휴일 문화 및 여가활동 유형(복수응답) .....	330
표 III-132.	연도별 평일 및 휴일 문화 및 여가활동 시간 .....	331
표 III-133.	연도별 월 평균 문화 및 여가활동 비용 .....	332
표 III-134.	연도별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 추이 .....	333
표 III-135.	연도별 연간 독서율 추이 .....	334
표 III-136.	연도별 주관적 행복감 추이 .....	335
표 III-137.	연도별 삶의 만족도 추이 .....	336
표 III-138.	연도별 주관적 계층의식 추이 .....	337
표 III-139.	연도별 우리사회의 전반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 .....	338
표 III-140.	연도별 선호하는 가치(일 중시 vs 여가 중시) .....	341
표 III-141.	연도별 선호하는 가치(현실 중시 vs 이상 중시) .....	342
표 III-142.	연도별 선호하는 가치(결과 중시 vs 과정 중시) .....	343
표 III-143.	선호하는 가치(개인 중시 vs 집단 중시) .....	344
표 III-144.	연도별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	345
표 III-145.	연도별 긴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율 .....	347
표 III-146.	연도별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	349
표 III-147.	연도별 가족관계 만족도 추이 .....	351
표 III-148.	연도별 친한 친구 존재 여부 및 친한 친구 수 .....	353
표 III-149.	연도별 세대 갈등 추이 .....	356

표 III-150. 연도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참여횟수, 참여시간 추이	358
표 III-151. 연도별 기부(현금기부, 물품기부) 여부	360
표 III-152. 연도별 단체참여 추이	362
표 III-153. 연도별 선거 투표율 추이	364
표 III-154. 연도별 정부 및 국회 신뢰도 추이	366
표 III-155. 의견 표명 경험	368
표 III-156. 연도별 의견 표명 의향	370
표 III-157. 연도별 정치적 효능감 추이_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373
표 III-158. 연도별 정치적 효능감 추이_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375
표 III-159. 연도별 정치적 효능감 추이_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77
표 III-160. 자가 소유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379
표 III-161. 자가 소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381
표 III-162. 주택 점유형태	383
표 III-163. 주거 비용 마련 방법	385
표 III-164. 월세 비용 마련 방법	387
표 III-165. 현재 집을 선택한 주된 이유(1순위)	389
표 III-166. 현재 집을 선택한 주된 이유(1+2+3순위)	390
표 III-167.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의 의미(1순위)	392
표 III-168.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의 의미(1+2+3순위)	393
표 III-169. 향후 주거 마련에 있어 가장 고려해야 하는 사항(1순위)	395
표 III-170. 향후 주거 마련에 있어 가장 고려해야 하는 사항 (1+2+3순위)	396
표 III-171. 청년 주거 정책 인지도	398
표 III-172.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청년 주거 정책	400
표 IV-1.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	404
표 IV-2. 청년 주거의식 면담조사 주요내용	406
표 IV-3. 심층면담 결과 요약	514
표 V-1. 시도별 이주배경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소요예산	521
표 V-2. 직업훈련 온라인 콘텐츠 오픈마켓 구축 소요예산	523
표 V-3.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소요예산	525
표 V-4. 청년 내일채움공제 확대 및 개선 소요예산	527
표 V-5. 창업대학 지정 및 운영 소요예산	529

표 V-6.	건강검진 수검여부 .....	530
표 V-7.	청년 국가건강검진 내실화 소요예산 .....	531
표 V-8.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장애 유병률 (2018) .....	532
표 V-9.	청년 정신건강 지원 사업 확대 .....	533
표 V-10.	여가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1-5순위 (2019) .....	534
표 V-11.	청년층 특화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535
표 V-12.	청년 정치·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요건- 1+2+3순위 (상위5위) .....	536
표 V-13.	청년 정책참여 거버넌스 제도화 및 확대 .....	537
표 V-14.	정치적 효능감 .....	538
표 V-15.	청년 대상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	539
표 V-16.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 1-3순위 (2019) .....	540
표 V-17.	청년 대상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	541
표 V-18.	청년 1인가구 대상 주택 공급 확대 소요예산 .....	543
표 V-19.	세어하우스 공급 개선 소요예산 .....	545
표 V-20.	청년 주거상담센터 지정 및 운영 소요예산 .....	547
표 V-21.	생애 전반기 법령체계 연계 소요예산 .....	549
표 V-22.	(가칭)국가청년진흥원 설치 및 운영 소요예산 .....	551
표 V-23.	청년지원전담공무원제 소요예산 .....	553

##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령계층별 고용률 현황(2020년 10월) .....	4
그림 Ⅰ-2.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2020년 10월) .....	5
그림 Ⅰ-3.	연차별 연구추진경과 .....	10
그림 Ⅱ-1.	청년 연령규정(2019년 실태조사) .....	20
그림 Ⅱ-2.	아일랜드 청년정책 성과 달성을 위한 협력체계 .....	87
그림 Ⅱ-3.	미국 연방정부 청년정책 투입 틀 .....	90
그림 Ⅲ-1.	청년층 인구수 .....	110
그림 Ⅲ-2.	전체인구 대비 청년층 구성비 .....	112
그림 Ⅲ-3.	체류외국인 수 .....	114
그림 Ⅲ-4.	등록외국인 수 .....	116
그림 Ⅲ-5.	단기체류외국인 수 .....	117
그림 Ⅲ-6.	결혼이민자 외국인 수 .....	118
그림 Ⅲ-7.	청년층 인구 전망 .....	119
그림 Ⅲ-8.	청년 연령규정 .....	121
그림 Ⅲ-9.	독립 의향 및 적정 독립 시기 .....	123
그림 Ⅲ-10.	결혼 의향 및 적정 결혼 시기 .....	125
그림 Ⅲ-11.	출산 의향 및 적정 출산 시기 .....	127
그림 Ⅲ-12.	해외이주 의사 .....	129
그림 Ⅲ-13.	해외이주 고려 이유 .....	131
그림 Ⅲ-14.	청년층 혼인건수 및 혼인율 .....	133
그림 Ⅲ-15.	성별 초혼 연령 연도별 추이 .....	136
그림 Ⅲ-16.	결혼준비 경험 .....	138
그림 Ⅲ-17.	결혼 망설임 여부 .....	140
그림 Ⅲ-18.	모 연령별 출생아 수 및 출산율 .....	142
그림 Ⅲ-19.	모의 평균 출산 연령 .....	145
그림 Ⅲ-20.	맞벌이 여부 .....	146
그림 Ⅲ-21.	자녀 유무 .....	148

그림 Ⅲ-22. 자녀를 가질 계획 .....	150
그림 Ⅲ-23.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	152
그림 Ⅲ-24. 대학등록금 .....	154
그림 Ⅲ-25. 대학등록금 대출자 비율 .....	156
그림 Ⅲ-26. 재학생 1인당 장학금 .....	158
그림 Ⅲ-27. 학제별 대학졸업 소요기간 .....	160
그림 Ⅲ-28. 대출자 휴학 현황 .....	162
그림 Ⅲ-29. 대학생 학업중단을 .....	164
그림 Ⅲ-30.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	166
그림 Ⅲ-31. 졸업 유예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이유 .....	168
그림 Ⅲ-32. 전공과 직업 일치도 .....	170
그림 Ⅲ-33. 추후 대학 진학 의사 .....	172
그림 Ⅲ-34. 대학 미진학 사유 .....	174
그림 Ⅲ-35.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	176
그림 Ⅲ-36.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2)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	178
그림 Ⅲ-37.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3) 한국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	179
그림 Ⅲ-38. 대학교육 만족도_1) 나는 대학교육에 만족한다 .....	180
그림 Ⅲ-39. 대학교육 만족도_2) 나는 대학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181
그림 Ⅲ-40. 대학교육 만족도_3) 나는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182
그림 Ⅲ-41. 대학교육 만족도_4) 나는 내가 선택한 대학에서의 학과(전공)가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	183
그림 Ⅲ-42. 연령별 평생학습 형식교육 참여율 .....	184
그림 Ⅲ-43. 연령별 평생학습 비형식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	186
그림 Ⅲ-44. 연령별 평생학습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	188
그림 Ⅲ-45. 연령별 직업교육 훈련 참여율 .....	190
그림 Ⅲ-46. 현재 취업 준비 여부 .....	192
그림 Ⅲ-47. 고시생 및 공시생 현황 .....	194
그림 Ⅲ-48. 경제활동 참여율 .....	196
그림 Ⅲ-49. 고용률 .....	198

그림 Ⅲ-50. 실업률 .....	200
그림 Ⅲ-51. 전산업 기준 청년층 신설법인 수 및 비율 .....	202
그림 Ⅲ-52. 청년 기업 고용주(대표)의 활동기업, 신생기업 수 및 비율 .....	204
그림 Ⅲ-53. 니트(NEET) 비율 .....	206
그림 Ⅲ-54. 연령별 비정규직 비율 .....	207
그림 Ⅲ-55. 대졸 신입사원 경쟁률 .....	209
그림 Ⅲ-56.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	210
그림 Ⅲ-57. 중소기업 취업 의향 .....	212
그림 Ⅲ-58. 중소기업 비취업 이유 .....	214
그림 Ⅲ-59. 창업 경험 .....	215
그림 Ⅲ-60. 창업 의사 .....	217
그림 Ⅲ-61. 직장에서 본인 조건에 맞는 대우 여부 .....	218
그림 Ⅲ-62. 이직 의향 여부 및 이유 .....	220
그림 Ⅲ-63.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 1) 우리사회는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	222
그림 Ⅲ-64.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 2) 기성세대는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	224
그림 Ⅲ-65.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 3)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226
그림 Ⅲ-66. 월임금총액 .....	228
그림 Ⅲ-67. 청년 소비 .....	230
그림 Ⅲ-68. 장년 대비 청년 상대임금 .....	232
그림 Ⅲ-69. 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 .....	234
그림 Ⅲ-70. 청년 가구주의 부채 .....	236
그림 Ⅲ-71. 걱정 최저 임금 .....	238
그림 Ⅲ-72. 한 달 생활비와 생활비 지원받는 비율 .....	240
그림 Ⅲ-73. 채무 여부 .....	242
그림 Ⅲ-74.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	245

그림 Ⅲ-75.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246
그림 Ⅲ-76.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247
그림 Ⅲ-77.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248
그림 Ⅲ-78.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249
그림 Ⅲ-79.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250
그림 Ⅲ-80.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251
그림 Ⅲ-81.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252
그림 Ⅲ-82.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253
그림 Ⅲ-83.	청년층(가구주)의 주택 점유형태	254
그림 Ⅲ-84.	청년층(가구주)의 실주거비	256
그림 Ⅲ-85.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가구 비율	258
그림 Ⅲ-86.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율	260
그림 Ⅲ-87.	부모 동거 여부	262
그림 Ⅲ-88.	미혼 혼자 거주 여부	264
그림 Ⅲ-89.	현재 주거 형태	266
그림 Ⅲ-90.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주택 외 거주규모 비율	267
그림 Ⅲ-91.	가처분소득 대비 가구부채 비율	269
그림 Ⅲ-92.	기숙사 수용률	271
그림 Ⅲ-93.	주거 마련 시기 의견	273
그림 Ⅲ-94.	공동주거 경험	275
그림 Ⅲ-95.	공동주거 의향	277
그림 Ⅲ-96.	평소 주거 생각_1) 내 명의의 집은 꼭 있어야 한다	279
그림 Ⅲ-97.	평소 주거 생각_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281
그림 Ⅲ-98.	평소 주거 생각_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83
그림 Ⅲ-99.	정기적인 운동 실천율_걷기 실천율	285
그림 Ⅲ-100.	정기적인 운동 실천율_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287
그림 Ⅲ-101.	비만 유병률	289
그림 Ⅲ-102.	스트레스 인지율	291
그림 Ⅲ-103.	우울장애 유병률	293
그림 Ⅲ-104.	자살률	295
그림 Ⅲ-105.	현재 흡연율	297

그림 Ⅲ-106.	월간 음주율 .....	299
그림 Ⅲ-107.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	301
그림 Ⅲ-108.	주관적인 신체건강 인식 .....	303
그림 Ⅲ-109.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	305
그림 Ⅲ-110.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	307
그림 Ⅲ-11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	309
그림 Ⅲ-112.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	311
그림 Ⅲ-113.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	313
그림 Ⅲ-114.	청년 병원 이용율 .....	315
그림 Ⅲ-115.	연령별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 .....	317
그림 Ⅲ-116.	건강검진 수검 여부 .....	319
그림 Ⅲ-117.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 .....	321
그림 Ⅲ-118.	질환 발생 시,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	323
그림 Ⅲ-119.	성형수술 경험 .....	325
그림 Ⅲ-120.	성형수술 목적 .....	327
그림 Ⅲ-121.	평일 및 휴일 문화 및 여가활동 유형 .....	329
그림 Ⅲ-122.	평일 및 휴일 문화 및 여가활동 시간 .....	331
그림 Ⅲ-123.	월 평균 문화 및 여가활동 비용 .....	332
그림 Ⅲ-124.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 .....	333
그림 Ⅲ-125.	연간 독서율 .....	334
그림 Ⅲ-126.	주관적 행복감 .....	335
그림 Ⅲ-127.	삶의 만족도 .....	336
그림 Ⅲ-128.	주관적 계층의식 .....	337
그림 Ⅲ-129.	우리사회의 전반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 .....	338
그림 Ⅲ-130.	일과 여가 중 선호하는 가치 .....	341
그림 Ⅲ-131.	현실과 이상 중 선호하는 가치 .....	342
그림 Ⅲ-132.	결과와 과정 중 선호하는 가치 .....	343
그림 Ⅲ-133.	개인과 집단 중 선호하는 가치 .....	344
그림 Ⅲ-134.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	345
그림 Ⅲ-135.	긴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율 .....	347

그림 Ⅲ-136.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	349
그림 Ⅲ-137. 가족관계 만족도 .....	351
그림 Ⅲ-138. 친한 친구 존재 여부 및 친한 친구 수 .....	353
그림 Ⅲ-139. 세대 갈등 .....	355
그림 Ⅲ-140.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참여횟수, 참여시간 .....	357
그림 Ⅲ-141. 기부(현금기부, 물품기부) 여부 .....	359
그림 Ⅲ-142. 단체참여 .....	361
그림 Ⅲ-143. 선거 투표율 .....	364
그림 Ⅲ-144. 정부 및 국회 신뢰도 .....	365
그림 Ⅲ-145. 의견 표명 경험 .....	367
그림 Ⅲ-146. 의견 표명 의향 .....	369
그림 Ⅲ-147. 정치적 효능감_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372
그림 Ⅲ-148. 정치적 효능감_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	374
그림 Ⅲ-149. 정치적 효능감_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376
그림 Ⅲ-150. 자가 소유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	378
그림 Ⅲ-151. 자가 소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380
그림 Ⅲ-152. 주택 점유형태 .....	382
그림 Ⅲ-153. 주거 비용 마련 방법 .....	384
그림 Ⅲ-154. 월세 비용 마련 방법 .....	386
그림 Ⅲ-155. 현재 집을 선택한 주된 이유 .....	388
그림 Ⅲ-156.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의 의미 .....	391
그림 Ⅲ-157. 향후 주거 마련에 있어 가장 고려해야 하는 사항 .....	394
그림 Ⅲ-158. 청년 주거 정책 인지도 .....	397
그림 Ⅲ-159.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청년 주거 정책 .....	399
그림 Ⅳ-1. 면담조사지 개발절차 .....	407
그림 Ⅳ-2.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현재 주거 선택 이유(청년 1인가구) .....	413
그림 Ⅳ-3.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주거 현안(청년 1인가구) .....	416
그림 Ⅳ-4.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주거의 의미(청년 1인가구) .....	422
그림 Ⅳ-5.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정책 인지 경로 (청년 1인가구) .....	431
그림 Ⅳ-6.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주거불평등(청년 1인가구) .....	435

그림 IV-7.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현재 주거 선택 이유 (청년 부부가구) .....	452
그림 IV-8.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주거 현안(청년 부부가구) .....	454
그림 IV-9.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주거의 의미(청년 부부가구) ..	458
그림 IV-10.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정책 인지 경로 (청년 부부가구) .....	467
그림 IV-11.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주거불평등(청년 부부가구) ..	469
그림 IV-12.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부모와 함께 거주 이유(부모·청년가구) .....	480
그림 IV-13.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주거의 의미(부모·청년가구) ..	485
그림 IV-14.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정책 인지 경로 (부모·청년가구) .....	494
그림 IV-15.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주거불평등(부모·청년가구) ..	496
그림 V-1. 정책 비전 및 제언 분야 .....	519
그림 V-2. 체류외국인 수 .....	520
그림 V-3. 연령별 직업교육 훈련 참여율 .....	522
그림 V-4. 코로나19 이후 청년층 취업자 증감 및 고용률 추이 ..	524
그림 V-5. 청년 내일채움공제 경험 및 인식 .....	526
그림 V-6. 창업 의사 .....	528
그림 V-7.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율 .....	542
그림 V-8. 공동주거 의향 .....	544
그림 V-9. 청년 주거 정책 인지도 .....	546
그림 V-10. 청년 연령규정 .....	548
그림 V-11. 우리사회는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	550
그림 V-12.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552



#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차별 연구추진경과
- 3. 연구내용
- 4.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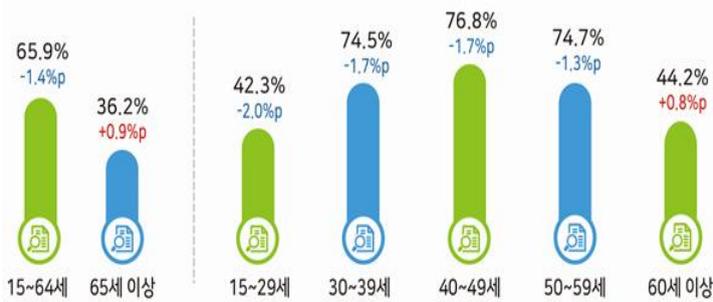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전체 5개년 연구로서 1차년도인 2016년도에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에 대한 첫 번째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해마다 우리나라 청년의 일과 삶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최대한 청년의 현실을 반영한 청년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해 왔다. 지난 5년 동안을 뒤돌아보면 비록 획기적인 사회적 개선은 여전히 미진하나 청년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의 정도는 점차적으로 제고되어 왔고 중앙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 조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내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어 왔다. 또한 2019년도 하반기부터 청년 고용상황이 소폭이지만 나아지고 있었고, 2020년도 2월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제정된 청년기본법으로 인해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금년도 우리사회 청년들의 삶에 대한 개선을 본격화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금년 전대미문의 신종바이러스 사태인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해 국민경제를 비롯한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더구나 청년들의 고용, 소득, 주거 등 청년을 둘러싼 일상의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 금년도 5차년도 연구를 통해 청년들의 일과 삶의 현실을 파악하여 정책적 제안을 해야 하는 본 연구진도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연구에 임하게 되었다.

1) 이 장은 김형주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는 여러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청년들의 삶에 밀접한 고용지표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 통계청이 2020년 11월 11일 발표한 2020년 10월의 고용동향은 신종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보여주는데,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의 고용률은 하락하였으며, 특히 20대가 가장 큰 폭으로 고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0).



\* 출처: 통계청(2020), 2020년 10월 고용동향 보도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6062](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6062)에서 2020년 11월 26일 인출.

그림 | -1. 연령계층별 고용률 현황(2020년 10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10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708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2만 1천명(-1.5%) 감소하였고, 고용률은 60.4%로 전년동월대비 1.3%p 하락하였는데, 성별로 보면 남자는 1,545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만명(-1.0%) 감소하였고, 여자는 1,163만 3천명으로 27만 1천명(-2.3%) 감소하였다.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5.9%로 전년동월대비 1.4%p 하락하였는데, 성별로 보면 남자는 74.8%로 전년동월대비 1.3%p 하락하였고, 여자는 56.7%로 1.7%p 하락하였다. 연령계층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에서 37만 5천명 증가하였으나, 30대에서 24만 명, 20대에서 21만 명, 40대에서 19만 2천명, 50대에서 11만 4천명 각각 감소하였고, 고용률의 경우

60세 이상에서 전년동월대비 상승하였으나, 20대, 30대, 40대, 50대 등에서 하락하였는데, 성별로 보면 남자는 20대, 40대, 30대 등에서 하락하였고, 여자는 20대, 50대, 30대, 40대 등에서 하락하였으며, 특히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5만 명 감소하였고, 고용률은 2.0%p 하락하였다(통계청,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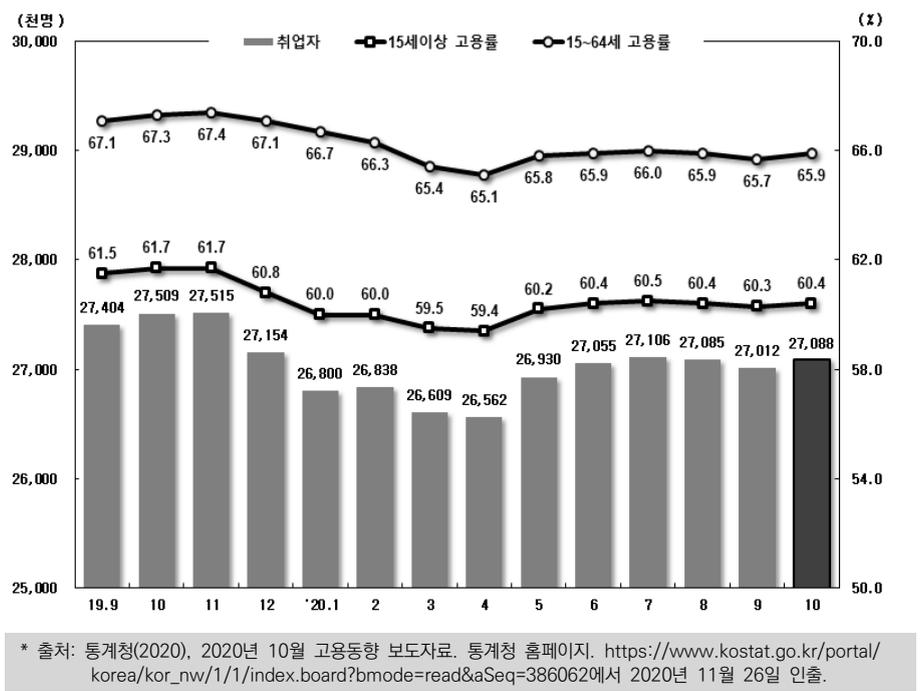


그림 1-2.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2020년 10월)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금년도 3월 발표된 고용동향에 대해 보도참고자료를 통해서 2020년 10월 고용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에서 다소 더디게 회복하는 모습으로 고용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42.1만 명 감소하며 감소폭이 9월(△39.2만 명) 보다 소폭 확대되었는데 다만,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증가 전환(+5.4만 명)하였고 9월보다 취업자(계절조정)

가 증가했으나, 전년동월비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된 것은 '19.10월 고용호조에 따른 (-)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으로서 어려운 고용여건에도 불구하고 주요국과 비교시에는 우리 고용 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최근 주요 경제지표 개선 흐름은 향후 고용 여건에 긍정적 요인이나, 동절기 방역 불확실성 등 고용시장 위협요인도 상존하고 있으며, 청년층, 임시·일용직의 어려운 고용여건이 지속되는 등 취약계층 고용 상황, 상용직 증가폭 축소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 고용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바탕으로 최근의 경기 개선이 고용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역 및 백신 개발 노력 강화, 내수 수출 활력 제고 및 추경사업의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인 정책 노력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기획재정부, 2020).

10월 고용동향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한 고용시장의 악영향이 확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함께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지표는 경제활동 인구가 2,811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만 7천명(-0.9%) 감소하였는데, 성별로 보면 남자는 1,606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5천명(-0.4%) 감소하였고, 여자는 1,205만 6천명으로 19만 2천명(-1.6%)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경제활동 참가율은 62.7%로 전년동월대비 0.9%p 하락하였는데, 성별로 보면 남자는 72.8%로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하였고, 여자는 52.9%로 1.2%p 하락하였으며, 연령계층별로 보면 60세 이상(0.9%p)에서 상승하였으나, 20대(-2.7%p), 40대(-1.2%p), 30대(-1.0%p), 50대(-1.0%p) 등에서 하락하였다는 점이다(통계청, 2020). 즉 경제활동인구의 절대 인구수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도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고용 침체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의 일과 삶에 대한 실태는 정책적 수단과 대안을 제안하는데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지난 5년간의 연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차년도(2016년) 연구는 청년들의 생활전반에 대한 핵심지표를 개발하고 실태

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진단하고 종합적으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년들의 생활 전반에 대한 핵심지표를 개발하고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5개년 연구의 첫 번째 연구로서 청년들의 일과 삶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개발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삶의 모습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2차년도(2017년) 연구는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진단하고 부가조사(special module) 형태로 청년 니트(NEET)와 사회적응에 관한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2017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년도 연구부터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로 승인받아 추진하였으며 또한 이때부터 부가조사로서 청년 현안에 대해 설문조사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심층적인 주제를 함께 조사하여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3차년도(2018년) 연구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파악하고 신규졸업(예정)자에 대한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때부터 전년도 실태조사 데이터를 공개하여 청년 현안과 주제를 중심으로 한 심층분석 연구를 추가하여 실시하였다. 4차년도(2019) 연구는 2019년 한국 청년들의 일과 삶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청년의 사회적·정치적 참여에 대한 심층면담을 부가조사로 실시하였고, 전년도 공개데이터에 대한 심층분석 연구를 병행하였다. 그리고 5차년도(2020년)인 금년 연구에서는 2020년 한국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조사와 함께 청년 주거의식에 대한 심층면담조사를 부가조사로 실시하고 전년도 실태조사 데이터에 대한 심층분석 연구를 실시하였다.2).

지난 5개년 연구의 구조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당해 연도 우리사회 청년들의 일과 삶에 대해 사회 및 경제의 핵심지표를 통해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제시하고 주요 청년 문제 및 현안에 대해서 심층면담조사를 통해 부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2) 1차년도 연구부터 지난 5개년 연구의 주요목적과 추진내용을 요약 제시함.

전년도 실태조사 공개 데이터에 대한 주제별 분석연구를 병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분석결과들을 근거로 청년정책의 비전과 정책방향, 구체적인 정책과제의 추진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즉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청년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 나름의 정책과제를 제안해 왔다.

금년도 연구는 지난 4년 동안의 연차별 연구와 청년에 대한 조사대상 연령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1차년도부터 작년 4차년도까지 연구에서는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을 만15세-39세로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만18세-34세로 수정하였다. 연차별 비교분석을 하는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 연령대를 5차년도 연구에서 변경한 이유는 청년에 대한 법적 연령이 올해 초에 확정되었기 때문인데, 금년 2월 국회에서는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여 법령상 청년을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작년까지 연구에서 조사대상을 만15세-39세로 했던 이유는 청년 연령에 대한 법적 정의가 제정되기 전까지 연령 하단의 경우 근로청소년의 연령을 감안하고 연령 상단은 일본 등 타국가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법적 연령을 고려하여 포괄성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정책연구로서 본 연구는 제정된 법정 연령에 맞춰 조사대상 연령범위를 수정하였다. 다만 연령하단을 현행 법적 연령하단인 만 19세가 아닌 만 18세로 한 것은 청년기본법을 선거권 연령인 만 18세로 수정하려는 정부의 최근 동향을 고려하여, 금년도 청년 연령에 대한 청년기본법의 개정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금년도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우리사회 청년의 일과 삶의 전반을 조사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에 있다.<sup>3)</sup>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살펴보면 첫째, 연차별 연구의 공통적인 연구목적으로 2020년 한국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취업과 경제생활,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 그리고 교육, 가치관, 신체 및 정신건강, 주거, 결혼,

---

3) 본 연구는 연차별 실태조사 연구의 5년차 연구로서 주요 연구목적은 1, 2, 3, 4차년도와 동일함.

양육, 출산, 문화생활 등 청년의 삶을 둘러싼 사회·경제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제시하는 것이다(김형주, 연보라, 유설희, 배진우, 2019; 김형주, 임지연, 유설희, 배진우, 2018; 김기현, 이윤주, 유설희, 배진우, 2017). 둘째, 청년들의 주거의식과 주거문제에 대해서 심층면담조사를 통해 그 현황과 의식, 그리고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셋째, 전년도 실태조사 공개데이터를 중심으로 청년의 현안 주제를 선정하여 심층분석 연구를 하는 것이다. 넷째, 조사된 결과를 근거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김형주 외, 2019; 김형주 외, 2018).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근거 기반의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함으로써 우리사회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 2. 연차별 연구추진경과

본 연구는 2016년 1차년도 연구를 시작으로 2020년 금년도까지 총 5개년 연구 계획에 따라 진행되어 왔으며 금년도는 마지막 5차년도 연구로서 지난 5년 동안 연차별 주요 연구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1차년도 (2016년)</b>	목적	• 청년들의 생활전반에 대한 핵심지표를 개발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진단하고 종합적으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내용	• 청년들의 생활 전반에 대한 핵심지표 개발 •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 핵심지표 결과를 토대로 정책방향과 과제 도출
	방법	• 문헌연구, 실태조사, 전문가 델파이조사, 2차 분석
<b>2차년도 (2017년)</b>	목적	• 2017년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진단하고 부가조사(special module) 형태로 청년 니트(NEET)와 사회적응에 관한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청년 니트와 사회적응에 대한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내용	• 2017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 통계청 승인통계 추진 및 표본을 변경, 청년 니트와 사회적응에 대한 부가조사 실시 •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 및 니트와 사회적응에 대한 정책방향과 과제 도출
	방법	• 문헌연구, 실태조사, 전문가 델파이조사, 2차 분석
<b>3차년도 (2018년)</b>	목적	• 2018년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진단하고 부가조사(special module) 형태로 신규출업(예정)자에 관한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청년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내용	• 2018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 2018년 학교 신규출업(예정)자에 대한 부가조사 실시 및 분석 • 청년에 대한 정책방향과 과제 도출 • 2017년 조사 자료 공개
	방법	• 문헌연구, 실태조사, 2차 분석, 심층면담조사
<b>4차년도 (2019년)</b>	목적	• 2019년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진단하고 부가조사(special module) 형태로 청년 참여에 관한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청년 참여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내용	•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 2019년 청년 참여 실태에 관한 부가조사 실시 및 분석 • 청년에 대한 정책방향과 과제 도출 • 2017년~2018년 조사 자료 공개
	방법	• 문헌연구, 실태조사, 2차 분석, 심층면담조사
<b>5차년도 (2020년)</b>	목적	• 2020년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진단하고 부가조사(special module) 형태로 청년 주거의식에 관한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청년 주거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내용	•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 2020년 청년 주거의식에 관한 부가조사 실시 및 분석 • 청년에 대한 정책방향과 과제 도출 • 2017년~2019년 조사 자료 공개
	방법	• 문헌연구, 실태조사, 2차 분석, 심층면담조사

\* 출처: 김형주 외(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p.8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함.

그림 1-3. 연차별 연구추진경과

### 3. 연구내용<sup>4)</sup>

5개년 연구 중 마지막 5차년도 연구에 해당하는 금년도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관련 연구동향, 정책 및 법률 현황에 대한 고찰로서 정책대상으로서 청년 연령에 대한 다양한 논의 및 청년 주거의식 등 청년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기본정책 수립 및 청년정책사업 추진현황과 더불어 청년관련 국회의 정부입법, 의원입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발의 및 제정 현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해외 주요국을 중심으로 최근 청년정책의 추진사례와 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2020년 한국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에 대한 조사이다. 우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실태조사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한 청년 핵심지표를 토대로 조사한다. 청년 사회·경제 실태 핵심지표는 ① 인구나 가족, ② 교육과 훈련, ③ 경제와 고용, ④ 주거, ⑤ 건강, ⑥ 문화와 가치관, ⑦ 관계와 참여 등 7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청년 핵심지표는 금년 실시되는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 파악할 지표들과 기존에 발표된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등 2차 자료를 분석하여 제시하는 지표들을 포괄한다(김형주 외, 2019).

모집단은 전년도(만 15세~39세)와 달리 금년초 제정된 청년기본법의 청년에 대한 법적 정의에 부합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의 일반 국민이며 표본설계는 가구 단위 표집이다. 최신의 표본 틀을 활용하기 위해 표본설계 시점에서 확보할 수 있는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리스트를 표본틀로 활용할 예정이다. 목표 표본 수는 3,500명 내외이고 총 3단계의 층화 과정을 거쳤다. 먼저 7개 특별광역시와 9개 도 지역으로 1단 층화하고, 9개 도 지역에

---

4) 본 연구는 연차별 연구의 4차년도 연구로서 연구내용 중 연차별로 주제를 달리 정하는 셋째 부가조사를 제외하고 첫째 정책동향 파악, 둘째 당해연도 실태조사, 넷째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 다섯째 정책제언으로 구성되는 기본적인 연구내용의 틀은 연차별 연구 모두 동일함

대해서는 동부와 읍·면부로 2단 세부 층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대단히 크고, 지역적으로 넓어 표본의 지역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각각 4개 권역(북동, 남동, 남서, 북서)과 3개 권역(북부, 중부, 남부)으로 3단 세부 층화하였다. 예비조사는 5월 중에, 본 조사는 조사기준일인 2020년 6월 이후부터 실시하였다.

표 1-1 청년 사회·경제실태 지표체계

구 분	분 류
인구와 가족	청년층 인구수(1-1-1), 혼인율(1-2-1), 초혼 연령(1-2-2) 등
교육과 훈련	진학률(2-1-1), 대학생 학업중단율(2-1-7), 취업 준비(2-2-5) 등
경제와 고용	경제활동 참여율(3-1-1), 청년 중소기업 취업 의향 및 비취업 이유(3-1-10), 청년부채(3-2-5) 등
주거	청년층 주거형태(4-1-1), 청년 1인 가구 비율(4-1-4), 청년층 주거 빈곤 규모(4-2-1) 등
건강	스트레스(5-1-3), 우울증(5-1-4), 청년 병원 이용(5-2-1) 등
문화와 가치관	문화 및 여가생활 시간(6-1-2), 주관적 계층의식(6-2-3), 공정성에 대한 인식(6-2-4) 등
관계와 참여	사회적 관계망(7-1-1), 세대갈등(7-1-5), 의견 표명 경험(7-2-6) 등

\* 출처: 김형주 외(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p.10.

셋째, 청년 주거의식에 대한 부가조사이다. 2017년부터 본조사와 더불어 설문조사 보다는 깊이 있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청년 현안을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부가조사(special module)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청년 주거의식에 대한 심층면담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는 청년들의 경제생활에서 소득의 상당액을 주거에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대처현황, 의식 및 향후전망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하고자 하였다.

넷째, 전년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데이터에 대한 주제별 분석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도에 통계청 승인을 획득한 이후 해마다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별도로 추진하는 주제별 분석연구는 전년도 데이터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제별 정책적 시사점과 더불어 데이터에 대한 학술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섯째, 연구의 결론 부분으로서 청년정책의 비전과 정책방향, 그리고 정책과제에 대한 제언이다. 금년도 연구에서의 문헌고찰, 해외사례,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 심층면담조사 결과, 전년도 공개데이터 분석연구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 4. 연구방법<sup>5)</sup>

5차년도인 금년도 연구에서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 조사연구, 2차 자료 분석, 질적 연구,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로서 청년의 개념과 청년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청년들의 일과 삶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및 청년사업의 동향 분석, 청년에 관한 법제도 입안 및 제정 현황 고찰, 청년에 대한 국가·사회적인 지원에 대한 해외 사례 분석 등이다.

둘째,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로서 연구의 기본방향, 청년 핵심지표, 설문조사 항목 등에 대한 청년연구자 및 동 분야 전문가의 검토, 청년정책 관련 자문회의, 국내외 사례 관련 유관기관 협의회 등이다.

셋째, 조사연구로서 2020년 한국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

5) 본 연구는 연차별 연구의 5차년도 연구로서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 조사연구, 2차 자료 분석, 심층면담조사를 통한 질적 연구, 공개데이터에 대한 분석적 연구, 정책협의회 등으로 구성되는 기본적인 연구방법의 틀은 연차별 연구 모두 동일함

전국 17개 시·도 만18세-34세의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청년 3,500명 내외를 대상으로(최종 3,520표본 수집됨)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표본 추출 틀로 활용하여 가구단위 개별방문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를 실시한다.

넷째, 2차 자료 분석으로서 청년 핵심지표 중 설문에 의한 전국단위 직접조사와 더불어 통계청 통계자료 및 행정통계 등에 대한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청년 핵심지표의 실태를 제시하고 있다. 금년까지 새로 발표된 기존 공인 통계를 파악하여 핵심지표에 맞게 분석하는 것이다.

다섯째, 질적 연구로서 청년 주거의식에 대한 심층면담조사이다. 금년도 부가조사 주제인 청년의 주거의식에 대해 약 30명 내외의 청년을 대상으로 심층개별면담 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 형식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깊이 있는 현실 상황과 내용, 그리고 의식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여섯째, 정책협의회의 운영으로서 금년도 청년 연구의 방향과 조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그리고 정책방안 도출과 관련하여 정책당국과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 ○ — 제2장 국내외 청년 정책·사업 및 법률 현황

- 1. 청년 개념에 대한 논의
- 2. 청년 관련 선행연구 고찰
- 3. 청년 정책 및 사업 추진 동향
- 4. 청년 관련 법률 현황
- 5. 해외 청년정책 추진 동향



## 1. 청년 개념에 대한 논의<sup>6)</sup>

청년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1차년도 연구에서부터 매 연도의 연구에서 여러 시각의 논의와 쟁점들을 지속적으로 다루어 왔다. 국립국어원(2020)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국어대사전과 한국어기초사전을 중심으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청년이란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어기초사전에서 청년이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 자란 젊은 사람’, 청년기란 ‘신체와 정신이 가장 왕성하게 발달한 20대 전후의 연령대’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유사한 개념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청년과 소년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으며, 한국어기초사전에서 청소년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나이가 십대 정도인 어린 사람’, 청소년기란 ‘아동이 신체적 변화와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성인이 되어 가는 도중의 시기’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전적 정의는 제도권 교육을 통해 많은 국민들의 상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일반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청소년이란 10대를 연상하고 청년이란 20대를 쉽게 연상하게 되는데 그 원인을 제공했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21세기 들어 청년 고용문제가 오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입직연령의 지연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는 청년의 연령범위가 20대에서 30대

6) 이 절은 김형주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초반쯤으로 넓혀져 있을 것이라는 점은 짐작할 수 있다.

또한 2015년에 UN에서 발표한 생애연령기준을 살펴보면 미성년자를 만0세~17세로, 청년의 경우 Youth 혹은 Young People로 표기하면서 만 18세~65세로, 중년을 만66세~79세로, 노년을 만80세~99세로 구분하고 있어서(경향신문, 2017.3.20) 당시 뉴스를 접한 많은 사람들이 놀래기도 했었다. 이러한 생애연령구분에 대한 UN의 입장은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서 구분되는 청년 연령대와 괴리가 큰 편이라 국제적 기준이라 하여 우리가 참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책대상으로서 청년을 정의할 때 법률적으로 청년기 연령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추진 및 예산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2019년까지는 청년에 대한 기본 법령이 제정되기 전이라 각 분야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부 법령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연령범위가 상이했던 것이 사실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고용정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15세~29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서는 15세~34세,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3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금년 초에 제정된 청년기본법(법률 제16956호, 2020.2.4. 제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법 제3조에서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아이러니한 점은 청년 정의의 연령 하단을 애초 선거권 연령인 만 18세로 하려고 했으나 여야의 합의가 되지 않아 상호 합의가 되는 만 19세로 정하였지만 본회의에 같이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에서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바람에 청년 연령의 하단과 선거권 연령의 하단이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원래 청년기본법 발의 초기 취지에 맞추어 청년 연령의 하단을 선거권 연령의 하단과 같은 만 18세로 한 살 낮추기 위한 노력을 다시 기울이고 있다.

표 II-1 청년 관련 법령 상 청년의 범위

법령명	청년 정의	주요 내용	비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15세 ~ 29세 (15세 ~ 34세)	취업지원 및 공공기관 고용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법 시행령 2조 개정 (공공기관에 대해 34세로 확대) 2013.10.30.</li> <li>• 동법 시행령 8조의2 신설 (30 ~ 34세로 지원대상 확대) 2016.09.13.</li> </ul>
고용정책 기본법	15세 ~ 29세 (15세 ~ 34세)	청년 고용촉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정의를 준용
조세특례 제한법	15세 ~ 29세 (병역이행 시 최대 35세)	청년고용기업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법 시행령 23조4항 개정 (청년 정의 포함) 2010.12.30.</li> <li>• 동법 시행령 23조8항 개정 (동법 27조1항에 따른 병역을 이행한 경우 6년 한도 내에서 현재 연령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연령 적용) 2014.02.21</li> </ul>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15세 ~ 34세	중소기업 취업촉진을 위한 고용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법 12조1항 개정 (중년 29세에서 34세로 연령범위 확대) 2017.01.17</li> </ul>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 39세	청년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법 시행령 6조의2 신설 (청년 범위를 39세까지로 정의) 2017.05.29</li> </ul>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39세	청년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법 시행령 5조의4 신설 (청년창업자 범위를 39세까지로 정의) 2015.05.01</li> </ul>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2018).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p.12 재인용.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 청년의 연령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청년들은 평균 19.5세에서 32.3세 사이를 청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하한 연령은 19세에서 큰 변동이 없으나 상한 연령의 경우에는 2016년 29.5세에서 2019년 32.3세로 점점 높아지는 추이를 보였다

(김형주 외, 2019). 이는 사회적 정착의 시기가 지속적인 고용난으로 인해 늦춰지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감이 확산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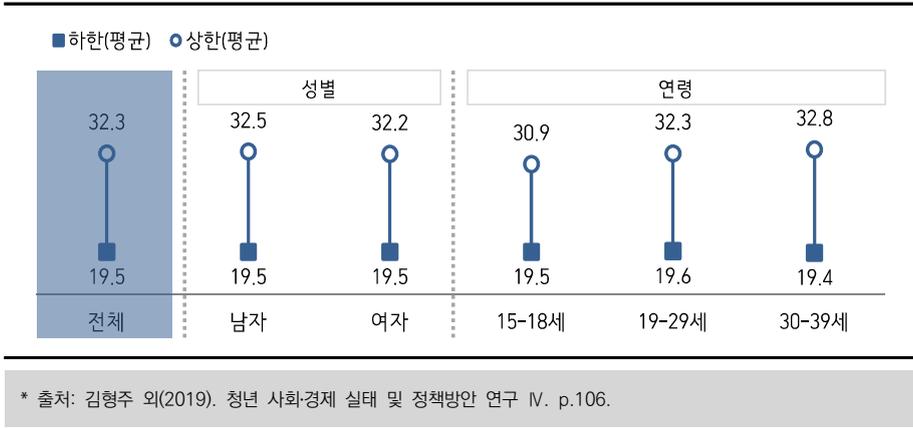


그림 II-1. 청년 연령규정(2019년 실태조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를 통해 청년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청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 연령을 정의해 두고 있는데, 이와 같은 조례 제정은 대부분의 시도가 청년들의 사회참여 및 교류, 자립기반 조성, 일자리 문제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상에서 청년 연령은 서울, 울산, 세종, 경기의 경우는 15세-29세로, 부산, 인천, 강원, 충남의 경우는 18세-34세로, 대구, 광주, 대전의 경우는 19세-39세로, 충북, 경북의 경우는 15세-39세로, 전북, 전남은 18세-39세로, 경남, 제주는 19세-34세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울, 인천, 울산, 세종, 경기의 경우는 적용하는 조례의 내용에 따라 부분적으로 연령범위를 좀 더 넓게 확장하고 있다.

표 II-2 청년 관련 지방자치단체(광역시) 청년기본조례상 청년의 범위

지역	청년 연령 정의	조례 제정 목적	조례 제정일
서울	15세~29세 (15세~34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	2015.01.02.
부산	18세~34세	사회,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자립 기반을 마련	2017.05.31.
대구	19세~39세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형성	2015.12.30.
인천	18세~34세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2017.06.05.
	19세~39세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 마련	2016.06.07.
광주	19세~39세	사회참여 보장, 청년정책개발, 청년 자립기반 형성	2015.12.28.
대전	19세~39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016.10.20.
울산	15세~29세 (15세~34세)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의 보장 및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017.04.27.
세종	15세~29세 (15세~34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016.12.20.
경기	15세~29세 (15세~34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016.01.01.
강원	18세~34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	2017.11.03.
충북	15세~39세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에서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자립의 기반을 마련	2016.05.24.
충남	18세~34세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와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기반을 형성	2016.02.22.
전북	18세~39세	사회참여 보장, 청년정책개발, 자립기반 형성	2017.04.14.
전남	18세~39세	사회참여기회 보장 및 권익증진, 자립기반 마련	2015.07.23.
경북	15세~39세	사회참여 보장, 청년정책개발,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사항	2017.12.28.
경남	19세~34세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	2016.12.10.
제주	19세~34세	능동적인 사회참여, 청년 간 교류확대 및 자립기반 형성	2016.09.23.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2018).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p.14 재인용(표 일부내용 수정함).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 연령을 규정하는 것은 정책의 범위, 예산의 가용성, 정책 추진주체의 관리 범위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우리 사회가 어느 연령대까지 국가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지원 가능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는 장기 불황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청년의 법적 연령 상단을 39세까지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년 초 청년기본법 제정을 통해 청년 정의를 만19세-34세로 규정하고 청년정책을 통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금년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청년의 삶이 다시금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청년들이 이런 시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여 사회적 정착의 단계로 이전되는 시기가 그 이전 연령대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는 당면 현실을 고려할 때 정책적 지원의 법적 연령 상단을 좀 더 넓게 잡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 2. 청년 관련 선행연구 고찰<sup>7)</sup>

근래에 청년들의 고용과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절에서는 최근에 수행된 청년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인구와 가족, 교육과 훈련, 경제와 고용, 주거, 건강, 문화와 가치관, 관계와 참여 등의 주제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 1) 인구와 가족

청년 인구와 가족을 주제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지역사회 내 청년 인구 감소, 청년 1인 가구, 독립, 결혼과 출산 등의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 내 인구가 감소하면서 이는 지역 간 인구의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고 있는데, 청년들이 대학진학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의 경우에는

---

7) 이 절은 연보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청년 인구가 지속해서 이탈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김준영, 2019).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청년들의 정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청년 이주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지방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이상욱, 권철우, 2019).

청년 가구와 관련해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현황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최효미, 김지현, 2018), 청년들이 독립을 선택하게 되는 요인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지고 있다(고원식, 김대일, 2019). 고원식 외(2019)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이 1인 가구를 선택하게 되는 원인을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이론이 예측하는 방향으로 청년층의 1인 가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가구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향후 청년층의 1인 가구로의 독립은 더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고원식 외, 2019).

또한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과 관련한 연구들도 수행되고 있다(e.g. 주휘정, 김민석, 2018, 최지훈, 안선희, 2017, 최효미, 2017, 호정화, 2014). 예컨대, 청년층의 결혼 이행이나 출산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한편, 가치관의 측면에서 결혼 가치관이나 자녀 가치관에 대한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최근 청년층의 결혼 가치관은 탈전통화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호정화, 2014), 성별에 따라 청년들의 결혼 가치관에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가치관은 향후 출산의향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최지훈 외, 2017).

## 2) 교육과 훈련

다음으로 청년의 노동성가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서 교육과 훈련에 주목한 연구들도 다수 수행되었다. 과거와 비교해 청년들의 교육과 훈련 참여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강순희, 2018). 이는 대학이나 고용지원기관의 취업 준비 관련 프로그램

들이 체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해당 프로그램들을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실제로 이러한 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과 훈련들이 청년들의 구직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순희, 2018, 김종욱, 2019). 아울러 직업교육에서 기업의 참여 및 직업훈련, 재진입 정책 등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이 청년의 고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장효진, 2017).

한편, 교육과 전공과 상관없는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연구도 지속해서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청년들의 하양 취업 비율은 과거보다 줄어든 반면, 상향취업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최문석, 송일호, 2019). 또한 직업훈련이나 교육 경험을 받은 청년들이 자신이 가진 스킬보다 상향취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지원, 2018).

최근에는 노동시장 이행이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 훈련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취업준비생인 청년 자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이 일자리나 고용에서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김도균, 2018). 그리하여 취업준비생(취준생)의 경험이나, 심리 정서적 특성, 정책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e.g. 김민영, 장원섭, 2017, 윤초롱, 이자명, 2018, 조영림, 문승현, 2017, 최은희, 2018).

아울러 청년창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각 대학에서는 청년창업에 대한 교육과정 개설, 창업동아리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김민정, 김숙희, 이동현, 성백춘, 2019). 이러한 맥락에서 실제 대학교 창업 교육이 청년창업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김민정 외(201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청년들은 창업을 위한 관심도가 저조하고, 자신과는 상관이 없어서 창업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단순한 획일적인 창업 교육의 확산보다는 창업에 대한 인식이나 필요성 공감의 우선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근래에는 청년실업자 중에서도 특히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취약 청소년·청년에 주목한 연구들도 수행되고 있다(박은하, 2018). 또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교육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년 여성의 관점에서 기존 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직업훈련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남혜명, 2018, 신선미, 김영옥, 김종숙, 안준기, 2017).

### 3) 경제와 고용

청년 세대의 경제, 고용 분야에 대한 연구들은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연구주제 또한 청년 고용, 실업, 정책, 니트, 빈곤, 채무 등 관련 연구들이 매우 다양한 편이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청년의 불안정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노동시장의 청년 문제는 비단 청년의 문제뿐 아니라 한국 사회 내 노동자 계층의 문제일 수 있는데(이정아, 김수현, 2017), 청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양극화되는 경향을 보인다(이승윤, 백승호, 김미경, 김윤영, 2017). 특히, 청년층 비정규직 고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고용 형태가 향후 정규직 고용으로 이행하는 징검다리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지속해서 비정규직에 머무르는 틈으로 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최요한, 2018).

청년 실업에 대한 관련 연구들도 다수 수행되고 있는데, 특히, 대졸자나 고학력 청년 실업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김안정, 2017). 이는 일차적으로 한국 노동시장 일자리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이정아, 2019), 세부적으로 성별, 교육계열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에 차이가 존재한다(유정미, 2017, 한국노동연구원, 2017). 일각에서는 이러한 청년 실업 등의 문제를 세대론적 차원을 넘어 계급적 차원과의 연관 속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정수남, 김정환, 2017).

이처럼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구직기간이 길어지면서 근래에 취업준비생에 대한 연구들도 다수 수행되고 있다. 취업준비생의 증가는 경제적 비용뿐 아니라 이들의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 사회적인 손실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장인성, 2019). 그리하여 청년들은 취업 준비 계급으로서 사회정책의 주요한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정우준, 2019).

전술한 맥락에서 청년 고용과 관련한 정책 연구들도 활발히 수행되었는데, 새로운 청년고용전략을 찾거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정책을 도출하고자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e.g. 김민수, 2017, 양승광, 2017, 윤윤규, 2019, 이상아, 이승윤, 2018, 채창균, 2018, 최석현, 김정훈, 김재신, 2018). 그리고 실제 일자리 정책이 청년의 취업과 임금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책효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특정 정책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들도 수행된 바 있다(e.g. 서준교, 김용현, 이성근, 2017, 이정, 2019). 예컨대, 서준교 외(2017)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청년들의 취업과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은 확인되었으나, 두 효과 모두를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청년층이 중장년층보다 경제활동 참여나 취업 지위 이탈 확률이 크게 나타나 일자리 부족 문제에서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이정, 2019).

또한 청년 니트(NEET)족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해서 이어오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 니트의 비율은 2014년 이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김형주 외, 2019), 청년 니트(NEET)족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청년 니트의 특징과 변화에 대한 고찰이나(김종욱, 2017, 이지민, 2017), 청년 니트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박미희, 2017) 및 청년 핵심정책 대상으로서 청년 니트에 주목하여 정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김기현, 배상률, 성재민, 배진우, 2018).

경제적 측면에서 청년들의 채무나 연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가령, 청년들이 채무를 보유하게 되는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청년 채무의 가장 큰 비중은 학자금 대출로서 이후 주택 관련 채무와 기타 채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정민, 이기원, 하은솔, 2018). 또한 청년들의 채무, 특히 학자금 대출은 이후 청년들의 혼인 이행 가능성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채무가 청년들의 생애주기 과정에서 혼인, 독립, 출산 등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배호중, 한창근, 2018). 청년 채무의 증가와 함께 청년 연체자도 급증하고 있는데, 청년 연체 규모 및 결정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청년 부채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장동호, 2018).

이 외에도 청년들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면서 청년 빈곤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 의식을 토대로 관련 연구들도 수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논의되는 소득보장 관련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다소 상이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예컨대, 소득보장정책의 청년층 빈곤 감소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김안나, 홍연우, 2018)가 있지만, 청년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소득분배나 빈곤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이승주, 2019).

#### 4) 주거

청년 주거와 관련하여 최근에 발표된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청년 주거 실태에 관한 연구와 청년 당사자들의 주거에 대한 의식이나 요구에 대한 연구, 주거 정책 및 법제에 관한 연구들도 대별해 볼 수 있다. 먼저, 청년 주거 실태와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에서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하는 상황에서 소형 주택이나 저렴한 주택은 부족하고, 전세에서 월세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인해 다른 세대에 비해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공통으로 지적해 왔다(이태진, 우선희, 최준영,

2017; 이수욱, 2016). 이에 청년 세대를 주거 취약계층, 주거 빈곤계층, 주거 불안계층 등의 개념으로 분류하여 수행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또한 주거는 단순히 물리적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요인과의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 박탈을 생리적, 정신적, 사회적 주거 박탈의 경험으로 확장하기도 한다(이봉조, 2019). 한편,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경제적 부담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주거 빈곤은 향후 장년, 노년기의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한국행정연구원, 2018), 청년들의 주거 특성은 결혼 의향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변수정, 조성호, 이지혜, 2018). 따라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단순한 주거만의 문제라기보다 향후 청년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 양상은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변수정 외, 2018), 최근에는 청년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조망한 연구들도 수행되고 있다. 가령, 빈곤 청년이나(최상미, 유효은, 김한성, 2019), 여성 청년(권민지, 2018)의 주거 문제에 대한 연구들이 그것이다. 또한 월세와 전세, 자가로 이어지는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이동은 과거보다 부모의 경제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이소영, 이창무, 2019),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년들의 주거 격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청년들의 주거 의식이나 요구에 대한 연구들도 수행되어 왔는데, 1인 가구나 특정 사안에 대한 인식조사로 대부분 국한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청년들의 주거 의식이나 요구에 대한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청년 당사자 입장에서 이들의 삶의 방식이나 요구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초자료로서 관련 연구들이 다수 수행될 필요가 있다. 몇몇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최근 청년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을 토대로 청년 1인 가구의 정확한 주거 요구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eg. 이소영, 엄순철, 2018; 임준형, 최인영, 박혜경,

2019). 또한 세대 맞춤형 공간계획을 제안하기 위하여 50플러스 세대와 청년 세대의 주거 의식과 요구를 비교 분석한 연구도 수행되었는데, 집에 대한 소유의식은 모든 세대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주거 결정요인이나 주거 요구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은선, 노현신, 김수경, 2018; 2-4). 한편 청년층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는 없으나, 청약통장의 유무나 현재 살고 있는 (주거)유형에 따라 인식이나 견해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수정, 권오정, 2016).

다음으로 주거 정책이나 법제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청년정책의 전반적인 수립을 위한 연구에서 주거 부분을 다루거나(한국행정연구원, 2018),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주거복지의 주요 대상자로서 청년이 포함된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손현, 2019). 또한 빈곤이나(이태진, 김태완, 정의철, 최은영, 임덕영, 윤여선, 최준영, 우선희, 2016) 1인 청년 가구(박미선, 강미나, 임상연, 유은영, 오주형, 2017) 등 특정 집단의 청년 주거 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도 있었다. 청년주거 운영방식에 대한 유형별 연구도 수행되었는데, 가령 협동조합이나 사회주택, 공유주택 등 청년 거주자의 유형별 사례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이영범, 유해연, 2018). 특히, 최근에도 공유주택에 대한 연구들은 다수 수행되고 있는데(e.g. 김소라, 남해경, 2019, 심미승, 박지현, 2019, 유수진, 조희선, 2019), 이는 청년층의 주거복지의 대안으로서 셰어하우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연구들이 지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 5) 건강

청년 건강에 대한 최신의 연구들은 주로 심리, 정서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근래에 청년들의 심리·정서 건강 상태의 급격한 악화된 것으로 보고되면서(김지경, 이윤주, 이민정, 2017), 이러한 청년들의 심리·정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대책 마련에 요구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심리·정서의

문제는 주로 고용상황의 악화로 인해 취업 준비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불신 등으로 거론되는데, 청년이라 하더라도 재학, 미취업, 취업 등의 현재 상황에 따라 심리·정서 문제에 격차가 존재할 수 있으며, 현재 상태별 분석 결과 미취업 집단이 취약하고 특히, 구직 미취업자와 비정규직 취업자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지경 외, 2017).

이와 유사하게 최은희(2018)의 연구 결과에서도 미취업청년의 구직불안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이며, 미취업자들이 취업자보다 우울 경험이나 자살 생각, 자살 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취업 스트레스는 청년들의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키고(장용언, 황명주, 2018),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정지혜, 양수진, 2019). 그리하여 심각하게는 취업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결국 자살에 대한 생각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황명주, 장용언, 2017). 이 밖에 청년 가구 형태에 따른 정신건강과 생활만족도를 비교한 연구와(김세영, 2018) 결혼과 부모 지위가 변화함에 따라 청년 여성의 건강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이윤주, 2019).

## 6) 문화와 가치관

청년 문화나 여가생활에 대한 연구는 다른 영역에 비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못하였다. 일부 연구를 살펴보면 워라벨 세대로도 불리는 청년 세대의 특성과 여가생활의 현황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워라벨 세대는 대체로 긴 여가시간과 적은 경제활동의 특징을 지니며, 상용직의 경우 이러한 여가생활이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민경선, 2018). 이와 유사하게 청년들의 문화 향유가 청년들의 행복감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유 유형별로 일부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 외에 청년들의 여행 경험을 분석하거나(이수현, 2019), 최근 지자체별로

청년문화 공간이 설립되고 있는데, 이러한 청년 문화공간과 관련된 연구들도 수행된 바 있다(김선희, 남경숙, 2020, 이흥경, 2017).

청년의 가치관과 관련해서는 계층의식이나 공정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결혼, 출산, 가족, 성역할 등에 대한 가치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년의 주관적 계층 인식은 전반적으로 하향화 추세를 보이는데, 이러한 계층인식이 청년의 공정성 인식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희정, 2018). 이희정(2018)에 따르면 공정성 인식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존적인 특성을 보이며, 계층 인식이 하향화가 지속될수록 청년들의 공정성 인식이 악화될 수 있음을 전망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 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에는 차이가 존재하는데, 청년의 경제적 지위가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용희, 한창근, 2019). 가령, 가구순자산이 많을수록 한국 사회에 대한 낙관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김용희 외, 2019). 한편, 한국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민주화 수준에 대한 평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전망 등이 결혼·출산에 대한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진미정, 한준, 노신애, 2019).

청년 세대의 가족개념과 가치관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과거보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더욱 수용적인 모습을 보이고, 전통적 가족주의 이념 및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거부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계숙, 강민지, 윤지은, 2018). 이러한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에 대응하여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화된 가족복지 욕구에 대하여 다각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배나래, 소권섭, 2019). 이 외에도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학업 종료, 취업, 결혼, 부모 됨 등 지위의 변화에 따라 성역할 태도도 일부 변화가 발생하는데, 청년 여성의 경우 전통적 성역할 수행 의지의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변화의 폭은 남성보다 크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이윤주, 2018).

## 7) 관계와 참여

청년들의 관계와 참여와 관련해서는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는 일부 진행되었으나, 심도 있는 연구나 논의는 부족한 편이다. 통계청 ‘사회조사’와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의 ‘한국종합사회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청년들의 사회·정치 참여에 대한 조사들이 이루어졌는데, 주로 전통적, 공적 영역에서의 참여 활동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김정숙, 강영배, 2017), 심층적인 분석이나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점을 지닌다.

청년들의 관계와 참여를 주제로 수행된 일부 연구를 살펴보면, 청년들의 사회활동에 대한 실태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김정숙 외, 2017)를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사회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전체 조사자 중 21.9%가 사회활동에 비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이유로는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시간이 부족해서, 관계 형성이나 활동비의 부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김정숙 외, 2017). 그리고 이러한 사회활동 참여는 종사자 지위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였는데(김정숙 외, 2017),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청년들의 사회활동에도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 현황은 열악한데,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의 비중은 매우 극소수로서 근래에는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김형주 외, 2019). 오세제(2018)는 청년 정치를 가장 주변화 된 ‘아웃사이더’로 평가하는데, 선거 때마다 청년층의 표심과 당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청년 공천을 내세우나, 실제 선출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오세제, 2018). 김형주 외(2019) 연구에서는 청년의 정치·사회 참여에 대한 심층분석을 수행한 바 있는데, 청년 참여의 의미와 관련해서 청년들은 이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라는 인식이 높았고, 새로운 세대로서 청년의 정치·사회 참여가 향후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었다(김형주 외, 2019). 그리고 이러한 청년 참여에는

다층적 층위가 존재할 수 있으며, 청년들의 대다수는 ‘비참여’ 집단이거나 ‘개인적 참여’ 집단으로 나타났고, ‘소극적 참여’와 ‘적극적 참여’ 집단은 매우 일부로서, 이러한 참여 유형에 따라 정책적 욕구에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김형주 외, 2019). 그리하여 조직/단체 수준의 집단적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활동가는 전체 청년의 극소수로서, 이는 청년들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김형주 외, 2019).

## 8) 선행연구 고찰의 시사점

청년들의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주거, 건강, 문화, 관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선행연구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최근 수행된 청년 관련 선행연구를 영역별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전보다는 청년들의 삶 전반에 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와 고용 분야와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고 있으며, 그 외에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분야에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들의 삶 전반의 문제가 핵심적으로는 청년들의 고용이나 일자리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수많은 정책이 쏟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청년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다. 이에 적실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청년 주거, 문화와 가치관, 관계 및 참여 등의 연구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가령,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청년들의 주거 의식이나 요구에 대한 연구들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 당사자적 입장에서 청년들의 삶의 방식이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영역에서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어 청년의 삶의 다각적인 측면을 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 관련 연구를 살펴본 결과, 대다수 연구에서 현재 또는 특정 시점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었다. 그리하여 청년들의 삶의 변화를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변화의 원인이나 결과 등의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연구들도 드물었다. 우선적으로 청년 대상의 시계열 자료나 패널 자료들이 지속해서 축적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과거와 현재 청년들의 삶에 대한 비교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청소년에서부터 청년, 장년까지의 이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상 연구의 한계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주로 청년 세대의 특성에 대한 연구들은 청년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석한 측면이 있다. 이는 연구의 결과가 청년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일반적인 한국사회의 문제나 한국인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 가운데 세대별 특성에 대한 비교 연구는 많지 않았는데, 청년 세대의 고유한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세대와의 비교 연구들이 함께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청년 세대를 단일 집단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연구는 다수 수행되었으나, 청년 세대 내 다양한 층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적인 청년 세대의 담론뿐 아니라 성별이나 지역, 사회경제적 배경 등에 따른 특수성이나 개별성을 고려한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반적으로 청년 세대는 고용이나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간주하는데, 더욱 세밀하고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청년 세대를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 집단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청년 정책 및 사업 추진 동향<sup>8)</sup>

청년기본법에서의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이다(청년기본법 제3조 4). 여기에서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동법 제3조 2). 이를 종합하면,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청년기본법은 2020년 2월 제정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이어져온 높은 청년 실업률, 낮은 혼인율 및 출산율 등 청년을 둘러싼 사회지표의 변화로 인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정책들이 시행되어 왔다. 2017년 5월 청년 일자리정책을 조정·심의회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청년 일자리 대책(관계부처합동, 2018a)’,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관계부처합동, 2017)’,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관계부처합동, 2018b)’,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관계부처합동, 2019)’ 등의 청년대책들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 주거, 교육 등과 관련된 정책들이 폭넓게 시행되었다.

2020년 3월 정부는 ‘제1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 2020a)’을 발표하여 향후 청년정책의 추진방향과 5개 분야별(생활지원 분야, 참여·권리 분야, 일자리분야, 주거분야, 교육분야) 주요 개선과제 34개를 도출하였다. 이후 2020년 8월 청년기본법이 시행되었으며, 2020년 9월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 2020b)’를 발표하였다.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서는 5개 분야별 43개 과제를 발표하였다. 2021년 수립될 제 1차 청년정책기본계획(21년~25년)

---

8) 이 절은 배정희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과 청년정책시행계획은 이러한 분야별 개선과제를 바탕으로 청년 삶의 여러 영역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정책들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절에서는 2019-2020년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2020년 3월 및 9월 발표된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따른 주요 청년 정책들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청년 사회경제 실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1)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및 사업

변금선, 김기현, 하형석, 이용해, 배진우, 이민정(2019)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중앙정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청년정책 및 사업들은 아래와 같은 5가지 대분류(① 일자리, ② 교육, ③ 주거, ④ 참여·권리, ⑤ 생활)와 11가지 중분류(① 일자리: 취업지원, 창업지원, ② 교육·훈련: 교육·연수·실습, 교육비 지원, ③ 주거: 주택공급, 주거비 지원, ④ 참여·권리: 참여·활동, 권리, ⑤ 생활: 금융, 소득자산, 건강)로 분류될 수 있다.

표 II-3 청년정책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1. 일자리	1-1. 취업지원
	1-2. 창업지원
2. 교육	2-1. 교육·연수·실습
	2-2. 교육비 지원
3. 주거	3-1. 주택공급
	3-2. 주거비 지원
4. 참여·권리	4-1. 참여·활동
	4-2. 권리
5. 생활	5-1. 금융
	5-2. 소득자산
	5-3. 건강

\* 출처: 변금선 외 (2019).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방안 연구, p.34

변금선 외(2019)는 각 중앙부처에서 제출한 182개 청년정책 사업을 분석하였다. 이 중 일자리 영역 청년정책 사업 수는 전체 청년정책 사업 중 94개로 51.6%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청년정책이 여전히 일자리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은 41개(22.5%), 생활은 17개(9.3%), 참여·권리는 17개(9.3%), 주거는 13개(7.1%)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에서는 위 다섯 가지 대분류에 따라 영역별 주요 청년정책 사업에 대해 살펴본다.

### (1) 청년 일자리 정책

문재인정부 청년 일자리정책의 기본 방향은 2018년 3월 15일 발표된 ‘청년일자리 대책’에 담겨 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은 90년대 이후 심화된 청년실업문제는 기술혁신과 자동화 등으로 인한 사무직·생산직 일자리 감소, 대기업 신규채용 위축, 반도체·조선·자동차 등 기존 주력사업의 고용창출력 둔화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원인이 있다는 인식하에, 청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대응과제를 제시하였다. 청년 일자리 대책의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는 ①취업 청년 소득, 주거, 자산형성 및 고용증대 기업 지원 강화, ②청년 창업 활성화, ③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④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역량강화이다. 개별 분야에 따른 다양한 세부 중점과제들은 주로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벤처부 등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하여 2019-2020년 실시되고 있는 개별 정책·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취업과 관련해서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강화, 대학일자리센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창업과 관련해서는 청년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청년창업기업 세금면제 등의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주관부처는 주로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벤처부이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타 중앙부처에서도 분야별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 II-4 청년 일자리 정책 개별사업 현황

취업관련 정책사업			
고교취업연계장려금	교육부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무능력향상 강화	고용부
고용증대세제(청년 고용 시 공제액 우대)	기재부	중소기업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재부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강화	고용부	중소기업탐방	고용부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	행안부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지원	문체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고용부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7·9급)	인사처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구직활동지원금)	고용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행안부
군 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	국방부	지역중소기업 R&D 산업인턴 지원 사업	중기부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개최 지원	금융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산업부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청년취업 지원	중기부	청년 정규직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지원	고용부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AFLO) 운영	농식품부	청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서비스 지원 지원	보훈처
농업법인 취업지원	농식품부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외교부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부	청년고용우수기업 및 청년기업에 대한 조달우대 강화	조달청
미래유망산업맞춤형훈련	고용부	청년고용지원	고용부
미취업 청년에 대한 단계별·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제공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부
사회적 경제분야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여가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사회진출 지원	병무청
산업계주도청년맞춤형훈련	고용부	청년여성 내일역량 개발 지원	여가부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병무청	청년의 지역안착우도를 위한 지역기업인식개선 및 취업연계 지원	산업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비 지원	산업부	청년장병 진로·취업지원 강화	국방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문체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기부
소년원 출원생 등 위기청소년 사회복귀 지원	법무부	청년취업아카데미	고용부
수산식품 수출 청년개척단	해수부	청년층 건강개선 및 일자리 창출	복지부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청년체험단 운영	중기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고용부
신직업 Making Lab	고용부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미취업 청년해기인력 취업지원 강화)	해수부
연구개발성공의 기업이전 촉진	과기부	청년희망멘토링 프로그램(청년센터)	고용부
예비 예술인 첫 공연 지원	문체부	'청춘마이크' 사업을 통한 청년 문화예술가 지원	문체부

우수벤처기업 공동 채용	중기부	학교밖 청소년 맞춤형 취업지원(내일이룸학교) 여가부	
은행권 일자리펀드 운용 지원	금융위	한국 예술창작 아카데미	문체부
의료제품 전문인력 양성	식약처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항공산업 분야 취업지원 강화	국토부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보훈대상 미등록 경상이자에 대한 취업 지원	보훈처	항공정비인력 양성채용	국토부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과기부	해외건설 청년 일자리창출(해외건설현장 훈련지원 및 해외인프라 청년인턴 파견)	국토부
일반고 특화과정 (일반고 고졸청년 특화형 일자리 안전망 도입)	고용부	해외산림 인턴	산림청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금융위	해외취업지원	고용부
입영 前 병역진로설계 추진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포함)	병무청	해운항만 물류전문 인력 양성 산학연계 지원	해수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교육부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과기부
좋은 일자리 중소기업 플랫폼 (인력유입인프라 조성)	중기부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	과기부

#### 창업관련 정책사업

고속도로 휴게소 청년창업매장 활성화	국토부	창업공간 지원을 위한 희망상가 공급	국토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 Lab	농식품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농식품부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농식품부	청년 예비 창업자 사업화 지원	중기부
대규모 청년창업공간 조성	금융위	청년 창업가 대상 사업화 지원	중기부
대학창업펀드 조성	교육부	청년 콘텐츠기업 투자 펀드	문체부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중기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농진청
스마트팜 창업 지원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농식품부	청년두레(관광두레 청년주민사업체) 지원	문체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운영	농식품부	청년전용창업자금	중기부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농식품부	청년창업기업 대상 세무·회계,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중기부
은행권 청년창업재단(디캠프)을 통한 청년창업 지원	금융위	청년창업기업 대상 우대보증 제공 (청년희망드림보증)	금융위
이공계 대학원생 창업탐색 지원	과기부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중기부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을 통한 청년상인 육성	중기부	청년창업펀드 추가조성	중기부

\* 출처: 변금선 외(2019).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방안 연구. pp.213-215

정부는 2020년 3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청년정책 방안에서 일자리 분야의 주요 정책방향은 크게 ① 취업 및 창업지원 확대, ② 청년 근로보호 강화, ③ 직업훈련 확대, ④ 청년공간 운영 활성화로 볼 수 있다. 취업 및 창업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선,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확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개선, 청년 농업인 영농창업 자금 지원조건 개선 등 현재 실시하고 있는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들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청년 근로보호 강화와 관련해서는 최근 청년층에서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노무형태(예: 프리랜서)에 대해 표준계약서 마련 및 산재보험 적용 등 청년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직업훈련 확대와 관련해서는 기업·협회 등 산업계 맞춤형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직업훈련’ 이 신설된다. 청년 공간 운영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창작활동 공간(메이커 스페이스)의 확대, 오프라인 청년공간 야간·주말 개방 등 운영개편,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개선을 주요 정책 내용으로 한다.

표 II-5 ‘제1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 일자리 분야

추진 전략	중점과제	주요내용	주관 부처
취업· 창업 지원 확대	청년 내일채움공제 개선	<input type="checkbox"/> (현황) 청년들의 중소기업 근속유도를 위한 제도로서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으나 재가입 제한 등 개선 필요성 제기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직장내 괴롭힘으로서 인한 퇴사시에도 재가입 허용, 청년은 적립을 완료하였으나 기업의 적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 해지할 경우 환급하는 정부지원금 상향	고용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확대	<input type="checkbox"/> (현황)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중이나, 지원대상 대폭 확대 필요 있음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지원인원을 19년 20만명(예산 8,907억원)에서 20년 29만명(14,270억원)으로 확대	고용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개선	<input type="checkbox"/> (현황)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저소득 미취업 청년 대상,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구직활동비용 지원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통합하여 ‘졸업 후 2년 이내’ 요건 등 기존 지원요건 재검토	고용부

추진 전략	중점과제	주요내용	주관 부처
	청년 농업인 영농 창업자금 지원 조건 개선	<input type="checkbox"/> (현황) 청년농업인(매년 1600명 선정)의 영농창업자금을 대출 지원 중이나, 영농 초기소득이 불안정하여 대출금 상환 등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input type="checkbox"/> (현행)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개선)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20.1~)	농식품부
청년 근로 보호 강화	새로운 노무 형태에 대한 보호 확대	<input type="checkbox"/> (현황) 청년들이 주로 취업하는 S/W 업계 등에서 프리랜서 등 새로운 노무 제공 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산재보험 등을 통한 보호 제대로 받기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새로운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지속 확대	고용부 교육부
직업 훈련 확대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직업훈련 신설	<input type="checkbox"/> (현황) 직업훈련이 산업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괴리 발생, 청년들은 취업과 직업 연결될 수 있는 훈련을 지속 요청 <input type="checkbox"/> (제도신설) 산업계(기업·협회) 맞춤형으로 교육훈련을 설계·실시하는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신설 ('20.4-)	고용부
청년 공간 운영 활성화	창작활동공간 (메이커 스페이스) 확대	<input type="checkbox"/> (현황) 시제품 제작 등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창작 활동공간(메이커 스페이스)'을 전국 128개소로 운영중이나 부족한 실정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메이커 스페이스 지속 확충 <input type="checkbox"/> ('19) 128개 → ('20) 192개 → ('22) 360여개	중기부
	오프라인 청년공간 운영 개편	<input type="checkbox"/> (현황) 지자체, 민간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공간 200여개 중 야간·주말에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어, 대부분 낮에 일하는 청년들의 이용 곤란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야간·주말에도 개방하도록 적극 권고·유도 ('20.상), 청년센터 지원사업 시행기간을 연장('20→'21)하고, 센터별 성과평가 실시,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부여('20.하)	고용부 국조실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개선	<input type="checkbox"/> (현황)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정부·지자체의 청년정책 안내, 전국 오프라인 청년공간 정보 제공 및 온라인 상담 실시 중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검색·수집·관리 기능 추가, 취업 등 유관기관 사이트 연계, 뉴스·게시판 기능 보강 ('20. 상)	고용부

\* 출처: 관계부처합동 (2020a). 제1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요약 및 정리

이후 정부는 2020년 9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2차 방안에서는 크게 취업지원과 창업지원으로 나누어 창업지원으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취업지원과 관련해서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운영개선,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확대, 청년 지역안

착을 위한 지역기업 인식개선 및 취업연계 확대, 중견기업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확대,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지원 확대, 일학습병행자격 활성화 방안 마련, 청년 내일채움공제 운영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다. 창업지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주도형 창업지원 확대, 이공계 대학원생 창업탐색 지원 확대,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확대, 청년두레 지원 확대, 청년 식품창업 지원 확대, 환경분야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등을 포함한다. 제1차 개선방안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벤처부, 환경부 등 보다 다양한 주무부처가 청년 취·창업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6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 일자리 분야

추진 전략	중점과제	주요내용	주관 부처
취업 지원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확대	<input type="checkbox"/> (현황)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5인 이상)의 사업주에게 근로자 인건비 지원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장려금 지원인원 확대	고용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운영 개선	<input type="checkbox"/> (현황) 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종퇴 후 2년 이내에 평생 1회 지원,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요건인 가구 소득기준은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합산하여 확인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구직활동지원금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로 개편하고, 취업지원 종료 3년 이후 재참여 허용. 부모 등의 생계 및 주거가 청년과 다른 것을 증빙할 경우, 부모 등을 가구소득 산정에서 제외	고용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확대	<input type="checkbox"/> (현황) 직업교육을 받은 고졸 기술기능인재의 중소·중견기업 취업 활성화 및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직업계 관련 학생 취업 활성화 위해 지원 인원 확대 및 단가인상	교육부
	청년 지역안착을 위한 지역기업 인식개선 및 취업연계 확대	<input type="checkbox"/> (현황) 청년들의 지역 우수기업 탐방과, 취업연계(특강, 멘토링, 취업 캠프, 박람회) 지원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청년의 우수기업 취업 등을 위해 사업규모 확대	산업부

추진 전략	중점과제	주요내용	주관 부처
	중견기업 청년 석·박사 연구 인력 일자리 지원 확대	<input type="checkbox"/> (현황) 중견기업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인력(석박사) 채용 지원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중견기업의 연구역량 강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해 지원인력 확대	산업부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및 배치 지원 확대	<input type="checkbox"/> (현황)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등 지역 소재 문화시설에서 문화 관련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등 지원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 인력 확대	문체부
	일학습병행 자격 활성화 방안 마련	<input type="checkbox"/> (현황) 국가기술자격 취득 청년에 비해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산업분야의 혜택 부족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일학습병행제도를 통해 취득한 자격이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에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 자격 활성화 방안 마련	고용부
	청년 내일채움 공제 운영 개선	<input type="checkbox"/> (현황)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재직과 사회진출 초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운영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퇴사 후 재가입을 위한 재취업 6개월 기간 만료시 재취업 기간 추가 연장	고용부
창업 지원	민간주도형 창업 지원 확대	<input type="checkbox"/> (현황) 민간이 선정한 유망 창업팀에 대해 민간투자자와 연계하여 연구 개발비 (R&D), 창업자금 등을 지원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21년에는 '20년 대비 신규 창업팀 수를 100개팀 확대하여 추진	중기부
	이공계 대학원생 창업탐색 지원 확대	<input type="checkbox"/> (현황) 연구실 소속 연구원이 기술사업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실험실 창업탐색 교육을 지원 중이며, 현장의 교육수요 지속 증가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이공계 대학원생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지원규모 확대	과기부
	전통문화 청년 창업 육성지원 확대	<input type="checkbox"/> (현황) 전통문화 청년 창업에 대한 수요 대비 정부 지원 부족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전통문화 청년창업 활성화 위해 지원 규모 확대	문체부
	청년두레 지원 확대	<input type="checkbox"/> (현황) 숙박, 음식, 체험 등 관광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두레 지원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지역관광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해 청년두레 확대	문체부
	청년 식품창업 지원 확대	<input type="checkbox"/> (현황) 식품 관련 예비 창업자 및 5년 미만 식품기업(39세 이하)에게 시설·공간, 시제품 제작비, 멘토링 등 단계별 창업 지원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식품관련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규모 확대	농식품부
	환경분야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	<input type="checkbox"/> (현황) 환경창업대전을 개최하여 우수 창업아이템을 선발·시상하고 있으나, 후속 지원이 없어 실제 창업으로 연계 곤란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환경창업대전과 연계한 사업화 지원	환경부

\* 출처: 관계부처합동 (2020b).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요약 및 정리

## (2) 청년 교육 및 훈련 정책

청년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해서 2018년 3월 발표된 ‘청년 일자리대책(관계부처 합동, 2018a)’에서는 청년들의 교육과 취·창업 연계를 강화하고 미래 핵심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발표되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한 후 대학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한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 일학습병행제,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대기업을 활용한 구직자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사업 등이 시행되었다. 2018년 3월 발표된 ‘청년고용 촉진방안(관계부처 합동, 2018 c)’은 청년들의 직업능력을 확대하고 진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사다리제도 신설, 진로지원 개선 TF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발표하였다.

2019-2020년 시행중인 청년 교육·훈련 정책 개별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7>과 같다. 교육비와 관련해서는 국가장학금 확대,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이 주로 교육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과기부에서는 신진연구자 기초연구비지원,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등 주로 이공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연수·실습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확산 지원사업, 대학생 대상 해외연수 기회 확대 사업,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사업 등을 통해 대학생 및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진로탐색 및 실습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분야별 교육 및 실습관련 정책이 부처별로 실시되고 있는데, 과기부의 SW 마에스트로 과정, 국토부의 물류전문인력(고교, 대학) 양성지원 사업, 산업부의 산업 전문인력 역량 강화 사업,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혁신인재 육성 등의 사업이 대표적이다.

표 II-7 청년 교육·훈련 정책 개별사업 현황

분류	과제명	주관부처
교육비	국가장학금 확대	교육부
	농업분야 취창업 연계 장학금(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농식품부
	대학 입학금 부담 완화	교육부

분류	과제명	주관부처
교육· 연수· 실습	신진연구자 기초연구비 지원(신진연구, 생애첫연구)	과기부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과기부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학생 지원	교육부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교육부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교육부
	ICT 석박사 인재의 글로벌 연구 역량 강화	과기부
	ICT 석박사 인재의 핵심 기술관련 R&D 역량 강화	과기부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과기부
	K-Shield 주니어	과기부
	SW마에스트로 과정	과기부
	SW중심대학	과기부
	일학습병행제	고용부
	대졸 청년에 대한 방위산업 분야 전문교육 제공	방사청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확산 지원	교육부
	대학생 대상 해외연수 기회 확대	교육부
	물류전문인력(고교, 대학)양성지원	국토부
	물산업 프로젝트 매니저 양성사업	환경부
	산업 전문인력 역량 강화 사업	산업부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청년 기술기능인력 양성	산업부
	스마트농업 전문가 육성	농진청
	스마트시티 혁신인재 육성	국토부
	에너지인력 양성사업	산업부
	융합보안핵심인재양성	과기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과기부
	인공지능 핵심 고급인재 양성	과기부
	정보보호특성화대학	과기부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산업부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교육부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	과기부
	차세대보안리더(BoB)	과기부
	청년과학기술인 연구 환경 개선	과기부
	청년귀농 장기교육	농식품부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인력양성	과기부
탈북 청년 취업·교육지원	통일부	
항공조종사 선선발 후교육 제도	국토부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글로벌농업인재 양성)	농진청	
혁신성장 글로벌 인재양성	산업부	
후기 청소년(19~24세) 자립 지원	여가부	

\* 출처: 김기현, 유민상, 변금선, 배정희, 차세영, 강정석 외(2020).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pp.123-124

2020년 3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제1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에서 교육 및 훈련 분야의 정책방향은 크게 ①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완화 및 장학금 지원 확대, ② 현장실습 교육환경 개선, ③ 진로탐색 지원으로 볼 수 있다. 먼저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에 대한 지원확대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학금 확대와 관련해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의 지원인원 확대, 전문대학생을 위한 전문기술 인재 장학금 신설, 농업분야 취·창업 연계 장학금의 요건 개선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한다. 현장실습 교육환경 개선은 고교생의 현장실습 수당 지급 확대 등 고교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 대학생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및 실습참여 학생 상해보험 의무화 등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진로탐색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졸업 후 진로에 대해 탐색할 수 있도록 대학 진로탐색학점제를 개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표 II-8 ‘제1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 교육 분야

추진전략	중점과제	주요내용	주관부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완화 및 장학금 지원 확대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지원 확대	<input type="checkbox"/> (현황)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 중 장기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2.7만명) 구제 필요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연체이자 감면 분할 상환제도 확대 ('20.하)	교육부
	희망사다리 장학금 확대	<input type="checkbox"/> (현황)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에 대해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중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지원인원 확대 ○ 3,849명('19) → 6,200명('20)	교육부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신설	<input type="checkbox"/> (제도신설) 취업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전문대학생이 학업 및 자기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학금 신설('20.1~)	교육부
	농업분야 취·창업 연계 장학금 요건 개선	<input type="checkbox"/> (현황) 졸업 후 농업분야 진출 가능성이 높은 농대생(3,4학년)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19. 2학기~)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지원인원 확대 및 자격요건 완화 ○ 500명('19) → 800명('20)	농식품부

추진전략	중점과제	주요내용	주관부처
현장실습 교육환경 개선	고교생 현장실습제도 개선	<input type="checkbox"/> (현황) 고졸자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실습제도와 취업연계장려금 등을 운영 중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현장실습 수당 지급 확대, 취업연계장려금 단가 인상 <input type="checkbox"/> (제도신설) 고교생 현장실습 참여지원금 신설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제도 개선	<input type="checkbox"/> (현황) 산학연계 기반 교육으로서 대학생 현장실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적정수준의 실습지원비 미지급 논란 및 안전 등 실습조건 개선 요청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20.하), 실습참여 학생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20.하)	교육부
진로탐색 지원	대학 진로탐색 학점제 신설	<input type="checkbox"/> (현황) 대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졸업 후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부재 <input type="checkbox"/> (제도신설) 학기 동안 학생이 진로 탐색 활동을 스스로 설계·수행하고, 이를 평가하여 학점을 인정하는 대학(10개교)에 운영비 지원('20.1~)	교육부

\* 출처: 관계부처합동(2020a). '제1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요약 및 정리

이후 2020년 9월 18일에 발표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교육분야 중점과제는 크게 ① 학자금 지원, ② 대학 등 연계 인력양성 지원, ③ 교육지원으로 나뉜다. 학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학자금부담 경감, 대학생 교외 근로장학금 확대, 인문 100년 장학금 확대, 희망사다리 장학금 II유형 확대, 꿈사다리 장학금 확대 등 기존의 국가장학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었다. 대학 등 연계 인력양성 지원과 관련해서는 재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4차 산업혁명 선도 인력 양성훈련 개편, 시스템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 확대, 혁신성장 선도 고급 연구인재 성장 지원, 이공계 미취업 졸업생 기술이전 전문인력 양성,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확대,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 마이스터대 도입,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등이 포함되었으며, 주로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신산업 분야의 청년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교육지원과 관련해서는 군 복무 중 대학 학점취득 기반 확대,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확대가 포함되었다.

표 II-9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 교육 분야

추진전략	중점과제	주요내용	주관부처
학자금 지원	학자금 부담 경감	<input type="checkbox"/> (현황)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취업 지연 등으로 학자금 상환 부담 증가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 1.85% 에서 1.70%로 인하. 본인이 실직·폐업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이 곤란한 경우,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특별상환유예 대상에 포함	교육부
	대학생 교외 근로장학금 확대	<input type="checkbox"/> (현황)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장학금을 지원 중이나 학생 수요에 비해 지원규모가 적은 상황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교외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현 4.9만명 → 6만명으로 확대	교육부
	인문 100년 장학금 확대	<input type="checkbox"/> (현황) 인문·사회분야 우수 대학생의 학업 지원을 위해 등록금 및 생활비를 지원 중이나, 수요 대비 지원규모가 작은 편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인문·사회 분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지원인원 확대	교육부
	희망사다리 장학금 II 유형 확대	<input type="checkbox"/> (현황) 고졸 재직자의 재직유지 및 역량강화 등을 위해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 등록금을 지원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고졸 후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규모 확대	교육부
	꿈사다리 장학금 확대	<input type="checkbox"/> (현황) 저소득층 우수 중고생을 발굴, 중·고등학교부터 대학 졸업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 운영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취약계층 학생들의 잠재력 개발을 위해 지원인원 확대	교육부
대학 등 연계인력 양성 지원	재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input type="checkbox"/> (현황) 코로나 19 상황 및 산업의 급속한 변화에 영향을 받은 청년 실직자 및 이직 희망자 대상 체계적 직무 재교육과정 제공 필요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취업 역량과 의지가 있는 미취업자, 실직자의 단기간 직무교육 및 채용연계를 지원하는 '재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교육부
	4차 산업혁명 선도 인력 양성훈련 개편	<input type="checkbox"/> (현황)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현장 변화에 대응하고자 신기술·고숙련의 인력 양성을 위한 융합형 훈련과정 운영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4차 산업분야 청년취업 지원을 위해 미래형 핵심 실무인력양성사업으로 개편, 훈련 과정 대폭 확대	고용부
	시스템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 확대	<input type="checkbox"/> (현황) 미래 주력산업으로 차세대 시스템반도체를 육성하고 있으나, 산업계 수요에 비해 관련 인력이 부족한 상황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시스템반도체 분야 인력 수요 등을 고려 지원 확대	과기부

추진전략	중점과제	주요내용	주관부처
	혁신성장 선도 고급연구인재 성장 지원	<input type="checkbox"/> (현황) 산·학 협력 기반 박사후과정 연구단 지원을 통해 박사급 연구인재의 혁신역량 제고 및 산업계 진출 촉진 지원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박사급 연구인재 성장경로 지원 강화 위해 연구단 추가 선정	과기부
	이공계 미취업 졸업생 기술이전 전문인력 양성	<input type="checkbox"/> (현황) 이공계 미취업 졸업생을 활용하여 대학보유 기술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고, 취업 연계를 지원 중이나 '20년 종료 예정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이공계 청년 인력을 활용하여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이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3년까지 관련 사업 지원	과기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확대	<input type="checkbox"/> (현황) 물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 교육과정 지원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물산업 분야 청년 취업을 위해 지원규모 확대	환경부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	<input type="checkbox"/> (현황) 산업구조 다변화 등에 따라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전문기술인재 양성 필요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신산업 분야 관련 고등직업교육 인프라 구축, 교육과정 개발, 기업 연계 실용 기술 R&BD 지원 등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운영	교육부
	마이스터대 도입	<input type="checkbox"/> (현황) 전문기술, 관련 경력 등 현장성을 바탕으로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고숙련 전문기술인재에 대한 수요 증가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전문대에서 전문기술분야에 대해 단기 수료과정부터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 과정까지 포함한 (가칭)마이스터 대학 제도 도입 추진	교육부, 신규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디지털 융합 가상 캠퍼스)	<input type="checkbox"/> (현황)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의 유연한 전공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필요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학과 및 전공에 상관없이 희망하는 대학생이 신기술 분야 교육을 별도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지원	교육부
교육지원	군 복무 중 대학 학점 취득 기반 확대	<input type="checkbox"/> (현황) 군 복무 중에 장병이 대학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운영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21년 참여대학을 확대하고 제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대학 참여 촉진하는 방안 강구	국방부, 교육부
	대학 진로탐색 학점제 확대	<input type="checkbox"/> (현황) 학기동안 학생이 진로탐색 활동을 스스로 설계·수행하고, 이를 평가하여 학점을 인정하는 대학에 운영비 지원 중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참여대학 확대	교육부

\* 출처: 관계부처합동(2020b).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요약 및 정리

### (3) 청년 주거 정책

주거비 상승으로 인하여 많은 청년들이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은 청년층의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7년 11월 29일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포함한 ‘주거복지로드맵’(관계부처합동, 2017)을 발표하며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제공,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전월세자금 지원, 공공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 분양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후 2018년 7월 5일 발표된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 2018b)에서는 청년 맞춤형 주택 및 금융지원 강화,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과 민간주택특별공급, 육아 특화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주거복지 로드맵의 신혼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였다. 2019년 7월 17일 발표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관계부처합동, 2019)에서는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기숙사형 청년주택 확대 등 교통요지에 청년을 위한 저렴한 주거를 공급하여 청년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주거정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020년 ‘주거복지 로드맵 2.0’(국토교통부, 2020)에서는 청년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일자리연계형·기숙사형·고시원 리모델링 주거공간 공급 및 공유주택 활성화,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 타운 및 신혼부부 맞춤형주택 공급을 주요 주거정책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종합대책 등을 바탕으로 2019-2020년 시행중인 청년 주거 정책 및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청년 주거 사업은 크게 주거비 지원 사업과 주택지원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거비 지원 사업은 국토부와 금융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실시하고 있는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사업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 공공지원주택), 대학생 기숙사 확충, 집주인 임대주택 활성화 사업,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등의 사업이 시행중이다.

표 II-10 청년 주거 정책 개별사업 현황

분류	과제명	주관부처
주거비지원	청년 전·월세 지원 확대	국토부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금융위
주택공급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	교육부
	청년 농촌보급자리 조성사업	농식품부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행복주택)	국토부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매입·전세임대)	국토부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공공지원주택)	국토부
	대학생 기숙사 확충	국토부
	사회주택 공급활성화	국토부
	집주인 임대주택 활성화	국토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국토부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국토부
	사회주택 도입을 통해 신진예술가 주거공간 마련	행복정

\* 출처: 김기현 외 (2020).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p.168

2020년 3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제1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에서 주거분야의 정책방향은 크게 ① 청년 전세자금 지원조건 개선, ②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③ 다양한 청년주거 확충으로 볼 수 있다. 청년 전세자금 지원조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행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사업의 대상연령 상향, 대출한도 상향, 금리인하 등을 통한 제도 개선사업,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규모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저소득 청년의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양한 청년주거 확충과 관련해서는,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학교 밖 기숙사형 청년주택 확충, 노후 기숙사 다인실 리모델링, 행복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해 대학생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표 II-11 '제1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 주거 분야

추진전략	중점과제	주요내용	주관부처
청년 전세자금 지원조건 개선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사업 개선	<input type="checkbox"/> (현황) 청년 버팀목 사업은 대학생 또는 미취업자를 위한 대출이나, 중소기업 청년 사업에 비해 대출조건과 금리가 불리, 개선 필요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및 금리 개선('20.상) ○ 대상연령 상향 (25세 → 34세) ○ 대출한도 상향 (3,500만원 → 5,000만원) ○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대출금리 인하 (하한금리 1.8% → 1.2%)	국토부
	청년맞춤형 전·월세 대출 공급 확대	<input type="checkbox"/> (현황) 청년가구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하여,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증으로 시중은행에서 저금리 전·월세 대출 실시중('19.5~)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대출규모를 확대(1.1조 → 4.1조원)하고, 비대면 창구를 확대하여 온라인에 친숙한 청년의 이용편의성 제고('20.3)	금융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부담 완화	<input type="checkbox"/> (현황) 도심지내 국·공유지, 공기업 보유토지, 도시재생용지 등을 활용, 저렴한 임대료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중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통해 저소득 청년 임차료 부담 완화 추진('20.하)	국토부
다양한 청년 주거 확충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본격 추진	<input type="checkbox"/> (현황) 노후주택(단독·다가구)은 공공리모델링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해 왔으나, 청년 선호가 높은 역세권 고시원은 매입단가가 높아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매입 지원단가 인상 (호당 9,500만원 → 1억 5,000만원) →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사업 본격 추진('20.하)	국토부
	대학생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	<input type="checkbox"/> (현황) 기숙사 선호가 높으나, 주민반발 및 건립부지 부족 등으로 추가 확충이 어렵고 기존 기숙사의 주거여건도 열악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국·공유지 등 여유부지 활용 연합기숙사건립(지속), 학교밖 기숙사형 청년주택 확충(지속), 노후 기숙사 다인실 리모델링 개축(지속), 행복기숙사에 대한 부가가치세(10%) 면제('20.1)	교육부

\* 출처: 관계부처합동 (2020a). 제1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요약 및 정리

이후 2020년 9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에서 주거분야의 추진전략은 크게 ① 주거비 지원 및 ② 주거 보호로 나뉜다. 주거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의 주택자금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조건 개선, 청년 등 월세 대출 금리 인하,

20대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의 중점과제를 포함한다. 주거 보호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제도 개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등을 포함하였다.

표 II-12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 주거 분야

추진전략	중점과제	주요내용	주관부처
주거비지원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 조건 개선	<input type="checkbox"/> (현황) 전세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청년(19~34세) 등을 대상으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지원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보증금 및 대출 한도 상향, 대출 금리 인하. 제2금융권 → 버팀목 전세자금으로의 대환대출 대상 확대	국토부
	청년 등 월세대출 금리 인하	<input type="checkbox"/> (현황)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 및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자금을 지원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주거안정 월세대출 및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금리 인하	국토부
	20대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input type="checkbox"/> (현황)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주거(주민등록)를 달리하는 경우도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20대 미혼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학업·구직 등을 사유로 주거 급여를 지급 받는 부모와 별도 거주시 부모와 분리하여 주거급여 (전·월세 등 임차급여) 지급	국토부 (신규)
주거보호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제도 개선	<input type="checkbox"/> (현황) 주택도시기금의 '중소기업취업청년임차보증금 대출' 시 주택도시보증 공사(HUG) 보증을 이용한 경우, 이사하게 되면 보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해당 대출 재이용 불가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중기청년 보증금대출을 이용하던 청년이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대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HUG의 관련 보증 제도를 개선	국토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input type="checkbox"/> (현황) 청년들은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고, 부동산 계약 경험이 없어 강통전세 등 위험이 높은 주택을 임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보증보험 가입을 통한 청년들이 주거비 보호 등을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보증료를 '2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하(70~80%)'. 21년 이후에도 보증료 인하율을 조정하여 지속 추진	국토부

\* 출처: 관계부처합동 (2020b). 제 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요약 및 정리

#### (4) 청년 참여 및 권리 정책

청년의 참여 및 권리 정책은 청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중앙부처에서 제출한 자료 중 청년 참여 및 권리 분야에서 2019-2020년 실시되고 있는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통일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보훈처 등의 중앙부처에서 청년 참여·활동과 관련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에서 청년참여 플랫폼 운영사업을 실시중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생각함, 청년 정책개선 프로젝트’와 ‘국민생각함,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시행중이다.

표 II-13 청년 참여·권리 정책 개별사업 현황

분류	과제명	주관부처
참여·권리	통일국민협약 도출을 위한 청년 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원	통일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행안부
	청년 참여 플랫폼 운영	여가부
	도시재생사업시 청년을 위한 복합시설 설치 유도	국토부
	대한민국 해양영토 대장정	해수부
	국민생각함, 청년 정책개선 프로젝트	권익위
	국민생각함,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권익위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사업 청년층 참여 확대	보훈처

\* 출처: 김기현 외 (2020).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p.206

‘제1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관계부처 합동, 2020a)’에서 참여·권리 분야의 정책방향은 크게 ① 청년 참여 거버넌스 구축, ② 청년 근로여건 개선으로 볼 수 있다. 청년 참여 거버넌스 구축은 청년이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과제로, 청년 정책 관련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제도화사업, 청년참여 플랫폼 신설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청년 권리와 관련해서는 청년의 근로여건과 관련된 권리보장을 주된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강화, 청년 대상 성희롱·성폭력 안전망 강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표 II-14 '제1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 참여·권리 분야

추진전략	중점과제	주요내용	주관부처
청년이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거버넌스 구축	청년정책 관련 정부 위원회에 청년참여 제도화	<input type="checkbox"/> (현황)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정부위원회 구성시 정책대상자인 청년들의 참여 미흡 → 현실성 있는 청년정책 수립에 한계 <input type="checkbox"/> (제도신설) 중앙부처·광역 지자체에서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20.하),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청년위원 위촉('20.하)	국조실
	청년참여 플랫폼 신설	<input type="checkbox"/> (현황) 각 부처에서 청년들과 간담회 등 소통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회성에 그치는 등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청년들이 청년정책 과제(안)를 발굴하는 시스템 미흡 <input type="checkbox"/> (제도신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청년참여플랫폼 구축·운영('20.상) →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연구 기획 제안하는 청년참여형 정책기획 프로젝트 개설·운영('20.상)	국조실
청년 근로여건 개선	직장내 괴롭힘 방지교육 강화	<input type="checkbox"/> (현황) 근로기준법에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관련 예방·대응체계를 갖추도록 규정 → '공정'을 중요시하는 청년들의 대응 강화 요구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산업안전교육에 "직장내 괴롭힘" 내용 포함('20.1) <input type="checkbox"/> (제도신설)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과정 운영 및 영세 사업장 교육 지원('20.상)	고용부
	청년 대상 성희롱·성폭력 안전망 강화	<input type="checkbox"/> (현황) 성범죄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발생기관에 대한 현장 지원 강화 필요 <input type="checkbox"/> (제도신설)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20.1~), 사회초년생 맞춤형 성폭력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및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20.상~)	여가부

\* 출처: 관계부처합동(2020a). 제1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요약 및 정리

이후 2020년 9월 18일 발표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서는 네 가지 중점과제를 추가하였다.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 성적공개, 대학생 출산 공결제 도입, 일학습 병행학습근로자 보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 개선 등의 중점과제가 추가되었다.

표 II-15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 참여·권리 분야

중점과제	주요내용	주관 부처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 성적 공개	<input type="checkbox"/> (현황)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채용 필기시험 커트라인 및 수험생 개별 성적 미공개로 수험생들이 부족한 점과 보완 사항을 알기 어려운 상황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모든 공공기관에서 채용 필기시험 커트라인과 수험생 개별 성적을 공개하도록 권고	기재부
대학생 출산 공결제 도입	<input type="checkbox"/> (현황)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에도 일부 대학에서는 결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학생 불편 야기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전 대학교(국공립, 사립)에서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공결로 인정하는 규정 마련 권고	교육부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보호	<input type="checkbox"/> (현황) 일학습병행 사업체 중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학습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사업장의 일학습병행 참여 제한 제도화	고용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절차 개선	<input type="checkbox"/> (현황) 군인, 경찰 등이 직무 수행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어도, 전역 후에만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청년이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	보훈처

\* 출처: 관계부처합동(2020b).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요약 및 정리

### (5) 청년 생활 정책

청년 생활 정책은 청년의 금융, 소득·자산 및 건강에 관련된 정책들을 포함한다. 중앙부처에서 제출한 정책리스트 중 2019-2020년에 실시되고 있는 생활 관련 정책들은 다음 표와 같다. 먼저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빈곤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과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사업이 있다. 또한, 청년층의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을 위해 20-30대 청년세대 국가건강검진 사업과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확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위에서는 청년 신용회복 지원, 사회초년생의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 사업, 청년형 ISA 운영, 청년·대학생 금융현장 소통 등의 사업을 실시하며 청년층이 학자금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채무로 인해 신용평가에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II-16 청년 생활 정책 개별사업 현황

분류	과제명	주관부처
생활	20~30대 청년세대 국가건강검진 확대 실시	복지부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지원 확대	복지부
	근로빈곤 청년 자산형성 지원(청년희망키움통장)	복지부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복지부
	청년 신용회복 지원	금융위
	청년형 ISA 운영	금융위
	청년·대학생 금융현장소통	금융위
	사회초년생의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	금융위

\* 출처: 김기현 외 (2020).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pp.235-236 생활영역 정책 요약

2020년 3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제1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에서 생활분야 정책방향은 ① 청년들의 불편·불만 사항 적극 발굴 및 개선 추진, ② 청년들의 경제활동 지원, ③ 저소득 청년 보호 강화, ④ 청년 정신건강 지원을 포함한다. 청년들의 불편·불만사항 개선과 관련해서는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대상 단수여권제도 폐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본격 추진, 예비군 휴일훈련 확대 및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등의 중점과제가 포함되었다. 청년들의 경제활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청년·대학생 소액금융(‘햇살론 유스’) 출시, 청년대상 금융교육 추진 등의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저소득 청년 보호 강화와 관련하여 차상위 계층 청년의 탈빈곤을 위한 청년 저축계좌 신설, 저소득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확대, 청년 예술인들에게 공연기회와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청춘마이크사업 확대가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 정신건강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청년 우울증 검사주기를 기존의 ‘10년 마다’에서 ‘10년 중 한번’으로 변경하여, 청년이 필요한 때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표 II-17 '제1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 복지 및 생활안정 분야

추진전략	중점과제	주요내용	주관부처
청년들의 불편·불만 사항 적극 발굴 및 개선 추진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대상 단수여권제도 폐지	<input type="checkbox"/> (현황) 25세 이상 병역 미필 청년은 국외여행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교부 장관으로부터는 통상의 일반 복수여권 (10년간 유효) 대신에 단수여권(1년간 유효) 발급 ('19년 1만여명)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25세 이상 병역 미필 청년에 대한 1년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 일반 복수여권(유효기간 5년) 발급('20.하, 여권법 개정)	외교부 병무청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알뜰교통카드') 본격 추진	<input type="checkbox"/> (현황) 버스 정류장, 전철역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마일리지 적립(신한카드 등), 할인해주는 사업 시행('19.6~)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교통비 절감효과가 크고 만족도가 높으므로 전국으로 시행지역 확대('20.1~), 저소득 청년에게 추가혜택(100~200원) 부여('20.2~)	국토부
	예비군 휴일 훈련 확대 및 동원훈련보상비 인상	<input type="checkbox"/> (현황) 청년 일바, 자영업자 등은 예비군 동원훈련이 주로 평일에 있고 동원훈련보상비도 적어서 불만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휴일 훈련일수 확대 ('20.1~), 동원훈련보상비 단계적 추가인상 추진 ('20.하)	국방부
청년들의 경제활동 지원	청년·대학생 소액금융('햇살론 유스') 출시	<input type="checkbox"/> (현황) 미취업 상태의 청년·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은 은행권 대출 이용이 어려워 구직활동 및 생활자금 마련에 애로 <input type="checkbox"/> (제도신설) 미취업 청년·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의 자금애로를 위해 소액금융 지원('20.1~)	금융위
	청년대상 금융교육 추진	<input type="checkbox"/> (현황) 청년들이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금융사기 대처 등에서 애로 호소 → 청년 금융교육 필요 <input type="checkbox"/> (제도신설) 대학생, 사회초년생에 대한 금융교육 추진('20.하)	금융위
저소득 청년 보호 강화	청년 저축계좌 신설	<input type="checkbox"/> (현황) 차상위계층 청년의 빈곤탈출 지원 자산형성 사업 부재 <input type="checkbox"/> (제도신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 및 교육비 마련 등 자산형성 지원('20.4~)	복지부
	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 확대	<input type="checkbox"/> (현황) 저소득 예술인에게 창작준비 지원금(300만원)을 지원중 (청년 65%)이나 확대 필요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지원인원 대폭 확대 ('20.1~) ○ 대상: ('19) 5,500명 → ('20) 12,000명 ○ 예산: ('19) 166억원 → ('20) 362억원	문체부
	청춘마이크 사업 확대	<input type="checkbox"/> (현황) 청년 예술인(19~34세)에게 '문화가 있는 날' 공연기회를 제공하고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청춘마이크' 사업 추진중 → 확대 필요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지원인원 확대 ('20.1~) ○ 대상: ('19) 1,000명(250팀) → ('20) 1,400명(410팀) ○ 예산: ('19) 47억원 → ('20) 67억원	문체부

추진전략	중점과제	주요내용	주관부처
청년 정신건강 지원	청년 우울증 검사 체계 개선	<input type="checkbox"/> (현황)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된 미취업 20~30대 청년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중이고, 20세, 30세는 우울증 검사를 실시 중 → 20대 중반에 졸업, 취업 등으로 정신건강 위험도가 증가하나, 청년들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우울증, 조현병 등 조기발견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제도신설) 우울증 검사 주기를 '10년마다'에서 '10년중 한번'으로 변경, 청년이 필요한 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20.하)	고용부

\* 출처: 관계부처합동 (2020a). 제1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요약 및 정리.

2020년 9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에서는 네 가지 중점과제를 추가하였다. 청년의 자립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 저축계좌 확대, 지역별 청년 자립마을 확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확대를 포함하였다. 또한 군 복무자에 대한 건강 보험 혜택 확대를 위해 병사 군 단체보험 시행을 추가하였다.

표 II-18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 복지 및 생활안정 분야

중점과제	주요내용	주관부처
청년 저축계좌 확대	<input type="checkbox"/> (현황)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주거비 및 교육비 마련 등에 활용 가능한 청년 저축계좌 운영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사회안착 지원을 위해 지원 규모 확대	복지부
지역별 청년 자립마을 확대	<input type="checkbox"/> (현황) 인구감소 지역에 외지 청년을 유입시켜 일자리 제공뿐 아니라 체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자립마을' 사업 추진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인구감소지역에 청년마을 추가 조성	행안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확대	<input type="checkbox"/> (현황)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생활안정자금)과 농지, 창업자금, 기술교육 등을 연계 지원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지원인원 확대	농식품부
병사 군 단체보험 시행	<input type="checkbox"/> (현황) 병사가 군 병원 이외의 민간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으나, 본인 부담금 지원이 없는 상황 <input type="checkbox"/> (제도신설) 병사에게 보험 가입 선택권을 주고 희망 병사가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병사 군 단체보험' 시행	국방부

\* 출처: 관계부처합동 (2020b).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요약 및 정리.

## 2) 정책 및 사업 고찰의 시사점

이상으로 살펴본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의 청년정책은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중심 정책으로 시작되었으나, 높은 실업률과 불안정 고용형태의 증가에 따른 혼인률 및 출산율의 저하, 부채 증가, 주거 환경의 악화, 정신건강 악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며 청년 삶 전반에 걸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최근 3년간 ‘청년 일자리대책 (관계부처합동, 2018a)’,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관계부처 합동, 2018b)’,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관계부처합동, 2019)’, ‘청년의 삶 개선 방안(관계부처 합동, 2020a, 2020b)’ 등 청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청년의 일자리, 주거, 교육, 참여·권리, 생활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 대한 청년 정책을 신설하거나 기존 정책을 개선해 왔다.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의 제정으로 인해 청년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근거 및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2021년부터 실시될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과 중앙부처·지자체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향후 국내 청년정책은 보다 체계화되고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3월 및 9월에 발표된 두 차례의 ‘청년의 삶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 2020a, 2020b)’에 따를 때, 향후 청년정책은 각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추진방향에 따른 정책 사업이 시행될 것이다. 먼저 일자리 영역에서는 취업·창업 지원 확대와 새로운 형태 일자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다. 교육 영역에서는 학자금 부담 경감과 진로·직업교육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주거 영역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 자금지원제도가 개선될 것이다. 참여·권리 분야에서는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 및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활 분야에서는 복지·건강·교통·문화 등 생활 전 영역에서의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향후 청년정책들은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실시되고 있는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한 김기현 외(2020)의 연구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 다양한 청년정책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상황과 같은 일부 사업을 제외하면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 및 수혜율은 낮은 상황이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단순히 청년정책의 수와 종류를 확대하기 보다는 기존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청년정책들을 통합 및 재구조화하고 정책이 필요한 청년들이 실제로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 및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 4. 청년 관련 법률 현황<sup>9)</sup>

##### 1) 청년기본법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노무현 정부 시기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제정과 이명박 정부 시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개정되었고, 2020년 1월 9일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8월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한시법으로서 기한을 계속해서 연장해오던 상황이었으며, 청년의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김형주 외, 2018), 범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기본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었다(이송림, 202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 전반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로서 청년 대상의 첫 종합법률의 의미를 지닌다(오재호, 2020). 제정 과정을 살펴보면, 19대 국회에서 청년발전기본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시작으

---

9) 이 절은 연보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로, 20대 국회에서 2016년 5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10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었다. 공통적으로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청년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및 청년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의안정보시스템, 2020).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II-19>와 같다.

표 II-19 제20대 국회의 청년기본법안 입법 발의 현황

의안명	청년기본법안	청년정책기본법안	청년기본법안	청년발전기본법안	청년기본법안	청년발전지원기본법안	청년기본법안	청년기본법안	청년발전지원기본법안	청년기본법안(대안)
대표 발의	신보라 의원	박홍근 의원	이원욱 의원	김해영 의원	박주민 의원	강창일 의원	채이배 의원	이명수 의원	신보라 의원	정무 위원장
제안 일	2016. 5.30.	2016. 8.17.	2016. 8.24.	2016. 12.2.	2017. 4.13.	2017. 6.30.	2018. 2.19	2018. 5.21	2018. 11.30	2019. 11.28
청년 연령	19~39세	19~34세	19~39세	19~34세	19~34세	18~39세	18~34세	19~34세	19~34세	19~34세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수립 주체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공동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국무총리

\* 출처: 김형주 외(2019). 표II-10 수정. 의안정보시스템(2020).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2020년 4월 27일 인출.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기본법의 목적은 앞서 의안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다음으로 청년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제3조에서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연령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정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였다.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청년고

용촉진 특별법」이나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와의 청년 연령 범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지로서 이해할 수 있다(김형주 외, 2019). 제 7조에서는 청년의 날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과 관련해서는 제 8조와 9조에 따르면 5년마다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청년정책의 기본계획에는 고용,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제11조에서는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 실태조사를 법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의 대상과 내용,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의 청년정책 연구사업 수행도 제1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함이다.

한편, 제 13조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였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두고, 실무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국무조정실)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여러 부처에서 분산·중복되었던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 산하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었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도 확대하고 있다. 제15조에서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들이 자문과 심의에 참여하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고, 청년정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구성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였다. 제16조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서 청년정책 책임관을 신설하도록 하였다.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으로는 제17조에서 제24조까지 명시하고 있는데,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국제협력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마련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전술한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20 청년기본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담당
총칙	목적(제1조)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 사항 규정	
	청년의 정의(제3조)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음	
	청년의 날 지정(제7조)	대통령령에 위임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기본계획 수립(제8조)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시행계획 수립(제9조)	매년 시행계획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실태조사(제11조)	청년 실태조사 실시	정부
	연구사업(제12조)	청년정책 연구사업 수행	국무총리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제13조)	청년정책 주요사항 심의·조정 실무위원회 및 사무국(국무조정실) 설치	국무총리 소속 (위원장: 국무총리)
	청년의 정책결정과정참여(제15조)	청년들이 자문과 심의에 참여, 의견 수렴 청년정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구성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청년정책책임관 신설(제16조)	소속 공무원 중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기본 시책(제17조~제24조)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국제협력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마련의 의무	

\* 출처: 이송림(2020). 표1 수정.

국가법령정보센터(2020). [http://www.law.go.kr/법령/청년기본법/\(16956,20200204\)](http://www.law.go.kr/법령/청년기본법/(16956,20200204))에서 2020년 4월 27일 인출.

「청년기본법」은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청년의 범위를 만 19~34세로 명확하게 지정함으로써 향후 정책의 수립자 입장에서는 정책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송림, 2020).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는데, 전반적인 청년정책의 지원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한 것은 단순히 청년이 정책대상자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부 및 지자체와 함께

하는 기획자로서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오재호, 2020). 그리하여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존재로서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2)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청년기본법」의 제정 이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기본조례 제정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 2015년 1월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전반적인 청년들의 종합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청년 기본조례가 제정되었고, 2018년 2월 인천광역시를 마지막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제정되었다(김형주 외, 2019).

표 II-21 17개 시·도 청년기본조례 현황

지역	조례명	담당부서	심의기구(명)	참여기구(명)	청년 연령	제/개정일
서울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청년청	청년정책위원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그 밖의 관계법령 규정에 따름	2019.07.18
부산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일자리경제실 성장전략본부 청년희망정책과	청년위원회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2020.02.05
대구	대구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시민행복교육국 청년정책과	청년정책 심의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2019.04.10
인천	인천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네트워크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2019.02.20
광주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기본조례	여성가족국 청년청소년과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위원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0.01.01
대전	대전광역시 청년기본조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2020.02.07
울산	울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네트워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그 밖의 관계 법령 규정에 따름	2018.12.27

지역	조례명	담당부서	심의기구(명)	참여기구(명)	청년 연령	제/개정일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조례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위원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그 밖의 관계 법령 규정에 따름	2019.11.15
경기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보건복지국 청년복지정책과	청년정책위원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그 밖의 관계 법령 규정에 따름	2019.01.14
강원	강원도 청년기본조례	일자리국 청년어르신 일자리과	청년정책조정위 원회	-	18세 이상 39세 이하	2020.03.06
충북	충청북도 청년기본조례	기획관리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위원회	-	15세 이상 39세 이하	2016.05.24
충남	충청남도 청년기본조례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청년정책위원회	-	18세 이상 34세 이하	2019.12.30
전북	전라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 정책관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포럼단	18세 이상 39세 이하	2019.12.31
전남	전라남도 청년기본조례	인구청년정책관	청년발전위원회	청년의 목소리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2019.06.11
경북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	청년정책관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참여단	만15세 이상 39세 이하	2017.12.28
경남	경상남도 청년기본조례	여성가족청년국 청년정책추진단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19세 이상 34세 이하	2019.09.26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 심의위원회	제주청년원탁회의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2018.02.28

\* 출처: 김정숙, 강영배(2017). 표 III-2 수정.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19).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서 2020년 4월 28일 인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의 기본 내용은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공통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이들의 자립과 권익증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김형주 외, 2019).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시행, 청년정책 연구 실사를 포함하고 있고, 청년정책에 대한 심의기구 및 청년참여기구에 대해서도 일부 명칭은 상이하지만, 운영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조례에 명시하였다. 「청년

기본법」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도 일부 지자체는 이미 개정하였으며, 다른 지자체들도 관련 법률에 맞추어 개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청년의 연령, 중앙 정부의 기본계획과 연계, 실태조사 및 연구의 의무화, 청년참여 의무화 명시 등의 청년기본법의 취지에 맞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모든 지자체의 조례가 동일할 필요는 없는데, 청년기본법 목적과 기본이념을 근거로 하되, 지역별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오재호, 2020).

### 3) 기본법 및 조례 고찰의 시사점

「청년기본법」의 제정으로 청년 문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고용, 창업, 복지, 주거, 문화 등 청년의 삶 전반의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되는 기회가 되었다. 법안 논의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하였던 청년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며,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기본법」 제정에 대해, 그간 청년 문제를 한시적 현상으로 규정하고, 일자리수단으로 보았던 우리 사회의 관점이 전환되고, 청년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으로서 환영한 바 있다(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2020.01.09).

사실 「청년기본법」은 그 시작으로, 8월에 마련될 시행령과 청년기본계획 수립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법안 제정과정에서 청년참여기구 설립과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책임의 강도와 정책 의지가 다소 낮아진 측면이 있는데, 시행령과 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더 정교하게 담길 필요가 있다(한겨레, 2020.02.03). 또한 일각에서는 「청년기본법」이 시대의 여건이나 경제적 상황에 일시적으로 좌우되지 않고, 미래 사회의 대비 차원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며,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생애 전환기를 뒷받침하는 합리적 근거로서 작동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오재호, 2020). 아울러 「청년기

본법」에서 청년의 연령 범위를 만 19세에서 3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법률 및 조례와의 긴밀하게 연계될 필요가 있다(김형주 외, 2019). 일차적으로는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부터 유권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인접한 청소년 연령의 범위도 고려하여 청소년기본법과의 연동과 중복을 해소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김형주 외, 2019).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개정도 예측되는데, 청년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근거로 하나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오재호, 2020).

## 5. 해외 청년정책 추진 동향<sup>10)</sup>

본고에서는 영국, 아일랜드, 미국의 청년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청년 정책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영국, 아일랜드, 미국 세 국가는 앵글로색슨(Anglo-Saxon) 문화권으로서 공통된 언어, 가치관 및 문화를 향유한다. 그러나 지정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은 북아메리카에 영국과 아일랜드는 유럽 지역에 속하며 이에 따른 사회제도의 차이점 또한 엄존한다. 비록 영국의 경우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하며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선언한 상황이지만, 2020년 12월 31일 전환기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기존의 에라스무스(Erasmus +) 프로그램을 위시한 유럽연합 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사회정책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EACEA, 2020a).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럽연합의 다양한 제도적 맥락을 공유하는 영국과 아일랜드와 함께 미국의 청년정책 도입배경 및 추진체계를 비교분석하고 구체적인 정책 내용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

10) 이 절은 김수혜 박사(고려대학교 사회통합교육연구소)가 의뢰를 받아 번역 및 집필하였음

## 1) 영국의 청년정책 추진 동향<sup>11)</sup>

### (1) 영국 청년정책의 배경 및 핵심 내용

연합왕국으로서 영국은 1998년 주민 투표를 통해 행정구역인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 의회를 설립하여 영국 의회의 입법권을 일부 이양하였으며 단일국가이지만 지방정부차원에서 상당한 행정 및 재정권한을 갖는다(고인석, 2018). 영국의 청년정책은 2011년 공표된 ‘Positive for Youth’ 정책을 기반으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서 지역에 따른 정책사업 전략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 가. 잉글랜드

잉글랜드는 Positive for Youth의 기조에 따라 13세-19세 청년층의 긍정적 발달을 도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습부진 청소년들의 교육적 성장을 독려할 수 있도록 정책 대상의 연령을 24세까지 확대하였다. 특히 지역사회 환경에 따라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사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10대 임신 상담(teenage pregnancy advice), 소년사법 지원팀(youth justice teams), 약물 및 알코올 남용 관련 서비스(drug and alcohol misuse services)와 노숙인 지원(homelessness support) 등을 포함한다.

잉글랜드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단독 법안은 존재하지 않지만 2006년 교육·장학법(Education and Inspections Act 2006), 2008년 아동·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2008), 2014년 아동가정법(Children and Families Action 2014), 2017년 아동·사회사업법(Children and Social Work Act 2017)의 테두리 안에서 청년층의 권리와 요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

11) 영국의 청년정책 추진 동향은 EACEA NATIONAL POLICIES PLATFORM에 게재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청년정책 내용을 토대로 정리함(EACEA, 2020a).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있다. 특히 교육장학법은 각 지방자치 단체들이 13-19세(학  
습부진 청소년의 경우 24세까지) 청소년들에게 교육 및 여가활동에 대한 충분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의무가 있음을 명문화하였다.  
이러한 법적 의무에 따라 잉글랜드의 지방자치 단체들은 해당 청년층에게 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 및 프로그램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  
야만 한다.

2016년 6월부터 잉글랜드 정부는 청년 대상 정책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전략  
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특히 청년 정책과 전략(Youth Policy and Strategy)은  
디지털, 문화, 미디어 및 체육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DCMS)의 주도 하에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처럼 잉글랜드의 청년  
정책은 정부의 부처들에서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음의 목표를  
추구한다.

- 부모 및 가족이 영유아기에서 10대 청소년기에 이르는 자녀를 부양할 수 있도록 지원
- 모든 청년들이 학습에 성공하고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보장
- 청년들이 인성을 기르고 소속감을 느끼며 학습, 일, 삶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태도를 계발
- 청년들이 심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독려
- 학대, 방치, 착취, 노숙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 청년들을 살피고 가정에서 보살핌을 기대하기 어려워 주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청년층에게 관심을 집중
-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형사사법 체제 내 청년들을 보호

## 나.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정부는 National Youth Work Strategy(2014-2019)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전략을 추진하였다. 스코틀랜드 정부의 청년전략은 청년층의 일자리에 가장 큰 방점을 두고 있으나 동시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정책과도 교류를 꾀하고 있다. 특히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다 어린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조기개입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에서 아동의 권리에 기반한 접근(rights-based approach)인 Getting it Right for Every Child(GIRFEC) 정책 또한 스코틀랜드의 청년정책과 연결된다. GIRFEC의 경우 아동, 청소년과 그들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책, 관습, 전략 및 법령을 뒷받침하는 제도로서 기본적으로 영유아에서 만19세 청소년에 이르는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GIRFEC가 11세 미만 아동들에게 조기개입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기대되는 정책효과에 착안하여 스코틀랜드 청년정책 전략은 제도적 연계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청년정책은 11세-25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며 11세-18세 청소년에 중점을 둔다.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와 마찬가지로 청년을 위한 기본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청년정책의 입안과 서비스 제공은 영국의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 2010) 조항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법적 근거를 갖는다. 아울러 1980년 스코틀랜드 교육법(Education Scotland Act 1980)과 2013년 지역사회 학습 및 개발요건을 위한 스코틀랜드 규정(The Requirements for Community Learning and Development Scotland Regulations 2013)의 틀 안에서도 스코틀랜드 청년정책의 제도적 당위성이 보장된다. 이외에도 2014년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2003년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 장관법(Commission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03)과 1995년 스코틀랜드 아동법(Children Scotland Act 1995) 또한 청년정책과 법적으로 관련을 맺는다.

스코틀랜드 청년정책의 핵심목표는 스코틀랜드의 모든 청년들이 수준 높고 효과적인 청소년 활동실천(youth work practice)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코틀랜드 청년전략은 다음 5가지 사항들이 제시된다.

- 스코틀랜드가 청년들이 성장하기 최적의 환경임을 보장함
- 청년들을 정책의 중심에 둠
- 청소년 활동의 가치를 인식함
- 인력역량을 구축함
- 성과측정을 보장함

이러한 전략들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특정 사회집단에 각별한 관심을 둔다. 이는 곧 전략의 보편성과 특정성이 정책의 형평성과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사회에 기반한 청소년 활동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인식한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 비록 최근에는 청소년 정책 서비스가 다소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전술한 청년정책 전략은 특히 취약계층에게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무엇보다 조기개입을 통해 건강, 빈곤, 교육 및 기타 분야에서 불평등의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한 전략은 '모든 청년들이 삶의 기회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보장'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정책의 실행계획에는 '소외계층 청년들의 사회참여 장려'란 조치가 제시되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불평등 완화의 전략을 가장 최근에 발간한 National Improvement Framework for Education을 통해 강조한 바 있으며, 1)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 향상, 2) 사회계층 간 성취격차 해소, 3)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4) 모든 청년들의 고용역량을 함양하고 학업 포기자에게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목적지 제공과 같은 4가지 사항들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는다.

#### 다. 웨일스

2011년 영 연합왕국 최초로 웨일스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을 정부 법안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웨일스의 청년정책은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강조하며 특히 양질의 청소년 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둔다. 이를 위해 청소년 활동 단체의 계획 및 평가를 향상시키기 위한 성과 틀을 국가수준에서 개발 중이다. 웨일스의 청소년 정책 서비스는 11세-25세 모든 청년들에게 제공되며, 이는 National Youth Work Strategy for Wales 2014-18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전달된다. 웨일스의 청년정책 전략은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특정 집단에 대한 정책 관심을 우선적으로 강조한다. 이러한 정책의 우선순위는 계층 간 교육성취 격차를 완화하고 청년니트(Not Engaged in Education, Training or Employment, NEET)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웨일스 정부는 청년정책 수급의 개방적 접근을 통해 청년층의 사회참여를 효과적으로 도모하고 보다 세부적인 지원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와 같이 웨일스 또한 청년정책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단독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스코틀랜드와 마찬가지로 영국의회가 정한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 2010)을 기반으로 청년정책의 제도적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 다른 영국의회법인 2000년 학습기술법(Learning and Skills Act 2000)을 법적 근거로 삼는다. 나아가 웨일스 의회가 제정한 2015년 미래세대를 위한 웰빙 웨일스 법(Well-being of Future Generations, Wales Act 2015), 2014년 사회서비스와 웰빙 웨일스 법(Social Services and Well-being Wales Act 2014), 2011 아동청년 권리 조치(Rights of Children and Young Persons Wales Measure 2011)와 2010 아동가족 웨일스 조치(Children and Families Wales Measure 2010) 또한 웨일스 청년정책을 정당화하는 법규로 볼 수 있다.

웨일스 청년정책 전략은 참여적 측면에서 청소년 활동의 가치를 강조하며 이는 정부의 Youth Engagement and Progression Framework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웨일스 정부는 니트족에 유입될 위험이 있거나 이미 니트 상태에 있는 청년층

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및 서비스를 공급한다. 상술한 제도적 틀 안에서 정부의 지원은 지속되며 특히 취약계층 청년층과 접촉하여 그들이 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보다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독려한다. 2014년 발행된 웨일스 정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16-18세 니트족의 숫자를 감소하는 데 효과가 있었지만 19-24세 니트족 감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청소년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2014년 웨일스 정부는 National Youth Work Strategy for Wales 2014-18을 공표한다. 청년 정책 전략의 수립과 관련 정부는 정책의 질과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웨일스의 청년전략은 EU Youth Strategy 2010-2018과 Council of Europe's Agneda 2020의 큰 틀에서 모든 청소년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되고 양질의 교육기회를 받으며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웨일스 정부의 청년활동 전략은 다음의 결과를 기대한다.

- 청년 활동은 웨일스의 모든 청년들에게 접근 가능하며 효과적인 예방 서비스로서 작용함. 동시에 청소년 활동은 청년의 교육적 참여 및 발전과 취업 및 성인기 삶을 대비하기 위한 직업훈련 또한 지원함
- 청년 활동은 공교육 테두리 안에서 청년층의 성취를 보장하고 청년 니트족 지속적인 감소에 효과적으로 기여함
- 법적 그리고 자발적 청년 활동이 일관성 있게 청년층에게 제공됨
- 청소년 활동은 웨일스 언어전략(A Living Language, Welsh Government, 2012)에 기여하고 사회적 환경에서 웨일스어 활용의 기회를 마련함
- 청년 활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 건강, 웰빙, 빈곤퇴치와 같이 범정부적 사안들과 연계되어 정책적 지원이 제공됨

전술한 성과를 위해 웨일스 청년정책 전략은 다음의 목표를 제시한다.

- 책무성, 벤치마킹과 결과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활동에 대한 국가수준의 성과 틀을 도입함
- 웨일스 전역의 청년층에게 제공되는 청년 활동의 질을 향상함
- 전문적으로 자격을 갖춘 청년 활동가의 비율을 높임
- 전략의 이행 관련 장관에게 조언하고, 청년 활동 전달에 대한 전략적 토론을 진행하며, 국가적으로 청년 활동이 미치는 영향과 도달 범위에 대한 증거를 검토하기 위한 포럼을 설립함
- 청년층의 자기개발 및 고용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국가 공인인증 획득의 기회를 확대함
- 비형식 및 무형식 청년활동에 접근하는 청년층을 증대함

#### 라.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의 청년정책은 2013년 교육부가 발행한 Priorities for Youth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정책은 교육부의 우선순위에 맞추어 청년활동을 위한 명확한 정책을 수립하며 4-8세, 9-13세, 14-18세, 19-21세, 22-25세 연령대를 나누어 제도적 개입을 피하며 9-13세와 14-18세 연령집단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정립되었다. 아울러 특정 집단이 아닌 요구평가에 따라 정책 서비스가 공급되며, 특정 집단의 요구가 파악되면 그에 따른 세분화된 제도적 개입이 제공된다.

앞서 살펴본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와 마찬가지로 북아일랜드 또한 청년 기본법은 부재한 상황이다. 건강, 안전, 고용, 평등과 같은 일반적인 법안의 테두리 안에서 청년정책은 수립되고 관련 서비스가 공급된다. 구체적으로 북아일랜드 청년정책을 제도적으로 정당화하는 법안은 1986년 북아일랜드 교육 및 도서관령(Education and Libraries Northern Ireland Order 1986), 1989년 북아일랜드 청소년 서비스 관령(Youth Service Northern Ireland Order 1989), 2016년 북아일랜드 공유교육법(Shared Education Act Northern Ireland 2016),

2015년 북아일랜드 아동서비스 협력법(Children's Services Co-operation Act Northern Ireland 2015), 2003년 북아일랜드 아동청년 장관관령(Commission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Northern Ireland Order 2003), 1995년 북아일랜드 아동관령(Children Northern Ireland Order 1995)과 1986년 북아일랜드 여가 및 청소년 서비스관령(Recreation and Youth Service Northern Ireland Order 1986)이다.

북아일랜드 청년 활동은 교육정책의 중요 분야인 까닭에 청년정책 또한 교육부에 의해 제도적으로 추진된다. Priorities for Youth의 정책 프레임 안에서 추진되는 북아일랜드 청년전략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지역 청소년 발전 계획(Regional Youth Development Plan)의 개발이다. 이는 3년 단위의 지역 개발 계획으로서 Priorities for Youth 정책에서 파악되는 우선순위와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성과에 초점을 둔다.

전술한 북아일랜드 청년정책은 교육부 목표와 맥락을 함께 하며 '모두를 위한 기준 향상'과 '성취격차 해소와 접근성 및 평등 향상'과 같은 청년 활동에 주목한다. 아울러 청년분야 관련 첫째, 비형식 교육인력 개발, 둘째, 비형식 학습환경 개선, 셋째, 비형식 교육의 거버넌스와 관리 혁신과 같은 활동목표가 설정된다. 북아일랜드의 청년정책은 '모든 젊은이들이 생애 발전단계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달성한다'는 교육부의 비전과 함께 다음과 같은 청년 활동 전략목표를 수립하였다.

- 모두를 위한 기준을 향상하며, 사회인지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비형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학습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청년층의 성취 격차를 해소함
- 청년층의 목소리와 영향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참여적·포용적 비형식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의 설계, 공급 및 평가에서도 이를 명확히 반영함

전술한 목표 달성을 위해 북아일랜드 청년정책은 아래의 사항들을 요구한다.

- 청년 활동을 교육의 우선순위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청년들에게 보다 공평한 결과를 담보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마련함
-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그들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마련함으로써 그들의 잠재력을 달성하고 다양성을 수용하며 불만을 극복함
- 청년들에게 측정가능한 양질의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둠

## (2) 영국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 가. 잉글랜드

잉글랜드의 청년정책은 교육부와 보건부를 포함하여 범부처간 협력에 의해 추진된다. 다만 청년정책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디지털, 문화, 미디어와 체육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처 내 시민사회부서(the Office for Civil Society)가 관할하고 있다. 최근 잉글랜드 정부의 지방분권화를 추구함에 따라 청년정책 서비스와 구체적인 프로그램 활동 또한 지역단위로 제공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진체계는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는 유연성을 갖지만 동시에 청년정책 서비스 제공 관련 국가수준의 명확한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 나.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의 청년정책 전략은 스코틀랜드 정부, 교육부와 YouthLink Scotland가 주도 하에 수립되며 이러한 청년정책의 서비스는 스코틀랜드의 32개 지자체 정부가 관할한다. 동시에 지자체들은 Youth Scotland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 활동을 담당하는 국가 자선단체들과 같은 제 3섹터 조직들(third sector

organizations)과 협력하여 청년정책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코틀랜드 평생학습 부서의 지역사회 학습과 발전 팀이 이러한 섹터를 지원한다.

#### 다. 웨일스

웨일스의 청년정책은 평생학습 및 웨일스 언어부 장관의 책임 하에 교육국이 관할하지만 청년정책의 일부는 보건복지부의 정책과도 연계성을 갖는다. 특히 웨일스의 청소년 활동헌장은 청년정책의 입안에 있어 청년층의 참여를 장려한다. 웨일스 내각은 지자체가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한을 이양하였으며 지자체 또한 아동과 청년층이 정책입안에 참여하도록 추천한다. 아울러 지자체들은 제 3섹터 조직들(third sector organizations)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지역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청년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 라.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의 청년정책은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교육부가 주된 부처이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청년정책을 시행하며 동시에 교육청의 청년정책 서비스의 거버넌스와 책무성을 관할한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북아일랜드의 청년정책 전략은 3년 단위 지역 청소년 발전 계획(Regional Youth Development Plan)을 골자로 하며 이러한 추진체계 속에서 북아일랜드 청년정책의 제도적 개입은 지역사회 변화하는 환경과 요구를 즉각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는다. 아울러 정부부처, 청년, 청년단체 대표들과 기타 이해관계자들로 지역자문 그룹(Regional Advisory Group)이 구성되어 지역 청소년 발전 계획 관련 정기적인 협의회를 갖는다.

### (3) 영국 주요 청년정책 예시

#### 가. 잉글랜드

잉글랜드에서 추진되는 주요 청년정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고용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Post-16 Skills Plan이 있다. 이 정책은 급속한 경제 변화 속에서 영국의 노동력 제고를 위해 수립된 것으로 청년층의 직업역량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직무관련 구체적인 경로를 제시하고 높은 수준의 직무관련 자격증명 체제를 구축하여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을 적극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6년 잉글랜드에서는 견습(apprenticeship)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1) 직업, 숙련된 업무, 2) 직장 외 교육훈련(off-the-job-training)을 포함하여 최소 1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훈련, 3) 고용주가 정의한 견습 기준을 충족하는 충분한 직업적 역량, 4) 영어와 수학을 포함한 기본 역량(transferable skills) 함양과 같은 네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동시에 견습은 중간 단계(intermediate level), 상급 단계(advanced level), 최상 단계(higher level)로 구분되며 각 단계는 국가수준 학업성취(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GCSE)와 유럽자격체제(European Qualifications Framework)와도 호환됨으로써 직업교육과 일반교육 체제의 유연성을 강화한다. 이러한 교육체제의 변화와 함께 잉글랜드 정부는 Find an Apprenticeship 서비스를 통해 청년층이 자신에게 맞는 견습 프로그램을 찾고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견습 제도를 통해 사업적 수월성을 달성한 경우 National Apprenticeship Award를 수여하거나 견습제도의 효과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매해 Apprenticeship Week를 개최하는 것이 그 예이다. 아울러 고용인이 50명 미만이며 16-24세 청년 견습생을 최초로 고용한 고용주를 선발하여 1,500 파운드를 지불하는 정책 또한 시행 중이다. 또한 범부처 차원에서 청년층의 장기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arn or Learn Cabinet Committee가 출범하였으며, 닛트 청년을 적극 지원하고

3백만 명에 육박하는 견습생 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층의 고용문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한다.

#### 나. 스코틀랜드

청년층의 교육 및 고용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스코틀랜드 정부의 노력은 다음과 같다. 먼저 Skills Development Scotland(SDS)는 인력개발을 위한 국가단체를 설립하였으며 이외에도 스코틀랜드 견습자문위원회(Scottish Apprenticeship Advisory Board)를 두고 스코틀랜드 청년의 직업능력 향상과 견습 프로그램 체제와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스코틀랜드의 모든 견습 프로그램을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을 Modern Apprenticeship Group에게 이양하였다. 2007년 스코틀랜드 정부는 Skills for Scotland를 통해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Developing the Young Workforce 또한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으로서 일 기반 학습을 확장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2021년까지 청년실업을 40%까지 감소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스코틀랜드 정부의 Opportunities for All 프로그램은 모든 16-19세 학생들에게 학습 또는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니트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내 16+Data hub를 구축하여 교육, 고용, 견습 등의 진로설정과 진로상담 및 복지혜택에 대한 정보를 적극 공유한다. 16-19세 청년들의 활동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였으며 2018년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연령의 91.8%가 교육, 훈련과 고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2017년에 비해 0.7% 향상된 수치로 보고된다.

스코틀랜드의 견습 프로그램인 Modern Apprenticeships(MAs)는 직무관련 자격증이 제공되는데 구체적으로 스코틀랜드 직업자격(Scottish Vocational Qualification, SVQ) 2단계가 최소 조건이다. 이는 스코틀랜드 학점 및 자격체제

(Scottish Credit and Qualifications Framework) 5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지만 16-24세 청년이 주요 대상이다. 전문직 직업자격 또는 기타 역량기반 자격 체제와 더불어 산업연계 훈련 및 핵심역량은 스코틀랜드 견습 프로그램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이다. 특히 핵심역량은 의사소통 (communication), 수리력( numeracy), 정보소통 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문제해결(problem solving), 협업(working with others)과 같이 학습과 일터에서 요구되는 다섯 가지 역량으로 규정된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러한 MA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2020년까지 매해 프로그램 참여자를 30,000명 증원할 계획을 세웠다. 특히 국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 기술, 공학, 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 분야에 방점을 두고 MA 프로그램을 개선하였다. 동시에 프로그램 진입의 형평성과 성취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 2015년 2월에는 여성 청년층의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이 캠페인을 통해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의 견습 프로그램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여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외에도 MA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Scottish Apprenticeship Week를 개최하였으며, 뛰어난 성취를 보인 개인이나 사업체에 대해 Scottish Apprenticeship Award를 수여하였다.

#### 다. 웨일스

웨일스 정부는 모든 국민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Careers Wales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정책은 웨일스 청년층의 교육 및 고용 보장과 니트족 감소, 학교와 고용주의 효과적인 참여를 추구한다. 웨일스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인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 또한 Careers Wales 정책의 틀 안에서 제공된다. 2013년에 도입된 웨일스의 청년보장제도는 청년층에게 알맞은 교육과 고용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웨일스의 청년보장제도는 25세까지가 아닌 16세 연령집단만을 대상

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도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웨일스의 견습(apprenticeships) 프로그램은 그 자체가 자격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초 견습(~2단계, 국가수준 학업성취 5단계, 유럽자격체제 3단계), 견습(~3단계, 국가수준 학업성취 A 단계, 유럽자격체제 4단계), 상위수준 견습(~4단계, 유럽연합체제 5~7단계)과 같은 수직적 체제를 포함한다. 견습 프로그램은 웨일스어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웨일스 언어 또는 이중 언어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교육기관 또는 사설 훈련회사를 통해 약 22개 훈련이 제공된다. 또한 교육기관의 견습 프로그램 제공자들은 견습생들을 지도할 훈련 멘토를 주선한다.

Careers Wales에 의해 운영되는 Apprenticeship matching service는 무료 온라인 채용시스템으로서 고용주들이 필요한 견습생을 찾고 견습생들 또한 그들에게 맞는 사업체에서 기회를 얻는 만남의 장을 제공한다. 웨일스 정부는 자국의 일 기반 학습 프로그램의 발전에 공헌한 개인, 고용주, 학습 제공자들에게 Apprenticeship Awards Cymru를 수여하며 견습 프로그램 효과를 홍보하기 위한 National Apprenticeship Week를 개최하기도 한다. 웨일스 정부는 Young Recruit Programme을 통해 다양한 견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용주들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하며, 16-24세 취업준비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Jobs Growth Wales 프로그램 또한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청년들에게 6개월 계약 일자리를 제공하며 기한 이후에도 일자리가 지속되는 데 중점을 둔다.

#### 라.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의 대표적 청년정책 프로그램은 Pathways to Success이다. 이 정책은 2012년 북아일랜드 정부가 니트족 감소를 위해 추진된 정책으로서 중첩된 사회경제적 위험에 노출된 청년층의 사회참여 장벽을 해소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둔다. 이와 함께 북아일랜드 정부는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견습 프로그램 또한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00개 정도의 견습 프로그램을 16세-25세 청년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25세 이상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견습 분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견습 프로그램 중 일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와 같은 최소 자격조건을 요구하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와 마찬가지로 견습 프로그램 또한 단계별 (Level 2, Level 3 and higher level)체제를 갖추고 있다. 한 단계를 마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2년이며 단계 이수에 따라 직업 자격증(vocational qualifications)과 기술 자격증(technical certificate)을 발급해준다. 아울러 핵심 역량으로서 의사소통(communication)과 ICT 활용 능력이 강조되며 직업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필수 혹은 선택요소들도 포함된다.

북아일랜드의 견습 제도는 정규직 고용, 해당 직업군에 상응하는 임금, 자격에 기반한 직무체제, 뛰어난 성취에 대한 보상과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재정구조 등이 주요 요소이다. 북아일랜드에서 견습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정책으로 2017년 가을에 도입된 Universal Credit을 들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구직자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구직수당 (Jobseeker's Allowance)제도의 혜택을 받은 18세-24세 청년들의 직업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별화된 고용 프로그램인 Steps 2 Success도 정부의 청년지원 프로그램으로서 52주간 프로그램 참여가 요구되며 기간 내 급여가 지급된다. 18세 이상 청년층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프로그램은 Bridge to Employment가 있다. 이 제도는 실업자들이 새로운 취업의 기회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을 습득하고 구직 경쟁력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두며 프로그램은 실제 채용의사가 있는 고용주들의 요구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16세-24세 청년층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Training for Success 프로그램 또한 참여자들에게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단계별로 습득시키며 동시에 기본역량으로서 자기개발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둔다.

## 2) 아일랜드의 청년정책 추진 동향<sup>12)</sup>

### (1) 아일랜드 청년정책의 배경 및 핵심내용

아일랜드의 청년정책은 2000년 발표된 National Children Strategy에서 파생되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삶과 권리를 제도 안에서 조망하였으며, 가장 최근에는 National Youth Strategy 2015-2020의 틀 안에서 청년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아일랜드 청년정책 전략은 10세-24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며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National Children Strategy와는 구별되며 청년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범정부 및 범부처의 성격을 갖는다.

아일랜드 청년정책의 핵심인 National Youth Strategy는 모든 청년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권리를 존중받고 아동기에서 성인기의 전환을 순조롭게 이행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둔다. 이 제도는 모든 아일랜드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제도이지만 동시에 취약계층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또한 포함하며 다음의 사회인구 집단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 지역, 지리적, 사회경제적 이유로 소외된 청년층
- 청년 여행자 및 로마 혹은 소수 민족 또는 종교적 소수 민족 출신의 청년층
- 이민자, 난민 및 망명 신청자
- 장애인 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년층
-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 청년층
- 청년 니트족
- 25세 이하로 부모가 된 청년층

---

12) 아일랜드 청년정책 추진 동향은 EACEA NATIONAL POLICIES PLATFORM(EACEA, 2020b), Cedefop Euro pean database on apprenticeship schemes(Cedefop, 2020), gov.ie(Ireland Government, 2020), National Youth Strategy 2015-2020(Department of Children and Youth Affairs, 2015)에 게재된 아일랜드 청년정책 내용을 토대로 정리함

아일랜드 또한 청년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지만 1991년 제정된 아동보호법(Child Care Act 1991)이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로 작용하며 현재 아동청소년부처(Department of Children and Youth Affairs, DCYA)에서 개정안이 심의 중이다. 아울러 아일랜드는 1992년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 승인하였으며 전술한 제도적 당위성을 바탕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와 삶의 질 보장에 대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국가 청년정책(National Youth Strategy)은 2015년에 도입되었으며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아일랜드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맥락
- 생애발달의 시기로서 청년기
- 청년정책의 환경과 국가 청년전략 협의체 마련
- 아동 및 청년층을 위한 다섯 가지 성과영역에 대한 제도적 지원

이러한 아일랜드 청년정책 전략은 아일랜드 최초의 국가수준 청년정책 제도인 Better Outcomes, Brighter Futures의 토대가 되며 이 전략에서 첫째, 심신의 건강, 둘째, 학습과 발달에 있어 완전한 잠재력 실현, 셋째,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음, 넷째, 경제적 보장과 기회, 다섯째, 청년 세계를 존중하고 청년층과 연계됨과 같이 다섯 가지 성과영역이 강조된다.

아일랜드의 국가수준 청년전략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25세 이하 만 4,000명 청년층을 포함한 4,600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광범위한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비롯한 주요 사항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였다.

## (2) 아일랜드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아일랜드 청년정책은 국가수준에서 아동청소년부처(DCYA)가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정책 실행을 보장한다. 아일랜드 아동청소년부는 기관

내 국가청년전략 주도팀(National Youth Strategy Lead Team)을 마련하였으며, 이 조직은 정책 실행의 전반을 모니터한다. 이러한 구심점을 바탕으로 아일랜드의 청년정책은 부처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방식으로 추진되며 정책 최고위 컨소시엄 또한 구성되었다. 이 컨소시엄은 아동청소년부 사무국장이 주재하며 정부 고위 관료들로 구성된 아일랜드 내각 사회정책위원회(Cabinet Committee on Social Policy)에게 즉각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따른다. 전문한 아동청소년부처와 함께 고용사회보장부처(The Department of Employment Affairs and Social Protection), 기업 및 기업혁신부처(The Department of Business, Enterprise and Innovation) 또한 아일랜드 청년정책에 관여한다. 이처럼 아일랜드 청년전략은 더 나은 성과를 위해 정부부처를 포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망라하여 청년층의 상호연계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정부, 국가 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추구하며 그림 II-2와 같이 청년 정책 다섯 가지 성과를 달성하는 데 추진체계가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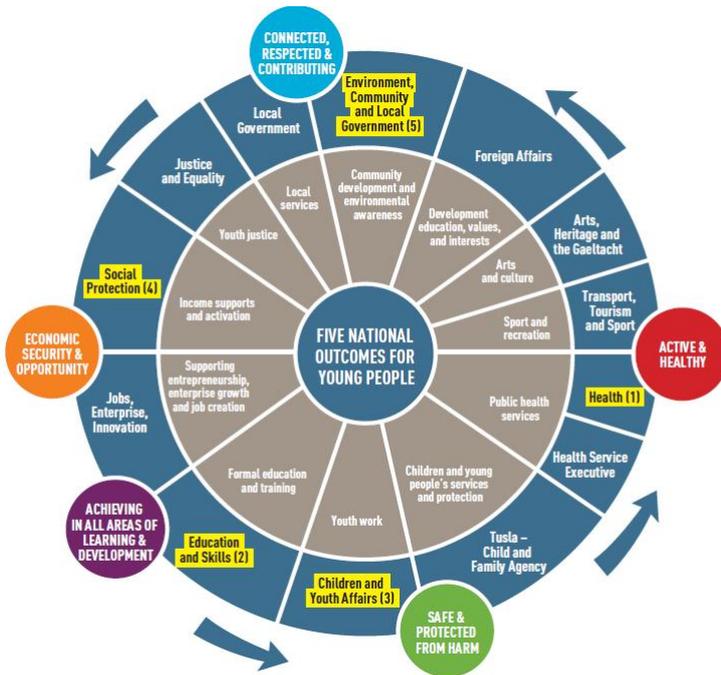
### (3) 아일랜드 주요 청년정책 예시

아일랜드 청년정책은 Better Outcomes, Brighter Futures 틀 안에서 실행된다. 특히 미시적 관점에서 아일랜드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보건, 교육, 일, 사법체계, 사회보장 체제 내에서 다음 생애주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다.

- 10-15세: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단계로 진학하면서 보이는 학업성취
- 16-17세: 중등교육에서 노동시장 혹은 고등교육으로 이행
- 18-24세: 노동, 교육, 투표와 같은 사회참여의 지속과 가정에서부터 독립된 삶의 영위

아일랜드 청년정책 또한 고용문제와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먼저

청년보장(Youth Guarantee)제도의 일환으로 Youth Employment Support Scheme(YESS)을 들 수 있다. 2018년 10월 1일부터 시작된 이 정책은 장기간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층의 노동시장으로 복귀를 지원하는 고용 훈련 프로그램이다. 정책 대상자는 18세-24세 미취업 청년층이며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다. 정책의 주된 목표는 청년층들이 민간, 지역사회 및 자발적 분야의 조직에서 기본적인 업무와 사회적 역량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며 매주 229.20 유로의 급여가 지급된다. 고용기관은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멘토로부터 직무 관련 조언과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한다.



\* 출처: Department of Children and Youth Affairs(2015). National Youth Strategy 2015-2020 웹사이트 www.dcy.a.ie에서 2020년 8월 8일 인출

그림 11-2. 아일랜드 청년정책 성과 달성을 위한 협력체계

아일랜드의 견습제도는 16세 이상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영국과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 자격체제를 갖추고 있다. 견습 프로그램을 훌륭하게 이수한 경우 Quality and Qualifications Ireland(QQI)의 상위단계 자격증(advanced certificate)을 발급받게 되며 이는 아일랜드 국가자격체제(National Framework of Qualification, QQI) 6단계 및 유럽자격체제(EQF) 5단계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아일랜드 견습 프로그램은 추가교육 및 기술 서비스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인 SOLAS(Irish: An tSeirbhís Oideachais Leanúnaigh agus Scileanna)에 의해 주로 제공된다. SOLAS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발전에 대응하여 아일랜드 전역에서 추가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25세 미만 청년층 57,935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아일랜드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또 다른 고용정책 프로그램은 Tús initiative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실직자들에게 단기 근로 기회를 주는 지역사회 노동 배치 제도로서 도시와 농촌의 지역사회와 봉사활동 기관을 통해 근로 기회가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개발 회사들과 고용 및 사회보장부처가 관리하며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일주일에 19시간 일하고 참여는 12개월 동안 지속된다. 참가자들이 수행하는 직무는 모두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며 환경 서비스(예: 국가 보행로의 보존 및 유지 관리), 돌봄 서비스(예: 육아, 노인 돌봄) 일반 커뮤니티 서비스(예: 뉴스레터 또는 커뮤니티를 위한 정보 제공), 문화재 및 문화 서비스(예: 지역유산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다.

### 3) 미국의 청년정책 추진 동향<sup>13)</sup>

#### (1) 미국 청년정책의 배경 및 핵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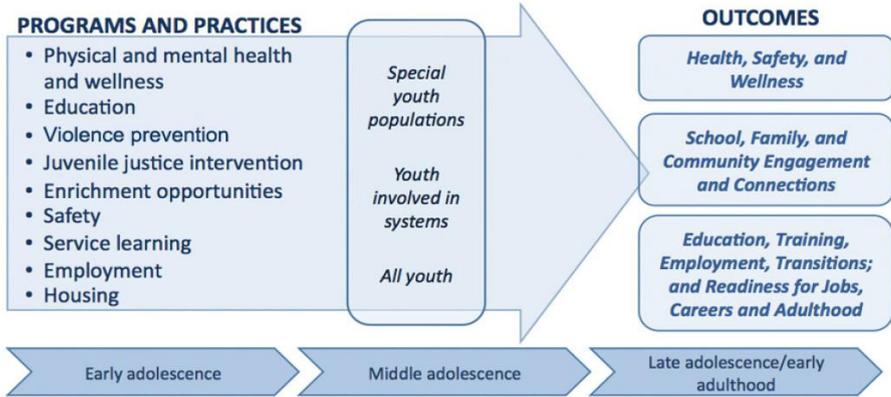
미국의 청년정책은 연방정부가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Pathways for Youth로 일컬어진다. Pathways for Youth는 2013년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Youth Programs(Working Group)에 의해 공표되었으며 18개 연방정부 부처 및 기관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청년정책에 대한 전술한 실무단의 역할은 2008년 발표된 행정명령 13459(Executive Order 13459)과 2009년 통합예산법(Omnibus Appropriation Act 2009)에 의해 규정되었다. 이러한 법적 준거에 따라 청년정책의 Working Group은 연방, 주, 지역 및 부족 수준에서 혁신적인 협력을 도모하며, 증거기반 전략을 도출하고 청년층에 대한 연방정부 기관 내 웹사이트를 구축하였다. 상술한 제도적 개입은 10세-24세를 주된 대상으로 삼지만 프로그램 목표에 따라 다양한 연령층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영유아기에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연속되는 생애과정 속에서 체계적인 협력 또한 장려된다.

Working Group에 의해 개발된 정책의 틀은 <그림 II-3>과 같이 제시된다. 정책 틀 개발을 위한 공청회 및 웨비나 세션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투입요소로 반영되었으며 여기에는 청년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적 요인들 또한 고려되었다. 청년층의 민족적 배경, 사회적 환경과 계층 위치는 개인과 사회 발전에 중요한 요인이며 미국 청년정책 프로그램 또한 사회인구학적 차이를 반영한다. 특히 미국 청년정책 주요 성과는 첫째, 건강 및 안전, 둘째, 학교, 가정과 지역사회

---

13) 미국 청년정책 추진 동향은 Pathways for Youth: Draft Strategic Plan for Federal Collaboration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Youth Programs, 2013), U.S. Department of Labor (<https://www.dol.gov/general/topic/training/youth>에서 8월 8일 인출), U.S. Department of Education(<https://www2.ed.gov/programs/trioupbound/index.html>에서 8월 8일 인출)에 게재된 미국 청년정책 내용을 토대로 정리함

참여와 연결, 셋째, 직업, 경력, 성인기를 위한 교육, 훈련, 고용, 전환 및 준비와 같은 세 가지 영역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정책 틀은 청소년기 초반(14세 미만), 청소년기 중반(15세-17세), 청소년기 후반/성인기 초반(18세-24세)과 같이 생애 발달 주기를 고려함으로써 청년발달의 통합적 접근을 꾀한다.



\* 출처: U.S Government(2013:7). Pathways for Youth: Draft Strategic Plan for Federal Collaboration. 재인용

그림 II-3. 미국 연방정부 청년정책 투입 틀

전술한 틀 안에서 미국 연방정부의 청년정책은 다음의 비전을 제시한다.

- 청년과 그들의 가족들은 안전하고 건강하며 안정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학습하며 일한다.
- 청년들은 양질의 저렴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 청년들은 교육, 훈련, 생활 기술 개발 및 직업, 경력, 자급자족, 성인기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갖는다.
- 청년들은 가족, 동료, 학교, 그들을 지지해주는 성인 및 지역사회와 견고하고 긍정적이며 안정적인 관계를 맺는다.

- 청년 서비스 기관과 파트너십은 잘 훈련되고, 분야에 정통하며, 유능하고, 온정적이며, 문화적으로 반응하는 개인에 의해 제공된다.
- 청년들은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강점을 인정받고 시민 참여, 서비스 및 리더십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는다.
- 청년들은 초·중등 유년기, 청소년기, 청소년기를 포함한 발달의 모든 단계에서 건강하게 성장한다.

## (2) 미국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미국 연방정부의 청년정책은 여러 부처와 기관이 관여하는 범정부의 추진체계를 따른다. Working Group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연방정부의 대표들로부터 청년 정책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도출하며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한다. 이러한 추진체계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청년,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재원을 제공하며, 청년정책 프로그램 및 기타 지원의 강력한 모델을 제시하고 청년들과의 향후 협력활동을 위한 영역을 명확히 한다. 특히 정책의 실행 및 결과 공유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통합 웹사이트 Youth.gov가 개설되었으며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파트너십을 통해 효과적인 청년정책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한다.

아울러 Working Group은 연방정부의 협업이 청년정책 성과로 이어지는 논리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협업과 조정, 증거기반 혁신전략, 청년 참여와 파트너십이란 세 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하였다. 상술한 목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실행 가능함과 동시에 측정 가능한 활동을 동반한다. 이러한 활동은 행정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추진체계 조정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더 나은 성취를 거두는 데 걸림돌이 되는 장벽들을 제거한다. Working Group 또한 범부처 이니셔티브를 통해 청년 정책 관련 공통된 이해와 효과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 (3) 미국 주요 청년정책 예시

미국 연방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무수히 많은 청년정책 중에서 고용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의 견습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2017년 트럼프 정부는 청년층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견습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제도적 개입은 미국 노동시장이 직면한 구조적 실업을 완화하고 현행 고등교육 및 연방정부의 고용훈련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있다(안수란, 2017). 미국의 견습제도는 16세 이상 청년층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훈련이 종료되면 산업인증 수료증(industry-recognized credential)이 발급된다. 2019년 정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총 633, 476명의 견습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는 이전 10년 평균(459,000명)과 비교했을 때 38%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제조업과 건설업이 견습 프로그램의 주된 분야이지만 최근에는 보건 의료, 미디어, 정보기술과 같은 새로운 산업 분야로 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미국 경제와 노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 기제로서 견습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2016년 미국 노동부는 기업들이 다양한 인력풀을 접할 수 있도록 Equal Employment Opportunity(EEO) 규정을 갱신하였다. 새로운 EEO 규정에 따라 견습생의 기회가 여성, 소수자,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대폭 확대되며 고용주의 차별을 제도적으로 금지한다.

사회적 평등의 관점에서 미국 연방정부는 이미 16세-24세 취약계층 청년들의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Job Corps 프로그램을 제공한 바 있다. 50년간 지속된 연방 청년정책으로서 이 프로그램은 대상 청년층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의미 있는 진로개발을 통해 고용의 기회를 얻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은 특정 분야에서 최대 3년간 기술을 배우고 숙식을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취업, 주거, 보육, 교통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 이수자들이 노동시장으로 이행하거나 대학진학과 같은 생애 전환기를 어려움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YouthBuild 또한 16-24세 취약계층 청년층을 대상으로 교육, 취업, 사업 등의 진로설정을 도와주는 연방정부의 정책인 동시에 전 세계에서든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운동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미국과 전 세계에 YouthBuild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청년들이 건설기술을 배워 지역사회에 필요한 저렴한 주택, 학교, 놀이터와 지역사회 센터를 건설하는 데 직접 일조한다. 중졸 청년 실업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얻고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연마하여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취약계층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미국 교육부의 청년정책은 Upward Bound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 정책은 13세-19세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대입준비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저소득 및 저학력 가정의 고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중등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대학진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수학, 과학, 문학, 외국어 등에서 학습지도와 튜터링과 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또한 제공한다. 특히 고등학교를 중퇴한 청소년들이 다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대안교육 프로그램, 일반교육 프로그램 또는 중등 후 교육(post-secondary education)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 4) 시사점

영국은 정규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으며 비고용상태(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에 처한 청년 니트족의 문제가 가장 처음으로 논의된 나라이다. 그 결과,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참여의 문제를 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삼고 이를 제도적 개입을 통해 타개하려는 노력을 경주한다. 특히 지방분권체제 하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는 각 지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는 청년정책의 전략을 마련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향상하기 성과평가를 강조한다. 일례로 스코틀랜드에서 어린 11세 미만 아동들에게 조기개입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생애주기를 고려한 선제적 대응은 아일랜드와 미국의 정책전략에서도 쉽게 파악

된다. 먼저 아일랜드 청년정책은 아동기에서 성인기의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단계를 충분히 고려하며 각 시기별 주요 과업과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미국의 청년정책 또한 생애주기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정책 그 자체가 청년층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둔다. 아울러 영국, 아일랜드, 미국 세 나라의 청년정책은 생애발달 단계에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대상을 사회·인구학적으로 보다 세밀하게 규정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삶을 총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입을 모색한다. 이러한 접근은 청년정책이 교육, 노동, 복지, 문화 등 사회제도의 기능적 측면에서만 촉발되는 것이 아닌 근본적으로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과 같은 대상 중심의 정책임을 시사한다(김기현, 2017). 따라서 우리나라의 청년정책 또한 고용문제에만 국한되어 청년층의 취업률 향상에 초점을 두는 것에서 나아가 생애발달의 관점에서 청년층의 삶의 경로를 추적하고 대상에 따라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적 배제의 위험에 노출된 아동 및 청소년이 직면한 문제들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조기개입을 제공하는 스코틀랜드의 정책전략을 그 예로 볼 수 있다.

영국, 아일랜드, 미국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정책의 유기적 연계성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및 관련 기관을 망라하여 청년 문제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차출하여 Interagency Working Group을 구성하였다. 아일랜드 또한 National Youth Strategy Lead Team을 마련하여 정책 실행의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추진체계는 청년정책이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닌 범정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하며, 관련 부처들의 협업과 조정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부처에서 추진되는 청년정책의 유기적 연계성과 지속성이 결여된다는 논의를 고려해봤을 때(김형주 외, 2019), 미국과 아일랜드의 추진체계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2020년 8월 5일 시행되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도입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체계의 상호연계성과 효과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 ○ — 제3장 2020년 한국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

- 1. 청년 사회·경제 실태  
핵심지표
- 2. 조사 개요
- 3. 2020년 핵심지표별 한국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
- 4. 2020년 부가설문조사: 주거



## 1. 청년 사회·경제 실태 핵심지표

본 연구는 1차년도(2016년) 연구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과 삶의 전반을 파악해 보기 위해 청년 핵심지표를 개발하였고 각 연차별 연구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핵심지표를 수정·보완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사항목의 업데이트를 추진해 왔다. 청년 핵심지표는 사회적 실태와 경제적 실태를 포괄하는 것으로 대분류, 소분류, 핵심지표라는 분류체계로 구축되어 있으며, 대분류의 경우 인구와 가족, 교육과 훈련, 경제와 고용, 주거, 건강, 문화와 가치관, 관계와 참여라는 7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금년도까지 총 5차에 걸친 청년 사회·경제 실태 조사에서는 이와 같은 7가지의 대분류 체계를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소분류의 경우 인구와 가족에는 인구, 가족을, 교육과 훈련에는 교육, 훈련·평생 학습을, 경제와 고용에는 직업, 소득 및 소비를, 주거에는 주거현황과 주거여건을, 건강에는 신체 및 정신건강, 의료를, 문화와 가치관에는 문화 및 여가, 가치관을, 관계와 참여에는 관계, 참여를 위계적인 분류체계로 구축하였다(김기현 외, 2017). 각 소분류에 따른 조사항목들은 2017년에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아 이후 지속적으로 변경승인을 거쳐 승인통계로서 조사되어 보고되고 있으며, 일관성 있는 시계열 분석을 위해 대분류와 소분류 체계의 기본 틀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김형주 외, 2019).

14) 이 장의 1절은 김형주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나머지 절들은 금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동으로 정리하였음

다음은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의 핵심지표에 대한 대분류와 소분류 틀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1 2017~2020년도 청년 사회·경제 핵심지표 분류체계

대분류	소분류
인구와 가족	인구
	가족
교육과 훈련	교육
	훈련·평생학습
경제와 고용	직업
	소득 및 소비
주거	주거현황
	주거여건
건강	신체 및 정신건강
	의료
문화와 가치관	문화 및 여가
	가치관
관계와 참여	관계
	참여

\* 출처: 김형주 외(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p.82.

청년 사회·경제 실태의 핵심지표 중 대분류 첫 번째인 ‘인구와 가족’의 경우 소분류로 인구와 가족으로 구분되고, 세부 핵심지표는 소분류 인구에 청년층 인구수를 비롯한 10개의 지표로, 소분류 가족에 혼인율을 비롯한 9개의 지표로 구성된다(김형주 외, 2019).

표 III-2 청년 사회·경제실태 '인구와 가족' 관련 핵심지표체계

대분류	소분류	핵심지표	출처
1. 인구와 가족	1-1. 인구	1-1-1. 청년층 인구수	장래인구추계(통계청)
		1-1-2. 전체 인구 대비 청년층 인구 구성비	장래인구추계(통계청)
		1-1-3. 청년층 다문화 인구	체류외국인통계(통계청)
		1-1-4. 청년층 인구 전망	장래인구추계(통계청)
		1-1-5. 청년 연령규정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1-1-6. 적정 독립 시기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1-1-7. 적정 결혼 시기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1-1-8. 적정 출산 시기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1-1-9. 해외이주 의사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1-1-10. 해외이주 고려 이유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1-2. 가족	1-2-1. 혼인율	인구동향조사(통계청)
		1-2-2. 초혼연령	인구동향조사(통계청)
		1-2-3. 결혼준비 경험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1-2-4. 결혼 망설임 여부 및 이유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1-2-5. 출생아 수 및 출산율	인구동향조사(통계청)
		1-2-6. 출산연령	인구동향조사(통계청)
		1-2-7. 맞벌이 여부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1-2-8. 자녀 유무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1-2-9. 자녀를 가질 계획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출처: 김형주 외(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p.83.

청년 사회·경제 실태의 핵심지표 중 대분류 두 번째인 '교육과 훈련'의 경우 소분류로 교육과 훈련·평생학습으로 구분되고, 세부 핵심지표는 소분류 교육에 진학률을 비롯한 14개의 지표로, 소분류 훈련·평생학습에 평생학습 형식교육 참여율을 비롯한 6개의 지표로 구성된다(김형주 외, 2019).

표 III-3 청년 사회·경제실태 '교육과 훈련' 관련 핵심지표체계

대분류	소분류	핵심지표	출처
2. 교육과 훈련	2-1. 교육	2-1-1. 진학률	교육통계연보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1-2. 대학등록금	대학알리미
		2-1-3. 대학등록금 대출자 비율	대학알리미
		2-1-4. 장학금 규모	대학알리미
		2-1-5. 학제별 대학졸업 소요기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통계청)
		2-1-6. 대출자 휴학 현황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통계청)
		2-1-7. 대학생 학업중단율	교육통계연보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1-8.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2-1-9. 졸업 유예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사유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2-1-10. 전공과 직업 일치도	사회조사(통계청)
		2-1-11. 추후 대학 진학 의사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2-1-12. 대학 미진학 사유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2-1-13.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2-1-14. 고등교육에 대한 만족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2-2. 훈련·평생 학습	2-2-1. 평생학습 형식교육 참여율	평생학습실태조사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2-2. 평생학습 비형식교육 참여율	평생학습실태조사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2-3. 평생학습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	평생학습실태조사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2-4. 직업훈련 참여율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통계청)
		2-2-5. 취업 준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2-2-6. 고시생 및 공시생 현황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출처: 김형주 외(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p.84.

청년 사회·경제 실태의 핵심지표 중 대분류 세 번째인 '경제와 고용'의 경우 소분류로 직업과 소득 및 소비로 구분되고, 세부 핵심지표는 소분류 경제에 경제활

동 참여율을 비롯한 14개의 지표로, 소분류 소득 및 소비에 청년 소득을 비롯한 9개의 지표로 구성된다(김형주 외, 2019).

표 III-4 청년 사회·경제실태 '경제와 고용' 관련 핵심지표체계

대분류	소분류	핵심지표	출처
3. 경제와 고용	3-1. 직업	3-1-1. 경제활동 참여율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3-1-2. 고용률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3-1-3.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3-1-4. 신설법인 비율	신설법인동향(통계청)
		3-1-5. 청년 고용주(대표) 비율	기업생멸통계(통계청)
		3-1-6. 니트(NEET) 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3-1-7. 비정규직 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3-1-8. 신규 채용률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3-1-9. 청년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3-1-10. 청년 중소기업 취업 의향 및 비 취업 이유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3-1-11. 청년 창업 의향 및 경험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3-1-12. 청년 직장에서 본인 조건에 맞는 대우 여부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3-1-13. 청년 이직 의향 및 이유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3-1-14. 신규졸업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3-2. 소득 및 소비	3-2-1. 청년 소득	고용노동통계(고용노동부)
		3-2-2. 청년 소비	가계동향조사(통계청)
		3-2-3. 장년 대비 청년 상대임금	고용노동통계(고용노동부)
		3-2-4. 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	고용노동통계(고용노동부)
		3-2-5. 청년 부채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3-2-6. 최저임금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3-2-7. 생활비 및 가족 지원 비율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3-2-8. 채무 여부 및 사유*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3-2-9. 물질적 박탈감 경험여부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출처: 김형주 외(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p.85.

청년 사회·경제 실태의 핵심지표 중 대분류 네 번째인 ‘주거’의 경우 소분류로 주거현황과 주거여건으로 구분되고, 세부 핵심지표는 소분류 주거현황에 청년층 주거형태를 비롯한 7개의 지표로, 소분류 주거여건에 청년층 주거 빈곤 규모를 비롯한 6개의 지표로 구성된다(김형주 외, 2019).

표 III-5 청년 사회·경제실태 ‘주거’ 관련 핵심지표체계

대분류	소분류	핵심지표	출처
4. 주거	4-1. 주거 현황	4-1-1. 청년층 주거형태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4-1-2. 청년층 실주거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4-1-3. 청년 가구 비율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4-1-4. 청년 1인 가구 비율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4-1-5. 부모 동거 여부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4-1-6. 미혼 독립 거주 여부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4-1-7. 1인 가구 주거 형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4-2. 주거 여건	4-2-1. 청년층 주거 빈곤 규모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4-2-2. 가처분소득 대비 가구부채비율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4-2-3. 기숙사 수용률	대학알리미
		4-2-4. 주거 마련 시기 의견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4-2-5. 공동주거 경험 및 의향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4-2-6. 평소 주거에 대한 생각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출처: 김형주 외(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p.86.

청년 사회·경제 실태의 핵심지표 중 대분류 다섯 번째인 ‘건강’의 경우 소분류로 신체 및 정신건강과 의료로 구분되고, 세부 핵심지표는 소분류 신체 및 정신건강에 정기적인 운동습관을 비롯한 10개의 지표로, 소분류 의료에 청년 병원 이용을 비롯한 6개의 지표로 구성된다(김형주 외, 2019).

표 III-6 청년 사회·경제실태 '건강' 관련 핵심지표체계

대분류	소분류	핵심지표	출처
5. 건강	5-1. 신체 및 정신 건강	5-1-1. 정기적인 운동습관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5-1-2. 비만을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
		5-1-3. 스트레스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
		5-1-4. 우울증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
		5-1-5. 자살률	사망원인통계(통계청)
		5-1-6. 흡연율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
		5-1-7. 음주율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
		5-1-8. 주관적 체형 인식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5-1-9. 주관적인 신체건강 인식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5-1-10.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5-2. 의료	5-2-1. 청년 병원 이용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
		5-2-2.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	한국의료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건강보험공단)
		5-2-3. 건강검진 수검 여부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5-2-4.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5-2-5. 성형수술 여부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5-2-6. 성형수술 목적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출처: 김형주 외(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p.87.

청년 사회·경제 실태의 핵심지표 중 대분류 여섯 번째인 '문화와 가치관'의 경우 소분류로 문화 및 여가와 가치관으로 구분되고, 세부 핵심지표는 소분류 문화 및 여가에 문화 및 여가생활 유형을 비롯한 5개의 지표로, 소분류 가치관에 주관적 행복감을 비롯한 6개의 지표로 구성된다(김형주 외, 2019).

표 Ⅲ-7 청년 사회·경제실태 ‘문화와 가치관’ 관련 핵심지표체계

대분류	소분류	핵심지표	출처
6. 문화와 가치관	6-1. 문화 및 여가	6-1-1. 문화 및 여가생활 유형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6-1-2. 문화 및 여가생활 시간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6-1-3. 문화 및 여가생활 비용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6-1-4.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6-1-5. 독서율	국민독서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6-2. 가치관	6-2-1. 주관적 행복감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6-2-2. 삶의 만족도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6-2-3. 주관적 계층의식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6-2-4. 공정성에 대한 인식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6-2-5. 가치 항목별 선호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6-2-6.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출처: 김형주 외(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p.88.

표 Ⅲ-8 청년 사회·경제실태 ‘관계와 참여’ 관련 핵심지표체계

대분류	소분류	핵심지표	출처
7. 관계와 참여	7-1. 관계	7-1-1. 사회적 관계망	사회조사(통계청)
		7-1-2.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사회조사(통계청)
		7-1-3.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조사(통계청)
		7-1-4. 친한 친구 수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7-1-5. 세대갈등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7-2. 참여	7-2-1. 자원봉사 참여	사회조사(통계청)
		7-2-2. 기부활동	사회조사(통계청)
		7-2-3. 단체참여	사회조사(통계청)
		7-2-4. 투표율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2-5. 정부 및 공공기관 신뢰도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7-2-6. 의견 표명 경험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7-2-7. 의견 표명 의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7-2-8. 정치적 효능감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출처: 김형주 외(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p.89.

청년 사회·경제 실태의 핵심지표 중 대분류 일곱 번째인 ‘관계와 참여’의 경우 소분류로 관계와 참여로 구분되고, 세부 핵심지표는 소분류 관계에 사회적 관계망을 비롯한 5개의 지표로, 소분류 참여에 자원봉사 참여를 비롯한 8개의 지표로 구성된다(김형주 외, 2019).

본 연구에서 청년 사회·경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청년 핵심지표는 이상과 같이 7개의 대분류, 14개의 소분류로 총 115개의 핵심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표에 따라 전국단위의 직접조사와 기존 공인통계에 대한 2차 자료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소분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인구 분야에는 10개 지표, 가족 분야에는 9개 지표, 교육 분야에는 14개 지표, 훈련·평생학습 분야에는 6개 지표, 신체 및 정신건강 분야에는 10개 지표, 의료 분야에는 6개 지표, 문화 및 여가 분야에 5개 지표, 가치관 분야에 6개 지표, 관계 분야에 5개 지표, 참여 분야에 8개 지표 등으로 체계화 되어 있다.

## 2. 조사 개요

### 1)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18세-34세 일반국민이다. 2019년 이전까지의 조사는 만15세-39세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2020년 2월 제정된 「청년기본법」 상 청년 연령인 19세-34세 및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투표 가능 연령 변동(기존 만19세 이상→개정 만18세 이상) 등을 고려하여, 2020년 조사대상 연령은 조사기준일(2020년 6월 1일) 기준 18세-34세로 변경되었다. 조사규모는 2019년과 동일한 3,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청년층 조사의 연속성 및 중요성을 반영하고 보다 정확한 결과를 기하고자 하였다(최종 3,520표 본 수집됨).

## 2) 조사 절차

본 연구의 조사는 본조사 이전 사전 점검 차원인 예비조사와 조사표 및 표본설계 변경에 따른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 예비조사는 2020년 5월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 하였으며 총 50부를 성별(남성 25부, 여성 25부), 연령별(18세-29세 25부, 30세-34세 25부), 경활상태(취업자 25부, 미취업자 25부), 혼인여부(미혼 25부, 기혼 25부)를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본 조사에 앞서, 조사표의 신뢰도와 타당도, 조사 문항과 사용된 용어의 난이도와 편집 가독성, 대략적인 조사 응답 시간, 조사표 통합 및 변동으로 인한 특이사항 및 그 외 조사 진행 관련 전반에 걸친 예상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본조사 조사표에 반영하였다.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는 2017년 7월에 국가승인통계(제402004호)로 지정되었으며, 2018년과 2019년에도 국가통계로서 청년들의 삶과 관련된 지표 결과를 공표한 바 있다. 2020년에는 조사대상 연령 변동에 따른 표본설계와 설문유형 통합, 세부 조사문항 추가·변동·문구수정 등에 대한 변경승인 절차를 진행하였다.

통계법 개정으로 2018년 2월부터 통계청에서 통계작성 시 행정자료를 우선 활용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통계청 행정자료관리과에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통합 조사표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 판단 의뢰를 요청하였다(2020.4.27.). 그 결과, 조사항목들이 개인의 주관적 상황이나 경험에 대한 질문사항으로 행정자료로서 이를 활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유로 ‘행정자료 활용 불가’라는 판단 결과통보서가 회신되었다(2020.5.6.).

조사문항 추가·변동·문구수변 사항을 반영하여 2020년 5월 20일에 ① 통계작성 승인신청서, ② 통계작성 기획서, ③ 조사지침서, ④ 조사표, ⑤ 변경문항 세부 내역, ⑥ 통계결과 표 서식, ⑦ 통계 관련 용어 및 해설자료, ⑧ 표본설계서 및 표본설계요약서, ⑨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 공문 및

통보서 등 총 9가지의 자료를 첨부, 통계청 통계조정과에 통계작성 변경승인을 신청하였다. 이후 조사대상 변경과 이에 따른 표본설계서 내용 중 ① 권역 구분 근거 및 특성 차이 부문과 ② 층 내 조사대상 조사구 수 관련 보완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수정·보완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20년 6월 25일에 변경승인이 완료되었다.

### 3) 조사 방법

본 조사는 조사원이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 대상자와 접촉, 대면하여 면접하는 1:1 가구방문 개별면접 기법으로 수행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에 방문하여 ① 조사 취지 및 목적 설명과 조사 수락 요청, ② 조사대상 적격 연령대 가구원 확인, ③ 조사 대상자 재택 시 개별면접 진행의 흐름으로 진행되었다. 단, 조사대상 연령대인 만18세-34세 가구원은 주간 시간대에 부재중인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대상자와의 직접면접을 원칙으로 하되, 가구 방문 시 조사대상 연령대 가구원이 부재중일 경우에 한하여 일부 가구원 유치 조사를 병행하였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투입 예정 조사원에 대한 조사원 집체 교육을 2020년 6월 16일~19일, 총 4일에 걸쳐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서울 지역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해당 집체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조사원에 대한 추가 집체 교육을 6월 24일, 25일, 29일, 3일 간 서울, 대전, 부산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집체 교육 외에 중도 포기 인원을 대체할 조사원이나 진행이 미흡한 지역에 투입할 추가 조사원을 대상으로 한 수시교육도 실사 기간 동안 추가로 실시되었다. 교육은 사전에 연구진이 작성한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조사지침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개 파트로 나누어 총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첫 번째 파트는 <조사개요> 부분으로 본 조사의 배경 및 목적, 조사 적격 가구

및 응답자에 대한 기준 등을 소개하며, 특히 올해 조사 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조사 진행 시 주의사항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였다.

두 번째 파트는 <조사표 교육>으로 조사표 구성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및 변동사항, 문항별 의미 및 용어정의, 문항 유형별 입력 방식, 보기문항에 대한 설명, 질문요령,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세 번째 파트는 현장조사의 실제적인 <방법론>에 대한 교육으로 조사구 활용 등 현장조사 단계별 접근방법, 적격대상자 선정 절차, 조사원의 역할, 윤리 및 주의사항 및 주요 조사방법으로 활용되는 TAPI(Tablet PC Aided Personal Interview,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 방법을 설명하고 현장 조사 시 조사원이 사용할 TAPI 프로그램 실습을 진행하였다. 교육 마지막에서는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와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현장조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교육 참석자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후 교육을 종료하였다.

#### 4) 조사 기간

본 조사는 2020년 7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약 3주간의 조사 중단 기간(8월 22일~9월 13일)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는 총 8주간 실시되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감염 급증으로 인해 조사 협조율 감소와 가구방문을 통한 전염 등을 우려하여 8월 22일~9월 13일까지 현장 조사를 일시 중단하였으며, 확진자 감소 추세를 확인 후 재개하여 조사를 마무리 하였다.

#### 5) 표본 설계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청년기본법 상 청년 연령대(19세 이상~34세 이하)와 선거 가능 연령(만 18세 이상)을 고려하여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일반 국민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이 조사의 개념상 규정된 목표모집단

(target population)은 조사시점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 만 18세부터 34세 이하의 가구원이며, 조사모집단(survey population)은 조사 시행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인구주택총조사 상의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하고 아파트 조사구 및 일반조사구 내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4세 이하의 가구원으로 정의하였다. 본 정의에 따른 표집틀의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본설계 시점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가장 최신의 자료인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리스트를 표본 추출 표집틀로 활용하였다.

2020년 표본설계에서는 총 3단계의 층화 과정을 거쳤다. 먼저 7개 특별·광역시와 9개 도 지역으로 1단계 층화하고, 9개 도 지역에 대해서는 동부와 읍·면부로 2단계 층화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지역적으로 넓어서 표본의 지역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울은 4개 권역(북동, 남동, 남서, 북서), 경기도는 3개 권역(북부, 중부, 남부)으로 3단계 층화를 실시하였다.

또한 본 조사는 통계 작성 단위인 6개 권역별로 조사 결과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정도(precision)를 가지는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선 일정 크기 이상의 유효한 표본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6개 권역별 표본 조사구를 적정히 배분하는 방식으로 정도(precision) 확보를 위한 표본 규모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배분 방식은 층별 조사대상자 수에 비례배분법, 제곱비례배분법, 우선할당비례배분법 등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제곱근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는데, 이를 통해 권역별 유효표본 과대·과소 표집을 방지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권역별 추정 결과의 통계적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다.

최종 조사대상 가구 및 조사 대상자 추출 시에는 각 표본 조사구별 7명의 대상자를 조사하도록 규정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별 표본가구 당 조사대상 연령대 가구원의 평균을 고려하여 표본 조사구에서 추출되는 원표본 가구 수를 결정하였다.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동 지역에서의 가구당 평균 조사대상

연령대(18세-34세) 가구원은 0.57명이고 읍면지역은 0.42명이었다. 이에 따라 표본 조사구에서 목표표본(7명)을 충족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동부의 표본 조사구에서는 13가구, 읍면부 표본 조사구에서는 17가구를 조사대상 원표본 가구로 규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 3. 2020년 핵심지표별 한국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

#### 1) 인구와 가족

##### 1-1-1. 청년층 인구수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의 연령대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된다. 이에 해당 되는 청년층 인구수는 2020년 현재 1,089만 명이며 청년층의 전체 인구수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9-24세 청년층은 2019년 대비 2020년 11만여 명 감소, 25-29세 청년층은 2019년 대비 2020년 6만여 명 증가, 30-34세 청년층은 2019년 대비 2020년 1만여 명 증가로 저출산 심화로 인한 저연령층의 인구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단위: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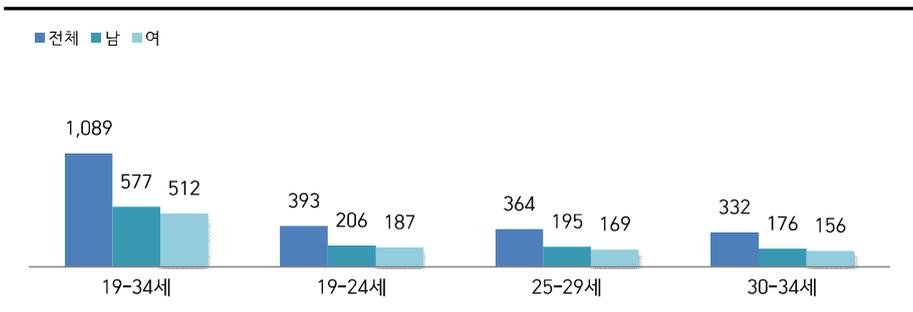


그림 III-1. 청년층 인구수

표 III-9 연도별 청년층 인구수 추이

(단위: 만 명)

연도	19-34세			19-24세			25-29세			30-34세		
	전체	남	여									
2000	1330	683	647	470	242	228	435	223	212	425	218	207
2001	1332	684	647	476	245	231	422	218	205	433	221	212
2002	1327	682	645	479	247	232	406	210	197	442	226	217
2003	1317	678	639	476	246	230	394	204	190	447	229	219
2004	1293	667	626	463	240	223	385	199	186	445	228	217
2005	1262	652	610	442	230	212	384	198	186	436	224	212
2006	1235	640	595	420	219	200	393	202	190	423	218	205
2007	1208	627	581	399	209	190	402	207	195	408	211	197
2008	1185	616	569	384	202	182	406	210	196	395	205	191
2009	1164	606	559	379	199	179	400	207	193	386	199	186
2010	1150	599	551	379	200	179	383	199	184	388	200	188
2011	1151	601	550	388	205	183	366	191	176	397	205	192
2012	1150	602	549	398	211	187	346	181	166	406	209	196
2013	1147	601	546	407	217	190	332	173	158	409	211	198
2014	1145	602	543	415	221	194	326	171	154	405	210	195
2015	1134	599	536	420	224	196	327	173	154	387	202	186
2016	1120	591	528	423	225	198	328	174	154	369	192	177
2017	1104	584	521	418	222	196	337	179	158	349	183	167
2018	1098	582	517	412	218	194	350	187	163	337	177	160
2019	1092	579	513	404	213	191	358	192	166	331	174	156
2020	1089	577	512	393	206	187	364	195	169	332	176	156

\* 출처: 통계청(각 년도a). 장래인구추계(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전국).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1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12)에서 2020년 9월 21일 인출.

\* 주: 인구변동요인별(출생, 사망, 국제이동) 중위가정을 조합한 중위추계(기본추계) 결과임.

### 1-1-2. 전체 인구 대비 청년층 인구 구성비

전체 인구 대비 19세-34세 청년층의 인구 구성비는 2020년 기준 21.0%이며 이 중 19세-24세가 7.6%, 25세-29세가 7.0%, 30세-34세가 6.4%를 차지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대인 19세-34세의 경우 2000년 전체 대비 28.3%에서 2020년 21.0%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성별에 관계없이 남·여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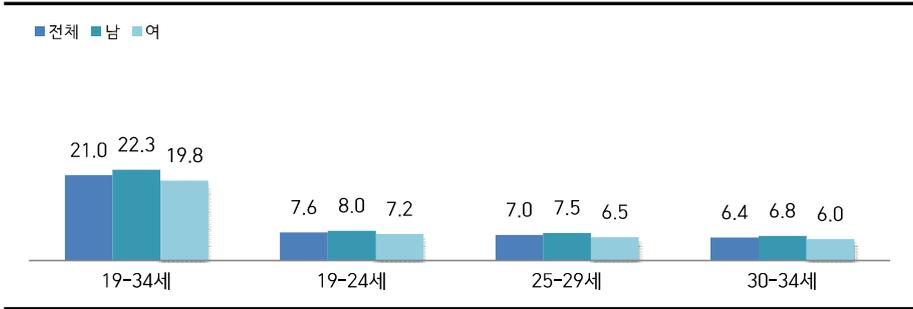


그림 III-2. 전체인구 대비 청년층 구성비

표 III-10 연도별 전체인구 대비 청년층 구성비 추이

(단위: %)

연도	19-34세			19-24세			25-29세			30-34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00	28.3	28.9	27.7	10.0	10.2	9.8	9.3	9.4	9.1	9.0	9.2	8.9
2001	28.1	28.7	27.5	10.0	10.3	9.8	8.9	9.1	8.7	9.1	9.3	9.0
2002	27.9	28.4	27.3	10.0	10.3	9.8	8.5	8.7	8.3	9.3	9.4	9.2
2003	27.5	28.1	26.9	9.9	10.2	9.7	8.2	8.4	8.0	9.3	9.5	9.2
2004	26.9	27.5	26.2	9.6	9.9	9.3	8.0	8.2	7.8	9.3	9.4	9.1
2005	26.2	26.9	25.5	9.2	9.5	8.9	8.0	8.2	7.8	9.0	9.2	8.9
2006	25.5	26.3	24.7	8.7	9.0	8.3	8.1	8.3	7.9	8.7	8.9	8.5
2007	24.8	25.6	24.0	8.2	8.5	7.8	8.3	8.5	8.0	8.4	8.6	8.1
2008	24.2	25.0	23.3	7.8	8.2	7.5	8.3	8.5	8.0	8.1	8.3	7.8
2009	23.6	24.5	22.8	7.7	8.0	7.3	8.1	8.4	7.9	7.8	8.0	7.6
2010	23.2	24.1	22.3	7.6	8.0	7.3	7.7	8.0	7.5	7.8	8.0	7.6
2011	23.0	24.0	22.1	7.8	8.2	7.3	7.3	7.6	7.1	7.9	8.2	7.7
2012	22.9	23.9	21.9	7.9	8.4	7.5	6.9	7.2	6.6	8.1	8.3	7.9
2013	22.8	23.8	21.7	8.1	8.6	7.6	6.6	6.9	6.3	8.1	8.3	7.9
2014	22.6	23.7	21.5	8.2	8.7	7.7	6.4	6.7	6.1	8.0	8.2	7.7
2015	22.2	23.4	21.1	8.2	8.8	7.7	6.4	6.8	6.1	7.6	7.9	7.3
2016	21.9	23.0	20.7	8.3	8.8	7.7	6.4	6.8	6.0	7.2	7.5	6.9
2017	21.5	22.7	20.3	8.1	8.6	7.7	6.6	7.0	6.2	6.8	7.1	6.5
2018	21.3	22.5	20.1	8.0	8.4	7.5	6.8	7.2	6.3	6.5	6.8	6.2
2019	21.1	22.3	19.9	7.8	8.2	7.4	6.9	7.4	6.4	6.4	6.7	6.1
2020	21.0	22.3	19.8	7.6	8.0	7.2	7.0	7.5	6.5	6.4	6.8	6.0

\* 출처: 통계청(각 년도a). 장래인구추계(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전국).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1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12)에서 2020년 9월 21일 인출.

\* 주: 인구변동요인별(출생, 사망, 국제이동) 중위가정을 조합한 중위추계(기본추계) 결과임.

### 1-1-3. 청년층 다문화 인구

다음으로 체류외국인통계(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단기체류외국인의 합)를 통해 청년층 다문화 인구 규모를 살펴보았다.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층 연령(19세-34세)에 준하는 20-34세 체류외국인 수는 2019년 약 102만 5천여 명으로 2011년 59만 1천여 명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9년 만에 두 배에 가까운 숫자로 증가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20세-24세 청년층의 2011년 남·여 체류 외국인 수가 각각 89만여 명으로 동일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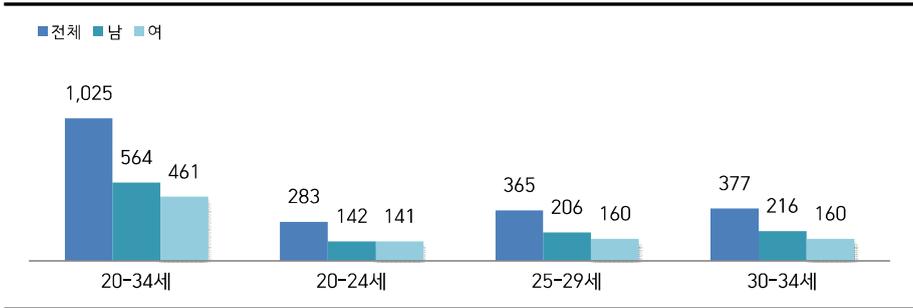


그림 III-3. 체류외국인 수

표 III-11 연도별 체류외국인 수 추이

(단위: 천 명)

연도	20-34세			20-24세			25-29세			30-34세		
	전체	남	여									
2011	591	343	248	178	89	89	230	137	92	183	117	66
2012	636	366	270	187	97	90	252	147	105	197	122	75
2013	688	399	289	189	99	89	278	162	116	221	138	83
2014	766	445	321	200	106	94	312	182	130	254	157	97
2015	797	460	337	202	106	95	324	188	136	271	166	105
2016	848	483	365	217	112	106	335	193	142	296	179	117
2017	897	511	385	232	120	113	341	198	143	324	194	130
2018	966	549	417	260	134	125	354	205	148	352	209	143
2019	1,025	564	461	283	142	141	365	206	160	377	216	160

\* 출처: 법무부(각 년도). 체류외국인통계(국적·지역 및 연령별 체류외국인 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6&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6&conn_path=I2)에서 2020년 9월 21일 인출.

등록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 등록)에 의거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20-34세 수는 2019년 약 57만 7천여 명으로 2018년 56만 9천여명 대비 8만여 명 증가하였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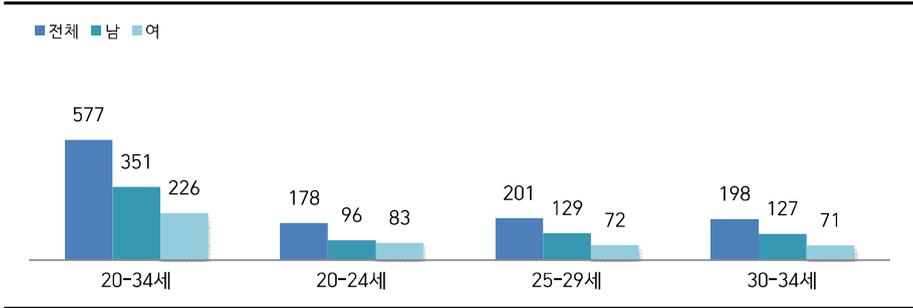


그림 III-4. 등록외국인 수

표 III-12 연도별 등록외국인 수 추이

(단위: 천 명)

연도	20-34세			20-24세			25-29세			30-34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11	451	266	185	138	68	71	174	108	66	138	91	48
2012	459	272	187	136	70	67	183	112	71	139	90	49
2013	493	297	196	132	69	63	204	125	79	158	103	54
2014	519	319	201	131	70	61	215	134	81	174	115	59
2015	531	325	206	131	70	61	218	135	82	182	120	62
2016	537	327	210	140	73	67	210	132	78	187	122	65
2017	541	329	212	146	76	70	204	129	75	191	124	67
2018	569	348	221	167	89	78	204	130	73	198	128	70
2019	577	351	226	178	96	83	201	129	72	198	127	71

\* 출처: 법무부(각 년도), 체류외국인통계(국적·지역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8&conn\\_path=l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8&conn_path=l2)에서 2020년 9월 21일 인출.

단기체류외국인(국내 입국 후 외국인등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 중 20-34세 청년층 단기체류외국인은 2019년 35만여 명으로 2011년 10만 4천여 명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추세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2018년 대비 2019년 남성(전년대비 +1만 4천여 명) 단기체류외국인 수보다 여성(전년대비 +4만 여명) 단기체류외국인 수가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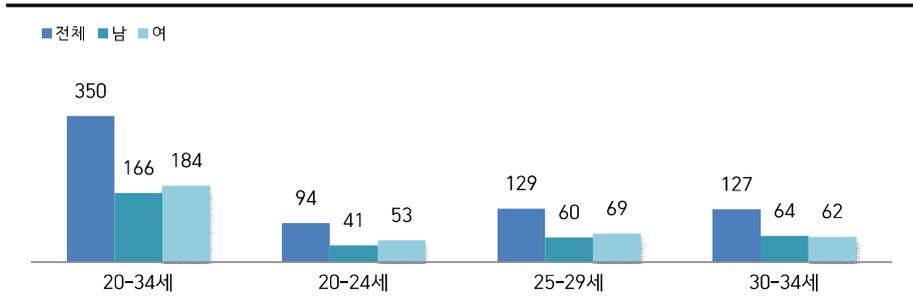


그림 III-5. 단기체류외국인 수

표 III-13 연도별 단기체류외국인 수 추이

(단위: 천 명)

연도	20-34세			20-24세			25-29세			30-34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11	104	59	44	32	18	14	39	22	17	34	20	14
2012	131	72	60	42	23	19	49	26	23	40	23	18
2013	135	72	62	42	23	19	49	26	24	43	23	20
2014	176	92	83	53	28	25	67	34	32	56	30	27
2015	184	96	88	54	29	26	70	36	34	59	31	28
2016	216	110	106	62	31	31	83	41	42	72	38	33
2017	255	133	122	72	37	35	95	49	46	88	48	40
2018	296	152	144	80	39	41	111	56	55	105	57	48
2019	350	166	184	94	41	53	129	60	69	127	64	62

\* 출처: 법무부(각 연도), 체류외국인통계(국적·지역 및 연령별 단기체류외국인 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13&conn\\_path=120](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13&conn_path=120)에서 2020년 9월 21일 인출.

결혼이민자 외국인(체류외국인 중 F-2-1 거주, F-5-2 영주, F-6-1 결혼이민, F-6-2 자녀양육, F-6-3 혼인단절로 국민배우자 자격을 소지한 자)은 2019년 총 166,025명으로 결혼이민 국민배우자(124,360명)에 해당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거주 국민배우자(F-2-1)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결혼이민자 외국인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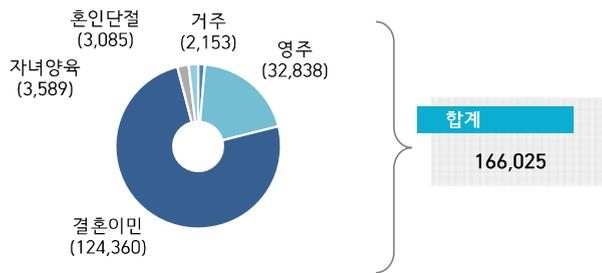


그림 III-6. 결혼이민자 외국인 수

표 III-14 연도별 결혼이민자 외국인 수 추이

(단위: 명)

연도	합계	거주(F-2) 국민배우자 (F-2-1)	영주(F-5) 국민배우자 (F-5-2)	결혼이민(F-6) 국민배우자 (F-6-1)	자녀양육 (F-6-2)	혼인단절 (F-6-3)
2011	144,681	124,119	15,739	4,542	35	246
2012	148,498	42,978	18,576	82,605	682	3,657
2013	150,865	13,385	20,473	112,338	1,081	3,588
2014	150,994	7,138	23,146	116,071	1,438	3,201
2015	151,608	5,691	25,432	115,644	1,805	3,036
2016	152,374	3,503	27,539	116,238	2,216	2,878
2017	155,457	2,996	29,938	116,996	2,704	2,823
2018	159,206	2,557	31,411	119,086	3,190	2,962
2019	166,025	2,153	32,838	124,360	3,589	3,085

\* 출처: 법무부(각 년도). 체류외국인통계(국적·지역별 결혼이민자 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16&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16&conn_path=I2) 에서 2020년 9월 21일 인출.

#### 1-1-4. 청년층 인구 전망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인 만 19세-34세 인구수는 2020년 1,089만여 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5년에는 496만여 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20년 대비 19세-24세 42.5%, 25세-29세 42.6%, 30세-34세 52.4%에 해당하며 향후 잠재성장률, 노동생산성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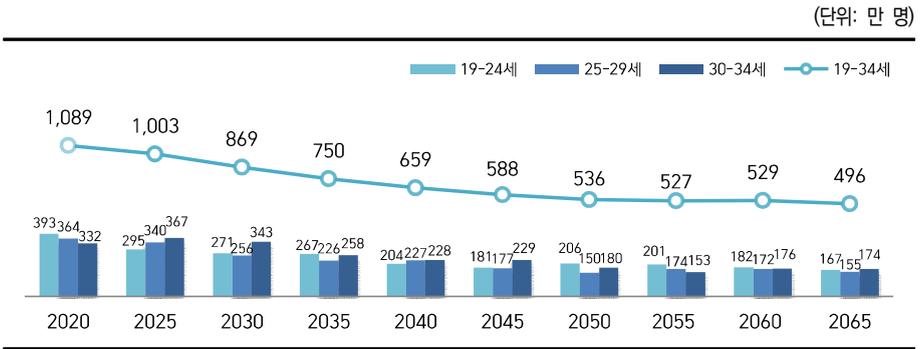


그림 Ⅲ-7. 청년층 인구 전망

표 III-15 연도별 청년층 인구 전망 추이

(단위: 만 명)

연도	19-34세			19-24세			25-29세			30-34세		
	전체	남	여									
2020	1089	577	512	393	206	187	364	195	169	332	176	156
2025	1003	529	474	295	154	142	340	178	162	367	197	170
2030	869	451	418	271	140	131	256	132	124	343	179	164
2035	750	385	366	267	137	130	226	115	111	258	133	125
2040	659	335	323	204	104	99	227	115	112	228	116	112
2045	588	298	289	181	93	88	177	90	88	229	116	113
2050	536	272	264	206	106	100	150	76	75	180	90	89
2055	527	267	260	201	103	98	174	88	86	153	77	76
2060	529	268	261	182	93	89	172	87	85	176	89	87
2065	496	251	245	167	86	82	155	78	77	174	88	86

\* 출처: 통계청(각 연도a). 장래인구추계(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전국).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1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12)에서 2020년 9월 21일 인출.

\* 주: 인구변동요인별(출생, 사망, 국제이동) 중위가정을 조합한 중위추계(기본추계) 결과임.

### 1-1-5. 청년 연령규정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18세-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의 연령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생각하는 지를 조사한 결과, 평균 19.6세에서 32.3세 사이를 ‘청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연령별로 비교 했을 때 상한-하한 연령 범위가 18세-19세에서 약 11.9세(상한 31.6세, 하한 19.7세), 30세-34세에서 약 13.3세(상한 32.8세, 하한 19.5세)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하한 연령은 낮아지고, 상한 연령은 높아져 응답자가 생각하는 청년 연령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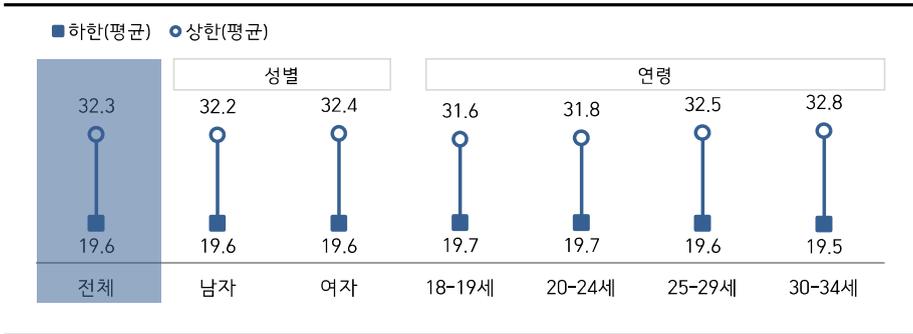


그림 III-8. 청년 연령규정

표 III-16 연도별 청년 연령규정 추이

(단위: 세)

연도	구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8-19세	20-24세 (*19-29세)	25-29세	30-34세 (*30-39세)
2016	하한(평균)	19.3	19.4	19.3	19.4	-	19.4	19.3	
	상한(평균)	29.5	29.7	29.3	29.5	-	29.2	29.8	
2017	하한(평균)	19.4	19.4	19.4	19.4	-	19.5	19.3	
	상한(평균)	31.2	31.3	31.1	30.5	-	31.0	31.7	
2018	하한(평균)	19.8	19.9	19.8	19.8	-	20.0	19.8	
	상한(평균)	31.4	31.5	31.4	31.1	-	31.5	31.5	
2019	하한(평균)	19.5	19.5	19.5	19.5	-	19.6	19.4	
	상한(평균)	32.3	32.5	32.2	30.9	-	32.3	32.8	
2020	하한(평균)	19.6	19.6	19.6	-	19.7	19.7	19.6	19.5
	상한(평균)	32.3	32.2	32.4	-	31.6	31.8	32.5	32.8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전체는 2020년 18-34세, 2016-2019년 15-39세 인구임.
- 2)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 1-1-6. 적정 독립 시기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18세-34세 청년들에게 ‘가정으로부터의 독립’, ‘결혼’, ‘첫 자녀 출산’에 대한 의향을 묻고, 각각에 대한 의향이 있는 경우 언제가 가장 걱정된 연령인지를 물어보았다.

우선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을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48.4%로 나타났으며 ‘독립해야 한다’는 응답자에게만 걱정된 독립 연령을 물어본 결과, 평균 26.1세로 2019년 조사 결과인 25.6세에 비해 약 0.5세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독립을 해야 한다는 비율은 남자가 51.5%로 여자(44.9%)에 비해 높았으며, 연령대가 점점 높아질수록 걱정 독립 시기 연령대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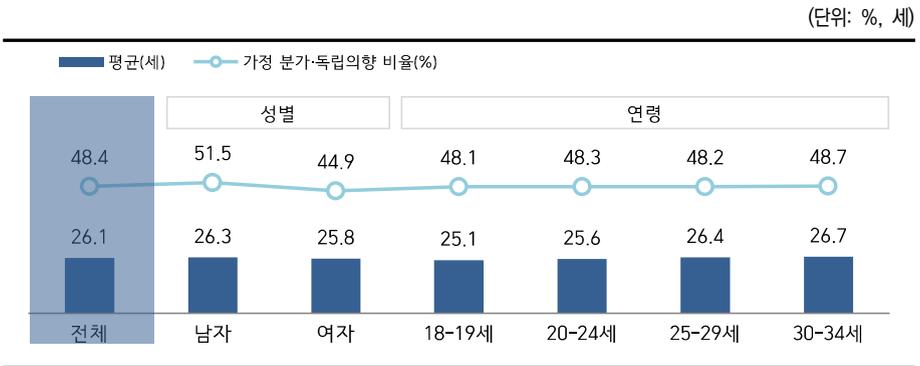


그림 Ⅲ-9. 독립 의향 및 걱정 독립 시기

표 III-17 연도별 독립 의향 및 적정 독립 시기

(단위: %, 세)

연도	구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8-19세	20-24세 (*19-29세)	25-29세	30-34세 (*30-39세)
2016	%	52.4	54.6	50.0	54.3	-	52.2		52.0
	평균(세)	26.2	26.2	26.3	24.6	-	26.2		26.9
2017	%	58.9	61.5	56.0	56.6	-	56.1		62.4
	평균(세)	25.4	25.7	25.0	23.2	-	25.5		25.8
2018	%	46.9	50.1	43.4	44.1	-	44.4		49.8
	평균(세)	27.9	28.0	27.8	26.6	-	28.0		28.3
2019	%	52.4	56.5	47.8	54.2	-	50.1		54.2
	평균(세)	25.6	26.0	25.1	23.9	-	25.7		26.1
2020	%	48.4	51.5	44.9	-	48.1	48.3	48.2	48.7
	평균(세)	26.1	26.3	25.8	-	25.1	25.6	26.4	26.7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가정으로부터 분가 독립에 '독립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
-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3) 전체는 2020년 18-34세, 2016-2019년 15-39세 인구임.
- 4)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 1-1-7. 적정 결혼 시기

다음으로 결혼 의향을 묻는 질문에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42.0%로 남자(47.1%)가 여자(36.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자에게만 적절한 결혼 연령을 물어본 결과, 평균 30.7세로 2019년 조사 결과인 30.4세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적정 결혼 시기 연령은 남자(31.1세)가 여자(30.1세)에 비해 약간 높으나, 전체적으로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평균 30~31 세 사이를 적정 결혼 시기로 인식하고 있었다.

(단위: %,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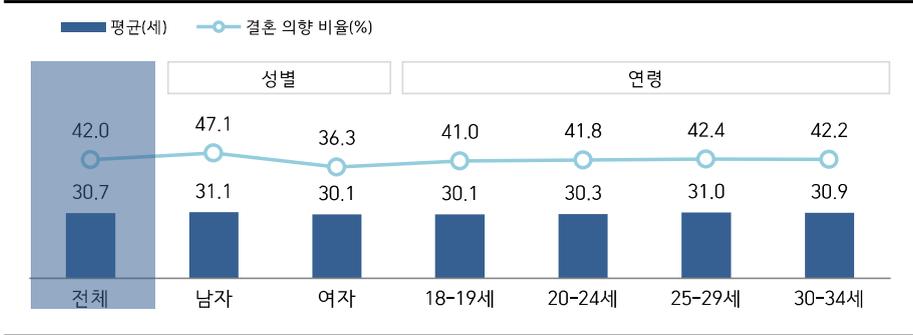


그림 III-10. 결혼 의향 및 적정 결혼 시기

표 III-18 연도별 결혼 의향 및 적정 결혼 시기

(단위: %, 세)

연도	구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8-19세	20-24세 (*19-29세)	25-29세	30-34세 (*30-39세)
2016	%	56.0	57.9	53.8	57.3	-	54.3		57.2
	평균(세)	30.1	30.5	29.7	29.4	-	30.1		30.4
2017	%	53.9	59.7	47.6	53.9	-	52.8		55.1
	평균(세)	30.2	30.5	29.8	29.0	-	30.2		30.5
2018	%	42.9	45.4	40.2	45.0	-	38.9		45.6
	평균(세)	30.9	31.2	30.5	30.9	-	30.9		30.9
2019	%	45.8	51.4	39.7	46.6	-	44.0		47.5
	평균(세)	30.4	30.9	29.7	29.4	-	30.3		30.8
2020	%	42.0	47.1	36.3	-	41.0	41.8	42.4	42.2
	평균(세)	30.7	31.1	30.1	-	30.1	30.3	31.0	30.9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결혼 시기를 묻는 문항에 '결혼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
-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3) 전체는 2020년 18-34세, 2016-2019년 15-39세 인구임.
- 4)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 1-1-8. 적정 출산 시기

마지막으로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41.8%로 독립, 결혼과 마찬가지로 남자(46.2%)가 여자(36.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에게 적정 출산 시기를 물어본 결과 평균 32.0세로 나타났다. 적정 출산 시기를 유형별로 살펴 보면 남자가 32.4세, 여자가 31.4세로 남자가 1세 가량 높았으나 연령대별로는 큰 차이 없이 적정 출산 시기는 평균 31~32세 사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단위: %,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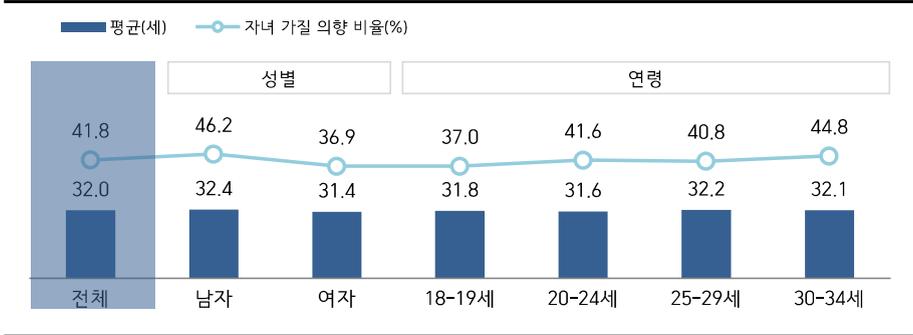


그림 III-11. 출산 의향 및 적정 출산 시기

표 III-19 연도별 출산 의향 및 적정 출산 시기

(단위: %, 세)

연도	구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 18세	18- 19세	20- 24세 (*19-29세)	25- 29세	30-34세 (*30-39세)
2016	%	54.0	55.1	52.9	54.1	-	51.4		56.6
	평균(세)	31.2	31.7	30.6	30.9	-	31.3		31.3
2017	%	54.1	59.4	48.2	52.3	-	51.9		56.8
	평균(세)	31.3	31.7	30.8	30.8	-	31.4		31.4
2018	%	44.0	45.1	42.7	45.1	-	38.9		47.8
	평균(세)	32.0	32.4	31.5	32.2	-	32.0		31.9
2019	%	46.1	51.3	40.3	43.3	-	43.0		50.1
	평균(세)	31.8	32.2	31.2	31.8	-	31.7		32.0
2020	%	41.8	46.2	36.9	-	37.0	41.6	40.8	44.8
	평균(세)	32.0	32.4	31.4	-	31.8	31.6	32.2	32.1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자녀를 가질 필요성에 '자녀를 가져야 함'이라고 응답한 비율
-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3) 전체는 2020년 18-34세, 2016-2019년 15-39세 인구임.
- 4)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 1-1-9. 해외이주 의사

18세-34세 청년들에게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8%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여자(21.7%)가 남자(18.1%)보다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20대 초반(20세-24세 22.1%)의 해외이주 의사가 조사대상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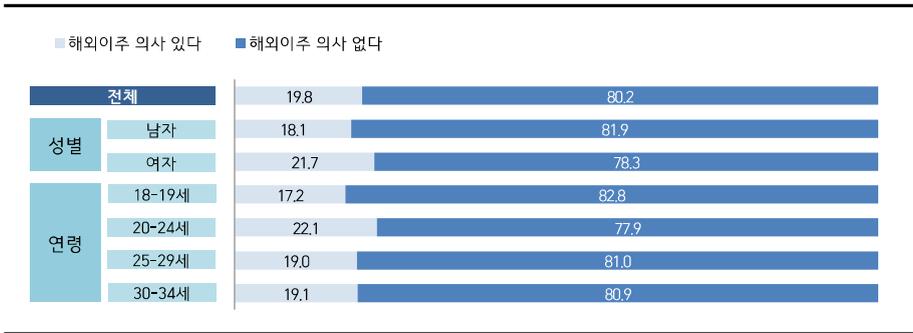


그림 III-12. 해외이주 의사

표 III-20 연도별 해외이주 의사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 18세	18- 19세	20- 24세	25- 29세	30-34세 (*30-39세)
							(*19-29세)		
2016	있다	22.2	22.2	22.3	22.1	-	26.5		18.1
	없다	77.7	77.7	77.7	77.9	-	73.4		81.9
	모름/무응답	0.0	0.1	-	-	-	0.1		-
2017	있다	36.0	32.9	39.3	25.8	-	36.8		38.2
	없다	64.0	67.1	60.7	74.2	-	63.2		61.8
2018	있다	14.1	14.4	13.7	8.1	-	15.8		14.5
	없다	85.9	85.6	86.3	91.9	-	84.2		85.5
2019	있다	28.8	27.2	30.5	22.2	-	28.3		31.2
	없다	71.2	72.8	69.5	77.8	-	71.7		68.8
2020	있다	19.8	18.1	21.7	-	17.2	22.1	19.0	19.1
	없다	80.2	81.9	78.3	-	82.8	77.9	81.0	80.9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전체는 2020년 18-34세, 2016-2019년 15-39세 인구임.  
 3) 연령구분은 2020년 18-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2016-2019년 15-18세, 19-29세, 30-39세임.

### 1-1-10. 해외이주 고려 이유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다는 청년들에게 고려 해 본 이유를 물어 본 결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26.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 보고 싶어서(24.4%)’, ‘자기 계발을 위해서(15.7%)’ 등의 순이었다. 2019년도 결과와 비교 했을 때 새로운 사회에 도전(+6.6%p), 자기 계발(+6.2%p) 등의 이유로 해외 이주를 고려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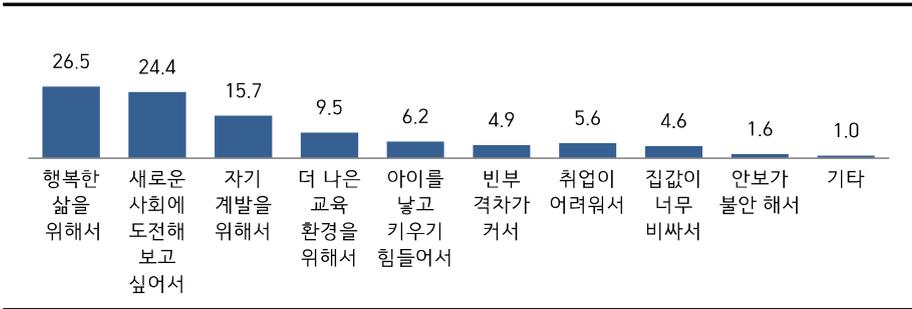


그림 III-13. 해외이주 고려 이유

표 III-21 연도별 해외이주 고려 이유

(단위: %)

연도	행복한 삶을 위해서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 보고 싶어서	자기 계발을 위해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빈부 격차가 커서	취업이 어려워워서	집값이 너무 비싸서	안보가 불안해서	기타
2016	27.8	18.5	12.8	12.6	8.4	7.8	6.8	2.5	1.7	1.2
2017	34.3	18.7	11.2	13.4	7.9	3.7	5.5	2.1	2.0	1.0
2018	23.0	26.2	15.5	10.5	8.4	4.1	8.7	1.1	2.3	0.2
2019	30.9	17.8	9.5	14.2	10.9	3.9	5.3	4.4	0.9	2.3
2020	26.5	24.4	15.7	9.5	6.2	4.9	5.6	4.6	1.6	1.0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3) 전체는 2020년 18-34세, 2016-2019년 15-39세 인구임.
- 4) 연령구분은 2020년 18-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2016-2019년 15-18세, 19-29세, 30-39세임.

### 1-2-1. 혼인율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19세-34세)에 준하는 20-34세를 대상으로 혼인건수를 살펴 본 결과, 2019년 남녀 전체 혼인건수는 약 29만 7천 건으로 2018년 약 32만 8천에 비해 약 3만 1천 건 감소였다. 특히 2019년 20세-24세 청년층의 혼인건수가 2018년 대비 86.5% 수준으로, 25세-29세(2018년 대비 90.6%), 30세-34세(2018년 대비 91.0%) 청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감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1천 명 당 혼인건수인 혼인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2000년 이후 줄곧 약 30건 이상을 유지하던 남성의 혼인율이 2019년 27.4건으로 30건 이하로 처음 감소하였으며 2018년 대비 남성은 2.9건, 여성은 3.4건 감소하였다.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20세-24세, 25세-29세 남·여의 혼인율은 2000년 대비 절반 이하로 모두 감소한 반면, 30-34세의 경우 남성은 큰 차이가 없고 여성의 경우에는 2000년 대비 오히려 상승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천 건, 천명당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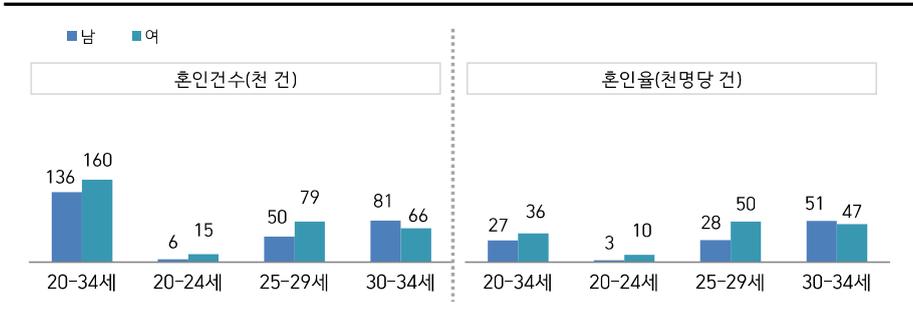


그림 III-14. 청년층 혼인건수 및 혼인율

표 III-22 청년층 혼인건수 추이

(단위: 천 건)

연도	20-34세		20-24세		25-29세		30-34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0	266	267	24	84	160	157	82	26
2001	247	250	21	72	143	150	83	29
2002	234	238	18	63	130	144	86	32
2003	225	233	16	56	119	141	89	36
2004	219	229	15	51	110	138	94	40
2005	216	229	14	46	105	139	96	43
2006	231	249	14	47	112	152	105	50
2007	238	260	13	44	115	162	110	55
2008	221	243	11	36	106	150	104	57
2009	206	229	9	30	96	139	101	60
2010	216	244	9	31	95	142	111	71
2011	220	248	9	30	92	138	119	81
2012	217	244	9	28	83	128	125	89
2013	214	241	9	27	77	121	128	94
2014	198	223	9	25	69	108	120	90
2015	193	219	9	25	66	106	117	89
2016	174	201	8	22	60	97	106	81
2017	159	185	8	20	56	91	95	74
2018	151	177	7	18	54	88	90	71
2019	136	160	6	15	50	79	81	66

\* 출처: 통계청(각 년도b). 인구동향조사(시도/성/초혼연령별 혼인).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6&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6&conn_path=I3) 에서 2020년 9월 21일 인출.

표 III-23 청년층 혼인을 추이

(단위: 천명당 건)

연도	20-34세		20-24세		25-29세		30-34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0	40.7	45.7	12.3	44.8	70.7	74.9	39.0	17.4
2001	38.6	43.6	10.6	37.9	66.3	74.5	39.0	18.5
2002	37.2	42.2	9.2	33.1	62.7	73.9	39.8	19.5
2003	36.5	42.1	8.1	29.6	60.3	75.3	41.1	21.4
2004	36.2	42.6	7.8	27.6	56.8	76.4	44.0	23.8
2005	36.0	43.1	7.5	26.2	54.5	76.9	46.0	26.3
2006	38.6	46.5	8.0	28.1	56.7	81.8	51.0	29.7
2007	40.1	48.8	7.7	27.2	56.8	85.6	55.7	33.6
2008	37.6	46.2	6.6	24.1	51.8	79.0	54.5	35.4
2009	35.7	43.9	5.6	20.4	48.0	74.3	53.6	37.0
2010	38.0	47.5	5.9	21.5	49.6	79.1	58.5	42.0
2011	39.1	49.3	5.7	20.4	50.5	81.2	61.2	46.4
2012	39.0	49.6	5.3	18.5	48.2	80.3	63.4	50.0
2013	38.9	49.7	5.3	17.6	47.1	79.9	64.2	51.7
2014	36.3	46.6	5.3	16.0	42.7	73.6	61.0	50.3
2015	36.3	46.7	5.2	15.5	41.2	72.9	62.4	51.8
2016	33.5	43.5	4.5	13.8	36.8	66.5	59.3	50.1
2017	31.4	40.4	4.2	12.3	33.5	60.6	56.4	48.4
2018	30.3	39.2	3.7	11.5	31.3	57.0	55.9	49.2
2019	27.4	35.8	3.3	10.1	27.8	50.4	51.1	46.9

\* 출처: 통계청(각 년도b), 인구동향조사(시도/성/연령별 혼인율),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15&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15&conn_path=I3) 에서 2020년 9월 21일 인출.

### 1-2-2. 초혼연령

2019년 기준 초혼연령은 남성이 33.4세, 여성이 30.6세로 이전년도 대비 남성은 0.22세, 여성은 0.19세 증가하였다.

성별과 관계없이 2000년 이래로 평균 초혼연령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남성이 여성 대비 약 2~3세가량 높은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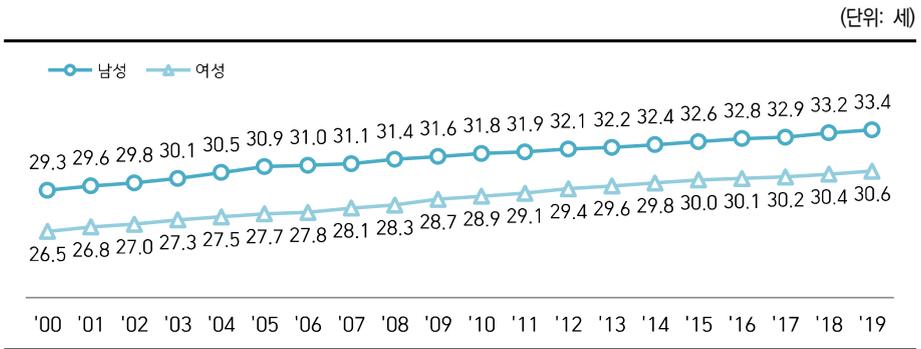


그림 III-15. 성별 초혼 연령 연도별 추이

표 III-24 연도별 성별 초혼 연령 추이

(단위: 세)

연도	남성		여성	
	평균 초혼 연령	전년대비 증감	평균 초혼 연령	전년대비 증감
2000	29.3	0.21	26.5	0.20
2001	29.6	0.27	26.8	0.29
2002	29.8	0.22	27.0	0.23
2003	30.1	0.37	27.3	0.26
2004	30.5	0.39	27.5	0.25
2005	30.9	0.34	27.7	0.20
2006	31.0	0.09	27.8	0.07
2007	31.1	0.15	28.1	0/.30
2008	31.4	0.27	28.3	0.23
2009	31.6	0.23	28.7	0.39
2010	31.8	0.23	28.9	0.20
2011	31.9	0.06	29.1	0.23
2012	32.1	0.23	29.4	0.27
2013	32.2	0.08	29.6	0.18
2014	32.4	0.21	29.8	0.22
2015	32.6	0.15	30.0	0.15
2016	32.8	0.22	30.1	0.15
2017	32.9	0.15	30.2	0.13
2018	33.2	0.21	30.4	0.29
2019	33.4	0.22	30.6	0.19

\* 출처: 통계청(각 년도b). 인구동향조사(시도별 평균초혼연령).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conn\\_path=l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conn_path=l2)에서 2020년 9월 19일 인출.

### 1-2-3. 결혼준비 경험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18-34세 청년들에게 결혼준비 경험을 물어본 결과, '결혼을 준비해본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20.1%로 조사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여자(25.9%)가 남자(14.9%)보다 결혼준비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준비 경험 비율도 높아져 특히 20대 후반(25세-29세, 16.5%)에서 30대(30세-34세, 48.3%)로 넘어가는 시기에 준비 경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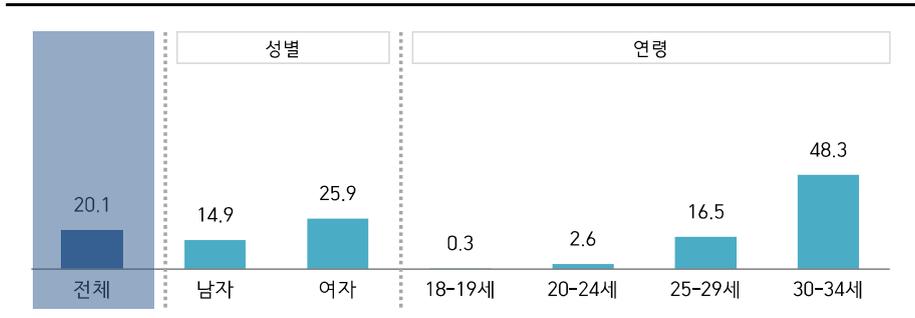


그림 III-16. 결혼준비 경험

표 III-25 연도별 결혼준비 경험 추이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8-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0-39세)
					(*19-29세)		
2016	42.0	36.4	47.9	-	9.2		74.8
2017	44.3	38.2	51.0	-	16.3		73.2
2018	39.4	36.0	43.0	-	7.2		66.1
2019	44.5	36.4	53.6	-	15.5		75.7
2020	20.1	14.9	25.9	0.3	2.6	16.5	48.3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결혼준비 경험에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3) 전체는 2020년 18-34세, 2016-2019년 15-39세 인구임.  
 4) 연령구분은 2020년 18-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2016-2019년 15-18세, 19-29세, 30-39세임.

#### 1-2-4. 결혼 망설임 여부

결혼을 준비한 경험이 있는 18세-34세 청년들에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망설임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대상자 중 27.7%가 '망설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8세-19세에서 결혼 망설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본 실태조사에서 이 연령대의 표본수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의 응답치라는 것을 감안하고 전체 연차별 추이를 고려할 때 25-29세에서 망설임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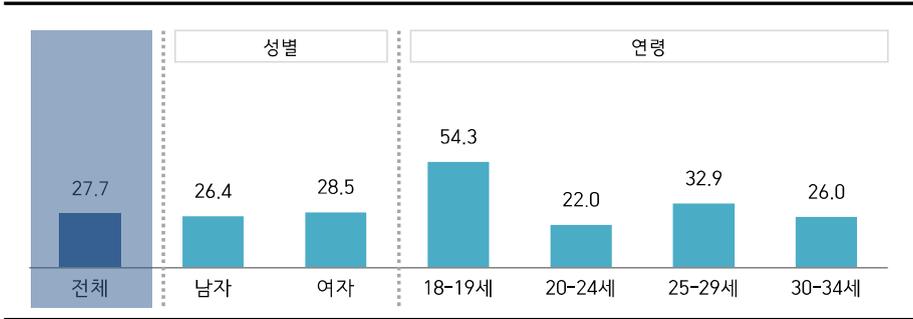


그림 III-17. 결혼 망설임 여부

표 III-26 연도별 결혼 망설임 여부 추이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8-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19-29세)	(*30-39세)	
2016	41.4	46.3	37.5	-	49.7	40.5	
2017	31.2	29.3	32.8	-	37.6	29.8	
2018	32.9	29.6	35.8	-	35.2	32.6	
2019	30.5	30.4	30.5	-	31.2	30.3	
2020	27.7	26.4	28.5	54.3	22.0	32.9	26.0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결혼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임 경험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2) 결혼을 준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응답  
 3)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4) 전체는 2020년 18-34세, 2016-2019년 15-39세 인구임.  
 5) 연령구분은 2020년 18-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2016-2019년 15-18세, 19-29세, 30-39세임.

### 1-2-5. 출생아 수 및 출산율

모의 출산 연령별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20-34세 모의 출생아 수는 20만여 명으로 2000년 58만 9천여 명 대비 34.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2008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24세 모의 출생아 수는 2000년 대비 2019년 14.7%(7만 5천여 명→1만 1천여 명), 25-29세 모의 경우 17.6%(33만여 명→5만 8천여 명), 30-34세 모의 경우 71.2%(18만 4천여 명→13만 1천여 명)로 저연령대일수록 모의 출생아 수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천 명 당 출산 건수인 출산율은 20-34세 모의 경우 43.0명으로 2000년 대비 2019년의 출산율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2000년 91.2명, 2019년 43.0명)하였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30-34세 모 연령대에서는 2.1명 증가(2000년 84.1명, 2019년 86.2명)하여 20대(20-24세 32.1명 감소, 25-29세 114.6명 감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단위: 천 명, 1천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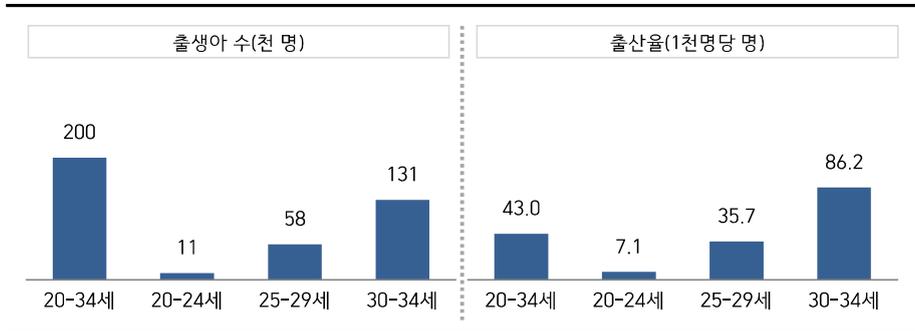


그림 III-18. 모 연령별 출생아 수 및 출산율

표 III-27 연도별 모 연령별 출생아 추이

(단위: 천 명)

연도	20-34세	20-24세	25-29세	30-34세
2000	589	75	330	184
2001	511	62	274	175
2002	451	53	227	171
2003	447	47	220	180
2004	426	40	200	186
2005	387	33	176	178
2006	394	31	174	189
2007	427	32	188	207
2008	396	28	169	199
2009	373	25	156	192
2010	386	25	147	215
2011	383	25	137	221
2012	391	25	127	239
2013	345	22	103	220
2014	339	21	96	221
2015	331	21	95	216
2016	297	19	85	193
2017	251	16	74	161
2018	221	13	65	143
2019	200	11	58	131

\* 출처: 통계청(각 년도b). 인구동향조사(사군구/ 모의 평균 출산연령, 모의 연령별(5세간격) 출생).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8&conn\\_path=1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8&conn_path=12)에서 2020년 9월 21일 인출.

표 III-28 연도별 모 연령별 출산을 추이

(단위: 1천명당 명)

연도	20-34세	20-24세	25-29세	30-34세
2000	91.2	39.2	150.3	84.1
2001	79.9	31.7	129.8	78.1
2002	71.1	26.8	111.4	75.0
2003	71.9	23.9	112.2	79.7
2004	69.8	20.8	105.0	83.7
2005	64.1	18.0	92.1	82.1
2006	65.9	17.8	89.9	90.0
2007	72.5	19.7	95.9	102.0
2008	68.4	18.2	85.6	101.5
2009	65.9	16.5	80.4	100.8
2010	69.5	16.5	79.7	112.4
2011	69.7	16.4	78.4	114.4
2012	71.8	16.0	77.4	121.9
2013	63.8	14.0	65.9	111.4
2014	63.4	13.1	63.4	113.8
2015	64.1	12.5	63.1	116.7
2016	59.3	11.5	56.4	110.1
2017	51.7	9.6	47.9	97.7
2018	46.9	8.2	41.0	91.4
2019	43.0	7.1	35.7	86.2

\* 출처: 통계청(각 년도b), 인구동향조사(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1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12)에서 2020년 9월 21일 인출.

### 1-2-6. 출산 연령

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평균 초혼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29.0세였던 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2004년 처음으로 30대에 접어들었고, 2019년 평균 출산 연령은 33.0세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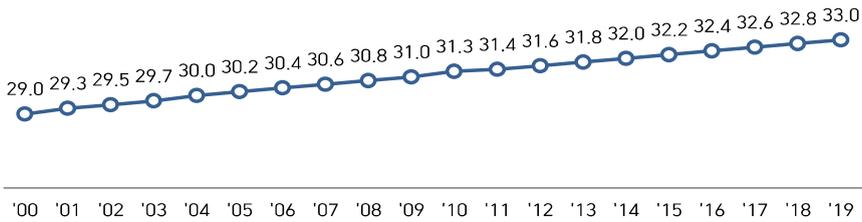


그림 Ⅲ-19. 모의 평균 출산 연령

표 Ⅲ-29 연도별 모의 평균 출산 연령 추이

(단위: 세)

연도	출산연령	연도	출산연령
2000	29.0	2010	31.3
2001	29.3	2011	31.4
2002	29.5	2012	31.6
2003	29.7	2013	31.8
2004	30.0	2014	32.0
2005	30.2	2015	32.2
2006	30.4	2016	32.4
2007	30.6	2017	32.6
2008	30.8	2018	32.8
2009	31.0	2019	33.0

\* 출처: 통계청(각 년도b). 인구동향조사(시군구/ 모의 평균 출산연령, 모의 연령별(5세간격) 출생).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8&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8&conn_path=I2)에서 2020년 9월 21일 인출.

### 1-2-7. 맞벌이 여부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를 통해 맞벌이 여부를 조사한 결과 52.0%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0-24세 연령대의 맞벌이 비율이 56.4%로 가장 높았으나,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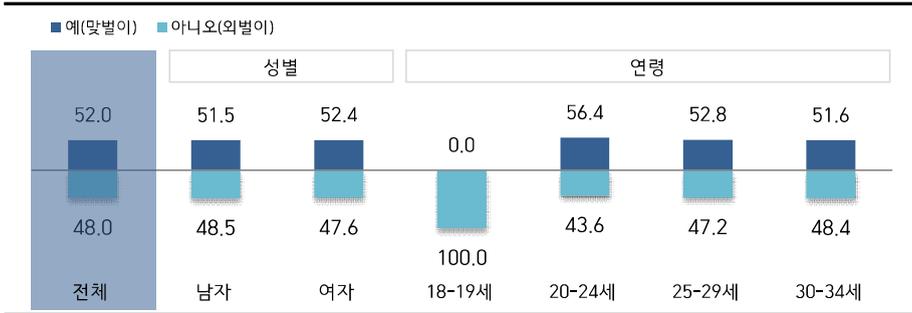


그림 Ⅲ-20. 맞벌이 여부

표 III-30 연도별 맞벌이 여부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 18세	18- 19세	20- 24세 (*19-29세)	25- 29세	30-34세 (*30-39세)
2016	예(맞벌이)	47.7	49.3	46.5	49.5	-	47.5	18.1	
	아니오(외벌이)	52.3	50.7	53.5	50.5	-	52.5	81.9	
2017	예(맞벌이)	49.9	48.4	51.0	41.0	-	51.8	38.2	
	아니오(외벌이)	49.5	50.3	49.0	57.7	-	47.8	61.8	
	모름/무응답	0.6	1.3	0.0	1.3	-	0.4	-	
2018	예(맞벌이)	61.6	64.1	59.3	0.0	-	52.5	62.7	
	아니오(외벌이)	38.4	35.9	40.7	100.0	-	47.5	37.3	
2019	예(맞벌이)	46.6	46.2	46.9	0.0	-	47.6	46.4	
	아니오(외벌이)	53.4	53.8	53.1	100.0	-	52.4	53.6	
2020	예(맞벌이)	52.0	51.5	52.4	-	0.0	56.4	52.8	51.6
	아니오(외벌이)	48.0	48.5	47.6	-	100.0	43.6	47.2	48.4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만 응답
-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3) 전체는 2020년 18-34세, 2016-2019년 15-39세 인구임.
- 4)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 1-2-8. 자녀 유무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응답자 중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5%로, 평균 자녀 수는 1.5명으로 나타났다. 2020년 조사 대상 연령의 변화(2019년 이전 만15-39세, 2020년 만18-34세)로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차이가 있으나, 평균 자녀 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2019년 1.6명, 2020년 1.5명)은 초혼 및 출산 연령의 증가 추세 및 자녀 수가 많지 않은 최근 가족 형태를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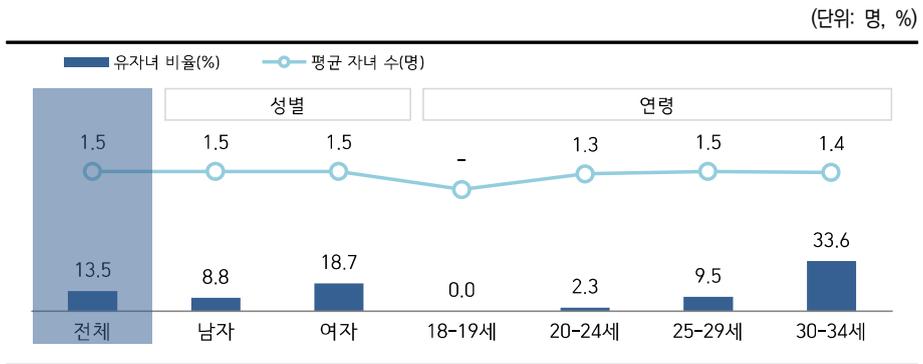


그림 III-21. 자녀 유무

표 III-31 연도별 자녀 유무

(단위: %, 명)

연도	구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 18세	18- 19세	20- 24세	25- 29세	30-34세 (*30-39세)
							(*19-29세)		
2016	%	31.7	25.2	38.8	-	-	4.8		58.7
	평균(명)	1.6	1.5	1.7	-	-	1.2		1.6
2017	%	35.6	27.9	44.2	3.6	-	11.1		60.9
	평균(명)	1.7	1.7	1.7	2.0	-	1.7		1.7
2018	%	28.3	24.4	32.6	0.0	-	3.1		49.3
	평균(명)	1.5	1.5	1.5	-	-	1.3		1.5
2019	%	35.4	26.2	45.8	0.0	-	9.9		62.8
	평균(명)	1.6	1.6	1.6	-	-	1.4		1.7
2020	%	13.5	8.8	18.7	-	0.0	2.3	9.5	33.6
	평균(명)	1.5	1.5	1.5	-	-	1.3	1.5	1.4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자녀 유무에 '예(자녀 있음)'에 응답한 비율
-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3) 전체는 2020년 18-34세, 2016-2019년 15-39세 인구임.
- 4)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 1-2-9. 자녀를 가질 계획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를 통해 18-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는지(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6.0%가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72.9%)에 비해 여자(58.2%)가 자녀 계획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면서(20-24세, 25-29세 70.1%→30-34세 57.5%)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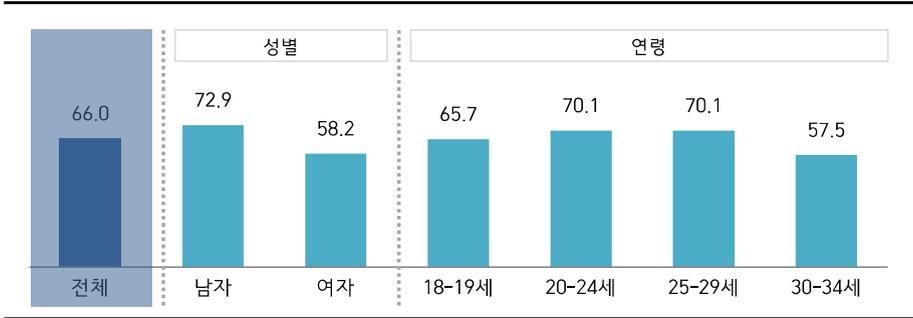


그림 III-22. 자녀를 가질 계획

표 III-32 연도별 자녀를 가질 계획

(단위: %)

연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 18세	18- 19세	20- 24세	25- 29세	30-34세 (*30-39세)
						(*19-29세)		
2016	59.5	66.2	52.2	77.7	-	75.5		43.5
2017	55.8	63.6	47.2	76.7	-	71.4		39.8
2018	56.2	61.2	50.7	76.0	-	68.1		46.2
2019	47.6	55.0	39.4	54.4	-	57.8		37.0
2020	66.0	72.9	58.2	-	65.7	70.1	70.1	57.5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3) 전체는 2020년 18-34세, 2016-2019년 15-39세 인구임.
- 4)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 2) 교육과 훈련

### 2-1-1. 진학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은 2000년대 들어 99% 이상의 비율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통계 기준이 변경된 2011년 이래로 꾸준히 감소해 2016년 이후에는 60%대의 진학률을 보이다 2019년 다시 70%대로 진입하였다. 성별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을 비교 해 보면 2005년 이전까지는 남성의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2010년 이후 역전되어 2013년 이후부터는 여성의 진학률이 남성에 비해 7% 이상 높게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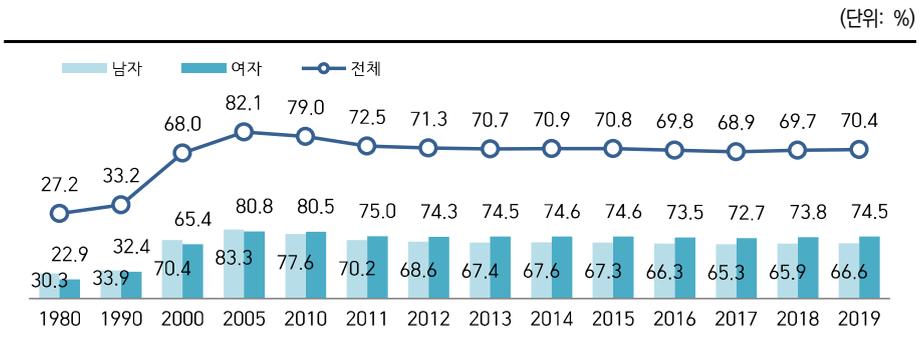


그림 III-23.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표 III-33 연도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추이

(단위: %)

연도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고등학교→고등교육기관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1980	95.8	97.4	94.1	84.5	87.5	80.8	27.2	30.3	22.9
1990	99.8	99.8	99.8	95.7	96.3	95.0	33.2	33.9	32.4
2000	100	100	100	99.6	99.5	99.6	68.0	70.4	65.4
2005	100	100	100	99.7	99.7	99.8	82.1	83.3	80.8
2010	100	100	100	99.7	99.7	99.7	79.0	77.6	80.5
2011	100	100	100	99.7	99.7	99.7	72.5	70.2	75.0
2012	100	100	100	99.7	99.7	99.7	71.3	68.6	74.3
2013	100	100	100	99.7	99.7	99.7	70.7	67.4	74.5
2014	100	100	100	99.7	99.7	99.7	70.9	67.6	74.6
2015	100	100	100	99.7	99.7	99.8	70.8	67.3	74.6
2016	100	100	100	99.7	99.7	99.8	69.8	66.3	73.5
2017	100	100	100	99.7	99.7	99.7	68.9	65.3	72.7
2018	100	100	100	99.7	99.7	99.7	69.7	65.9	73.8
2019	100	100	100	99.7	99.7	99.6	70.4	66.6	74.5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9a). 교육통계분석자료집-유·초·중등 교육통계편. p.71.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kess.kedi.re.kr/index>에서 2020년 9월 22일 인출.

- \* 주 1) 진학률 = (진학자 수/졸업자 수)×100, 당해년도 졸업자의 진학률임.
- 2) 중학교과정은 중학교 및 중학교과정의 기타학교가 포함되며, 고등학교과정은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기타학교가 포함됨.
- 3) 진학자 수 기준 변경: 2010년까지 대학합격자 기준이었으나, 2011년부터 대학등록자 기준으로 변경

## 2-1-2. 대학등록금

연간 대학등록금은 매년 전문대 대비 대학이 높은 가운데, 해가 지날수록 등록금 차이의 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 약 99만원-)2020년 약 108만원). 전문대는 2020년 등록금 전체 금액이 약 506만원으로 2015년 약 507만원 대비 약 1만원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 대학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약 8만원 증가하였다. 대학 중 국공립대학의 2015년 대비 2020년 등록금 증가액은 약 5만원으로, 사립대학은 이보다 약 3만원 더 높은 8만원 증가하였다. 해마다 국공립대학의 2배가량 되는 사립대학 등록금은 2018년 가장 큰 차이(국공립 대비 사립 +287만원)를 보였다.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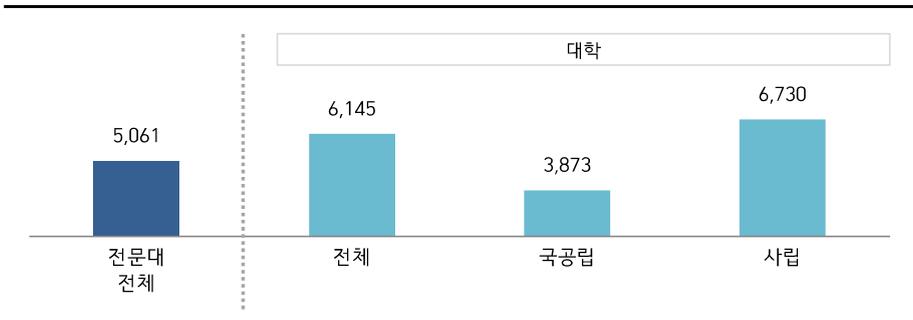


그림 III-24. 대학등록금

표 III-34 연도별 대학등록금 추이

(단위: 천원)

연도	전문대 전체	대학		
		전체	국공립	사립
2015	5,077	6,066	3,824	6,648
2016	5,074	6,065	3,816	6,625
2017	5,074	6,099	3,819	6,671
2018	5,045	6,111	3,826	6,697
2019	5,067	6,129	3,883	6,718
2020	5,061	6,145	3,873	6,730

\* 출처: 대학알리미(각 년도a). 등록금 현황(공시항목 8-차-1). 대학알리미 웹사이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0년 9월 28일 인출.

- \* 주 1) 전문대: 각종학교(전문), 기능대학, 사이버대학(전문), 전문대학(2년제), 전문대학(3년제) 포함함.  
 2) 대학: 각종학교(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대학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대학), 산업대학 포함함.  
 3) 국공립: 국립, 공립, 특별법국립, 특별법법인, 국립대법인 포함함.

### 2-1-3. 대학등록금 대출자 비율

대학등록금 대출자 비율은 2020년 전문대 전체 기준 7.98%, 대학 전체 기준으로 7.63%이다. 전문대의 등록금 대출자 비율은 매년 감소하는데 비해, 대학의 경우 2019년 소폭 증가 하였으며 이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양상이다. 상대적으로 등록금 액수가 큰 사립대학이 대출자 비율이 높으나 2015년 대비 2020년 국공립대학의 대출자 비율은 1.46%p 감소, 사립대학의 경우 4.34%p 감소하여 대출자 감소폭 면에서는 사립대학이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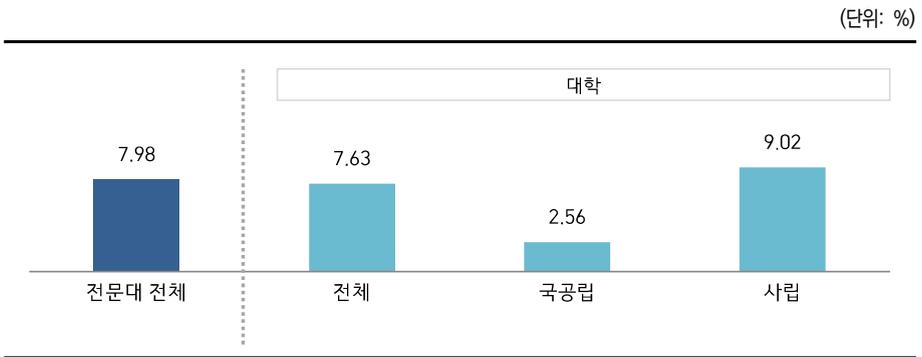


그림 Ⅲ-25. 대학등록금 대출자 비율

표 III-35 연도별 대학등록금 대출자 비율 추이

(단위: %)

연도	전문대 전체	대학		
		전체	국공립	사립
2015	12.81	11.39	4.02	13.36
2016	10.38	9.45	3.16	11.13
2017	8.98	8.14	2.74	9.60
2018	8.31	7.52	2.50	8.89
2019	8.08	7.63	2.53	9.02
2020	7.98	7.63	2.56	9.02

\* 출처: 대학알리미(각 년도b). 학자금 대출 현황(공시항목 12-다-2). 대학알리미 웹사이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0년 9월 28일 인출.

- \* 주 1) 전문대: 각종학교(전문), 기능대학, 사이버대학(전문), 전문대학(2년제), 전문대학(3년제) 포함함.  
 2) 대학: 각종학교(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대학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대학), 산업대학 포함함.  
 3) 국공립: 국립, 공립, 특별법국립, 특별법법인, 국립대법인 포함함.

#### 2-1-4. 장학금 규모

재학생 1인당 장학금 규모는 2019년 전문대 전체 기준 약 305만원, 대학 전체 기준 약 336만원으로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9년 소폭 감소하였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2014년 대비 2019년 기준 전문대의 장학금 규모 상승폭(2014년 약 276만원→2019년 약 305만원, 29만원 상승)이 대학의 장학금 규모 상승폭(2014년 약 291만원→2019년 약 336만원, 45만원 상승)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비교해 보면 2019년 기준 국공립 대학의 장학금은 약 278만원으로 연 평균 국공립 대학등록금(388만원)의 71.5% 수준인 반면, 사립대학의 경우 2019년 기준 장학금은 351만원으로 사립 대학등록금(672만원) 대비 52.3% 수준에 불과해 사립대학의 장학금 규모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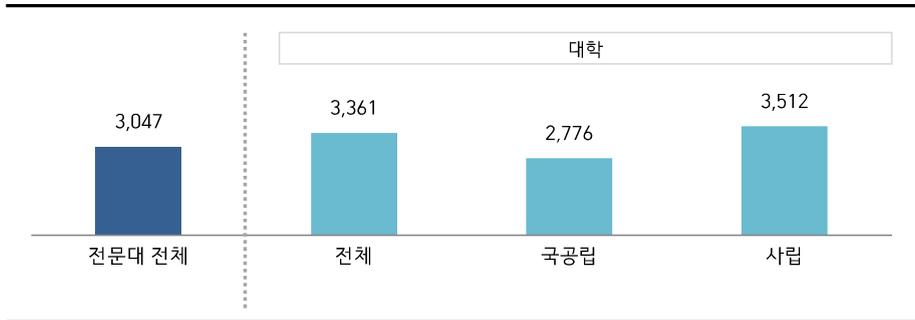


그림 III-26. 재학생 1인당 장학금

표 III-36 연도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추이

(단위: 천원)

연도	전문대 전체	대학		
		전체	국공립	사립
2014	2,764	2,912	2,684	2,972
2015	2,932	3,109	2,702	3,217
2016	2,940	3,280	2,692	3,439
2017	3,009	3,325	2,781	3,470
2018	3,089	3,373	2,772	3,530
2019	3,047	3,361	2,776	3,512

\* 출처: 대학알리미(각 년도c). 장학금 수혜 현황(공시항목 12-다-1). 웹사이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0년 9월 28일 인출.

- \* 주 1) 전문대: 각종학교(전문), 기능대학, 사이버대학(전문), 전문대학(2년제), 전문대학(3년제) 포함함.  
 2) 대학: 각종학교(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대학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대학), 산업대학 포함함.  
 3) 국공립: 국립, 공립, 특별법국립, 특별법법인, 국립대법인 포함함.

### 2-1-5. 학제별 대학 졸업 소요기간

대졸자의 졸업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2007년 평균 46개월에서 2020년 평균 51개월로 5개월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5년간으로 한정지어 보면 50~51개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학제(4년제/3년제 이하)별로 살펴보면, 4년제는 2009년 63개월에서 조금씩 감소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61개월 수준을 유지, 2020년 62개월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3년제 이하 전문대학은 2010년 33개월에서 2019년 36개월로 점차 증가하여 유지되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학제와 관계없이 남학생의 경우 군입대로 인한 휴학 등의 사유로 졸업 소요기간이 여학생보다 길게 나타났는데, 4년제의 경우 20~25개월가량, 3년제 이하의 경우 15~20개월가량 긴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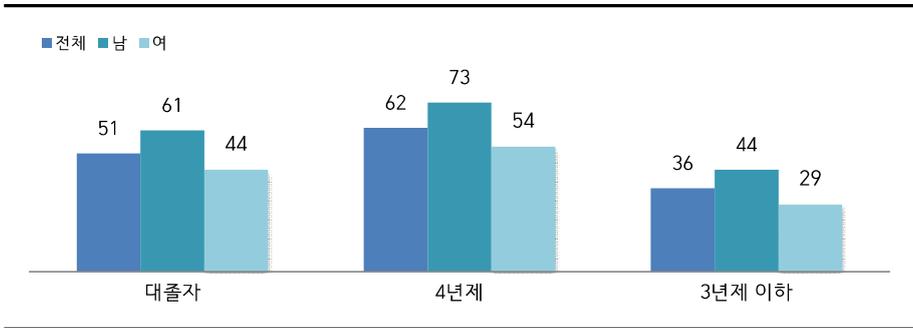


그림 III-27. 학제별 대학졸업 소요기간

표 III-37 연도별 학제별 대학졸업 소요기간 추이

(단위: 개월)

연도	대졸자			4년제			3년제 이하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07	46	60	37	61	76	51	34	46	26
2008	48	62	38	62	76	52	34	47	26
2009	48	62	38	63	77	52	34	46	26
2010	48	62	39	63	78	53	33	45	26
2011	49	63	40	63	77	53	34	46	27
2012	49	63	40	63	77	54	34	47	27
2013	49	62	40	62	76	53	34	46	27
2014	49	63	41	62	75	52	34	46	27
2015	49	62	41	61	74	52	34	45	27
2016	51	63	42	61	75	52	35	47	28
2017	50	62	42	61	74	52	35	44	28
2018	51	62	43	61	74	52	35	45	29
2019	51	61	44	61	73	53	36	44	29
2020	51	61	44	62	73	54	36	44	29

\* 출처: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49S&conn\\_path=l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49S&conn_path=l2)에서 2020년 9월 22일 인출.

## 2-1-6. 대졸자 휴학 현황

2020년 기준 대졸자 중 약 47.0%는 휴학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며, 평균 휴학기간은 24개월이었다. 2011년 43.1%로 40%대를 넘어선 뒤 꾸준히 40%대로 유지되고 있다. 휴학 사유를 보면 2020년 기준 '병역의무 이행'이 64.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26.3%)', '어학연수 및 인턴 등 현장 경험(13.7%)' 등의 순이었다. 휴학 사유 중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로 인한 휴학의 경우 2017년 30.3%까지 크게 상승한 이후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며 최근 3년간은 어학연수 및 인턴 등 현장 경험, 학비 마련 등의 사유로 휴학을 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단위: %, 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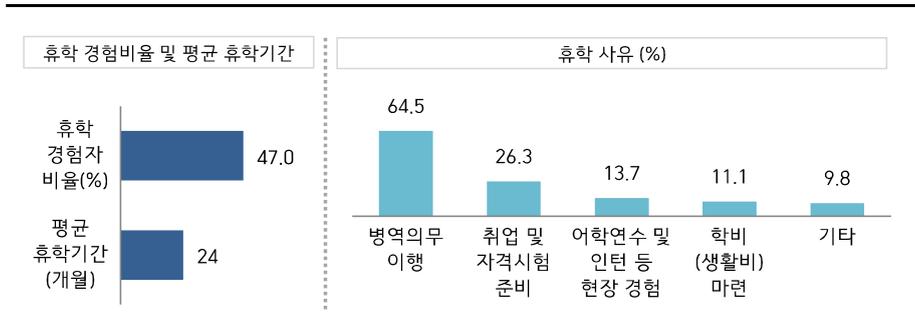


그림 Ⅲ-28. 대졸자 휴학 현황

표 III-38 연도별 대졸자 휴학 현황 추이

(단위: %, 개월)

연도	휴학경험자 비율(%)	평균 휴학기간 (개월)	휴학 사유(%)				
			병역의무 이행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	어학연수 및 인턴 등 현장 경험	학비 (생활비) 마련	기타
2007	36.4	29	74.6	14.6	10.0	12.7	11.1
2008	38.6	28	71.1	16.8	11.3	12.6	9.5
2009	39.6	28	70.5	17.3	13.0	12.5	8.2
2010	39.8	28	68.1	19.2	14.6	12.8	9.0
2011	43.1	28	68.8	17.6	15.1	12.2	10.5
2012	42.8	28	69.0	21.7	15.3	10.9	10.4
2013	42.8	27	68.9	23.3	12.6	12.4	8.8
2014	42.6	27	69.4	22.4	14.0	14.1	8.0
2015	40.3	27	72.4	20.0	14.1	13.2	5.0
2016	44.4	26	68.3	27.0	15.3	11.4	5.3
2017	43.1	26	69.7	30.3	13.9	10.9	4.4
2018	44.4	25	66.9	29.6	12.9	9.6	6.6
2019	45.8	24	67.1	25.6	13.8	10.6	8.8
2020	47.0	24	64.5	26.3	13.7	11.1	9.8

\* 출처: 통계청(각 년도c).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성별 휴학경험유무, 휴학사유(복수응답), 평균휴학기간(대졸자)).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50S&conn\\_path=1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50S&conn_path=12)에서 2020년 9월 22일 인출.

\* 주: 휴학 사유는 복수응답으로 구성비 합이 100을 넘음.

### 2-1-7. 대학생 학업중단율

대학생 학업중단율(재적 학생 수 중 학업 중단자 수 비율)의 경우, 2019년 고등교육기관 기준 6.9%로, 2016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청년층 인구 및 재적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전체 고등교육기관 학업 중단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학업 중단자 수 및 학업 중단율은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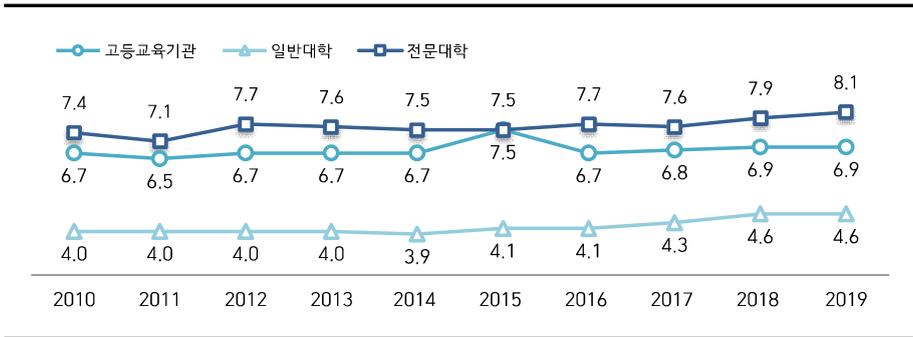


그림 III-29. 대학생 학업중단율

표 III-39 연도별 대학생 학업중단율 추이

(단위: 명, %)

연도	고등교육기관		일반대학			전문대학			
	학업 중단자수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율	학업 중단자수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율	학업 중단자수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율
2010	222,524	3,327,525	6.7	81,641	2,028,841	4.0	56,658	767,087	7.4
2011	221,820	3,405,773	6.5	82,818	2,065,451	4.0	55,191	776,738	7.1
2012	229,442	3,399,258	6.7	84,114	2,103,958	4.0	58,940	769,888	7.7
2013	226,756	3,379,912	6.7	84,335	2,120,296	4.0	57,651	757,721	7.6
2014	222,263	3,337,875	6.7	82,875	2,130,046	3.9	55,239	740,801	7.5
2015	245,048	3,274,593	7.5	86,498	2,113,293	4.1	54,093	720,466	7.5
2016	212,536	3,183,839	6.7	86,476	2,084,807	4.1	53,977	697,214	7.7
2017	211,954	3,110,994	6.8	87,878	2,050,619	4.3	51,719	677,721	7.6
2018	211,356	3,056,161	6.9	92,652	2,030,033	4.6	51,803	659,232	7.9
2019	208,151	3,007,493	6.9	92,792	2,001,643	4.6	52,428	643,762	8.1

\* 출처: 교육부(2020). 2020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pp.40-41.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std.kedi.re.kr> 에서 2020년 9월 28일 인출.

\* 주 1) 학업중단율(%)=학업 중단자 수/재적 학생 수

2) 고등교육기관에는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전공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기능대학이 포함되며, 대학원은 제외함

## 2-1-8.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대학을 다닌 경험이 있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18-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졸업 유예(졸업 필요 요건을 이수하고도 본인이 신청하여 졸업을 늦추는 제도) 또는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졸업을 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졸업요건을 이수하지 않는 것) 각각에 대한 경험 여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졸업 유예 경험 비율은 8.7%, 졸업 필요요건 미이수 경험은 4.6%로 이전년도 대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졸업 연령대인 25-29세의 졸업유예 경험(12.2%),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6.2%) 비율이 타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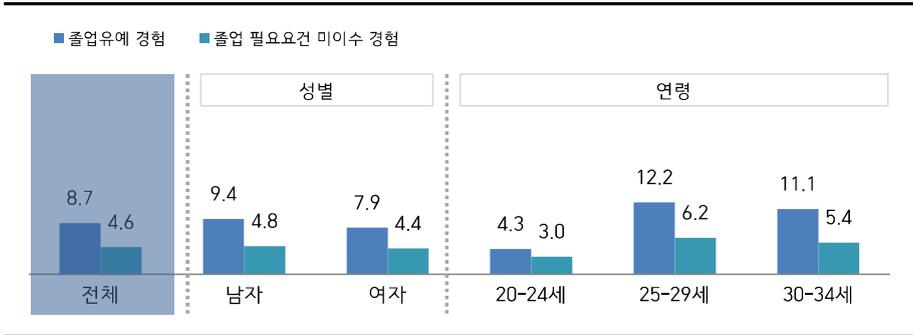


그림 III-30.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표 III-40 연도별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추이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8-19세	20-24세 (*19-29세)	25-29세	30-34세 (*30-39세)
2016	졸업유예 경험	5.3	5.8	4.7	-	5.5	5.2	
	졸업 필요요건 미이수 경험	2.2	2.7	1.7	-	1.6	3.0	
2017	졸업유예 경험	14.5	16.6	12.3	-	14.9	14.5	
	졸업 필요요건 미이수 경험	6.1	6.7	5.4	-	6.8	5.4	
2018	졸업유예 경험	13.3	17.0	8.9	-	11.8	14.7	
	졸업 필요요건 미이수 경험	8.0	11.0	4.5	-	6.4	9.6	
2019	졸업유예 경험	9.5	10.0	8.9	-	8.7	10.6	
	졸업 필요요건 미이수 경험	4.2	4.4	4.1	-	3.6	5.0	
2020	졸업유예 경험	8.7	9.4	7.9	0.0	4.3	12.2	
	졸업 필요요건 미이수 경험	4.6	4.8	4.4	0.0	3.0	6.2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대학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3) 전체는 2020년 18-34세, 2016-2019년 15-39세 인구임.
- 4)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 2-1-9. 졸업 유예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이유

졸업 유예 또는 졸업 필요 요건을 미이수한 경험이 있다는 청년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라는 응답 비율이 47.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20.2%)',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률 상위 3개 이유가 전부 취업, 진로 등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 청년들의 취업 관련 부담감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취업 준비 주 연령층인 25-29세에서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라는 응답률이 50.7%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30-34세의 경우 '경제적으로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는 응답률이 14.8%로 타 연령층 대비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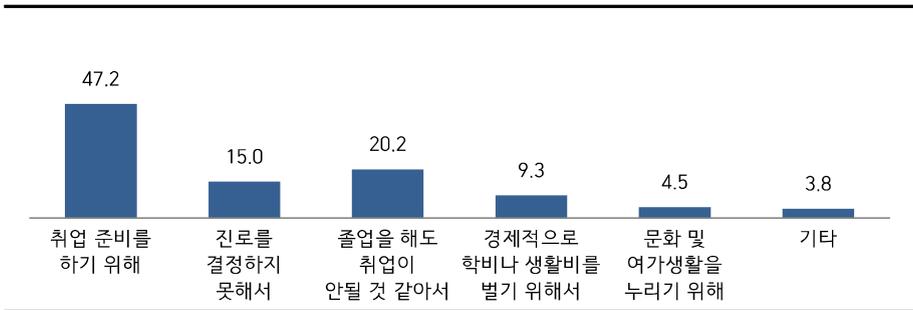


그림 III-31. 졸업 유예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이유

표 III-41 졸업 유예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이유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20-24세 (*19-29세)	25-29세	30-34세 (*30-39세)
2019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	51.0	47.8	54.8	43.2		57.5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22.8	18.2	28.3	26.5		19.7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	13.4	16.7	9.4	18.1		9.3
	경제적으로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9.6	12.9	5.6	6.8		11.9
	문화 및 여가생활을 누리기 위해	2.0	3.3	0.3	4.0		0.3
	기타	1.3	1.0	1.6	1.4		1.2
2020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	47.2	50.0	43.3	41.6	50.7	45.2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15.0	15.0	15.0	14.7	15.0	15.2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	20.2	22.0	17.7	28.2	21.1	15.3
	경제적으로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9.3	9.0	9.8	9.0	5.1	14.8
	문화 및 여가생활을 누리기 위해	4.5	1.3	8.9	3.5	5.3	3.9
	기타	3.8	2.8	5.2	3.0	2.7	5.4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졸업 유예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2) 2019년 신규 문항임.  
 3) 전체는 2020년 18-34세, 2016-2019년 15-39세 인구임.  
 4)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 2-1-10. 전공과 직업 일치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또는 대학 이상 졸업자 중 취업 경험자 또는 현재 취업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전공 분야와 직업의 일치 정도를 살펴보았다. 2018년도 조사 결과, '전공과 직업 간 관계가 없다'는 응답이 37.2%(‘관계없는 편’ 22.7%+‘전혀 관계없음’ 14.5%)로 ‘전공과 직무가 일치한다’ 36.7%(‘매우 일치’ 14.9%+‘일치하는 편’ 21.8%)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13-29세)의 전공 일치도가 39.6%(‘매우 일치’ 16.0%+‘일치하는 편’ 23.6%)로 30대(30-39세)의 전공 일치도 37.7%(‘매우 일치’ 15.8%+‘일치하는 편’ 21.9%)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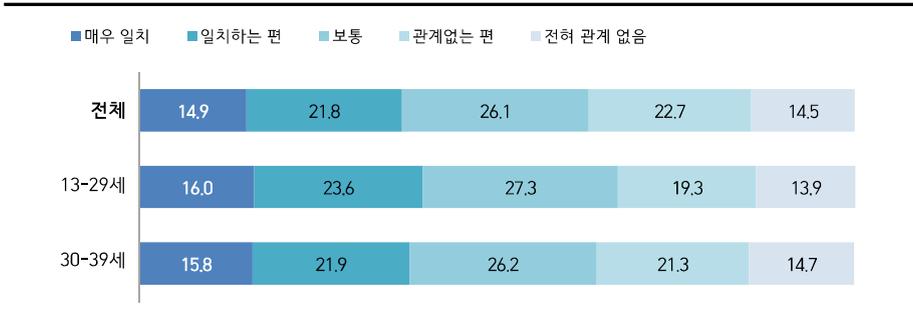


그림 III-32. 전공과 직업 일치도

표 III-42 연도별 전공과 직업 일치도 추이

(단위: 명, %)

연도	연령	전공과 직업 일치 정도				
		매우 일치	일치하는 편	보통	관계없는 편	전혀 관계 없음
2008	전체	15.0	22.7	23.7	22.7	16.0
	15-29세	15.0	25.7	23.4	20.5	15.3
	13-29세	-	-	-	-	-
	30-39세	15.6	23.1	22.6	22.4	16.4
2010	전체	14.6	21.7	23.9	25.1	14.6
	15-29세	17.1	21.7	23.3	23.7	14.2
	13-29세	-	-	-	-	-
	30-39세	14.5	22.7	24.4	24.0	14.4
2012	전체	15.9	22.4	24.2	23.2	14.3
	15-29세	-	-	-	-	-
	13-29세	18.1	22.9	22.9	20.9	15.2
	30-39세	17.8	22.8	23.7	21.3	14.4
2014	전체	15.4	21.5	25.1	23.4	14.6
	15-29세	-	-	-	-	-
	13-29세	17.1	21.6	25.5	21.3	14.4
	30-39세	16.0	22.8	24.7	22.7	13.8
2016	전체	15.3	21.0	25.4	23.4	14.9
	15-29세	-	-	-	-	-
	13-29세	18.6	22.7	23.9	19.5	15.4
	30-39세	15.5	20.4	26.0	23.4	14.6
2018	전체	14.9	21.8	26.1	22.7	14.5
	15-29세	-	-	-	-	-
	13-29세	16.0	23.6	27.3	19.3	13.9
	30-39세	15.8	21.9	26.2	21.3	14.7

\* 출처: 통계청(각 년도d). 사회조사(전공과 직업의 일치도(13세 이상 인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D050R&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D050R&conn_path=I2)에서 2020년 9월 21일 인출.

\* 주: 특성하고, 마이스터고 또는 대학이상 졸업자로 취업한 적이 있거나 현재 취업중인 자

## 2-1-11. 추후 대학 진학 의사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대학 진학 경험이 없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추후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진학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 비율은 20.9%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자(22.8%)의 진학 의사 비율이 여자(18.5%)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대학 진학 의사가 매우 높은 18세-19세(74.5%)를 제외하면 다른 연령대의 진학 의사 비율은 15% 이하로 낮은 편이었으며, 특히 25세 이후(25세-29세 6.2%, 30세-34세 3.1%)부터는 추후 대학 진학 의사가 10% 미만에 머물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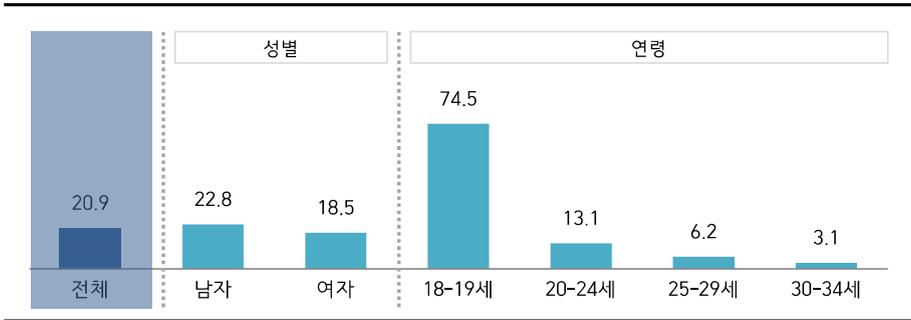


그림 III-33. 추후 대학 진학 의사

표 III-43 연도별 추후 대학 진학 의사 추이

(단위: %)

연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8-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0-39세)
						(*19-29세)		
2013	14.2	15.6	12.9	-	-	28.7		6.4
2015	13.1	15.5	10.9	-	-	19.8		9.6
2016	36.6	38.8	34.6	90.4	-	22.0		4.5
2017	38.4	37.6	39.2	85.5	-	16.3		6.3
2018	41.2	43.5	39.0	90.5	-	14.1		4.4
2019	35.5	32.0	39.5	84.6	-	13.4		5.5
2020	20.9	22.8	18.5	-	74.5	13.1	6.2	3.1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향후 대학 진학 의향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대학 진학 경험이 없는 경우만 응답
- 2) 2013년과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 3)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4) 전체는 2020년 18-34세, 2016-2019년 15-39세 인구임.
- 5)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 2-1-12. 대학 미진학 사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라는 응답 비율이 37.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24.3%)’,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14.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 연령 변동으로 인한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사유의 비율 증가를 제외하면 이전년도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사유는 남자(40.2%)가 여자(35.0%)보다, 20-24세(47.2%)에서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고, 성적 부족 및 가정 형편으로 인한 사유는 30-34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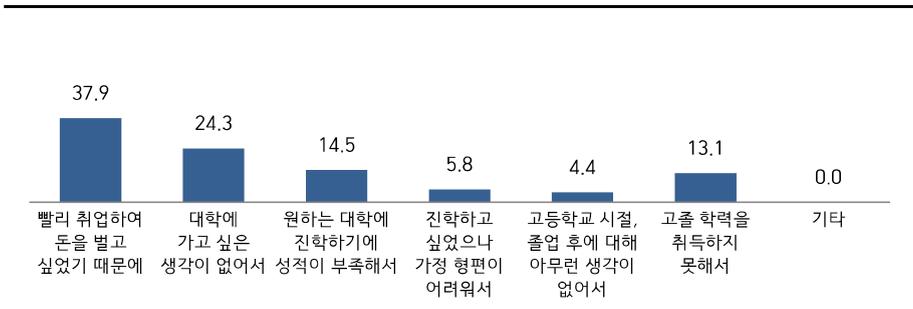


그림 III-34. 대학 미진학 사유

표 III-44 대학 미진학 사유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8-19세	20-24세 (*19-29세)	25-29세	30-34세 (*30-39세)
2019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35.8	35.9	35.7	27.0	-	34.6		37.5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26.5	27.4	25.5	21.1	-	29.3		24.3
	원하는 대학에 진학 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16.8	16.3	17.4	25.8	-	20.1		13.2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13.4	11.7	15.3	14.4	-	7.4		18.7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4.3	4.2	4.5	0.0	-	4.5		4.5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2.2	2.8	1.6	11.7	-	2.1		1.8
	기타	0.9	1.7	0.0	0.0	-	2.0		0.0
2020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37.9	40.2	35.0	-	13.7	47.2	42.8	41.2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24.3	23.2	25.6	-	6.5	28.3	30.1	27.4
	원하는 대학에 진학 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14.5	15.5	13.2	-	9.9	12.7	14.5	20.4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5.8	2.8	9.4	-	1.3	4.3	7.9	8.6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4.4	4.0	5.0	-	4.4	6.4	4.6	2.1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13.1	14.2	11.9	-	64.2	1.2	0.1	0.2
	기타	0.0	0.0	0.0	-	0.0	0.0	0.0	0.0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대학(교) 진학 경험이 없는 경우만 응답  
 2) 전체는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3)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 2-1-13.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학력은 중요하다’, ‘한국사회에서 학벌은 중요하다’ 3개 문항을 통해 청년들의 교육관행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먼저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42.7%(‘그렇다’ 34.9%+‘매우 그렇다’ 7.8%)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 35.2%(‘전혀 그렇지 않다’ 6.7%+‘그렇지 않다’ 28.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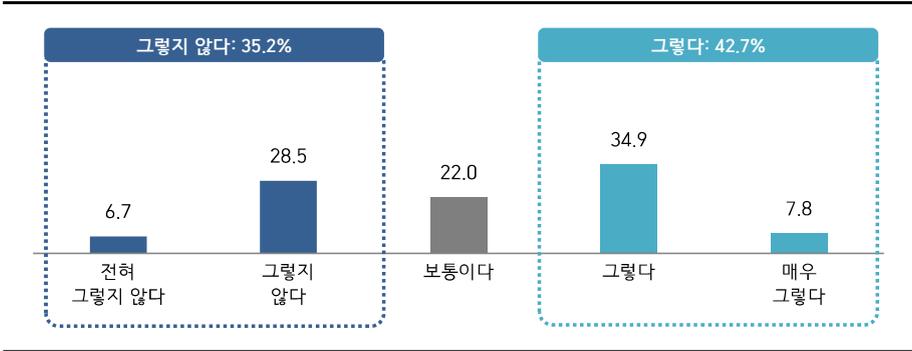


그림 III-35.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표 III-45 연도별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단위: %)

연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3.8	22.4	31.1	36.9	5.8
2017	10.7	33.0	20.5	25.7	10.1
2018	1.3	12.7	24.7	53.5	7.7
2019	8.6	34.8	19.2	29.6	7.8
2020	6.7	28.5	22.0	34.9	7.8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조사대상은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70.3%(‘그렇다’ 51.4%+‘매우 그렇다’ 18.9%)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 10.9%(‘전혀 그렇지 않다’ 1.9%+‘그렇지 않다’ 9.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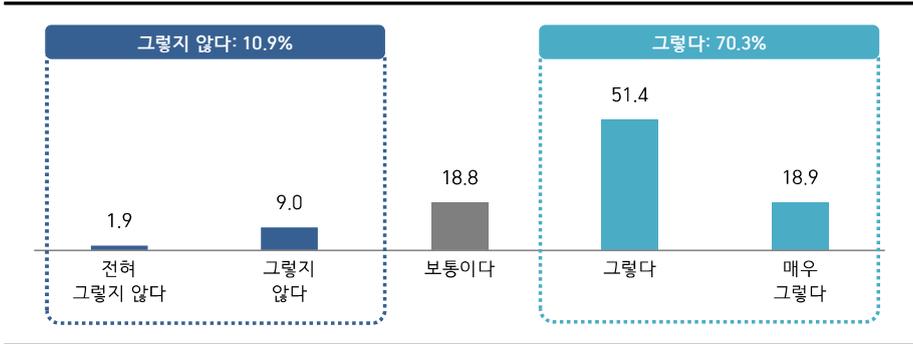


그림 Ⅲ-36.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2)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표 Ⅲ-46 연도별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2)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단위: %)

연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1.0	8.1	22.9	49.9	18.0
2017	3.0	11.3	18.9	44.1	22.7
2018	0.4	4.1	22.0	54.7	18.8
2019	1.8	11.9	20.5	46.6	19.1
2020	1.9	9.0	18.8	51.4	18.9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조사대상은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68.7%(‘그렇다’ 51.2%+‘매우 그렇다’ 17.5%)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 12.7%(‘전혀 그렇지 않다’ 2.5%+‘그렇지 않다’ 10.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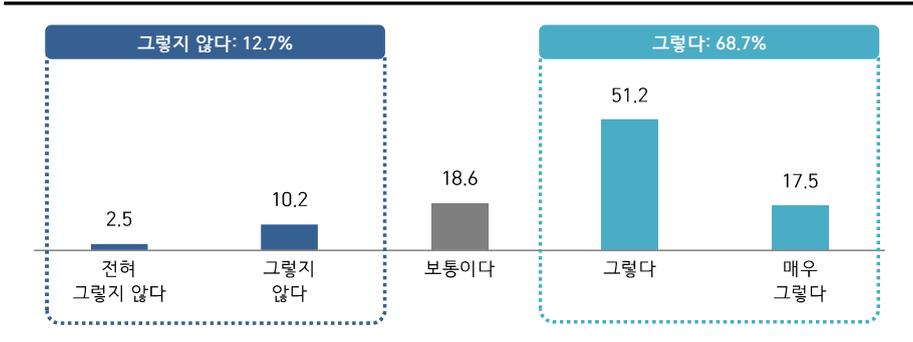


그림 III-37.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3) 한국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표 III-47 연도별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3) 한국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단위: %)

연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6	1.3	7.6	22.6	47.5	21.0
2017	3.7	12.1	17.3	42.8	24.2
2018	0.4	4.0	20.9	54.9	19.9
2019	2.1	11.9	18.1	47.0	20.9
2020	2.5	10.2	18.6	51.2	17.5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조사대상은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 2-1-14.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대학을 다닌 경험이 있거나 다니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대학교육 만족’, ‘대학교육의 향후 인생에 도움 정도’, ‘대학교육의 취업 도움’, ‘내 학과(전공)의 적합’ 총 4개 문항을 통해 청년들의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우선 ‘나는 대학교육에 만족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44.3%(‘그렇다’ 41.2%+‘매우 그렇다’ 3.1%)로 ‘그렇지 않다’ 17.5%(‘전혀 그렇지 않다’ 3.0%+‘그렇지 않다’ 14.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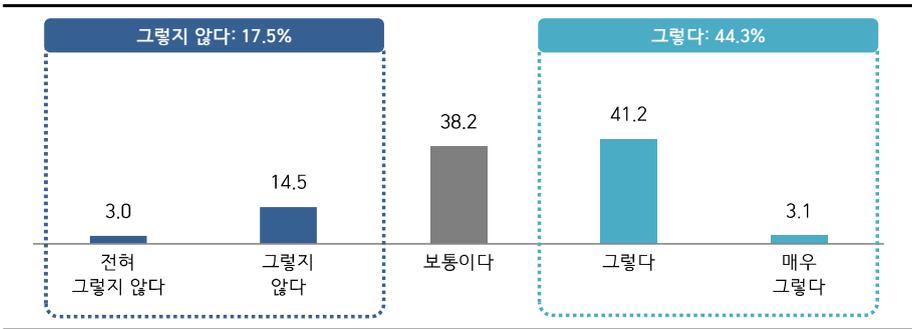


그림 Ⅲ-38. 대학교육 만족도\_1) 나는 대학교육에 만족한다

표 Ⅲ-48 연도별 대학교육 만족도\_1) 나는 대학교육에 만족한다

(단위: %)

연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8	1.7	13.1	39.1	44.7	1.4
2019	3.0	16.4	40.8	37.9	2.0
2020	3.0	14.5	38.2	41.2	3.1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2020년 조사 시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였음
- 2) 조사대상은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나는 대학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57.2%(‘그렇다’ 48.3%+‘매우 그렇다’ 8.9%)로 ‘그렇지 않다’ 13.9% (‘전혀 그렇지 않다’ 2.3%+‘그렇지 않다’ 11.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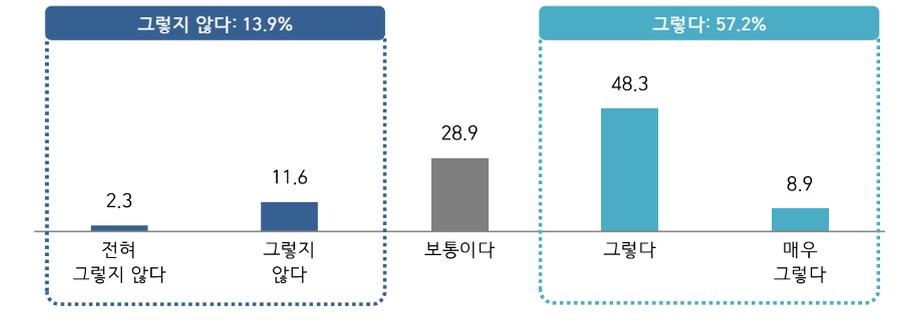


그림 III-39. 대학교육 만족도\_2) 나는 대학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 III-49 연도별 대학교육 만족도\_2) 나는 대학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위: %)

연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8	1.5	9.4	34.0	45.5	9.5
2019	3.3	14.0	32.3	43.3	7.1
2020	2.3	11.6	28.9	48.3	8.9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20년 조사 시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였음  
 2) 조사대상은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나는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58.8%(‘그렇다’ 49.0%+‘매우 그렇다’ 9.8%)로 ‘그렇지 않다’ 12.8% (‘전혀 그렇지 않다’ 2.1%+‘그렇지 않다’ 10.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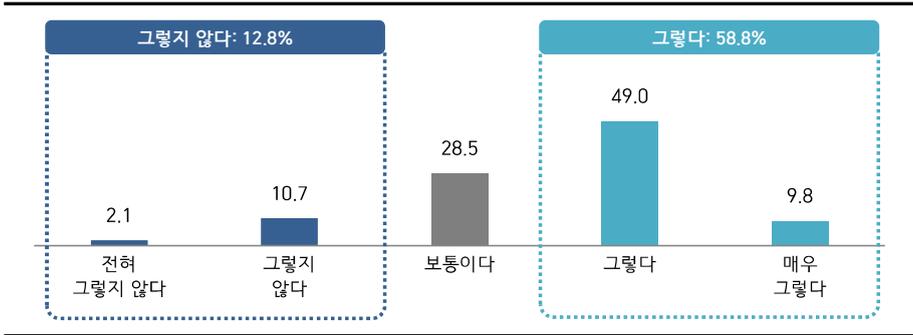


그림 III-40. 대학교육 만족도\_3) 나는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 III-50 연도별 대학교육 만족도\_3) 나는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위: %)

연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8	1.3	9.3	32.8	48.9	7.7
2019	2.0	14.1	29.0	46.9	8.1
2020	2.1	10.7	28.5	49.0	9.8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20년 조사 시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였음  
 2) 조사대상은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선택한 대학에서의 학과(전공)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53.8%(‘그렇다’ 46.8%+‘매우 그렇다’ 7.0%)로 ‘그렇지 않다’ 14.1% (‘전혀 그렇지 않다’ 2.9%+‘그렇지 않다’ 11.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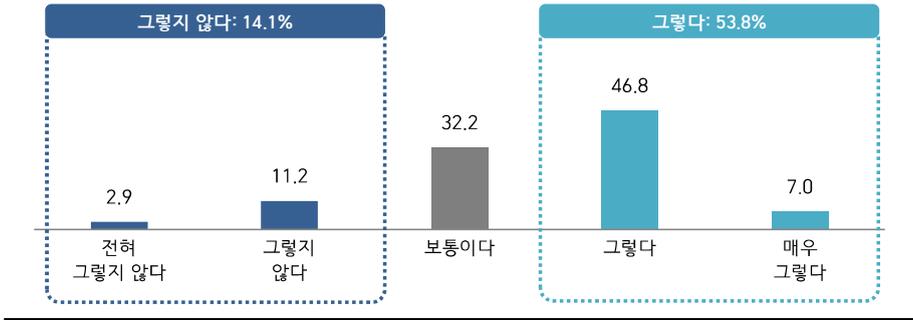


그림 III-41. 대학교육 만족도\_4) 나는 내가 선택한 대학에서의 학과(전공)가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표 III-51 연도별 대학교육 만족도\_4) 나는 내가 선택한 대학에서의 학과(전공)가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단위: %)

연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8	0.9	9.8	39.5	45.8	4.0
2019	3.1	13.7	36.7	40.5	6.0
2020	2.9	11.2	32.2	46.8	7.0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20년 조사 시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였음  
 2) 조사대상은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 2-2-1. 평생학습 형식교육 참여율

청년들의 평생학습 참여 중 우선 대학에서 대학원까지 정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교육기관에 참여하는 형식교육의 참여 비율을 확인해 보았다. 관련 기관 통계에서 제공하는 연령 기준에 따른 청년은 대학교 졸업 이후로 초점을 맞추어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데, 해당 연령대의 평생학습 형식교육 참여율은 2019년 5.6%로 2018년 대비 2.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34세를 제외하면 나머지 연령대의 형식교육 참여율은 2%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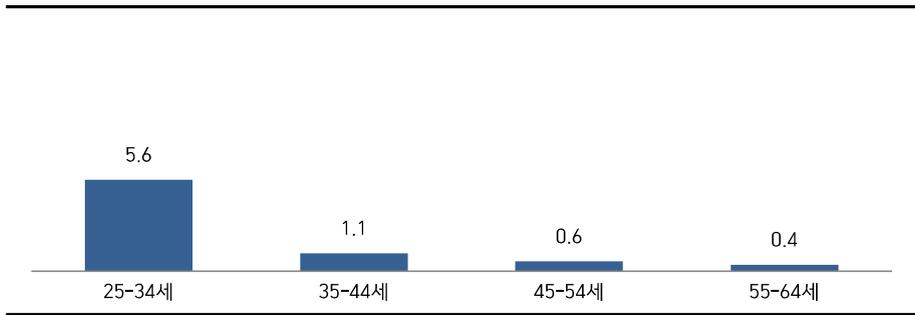


그림 III-42. 연령별 평생학습 형식교육 참여율

표 III-52 연도별 평생학습 형식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단위: %)

연도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2007	15.3	1.9	2.5	0.7
2008	9.7	2.8	1.5	0.2
2009	10.7	2.8	0.8	1.1
2010	9.0	2.2	1.1	2.0
2011	13.2	1.6	0.8	0.7
2012	9.4	2.0	1.7	0.4
2013	9.0	3.3	1.5	0.7
2014	7.6	1.9	1.8	0.6
2015	9.1	2.6	1.3	0.5
2016	8.4	1.9	1.0	0.6
2017	5.6	2.1	1.2	0.6
2018	8.5	2.0	1.1	0.2
2019	5.6	1.1	0.6	0.4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9b), 2019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p.136.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19&publSeq=24&menuSeq=0&itemCode=02&language=에서> 2020년 9월 22일 인출.

\* 주: 형식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의 학교교육으로 졸업장이나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정규 교육과정을 말하며,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과정, 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원격대학, 대학원(석사, 박사)을 포함함(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 p.13).

## 2-2-2. 평생학습 비형식교육 참여율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비형식 교육 참여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 보면, 25-34세 청년은 2019년 47.9%로 2018년 48.3% 대비 0.4%p 소폭 감소하였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참여율은 낮아지나, 형식 교육의 2007년~2019년까지의 참여율이 2% 이하였던 것과 달리 비형식교육 참여율의 경우 3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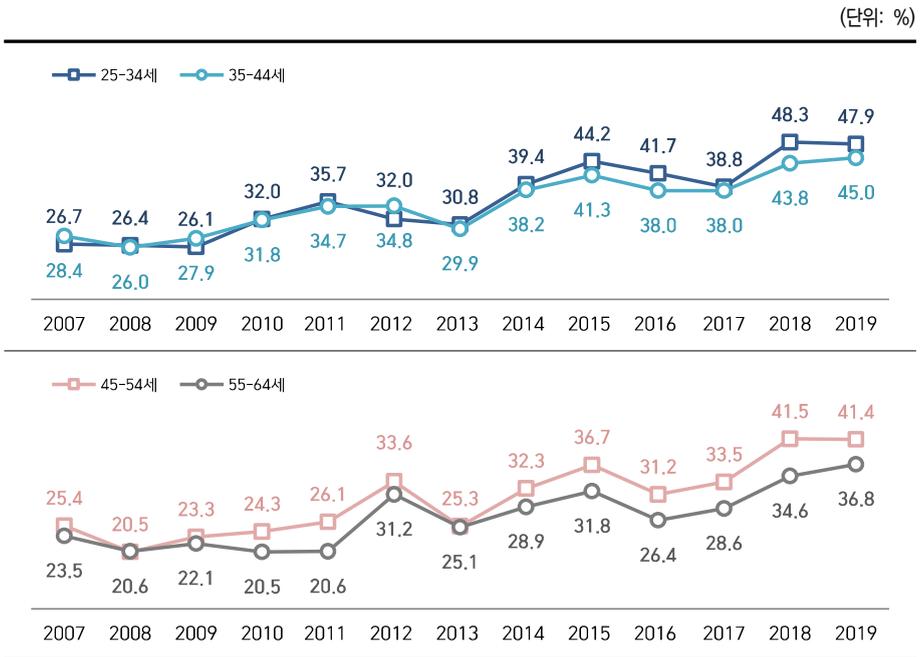


그림 III-43. 연령별 평생학습 비형식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표 III-53 연도별 평생학습 비형식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단위: %)

연도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2007	26.7	28.4	25.4	23.5
2008	26.4	26.0	20.5	20.6
2009	26.1	27.9	23.3	22.1
2010	32.0	31.8	24.3	20.5
2011	35.7	34.7	26.1	20.6
2012	32.0	34.8	33.6	31.2
2013	30.8	29.9	25.3	25.1
2014	39.4	38.2	32.3	28.9
2015	44.2	41.3	36.7	31.8
2016	41.7	38.0	31.2	26.4
2017	38.8	38.0	33.5	28.6
2018	48.3	43.8	41.5	34.6
2019	47.9	45.0	41.4	36.8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9b), 2019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p.137.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19&publSeq=24&menuSeq=0&itemCode=02&language=에서> 2020년 9월 22일 인출.

\* 주: 비형식교육은 정규교육 이외의 구조화된 학습활동으로, 공식적인 학위나 졸업장 취득을 우선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교육을 말함(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 p.13).

### 2-2-3. 평생학습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

비형식교육 중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의 참여율 변화를 살펴보면 25-34세 이하 청년들의 참여율은 2019년 29.8%로 2018년 28.6% 대비 1.2%p 증가하였다. 35-44세 연령층의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은 전년대비 2.2%p 증가하였으나 45-54세 1.2%p 감소, 55-64세 역시 1.0%p 감소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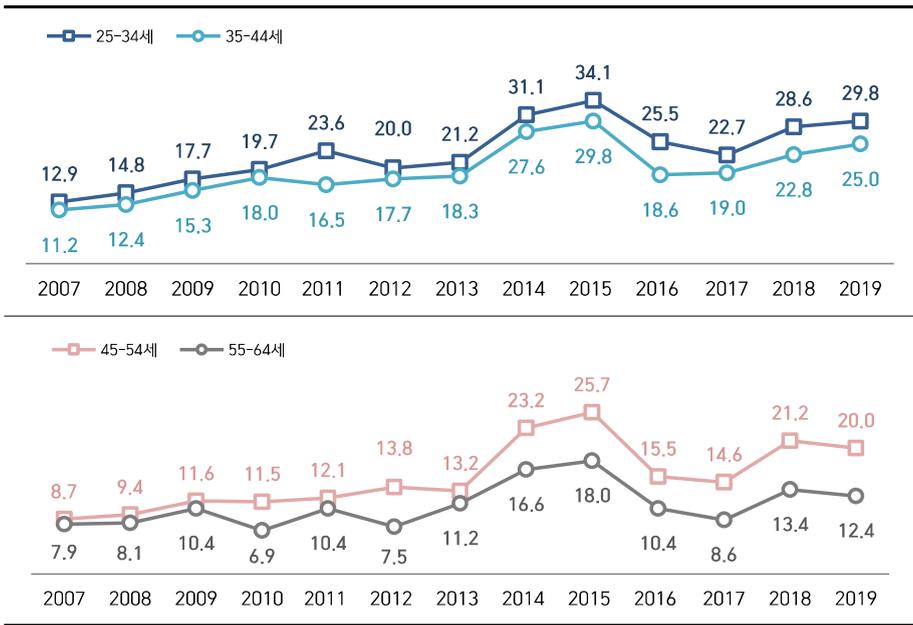


그림 III-44. 연령별 평생학습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표 III-54 연도별 평생학습 직업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단위: %)

연도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2007	12.9	11.2	8.7	7.9
2008	14.8	12.4	9.4	8.1
2009	17.7	15.3	11.6	10.4
2010	19.7	18.0	11.5	6.9
2011	23.6	16.5	12.1	10.4
2012	20.0	17.7	13.8	7.5
2013	21.2	18.3	13.2	11.2
2014	31.1	27.6	23.2	16.6
2015	34.1	29.8	25.7	18.0
2016	25.5	18.6	15.5	10.4
2017	22.7	19.0	14.6	8.6
2018	28.6	22.8	21.2	13.4
2019	29.8	25.0	20.0	12.4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9b), 2019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p.137.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kess.kedi.re.kr/publ/view?survSeq=2018&publSeq=24&menuSeq=0&itemCode=02&language=에서> 2020년 9월 22일 인출.

#### 2-2-4. 직업훈련 참여율

2020년 기준 15-29세 청년층의 직업훈련 참여율은 18.2%로 2007년 15.6% 이래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4년간은 18%대를 유지하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여성(20.6%)이 남성(15.8%)보다 직업훈련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여성의 직업훈련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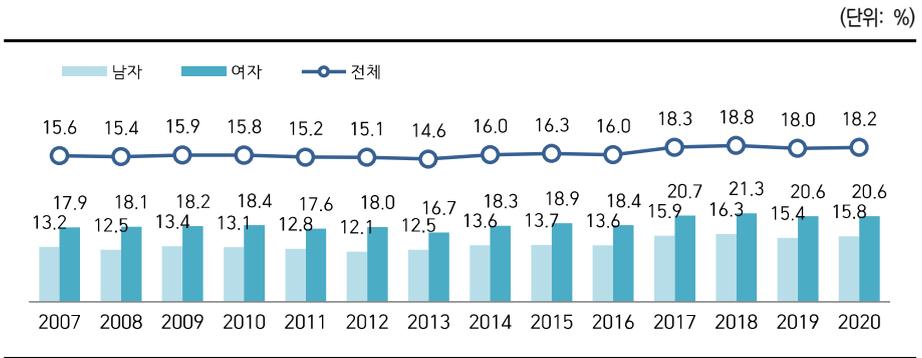


그림 III-45. 연령별 직업교육 훈련 참여율

표 III-55 연도별 직업교육 훈련 참여율 변화 추이

(단위: %)

연도	청년층(15-29세)		
	전체	남자	여자
2007	15.6	13.2	17.9
2008	15.4	12.5	18.1
2009	15.9	13.4	18.2
2010	15.8	13.1	18.4
2011	15.2	12.8	17.6
2012	15.1	12.1	18.0
2013	14.6	12.5	16.7
2014	16.0	13.6	18.3
2015	16.3	13.7	18.9
2016	16.0	13.6	18.4
2017	18.3	15.9	20.7
2018	18.8	16.3	21.3
2019	18.0	15.4	20.6
2020	18.2	15.8	20.6

\* 출처: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53S&conn\\_path=l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53S&conn_path=l2)에서 2020년 9월 22일 인출.

### 2-2-5. 취업 준비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조사기준일의 지난주(2020년 5월 25일~5월 31일) 사이에 취업준비를 하거나, 지난 4주(2020년 5월 4일~5월 31일) 내에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직장을 구해보았다고 응답한, 현재 취업 준비 중인 청년 비율을 알아보았다. 응답 대상자의 23.6%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취업 연령대인 25세-29세 청년층의 취업 준비 비율이 39.8%로 타 연령대 대비 준비 경험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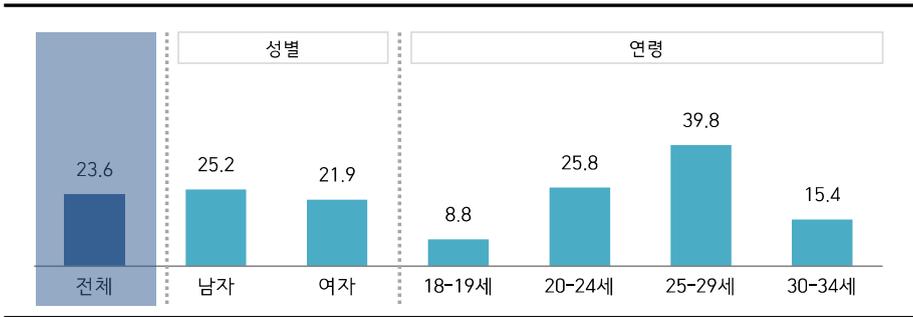


그림 III-46. 현재 취업 준비 여부

표 III-56 연도별 현재 취업 준비 여부 추이

(단위: %)

연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8-19세	20-24세 (*19-29세)	25-29세	30-34세 (*30-39세)
2016	19.3	27.1	14.8	-	-	24.8		11.1
2017	20.7	30.6	15.2	4.5	-	24.7		14.4
2018	16.3	25.0	10.7	24.1	-	18.0		12.3
2019	21.5	30.3	15.2	5.7	-	30.2		13.7
2020	23.6	25.2	21.9	-	8.8	25.8	39.8	15.4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지난주에 일을 하지 않았음에 응답한 응답자들 중 지난 4주 간 직장을 구해보았다고 응답한 비율과 현재 취업 준비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3) 전체는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4)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 2-2-6. 고시생 및 공시생 현황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현재까지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시험 및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청년들의 19.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이전년도(15.4%) 대비 4.3%p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취업 준비 연령대인 25-29세 청년층의 준비 경험이 26.5%로 타 연령대 대비 준비 경험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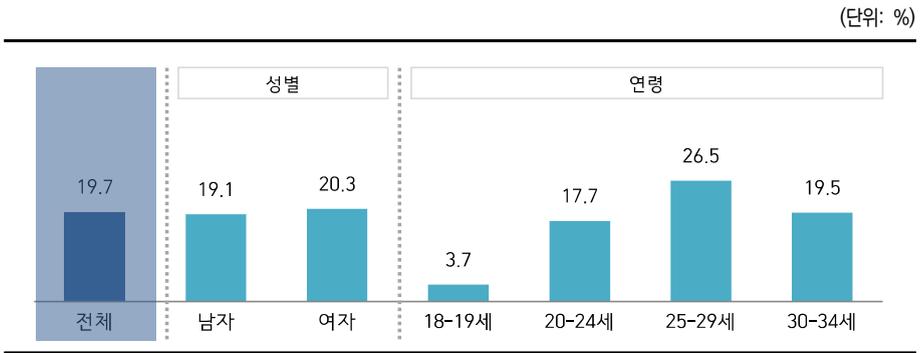


그림 III-47. 고시생 및 공시생 현황

표 III-57 연도별 고시생 및 공시생 현황 추이

(단위: %)

연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8-19세	20-24세 (*19-29세)	25-29세	30-34세 (*30-39세)
2016	15.2	15.4	14.9	5.4	-	16.0		17.6
2017	17.8	18.2	17.4	6.4	-	19.4		19.5
2018	12.5	12.4	12.7	1.3	-	15.7		13.3
2019	15.4	14.6	16.2	3.8	-	17.3		16.7
2020	19.7	19.1	20.3	-	3.7	17.7	26.5	19.5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에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
-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3) 전체는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 4)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 3) 경제와 고용

#### 3-1-1. 경제활동 참여율

「청년기본법」상 청년(19세-34세)에 준하는 20세-34세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9년 69.1%로 나타났다. 이는 15세 이상 전체 연령의 평균 경제활동 참여율인 63.3%보다 5.8%p 높은 수치이다. 20세-34세 청년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율(72.9%)은 15세 이상 전체 남성(73.5%) 보다 0.6%p 낮았으며, 20세-34세 청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65.2%)은 15세 이상 전체 여성(53.5%) 보다 11.7%p 높게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는 반면, 여성의 경우 2004년 이전까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아지고, 2004년 이후부터는 25세-29세 연령대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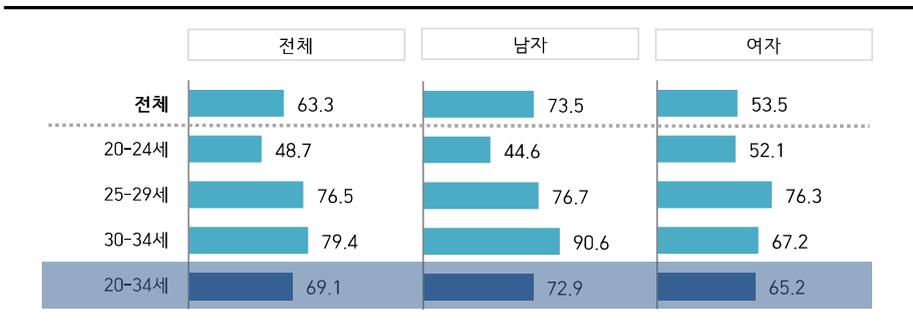


그림 III-48. 경제활동 참여율

표 III-58 연도별 경제활동 참여율 추이

(단위: %)

연도	전체					남자					여자				
	전체 (15세)	20- 34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전체 (15세)	20- 34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전체 (15세)	20- 34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2000	61.2	67.8	57.9	70.3	72.6	74.4	81.3	53.1	84.4	95.5	48.8	55.1	61.2	55.9	48.9
2001	61.5	67.7	57.5	71.0	72.3	74.4	80.3	51.1	84.0	94.8	49.4	56.1	62.0	57.6	49.2
2002	62.1	68.3	58.3	71.9	72.6	75.1	80.4	52.4	83.9	94.6	49.9	57.1	62.6	59.5	50.0
2003	61.6	68.1	57.5	72.1	72.7	74.9	79.8	51.5	83.0	94.8	49.1	57.2	61.9	60.8	49.9
2004	62.3	68.8	58.5	73.4	72.6	75.2	79.6	52.6	82.4	94.0	50.1	58.7	62.8	64.0	50.5
2005	62.2	68.6	57.3	73.8	72.3	74.8	78.6	50.1	81.0	93.5	50.3	59.3	62.6	66.2	50.3
2006	62.2	68.4	54.7	73.4	73.5	74.5	77.4	48.7	78.9	92.9	50.5	59.9	59.2	67.8	53.1
2007	62.2	68.0	52.8	73.1	73.6	74.4	76.6	47.6	77.7	92.2	50.5	59.7	56.6	68.3	53.8
2008	61.7	67.4	50.1	73.0	73.5	73.8	75.6	44.0	76.4	92.5	50.2	59.5	54.5	69.4	53.4
2009	61.0	66.8	49.1	72.7	72.6	73.2	75.3	44.0	76.2	92.0	49.3	58.5	52.9	69.1	52.1
2010	61.1	67.3	48.9	73.2	73.8	73.2	75.1	42.8	76.5	91.8	49.6	59.7	53.5	69.6	54.8
2011	61.3	67.3	47.9	74.4	73.9	73.4	74.8	42.3	77.6	91.5	49.8	59.9	52.3	71.1	55.5
2012	61.6	67.5	49.0	74.1	74.7	73.5	74.7	43.4	76.6	92.0	50.1	60.4	53.5	71.5	56.5
2013	61.7	67.2	47.6	74.1	75.7	73.5	73.9	42.2	76.3	92.2	50.3	60.6	52.2	71.7	58.4
2014	62.7	68.5	49.9	75.3	76.9	74.4	74.7	44.4	77.3	92.9	51.5	62.2	54.5	73.2	59.9
2015	62.8	69.0	51.6	75.0	77.8	74.1	74.7	46.0	77.1	93.1	51.9	63.3	56.3	72.7	61.6
2016	62.9	69.3	51.6	76.6	77.6	74.0	74.5	45.8	78.3	92.1	52.2	64.2	56.6	74.7	62.1
2017	63.2	68.8	50.6	75.9	77.9	74.1	73.2	45.1	76.8	91.2	52.7	64.4	55.3	74.9	63.5
2018	63.1	69.1	48.9	76.9	78.9	73.7	72.9	42.6	77.3	91.5	52.9	65.2	54.1	76.5	65.2
2019	63.3	69.1	48.7	76.5	79.4	73.5	72.9	44.6	76.7	90.6	53.5	65.2	52.1	76.3	67.2

\* 출처: 통계청(각 년도e). 경제활동인구조사(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1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13)에서 2020년 9월 28일 인출.

\* 주: 경제활동참여율=(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100

### 3-1-2. 고용률

청년기본법상 청년(19세-34세)에 준하는 20세-34세 청년의 2019년 전체 고용률은 64.2%로 15세 이상 전체 연령의 평균 고용률 60.9%보다 3.3%p 높은 수치이다. 20세-34세 청년 전체의 고용률은 2000년부터 꾸준히 62%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고용률도 높게 나타났다. 성별 및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34세 청년 남성의 고용률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60% 후반부터 70% 중반까지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으나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반면, 20세-34세 여성의 경우 2000년 52.3%에서 꾸준히 상승하다 2017년 처음 60%를 넘어섰다. 또한 20세-34세 남성의 경우 15세 이상 전체 연령의 평균 고용률과 비교했을 때 2006년 이전까지는 전체 고용률 대비 청년의 고용률이 높았으나 2007년 이후 낮아졌으며, 20세-34세 여성은 지속적으로 15세 이상 전체 연령 평균 고용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남성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높은 것에 비해, 여성의 경우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20세-24세 청년이, 2003년부터 25세-29세 청년의 고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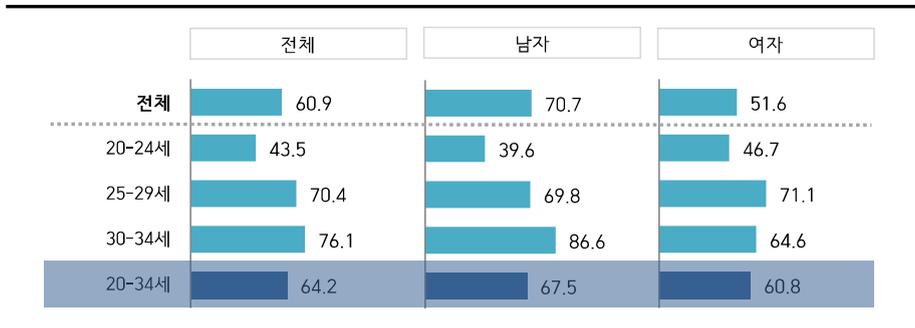


그림 III-49. 고용률

표 III-59 연도별 고용률 추이

(단위: %)

연도	전체					남자					여자				
	전체 (15세)	20- 34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전체 (15세)	20- 34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전체 (15세)	20- 34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2000	58.5	63.6	52.1	66.1	69.7	70.8	75.7	46.3	78.3	91.2	47.0	52.3	56.3	53.7	47.3
2001	59.0	63.8	52.1	66.7	69.9	71.1	75.2	45.0	77.9	91.2	47.7	53.3	57.1	55.2	47.9
2002	60.1	64.7	53.8	67.8	70.2	72.3	75.6	47.4	77.8	91.2	48.5	54.6	58.3	57.5	48.6
2003	59.4	64.1	52.0	67.5	70.2	72.1	74.7	45.7	76.5	91.4	47.4	54.1	56.6	58.2	48.4
2004	60.0	64.7	52.7	68.6	70.1	72.3	74.4	46.5	75.6	90.6	48.5	55.5	57.3	61.4	48.9
2005	59.9	64.4	51.7	69.1	69.7	71.9	73.4	44.1	74.8	89.8	48.6	56.0	57.2	63.1	48.6
2006	60.0	64.2	49.3	68.6	70.8	71.6	72.1	42.9	72.6	89.0	49.0	56.7	54.0	64.5	51.7
2007	60.1	64.1	48.2	68.5	70.8	71.7	71.5	42.2	71.3	88.5	49.1	57.0	52.7	65.5	52.2
2008	59.8	63.6	45.5	68.6	70.8	71.2	70.8	39.0	70.7	88.7	48.9	56.7	50.2	66.4	51.9
2009	58.8	62.5	44.5	67.6	69.6	70.2	69.9	39.0	69.4	87.8	47.8	55.4	48.5	65.7	50.3
2010	58.9	63.1	44.4	68.1	70.7	70.3	69.9	38.4	69.9	87.4	47.9	56.5	48.8	66.1	53.0
2011	59.3	63.2	43.3	69.6	71.0	70.7	70.0	37.3	71.6	87.9	48.3	56.6	48.2	67.6	53.3
2012	59.6	63.7	44.5	69.2	72.3	71.1	70.3	39.1	70.5	88.9	48.6	57.3	48.9	67.9	54.9
2013	59.8	63.2	43.3	68.8	72.9	71.1	69.1	38.2	69.6	88.4	48.9	57.3	47.5	67.9	56.7
2014	60.5	64.0	44.8	69.0	74.2	71.7	69.5	39.4	69.4	89.8	49.7	58.4	49.4	68.6	57.6
2015	60.5	64.5	46.1	68.9	75.3	71.4	69.5	40.8	69.3	90.0	50.1	59.4	50.8	68.5	59.6
2016	60.6	64.2	46.1	69.5	74.7	71.2	68.7	40.7	69.7	88.3	50.3	59.7	50.5	69.3	59.9
2017	60.8	63.6	45.3	68.7	74.7	71.2	67.2	39.9	67.9	87.3	50.8	60.0	49.7	69.6	61.0
2018	60.7	63.9	43.7	70.2	75.4	70.8	67.2	37.8	69.5	87.3	50.9	60.6	48.5	70.9	62.5
2019	60.9	64.2	43.5	70.4	76.1	70.7	67.5	39.6	69.8	86.6	51.6	60.8	46.7	71.1	64.6

\* 출처: 통계청(각 년도e. 경제활동인구조사(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3)에서 2020년 9월 28일 인출.

\* 주: 고용률=(취업자/15세이상 인구)×100

### 3-1-3. 실업률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에 준하는 20-34세 청년의 실업률은 2019년 기준 7.1%로 2018년 7.5%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15세 이상 전체 연령의 평균 실업률 3.8% 보다 3.3%p 높은 수치로 2016년 이후 7%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20-34세 청년의 경우 매년 여성보다 남성의 실업률이 높았으며, 남·여 모두 15세 이상 전체 연령 실업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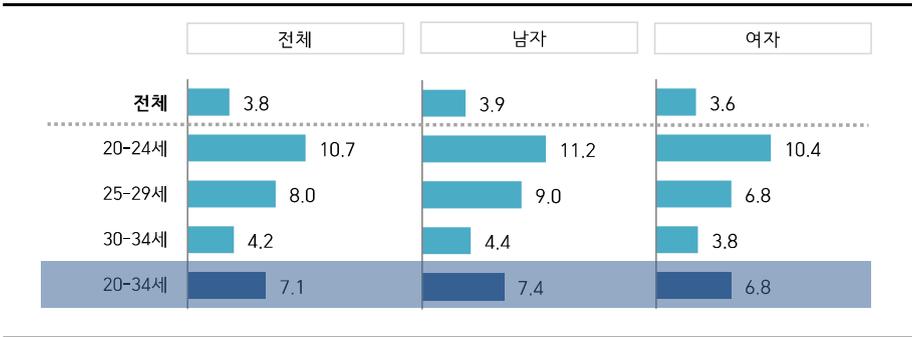


그림 III-50. 실업률

표 III-60 연도별 실업률 추이

(단위: %)

연도	전체					남자					여자				
	전체 (15세)	20- 34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전체 (15세)	20- 34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전체 (15세)	20- 34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2000	4.4	6.1	9.9	6.0	4.0	5.0	6.8	12.9	7.3	4.4	3.6	5.2	8.1	4.0	3.2
2001	4.0	5.8	9.3	6.0	3.4	4.5	6.4	11.8	7.3	3.8	3.3	5.0	7.8	4.2	2.7
2002	3.3	5.3	7.9	5.7	3.3	3.6	6.0	9.5	7.4	3.6	2.7	4.4	6.8	3.4	2.8
2003	3.6	5.9	9.6	6.3	3.4	3.8	6.3	11.3	7.8	3.5	3.3	5.4	8.5	4.3	3.1
2004	3.7	6.0	9.8	6.5	3.4	3.9	6.6	11.6	8.2	3.6	3.4	5.4	8.8	4.1	3.0
2005	3.7	6.1	9.8	6.4	3.7	4.0	6.5	12.0	7.7	3.9	3.4	5.5	8.6	4.7	3.3
2006	3.5	6.1	10.0	6.5	3.7	3.9	6.8	12.0	8.0	4.3	3.0	5.3	8.7	4.8	2.8
2007	3.2	5.7	8.6	6.3	3.7	3.7	6.7	11.5	8.2	4.1	2.7	4.6	6.9	4.2	3.1
2008	3.2	5.6	9.1	6.0	3.6	3.6	6.3	11.3	7.5	4.0	2.6	4.8	7.8	4.3	2.9
2009	3.6	6.3	9.5	7.1	4.1	4.1	7.2	11.4	9.0	4.5	3.0	5.3	8.3	4.9	3.4
2010	3.7	6.3	9.4	6.9	4.2	4.0	7.0	10.3	8.6	4.8	3.3	5.4	8.8	5.1	3.2
2011	3.4	6.0	9.4	6.4	4.0	3.6	6.5	11.9	7.7	4.0	3.1	5.3	7.8	5.0	3.9
2012	3.2	5.6	9.0	6.6	3.2	3.4	5.9	9.8	8.0	3.4	3.0	5.1	8.6	5.0	2.8
2013	3.1	6.0	9.2	7.1	3.7	3.3	6.5	9.5	8.7	4.1	2.8	5.4	9.0	5.2	2.9
2014	3.5	6.6	10.2	8.3	3.5	3.5	6.9	11.4	10.1	3.3	3.5	6.2	9.3	6.3	3.7
2015	3.6	6.6	10.5	8.1	3.3	3.6	7.0	11.5	10.1	3.3	3.5	6.0	9.8	5.8	3.2
2016	3.7	7.3	10.8	9.2	3.8	3.8	7.7	11.0	10.9	4.1	3.6	6.9	10.7	7.2	3.4
2017	3.7	7.6	10.6	9.5	4.1	3.8	8.2	11.5	11.6	4.3	3.5	6.8	10.0	7.1	3.8
2018	3.8	7.5	10.7	8.8	4.4	3.9	7.8	11.2	10.1	4.6	3.7	7.1	10.4	7.3	4.2
2019	3.8	7.1	10.7	8.0	4.2	3.9	7.4	11.2	9.0	4.4	3.6	6.8	10.4	6.8	3.8

\* 출처: 통계청(각 년도e). 경제활동인구조사(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3)에서  
 2020년 9월 28일 인출.

\* 주: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 3-1-4. 신설법인 비율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동향 통계를 통해 전체 신설법인 중 청년층이 대표자로 있는 신설법인 비율을 확인 해 본 결과, 2019년 기준 청년층이 대표자로 있는 신설법인 비율은 30세 미만 대표자 6.9%로 전년(6.7%) 대비 0.2%p 증가, 30-39세 대표자는 21.1%로 전년(21.2%) 대비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30세 미만의 청년이 대표자인 신설법인 비율은 꾸준히 증가(2010년 5.2%→2019년 6.9%)하고 있는 반면, 30-39세 대표자 신설법인 비율은 감소(2010년 25.5%→2019년 21.1%)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 신설법인 수는 꾸준히 증가(2010년 60,312개→2019년 108,874개)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2018년 보다 6,800여 개의 법인이 신설되었다.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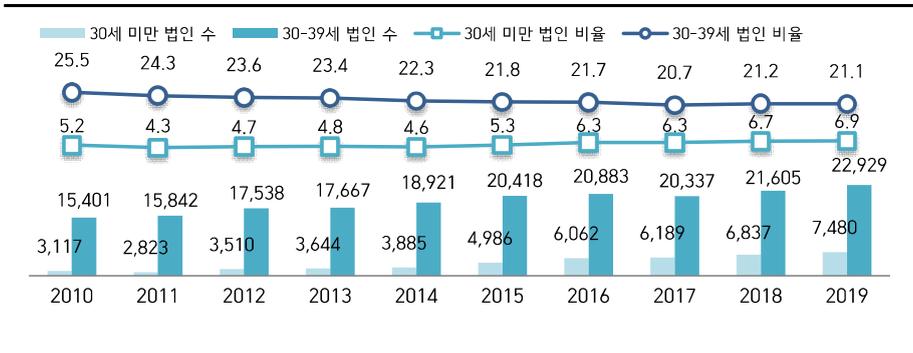


그림 Ⅲ-51. 전산업 기준 청년층 신설법인 수 및 비율

표 III-61 연도별 전산업 기준 신설법인 수 및 비율 추이

(단위: 개소(%))

연도	전체	30세 미만	30-39세
2010	60,312(100.0)	3,117(5.2)	15,401(25.5)
2011	65,110(100.0)	2,823(4.3)	15,842(24.3)
2012	74,162(100.0)	3,510(4.7)	17,538(23.6)
2013	75,479(100.0)	3,644(4.8)	17,667(23.4)
2014	84,697(100.0)	3,885(4.6)	18,921(22.3)
2015	93,768(100.0)	4,986(5.3)	20,418(21.8)
2016	96,155(100.0)	6,062(6.3)	20,883(21.7)
2017	98,330(100.0)	6,189(6.3)	20,337(20.7)
2018	102,042(100.0)	6,837(6.7)	21,605(21.2)
2019	108,874(100.0)	7,480(6.9)	22,929(21.1)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각 연도), 창업기업동향(산업·연령대별 신설법인수).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2&tblId=DT\\_142N\\_A10252C&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2&tblId=DT_142N_A10252C&conn_path=I2)(2010-2016년 자료),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2&tblId=DT\\_142009N\\_102&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2&tblId=DT_142009N_102&conn_path=I2)(2017-2019년 상반기 자료)에서 2020년 9월 29일 인출.

\* 주: 기타제품제조업(담배제조업, 산업용기계) 포함

### 3-1-5. 청년 고용주(대표) 비율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를 통해 활동기업, 신생기업, 소멸기업 기준으로 청년 고용주(대표)의 증감 여부를 살펴본 결과, 29세 이하 청년 고용주(대표) 비율은 활동기업이나 신생기업 모두 지난 2011년 이후 큰 변화 없이 활동기업이 2.8~3.4% 내외, 신생기업이 1.1~1.3% 내외, 소멸기업의 경우 0.6~0.8% 내외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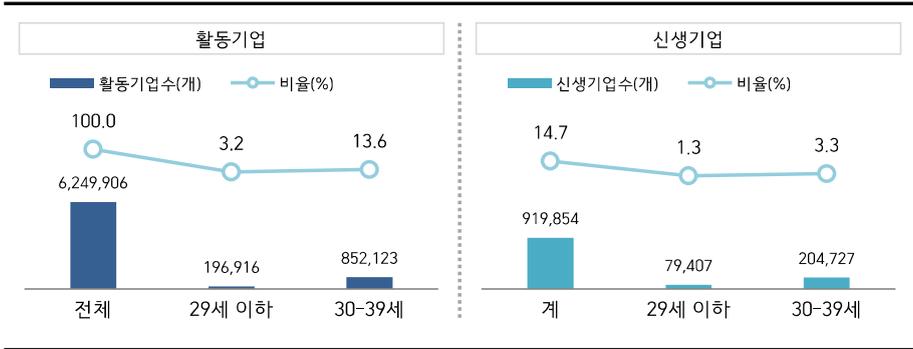


그림 III-52. 청년 기업 고용주(대표)의 활동기업, 신생기업 수 및 비율

표 III-62 연도별 청년 기업 고용주(대표)의 활동기업, 신생기업, 소멸기업 수 및 비율 추이

(단위: 개(%))

연도	활동기업			신생기업			소멸기업		
	전체	29세 이하	30~39세	전체	29세 이하	30~39세	전체	29세 이하	30~39세
2011	5,304,807 (100.0)	180,259 (3.4)	874,743 (16.5)	809,426 (15.3)	70,834 (1.3)	210,246 (4.0)	683,099 (12.9)	44,839 (0.8)	149,548 (2.8)
2012	5,379,187 (100.0)	167,391 (3.1)	849,591 (15.8)	769,878 (14.3)	63,715 (1.2)	200,716 (3.7)	741,111 (13.8)	43,411 (0.8)	151,682 (2.8)
2013	5,377,482 (100.0)	152,207 (2.8)	814,613 (15.1)	748,691 (13.9)	57,791 (1.1)	193,932 (3.6)	664,265 (12.4)	35,444 (0.7)	135,566 (2.5)
2014	5,558,767 (100.0)	155,095 (2.8)	808,535 (14.5)	842,789 (15.2)	63,504 (1.1)	204,907 (3.7)	776,516 (14.0)	35,693 (0.6)	131,313 (2.4)
2015	5,553,564 (100.0)	156,068 (2.8)	804,642 (14.5)	813,202 (14.6)	62,130 (1.1)	197,214 (3.6)	640,124 (11.5)	33,354 (0.6)	123,835 (2.2)
2016	5,775,996 (100.0)	169,674 (2.9)	824,074 (14.3)	876,414 (15.2)	70,649 (1.2)	206,664 (3.6)	626,249 (10.8)	34,420 (0.6)	121,589 (2.1)
2017	6,050,748 (100.0)	185,842 (3.1)	842,683 (13.9)	913,340 (15.1)	77,005 (1.3)	208,859 (3.5)	698,297 (11.5)	39,713 (0.7)	130,217 (2.2)
2018	6,249,906 (100.0)	196,916 (3.2)	852,123 (13.6)	919,854 (14.7)	79,407 (1.3)	204,727 (3.3)	-	-	-

\* 출처: 통계청(각 년도f). 기업생멸행정통계(대표자 성·연령별/조직형태별 기업수).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_gld=101&tblId=DT\\_1BD0002&conn\\_path=l2\(2011-2015년 자료\)](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_gld=101&tblId=DT_1BD0002&conn_path=l2(2011-2015년 자료)),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D1014&conn\\_path=l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D1014&conn_path=l2) (2016-2018년 자료)에서 2020년 9월 29일 인출.

- \* 주 1) 신생률: 당해연도(t) 활동기업에 대한 신생기업의 비율(신생률(t년도)) = (t년도)신생기업수/(t년도)활동기업수×100)  
 2) 소멸률: 당해연도(t) 활동기업에 대한 소멸기업의 비율(소멸률(t년도)) = (t년도)소멸기업수/(t년도)활동기업수×100)

### 3-1-6. 니트(NEET) 비율

15세-29세 인구 중 일,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 니트(NEET)는 교육도, 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를 지칭하며 OECD에서는 형식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및 훈련까지 니트에서 제외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통해 산출한 니트 비율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19.9%로 2014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2014년 17.8%→2019년 19.9%)하고 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17.8%~19.9% 사이의 청년 니트(NEET) 비율을 유지해 왔으며, 최근 5년간 니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보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청년 니트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III-53. 니트(NEET) 비율

표 III-63 연도별 니트(NEET) 비율 추이(OECD 기준)

(단위: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니트(%)	19.8	19.1	18.5	18.5	19.0	19.2	18.8	18.5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니트(%)	18.1	17.8	18.6	18.9	19.1	19.1	19.9	

\* 출처: 통계청(각 연도e).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www.kosis.kr>에서 2020년 9월 28일 인출.

- \* 주 1) 2014년부터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추정된 결과임
- 2) 니트는 재학생이나 취업자가 아닌 경우임

### 3-1-7. 비정규직 비율

20-39세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수의 비율은 2019년 기준 30.0%로 15세 이상 전체 연령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의 비율인 32.2%보다 2.2%p 낮은 수준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23.7%)보다 20대(38.3%)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14.6%p 높고, 2011년 이후 20대와 30대의 비정규직 비율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또한 2019년 처음으로 15세 이상 전체 연령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대비 20대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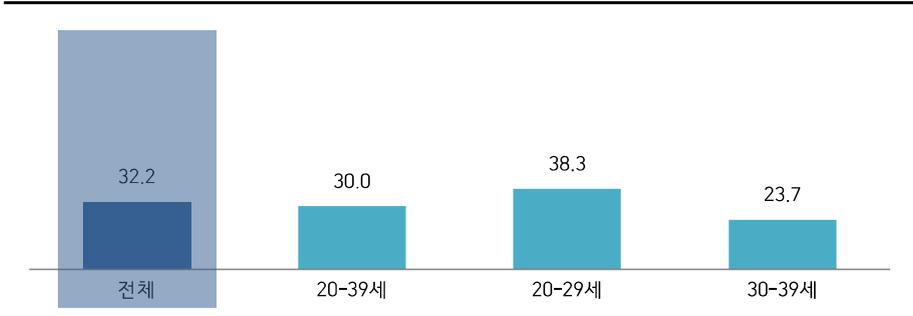


그림 III-54. 연령별 비정규직 비율

표 III-64 연도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단위: %)

연도	전체 (15세-)	20-39세	20-29세	30-39세
2003	32.6	27.9	29.6	26.3
2004	37.0	32.7	33.4	32.2
2005	36.6	31.5	33.0	30.3
2006	35.4	30.4	31.1	29.7
2007	36.6	31.4	31.4	29.8
2008	35.8	30.5	31.0	26.8
2009	35.1	29.3	31.6	25.2
2010	33.8	28.6	31.1	23.4
2011	33.4	27.5	31.6	24.4
2012	34.8	28.0	30.5	23.1
2013	33.0	26.7	31.1	22.2
2014	33.2	26.6	32.0	21.8
2015	33.8	27.6	32.1	21.2
2016	34.2	27.4	32.2	21.1
2017	33.2	26.5	33.1	20.6
2018	33.2	26.1	32.3	21.0
2019	32.2	30.0	38.3	23.7

\* 출처: 통계청(각 연도g).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성·연령별 근로형태(비정규직)별 취업자). KOSIS 국가 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006S&conn\\_path=1](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006S&conn_path=1) 2에서 2020년 9월 29일 인출.

- \* 주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는 노사정위원회가 합의(2002년 7월)한 결과에 따른 것임.  
 2) 비정규직 비율=(해당 연령층 비정규직 수/해당 연령층 임금근로자 수)×100

### 3-1-8. 신규 채용률

신규 채용률은 현재 국내에 해당 통계 자료가 없어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해 보았다. 해당 조사 내 대졸 신입직원 취업 경쟁률은 2017년 전체 기준 35.7 대 1로 2008년(26.3 대 1)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31.3 대 1)과 비제조업(43.5 대 1) 모두 경쟁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38.5 대 1)은 경쟁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5.8 대 1)은 다소 등락이 있지만 2008년(8.4 대 1) 대비 오히려 경쟁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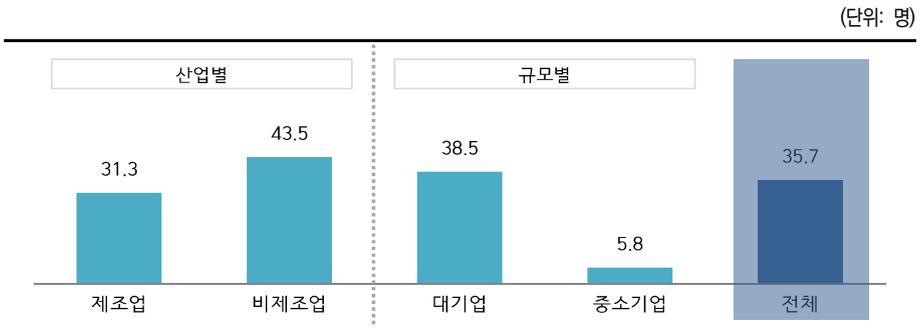


그림 III-55. 대졸 신입사원 경쟁률

표 III-65 연도별 대졸 신입사원 경쟁률 추이

(단위: 명)

연도	산업		규모		전체
	제조업	비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	
2008	24.4:1	27.8:1	30.3:1	8.4:1	26.3:1
2013	25.6:1	34.5:1	31.3:1	6.0:1	28.6:1
2015	29.4:1	37.0:1	35.7:1	6.6:1	32.3:1
2017	31.3:1	43.5:1	38.5:1	5.8:1	35.7:1

\*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각 연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 웹사이트 [http://www.kefplaza.com/kef/kef\\_press\\_view.jsp?num=6023](http://www.kefplaza.com/kef/kef_press_view.jsp?num=6023)에서 2019년 7월 22일 인출.

\* 주: 2017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에서 규모에 따른 경쟁률은 300인 이상 기업, 300인 미만 기업으로 나뉘.

### 3-1-9. 청년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에 대해 물어본 결과 '안정적인 회사'라는 응답이 26.5%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18.9%)', '급여가 높은 회사(15.6%)' 등의 순이었으며,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상위 3순위 응답은 이전년도와 동일하였다. 선호 일자리 유형 중에서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2.6%p)', '복지수준이 높은 회사(+2.1%p)'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이전년도 대비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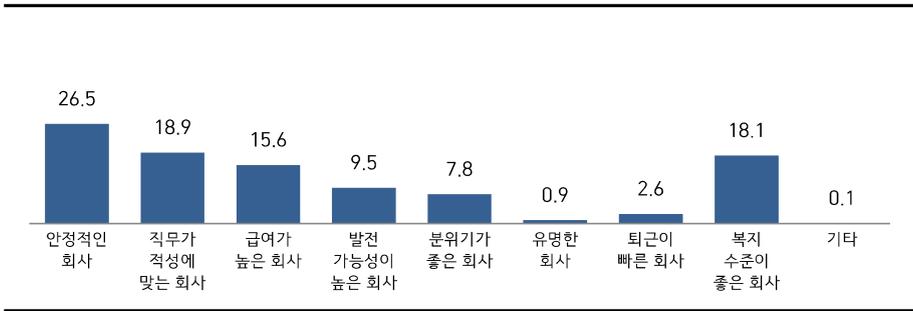


그림 III-56.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표 III-66 연도별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단위: %)

연도	안정적인 회사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급여가 높은 회사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분위가 좋은 회사	유명한 회사	퇴근이 빠른 회사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	기타
2013	36.6	15.2	20.0	12.4	9.6	1.6	4.3	-	0.3
2015	37.5	15.2	25.9	8.4	8.2	1.7	2.7	-	0.4
2016	31.0	25.6	18.3	10.5	8.8	2.9	2.7	-	0.1
2017	31.4	22.3	19.5	8.8	9.0	1.6	6.9	-	0.4
2018	30.8	11.7	22.2	13.2	5.5	3.9	2.4	10.3	0.0
2019	25.7	19.4	17.0	6.9	8.9	1.0	5.0	16.0	0.1
2020	26.5	18.9	15.6	9.5	7.8	0.9	2.6	18.1	0.1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2013년과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 2) 조사대상은 2020년 18-34세, 2016-2019년 15-39세 인구임.
- 3) '복지수준이 좋은 회사' 는 2018년 신규 추가된 보기임
- 4)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3-1-10. 청년 중소기업 취업 의향 및 비취업 이유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18-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 중 63.9%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초반 이하(18-19세 68.4%, 20-24세 68.3%)까지는 중소기업 취업 의향 비율이 큰 차이가 없으나, 20대 후반 이후(25-29세 62.7%, 30-34세 59.3%)부터는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큰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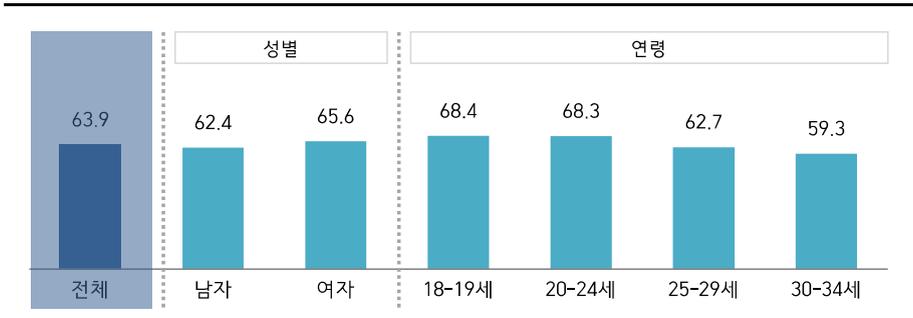


그림 III-57. 중소기업 취업 의향

표 III-67 연령별 중소기업 취업 의향

(단위: %)

연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8-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0-39세)
						(*19-29세)		
2013	62.8	62.6	63.0	-	-	63.4		62.2
2015	50.1	53.4	46.6	-	-	54.3		46.1
2016	68.9	68.7	69.1	63.4	-	73.4		66.2
2017	59.4	57.7	61.3	57.5	-	63.9		55.5
2018	63.9	64.6	63.0	57.2	-	69.9		60.9
2019	62.4	61.6	63.2	60.4	-	66.1		59.2
2020	63.9	62.4	65.6	-	68.4	68.3	62.7	59.3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중소기업 취업 의향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 2)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 3)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4) 전체는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 5)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없다'라고 응답한 청년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2.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낮은 급여 수준(19.4%)', '대기업보다 낮은 복지 수준(19.0%)',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없음(15.1%)' 등의 순이었다.

2019년 대비 '대기업보다 낮은 복지수준(+7.2%p)',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없음(+3.0%p)' 사유로 인한 중소기업 취업 기피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고용, 급여 및 복지, 발전가능성에 대한 사유로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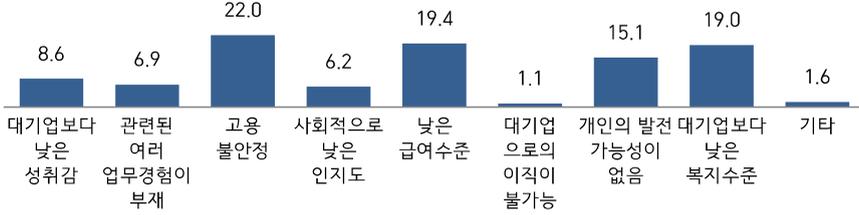


그림 III-58. 중소기업 비취업 이유

표 III-68 연도별 중소기업 비취업 이유

(단위: %)

연도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	관련된 여러 업무경험이 부재	고용 불안정	사회적으로 낮은 인지도	낮은 급여수준	대기업으로의 이직이 불가능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없음	대기업보다 낮은 복지수준	기타
2013	14.0	12.9	25.0	12.9	18.0	1.6	12.4	-	3.2
2015	11.4	13.0	20.6	16.8	21.0	3.0	14.0	-	-
2016	10.1	4.2	28.2	11.1	22.6	1.8	15.8	-	5.7
2017	13.9	8.0	20.6	8.4	19.8	2.8	13.3	13.9	1.7
2018	11.4	8.7	24.7	10.9	20.7	3.5	7.9	11.7	0.5
2019	8.3	6.6	28.5	6.8	22.1	1.3	12.1	11.8	2.6
2020	8.6	6.9	22.0	6.2	19.4	1.1	15.1	19.0	1.6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중소기업 취업 의향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만 응답
- 2) 2013년과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 3) 조사대상은 2020년 18-34세, 2016-2019년 15-39세 인구임.
- 4)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3-1-11. 청년 창업 의향 및 경험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18-34세 청년들이 창업을 희망 또는 실제 창업을 해 보았는지를 질문해 보았다. 이 중 ‘창업을 생각해 보았고 실제로 창업을 했다’는 창업 경험자 비율은 9.0%로 나타났다. 창업 경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10.1%로 여자(7.7%)보다 높았고, 20대 이하의 경우 창업 경험이 10% 미만이었으나 30-34세의 경우 18.6%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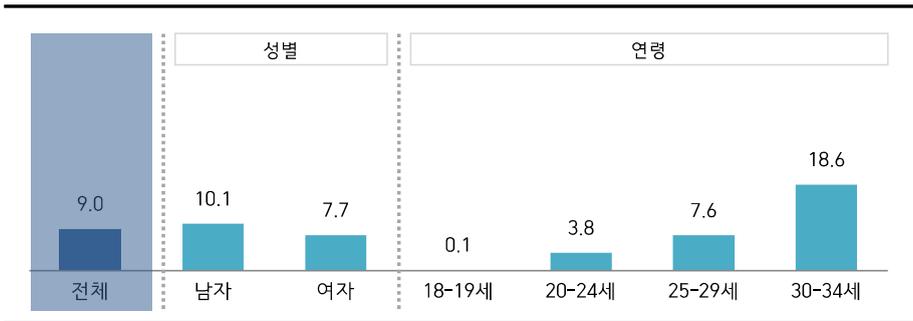


그림 III-59. 창업 경험

표 III-69 연도별 창업 경험

(단위: %)

연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8-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0-39세)
						(*19-29세)		
2015	7.4	11.3	3.1	-	-	3.1		11.5
2016	20.1	21.1	18.6	4.5		8.0		32.3
2017	12.7	15.8	9.2	8.0	-	6.4		19.1
2018	5.7	6.2	5.2	9.1	-	1.8		9.0
2019	12.2	15.4	8.7	5.5	-	6.0		18.9
2020	9.0	10.1	7.7	-	0.1	3.8	7.6	18.6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2015-2016년 조사에서는 현재 창업 중이거나 창업 경험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며, 2017년 조사부터는 '창업을 생각해보았고 실제로 창업을 했다'라고 응답한 비율
- 2)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 3)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4) 전체는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 5)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같은 문항에서 '창업을 고려해 보았으나 실제로 창업을 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25.9%로 나타났다.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창업 경험과 마찬가지로 남자(28.2%)가 여자(23.3%)보다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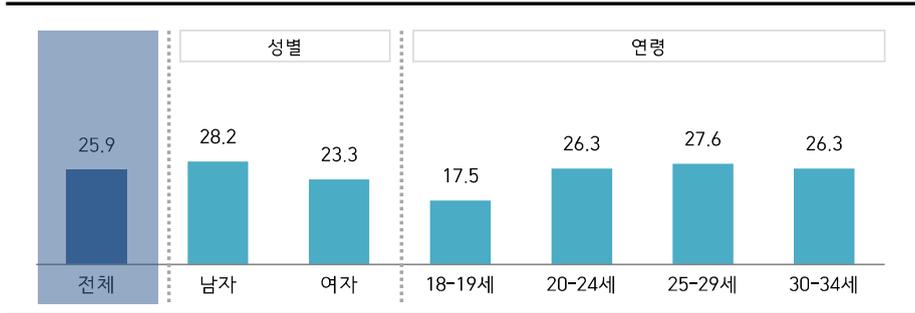


그림 III-60. 창업 의사

표 III-70 연도별 창업 의사

(단위: %)

연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8-19세	20-24세 (*19-29세)	25-29세 (*30-39세)	30-34세 (*30-39세)
2013	25.2	28.5	21.8	-	-	17.0		32.9
2015	12.5	13.9	11.2	-	-	11.4		13.7
2016	29.4	34.2	24.2	18.4	-	27.8		34.6
2017	35.8	36.2	35.3	36.0	-	37.6		34.0
2018	22.7	26.3	18.7	6.3	-	21.1		24.0
2019	25.3	26.8	23.5	12.4	-	25.3		25.8
2020	25.9	28.2	23.3	-	17.5	26.3	27.6	26.3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2013-2016년 조사에서는 창업 고려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2017년 조사 이후부터는 '창업을 생각해보았으나 실제로 창업을 해본 적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
- 2) 2013년과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 3)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4) 전체는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 5)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 3-1-12. 청년 직장에서 본인 조건에 맞는 대우 여부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직장에서 본인의 조건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2%(‘받고 있는 편이다’ 38.1%+‘충분히 받고 있다’ 4.1%)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 12.5%(‘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1.1%+‘받고 있지 못하는 편이다’ 11.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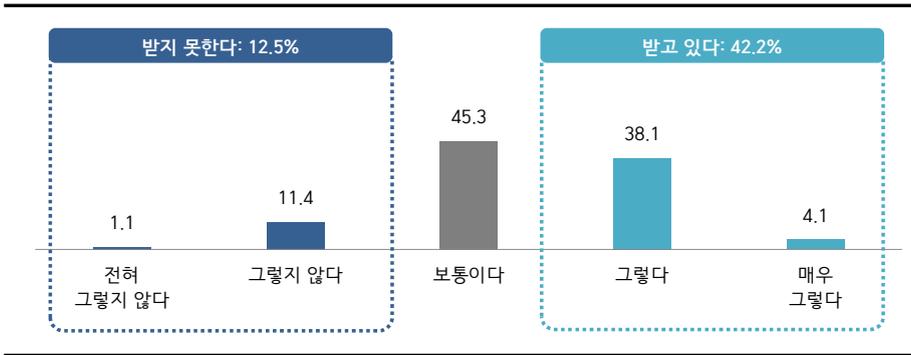


그림 III-61. 직장에서 본인 조건에 맞는 대우 여부

표 III-71 연도별 직장에서 본인 조건에 맞는 대우 여부

(단위: %)

연도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받고 있지 못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받고 있는 편이다	충분히 받고 있다
2013	0.6	12.1	46.4	39.8	1.4
2015	0.3	9.3	46.8	41.1	2.5
2016	1.2	14.4	50.9	28.0	5.5
2017	2.3	14.3	46.8	30.4	6.3
2018	0.7	17.2	50.3	30.0	1.7
2019	2.2	16.0	45.3	31.7	4.8
2020	1.1	11.4	45.3	38.1	4.1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2013년과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2) 조사대상은 2020년 18~34세, 2016~2019년 15~39세 인구임.  
 3)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3-1-13. 청년 이직 의향 및 이유

현재 일자리가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현 직장(일자리)을 그만두고 이직할 의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이직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 비율이 23.2%로 나타났다. 이직 의향이 있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더 나은 보수와 복지를 위해’ 이직을 희망한다는 응답 비율이 42.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더 나은 근무환경(16.2%)’,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14.3%)’ 등의 순이었다.

이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이직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줄어들긴 하였으나(-5.7%p), 여전히 보수 및 복지, 근무환경, 안정성을 위해 이직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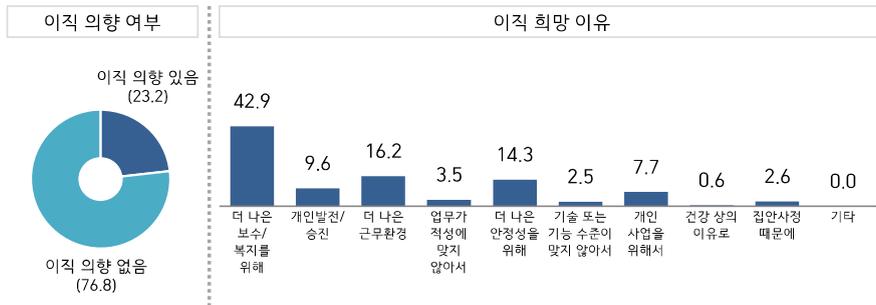


그림 Ⅲ-62. 이직 의향 여부 및 이유

표 III-72 연도별 이직 의향 및 이유

(단위: %)

연도	이직 의향 여부			이직 희망 이유								
	이직 의향 있음	이직 의향 없음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개인 발전/승진	더 나은 근무 환경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개인 사업을 위해서	건강 상의 이유로	집안 사정 때문에	기타
2013	30.1	69.9	53.1	11.5	14.1	1.6	15.6	0.5	1.0	0.5	-	2.1
2015	25.0	75.0	51.2	14.8	14.2	3.7	14.2	-	1.2	-	0.6	-
2016	29.4	70.6	47.6	10.1	17.4	4.4	13.2	1.8	3.7	-	0.8	1.0
2017	30.2	69.8	52.1	10.8	16.5	3.0	9.9	0.7	4.0	0.5	2.4	0.0
2018	25.0	75.0	55.8	8.7	14.1	2.7	15.0	1.2	1.1	0.1	0.4	1.0
2019	25.5	74.5	48.6	10.4	16.2	3.6	11.3	0.9	6.3	0.6	1.2	0.8
2020	23.2	76.8	42.9	9.6	16.2	3.5	14.3	2.5	7.7	0.6	2.6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2013년과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2) 조사대상은 2020년 18세-34세, 2018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3)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3-1-14. 신규졸업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18-34세 청년층에게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 각각에 대해 사회적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물어 보았다.

우선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결과, 고졸자의 경우 ‘그렇지 않다(적절하게 대우하고 있지 않다)’라는 응답이 46.1%(‘전혀 그렇지 않다’ 7.0%+‘그렇지 않다’ 39.1%)로 ‘그렇다’ 13.9%(‘그렇다’ 13.2%+‘매우 그렇다’ 0.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졸자의 경우에는 ‘그렇다(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34.2%(‘그렇다’ 31.1%+‘매우 그렇다’ 3.1%)로 ‘그렇지 않다’ 18.0%(‘전혀 그렇지 않다’ 2.6%+‘그렇지 않다’ 15.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고등학교 신규졸업자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반면, 대학교 신규졸업자에 대한 사회적 대우는 적절하다는 인식이 비교적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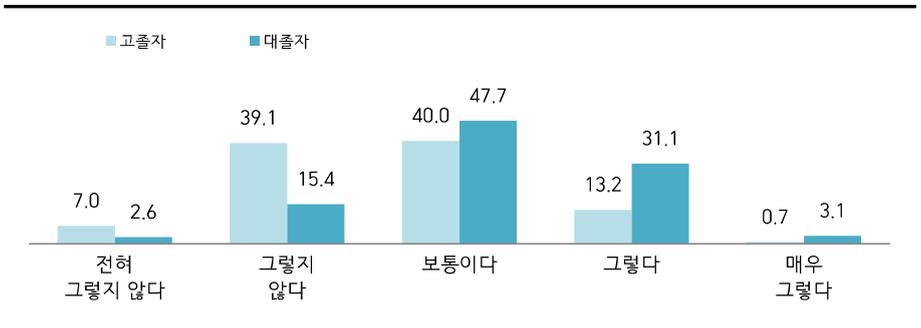


그림 III-63.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1) 우리사회는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표 III-73 연도별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1) 우리사회는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에게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

(단위: %)

구분	연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고졸자	2018	6.2	41.7	36.2	15.4	0.5
	2019	6.3	41.2	39.2	12.6	0.7
	2020	7.0	39.1	40.0	13.2	0.7
대졸자	2018	1.9	16.4	48.5	31.0	2.3
	2019	1.7	17.7	48.9	29.4	2.3
	2020	2.6	15.4	47.7	31.1	3.1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조사대상은 2020년 18세-34세, 2018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다음으로 ‘기성세대는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고졸자 및 대졸자 모두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고졸자 40.9%, 대졸자 27.3%)이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고졸자 14.7%, 대졸자 24.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졸자에 대한 안정적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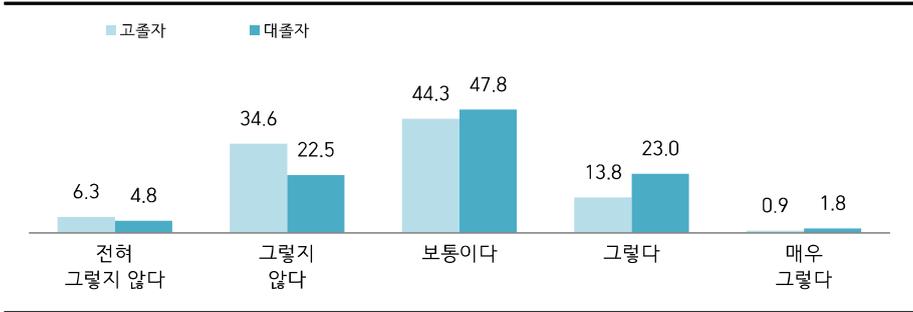


그림 III-64.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2) 기성세대는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표 III-74 연도별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2) 기성세대는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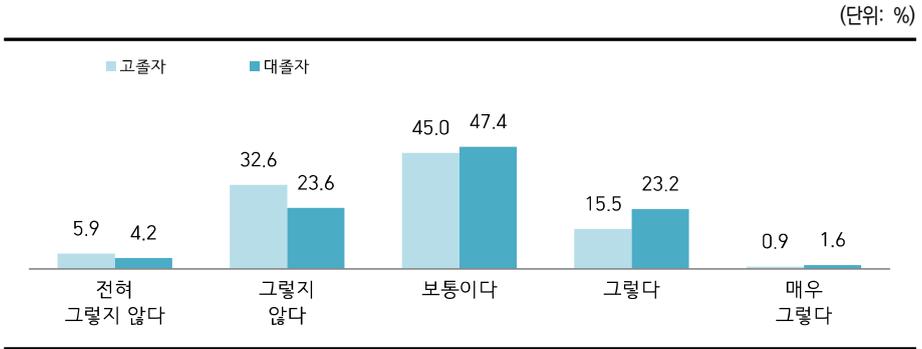
(단위: %)

구분	연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고졸자	2018	4.2	32.0	42.9	19.2	1.7
	2019	5.7	38.3	41.5	14.0	0.5
	2020	6.3	34.6	44.3	13.8	0.9
대졸자	2018	2.3	24.6	46.3	25.2	1.6
	2019	3.8	30.0	45.9	19.4	0.8
	2020	4.8	22.5	47.8	23.0	1.8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조사대상은 2020년 18세-34세, 2018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마지막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졸자 및 대졸자 모두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고졸자 38.5%, 대졸자 27.8%)이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고졸자 16.4%, 대졸자 24.8%) 대비 높게 나타났다. 고졸자, 대졸자 모두 정부 및 지자체의 졸업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고졸자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65.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인식\_3)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I-75 연도별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_3)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단위: %)

구분	연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고졸자	2018	4.2	34.3	42.8	18.0	0.8
	2019	5.1	34.8	44.9	14.5	0.7
	2020	5.9	32.6	45.0	15.5	0.9
대졸자	2018	2.6	23.0	51.8	21.8	0.9
	2019	3.5	28.4	49.2	18.1	0.7
	2020	4.2	23.6	47.4	23.2	1.6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조사대상은 2020년 18세-34세, 2018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 3-2-1. 청년 소득

전체 연령층의 월임금 총액은 2019년 약 314만원으로 2018년 303만원에서 약 11만원 상승하였다. 29세 이하 청년층의 월임금 총액은 약 222만원으로 전년 대비 10만원 정도 상승하였으며, 30세-39세 청년층의 월임금 총액(약 337만원) 또한 전년 대비 10만원 정도 상승하여 최근 4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연령층의 월임금 평균(314만원)과 비교했을 때, 29세 이하 청년은 92만원 더 적게, 30세-39세 청년은 23만원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29세 이하 청년은 전체연령 월임금 평균 대비 적게, 30세-39세 청년은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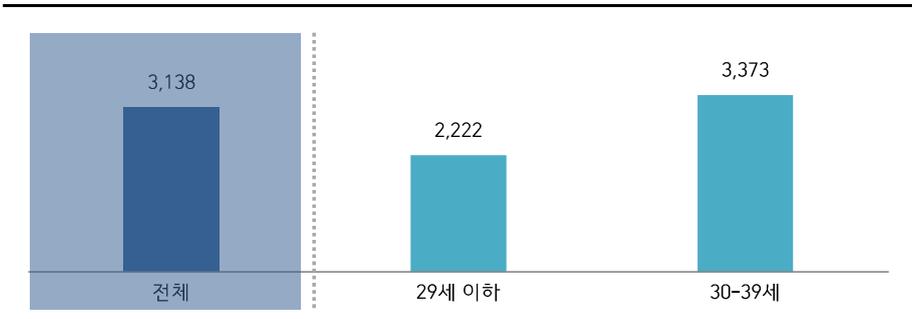


그림 III -66. 월임금총액

표 III-76 연도별 월임금총액 추이

(단위: 천원)

연도	전체연령	29세 이하	30-39세	연도	전체연령	29세 이하	30-39세
2006	2,069	1,441	2,251	2013	2,617	1,815	2,780
2007	2,178	1,551	2,380	2014	2,700	1,901	2,961
2008	2,279	1,612	2,489	2015	2,740	1,869	2,963
2009	2,277	1,611	2,466	2016	2,833	1,942	3,094
2010	2,326	1,636	2,540	2017	2,896	1,979	3,136
2011	2,428	1,727	2,619	2018	3,028	2,116	3,272
2012	2,527	1,779	2,720	2019	3,138	2,222	3,373

\* 출처: 고용노동부(각 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연령별 임금 및 근로시간).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4&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4&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22일 인출.

\* 주: 월임금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전년도연간특별급여/12개월

### 3-2-2. 청년 소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가계지출은 2018년 기준 약 333만원으로 이전년도 가계지출(332만원)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30세-39세 가구의 가계지출은 2018년 기준 약 308만원으로 이전년도 가계지출(약 312만원) 대비 약 4만원 정도 감소하였다. 특히 30대 가구의 가계 지출은 2014년 약 346만원으로 최고점에 도달한 뒤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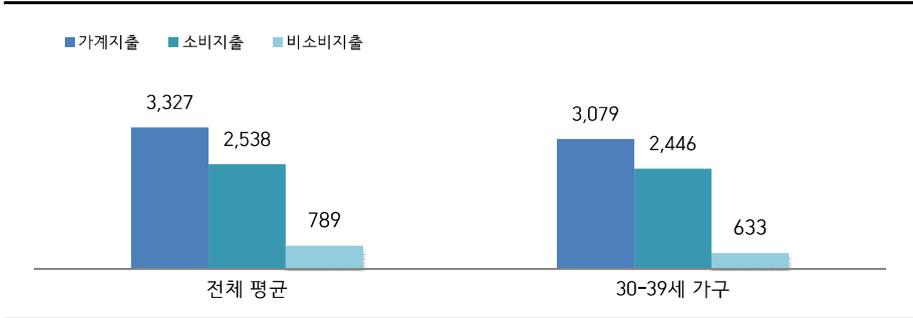


그림 III-67. 청년 소비

표 III-77 연도별 청년 소비 추이

(단위: 천원)

연도	전체 평균			29세 이하 가구			30-39세 가구		
	가계 지출	소비 지출	비소비 지출	가계 지출	소비 지출	비소비 지출	가계 지출	소비 지출	비소비 지출
2007	2,584	2,016	568	2,008	1,647	361	2,649	2,086	563
2008	2,718	2,114	604	2,064	1,695	369	2,807	2,189	618
2009	2,776	2,149	626	2,107	1,717	390	2,875	2,232	644
2010	2,961	2,287	674	2,279	1,891	389	3,077	2,391	686
2011	3,115	2,393	722	2,510	2,053	457	3,207	2,501	705
2012	3,217	2,457	759	2,632	2,134	498	3,215	2,488	727
2013	3,262	2,481	781	2,700	2,188	512	3,341	2,564	777
2014	3,356	2,551	804	2,541	2,093	448	3,459	2,667	792
2015	3,373	2,563	810	2,336	1,917	419	3,451	2,667	784
2016	3,361	2,550	812				3,362	2,577	785
2017	3,316	2,557	759				3,116	2,503	613
2018	3,327	2,538	789				3,079	2,446	633

\* 출처: 통계청(각 년도h). 가계동향조사(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2인이상)).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R008&conn\\_path=1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R008&conn_path=12)에서 2019년 9월 3일 인출.

- \* 주 1) 2017년에는 전용표본 설계, 조사방법 변경, 연간통계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전년 결과와 직접 비교가 어려움(전국 2인이상 가구 → 전국 1인이상 가구를 주지표로 공표).
- 2) 2016년부터 39세 이하 가구로 조사됨.

### 3-2-3. 장년 대비 청년 상대임금

장년층(40대 및 50대) 대비 청년층(29세 이하 및 30세-39세)의 상대임금 수준을 살펴본 결과, 29세 이하는 40대 대비 60.2%, 50대 대비 65.3%, 30세-39세는 40대 대비 91.5%, 50대 대비 99.1%의 수준으로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29세 이하 청년층의 상대임금 수준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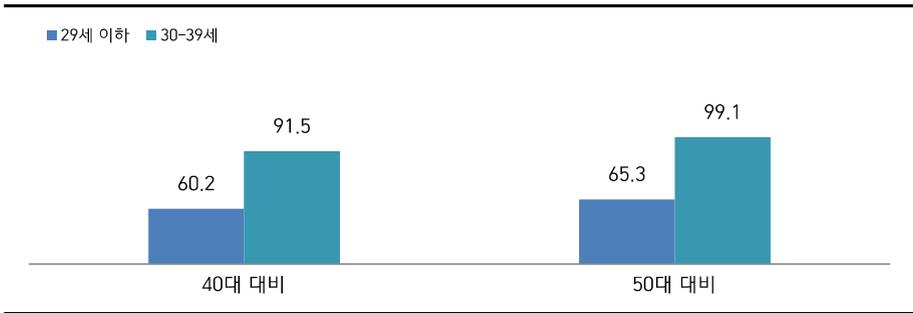


그림 III-68. 장년 대비 청년 상대임금

표 III-78 연도별 장년 대비 청년 상대임금 추이

(단위: %)

연도	40대 대비		50대 대비	
	29세 이하	30-39세	29세 이하	30-39세
2006	57.6	90.0	61.1	95.5
2007	59.9	91.9	63.3	97.2
2008	59.9	92.4	64.1	99.0
2009	59.7	91.4	65.2	99.8
2010	59.8	92.9	65.7	102.0
2011	60.4	91.6	66.9	101.4
2012	60.1	91.9	66.1	101.1
2013	59.4	91.1	63.4	97.1
2014	60.0	93.4	67.2	104.7
2015	57.3	90.8	64.3	101.9
2016	57.8	92.2	64.9	103.4
2017	57.9	91.7	63.1	100.1
2018	59.4	91.9	65.0	100.5
2019	60.2	91.5	65.3	99.1

\* 출처: 고용노동부(각 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연령별 임금 및 근로시간),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4&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4&conn_path=I2)에서  
 2020년 9월 29일 인출.

- \* 주 1) 장년 대비 청년 상대임금=(해당 연령층의 월임금총액/기준 연령층의 월임금총액)×100  
 2) 월임금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전년도연간특별급여/12개월

### 3-2-4. 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

2019년 청년층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은 특수형태를 제외할 경우 29세 이하에서 49.5%, 30세-39세에서 53.5%로 나타났다. 이는 15세 이상 전체 연령대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 비율인 45.5%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다. 비정규직 특수형태를 포함할 경우 역시, 29세 이하 51.6%, 30세-39세 56.4%로 15세 이상 전체 연령대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 비율(50.1%) 보다 높은 수치이다. 특수형태 제외 및 특수형태 포함, 29세 이하, 30세-39세 이하 모두에서 2014년 수치가 급감한 후 다소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 14년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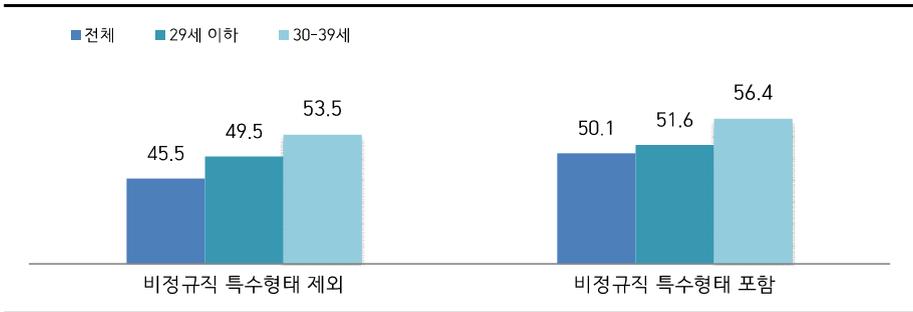


그림 III-69. 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

표 III-79 연도별 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 추이

(단위: %)

연도	비정규직 특수형태 제외			비정규직 특수형태 포함		
	전체(15세~)	29세 이하	30-39세	전체(15세~)	29세 이하	30-39세
2006	46.7	57.2	51.7	53.9	60.2	63.5
2007	48.5	58.5	52.1	55.4	61.5	61.8
2008	47.5	55.2	53.0	53.7	58.0	60.7
2009	47.3	54.2	52.1	52.7	56.2	56.8
2010	46.5	52.7	52.1	51.8	55.4	57.9
2011	46.5	54.0	52.8	52.3	55.5	57.0
2012	46.2	51.1	53.9	51.6	53.2	57.1
2013	47.0	50.7	57.3	55.4	53.1	64.1
2014	42.3	45.4	50.6	48.6	47.7	57.0
2015	43.0	47.0	53.2	49.2	49.3	58.3
2016	44.0	48.6	54.4	50.0	50.5	58.7
2017	44.8	48.4	54.8	50.0	51.0	59.0
2018	45.2	49.4	52.7	50.0	51.8	56.3
2019	45.5	49.5	53.5	50.1	51.6	56.4

\* 출처: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연령별 임금 및 근로시간),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4&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4&conn_path=I2)에서  
 2020년 9월 29일 인출.

- \* 주 1) 청년층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해당 연령층의 비정규직 월임금총액/기준 연령층의 정규직 월임금총액)×100  
 2) 월임금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전년도연간특별급여/12개월

### 3-2-5. 청년 부채

청년 가구주의 부채 규모는 2017년 29세 이하 가구주 기준 2,393만원으로 2010년 동일기준 부채 규모 936만 원과 비교해 보면, 약 2.56배 증가하여 같은 기간 30세-39세 가구주의 부채(2010년 3,981만원→2017년 6,920만원) 증가폭 1.74배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보유가구의 증양값을 보아도 2010년에서 2017년 동안 29세 이하 가구주의 부채 증양값은 840만 원에서 2,430만 원으로 늘었고 30대 가구주는 2,900만원에서 6,000만 원으로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20, 30대 청년층의 부채 규모 상승 폭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부채도 꾸준히 증가(2010년 4,618만원→2017년 7,099만원, 증가폭 1.54배)하고 있지만, 20대(2010년 대비 2.56배) 및 30대(2010년 대비 1.74배) 청년층 가구의 증가폭이 훨씬 더 급격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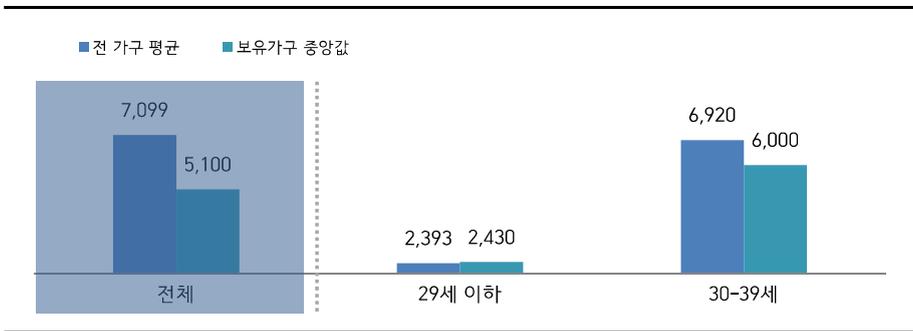


그림 III-70. 청년 가구주의 부채

표 III-80 연도별 청년 가구주 부채 추이

(단위: 만원)

연도		전체	29세 이하	30-39세
2010	전가구 평균	4,618	936	3,981
	보유가구 중앙값	3,000	840	2,900
2011	전가구 평균	5,205	1,268	4,609
	보유가구 중앙값	3,080	1,000	3,000
2012	전가구 평균	5,450	1,283	4,405
	보유가구 중앙값	3,240	1,000	3,200
2013	전가구 평균	5,858	1,401	4,890
	보유가구 중앙값	3,646	852	3,530
2014	전가구 평균	6,051	1,481	5,257
	보유가구 중앙값	4,007	1,078	4,024
2015	전가구 평균	6,256	1,491	5,463
	보유가구 중앙값	4,500	1,550	4,800
2016	전가구 평균	6,719	1,681	5,920
	보유가구 중앙값	5,000	2,006	5,220
2017	전가구 평균	7,099	2,393	6,920
	보유가구 중앙값	5,100	2,430	6,000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가구주연령계층별(10세) 자산, 부채, 소득 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CA06&conn\\_path=l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CA06&conn_path=l2)에서 2020년 9월 23일 인출.

### 3-2-6.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에서 1.5% 인상된 8,720원으로 2020년 7월 14일 최종 결정되었다.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2021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적정 금액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18세-34세 청년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2021년도 최저임금 액수 평균은 9,346원으로 2019년 조사 결과(9,202원) 대비 124원 상승하였다. 실제 최저임금 금액과의 격차는 626원(2021년 최저임금 기준, 조사 금액 9,346원 - 실제 금액 8,720원) 차이를 보여 이전년도 격차 612원(2020년 최저임금 기준, 조사 금액 9,202원 - 실제 금액 8,590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단위: 원/시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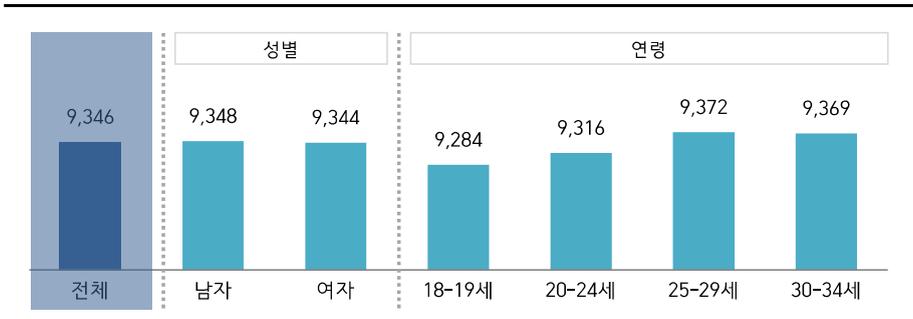


그림 III-71. 적정 최저 임금

표 III-81 연도별 적정 최저 임금 추이

(단위: 원/시간당)

연도(기준연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 18세	18- 19세	20- 24세	25- 29세	30-34세 (*30-39세)
						(*19-29세)		
2016(2017년)	7,585	7,668	7,495	7,505	-	7,550		7,645
2017(2019년)	8,786	8,835	8,732	8,692	-	8,811		8,789
2018(2020년)	9,235	9,248	9,221	9,156	-	9,268		9,232
2019(2020년)	9,202	9,216	9,186	9,204	-	9,169		9,235
2020(2021년)	9,346	9,348	9,344	-	9,284	9,316	9,372	9,369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2016년 자료는 2017년, 2017년 자료는 2019년, 2018년 자료는 2020년 적정 최저 임금에 대한 응답 결과임.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3) 전체는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4)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 3-2-7. 생활비 및 가족 지원 비율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18-34세 청년들의 본인 기준 한 달 생활비는 약 81만원 수준, 가족으로부터 지원받는 생활비의 비율은 28.3%로 조사되었다. 성인이 된 20-24세, 취업 주 연령대인 25-29세부터 생활비 평균 액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지원 비율은 낮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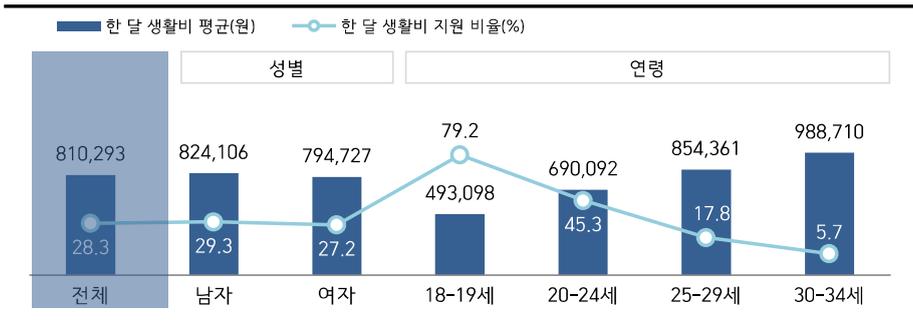


그림 III-72. 한 달 생활비와 생활비 지원받는 비율

표 III-82 연도별 한 달 생활비와 생활비 지원받는 비율 추이

(단위: 원, %)

연도	구분	전체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8-19세	20-24세 (*19-29세)	25-29세	30-34세 (*30-39세)
2017	한 달 생활비 평균(원)	747,148	778,258	712,762	243,904	-	713,227		933,273
	한 달 생활비 지원 비율(%)	26.3	26.7	25.8	93.3	-	28.9		3.4
2018	한 달 생활비 평균(원)	637,873	652,600	621,556	268,534	-	647,570		741,168
	한 달 생활비 지원 비율(%)	31.2	32.9	29.2	96.0	-	41.9		2.8
2019	한 달 생활비 평균(원)	791,416	798,555	783,488	287,958	-	736,632		995,188
	한 달 생활비 지원 비율(%)	27.7	29.7	25.3	92.8	-	32.0		4.1
2020	한 달 생활비 평균(원)	810,293	824,106	794,727	-	493,098	690,092	854,361	988,710
	한 달 생활비 지원 비율(%)	28.3	29.3	27.2	-	79.2	45.3	17.8	5.7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2017-2019년 조사 시 중·고등학생은 한 달에 지출하는 용돈으로 응답  
 2) 전체는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3)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 3-2-8. 채무 여부

18-34세 청년들에게 은행,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채무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8.3%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채무가 있다는 응답 비율 또한 증가(18-19세 2.6%, 20-24세 11.0%, 25-29세 20.0%, 30-34세 28.9%)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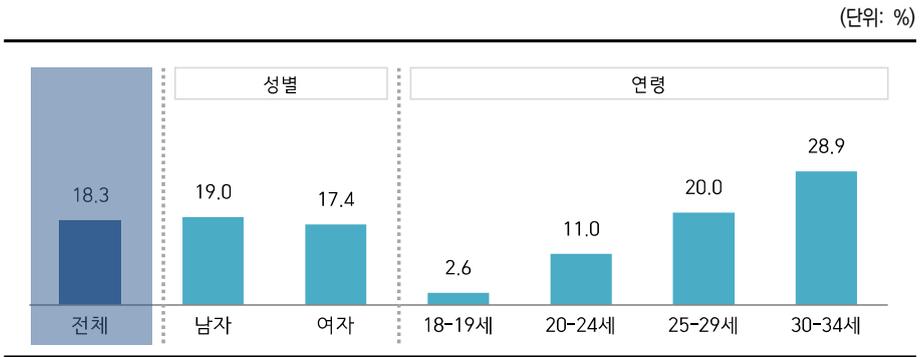


그림 III-73. 채무 여부

표 III-83 연도별 채무 여부

(단위: %)

연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 18세	18- 19세	20- 24세	25- 29세	30-34세 (*30-39세)
						(*19-29세)		
2015	21.8	19.8	24.0	-	-	7.4		35.5
2016	20.2	21.1	19.1	0.0	-	9.6		30.9
2017	27.1	27.8	26.3	6.8	-	17.7		36.9
2018	25.1	27.0	23.0	0.0	-	18.2		31.0
2019	27.5	28.3	26.5	0.0	-	18.3		37.9
2020	18.3	19.0	17.4	-	2.6	11.0	20.0	28.9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갚아야 할 채무 여부에 '있다'라고 응답(학자금 대출 포함)한 비율
- 2)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 3)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4) 전체는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 5)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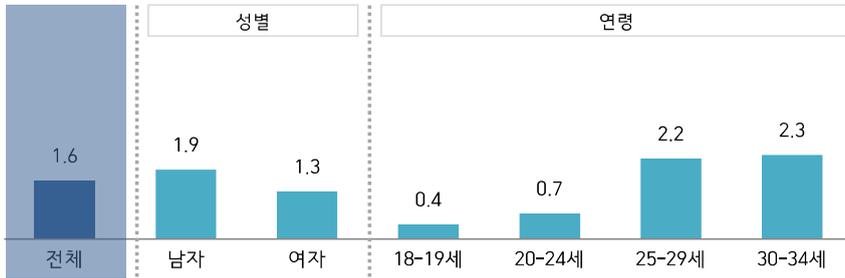
### 3-2-9.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주거관련 비용 미지불', '규칙적인 식사 어려움',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못 산 경우', 'TV 소유하지 못함', '냉장고 소유하지 못함', '자동차 소유하지 못함', '통신수단 소유하지 못함' 총 9개 상황에 대한 경험을 통해 청년들의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를 알아보았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먼저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응답은 1.6%,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0.4%,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3.8%로 나타났다. 규칙적인 식사를 못한 경우가 있다는 응답은 1.3%,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응답이 7.7% 였으며,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2.2%,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1.1%,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28.5%였고 타인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0.3%로 조사 되었다.

이전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 했을 때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전년 대비 +8.3%p)를 제외하면 큰 변화는 없었다.

(단위: %)



\* 주: 해당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 그림 III-74.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 표 III-84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 18세	18- 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19-29세)		(*30-39세)
2017	예	2.7	1.9	3.6	0.4	-	2.9		3.1
	아니오	86.8	87.8	85.7	68.5	-	84.4		94.8
	잘 모름	10.5	10.3	10.7	31.1	-	12.6		2.1
2018	예	0.8	0.8	0.8	0.0	-	0.6		1.2
	아니오	82.9	81.8	84.1	58.6	-	78.8		93.6
	잘 모름	16.3	17.4	15.1	41.4	-	20.5		5.3
2019	예	1.7	1.7	1.7	0.4	-	1.8		2.0
	아니오	92.4	92.3	92.6	78.5	-	92.0		97.0
	잘 모름	5.8	5.9	5.7	21.1	-	6.2		1.0
2020	예	1.6	1.9	1.3	-	0.4	0.7	2.2	2.3
	아니오	93.1	93.4	92.8	-	86.6	92.1	93.3	96.0
	잘 모름	5.3	4.7	5.9	-	13.0	7.2	4.5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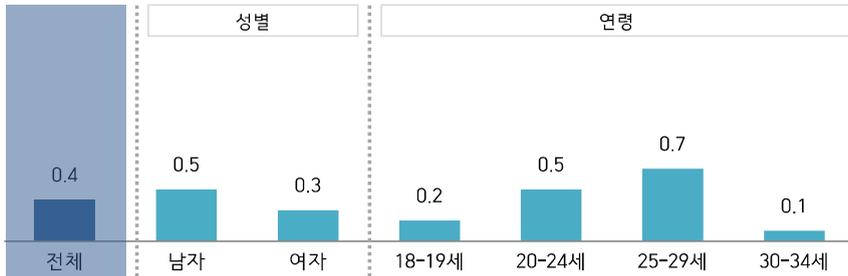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전체는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3)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단위: %)



\* 주: 해당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 그림 III-75.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표 III-85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8-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19-29세)		(*30-39세)
2017	예	0.8	0.6	1.1	0.0	-	0.0		1.2
	아니오	90.2	90.5	90.0	72.8	-	72.8		88.2
	잘 모름	8.9	8.9	9.0	27.2	-	27.2		10.7
2018	예	0.6	0.6	0.5	0.9	-	0.9		0.3
	아니오	85.1	84.4	85.8	65.0	-	65.0		80.6
	잘 모름	14.4	15.0	13.6	34.1	-	34.1		19.1
2019	예	0.7	0.7	0.8	0.2	-	0.2		0.8
	아니오	94.5	94.4	94.6	83.2	-	83.2		94.3
	잘 모름	4.7	4.9	4.6	16.7	-	16.7		4.9
2020	예	0.4	0.5	0.3	-	0.2	0.5	0.7	0.1
	아니오	95.1	95.3	94.8	-	89.1	93.4	94.9	99.1
	잘 모름	4.5	4.2	4.8	-	10.7	6.1	4.5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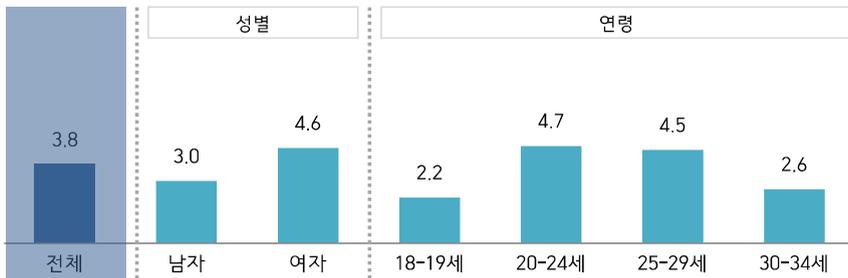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전체는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3)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단위: %)



\* 주: 해당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 그림 III-76.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 표 III-86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8-19세	20-24세 (*19-29세)	25-29세	30-34세 (*30-39세)
2017	예	7.9	6.8	9.1	5.7	-	9.2		7.3
	아니오	92.1	93.2	90.9	94.3	-	90.8		92.7
2018	예	10.3	10.6	9.9	10.7	-	11.1		9.5
	아니오	89.7	89.4	90.1	89.3	-	88.9		90.5
2019	예	4.2	4.5	3.8	2.1	-	5.0		3.9
	아니오	95.8	95.5	96.2	97.9	-	95.0		96.1
2020	예	3.8	3.0	4.6	-	2.2	4.7	4.5	2.6
	아니오	96.2	97.0	95.4	-	97.8	95.3	95.5	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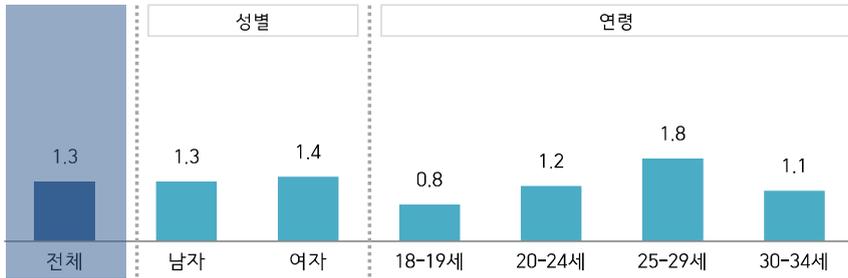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전체는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3)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단위: %)



\* 주: 해당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그림 III-77.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표 III-87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8-19세	20-24세 25-29세 (*19-29세)	30-34세 (*30-39세)	
2017	예	2.2	1.7	2.7	1.5	-	3.9	0.8	
	아니오	97.8	98.3	97.3	98.5	-	96.1	99.2	
2018	예	1.1	1.1	1.0	1.0	-	1.1	1.0	
	아니오	98.9	98.9	99.0	99.0	-	98.9	99.0	
2019	예	1.7	1.9	1.6	0.9	-	2.1	1.6	
	아니오	98.3	98.1	98.4	99.1	-	97.9	98.4	
2020	예	1.3	1.3	1.4	-	0.8	1.2	1.8	1.1
	아니오	98.7	98.7	98.6	-	99.2	98.8	98.2	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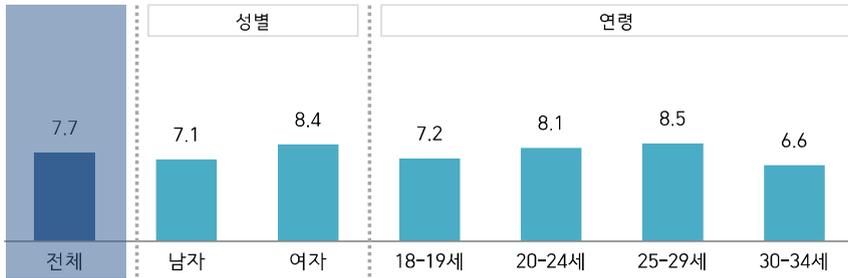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전체는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3)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단위: %)



\* 주: 해당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그림 III-78.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표 III-88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8-19세	20-24세 (*19-29세)	25-29세	30-34세 (*30-39세)
2017	예	13.9	11.9	16.2	11.5	-	17.2	11.4	
	아니오	86.1	88.1	83.8	88.5	-	82.8	88.6	
2018	예	18.7	18.3	19.2	23.4	-	19.7	16.5	
	아니오	81.3	81.7	80.8	76.6	-	80.3	83.5	
2019	예	9.4	9.4	9.3	7.4	-	10.4	8.9	
	아니오	90.6	90.6	90.7	92.6	-	89.6	91.1	
2020	예	7.7	7.1	8.4	-	7.2	8.1	8.5	6.6
	아니오	92.3	92.9	91.6	-	92.8	91.9	91.5	9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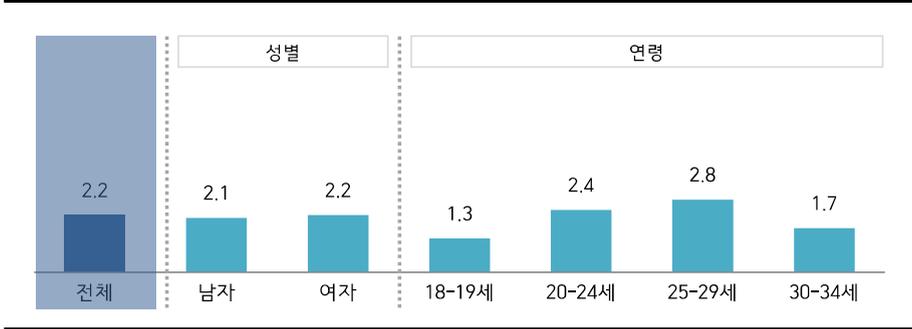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전체는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3)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단위: %)



\* 주: 해당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그림 III-79.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표 III-89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8-19세	20-24세 (*19-29세)	25-29세	30-34세 (*30-39세)
2017	예	2.7	2.7	2.7	1.7	-	4.3		1.3
	아니오	97.3	97.3	97.3	98.3	-	95.7		98.7
2018	예	0.5	0.2	0.7	0.4	-	0.5		0.5
	아니오	99.5	99.8	99.3	99.6	-	99.5		99.5
2019	예	1.9	2.2	1.6	1.5	-	3.1		0.8
	아니오	98.1	97.8	98.4	98.5	-	96.9		99.2
2020	예	2.2	2.1	2.2	-	1.3	2.4	2.8	1.7
	아니오	97.8	97.9	97.8	-	98.7	97.6	97.2	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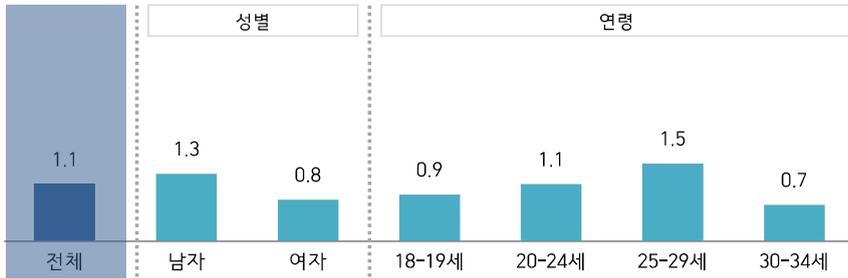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전체는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3)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단위: %)



\* 주: 해당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그림 III-80.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표 III-90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8-19세	20-24세 (*19-29세)	25-29세	30-34세 (*30-39세)
2017	예	0.7	0.8	0.6	0.7	-	1.0		0.3
	아니오	99.3	99.2	99.4	99.3	-	99.0		99.7
2018	예	0.3	0.1	0.4	0.4	-	0.2		0.3
	아니오	99.7	99.9	99.6	99.6	-	99.8		99.7
2019	예	0.9	1.0	0.9	1.5	-	1.6		0.1
	아니오	99.1	99.0	99.1	98.5	-	98.4		99.9
2020	예	1.1	1.3	0.8	-	0.9	1.1	1.5	0.7
	아니오	98.9	98.7	99.2	-	99.1	98.9	98.5	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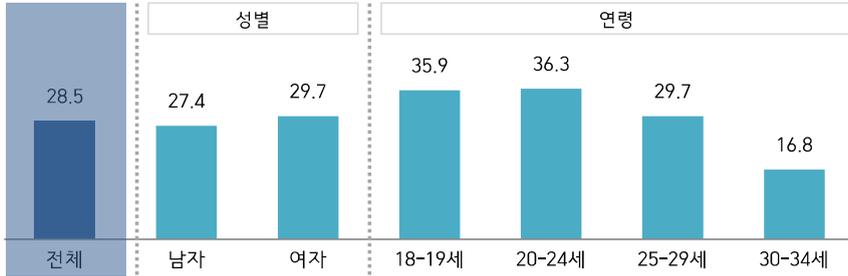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전체는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3)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단위: %)



\* 주: 해당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그림 III-81.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표 III-91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8-19세	20-24세 (*19-29세)	25-29세	30-34세 (*30-39세)
2017	예	24.6	23.3	26.0	24.1	-	36.1	13.2	
	아니오	75.4	76.7	74.0	75.9	-	63.9	86.8	
2018	예	22.4	20.6	24.5	29.3	-	30.0	14.1	
	아니오	77.6	79.4	75.5	70.7	-	70.0	85.9	
2019	예	20.2	21.8	18.4	20.3	-	30.1	10.1	
	아니오	79.8	78.2	81.6	79.7	-	69.9	89.9	
2020	예	28.5	27.4	29.7	-	35.9	36.3	29.7	16.8
	아니오	71.5	72.6	70.3	-	64.1	63.7	70.3	8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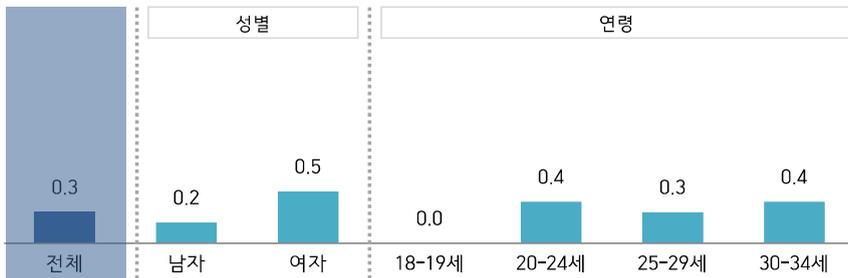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전체는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3)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단위: %)



\* 주: 해당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그림 III-82.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표 III-92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8-19세	20-24세 (*19-29세)	25-29세	30-34세 (*30-39세)
2017	예	0.3	0.4	0.2	1.1	-	0.2	0.1	
	아니오	99.7	99.6	99.8	98.9	-	99.8	99.9	
2018	예	0.4	0.2	0.6	1.1	-	0.1	0.5	
	아니오	99.6	99.8	99.4	98.9	-	99.9	99.5	
2019	예	0.4	0.4	0.3	0.8	-	0.3	0.3	
	아니오	99.6	99.6	99.7	99.2	-	99.7	99.7	
2020	예	0.3	0.2	0.5	-	0.0	0.4	0.3	0.4
	아니오	99.7	99.8	99.5	-	100.0	99.6	99.7	99.6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전체는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3)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 4) 주거

##### 4-1-1. 청년층 주거형태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층 가구주의 연령별 주택 점유형태를 살펴본 결과, 2015년 기준, 주택 점유형태 자가는 전체 연령대 인구를 기준으로 56.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보증금 있는 월세(20.3%), 전세(15.5%) 등의 순이다.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에 준하는 20-34세 청년의 연령대로 살펴 보면 2015년 기준 ‘보증금 있는 월세’가 40.1%로 가장 높고, 이어서 전세(25.5%), 자가(21.8%) 등의 순이다. 2010년 대비 전세의 비율이 감소(-7.9%p)하고 보증금 있는 월세(4.1%p), 보증금 없는 월세(1.4%p)가 증가 하였다. ‘자가’와 ‘전세’ 응답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의 거주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청년층의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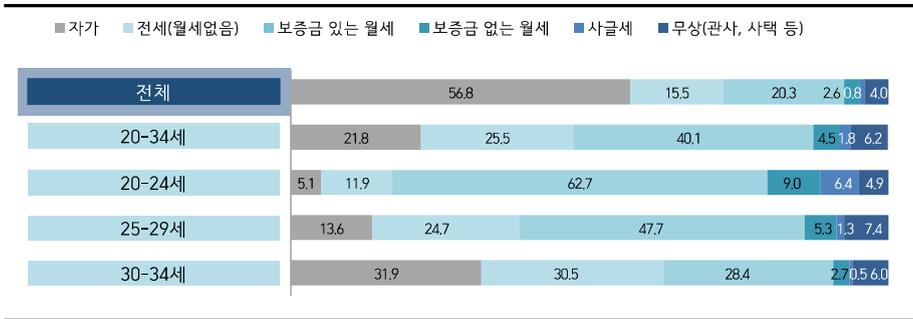


그림 III-83. 청년층(가구주)의 주택 점유형태

표 III-93 연도별 청년층(가구주)의 연령별 주택 점유형태

(단위: %)

연령	연도	자가	전세 (월세없음)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관사, 사택 등)
전체 (0세~)	2000	54.2	28.2	10.7	2.0	2.2	2.8
	2005	55.6	22.4	15.1	2.1	1.8	3.1
	2010	54.2	21.7	18.2	2.0	1.3	2.7
	2015	56.8	15.5	20.3	2.6	0.8	4.0
20-34세	2000	23.9	49.1	16.9	2.8	3.4	3.9
	2005	23.7	36.9	28.6	3.4	3.0	4.5
	2010	21.2	33.4	36.0	3.1	2.2	4.0
	2015	21.8	25.5	40.1	4.5	1.8	6.2
20-24세	2000	7.6	38.8	30.7	8.1	11.5	3.3
	2005	6.7	25.1	46.8	8.2	9.5	3.6
	2010	5.6	17.0	59.3	7.7	7.8	2.6
	2015	5.1	11.9	62.7	9.0	6.4	4.9
25-29세	2000	17.2	53.2	19.2	2.9	3.3	4.3
	2005	16.1	38.5	33.8	3.8	2.8	5.1
	2010	14.5	33.3	42.5	3.4	1.8	4.4
	2015	13.6	24.7	47.7	5.3	1.3	7.4
30-34세	2000	31.1	48.9	12.8	1.6	1.8	3.8
	2005	32.3	39.0	21.1	2.0	1.4	4.3
	2010	29.6	37.9	25.7	1.8	0.9	4.1
	2015	31.9	30.5	28.4	2.7	0.5	6.0

\* 출처: 통계청(각 년도). 인구총조사(가구주의 연령별/점유형태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1511&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1511&conn_path=I2) (2015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013&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013&conn_path=I3) (2010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A0509&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A0509&conn_path=I3) (2005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A0009&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A0009&conn_path=I3) (2000년)에서 2020년 10월 7일 인출.

\* 주: 2000년의 경우 일반가구수에서 미상인 가구는 제외함.

#### 4-1-2. 청년층 실주거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 가구와 39세 이하 청년층(가구주)의 실주거비를 확인해 보았다. 2015년 기준 20대 청년가구의 37.1%는 보증금을 제외한 월세금으로 30~4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20~30만원(20.9%), 40~50만원(18.8%)이 뒤를 이었다. 2000년 기준 20대 청년가구의 85.1%가 30만원 미만의 월세금을 지불하였으나, 2015년에 30만원 미만의 월세금을 지불하는 비율은 28.8%로 크게 감소하였다. 30대 청년층 월세가구의 월세금은 2015년 기준 30~40만원(26.6%), 20~30만원(19.5%), 50~100만원(17.3%)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과 비교 해 볼 때, 30만원 미만을 지불하는 비율은 해가 지날수록 감소하는 추세이나 30만 원 이상 지불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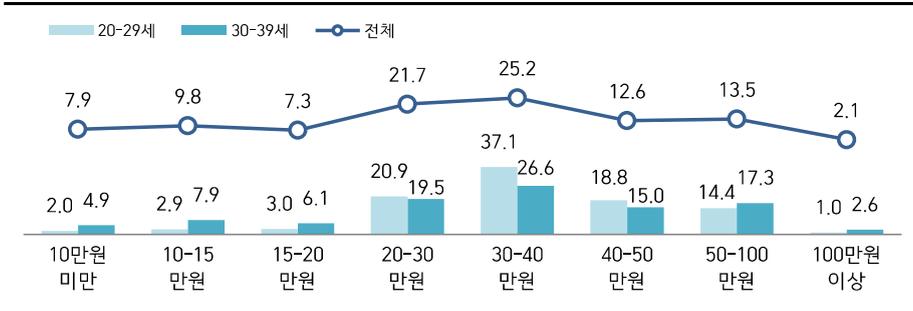


그림 III-84. 청년층(가구주)의 실주거비

표 III-94 연도별 청년층(가구주)의 실주거비

(단위: 원)

연령	연도	10만원 미만	10~15만원	15~20만원	20~30만원	30~40만원	40~50만원	50~100만원	100만원 이상
전체 (0세~)	2000	26.4	25.1	14.3	21.0	7.8	2.5	2.8	0.0
	2005	16.7	17.0	11.9	29.3	16.9	4.5	3.2	0.5
	2010	10.5	11.4	8.7	25.2	24.1	9.5	9.2	1.4
	2015	7.9	9.8	7.3	21.7	25.2	12.6	13.5	2.1
20~29세	2000	17.5	24.9	17.3	25.4	9.0	3.0	3.0	0.0
	2005	7.7	11.2	11.2	37.6	23.6	5.6	3.1	0.3
	2010	3.6	5.0	5.4	27.4	34.2	13.3	10.2	0.9
	2015	2.0	2.9	3.0	20.9	37.1	18.8	14.4	1.0
30~39세	2000	24.6	25.6	14.9	22.2	7.7	2.4	2.6	0.0
	2005	15.7	16.2	11.8	30.2	17.7	4.8	3.2	0.4
	2010	8.3	10.4	8.2	24.4	25.4	10.8	10.9	1.6
	2015	4.9	7.9	6.1	19.5	26.6	15.0	17.3	2.6

\* 출처: 통계청(각 연도). 인구총조사(가구주의 성별/연령별/월세금별/보증금 규모별 가구(일반가구, 주거전용)-시도).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11514&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11514&conn_path=I3) (2015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11014&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11014&conn_path=I3) (2010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D0514&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D0514&conn_path=I3) (2005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D0005&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D0005&conn_path=I3) (2000년)에서 2020년 10월 7일 인출.

\* 주: 모든 월세가구(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의 월세금을 의미하며, 월세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음.

### 4-1-3. 청년 가구 비율

전체 가구 가구주 대비 청년 연령대 가구주 비율을 살펴본 결과,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에 준하는 20-34세 청년의 가구주 비율은 지난 2000년 21.4% 이래로 지속적으로 하락, 2017년부터 13% 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4세 청년의 가구주 비율은 2000년 2.5%에서 2019년 2.6%로 큰 차이가 없으나 30-34세 가구주의 비율은 2000년 12.0%에서 2019년 6.3%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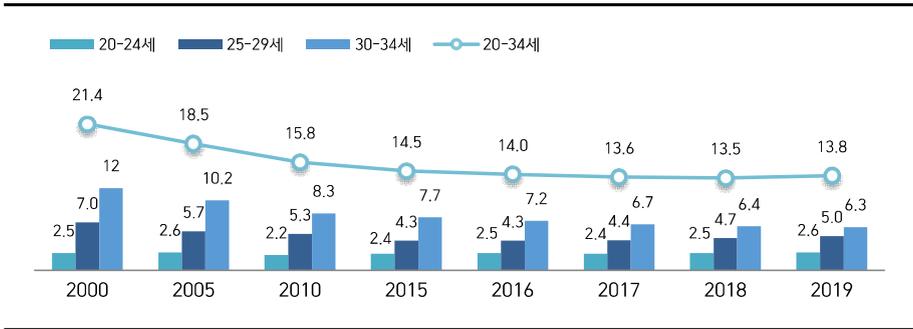


그림 III-85.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가구 비율

표 III-95 연도별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가구 비율 추이

(단위: %)

연도	20-34세	20-24세	25-29세	30-34세
2000	21.4	2.5	7.0	12.0
2005	18.5	2.6	5.7	10.2
2010	15.8	2.2	5.3	8.3
2015	14.5	2.4	4.3	7.7
2016	14.0	2.5	4.3	7.2
2017	13.6	2.4	4.4	6.7
2018	13.5	2.5	4.7	6.4
2019	13.8	2.6	5.0	6.3

\* 출처: 통계청(각 연도). 인구총조사(가구주의 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7&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7&conn_path=I2) (2015-2019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017&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017&conn_path=I3) (2010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A0504&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A0504&conn_path=I3) (2005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A0020&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A0020&conn_path=I3) (2000년) 에서 2020년 10월 3일 인출.

\* 주: 연령별 가구비율=연령별 가구수/전체 일반가구수×100

#### 4-1-4. 청년 1인 가구 비율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에 준하는 20-34세 청년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율은 2019년 기준 59.6%로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8년 대비 2.5%p 상승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24세의 청년 1인 가구주가 83.1%로 가장 높고, 이어서 25-29세(68.0%), 30-34세(43.4%)의 순이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1인 가구 비율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전부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2019년 기준 전체 1인 가구 비율(30.2%)과 비교했을 때 청년 1인 가구 비율은 59.6%로 약 두 배 가량 높다. 특히 20-24세 청년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율은 83.1%로 전체 대비 52.9%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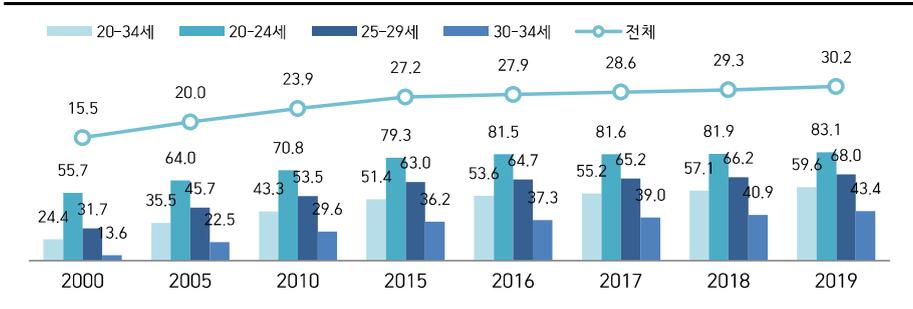


그림 III-86.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율

표 III-96 연도별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율 추이

(단위: %)

연도	전체(0세-)	20-34세	20-24세	25-29세	30-34세
2000	15.5	24.4	55.7	31.7	13.6
2005	20.0	35.5	64.0	45.7	22.5
2010	23.9	43.3	70.8	53.5	29.6
2015	27.2	51.4	79.3	63.0	36.2
2016	27.9	53.6	81.5	64.7	37.3
2017	28.6	55.2	81.6	65.2	39.0
2018	29.3	57.1	81.9	66.2	40.9
2019	30.2	59.6	83.1	68.0	43.4

\* 출처: 통계청(각 연도). 인구총조사(가구주의 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7&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7&conn_path=I2) (2015-2019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017&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017&conn_path=I3) (2010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A0504&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A0504&conn_path=I3) (2005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A0020&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A0020&conn_path=I3) (2000년) 에서 2020년 10월 3일 인출.

\* 주: 연령별 가구비율=연령별 1인 가구수/연령별 일반가구수×100

#### 4-1-5. 부모 동거 여부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3.9%로, 남자(66.3%)가 여자(61.1%)에 비해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동거 비율이 점차 낮아져 30-34세의 경우 절반 이하인 34.2%만 부모와 동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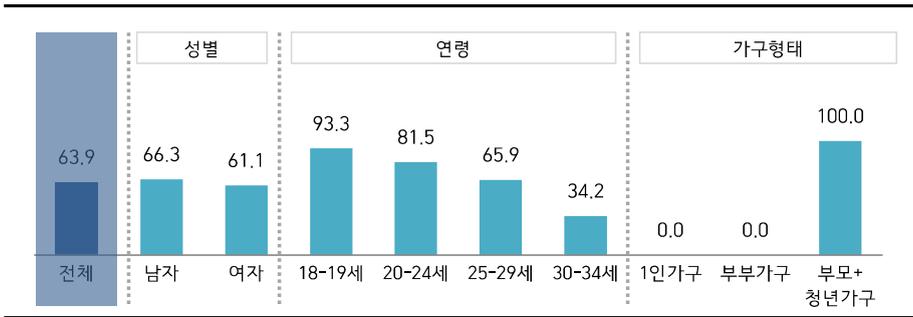


그림 III-87. 부모 동거 여부

표 III-97 연도별 부모 동거 여부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가구형태			
	(18-34세, *15-39세)	남자	여자	*15-18세	18-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0-39세)	1인 가구	부부 가구	부모+ 청년 가구
						(*19-29세)					
2016	60.2	63.4	56.7	99.5	-	84.1		23.9	-	-	-
2017	51.0	54.5	47.2	98.7	-	69.0		18.6	-	-	-
2018	59.5	61.4	57.5	99.1	-	84.0		27.4	-	-	-
2019	51.5	55.3	47.3	97.5	-	70.2		18.8	-	-	-
2020	63.9	66.3	61.1	-	93.3	81.5	65.9	34.2	0.0	0.0	100.0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3) 전체는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4)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 4-1-6. 미혼 독립 거주 여부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미혼으로 혼자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한 18-34세 청년은 38.8%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자면 남자(50.9%)가 여자(27.0%)에 비해 미혼 독립 거주 비율이 높았으며, 20대부터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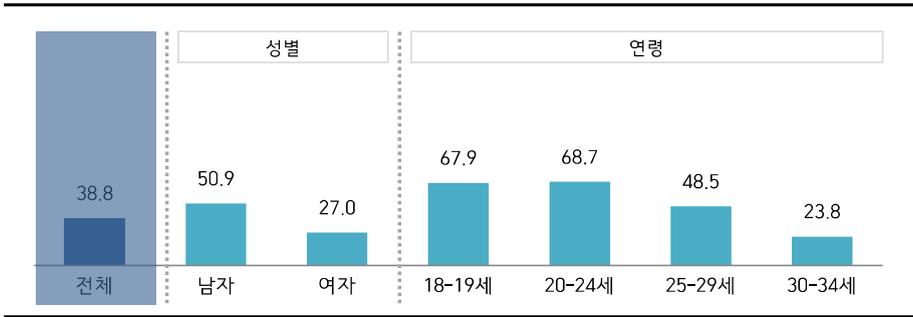


그림 III-88. 미혼 혼자 거주 여부

표 III-98 연도별 미혼 혼자 거주 여부

(단위: %)

연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18-19세	연령		
		남자	여자		20-24세	25-29세	30-34세
					(*19-29세)		(*30-39세)
2016	14.9	21.5	8.9	-	42.4	9.3	
2017	25.3	34.0	17.2	-	52.1	15.0	
2018	15.7	20.2	11.2	-	43.7	10.6	
2019	20.6	27.5	14.2	-	46.0	10.8	
2020	38.8	50.9	27.0	67.9	68.7	48.5	23.8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부모님과 비동거/독립인 경우에만 응답
-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3) 전체는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 4)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 4-1-7. 1인 가구 주거 형태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미혼으로 혼자 거주하고 있는 청년 가구의 주거 형태를 물어본 결과, 원룸(다가구) 거주가 34.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다세대/빌라(29.7%), 아파트(20.8%) 등의 순이었다. 전년 대비 원룸 거주 비율이 감소하고, 다세대/빌라 거주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1인 주거 가구의 절반 이상이 원룸, 다세대/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형태는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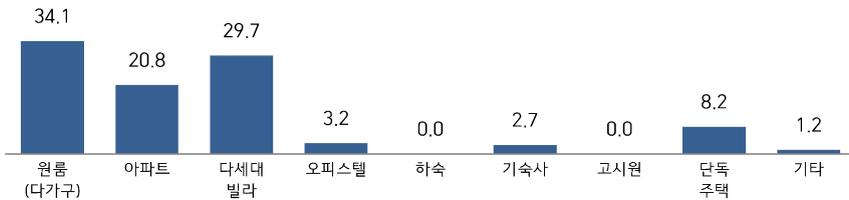


그림 III-89. 현재 주거 형태

표 III-99 연도별 현재 주거 형태

(단위: %)

연도	원룸 (다가구)	아파트	다세대/빌라	오피스텔	하숙	기숙사	고시원	단독주택	기타
2016	35.2	33.6	23.7	4.7	0.6	-	-	-	2.2
2017	37.1	27.7	22.2	6.5	0.2	2.8	0.0	-	3.5
2018	19.4	26.9	32.5	12.4	0.2	0.4	-	-	8.3
2019	47.1	17.5	21.9	7.2	-	3.1	-	-	3.2
2020	34.1	20.8	29.7	3.2	-	2.7	-	8.2	1.2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미혼 1인 가구인 경우에만 응답(2020년 조사의 경우 해당 인원을 대상으로 결과 출력)
-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3) 2020년 조사부터 '단독주택' 주거 형태 보기가 추가됨

#### 4-2-1. 청년층 주거 빈곤 규모

오피스텔, 숙박시설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 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 및 기타 등 주택 외 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빈곤 규모를 살펴보았다. 2019년 기준 주택 외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전 연령대 평균 4.8%로 2018년 4.6%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에 준하는 20-34세 청년층의 경우 2019년 12.2%로 작년(11.4%) 대비 0.8%p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주택 외 거주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특히 25-29세 청년층의 주택 외 거주비율이 전 연령대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 전체 연령과 20-34세 청년층의 주택 외 거주 비율은 1% 미만으로 둘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2019년 전체 4.8%, 청년층 12.2%로 약 2배 이상으로 차이가 커진 것을 볼 때 향후 청년층의 주거 빈곤 관련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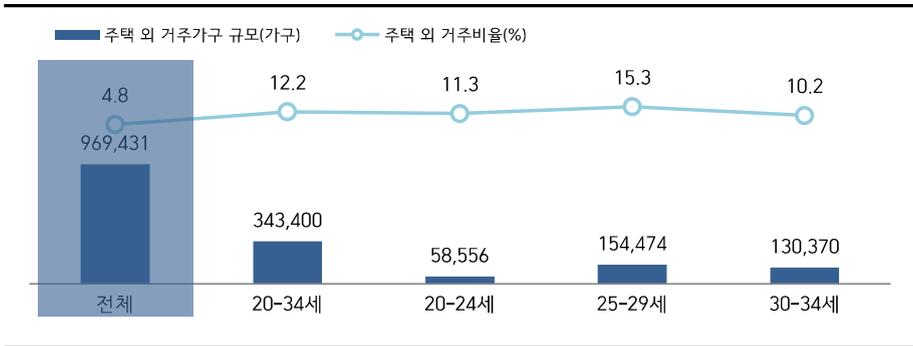


그림 III-90.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주택 외 거주규모 비율

표 III-100 연도별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주택 외 거주규모 비율 추이

(단위: 가구, %)

연도		전체(0세~)	20-34세	20-24세	25-29세	30-34세
2000	규모	84,353	26,354	5,787	10,893	9,674
	비율	0.6	0.9	1.6	1.1	0.6
2005	규모	216,857	111,864	25,721	46,312	39,831
	비율	1.4	3.8	6.1	5.2	2.5
2010	규모	353,942	168,683	37,860	71,929	58,894
	비율	2.0	6.1	9.8	7.8	4.1
2015	규모	713,986	224,290	38,175	89,238	96,877
	비율	3.7	8.1	8.3	10.8	6.6
2016	규모	770,088	244,467	41,476	100,343	102,648
	비율	4.0	9.0	8.6	12.1	7.4
2017	규모	857,503	276,574	47,507	117,235	111,832
	비율	4.4	10.3	9.9	13.4	8.4
2018	규모	919,973	308,414	52,853	135,657	119,904
	비율	4.6	11.4	10.8	14.6	9.4
2019	규모	969,431	343,400	58,556	154,474	130,370
	비율	4.8	12.2	11.3	15.3	10.2

\* 출처: 통계청(각 년도), 인구총조사(가구주의 성, 연령 및 거주지 종류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4&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4&conn_path=I2) (2015-2019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014&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014&conn_path=I3) (2010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A0507&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A0507&conn_path=I3) (2005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A0008&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A0008&conn_path=I3) (2000년)에서 2020년 10월 3일 인출.

- \* 주 1) 연령별 가구비율=연령별 주택이외 거주 가구수/연령별 일반가구수×100  
 2) 주택 외 거주: 오피스텔, 숙박시설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 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 및 기타

#### 4-2-2. 가치분소득 대비 가구부채비율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치분소득(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경상소득) 내 총부채(금융부채 및 임대보증금)의 비율을 통해 청년층의 부채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19년 기준 30세 미만의 가치분소득 대비 가구부채 비율은 100.8%로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고, 작년 대비 15.9%p 증가하였다. 30-39세의 가구부채비율은 작년 대비 11.5%p 증가하여 183.9%를 차지했으며 전체연령 평균 부채비율 증가 폭(3.1%p)에 비해 청년층의 부채 비율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청년층의 부채비율 증가는 30세 미만의 경우 부채 규모 증가(2010년 936만원→2019년 3,197만원, 2,261만원 증가)에 비해 가치분소득의 증가(2010년 2,272만원→2019년 3,171만원, 899만원 증가)는 떨어지는 것, 30-39세의 경우 전체 가구의 부채 규모 증가(2010년 4,618만원→2019년 7,910만원, 3,292만원 증가)보다 훨씬 높은 부채 규모 증가(2010년 3,981만원→2019년 8,915만원, 4,934만원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단위: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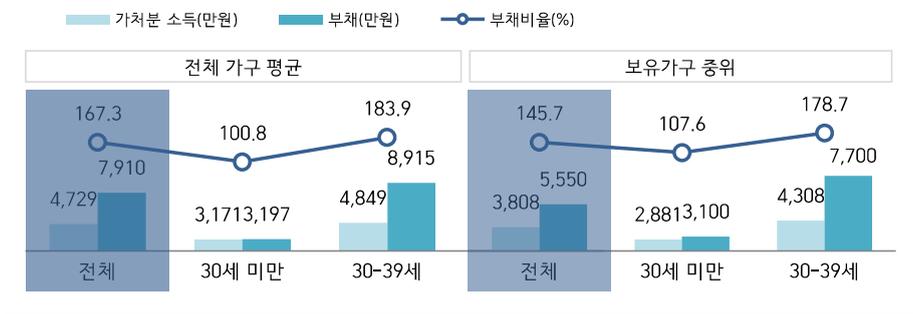


그림 III-91. 가치분소득 대비 가구부채 비율

표 III-101 연도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구부채 비율 추이

(단위: 만원, %)

연도		전체연령			30세 미만			30-39세		
		가처분 소득	부채	비율	가처분 소득	부채	비율	가처분 소득	부채	비율
2010	전체가구평균	3,047	4,618	151.6	2,272	936	41.2	3,383	3,981	117.7
	보유가구 중위	2,395	3,000	125.3	1,928	840	43.6	2,852	2,900	101.7
2011	전체가구평균	3,283	5,205	158.5	2,546	1,268	49.8	3,532	4,609	130.5
	보유가구 중위	2,552	3,080	120.7	2,127	1,000	47.0	3,002	3,000	99.9
2012	전체가구평균	3,476	5,450	156.8	2,496	1,283	51.4	3,779	4,405	116.6
	보유가구 중위	2,888	3,240	112.2	2,256	1,000	44.3	3,367	3,200	95.0
2013	전체가구평균	3,651	5,858	160.4	2,600	1,401	53.9	3,936	4,890	124.2
	보유가구 중위	3,087	3,646	118.1	2,321	852	36.7	3,449	3,530	102.3
2014	전체가구평균	3,819	6,051	158.4	2,963	1,481	50.0	4,085	5,257	128.7
	보유가구 중위	3,268	4,007	122.6	2,483	1,078	43.4	3,672	4,024	109.6
2015	전체가구평균	3,927	6,256	159.3	2,934	1,491	50.8	4,167	5,463	131.1
	보유가구 중위	3,376	4,500	133.3	2,621	1,550	59.1	3,794	4,800	126.5
2016	전체가구평균	4,021	6,719	167.1	2,823	1,681	59.5	4,242	5,920	139.6
	보유가구 중위	3,445	5,000	145.1	2,613	2,006	76.8	3,843	5,220	135.8
2017	전체가구평균	4,520	7,099	157.1	2,815	2,393	85.0	4,491	6,920	154.1
	보유가구 중위	3,616	5,100	141.0	2,441	2,430	99.5	3,985	6,000	150.6
2018	전체가구평균	4,671	7,668	164.2	3,051	2,591	84.9	4,691	8,088	172.4
	보유가구 중위	3,727	5,386	144.5	2,663	2,460	92.4	4,195	6,904	164.6
2019	전체가구평균	4,729	7,910	167.3	3,171	3,197	100.8	4,849	8,915	183.9
	보유가구 중위	3,808	5,550	145.7	2,881	3,100	107.6	4,308	7,700	178.7

\* 출처: 통계청(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가구주연령계층별(10세) 자산, 부채, 소득 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AA06&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AA06&conn_path=I3) (2017-2019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CA06&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CA06&conn_path=I2) (2012-2016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CA06\\_HF&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CA06_HF&conn_path=I3) (2010-2011년)에서 2020년 10월 3일 인출.

- \* 주 1)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 - 비소비지출(세금, 4대보험, 이자비용 포함)
- 2) 총부채 = 금융부채 + 임대보증금(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 3) 비율 = 총부채/가처분소득 × 100

### 4-2-3. 기숙사 수용률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기숙사 수용률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국내 대학 전체의 기숙사 수용률은 30.1%, 국공립 대학 기숙사 수용률이 38.2%로 사립대학 기숙사 수용률 27.8%보다 높아 10.4%p 차이를 보였다. 평균 이하의 수용률을 보이는 지역으로는 인천(28.3%), 대전(27.8%), 경기(25.8%), 전북(24.9%), 부산(21.8%), 제주(19.8%), 서울(18.5%)이며, 국공립과 사립의 수용률 차이가 큰 지역으로는 울산(78.3%p), 대구(39.1%p), 광주(29.3%p), 충남(26.0%p), 부산(15.9%p) 등의 순이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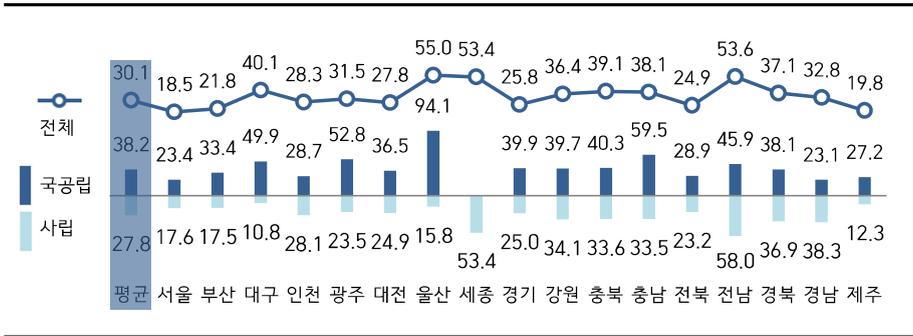


그림 III-92. 기숙사 수용률

표 III-102 연도별 기숙사 수용률 추이

(단위: %)

연도	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7	전체	28.7	15.5	20.7	39.9	23.2	30.2	25.6	50.0	53.1	25.0	32.4	39.4	40.0	26.0	50.9	34.7	31.1	15.4
	국공립	36.4	20.6	30.5	49.6	24.8	51.8	36.9	84.0	-	39.1	37.9	39.7	58.3	28.9	38.3	35.2	27.1	20.5
	사립	26.5	14.6	17.1	10.7	22.1	22.1	21.8	15.9	53.1	24.2	29.0	39.3	36.6	24.9	58.1	34.7	33.4	10.2
2018	전체	29.1	16.2	21.3	40.1	27.5	31.1	26.4	53.0	53.5	26.6	32.3	39.1	37.1	24.7	50.4	36.9	31.8	18.6
	국공립	37.2	22.4	30.9	49.8	29.0	52.0	36.0	89.8	-	37.5	38.2	39.8	58.6	29.1	39.5	36.9	27.2	26.4
	사립	26.8	15.1	17.8	10.8	26.6	23.3	23.2	16.1	53.5	26.0	28.6	38.8	32.9	22.9	56.7	36.9	34.5	10.8
2019	전체	30.1	18.5	21.8	40.1	28.3	31.5	27.8	55.0	53.4	25.8	36.4	39.1	38.1	24.9	53.6	37.1	32.8	19.8
	국공립	38.2	23.4	33.4	49.9	28.7	52.8	36.5	94.1	-	39.9	39.7	40.3	59.5	28.9	45.9	38.1	23.1	27.2
	사립	27.8	17.6	17.5	10.8	28.1	23.5	24.9	15.8	53.4	25.0	34.1	38.6	33.5	23.2	58.1	36.9	38.3	12.3

\* 출처: 대학알리미(각 연도d). 기숙사 수용 현황 (공시항목 14-마-1). 대학알리미 웹사이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0년 10월 3일 인출.

- \* 주 1) 국공립: 국립, 공립, 특별법국립, 특별법법인, 국립대법인을 포함함.
- 2) 기숙사 수용률 = 수용가능인원/재학생수×100
- 3) 수용가능인원이 재학생수보다 많은 경우 기숙사 수용률을 100으로 계산함.

#### 4-2-4. 주거 마련 시기 의견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18-34세 청년들에게 본인 명의로 된 집을 언제쯤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지를 질문 해 보았다. 그 결과, ‘향후 10~20년 이내’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응답이 33.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향후 20년 이후’(15.8%), ‘향후 7-10년 이내(1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내 집 마련에 ‘향후 7년 이상’(‘향후 7-10년 이내’ 15.5%+‘향후 10-20년 이내’ 33.7%+‘향후 20년 이후’ 15.8%) 걸릴 것 같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 청년의 절반 이상(65.0%)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조사 시 ‘향후 7년 이상’ 결과(‘향후 7-10년 이내’ 11.6%+‘향후 10-20년 이내’ 29.2%+‘향후 20년 이후’ 17.0%, 총 57.8%) 대비 7.2%p 상승한 점, ‘(내 집을)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비율이 2019년 8.6% 대비 2.3%p 상승한 10.9%인 점 등을 볼 때 주택 마련에 대해 점점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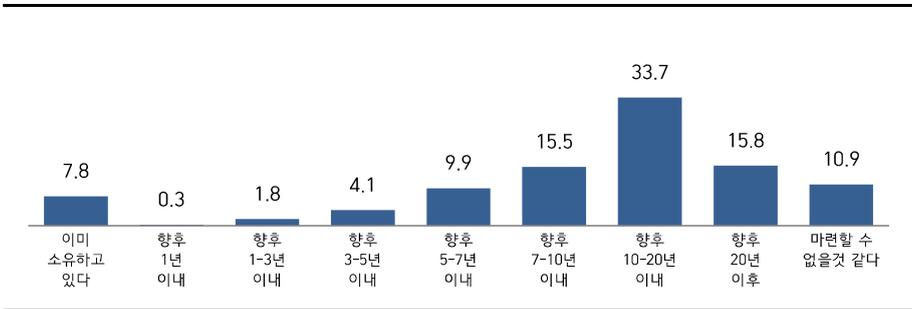


그림 III-93. 주거 마련 시기 의견

표 III-103 연도별 주거 마련 시기 의견 추이

(단위: %)

연도	이미 소유하고 있다	향후 1년 이내	향후 1~3년 이내	향후 3~5년 이내	향후 5~7년 이내	향후 7~10년 이내	향후 10~20년 이내	향후 20년 이후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2013	14.9	1.4	3.1	6.8	9.0	19.7	30.2	10.7	4.2
2015	11.9	0.4	1.7	3.8	11.6	21.0	31.9	11.1	6.6
2016	13.6	0.4	0.9	5.4	8.2	12.5	34.8	17.8	6.3
2017	17.2	0.7	3.8	5.6	9.4	14.5	27.3	14.9	6.6
2018	8.4	0.1	0.7	4.4	5.8	12.5	32.6	25.2	10.3
2019	17.0	0.8	1.9	5.0	8.9	11.6	29.2	17.0	8.6
2020	7.8	0.3	1.8	4.1	9.9	15.5	33.7	15.8	10.9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조사대상은 2020년 18-34세, 2016-2019년 15-39세 인구임.

#### 4-2-5. 공동주거 경험 및 의향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공동주거(가족이 아닌 다수가 한 집에 살되 방은 따로 쓰고 거실, 욕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 경험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7%가 공동주거를 경험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경험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1인가구 형태에서 공동주거 경험 비율이 10.6%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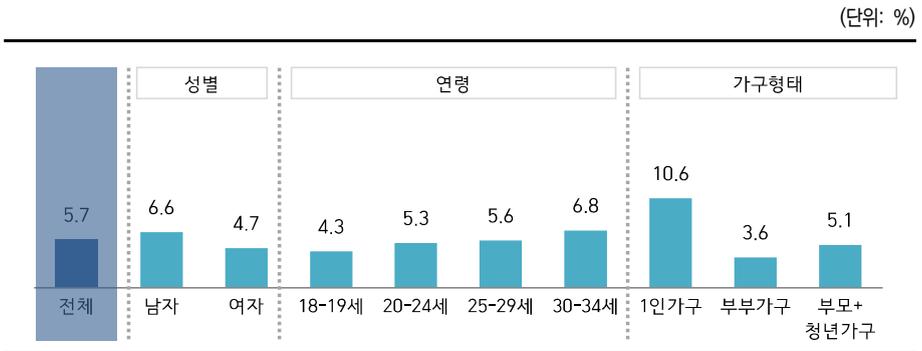


그림 III-94. 공동주거 경험

표 III-104 연도별 공동주거 경험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가구형태			
	(18-34세, *15-39세)	남자	여자	*15-18세	18-19세	20-24세 25-29세 (*19-29세)	30-34세 (*30-39세)	1인 가구	부부 가구	부모+ 청년 가구	
2015	9.5	10.9	7.9	-	-	10.9	8.2	-	-	-	
2016	9.1	9.4	8.7	7.3	-	11.2	7.6	-	-	-	
2017	7.1	8.2	6.0	2.4	-	8.4	7.3	-	-	-	
2018	2.5	2.8	2.1	1.1	-	3.4	2.1	-	-	-	
2019	6.1	6.9	5.2	3.3	-	7.2	5.7	-	-	-	
2020	5.7	6.6	4.7	-	4.3	5.3	5.6	6.8	10.6	3.6	5.1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공동주거 경험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2)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3)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4) 전체는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5)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향후 공동주거를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9%가 공동주거를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이전년도(6.7%) 대비 0.8%p 감소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공동주거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부부가구 형태에서 향후 공동주거 의향 비율이 매우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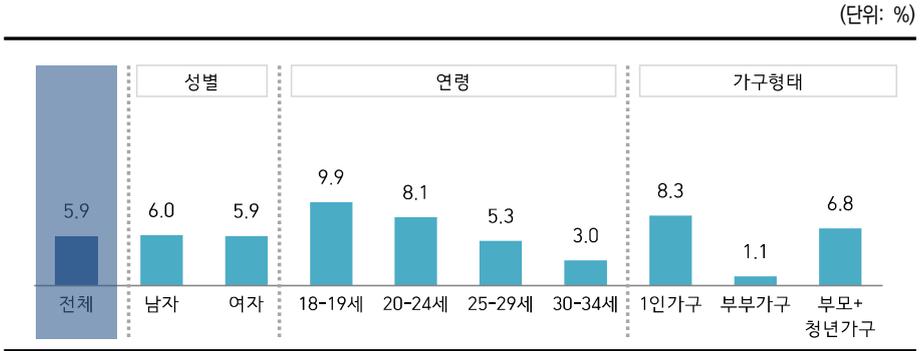


그림 III-95. 공동주거 의향

표 III-105 연도별 공동주거 의향

(단위: %)

연도	전체	성별		연령				가구형태			
	(18-34세, *15-39세)	남자	여자	*15-18세	18-19세	20-24세 25-29세 (*19-29세)	30-34세 (*30-39세)	1인 가구	부부 가구	부모+ 청년 가구	
2015	17.9	18.4	17.3	-	-	24.2	11.9	-	-	-	
2016	7.6	8.0	7.2	14.7	-	9.6	3.4	-	-	-	
2017	8.0	8.5	7.4	17.9	-	9.1	3.9	-	-	-	
2018	2.8	2.9	2.7	6.2	-	4.2	0.7	-	-	-	
2019	6.7	7.0	6.4	14.1	-	8.9	2.4	-	-	-	
2020	5.9	6.0	5.9	-	9.9	8.1	5.3	3.0	8.3	1.1	6.8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공동주거 의향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 2)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 3)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4) 전체는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 5)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 4-2-6. 평소 주거에 대한 생각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내 명의의 집은 꼭 있어야 한다’,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개의 주거 관련 인식 문항을 통하여 청년들의 주거 관련 인식을 알아보았다.

먼저, ‘내 명의의 집이 꼭 있어야 한다’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긍정적 비율은 68.6%(‘그렇다’ 52.5%+‘매우 그렇다’ 16.1%)로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비율 13.3%(‘전혀 그렇지 않다’ 2.5%+‘그렇지 않다’ 10.8%)에 비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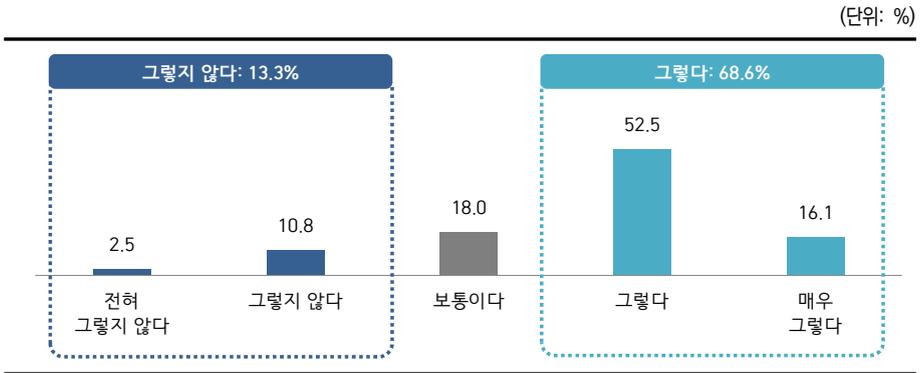


그림 III-96. 평소 주거 생각\_1) 내 명의의 집은 꼭 있어야 한다

표 Ⅲ-106 연도별 평소 주거 생각\_1) 내 명의의 집은 꼭 있어야 한다

(단위: %)

연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3	1.1	11.9	26.3	47.8	12.9
2015	1.1	13.7	24.4	48.5	12.3
2016	1.0	12.1	25.2	48.5	13.3
2017	2.3	14.8	19.0	47.7	16.2
2018	1.1	13.8	23.6	51.0	10.5
2019	1.9	16.0	19.2	50.0	12.8
2020	2.5	10.8	18.0	52.5	16.1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2013년과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 2) 조사대상은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 3)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다음으로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85.2%('전혀 그렇지 않다' 46.5%+'그렇지 않다' 38.7%)로 '그렇다'는 긍정적 응답 비율 3.5%('그렇다' 3.1%+'매우 그렇다' 0.4%) 대비 매우 높았다. 특히,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최근 3년간 크게 상승(2018년도 27.2%→2019년도 35.7%→2020년도 46.5%)하여 청년들의 집 값 수준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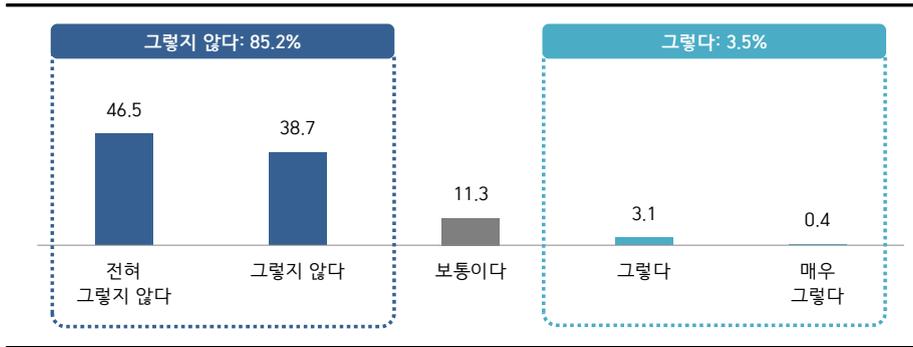


그림 III-97. 평소 주거 생각\_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표 III-107 연도별 평소 주거 생각\_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단위: %)

연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3	14.8	45.5	28.6	9.2	1.9
2015	23.0	38.3	25.6	11.6	1.5
2016	27.4	42.0	21.6	8.0	1.0
2017	29.1	40.3	22.0	8.0	0.7
2018	27.2	37.8	21.2	12.1	1.6
2019	35.7	40.7	17.5	5.5	0.6
2020	46.5	38.7	11.3	3.1	0.4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2013년과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2) 조사대상은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3)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마지막으로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도움 없이 불가능하다)는 응답 비율은 46.2%(‘그렇다’ 31.9%+‘매우 그렇다’ 14.3%)로 ‘그렇지 않다’(도움 없이도 가능하다) 응답 비율 26.4%(‘전혀 그렇지 않다’ 2.4%+‘그렇지 않다’ 24.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집 값 수준에 대한 인식 응답과 마찬가지로 청년층 스스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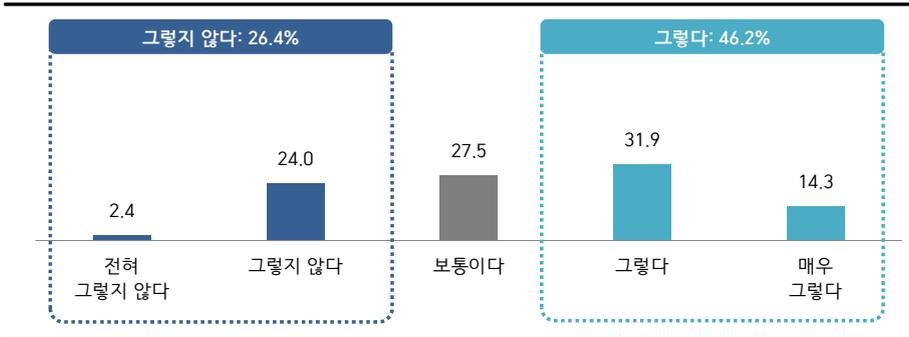


그림 Ⅲ-98. 평소 주거 생각\_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표 III-108 연도별 평소 주거 생각\_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위: %)

연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3	5.5	29.1	36.7	25.1	3.6
2015	2.8	20.4	42.0	28.3	6.5
2016	6.5	20.5	41.6	26.7	4.7
2017	7.0	25.6	34.5	25.1	7.8
2018	2.6	14.4	36.0	37.6	9.5
2019	4.4	24.1	28.3	33.0	10.4
2020	2.4	24.0	27.5	31.9	14.3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2013년과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2) 조사대상은 2020년 18~34세, 2016~2019년 15~39세 인구임.  
 3)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4) 2019년 이전까지의 문항은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형태로 부정문 형태로 제시하였으나, 2020년 조사 시에는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태로 긍정 의문문 형태로 제시하였음. 결과 분석 시에는 2020년 응답값을 반대로 입력하여 분석함.

## 5) 건강

### 5-1-1. 정기적인 운동습관

청년들의 정기적인 운동 습관을 확인하기 위해 19세 이상의 걷기 실천율(최근 1주일 간 1회당 10분 이상, 하루 총 30분 이상으로 5일 이상 실천한 비율)을 살펴보았다. 2018년 19세 이상 전체 기준 걷기 실천율은 평균 39.3%로 2014년 이후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0.7%p 상승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9-29세, 30-39세 모두 이전년도 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매년 30-39세 청년의 걷기 실천율이 19-29세 청년에 비해 낮게 나타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정기적인 운동을 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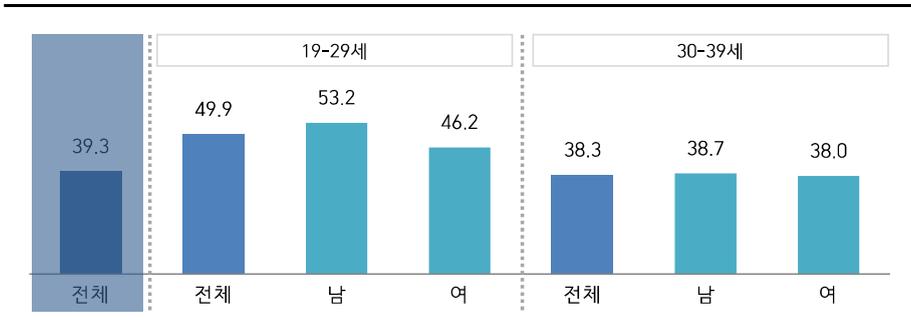


그림 III-99. 정기적인 운동 실천율\_걷기 실천율

표 III-109 연도별 정기적인 운동 실천을 추이\_걷기 실천율

(단위: %)

연도	전체 (19세-)	19-29세			30-39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07	45.8	50.9	56.0	45.6	39.6	40.0	39.1
2008	46.9	55.1	60.4	49.4	41.6	43.9	39.2
2009	46.0	53.0	57.9	47.6	42.2	43.2	41.2
2010	40.9	50.9	55.8	45.7	38.3	40.7	35.7
2011	37.6	49.8	55.2	43.9	34.9	37.9	32.0
2012	38.7	50.6	53.0	48.0	39.0	40.3	37.7
2013	37.4	49.0	57.1	39.6	35.7	39.3	32.2
2014	41.3	51.9	57.9	45.4	37.1	36.5	37.6
2015	40.6	50.8	55.3	45.8	39.0	39.6	38.4
2016	39.1	48.1	52.2	43.6	37.4	39.3	35.4
2017	38.6	47.9	49.7	46.0	34.7	37.4	31.7
2018	39.3	49.9	53.2	46.2	38.3	38.7	38.0

\* 출처: 보건복지부(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걷기실천율 추이: 성별, 만19세이상),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54&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54&conn_path=I2)에서 2020년 10월 3일 인출.

\* 주: 걷기실천율은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비율(만19세 이상)

다음으로,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을 살펴보았다. 2018년 기준 19세 이상 전연령의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44.9%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세-29세 청년층은 2014년 72.3%에서 2018년 63.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비해, 30세-39세 청년층은 2014년 58.0%에서 2017년 47.5%까지 감소하다 2018년 소폭 상승하여 50.7%를 기록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대와 상관없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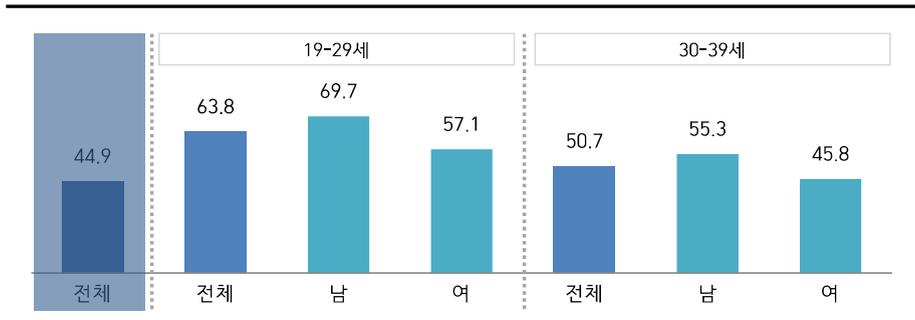


그림 III-100. 정기적인 운동 실천율\_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표 III-110 연도별 정기적인 운동 실천을 추이\_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단위: %)

연도	전체 (19세~)	19-29세			30-39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14	57.1	72.3	79.8	64.1	58.0	58.2	57.8
2015	51.0	66.7	72.1	60.8	51.2	54.3	48.3
2016	47.8	61.9	66.9	56.4	49.1	50.7	47.4
2017	46.4	65.6	67.0	63.9	47.5	51.3	43.6
2018	44.9	63.8	69.7	57.1	50.7	55.3	45.8

\* 출처: 보건복지부(각 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추이: 성별, 만19세이상).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236&conn\\_path=1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236&conn_path=12)에서 2020년 10월 3일 인출.

\* 주: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응하는 시간을 실천한 비율(만19세 이상)

### 5-1-2. 비만율

비만 유병률(체질량지수 25kg/m<sup>2</sup> 이상인 분율)은 2018년 기준, 19세 이상 전체 35.0%로 2017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고, 19세-29세(26.9%)에 비해 30세-39세(37.8%)가 상대적으로 비만 유병률이 높았다. 19세-29세 청년층의 경우 2007년 22.0%에서 2018년 26.4%로, 10여 년 동안 4.9%p가 증가한데 비해, 30세-39세 청년은 2007년 27.8%에서 2018년 37.8%로 10%p 증가하여 19-29세 비만율 증가 수치의 2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19세-29세 연령층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는 2017년에 비해 비만 유병률이 감소하였지만 30세-39세는 남, 여 모두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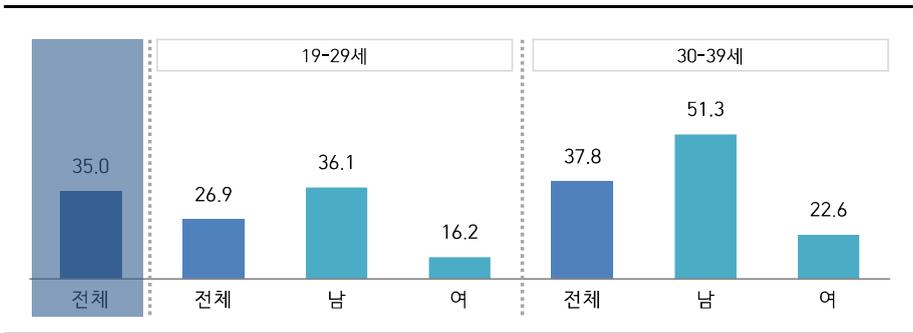


그림 III-101. 비만 유병률

표 III-111 연도별 비만 유병률 추이

(단위: %)

연도	전체 (19세-)	19-29세			30-39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07	32.1	22.0	31.0	12.6	27.8	41.7	12.8
2008	31.0	23.0	31.0	14.1	28.0	38.2	17.0
2009	31.9	22.1	29.0	14.3	29.5	38.5	19.6
2010	31.4	20.5	28.3	12.1	31.0	42.3	19.0
2011	31.9	21.7	26.2	16.9	31.5	40.7	21.7
2012	32.8	22.4	30.5	13.6	32.5	40.6	23.7
2013	32.5	22.4	29.3	14.4	33.2	47.1	17.9
2014	31.5	23.9	32.0	15.0	31.8	43.9	18.6
2015	34.1	23.5	32.4	13.4	32.9	43.6	21.1
2016	35.5	27.2	38.8	13.8	34.2	45.4	21.7
2017	34.8	29.4	39.0	18.3	33.4	46.7	18.3
2018	35.0	26.9	36.1	16.2	37.8	51.3	22.6

\* 출처: 보건복지부(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비만 유병률 추이: 성별, 만19세이상),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101&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101&conn_path=I2)에서 2020년 10월 3일 인출.

\* 주: 비만 유병률은 체질량지수 25kg/m<sup>2</sup> 이상인 분율(만19세 이상)

### 5-1-3. 스트레스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비율로 집계된다. 관련 통계를 통해 청년층의 스트레스 인지율을 분석한 결과, 19-29세의 2018년 스트레스 인지율은 35.7%로 2017년 37.9%에 비해 2.2%p 감소하였으며, 30-39세도 2018년 34.3%로 2017년(36.0%)에 비해 1.7%p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내 19세 이상 전체 평균 역시 2017년 29.1%에서 2018년 27.3%로 1.8%p 감소하였다. 2007년 스트레스 인지율과 2018년 인지율을 비교 해 보면 19-29세 7.7%p, 30-39세 6.3%p 증가 해 전반적으로 청년층이 일상생활 중 느끼는 스트레스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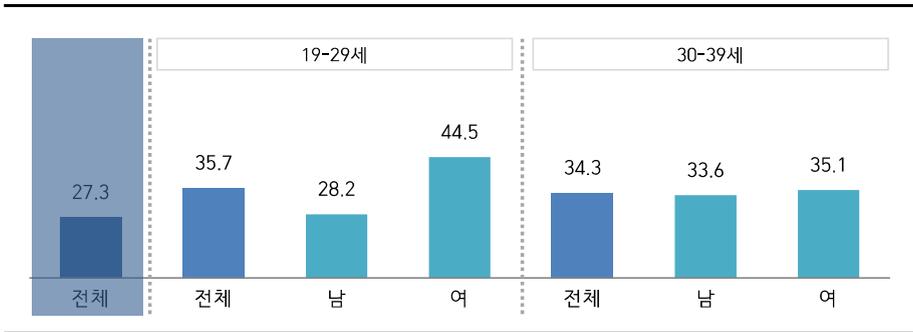


그림 III-102. 스트레스 인지율

표 III-112 연도별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

(단위: %)

연도	전체 (19세-)	19-29세			30-39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07	27.1	28.0	21.3	34.9	28.0	27.0	29.0
2008	28.9	32.6	26.2	39.6	33.6	36.5	30.5
2009	31.0	34.6	27.5	42.4	36.4	37.8	34.9
2010	28.2	32.1	25.8	38.8	32.9	32.3	33.4
2011	27.9	34.9	29.7	40.6	33.1	33.2	33.0
2012	27.0	34.0	23.1	45.5	30.1	29.8	30.4
2013	23.8	26.5	23.1	30.5	27.7	29.0	26.5
2014	25.5	28.9	22.2	36.3	34.0	32.5	35.4
2015	29.6	36.9	31.7	42.8	38.7	41.3	36.0
2016	27.9	32.8	28.3	37.9	37.7	38.6	36.7
2017	29.1	37.9	31.2	45.6	36.0	39.5	32.2
2018	27.3	35.7	28.2	44.5	34.3	33.6	35.1

\* 출처: 보건복지부(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스트레스인지율 추이: 성별, 만19세이상),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61&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61&conn_path=I2)에서 2020년 10월 3일 인출.

\* 주: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비율(만19세 이상)

#### 5-1-4. 우울증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통계에서 우울장애 유병률 결과를 토대로 청년층의 우울증 정도를 살펴보았다. 우울장애 유병률은 1년 중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낀 비율로 집계되며 2018년 19세 이상 전체 기준 4.2%로 2016년 5.6% 대비 소폭(1.4%p) 하락하였다. 19-29세 및 30-39세 청년층 모두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장애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29세의 청년층은 우울장애 유병률 전체 평균 4.2% 보다 높은 5.7%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여성의 유병률이 9.0%로 남성(2.8%)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검진 등의 지원 비율이 낮은 2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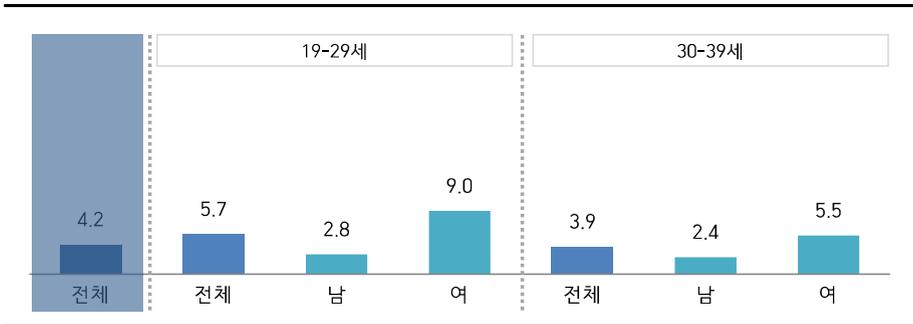


그림 III-103. 우울장애 유병률

표 III-113 연도별 우울장애 유병률 추이

(단위: %)

연도	전체 (19세-)	19-29세			30-39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14	6.7	8.2	4.9	11.9	6.4	6.1	6.7
2016	5.6	6.3	3.6	9.2	5.8	4.9	6.7
2018	4.2	5.7	2.8	9.0	3.9	2.4	5.5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20). 2018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3차년도(2018). 80-82쪽 추이표 1-17. 우울장애유병률: 성별, 만19세이상, 2014-2018을 재구성. 질병관리본부 웹사이트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에서 2020년 10월 3일 인출.

\* 주: 우울장애유병률은 우울증선별도구(PHQ-9) 총점 27점 중 10점 이상인 비율

### 5-1-5. 자살률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통해 자살률을 확인한 결과, 2019년 기준 35-39세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 당 28.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살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8년 대비 30-34세는 1.0명 감소, 35-39세는 0.2명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 연령 자살률 증가 폭(2018년 26.6명→2019년 26.9명, +0.3명)보다 더 높거나 그에 준하는 연령대인 15-19세(+0.7명), 20-24세(+1.9명), 25-29세(+1.3명) 청년층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위: 인구 10만명 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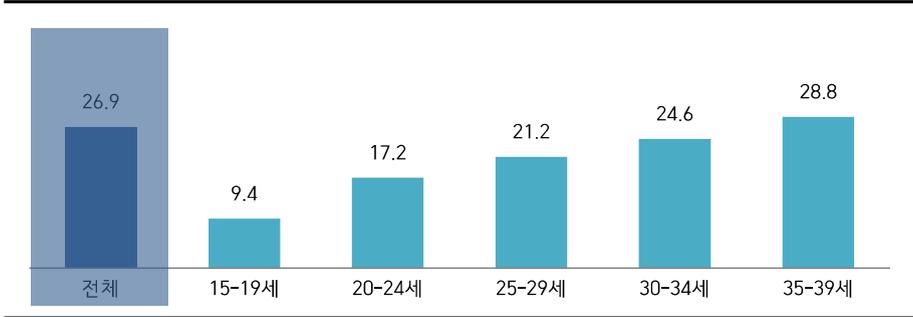


그림 III-104. 자살률

표 III-114 연도별 자살률 추이

(단위: 인구 10만명 당 명)

연도	전체 (0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2009	31.0	10.7	20.3	29.3	31.2	31.5
2010	31.2	8.3	18.3	29.3	29.7	29.4
2011	31.7	8.9	17.7	30.1	30.4	30.6
2012	28.1	8.2	14.9	23.9	28.3	26.5
2013	28.5	7.9	14.5	21.7	27.8	28.9
2014	27.3	7.2	13.6	22.4	26.9	29.0
2015	26.5	6.5	13.2	19.9	24.7	25.5
2016	25.6	7.9	13.3	19.8	25.2	24.1
2017	24.3	7.2	13.3	19.6	23.3	25.6
2018	26.6	8.7	15.3	19.9	25.6	29.0
2019	26.9	9.4	17.2	21.2	24.6	28.8

\* 출처: 통계청(각 년도). 사망원인통계(사망원인(236항목)/성/연령(5세)별 사망자수, 사망률).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7&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7&conn_path=I2)에서 2020년 10월 3일 인출.

### 5-1-6. 흡연율

흡연율은 평생 담배를 5갑(100개비) 이상 피웠으며 현재도 피고 있는 경우로 산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내 현재흡연율 추이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19세 이상 전체 평균 흡연율은 21.1%로 2017년과 동일하다. 청년층의 흡연율은 19세-29세가 23.8%, 30-39세 24.7%로 30대가 0.9%p 더 높으며 19세-29세, 30세-39세 청년층 모두 19세 이상 전체 평균 흡연율보다 높은 것(19세-29세 전체 대비 +2.7%p, 30세-39세 전체 대비 +3.6%p)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각 연령대 모두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흡연율이 감소하였으나 여성의 경우 19세-29세 1.2%p, 30세-39세 1.5%p 증가하였다. 2007년부터 흡연율 등락은 있었으나 남성의 경우 감소(19세-29세 47.5%→34.9%, 30-39세 58.3%→39.9%)하는 추세를 보이거나 여성의 경우 오히려 증가(19세-29세 7.6%→10.9%, 30-39세 4.4%→8.3%)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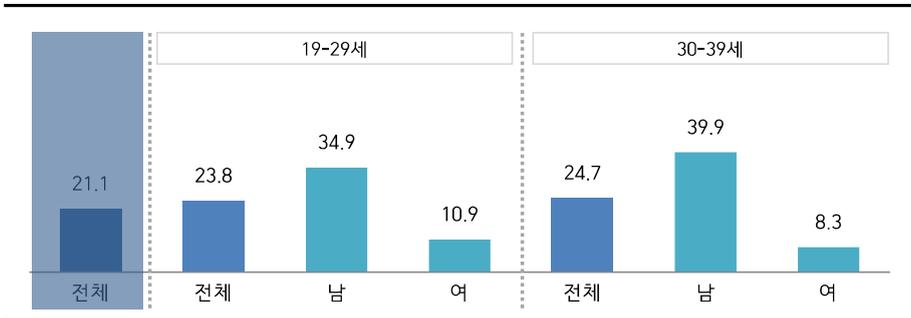


그림 III-105. 현재 흡연율

표 III-115 연도별 현재 흡연을 추이

(단위: %)

연도	전체 (19세-)	19-29세			30-39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07	25.0	27.8	47.5	7.6	32.0	58.3	4.4
2008	27.3	33.9	53.6	12.7	32.4	56.4	7.1
2009	26.6	32.4	51.9	11.1	32.8	56.2	7.9
2010	26.9	27.8	47.3	7.4	35.0	60.9	7.6
2011	26.3	28.3	44.9	10.4	36.6	63.7	8.9
2012	25.0	28.0	41.5	13.6	32.5	54.8	9.0
2013	23.2	24.1	37.0	9.1	30.7	54.5	6.9
2014	23.3	22.5	34.8	8.9	30.0	53.2	7.0
2015	21.6	23.7	38.7	6.9	27.7	48.0	6.7
2016	22.6	25.4	41.7	7.2	30.4	51.5	7.6
2017	21.1	24.4	37.3	9.7	25.5	42.7	6.8
2018	21.1	23.8	34.9	10.9	24.7	39.9	8.3

\* 출처: 보건복지부(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현재흡연을 추이: 성별, 만19세이상),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01&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01&conn_path=I2)에서 2020년 10월 3일 인출.

\* 주: 현재 흡연율은 평생 담배 5갑(100개비)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분율(만19세 이상)

### 5-1-7. 음주율

월간 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비율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월간음주율 추이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9-29세의 음주율은 64.6%, 30-39세는 67.9%로 30대가 3.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29세, 30-39세 음주율 모두 19세 이상의 전체 평균 57.8%보다 높은 수치이다. 19-29세의 경우 남성(63.5%)보다 여성(65.7%)의 음주율이 약간 더 높았으며, 30-39세의 경우 남성(75.2%)이 여성(60.0%) 보다 훨씬 높았다. 2017년과 비교해 보면 대체적으로 2018년에 음주율이 감소한 가운데, 30-39세 여성의 음주율만 1.4%p 더 증가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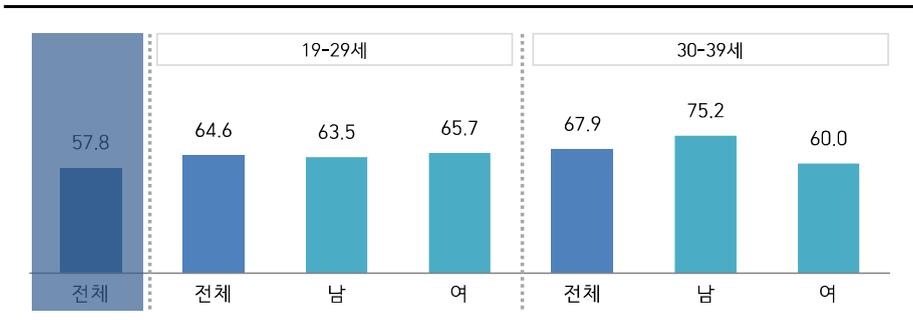


그림 III-106. 월간 음주율

표 III-116 연도별 월간 음주율 추이

(단위: %)

연도	전체 (19세-)	19-29세			30-39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07	56.7	68.9	74.6	63.1	62.1	79.9	43.5
2008	58.7	69.9	75.6	63.8	65.5	79.9	50.3
2009	58.3	69.6	82.7	55.4	64.5	78.1	50.1
2010	59.3	67.3	81.6	52.1	67.5	84.9	49.1
2011	59.2	73.0	84.8	60.2	67.5	81.9	52.6
2012	56.6	66.6	74.9	57.7	63.9	79.0	48.0
2013	58.3	72.4	81.2	62.3	67.4	78.5	56.4
2014	58.1	69.1	77.1	60.3	66.4	79.0	53.9
2015	58.7	67.4	76.9	56.6	65.5	80.0	50.6
2016	59.4	70.8	76.8	64.1	69.6	82.6	55.5
2017	59.2	70.5	74.2	66.3	69.0	78.6	58.6
2018	57.8	64.6	63.5	65.7	67.9	75.2	60.0

\* 출처: 보건복지부(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월간음주율 추이: 성별, 만19세이상),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12&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2_N012&conn_path=I2)에서 2020년 10월 3일 인출.

\* 주: 월간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비율(만19세 이상)

### 5-1-8. 주관적 체형 인식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청년들이 자신의 체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 물어본 결과, 마른 편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21.6%('약간 마른 편' 19.2%+'매우 마른 편' 2.4%)로 비만이라고 인식하는 비율 17.2%('매우 비만' 0.6%+'약간 비만' 16.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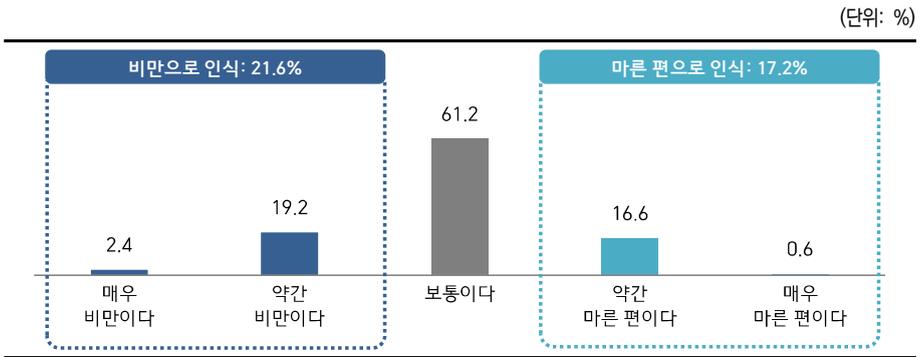


그림 III-107.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표 III-117 연도별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단위: %)

연도	매우 비만이다	약간 비만이다	보통이다	약간 마른 편이다	매우 마른 편이다
2016	2.5	20.4	61.1	14.6	1.4
2017	3.9	20.8	54.4	18.1	2.8
2018	2.2	21.6	54.1	20.7	1.3
2019	2.5	19.8	61.3	15.6	0.9
2020	2.4	19.2	61.2	16.6	0.6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조사대상은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 5-1-9. 주관적인 신체건강 인식

청년들에게 본인이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 본 결과, 18-34세 청년의 86.8%가 ‘그렇다(건강하다)’고 인식(‘그렇다’ 64.8%+‘매우 그렇다’ 22.0%)하고 있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자(89.8%)가 여자(83.5%)보다 본인이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감소(18세-19세 93.7%, 20세-24세 87.4%, 25세-29세 87.1%, 30세-34세 83.7%)하는 추세를 보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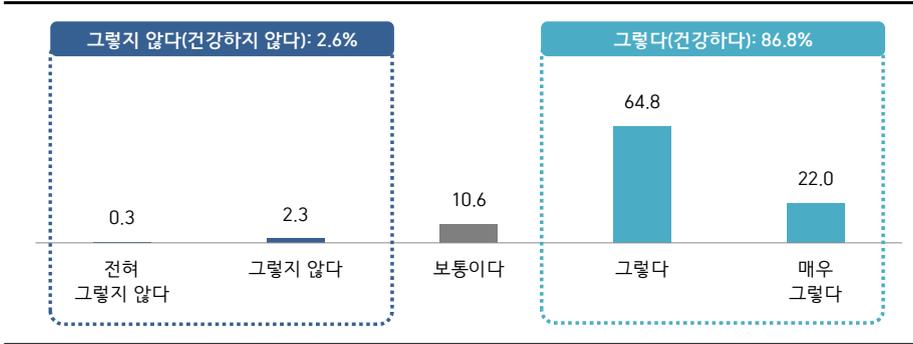


그림 III-108. 주관적인 신체건강 인식

표 III-118 연도별 주관적인 신체건강 인식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8-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0-39세)
2018	전혀 그렇지 않다	0.2	0.2	0.3	0.1	-	0.5	0.1	
	그렇지 않다	1.3	1.1	1.6	1.1	-	1.6	1.2	
	보통이다	7.7	5.8	9.8	5.1	-	7.0	9.1	
	그렇다	62.0	60.2	64.0	55.8	-	58.5	66.7	
	매우 그렇다	28.7	32.6	24.4	37.8	-	32.4	22.9	
2019	전혀 그렇지 않다	0.4	0.6	0.2	0.4	-	0.3	0.5	
	그렇지 않다	3.0	2.5	3.5	1.9	-	3.0	3.3	
	보통이다	14.1	12.5	16.0	5.8	-	14.6	16.1	
	그렇다	58.9	56.1	62.0	53.0	-	57.6	61.9	
	매우 그렇다	23.6	28.4	18.3	39.0	-	24.6	18.2	
2020	전혀 그렇지 않다	0.3	0.2	0.3	-	0.0	0.0	0.7	0.2
	그렇지 않다	2.3	1.7	3.0	-	1.4	3.2	2.2	1.9
	보통이다	10.6	8.3	13.2	-	4.8	9.4	10.0	14.3
	그렇다	64.8	61.9	68.2	-	64.2	64.5	64.5	65.9
	매우 그렇다	22.0	27.9	15.3	-	29.5	22.9	22.6	17.8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2018년 신규문항임.
- 2) 전체는 2020년 18-34세, 2016-2019년 15-39세 인구임.
- 3) 연령구분은 2020년 18-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2016-2019년 15-18세, 19-29세, 30-39세임.

### 5-1-10.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청년들의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을 ‘밝고 즐거운 기분을 느낌’,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낌’,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낌’,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가시고 상쾌함을 느낌’,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음’ 총 5개 문항을 통해 알아 보았다.

우선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는 의견에 ‘대부분+항상 그렇다’는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59.4%(‘대부분 그렇다’ 48.9%+‘항상 그렇다’ 10.9%)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긍정 응답 비율이 낮아지는(18-19세 67.3%, 20-24세 59.9%, 25-29세 58.7%, 30-34세 57.0%) 추세를 보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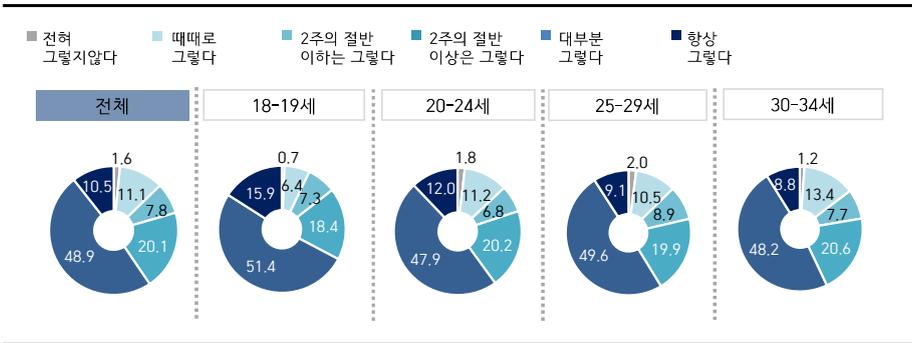


그림 III-109.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

표 III-119 연도별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8-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0-39세)
							(*19-29세)		
2017	전혀 그렇지 않다	1.2	0.9	1.6	0.2	-	1.5		1.2
	때때로 그렇다	16.4	16.4	16.5	9.0	-	15.8		19.2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3.2	13.9	12.4	11.2	-	13.7		13.2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31.3	30.7	32.0	28.3	-	29.7		33.9
	대부분 그렇다	34.4	34.0	34.9	43.9	-	36.0		30.0
	항상 그렇다	3.4	4.1	2.7	7.4	-	3.3		2.5
2018	전혀 그렇지 않다	0.1	0.2	0.1	0.0	-	0.3		0.1
	때때로 그렇다	8.8	9.1	8.4	5.2	-	9.0		9.7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3.8	15.5	12.0	11.5	-	14.5		13.9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28.9	28.0	29.9	31.6	-	27.9		29.0
	대부분 그렇다	44.7	43.4	46.0	48.1	-	44.7		43.6
	항상 그렇다	3.7	3.8	3.5	3.7	-	3.6		3.7
2019	전혀 그렇지 않다	1.5	1.8	1.1	0.9	-	1.9		1.3
	때때로 그렇다	13.1	12.6	13.7	8.8	-	13.7		13.7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1.3	10.8	11.8	6.9	-	10.6		13.2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22.3	24.0	20.4	21.6	-	22.5		22.3
	대부분 그렇다	44.9	43.5	46.6	49.3	-	44.9		43.7
	항상 그렇다	6.9	7.3	6.4	12.5	-	6.4		5.7
2020	전혀 그렇지 않다	1.6	2.1	1.0	-	0.7	1.8	2.0	1.2
	때때로 그렇다	11.1	10.3	12.1	-	6.4	11.2	10.5	13.4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7.8	7.8	7.8	-	7.3	6.8	8.9	7.7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20.1	20.1	20.0	-	18.4	20.2	19.9	20.6
	대부분 그렇다	48.9	48.5	49.3	-	51.4	47.9	49.6	48.2
	항상 그렇다	10.5	11.2	9.8	-	15.9	12.0	9.1	8.8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2) 전체는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 3)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는 의견에 ‘대부분+항상 그렇다’는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57.0%(‘대부분 그렇다’ 44.5%+‘항상 그렇다’ 12.5%)로 18-19세의 긍정 응답 비율이 61.2%(‘대부분 그렇다’ 42.7%+‘항상 그렇다’ 18.5%)로 타 연령층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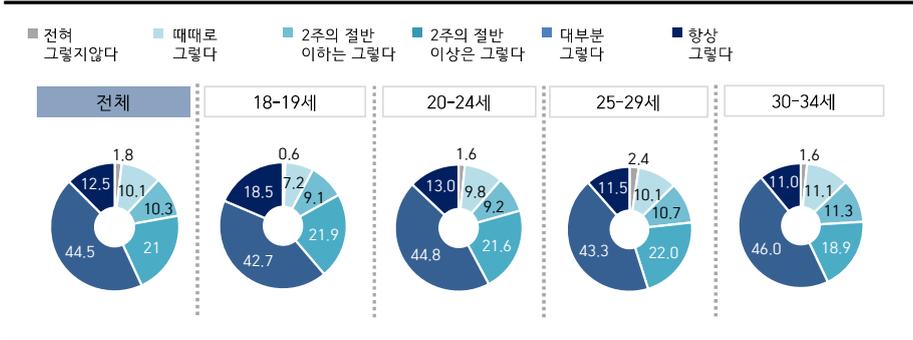


그림 III-110.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표 III-120 연도별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 18세	18- 19세	20- 24세	25- 29세	30-34세 (*30-39세)
							(*19-29세)		
2017	전혀 그렇지 않다	2.2	1.5	2.9	1.0	-	2.5		2.3
	때때로 그렇다	15.0	15.2	14.8	9.7	-	14.7		16.9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5.2	16.0	14.3	13.6	-	14.5		16.4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26.8	25.7	28.1	25.2	-	26.2		28.0
	대부분 그렇다	36.5	36.6	36.3	44.0	-	37.1		33.5
	항상 그렇다	4.3	5.0	3.6	6.5	-	5.0		2.9
2018	전혀 그렇지 않다	0.3	0.4	0.2	0.3	-	0.2		0.4
	때때로 그렇다	7.5	6.9	8.2	6.9	-	8.2		7.1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7.7	18.1	17.2	17.2	-	18.8		16.9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33.4	34.7	31.9	34.3	-	32.5		33.8
	대부분 그렇다	32.9	32.5	33.2	34.8	-	32.1		32.9
	항상 그렇다	8.2	7.4	9.2	6.6	-	8.1		8.8
2019	전혀 그렇지 않다	2.3	2.8	1.8	1.4	-	2.3		2.6
	때때로 그렇다	12.5	11.6	13.4	7.2	-	13.5		13.0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2.6	12.3	12.9	11.7	-	11.7		13.7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23.8	25.3	22.1	24.7	-	22.8		24.4
	대부분 그렇다	39.7	38.6	40.9	41.3	-	40.9		38.0
	항상 그렇다	9.2	9.5	8.8	13.7	-	8.9		8.2
2020	전혀 그렇지 않다	1.8	2.0	1.5	-	0.6	1.6	2.4	1.6
	때때로 그렇다	10.1	9.5	10.7	-	7.2	9.8	10.1	11.1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0.3	10.3	10.3	-	9.1	9.2	10.7	11.3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21.0	20.7	21.3	-	21.9	21.6	22.0	18.9
	대부분 그렇다	44.5	44.0	45.0	-	42.7	44.8	43.3	46.0
	항상 그렇다	12.5	13.5	11.3	-	18.5	13.0	11.5	11.0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전체는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3)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는 의견에 ‘대부분+항상 그렇다’는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51.6%(‘대부분 그렇다’ 40.8%+‘항상 그렇다’ 10.8%)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성(53.3%)이 여성(49.5%)보다 긍정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18세-19세의 긍정 응답 비율이 61.0%로 타 연령층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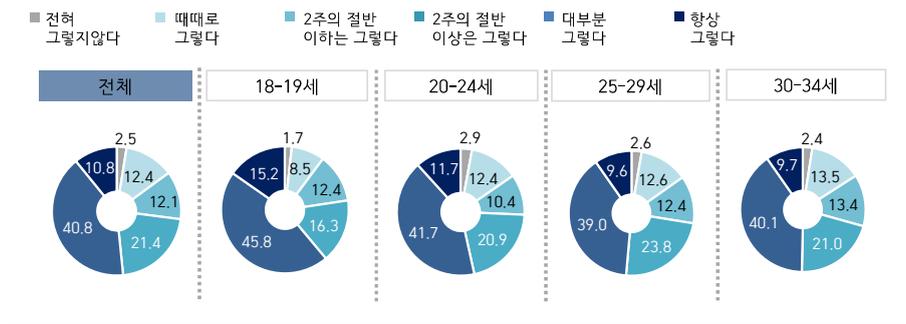


그림 III-11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표 III-121 연도별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8-19세	20-24세 25-29세 (*19-29세)	30-34세 (*30-39세)
2017	전혀 그렇지 않다	2.3	2.2	2.5	0.7	-	2.3	2.9
	때때로 그렇다	15.8	15.0	16.6	7.2	-	14.6	19.5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5.5	15.0	16.1	14.7	-	16.3	15.0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29.5	30.1	28.7	27.3	-	28.7	30.9
	대부분 그렇다	31.5	31.8	31.1	39.4	-	32.3	28.3
	항상 그렇다	5.4	5.8	4.9	10.8	-	5.7	3.4
2018	전혀 그렇지 않다	0.7	0.7	0.7	0.5	-	0.8	0.7
	때때로 그렇다	9.6	9.6	9.6	7.0	-	10.1	10.0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5.7	15.5	15.9	11.4	-	14.7	17.8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33.7	32.8	34.7	33.6	-	35.1	32.6
	대부분 그렇다	32.4	32.6	32.1	37.7	-	31.4	31.6
	항상 그렇다	7.9	8.7	6.9	9.8	-	7.8	7.3
2019	전혀 그렇지 않다	2.4	2.8	2.0	0.9	-	2.9	2.4
	때때로 그렇다	13.4	12.7	14.1	9.1	-	13.2	14.8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4.0	12.6	15.6	11.8	-	14.1	14.6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22.9	24.2	21.5	20.2	-	21.9	24.8
	대부분 그렇다	38.7	39.2	38.1	41.8	-	40.4	35.9
	항상 그렇다	8.6	8.5	8.7	16.1	-	7.5	7.6
2020	전혀 그렇지 않다	2.5	2.6	2.5	-	1.7	2.9	2.6
	때때로 그렇다	12.4	11.8	13.1	-	8.5	12.4	12.6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2.1	11.9	12.4	-	12.4	10.4	12.4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21.4	20.4	22.6	-	16.3	20.9	23.8
	대부분 그렇다	40.8	41.2	40.3	-	45.8	41.7	39.0
	항상 그렇다	10.8	12.1	9.2	-	15.2	11.7	9.6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전체는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3)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는 의견에 ‘대부분+항상 그렇다’는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41.7%(‘대부분 그렇다’ 34.6%+‘항상 그렇다’ 7.1%)로 연령별로 살펴보면 24세 이하 연령층의 긍정 응답 비율(18세-19세 46.9%, 20세-24세 44.3%)이 25세 이상의 연령층의 긍정 응답 비율(25세-29세 39.6%, 30세-34세 39.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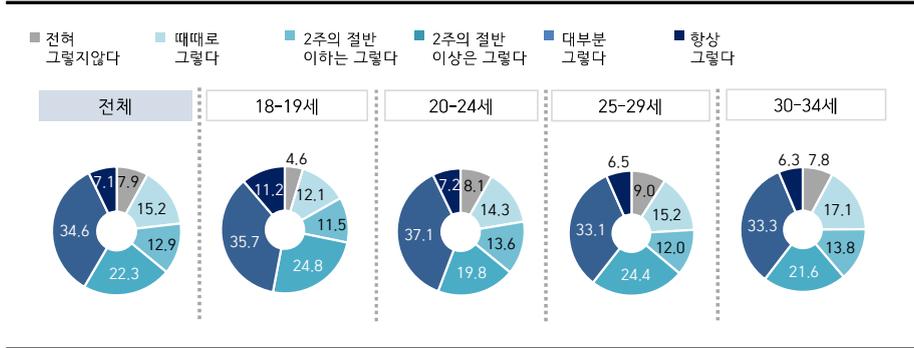


그림 III-112.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표 III-122 연도별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 18세	18- 19세	20- 24세	25- 29세	30-34세 (*30-39세)
							(*19-29세)		
2017	전혀 그렇지 않다	9.8	8.6	11.2	5.9	-	10.2	10.6	
	때때로 그렇다	21.9	22.3	21.5	18.8	-	20.7	24.2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7.5	18.2	16.7	16.3	-	17.1	18.1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26.2	26.7	25.6	30.8	-	25.2	25.8	
	대부분 그렇다	21.9	21.7	22.1	23.8	-	23.4	19.8	
	항상 그렇다	2.7	2.5	2.9	4.4	-	3.4	1.4	
2018	전혀 그렇지 않다	1.6	1.0	2.3	1.1	-	2.5	1.1	
	때때로 그렇다	12.3	13.2	11.4	9.2	-	12.6	13.1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7.8	18.2	17.5	15.8	-	16.1	19.9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30.2	30.1	30.3	30.4	-	29.8	30.5	
	대부분 그렇다	33.2	33.0	33.5	38.3	-	34.2	31.0	
	항상 그렇다	4.8	4.6	5.0	5.4	-	4.9	4.5	
2019	전혀 그렇지 않다	7.1	6.0	8.3	6.2	-	6.1	8.3	
	때때로 그렇다	18.7	18.0	19.5	14.9	-	18.9	19.7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5.4	16.1	14.5	12.7	-	16.8	14.7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23.6	24.3	22.8	23.2	-	21.8	25.5	
	대부분 그렇다	30.2	30.4	29.9	33.0	-	32.2	27.3	
	항상 그렇다	5.1	5.2	5.0	10.1	-	4.2	4.4	
2020	전혀 그렇지 않다	7.9	6.8	9.3	-	4.6	8.1	9.0	7.8
	때때로 그렇다	15.2	15.7	14.7	-	12.1	14.3	15.2	17.1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2.9	13.4	12.4	-	11.5	13.6	12.0	13.8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22.3	21.8	22.8	-	24.8	19.8	24.4	21.6
	대부분 그렇다	34.6	34.7	34.4	-	35.7	37.1	33.1	33.3
	항상 그렇다	7.1	7.7	6.4	-	11.2	7.2	6.5	6.3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전체는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3)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마지막으로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의견에 '대부분+항상 그렇다'는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32.9%('대부분 그렇다' 26.9%+'항상 그렇다' 6.0%)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긍정 응답 비율이 낮아지는(18-19세 35.2%, 20-24세 34.1%, 25-29세 32.9%, 30-34세 31.0%) 추세를 보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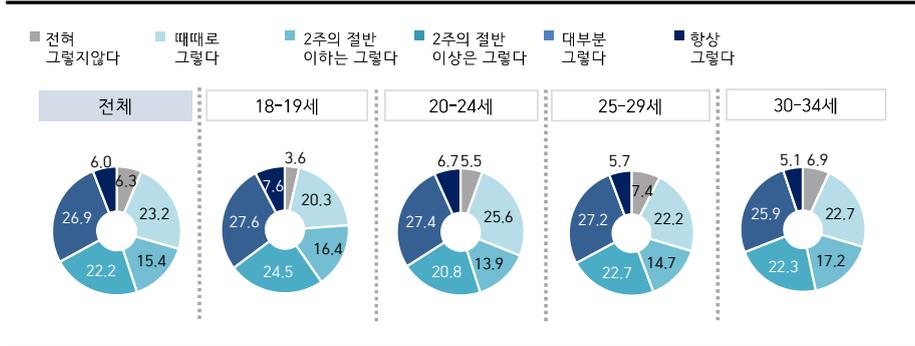


그림 III-113.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표 III-123 연도별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 18세	18- 19세	20- 24세	25- 29세	30-34세 (*30-39세)
							(*19-29세)		
2017	전혀 그렇지 않다	6.1	6.1	6.1	3.0	-	6.7		6.3
	때때로 그렇다	26.3	25.7	26.8	17.4	-	24.7		30.5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7.4	16.9	18.1	18.3	-	16.8		17.8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28.1	29.0	27.0	28.8	-	29.2		26.7
	대부분 그렇다	19.7	19.5	20.0	27.8	-	19.6		17.4
	항상 그렇다	2.5	2.9	2.0	4.7	-	3.0		1.2
2018	전혀 그렇지 않다	2.1	1.8	2.4	0.6	-	2.8		2.0
	때때로 그렇다	14.8	14.0	15.6	12.2	-	14.0		16.1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7.4	17.2	17.6	18.4	-	15.8		18.4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31.4	32.6	30.1	33.7	-	32.8		29.6
	대부분 그렇다	31.1	31.2	30.9	30.8	-	30.8		31.4
	항상 그렇다	3.2	3.2	3.3	4.3	-	3.9		2.4
2019	전혀 그렇지 않다	8.6	8.3	8.9	5.5	-	7.3		10.7
	때때로 그렇다	24.2	23.2	25.2	17.0	-	24.6		25.8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5.6	16.2	14.9	12.9	-	15.7		16.2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20.2	20.9	19.4	23.8	-	19.8		19.5
	대부분 그렇다	27.1	26.5	27.8	31.6	-	28.7		24.3
	항상 그렇다	4.4	4.9	3.8	9.2	-	3.8		3.5
2020	전혀 그렇지 않다	6.3	7.0	5.6	-	3.6	5.5	7.4	6.9
	때때로 그렇다	23.2	23.6	22.7	-	20.3	25.6	22.2	22.7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15.4	14.8	16.0	-	16.4	13.9	14.7	17.2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22.2	21.6	23.0	-	24.5	20.8	22.7	22.3
	대부분 그렇다	26.9	26.2	27.7	-	27.6	27.4	27.2	25.9
	항상 그렇다	6.0	6.8	5.1	-	7.6	6.7	5.7	5.1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전체는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3)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 5-2-1. 청년 병원 이용

2주간 외래이용률(최근 2주간 입원을 제외하고, 병의원, 보건소,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비율)을 통해 청년들의 병원 이용 추이를 확인한 결과 2018년 19세 이상의 전체 평균은 27.9%로 2014년 이후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나 청년의 병원 이용률과 비교 해 보면, 19-29세 청년의 경우 2017년 대비 0.8%p 증가한 22.2%, 30-39세 청년의 경우 0.5%p 증가한 23.7%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의 병원 이용률이 더 높은 가운데, 19-29세는 여성의 병원 이용률이 6.0%p, 30-39세의 경우 8.8%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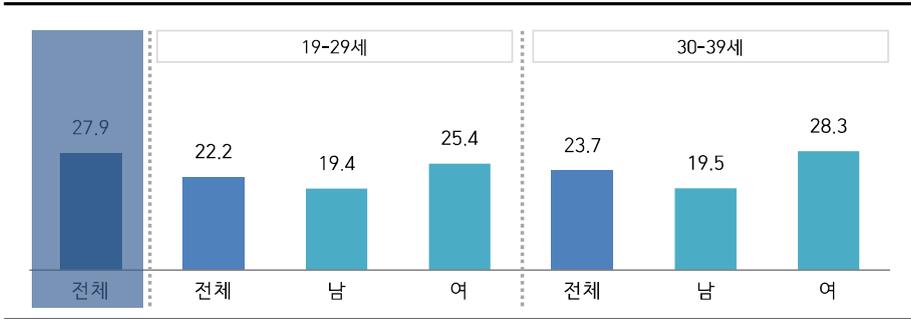


그림 III-114. 청년 병원 이용률

표 III-124 연도별 청년 병원 이용률 추이

(단위: %)

연도	전체 (19세-)	19-29세			30-39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07	27.8	18.6	16.5	20.6	23.0	20.4	25.6
2008	30.0	21.4	16.2	26.9	20.2	16.7	23.8
2009	28.7	22.5	17.5	28.0	20.7	18.0	23.7
2010	31.4	23.2	17.8	29.0	24.9	19.6	30.5
2011	31.0	25.4	24.0	26.8	22.8	21.1	24.6
2012	30.7	25.7	18.8	33.0	24.4	20.5	28.5
2013	31.6	22.6	17.4	28.6	25.3	22.4	28.2
2014	31.6	25.9	23.4	28.7	24.2	21.1	27.1
2015	30.9	25.7	20.7	31.2	26.3	18.9	33.5
2016	29.1	24.0	18.7	29.7	25.3	22.5	28.4
2017	28.8	21.4	16.1	27.6	23.2	22.4	24.1
2018	27.9	22.2	19.4	25.4	23.7	19.5	28.3

\* 출처: 보건복지부(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2주간 외래이용률 추이(2주간 외래이용률 추이: 성별, 만19세이상),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094&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094&conn_path=I3) 에서 2020년 10월 3일 인출.

\* 주: 2주간 외래이용률은 최근 2주 동안 입원을 하지 않고, 병의원(치과 포함)이나 보건소,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분율(만19세 이상)

### 5-2-2.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

종신/연금보험이 포함된, 개인단위의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을 살펴본 결과, 2017년 전체 기준 78.7%로 2016년 77.7% 대비 1.0%p 상승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33%로 나타났다.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의 연평균 증가율은 10대 1.73%, 20대 2.36%로 전체 평균을 상회하였으나 30대의 경우 0.04%로 전체 평균보다 -1.29%p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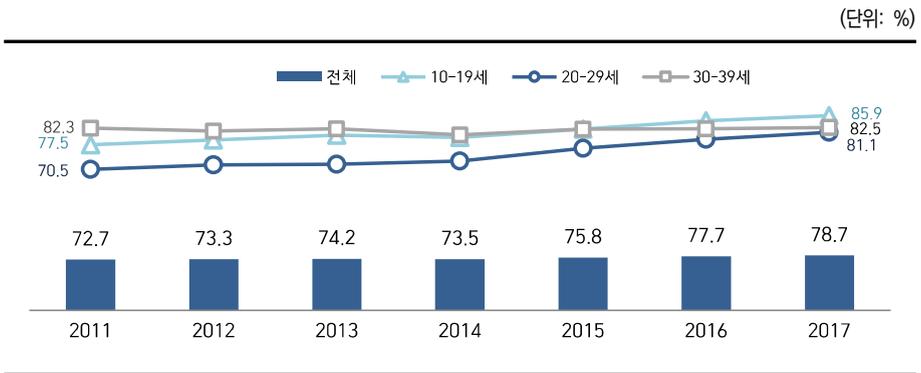


그림 Ⅲ-115. 연령별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

표 III-125 연도별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 추이

(단위: %)

연도	전체	10-19세	20-29세	30-39세
2011	72.7	77.5	70.5	82.3
2012	73.3	78.9	71.8	81.5
2013	74.2	80.3	71.9	82.1
2014	73.5	79.7	72.9	80.4
2015	75.8	82.0	76.5	82.0
2016	77.7	84.4	79.1	82.1
2017	78.7	85.9	81.1	82.5
연평균 증가율	1.33	1.73	2.36	0.04

\* 출처: 국민건강보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7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1). 125쪽 표 7-7 가구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및 가입자의 평균 보험 상품 수와 129쪽 표 7-11 가구원 연령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을 재구성. 한국의료패널 웹사이트 <https://www.khp.re.kr:444/web/research/board/list.do?bbsid=13>에서 2020년 10월 3일 인출.

\* 주: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은 개인단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종신/연금보험이 포함됨.

### 5-2-3. 건강검진 수검 여부

지난 1년간(2019년 6월-2020년 5월)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18-34세 청년들의 40.7%가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초반 이전(18-19세 19.3%, 20-24세 24.5%) 대비 20대 후반 이후(25-29세 45.1%, 30-34세 59.5%) 연령대의 건강검진 수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20대 후반 이후 연령대의 경우 취업으로 인하여 직장 내 건강검진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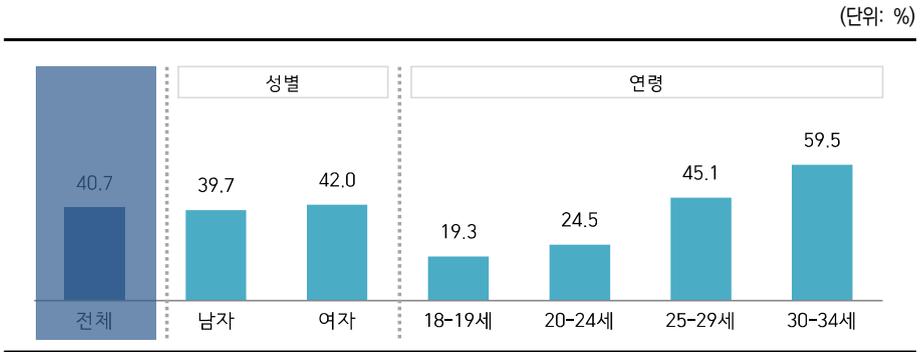


그림 III-116. 건강검진 수검 여부

표 III-126 건강검진 수검 여부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8-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19-29세)		(*30-39세)
2018	예	38.1	37.7	38.6	17.7	-	27.3		53.2
	아니오	61.9	62.3	61.4	82.3	-	72.7		46.8
2019	예	44.3	44.8	43.9	39.4	-	32.7		57.6
	아니오	55.7	55.2	56.1	60.6	-	67.3		42.4
2020	예	40.7	39.7	42.0	-	19.3	24.5	45.1	59.5
	아니오	59.3	60.3	58.0	-	80.7	75.5	54.9	40.5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2018년 신규 문항임.
- 2) 전체는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 3)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 5-2-4.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 방문, 약만 복용,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는 행위 중 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지를 질문한 결과, ‘병원 진찰 후 치료를 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82.5%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질환 발생 시 ‘병원 진찰 후 치료를 받는다’는 응답 비율은 30-34세(84.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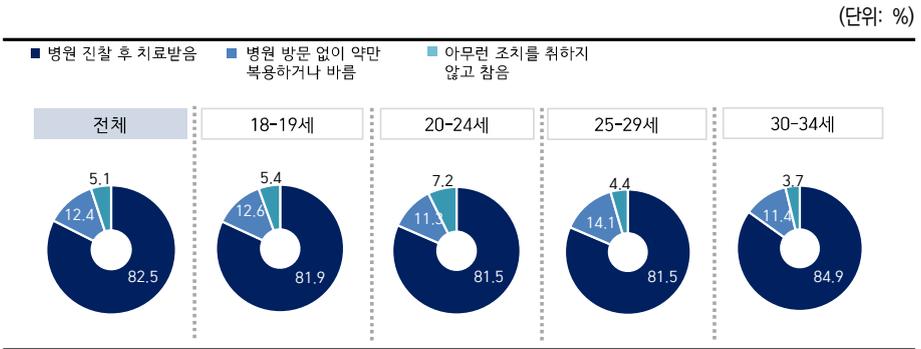


그림 III-117.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

표 III-127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8-19세	20-24세 (*19-29세)	25-29세	30-34세 (*30-39세)
2018	병원 진찰 후 치료받음	80.7	77.6	84.1	84.2	-	78.5	81.5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13.6	15.7	11.3	10.9	-	15.3	13.0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5.7	6.8	4.5	4.8	-	6.3	5.5	
2019	병원 진찰 후 치료받음	83.1	80.7	85.9	80.4	-	81.4	85.7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10.9	12.3	9.2	12.0	-	11.6	9.8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6.0	7.0	.9	7.6	-	7.0	4.5	
2020	병원 진찰 후 치료받음	82.5	81.9	83.3	-	81.9	81.5	81.5	84.9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12.4	11.7	13.1	-	12.6	11.3	14.1	11.4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5.1	6.4	.6	-	5.4	7.2	4.4	3.7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2018년 신규문항임.
- 2) 전체는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 3)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에 약만 복용하거나 참는다고 응답한 청년들에게 병원을 가지 않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병원을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83.6%로 가장 많았으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13.3%)' 사유가 그 뒤를 이었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병원을 가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남자(86.3%)가 여자(80.4%)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15-18세 89.6%, 20-24세 88.3%, 25-29세 84.3%, 30-34세 74.7%) 응답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병원을 가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취업준비 및 경제활동을 주로 하는 연령대인 25-29세(14.7%), 와 30-34세(19.5%)에서 타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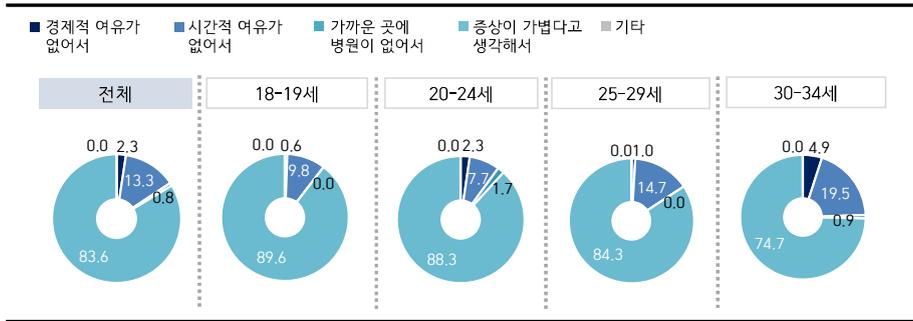


그림 III-118. 질환 발생 시, 병원에 가지 않는 이유

표 III-128 질환 발생 시,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8-19세	20-24세 (*19-29세)	25-29세	30-34세 (*30-39세)
2018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1.4	1.2	1.5	0.0	-	1.6		1.4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19.9	15.4	26.9	11.4	-	16.8		25.0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1.5	1.0	2.2	4.2	-	1.1		1.1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77.2	82.1	69.4	84.5	-	80.5		72.2
	기타	0.1	0.2	0.0	0.0	-	0.0		0.3
2019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3.0	3.8	1.8	0.8	-	3.1		3.8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15.2	14.5	16.2	9.3	-	13.3		20.0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1.4	1.9	0.6	0.8	-	1.6		1.3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79.8	79.3	80.6	89.1	-	81.7		73.6
	기타	0.7	0.5	0.8	0.0	-	0.3		1.4
2020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2.3	1.5	3.4	-	0.6	2.3	1.0	4.9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13.3	12.0	14.8	-	9.8	7.7	14.7	19.5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0.8	0.2	1.4	-	0.0	1.7	0.0	0.9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83.6	86.3	80.4	-	89.6	88.3	84.3	74.7
	기타	0.0	0.0	0.0	-	0.0	0.0	0.0	0.0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질환 발생 시,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거나 기타에 체크한 경우만 응답  
 2) 2018년 신규 문항임  
 3) 전체는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4)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 5-2-5. 성형수술 여부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만18-34세 청년들의 성형수술 경험을 물어 본 결과, 응답자의 11.7%가 성형수술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여성(22.5%)이 남성(2.1%)에 비해 성형수술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형수술 경험률 또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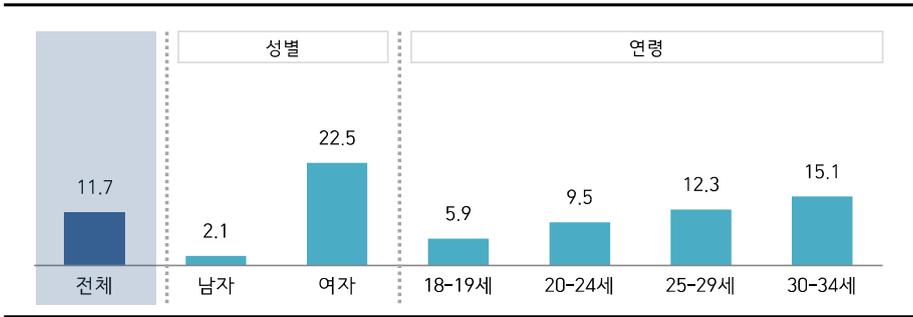


그림 III-119. 성형수술 경험

표 III-129 연도별 성형수술 경험

(단위: %)

연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 18세	18- 19세	20- 24세	25- 29세	30-34세 (*30-39세)
						(*19-29세)		
2016	12.7	2.7	23.5	5.6	-	16.9		10.9
2017	11.8	2.2	22.3	3.7	-	13.6		12.4
2018	10.4	2.5	19.1	3.0	-	11.8		11.5
2019	9.3	1.7	17.8	3.9	-	10.1		10.1
2020	11.7	2.1	22.5	-	5.9	9.5	12.3	15.1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성형수술 경험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
-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3) 전체는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 4)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 5-2-6. 성형수술 목적

성형수술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에게 성형수술 목적을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응답 대상자가 미용 목적(93.4%)로 성형수술을 하였다. 의료 목적의 성형수술 비율은 남자(28.3%)가 여자(4.3%)에 비해 높은 반면,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비율은 여자(95.7%)가 남자(71.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비율은 18-19세에서 96.0%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의료 목적의 성형수술 비율은 30-34세에서 7.4%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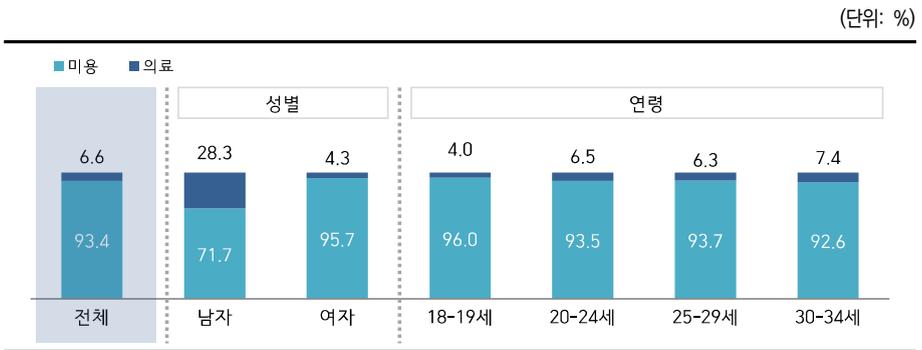


그림 III-120. 성형수술 목적

표 III-130 연도별 성형수술 목적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 18세	18- 19세	20- 24세	25- 29세	30-34세 (*30-39세)
							(*19-29세)		
2016	의료	10.0	26.1	8.0	5.8	-	10.0		10.7
	미용	90.0	73.9	92.0	94.2	-	90.0		89.3
2017	의료	11.3	37.9	8.3	5.5	-	13.6		9.3
	미용	88.7	62.1	91.7	94.5	-	86.4		90.7
2018	의료	2.3	11.6	1.0	0.0	-	0.5		4.0
	미용	97.7	88.4	99.0	100.0	-	99.5		96.0
2019	의료	7.1	36.0	4.0	18.9	-	7.7		5.2
	미용	92.9	64.0	96.0	81.1	-	92.3		94.8
2020	의료	6.6	28.3	4.3	-	4.0	6.5	6.3	7.4
	미용	93.4	71.7	95.7	-	96.0	93.5	93.7	92.6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성형수술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
- 2) 의료는 화상치료나 안검하수 등의 의료 목적으로 시술을 한 경우이며, 미용은 쌍꺼풀, 보톡스, 지방제거술 등을 미용의 목적으로 시술한 경우를 말함.
- 3)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4) 전체는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 5)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 6) 문화와 가치관

### 6-1-1. 문화 및 여가생활 유형

15세 이상의 전체가 참여한 문화 및 여가생활 유형으로 평일, 주말 모두 휴식활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15-19세, 20-29세, 30-39세 청년의 평일 문화 및 여가활동은 취미 오락 활동이, 휴일에는 15~19세, 20~29세는 사회 및 기타 활동, 30-39세는 휴식활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5세~39세의 청년들은 주로 휴식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취미 오락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가지 활동 모두 평일/휴일 및 연령대에 관계없이 모두 90% 이상으로 문화 및 여가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관광활동, 문화예술 관람활동, 문화예술 참여 활동은 평일보다는 주말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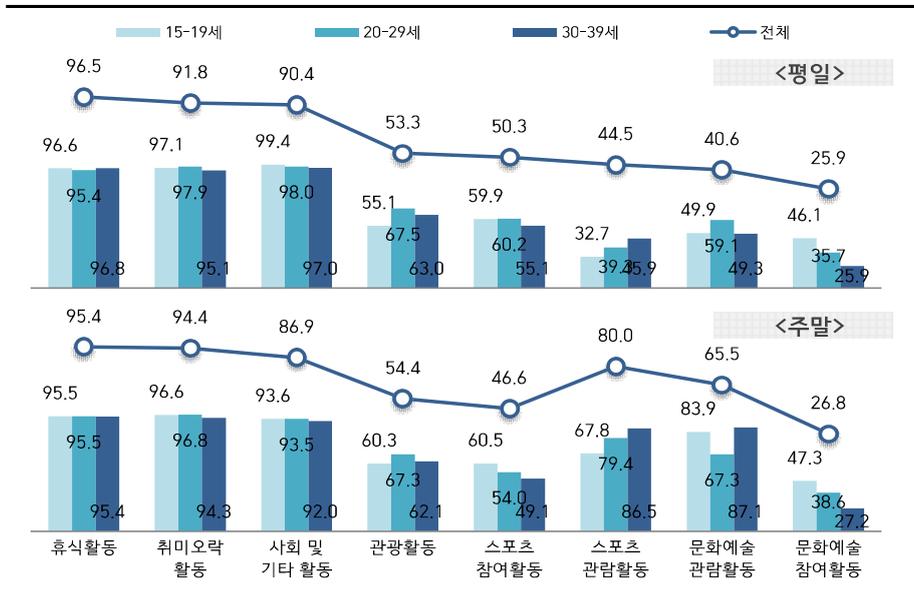


그림 III-121. 평일 및 휴일 문화 및 여가활동 유형

표 III-131 평일 및 휴일 문화 및 여가활동 유형(복수응답)

(단위: %)

구분	휴식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취미 오락 활동	스포츠 관람 활동	스포츠 참여 활동	관광 활동	문화 예술 관람 활동	문화 예술 참여 활동	
평 일	전체 (15세-)	96.5	91.8	90.4	53.3	50.3	44.5	40.6	25.9
	15-19세	96.6	97.1	99.4	55.1	59.9	32.7	49.9	46.1
	20-29세	95.4	97.9	98.0	67.5	60.2	39.3	59.1	35.7
	30-39세	96.8	95.1	97.0	63.0	55.1	45.9	49.3	25.9
휴 일	전체 (15세-)	95.4	94.4	86.9	54.4	46.6	80.0	65.5	26.8
	15-19세	95.5	96.6	93.6	60.3	60.5	67.8	83.9	47.3
	20-29세	95.5	96.8	93.5	67.3	54.0	79.4	67.3	38.6
	30-39세	95.4	94.3	92.0	62.1	49.1	86.5	87.1	27.2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38쪽 표 2-7 평일에 참여한 유형별 여가활동(복수응답)과 40쪽 표 2-9 휴일에 참여한 유형별 여가활동(복수응답)을 재구성.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s://policydb.kcti.re.kr/#/surveyLeisureDetail?bbstypecd=3003013&postno=200313&poststatcd=1300>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 주: 2019년 조사결과임.

## 6-1-2. 문화 및 여가생활 시간

15세 이상 전체 기준 2019년 문화 및 여가 생활시간은 평일(3.5시간), 휴일(5.4시간) 모두 2018년 대비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평일, 휴일 모두 20세-29세 연령의 문화 및 여가생활 시간(평일 3.4시간, 휴일 5.9시간)이 가장 많았다.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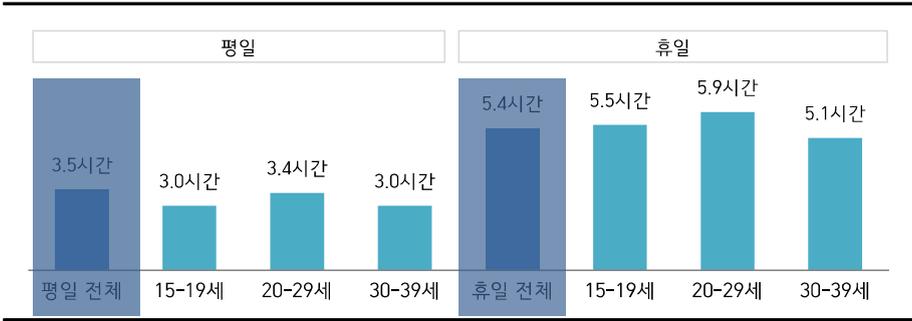


그림 III-122. 평일 및 휴일 문화 및 여가활동 시간

표 III-132 연도별 평일 및 휴일 문화 및 여가활동 시간

(단위: 시간)

연도	평일				휴일			
	전체 (15세-)	15-19세	20-29세	30-39세	전체 (15세-)	15-19세	20-29세	30-39세
2014	3.6	3.1	3.3	3.1	5.8	5.6	6.1	5.5
2016	3.1	2.7	2.9	2.8	5.0	5.1	5.3	4.8
2018	3.3	2.8	3.2	2.8	5.3	5.1	5.7	5.0
2019	3.5	3.0	3.4	3.0	5.4	5.5	5.9	5.1

\* 출처 1) 문화체육관광부(각 년도a). 국민여가활동조사(지난 1년 동안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6934&conn\\_path=1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6934&conn_path=12)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2) 문화체육관광부(각 년도a). 국민여가활동조사(지난 1년 동안 휴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6935&conn\\_path=1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6935&conn_path=12)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 6-1-3. 문화 및 여가생활 비용

15세 이상 전체 기준 2019년 청년들의 문화 및 여가생활 비용은 평균 15만 6천원으로 2018년 15만 1천원 대비 5천원 증가하였고 2012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5세-19세(-4천원)와 20세-29세(-2천원)는 2018년 대비 문화 및 여가활동 비용이 감소하였으나 30세-39세만 이전년도 대비 비용이 1만7천원 증가하였다.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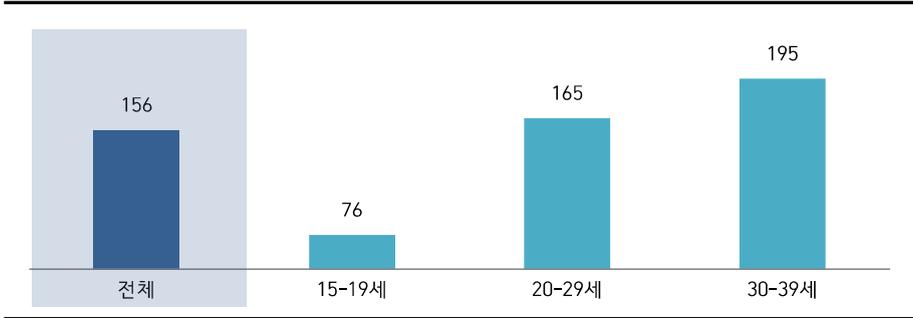


그림 III-123. 월 평균 문화 및 여가활동 비용

표 III-133 연도별 월 평균 문화 및 여가활동 비용

(단위: 천원)

연도	전체 (15세-)	15-19세	20-29세	30-39세
2006	142	89	166	168
2008	139	32	175	160
2010	168	62	205	196
2012	125	60	156	150
2014	130	61	147	156
2016	136	74	143	159
2018	151	80	167	178
2019	156	76	165	195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각 년도a),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s://policydb.kcti.re.kr/>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 6-1-4.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

15세 이상 전체 기준 2019년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는 7점 만점에 평균 4.60점으로 2017년 대비 0.29점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가 4.80점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30세-39세(4.60점), 15세-19세(4.50점)의 순이었다. 직전 조사년도 대비 모든 연령대의 만족도 점수가 상승하였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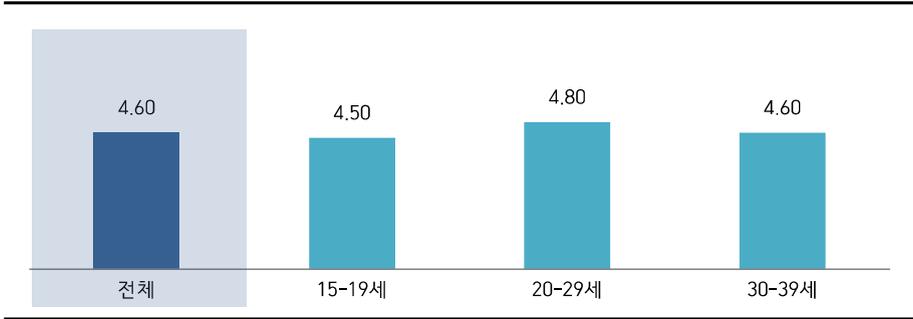


그림 III-124.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

표 III-134 연도별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 추이

(단위: 점)

연도	전체 (15세-)	15~19세	20~29세	30~39세
2012	2.56	2.45	2.61	2.52
2014	4.54	4.41	4.69	4.56
2016	4.59	4.35	4.68	4.50
2018	4.31	4.07	4.40	4.24
2019	4.60	4.50	4.80	4.60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각 년도a).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s://policydb.kcti.re.kr/>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 주: 2012년에는 4점 척도로, 2014년부터는 7점 척도로 자신의 전반적인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함(점수가 높을수록 여가생활에 만족함).

### 6-1-5. 독서율

2019년 19세 이상 전체의 독서율은 평균 55.4%로 2017년 대비 6.9%p 감소하였으며 2015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세-29세(77.4%), 30세-39세(75.1%)의 독서율 모두 평균 독서율을 상회하고 있지만, 19세-39세 연령대 모두 2015년 대비 독서율은 감소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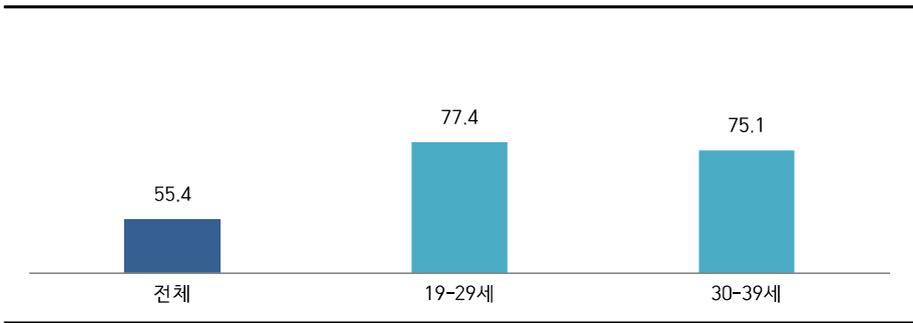


그림 III-125. 연간 독서율

표 III-135 연도별 연간 독서율 추이

(단위: %)

연도	전체 (19세-)	19-29세	30-39세
2015	67.4	91.1	80.5
2017	62.3	78.7	73.1
2019	55.4	77.4	75.1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각 년도b), 국민독서실태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5546&conn\\_path=1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5546&conn_path=12)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 주: 종이책과 전자책을 1권 이상 읽은 성인의 독서율임.

### 6-2-1. 주관적 행복감

어제 기준 주관적으로 경험한 정서 중 행복감을 측정한 값은 2019년 기준 19세 이상 전체의 평균은 10점 만점에 6.5점으로 2018년 대비 0.1점 감소하였다. 19세-29세 역시 0.1점 감소한 6.6점이며 30세-39세는 2018년과 동일한 수치이다. 19세-39세 청년들의 주관적 행복감은 2013년부터 6.3점~6.7점을 유지하고 있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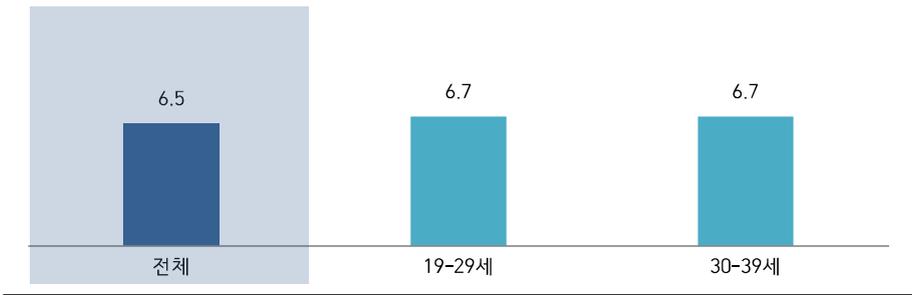


그림 III-126. 주관적 행복감

표 III-136 연도별 주관적 행복감 추이

(단위: 점)

연도	전체 (19세-)	19-29세	30-39세
2013	6.3	6.5	6.4
2014	6.2	6.3	6.4
2015	6.3	6.4	6.4
2016	6.4	6.5	6.5
2017	6.5	6.6	6.7
2018	6.6	6.7	6.7
2019	6.5	6.6	6.7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각 연도). 사회통합실태조사(어제의 주관적 정서 경험).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01&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01&conn_path=I2)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 주: 어제 주관적으로 경험한 정서 중 행복감을 묻는 문항으로, 0점(전혀 행복하지 않았다)~10점(매우 행복했다)으로 측정된 결과 값의 평균 점수임.

## 6-2-2.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2019년 기준 19세 이상 전체의 평균은 10점 만점에 6.0점으로 2013년 이후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 소폭이지만 다시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19세-29세와 30세-39세 연령대 모두 0.1점씩 감소한 6.0점, 6.1점으로 19세-29세는 2016년부터 30세-39세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6점대를 유지하고 있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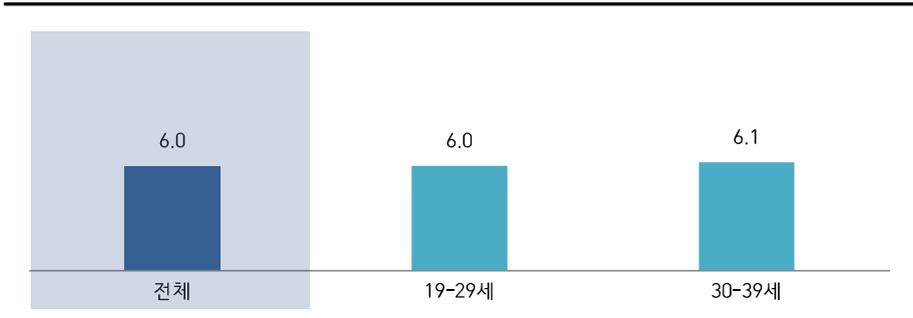


그림 III-127. 삶의 만족도

표 III-137 연도별 삶의 만족도 추이

(단위: 점)

연도	전체 (19세-)	19-29세	30-39세
2013	5.7	5.7	5.8
2014	5.7	5.9	5.8
2015	5.8	5.8	5.8
2016	5.9	6.1	5.9
2017	6.0	6.1	6.2
2018	6.1	6.1	6.2
2019	6.0	6.0	6.1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각 연도). 사회통합실태조사(삶에 대한 만족도).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02&conn\\_path=1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02&conn_path=12)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 주: 삶에 대한 만족감을 묻는 문항으로, 0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0점(매우 만족한다)으로 측정된 결과 값의 평균 점수임.

### 6-2-3. 주관적 계층의식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주관적 계층의식은 2019년 기준, 19세 이상 전체 연령의 평균은 10점 만점에 5.3점으로 2018년 대비 0.1점 감소하였다. 19-29세 역시 0.2점 감소한 5.2점, 30-39세 0.1점 감소한 5.4점으로 19세 이상 전체와 19-29세, 30-39세 모두 주관적 계층의식이 전년도 대비 낮아졌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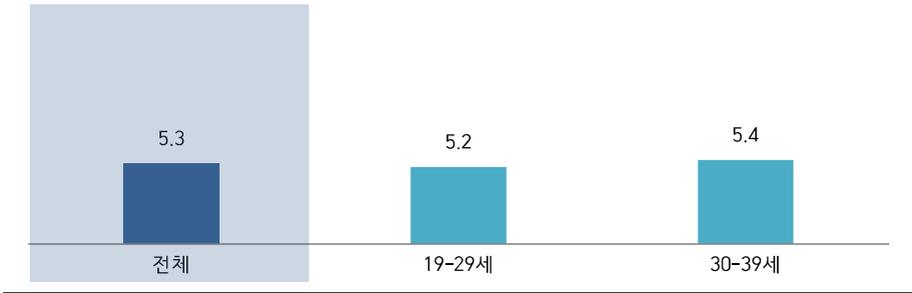


그림 III-128. 주관적 계층의식

표 III-138 연도별 주관적 계층의식 추이

(단위: 점)

연도	전체 (19세-)	19-29세	30-39세
2013	4.7	4.7	4.8
2014	4.8	4.8	5.0
2015	5.0	4.8	5.1
2016	5.1	5.1	5.3
2017	5.4	5.4	5.5
2018	5.4	5.4	5.5
2019	5.3	5.2	5.4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각 년도). 사회통합실태조사(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06&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06&conn_path=I2)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 주: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0점(매우 낮다)~10점(매우 높다)으로 측정된 결과 값의 평균 점수임.

### 6-2-4. 공정성에 대한 인식

만 19세 이상 응답자에게 교육 기회, 복지 혜택, 법 집행, 성별에 따른 대우 및 의무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2019년 조사 결과, 4점 만점 척도에서 교육 기회가 2.6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병역 의무 이행 2.5점이었다. 19-29세 역시 교육 기회가 2.6점으로 가장 높고, 복지 혜택, 병역 의무 이행이 2.5점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30-39세는 교육기회가 2.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성별에 따른 대우, 과제 및 납세, 복지 혜택, 병역 의무 이행이 2.4점으로 뒤를 이었다. 대체적으로 2.2점~2.6점대의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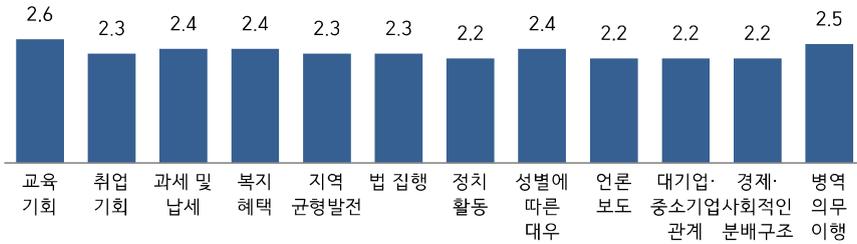


그림 III-129. 우리사회의 전반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

표 III-139 연도별 우리사회의 전반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구분	연도	전체 (19세-)	19-29세	30-39세	구분	연도	전체 (19세-)	19-29세	30-39세
교육 기회	2013	2.6	2.6	2.6	정치 활동	2013	2.1	2.1	2.1
	2014	2.7	2.6	2.6		2014	2.1	2.1	2.1
	2015	2.6	2.6	2.5		2015	2.2	2.2	2.1
	2016	2.6	2.5	2.5		2016	2.1	2.0	2.0
	2017	2.6	2.6	2.6		2017	2.1	2.1	2.1
	2018	2.7	2.6	2.7		2018	2.2	2.2	2.2
	2019	2.6	2.6	2.6		2019	2.2	2.2	2.2

구분	연도	전체 (19세-)	19-29세	30-39세	구분	연도	전체 (19세-)	19-29세	30-39세
취업 기회	2013	2.3	2.2	2.2	성별에 따른 대우	2013	2.5	2.4	2.4
	2014	2.3	2.3	2.3		2014	2.4	2.4	2.4
	2015	2.3	2.2	2.2		2015	2.4	2.4	2.3
	2016	2.2	2.2	2.1		2016	2.4	2.3	2.3
	2017	2.2	2.1	2.2		2017	2.4	2.3	2.4
	2018	2.3	2.2	2.3		2018	2.4	2.4	2.3
	2019	2.3	2.3	2.3		2019	2.4	2.4	2.4
과세 및 납세	2013	2.3	2.2	2.2	언론 보도	2013	2.3	2.2	2.2
	2014	2.2	2.2	2.2		2014	2.3	2.3	2.2
	2015	2.3	2.3	2.2		2015	2.3	2.3	2.2
	2016	2.3	2.2	2.2		2016	2.3	2.2	2.2
	2017	2.3	2.2	2.2		2017	2.3	2.2	2.2
	2018	2.3	2.4	2.3		2018	2.3	2.4	2.3
	2019	2.4	2.4	2.4		2019	2.2	2.3	2.2
복지 혜택	2013	2.4	2.4	2.3	대기업·중소기업 관계	2013	2.1	2.0	2.0
	2014	2.3	2.3	2.3		2014	2.1	2.1	2.0
	2015	2.4	2.4	2.3		2015	2.1	2.1	2.0
	2016	2.4	2.3	2.3		2016	2.1	2.1	2.0
	2017	2.4	2.4	2.3		2017	2.1	2.0	2.1
	2018	2.4	2.5	2.4		2018	2.1	2.1	2.1
	2019	2.4	2.5	2.4		2019	2.2	2.2	2.2
지역 균형발전	2013	2.3	2.2	2.2	경제·사회적인 분배구조	2013			
	2014	2.3	2.3	2.2		2014	2.1	2.1	2.1
	2015	2.3	2.3	2.2		2015	2.1	2.1	2.1
	2016	2.3	2.3	2.2		2016	2.1	2.1	2.0
	2017	2.3	2.3	2.3		2017	2.1	2.1	2.1
	2018	2.3	2.3	2.3		2018	2.2	2.2	2.1
	2019	2.3	2.4	2.3		2019	2.2	2.2	2.2
법 집행	2013	2.3	2.2	2.2	병역 의무 이행	2013			
	2014	2.3	2.2	2.3		2014			
	2015	2.3	2.3	2.2		2015	2.4	2.4	2.3
	2016	2.3	2.2	2.2		2016	2.4	2.4	2.3
	2017	2.3	2.2	2.2		2017	2.5	2.4	2.5
	2018	2.2	2.3	2.2		2018	2.5	2.5	2.5
	2019	2.3	2.3	2.3		2019	2.5	2.5	2.4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각 년도). 사회통합실태조사(우리 사회의 전반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3&conn\\_path=1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3&conn_path=12)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 주: 현재 우리 사회의 영역별 공정성을 묻는 문항으로, 1점(전혀 공정하지 않다)~4점(매우 공정하다)으로 측정된 결과 값의 평균 점수임.

### 6-2-5. 가치 항목별 선호도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는 일과 여가, 현실과 이상, 결과와 과정, 개인과 집단 등 상반되는 가치를 제시 후 보다 중시하는 가치를 선택하도록 하는 문항을 통해 청년들의 선호 가치를 파악하였다. 총 4개 항목 모두 7점 척도로 4점을 중간 지점으로 하며, 1점에서 3점까지는 왼쪽 가치(일, 현실, 결과, 개인)를, 5점에서 7점까지는 오른쪽 가치(여가, 이상, 과정, 집단)를 더 선호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일과 여가 중에서는 여가가 중요하다가 47.8%로 일이 중요하다(25.5%)보다 높게 나타났고, 현실과 이상 중에서는 현실이 중요하다가 68.8%로 이상이 중요하다(14.1%) 대비 높았다. 결과와 과정 중에서는 결과를 중요시한다는 응답이 55.2%로 과정을 중시한다는 응답 21.8% 대비 높았으며, 마지막으로 집단과 개인 중에서는 개인을 중시한다는 응답이 43.4%로 집단을 중시한다는 응답 22.4% 대비 높게 나타났다. 이전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동일하게 여가/현실/결과/개인을 중시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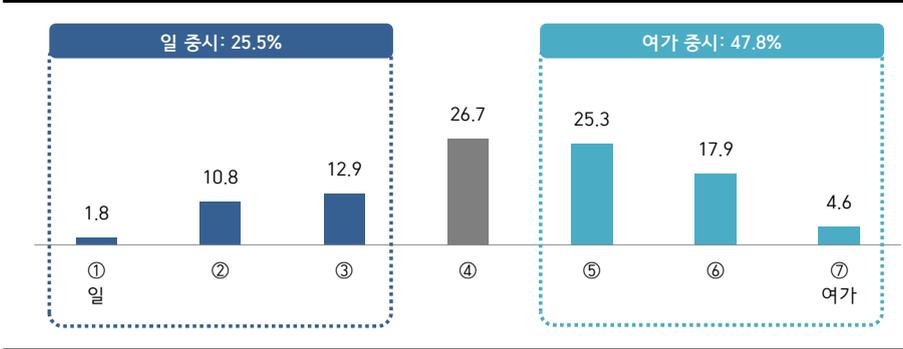


그림 III-130. 일과 여가 중 선호하는 가치

표 III-140 연도별 선호하는 가치(일 중시 vs 여가 중시)

(단위: %)

연도	← 일				여가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16	3.1	13.0	18.4	24.8	22.3	16.2	2.1	
2017	3.4	13.4	15.2	24.6	19.5	19.5	4.5	
2018	1.1	12.2	17.7	23.4	25.8	18.3	1.5	
2019	2.1	13.5	12.6	27.2	24.0	17.6	3.0	
2020	1.8	10.8	12.9	26.7	25.3	17.9	4.6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조사대상은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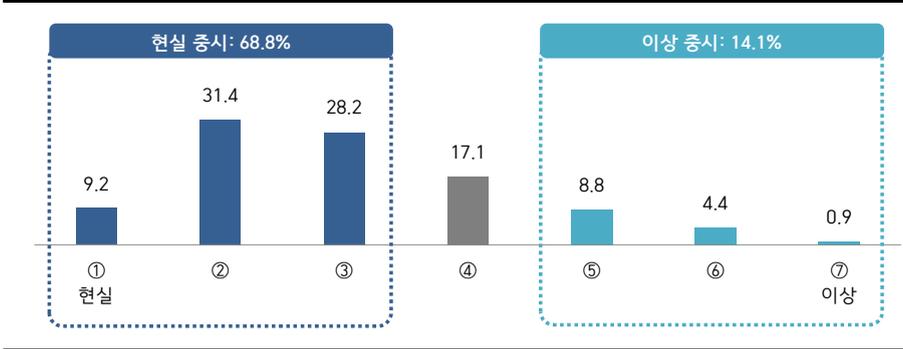


그림 III-131. 현실과 이상 중 선호하는 가치

표 III-141 연도별 선호하는 가치(현실 중시 vs 이상 중시)

(단위: %)

연도	← 현실				이상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16	12.4	28.8	26.8	18.0	9.6	4.0	0.4
2017	11.6	30.8	23.9	18.6	7.8	5.9	1.4
2018	6.5	20.7	34.2	22.2	11.8	4.4	0.2
2019	10.6	32.7	26.9	18.3	6.8	3.7	1.1
2020	9.2	31.4	28.2	17.1	8.8	4.4	0.9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조사대상은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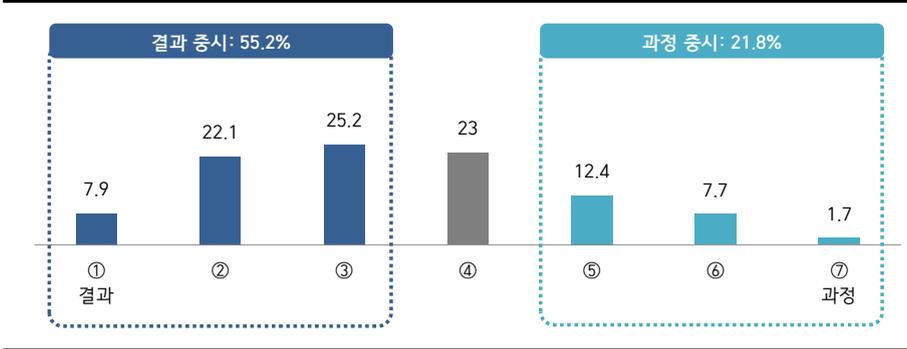


그림 III-132. 결과와 과정 중 선호하는 가치

표 III-142 연도별 선호하는 가치(결과 중시 vs 과정 중시)

(단위: %)

연도	← 결과				과정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16	9.7	21.1	22.8	25.3	14.5	5.4	1.2	
2017	8.7	22.9	20.1	24.7	12.0	9.0	2.6	
2018	4.0	17.4	29.8	26.7	17.6	4.3	0.2	
2019	8.7	24.1	21.1	25.5	12.0	6.9	1.8	
2020	7.9	22.1	25.2	23.0	12.4	7.7	1.7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2) 조사대상은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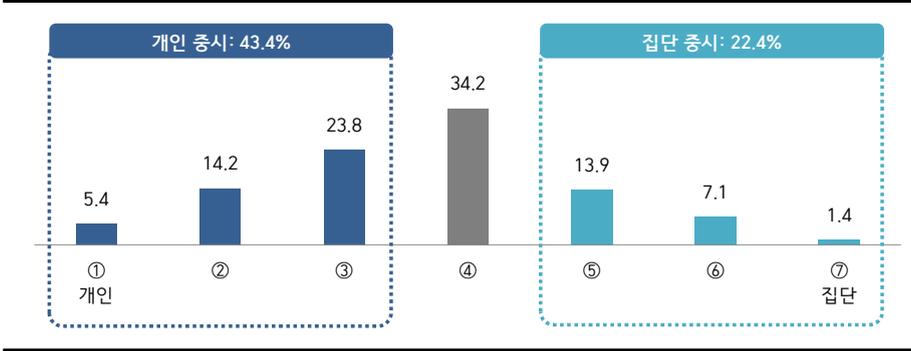


그림 III-133. 개인과 집단 중 선호하는 가치

표 III-143 선호하는 가치(개인 중시 vs 집단 중시)

(단위: %)

연도	← 개인				집단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16	6.3	13.0	22.1	37.4	14.6	5.6	1.0	
2017	4.0	14.0	20.3	36.5	13.3	9.5	2.4	
2018	1.8	12.2	24.5	36.5	17.7	6.1	1.2	
2019	3.8	14.5	22.5	36.6	13.4	7.4	1.9	
2020	5.4	14.2	23.8	34.2	13.9	7.1	1.4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조사대상은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 6-2-6.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청년들에게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을 물어본 결과, ‘재산·경제력’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응답 비율이 28.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화목한 가정(20.7%)’, ‘건강(12.9%)’ 등의 순이었다. 이전년도 결과와 동일하게 재산·경제력, 화목한 가정, 건강을 행복한 삶을 위한 주요 요건으로 생각하는 응답이 많았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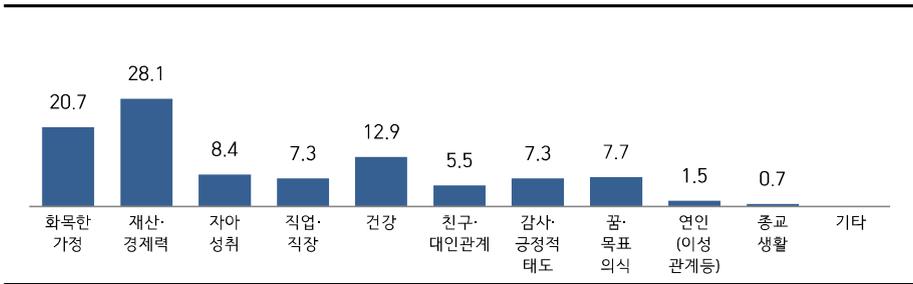


그림 III-134.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표 III-144 연도별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단위: %)

연도	화목한 가정	재산·경제력	자아 성취	직업·직장	건강	친구·대인관계	감사·긍정적 태도	꿈·목표 의식	연인 (이성 관계등)	종교 생활	기타
2013	27.9	23.2	15.0	7.1	6.9	4.6	8.9	3.3	2.4	0.7	-
2015	27.6	23.3	17.5	7.3	6.2	3.1	8.0	4.4	1.5	1.0	0.1
2016	27.1	24.3	12.3	11.4	8.0	5.0	4.9	4.9	1.4	0.6	-
2017	26.4	27.8	10.1	4.5	14.2	4.3	6.4	4.7	0.7	0.7	-
2018	17.6	36.5	10.4	9.0	11.0	5.3	4.9	3.3	1.5	0.6	-
2019	24.6	31.2	7.3	4.5	16.3	3.4	6.9	4.4	0.7	0.7	-
2020	20.7	28.1	8.4	7.3	12.9	5.5	7.3	7.7	1.5	0.7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2013년과 2015년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용역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조사대상은 19세~39세임.
- 2) 조사대상은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 3)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7) 관계와 참여

### 7-1-1. 사회적 관계망

통계청 사회조사 내 긴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율 결과를 통해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확인해 보았다. 2019년 조사 결과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 할 경우’,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모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13세 이상 전체 대비 19세-29세 및 30세-39세 청년층 연령대 전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 할 경우’는 19세-29세(85.9%)에서 가장 높고,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는 19세-29세(62.6%),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는 13세-18세(90.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는 2017년 대비 모든 연령층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감소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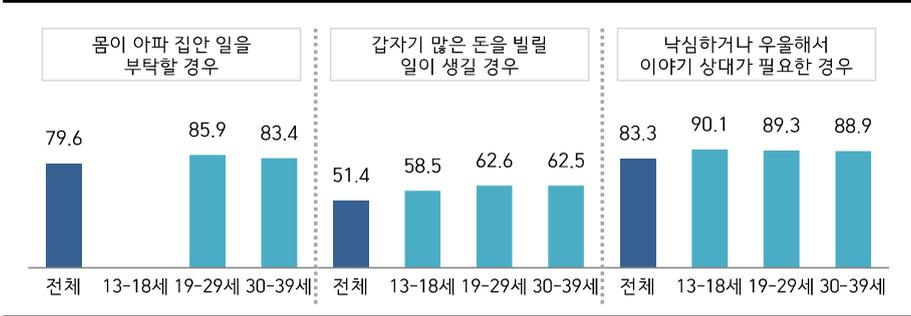


그림 III-135. 긴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율

표 III-145 연도별 긴급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율

(단위: %)

연도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전체 (13세-)	13-18세	19-29세	30-39세	전체 (13세-)	13-18세	19-29세	30-39세	전체 (13세-)	13-18세	19-29세	30-39세
2011	75.9	-	82.3	77.7	48.6	58.6	59.2	57.6	81.0	84.6	88.4	86.7
2013	74.7	-	80.1	78.0	47.0	57.8	59.1	55.2	81.1	88.0	88.0	86.2
2015	76.8	-	82.6	78.5	50.1	63.8	61.5	59.1	82.4	89.0	88.8	86.5
2017	78.4	-	84.7	82.0	51.9	59.6	65.2	62.9	83.6	88.8	89.1	88.8
2019	79.6	-	85.9	83.4	51.4	58.5	62.6	62.5	83.3	90.1	89.3	88.9

\* 출처: 통계청(각 년도). 사회조사(사회적 관계망 (13세 이상 인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41R&conn\\_path=1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41R&conn_path=12)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 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 7-1-2.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통계청 사회조사 내 부모 부양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청년층의 부모 부양에 견해를 분석해보았다. 13세 이상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2020년 기준으로 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 정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61.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22.0%)’,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12.9%)’ 등의 순이었다. ‘가족, 정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은 2018년 대비 13.3%p 증가하였다. 20-30대 청년층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20대 청년층 64.4%, 30대 청년층 63.7%는 ‘가족, 정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보다 가족, 정부, 사회의 공동책임에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2018년과 비교해 보면, ‘가족, 정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10대, 20대, 30대 청년층 전체에서 11%p 이상 증가하였으며,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1.5%p 이상 감소하였다. 이는 부모 부양 인식이 국가복지 차원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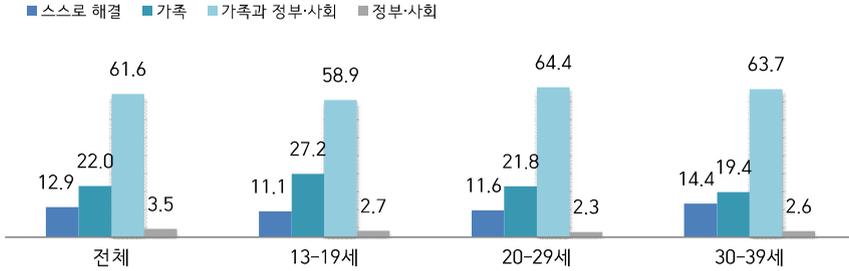


그림 III-136.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표 III-146 연도별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단위: %)

연도	전체 (13세-)				13~19세*				20~29세				30~39세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002	9.6	70.7	18.2	1.3	11.2	67.5	19.3	1.8	9.0	66.5	23.0	1.3	7.9	68.3	22.5	1.1
2006	7.8	63.4	26.4	2.3	8.4	58.0	31.3	2.2	6.7	61.4	29.9	1.9	6.0	60.9	31.3	1.8
2008	11.9	40.7	43.6	3.8	12.1	41.7	42.9	3.3	10.8	39.1	47.1	3.0	9.8	37.4	49.1	3.7
2010	12.7	36.0	47.4	3.9	11.8	42.0	43.2	2.9	10.8	37.3	49.5	2.4	11.2	32.4	52.8	3.7
2012	13.9	33.2	48.7	4.2	10.9	37.2	48.5	3.3	11.2	34.0	51.2	3.6	11.1	30.3	54.8	3.7
2014	16.6	31.7	47.3	4.4	13.7	38.9	43.7	3.6	13.8	33.6	49.6	3.1	14.2	28.7	52.7	4.2
2016	18.6	30.8	45.5	5.1	15.8	36.7	43.8	3.8	14.4	31.6	49.9	4.4	15.7	29.8	50.5	4.1
2018	19.4	26.7	48.3	5.7	17.5	32.5	45.8	4.2	19.2	27.4	49.4	4.0	17.3	25.6	52.5	4.7
2020	12.9	22.0	61.6	3.5	11.1	27.2	58.9	2.7	11.6	21.8	64.4	2.3	14.4	19.4	63.7	2.6

\* 출처: 통계청(각 연도d). 사회조사(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13세 이상 인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40R&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40R&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24일 인출.

- \* 주 1) ① 스스로 해결, ② 가족, ③ 가족과 정부·사회, ④ 정부·사회  
 2) 기타 항목을 제외한 결과임.  
 3) 2002년, 2006년, 2008년, 2010년은 13세-19세가 아닌 15세-19세임.

### 7-1-3. 가족관계 만족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가족관계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2020년 13세 이상 전체 평균 만족도는 58.7%로 2018년 평균 56.7% 보다 2%p 상승하였다. 청년 연령층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10대 76.9%, 20대 67.8%, 30대 66%로 2018년 대비 3%p 이상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족관계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60%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20대, 30대 청년층과는 달리 10대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2014년 70%대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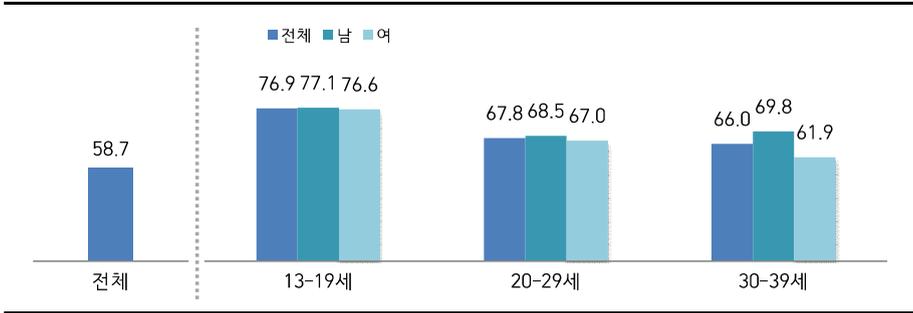


그림 III-137. 가족관계 만족도

표 III-147 연도별 가족관계 만족도 추이

(단위: %)

연도	전체 (13세~)	13~19세*			20~29세			30~39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06	50.3	54.6	-	-	53.5	-	-	56.3	-	-
2008	56.1	62.2	62.1	62.2	65.4	64.5	66.2	62.0	63.7	60.2
2010	54.8	62.7	61.3	64.3	64.8	64.6	65.1	59.7	61.7	57.6
2012	56.1	68.0	68.3	67.7	65.0	65.5	64.4	62.3	64.4	60.0
2014	55.2	70.8	70.4	71.1	63.6	63.6	63.6	61.5	63.4	59.5
2016	56.5	72.8	72.4	73.3	65.2	66.4	63.9	62.8	64.9	60.7
2018	56.7	74.2	73.4	75.2	64.7	67.3	62.0	62.6	65.2	59.7
2020	58.7	76.9	77.1	76.6	67.8	68.5	67.0	66.0	69.8	61.9

\* 출처: 통계청(각 년도d). 사회조사(가족관계 만족도(전반적인 가족관계, 13세 이상 인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139R&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139R&conn_path=I2)에서 2019년 7월 24일 인출.

\* 주 1)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감을 묻는 문항에 대해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에 응답한 값을 합산한 결과임.

2) 2002년, 2006년, 2008년, 2010년은 13세-19세가 아닌 15세-19세임. 7-1-4. 친한 친구 수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18-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상황 일 때 서로 기댈 수 있고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을 친한 친구가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이나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96.5%가 친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친구 수는 평균 4.9명으로 응답하였다.

친구 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5.1명으로 여자(4.7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고, 이전년도와 동일하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친구 수는 줄어드는(18-19세 5.3명, 20-24세 5.1명, 25-29세 4.9명, 30-34세 4.5명)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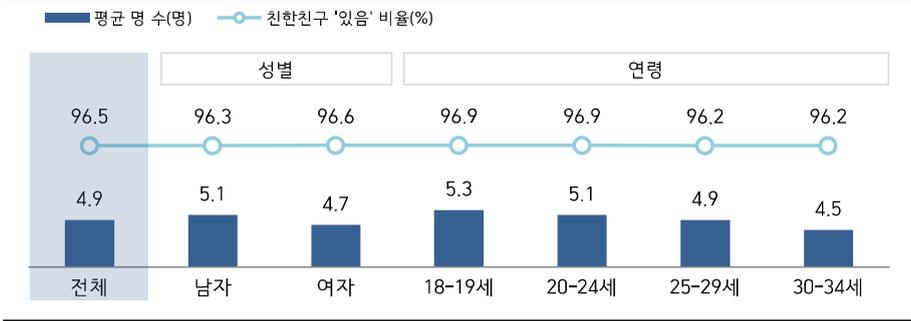


그림 III-138. 친한 친구 존재 여부 및 친한 친구 수

표 III-148 연도별 친한 친구 존재 여부 및 친한 친구 수

(단위: %, 명)

연도	구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8-19세	20-24세 (*19-29세)	25-29세
2016	%	91.3	90.6	92.1	94.6	-	93.4	88.1
	평균	3.2	3.5	2.9	3.7	-	3.2	2.9
2017	%	96.1	95.3	97.0	95.1	-	97.3	95.2
	평균	5.0	5.2	4.7	6.4	-	5.1	4.3
2018	%	92.1	91.3	93.0	91.5	-	92.9	91.6
	평균	4.7	4.8	4.6	4.8	-	5.0	4.4
2019	%	95.0	94.9	95.1	97.6	-	94.3	94.8
	평균	4.7	4.9	4.4	6.0	-	4.7	4.2
2020	%	96.5	96.3	96.6	-	96.9	96.9	96.2
	평균	4.9	5.1	4.7	-	5.3	5.1	4.9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친한 친구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
- 2)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3) 전체는 2020년 18-34세, 2016-2019년 15-39세 인구임.
- 4) 연령구분은 2020년 18-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2016-2019년 15-18세, 19-29세, 30-39세임.

### 7-1-5. 세대갈등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청년 관점에서 기성세대(40, 50대)에 대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리는 세대’,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세대’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노인세대(70세 이상)에 대해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세대’, ‘존경받지 못하는 세대’, ‘정부 지원을 더 많이 받는 세대’, ‘정부 지원을 더 많이 받는 세대’로 인식하는지를 물어보았다.

먼저 기성세대(40, 50대)에 대한 인식 응답 결과,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청년들의 65.5%가 동의(‘그렇다’ 56.6%+‘매우 그렇다’ 8.9%)하는 비율이 비동의(7.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31.6%가 비동의(‘전혀 그렇지 않다’ 3.6%+‘그렇지 않다’ 28.0%)하여 동의(26.5%)에 비해,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질문에 대해 비동의가 34.4%(‘전혀 그렇지 않다’ 4.2%+‘그렇지 않다’ 30.2%)로 동의(24.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청년들은 기성세대가 우리 사회의 핵심 세대라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며, 노력에 비해 큰 혜택을 받거나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노인세대에 대한 인식 응답 결과를 보면, 먼저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43.0%가 동의(‘그렇다’ 39.5%+‘매우 그렇다’ 3.5%)하고 있었으며,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36.9%가 동의(‘그렇다’ 34.4%+‘매우 그렇다’ 2.5%)하였다.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51.5%가 동의(‘그렇다’ 43.4%+‘매우 그렇다’ 8.1%),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35.3%가 동의(‘그렇다’ 31.2%+‘매우 그렇다’ 4.1%)하였다. 종합해보면 노인세대에 대해서는 지혜로움과 그만큼 존경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년들도 동의하는 비율

이 높았다. 다만, 정치적 영향력이 과대하고 특히 다른 세대에 비해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 것은 여러 노년층 복지 제도의 시행 대비 부족한 청년 지원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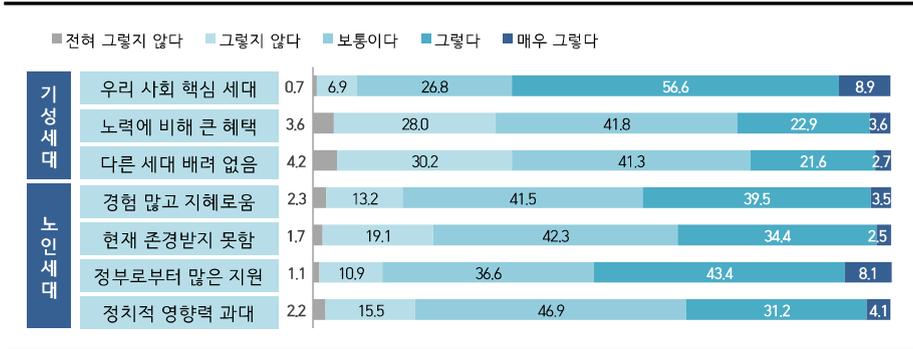


그림 III-139. 세대 갈등

표 III-149 연도별 세대 갈등 추이

(단위: %)

연도	구분	기성세대에 대한 생각			노인에 대한 생각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핵심 세대이다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2016	전혀 그렇지 않다	0.6	2.4	1.8	2.2	1.1	1.3	4.0
	그렇지 않다	9.7	26.5	29.8	18.5	20.0	21.5	23.3
	보통이다	31.9	42.7	39.0	41.0	38.5	42.5	43.5
	그렇다	50.3	25.6	26.1	33.4	36.7	31.1	24.6
	매우 그렇다	7.5	2.8	3.3	5.0	3.7	3.6	4.5
2017	전혀 그렇지 않다	1.1	3.8	3.1	2.7	1.4	2.4	2.8
	그렇지 않다	12.1	32.3	32.2	15.7	19.9	19.0	17.3
	보통이다	29.1	41.5	43.3	36.9	41.3	44.2	47.1
	그렇다	49.9	20.8	18.7	40.3	33.7	30.8	27.2
	매우 그렇다	7.7	1.7	2.8	4.4	3.6	3.6	5.6
2018	전혀 그렇지 않다	0.2	1.5	1.9	0.8	0.7	1.3	0.9
	그렇지 않다	7.3	23.2	23.9	15.3	20.6	14.6	14.6
	보통이다	24.7	40.9	42.6	35.4	44.6	36.4	49.2
	그렇다	61.1	29.4	27.9	43.6	31.8	41.0	31.9
	매우 그렇다	6.7	5.1	3.7	5.0	2.3	6.7	3.3
2019	전혀 그렇지 않다	0.8	3.1	2.3	2.1	0.9	1.4	2.1
	그렇지 않다	7.9	29.8	28.7	14.3	21.4	15.7	18.7
	보통이다	26.5	40.7	43.6	38.3	41.0	40.1	44.2
	그렇다	57.7	23.6	22.5	41.4	33.5	38.4	30.3
	매우 그렇다	7.2	2.8	3.0	3.9	3.2	4.5	4.8
2020	전혀 그렇지 않다	0.7	3.6	4.2	2.3	1.7	1.1	2.2
	그렇지 않다	6.9	28.0	30.2	13.2	19.1	10.9	15.5
	보통이다	26.8	41.8	41.3	41.5	42.3	36.6	46.9
	그렇다	56.6	22.9	21.6	39.5	34.4	43.4	31.2
	매우 그렇다	8.9	3.6	2.7	3.5	2.5	8.1	4.1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2002년, 2006년, 2008년, 2010년은 13세-19세가 아닌 15세-19세임.

### 7-2-1. 자원봉사 참여

청년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19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은 10대(13~19세) 76.1%, 20대 9.9%, 30대 9.8%이며 2017년 대비 모두 참여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횟수 및 시간을 살펴보면 봉사활동이 학교 내신 성적과 연결되어 있는 10대의 경우는 참여율이 가장 높지만, 횟수(6.9회)나 시간(22.0시간)에 있어서는 20대가 가장 많다. 30대의 경우는 2013년 이후부터 경험 비율, 횟수 및 시간이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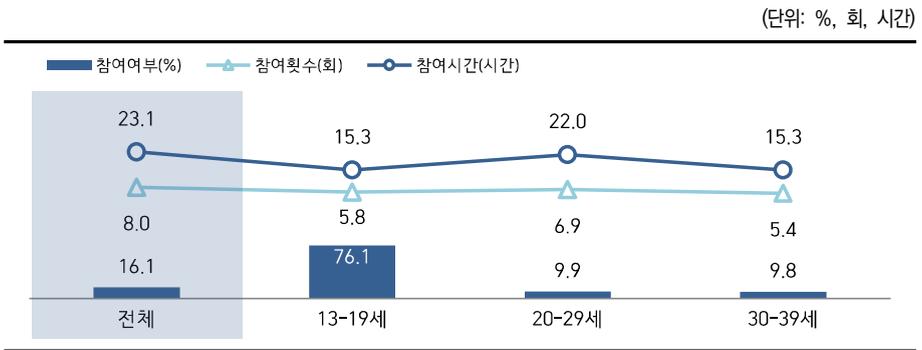


그림 III-140.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참여횟수, 참여시간

표 III-150 연도별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참여횟수, 참여시간 추이

(단위: %, 회, 시간)

연도	전체 (13세-)			13-19세			20-29세			30-39세		
	여부	횟수	시간	여부	횟수	시간	여부	횟수	시간	여부	횟수	시간
2011	19.8	7.1	-	77.7	4.3	-	13.2	8.1	-	11.2	8.7	-
2013	19.9	7.6	25.1	80.1	5.4	16.4	13.7	7.4	28.7	11.2	7.6	27.3
2015	18.2	7.8	24.4	76.6	5.4	16.0	11.6	8.3	30.6	10.6	6.9	20.8
2017	17.8	8.3	25.6	78.4	5.7	16.6	11.5	7.7	30.0	10.7	6.5	20.5
2019	16.1	8.0	23.1	76.1	5.8	15.3	9.9	6.9	22.0	9.8	5.4	15.3

\* 출처 1)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통계청(각 년도d). 사회조사(자원봉사활동(지난 1년간, 복수응답, 13세 이상 인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181R&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181R&conn_path=I2)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2) 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 통계청(각 년도d). 사회조사(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지난 1년간, 복수응답, 13세 이상 인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182R&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182R&conn_path=I2)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3)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 통계청(각 년도d). 사회조사(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지난 1년간, 복수응답, 13세 이상 인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183R&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183R&conn_path=I2)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 \* 주 1)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 지난 1년 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2) 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 지난 1년 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인구 1인당 연간 평균 참여횟수임.  
 3)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 지난 1년 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인구 1인당 연간 평균 참여시간임.

## 7-2-2. 기부활동

청년들의 기부활동을 살펴본 결과, 2019년 기준 13세 이상 기부율은 25.6%로 기부 방법 중에서는 현금(24.0%)이 물품(4.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2011년 이래로 현금, 물품을 포함한 전체 기부율 모두 감소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30-39세의 기부율(29.1%)이 13-19세(15.1%) 및 20-29세(17.6%)에 비해 높았다. 전체 기부율과 마찬가지로 2011년 이후부터는 청년 전연령대에서 기부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13-19세의 기부율이 2011년 41.1%에서 2019년 15.1%로 크게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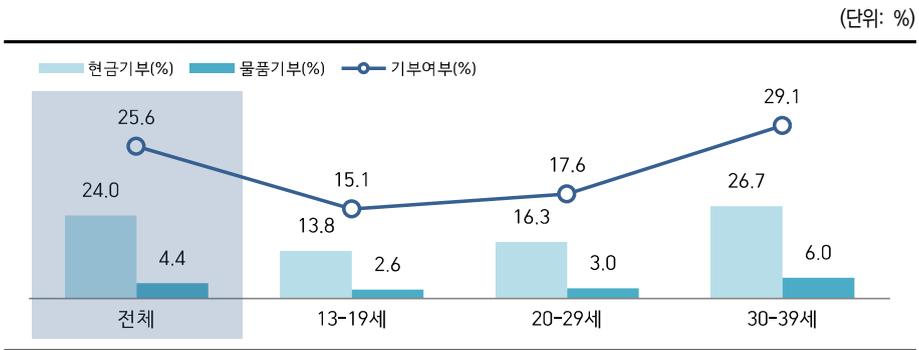


그림 III-141. 기부(현금기부, 물품기부) 여부

표 III-151 연도별 기부(현금기부, 물품기부) 여부

(단위: %)

연도	전체 (13세-)			13-19세			20-29세			30-39세		
	기부	현금	물품	기부	현금	물품	기부	현금	물품	기부	현금	물품
2011	36.4	34.8	8.5	41.1	39.6	4.0	25.5	23.7	5.2	40.2	38.3	10.2
2013	34.6	32.5	5.9	30.1	28.2	4.7	24.8	23.1	3.3	38.0	35.6	6.7
2015	29.9	27.4	6.2	31.0	28.4	5.7	20.8	18.8	3.9	32.2	28.7	7.6
2017	26.7	24.3	6.2	20.9	18.8	5.1	20.7	18.8	4.2	31.2	28.1	7.6
2019	25.6	24.0	4.4	15.1	13.8	2.6	17.6	16.3	3.0	29.1	26.7	6.0

\* 출처 1) 기부 여부: 통계청(각 년도d). 사회조사(기부 여부 및 기부하지 않은 이유(지난 1년간, 13세 이상 인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62R&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62R&conn_path=I2)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2) 현금기부 여부: 통계청(각 년도d). 사회조사(현금기부 인구(지난 1년간, 복수응답, 13세 이상 인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81R&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81R&conn_path=I2)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3) 물품기부 여부: 통계청(각 년도d). 사회조사(물품기부 인구(지난 1년간, 복수응답, 13세 이상 인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101R&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101R&conn_path=I2) (2011-2015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90R&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90R&conn_path=I3) (2017-2019년)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 \* 주 1) 기부 여부: 지난 1년 간 기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 2) 현금기부 여부: 지난 1년 간 현금을 기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 3) 물품기부 여부: 지난 1년 간 물품을 기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 7-2-3. 단체참여

단체 활동(친목 및 사교단체, 종교단체, 취미·스포츠 및 여가활동 단체, 시민사회 단체, 학술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 지역사회모임, 기타 등의 단체)에 지난 1년간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9년 13세 이상 전연령 기준 66.1%로 2017년 49.7%에 비해 16.4%p 증가하였다. 13세-19세 48.9%, 20세-29세 60.8%, 30세-39세 67.0%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단체참여율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작년 대비 단체참여율이 증가하였다(13세-19세 +15.4%p, 20세-29세 +18.9%p, 30-39세 +18.9p). 13세 이상 전체 기준 대비 13세-19세, 20세-29세는 참여율이 낮은 편이고 30세-39세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꾸준히 단체 활동 참여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13세-19세 (22.0%→48.9%)의 참여율이 2배 이상 증가하여 10대들의 단체 참여 활동이 10여 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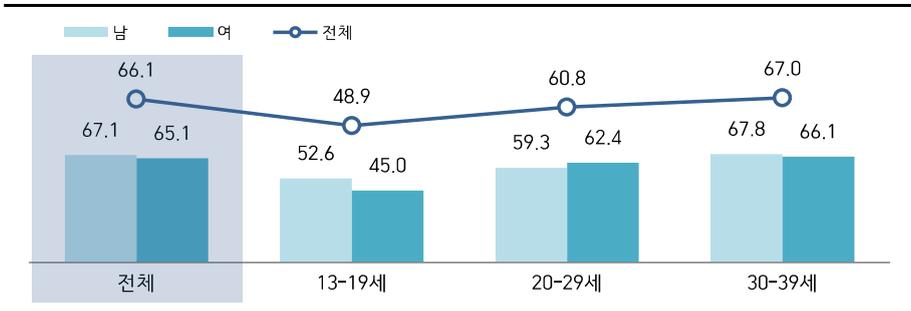


그림 III-142. 단체참여

표 III-152 연도별 단체참여 추이

(단위: %)

연도	전체 (13세-)			13-19세			20-29세			30-39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09	39.8	42.0	37.6	22.0	21.4	22.5	35.6	34.1	37.0	40.3	43.9	36.5
2011	46.6	47.8	45.4	32.4	34.8	29.7	44.1	43.5	44.7	46.2	49.1	43.2
2013	50.1	52.4	47.9	35.1	35.0	35.2	48.0	48.8	47.2	49.2	52.6	45.7
2015	48.9	50.5	47.3	31.9	32.4	31.3	44.9	46.4	43.3	48.1	50.6	45.5
2017	49.7	50.7	48.7	33.5	33.6	33.4	41.9	42.1	41.6	48.1	49.4	46.6
2019	66.1	67.1	65.1	48.9	52.6	45.0	60.8	59.3	62.4	67.0	67.8	66.1

\* 출처: 통계청(각 연도d). 사회조사(단체 참여(지난 1년간, 복수응답, 13세 이상 인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52R&conn\\_path=1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52R&conn_path=12) (2009-2017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48R&conn\\_path=1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48R&conn_path=13) (2019년)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 주: 지난 1년 간 친목 및 사교단체, 종교단체, 취미·스포츠 및 여가활동 단체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 지역사회모임, 기타 등의 단체에 1개 이상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 7-2-4. 투표율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등 우리나라의 주요한 선거 투표율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참정권 의식을 살펴보았다.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선거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청년 연령대에서 투표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연령대에서의 투표율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먼저, 대통령선거 투표율의 경우, 20대 전반 연령의 투표율이 2002년 57.9%에서 2017년 77.1%로 크게 증가하였고, 20대 후반도 같은 기간 55.2%에서 74.9%로 큰 증가폭을 보였다. 30대의 대선 투표율도 증가하였으나 20대의 증가폭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에 있어서도 대통령선거 결과와 마찬가지로 20대 청년층 투표율이 비교적 크게 상승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0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20대 전반의 투표율은 39.9%에 불과하였으나 가장 최근의 국회의원 선거인 2016년에는 55.3%로 증가하였고 20대 후반 역시 같은 기간 34.2%에서 49.8%로 증가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30대 전반은 45.1%에서 48.9%로, 30대 후반은 56.5%에서 52.0%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3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20대와 달리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며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지방 선거의 경우 2014년도 이전까지는 20대 연령 대비 30대의 투표율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으나 가장 최근의 2018년 지방 선거의 경우에는 2014년 지방 선거에 비해 30대 전반의 투표율이 약 8.1%p, 30대 후반의 투표율도 약 5.5%p 상승하여 다른 선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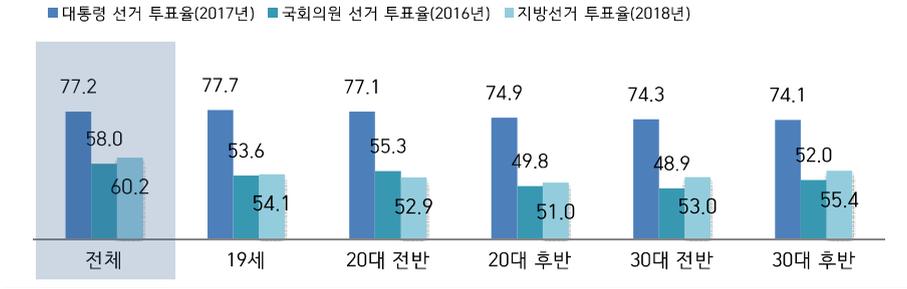


그림 III-143. 선거 투표율

표 III-153 연도별 선거 투표율 추이

(단위: %)

선거	연도	전체	19세	20대 전반	20대 후반	30대 전반	30대 후반
대통령 선거	2002	70.8	-	57.9	55.2	64.3	70.8
	2007	63.0	54.2	51.1	42.9	51.3	58.5
	2012	75.8	74.0	71.1	65.7	67.7	72.3
	2017	77.2	77.7	77.1	74.9	74.3	74.1
국회의원 선거	2000	57.2	-	39.9	34.2	45.1	56.5
	2004	60.6	-	46.0	43.3	53.2	59.8
	2008	46.1	33.2	32.9	24.2	31.0	39.4
	2012	54.2	47.2	45.4	37.9	41.8	49.1
	2016	58.0	53.6	55.3	49.8	48.9	52.0
지방선거	1998	52.7	-	37.8	30.5	40.3	51.8
	2002	48.9	-	36.3	27.0	34.5	44.8
	2006	51.6	37.9	38.3	29.6	37.0	45.6
	2010	54.5	47.4	45.8	37.1	41.9	50.0
	2014	56.8	52.2	51.4	45.1	45.1	49.9
	2018	60.2	54.1	52.9	51.0	53.0	55.4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각 연도).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국가지표체계 웹사이트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68>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 주 1) 투표율=(투표자수/선거인수) × 100

2) 각 선거의 전체 투표율은 실제 투표율이고, 연령별 투표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후 실시하는 투표율 표본조사의 결과임.

### 7-2-5. 정부 및 공공기관 신뢰도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청년들이 인식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파악해보았다. 신뢰도는 각 기관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지에 대한 평균을 계산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019년 결과를 살펴보면, 19세 이상 전체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2.4점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중앙정부 부처(2.3점), 법원(2.2점), 국회(1.9점)의 순이다. 전체적으로 큰 변동 없이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관으로 국회가 가장 신뢰도가 낮은 기관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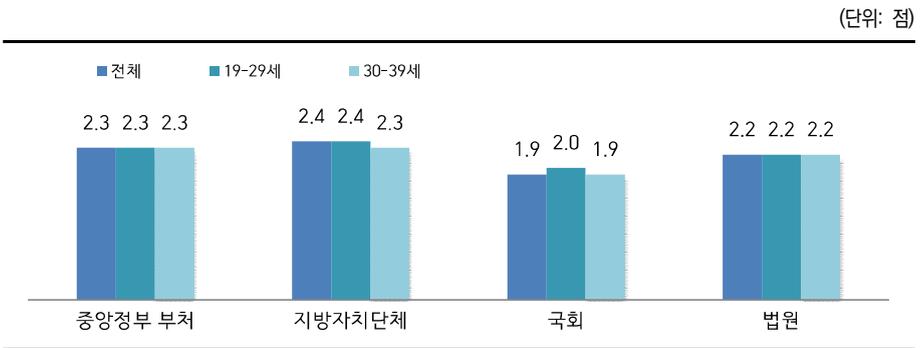


그림 III-144. 정부 및 국회 신뢰도

표 III-154 연도별 정부 및 국회 신뢰도 추이

(단위: 점)

연도	중앙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전체 (19세~)	19-29세	30-39세									
2013	2.2	2.1	2.1	2.4	2.3	2.3	1.9	1.9	1.8	2.3	2.3	2.2
2014	2.2	2.1	2.1	2.3	2.2	2.2	1.9	1.9	1.8	2.2	2.2	2.2
2015	2.2	2.1	2.1	2.3	2.3	2.2	1.8	1.8	1.8	2.2	2.2	2.1
2016	2.0	1.9	1.9	2.3	2.2	2.2	1.7	1.6	1.6	2.1	2.0	1.9
2017	2.3	2.3	2.3	2.4	2.3	2.3	1.8	1.8	1.9	2.2	2.2	2.2
2018	2.4	2.4	2.4	2.5	2.4	2.4	1.9	1.9	1.9	2.2	2.2	2.1
2019	2.3	2.3	2.3	2.4	2.4	2.3	1.9	2.0	1.9	2.2	2.2	2.2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각 년도), 사회통합실태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8&conn\\_path=1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8&conn_path=13) 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 주: 각 기관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지에 대해 '전혀 믿지 않는다'(1점) ~ '매우 믿는다'(4점)라고 응답한 값의 평균임.

### 7-2-6. 의견 표명 경험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 착용/부착’, ‘(온,오프라인) 서명 참여’, ‘집회 및 시위 참여’, ‘항의 전화하기’의 5개의 의견 표명 방법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 경험을 알아보았다.

지난 1년 동안 한번이라도 참여(1년에 1~2회+한 달에 1~2회+일주일에 1~2회+거의 매일)한 경험이 있는 의견 표출 방법은 ‘서명에 참여하기’가 29.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26.4%), ‘개인 의견을 표현을 위해 뱃지/팔찌/리본 등을 착용/부착’(17.6%) 등의 순이었다.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와 ‘항의전화하기’ 경험 비율은 10% 미만으로 다른 의견 표명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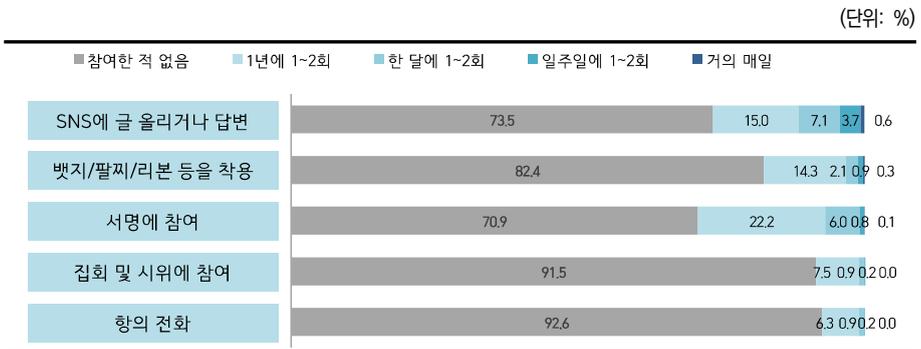


그림 III-145. 의견 표명 경험

표 III-155 의견 표명 경험

(단위: %)

연도	구분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2019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73.8	13.4	7.8	3.9	1.2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벤티/팔찌/리본 등을 착용/부착	81.7	12.7	2.9	1.6	1.1
	서명에 참여하기	66.5	25.0	6.3	2.0	0.3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91.1	6.4	1.8	0.6	0.1
	항의전화하기	89.9	7.7	1.7	0.4	0.2
	사회·정치 문제와 관련된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 찾아보기	51.9	14.7	17.2	12.5	3.6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42.0	19.0	27.0	10.3	1.7
	정치인이나 공무원(민원) 또는 언론기관에 접촉하기	86.5	9.4	3.2	0.8	0.2
	사회·정치적 이유로 특정 상품 을 불매하거나 구매하기	72.2	16.1	6.5	3.3	1.9
	정당에 가입하거나 기부하기	89.1	7.8	2.4	0.5	0.2
	청년참여기구 활동하기	91.0	6.0	2.5	0.4	0.0
2020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73.5	15.0	7.1	3.7	0.6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벤티/팔찌/리본 등을 착용/부착	82.4	14.3	2.1	0.9	0.3
	서명에 참여하기	70.9	22.2	6.0	0.8	0.1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91.5	7.5	0.9	0.2	0.0
	항의전화하기	92.6	6.3	0.9	0.2	0.0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조사대상은 2020년 18세-34세, 2019년 15세-39세 인구임.

2) 청년층이 실제 의견 표명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지를 묻는 문항으로, 2019년 신규문항임. 기존 의견 표명 의향을 묻는 문항에서 2019년도에는 '사회·정치 문제와 관련된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 찾아보기,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정치인이나 공무원(민원) 또는 언론기관에 접촉하기, 사회·정치적 이유로 특정 상품을 불매하거나 구매하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거나 기부하기, 청년참여기구(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회 등) 활동하기' 항목이 추가됨.

### 7-2-7. 의견 표명 의향

이번에는 5개 의견 표명 방식('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 착용/부착', '(온,오프라인) 서명 참여', '집회 및 시위 참여', '항의 전화하기') 각각에 대해 앞으로 참여할 생각이 얼마나 있는지를 통해 청년들의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 의향을 알아보았다.

향후 '참여하겠다(아마도 참여함+확실히 참여함)'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의견 표명 방법은 '서명에 참여하기'로 18.9%('아마도 참여함' 16.7%+'확실히 참여함' 2.2%)였으며, 그 다음으로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가 14.0%('아마도 참여함' 12.8%+'확실히 참여함' 1.2%),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뱃지/팔찌/리본 등을 착용/부착' 11.9%('아마도 참여함' 10.7%+'확실히 참여함'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견 표명 경험과 마찬가지로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와 '항의전화하기'의 향후 참여하겠다는 의향 비율은 각각 5.3%, 5.2%로 다른 의견 표명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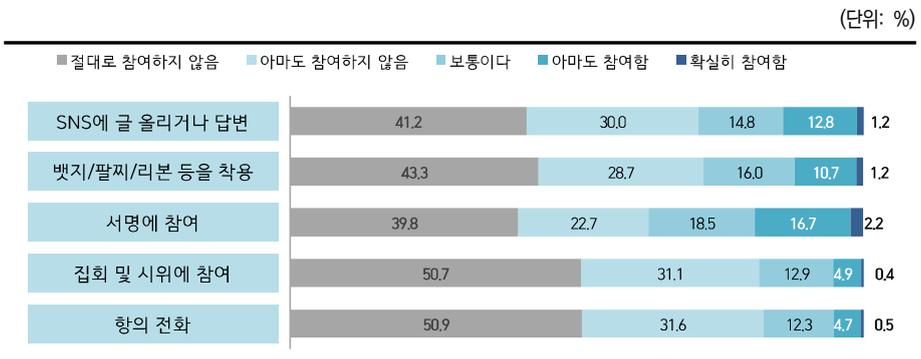


그림 III-146. 의견 표명 의향

표 III-156 연도별 의견 표명 의향

(단위: %)

연도	구분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임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2016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14.3	24.4	27.8	30.5	3.0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벤티/팔찌/리본 등을 착용/부착	16.5	25.2	25.3	28.4	4.6
	서명에 참여하기	14.9	19.9	31.0	28.2	6.0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24.4	33.5	29.5	11.2	1.5
	항의전화하기	-	-	-	-	-
2017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12.9	27.5	28.0	28.1	3.5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벤티/팔찌/리본 등을 착용/부착	13.0	28.0	29.0	25.9	4.1
	서명에 참여하기	10.4	22.7	28.4	32.9	5.6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17.0	34.1	29.4	17.5	2.1
	항의전화하기	22.2	34.5	25.7	14.8	2.8
2018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9.1	24.0	28.8	35.1	3.0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벤티/팔찌/리본 등을 착용/부착	13.4	20.2	29.9	32.4	4.1
	서명에 참여하기	12.8	22.1	29.6	31.1	4.3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18.3	27.6	32.4	20.0	1.8
	항의전화하기	19.9	30.3	32.7	15.4	1.7
2019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30.4	32.2	20.6	14.9	1.9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벤티/팔찌/리본 등을 착용/부착	34.2	32.1	19.1	12.2	2.5
	서명에 참여하기	27.3	27.3	23.3	18.8	3.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41.6	36.9	14.8	5.9	0.8
	항의전화하기	43.7	35.0	14.6	5.9	0.8
	사회·정치 문제와 관련된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 찾아보기	24.9	22.6	23.2	23.7	5.7

연도	구분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임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2020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41.2	30.0	14.8	12.8	1.2
	개인 의견 표현을 위해 벤티/팔찌/리본 등을 착용/부착	43.3	28.7	16.0	10.7	1.2
	서명에 참여하기	39.8	22.7	18.5	16.7	2.2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50.7	31.1	12.9	4.9	0.4
	항의전화하기	50.9	31.6	12.3	4.7	0.5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조사대상은 2020년 18-34세, 2016-2019년 15-39세 인구임.
- 2) '항의전화하기'는 2017년에, '사회·정치 문제와 관련된 기사, 블로그, 방송, 유튜브 찾아보기,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정치인이나 공무원(민원) 또는 언론기관에 접촉하기, 사회·정치적 이유로 특정 상품을 불매하거나 구매하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거나 기부하기, 청년참여기구(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회 등) 활동하기, 투표에 참여하기'는 2019년에 새로 추가된 항목임.
- 3)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7-2-8. 정치적 효능감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이해 및 참여 능력이 있는지’, ‘가치관과 신념으로 다른 사람을 포용 및 이해 할 수 있는지’, ‘선거 및 캠페인 참여를 통해 정치 발전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총 3개 문항을 통해 18-34세 청년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파악해 보았다.

먼저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능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44.8%(‘그렇다’ 40.8%+‘매우 그렇다’ 4.5%)로 ‘능력이 없다’는 응답 비율 20.5%(‘전혀 그렇지 않다’ 5.3%+‘그렇지 않다’ 15.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47.9%로 여자(41.3%)에 비해 긍정 응답 비율이 높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18-19세 32.0%, 20-24세 40.1%, 25-29세 45.1%, 30-34세 53.2%) 긍정 응답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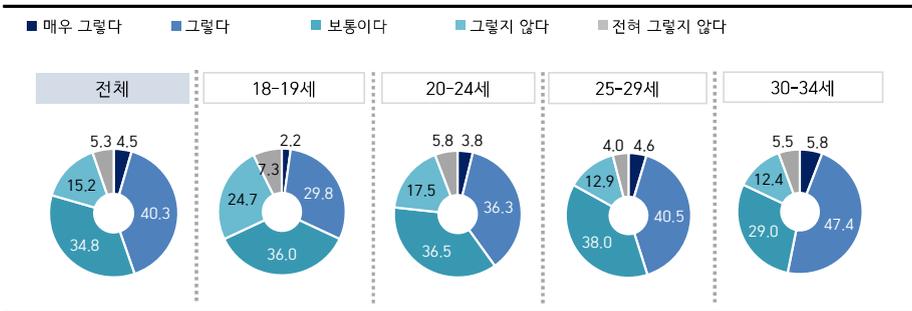


그림 III-147. 정치적 효능감\_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표 III-157 연도별 정치적 효능감 추이\_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8-19세	20-24세 (*19-29세)	25-29세	30-34세 (*30-39세)
2017	전혀 그렇지 않다	2.6	2.9	2.2	5.7	-	2.6		1.6
	그렇지 않다	16.9	16.0	17.9	28.8	-	16.4		13.8
	보통이다	42.0	39.4	44.9	41.8	-	42.5		41.6
	그렇다	33.8	35.5	32.0	22.4	-	34.2		36.9
	매우 그렇다	4.6	6.2	2.9	1.3	-	4.2		6.1
2018	전혀 그렇지 않다	4.4	4.2	4.6	8.1	-	4.6		3.0
	그렇지 않다	20.8	19.8	21.8	28.5	-	20.0		19.1
	보통이다	35.8	34.7	37.0	39.1	-	36.9		33.9
	그렇다	37.4	39.0	35.7	24.1	-	36.8		42.0
	매우 그렇다	1.7	2.3	1.0	0.2	-	1.8		2.0
2019	전혀 그렇지 않다	5.9	5.7	6.1	14.2	-	4.6		4.8
	그렇지 않다	19.3	18.4	20.3	25.8	-	19.8		16.9
	보통이다	37.7	36.0	39.7	36.9	-	39.9		35.8
	그렇다	32.8	34.9	30.5	21.7	-	32.3		36.6
	매우 그렇다	4.2	4.9	3.5	1.4	-	3.4		5.9
2020	전혀 그렇지 않다	5.3	5.0	5.6	-	7.3	5.8	4.0	5.5
	그렇지 않다	15.2	13.9	16.8	-	24.7	17.5	12.9	12.4
	보통이다	34.8	33.3	36.4	-	36.0	36.5	38.0	29.0
	그렇다	40.3	42.3	38.0	-	29.8	36.3	40.5	47.4
	매우 그렇다	4.5	5.6	3.3	-	2.2	3.8	4.6	5.8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전체는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3)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49.5% (‘그렇다’ 43.2%+‘매우 그렇다’ 6.3%)로 ‘포용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응답 비율 14.4%(‘전혀 그렇지 않다’ 4.0%+‘그렇지 않다’ 10.4%)에 비해 높아 가치관이 다른 타인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은 남자(51.3%)가 여자(47.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18-19세 40.1%, 20-24세 46.8%, 25-29세 49.9%, 30-34세 55.0%) 타인에 대한 포용과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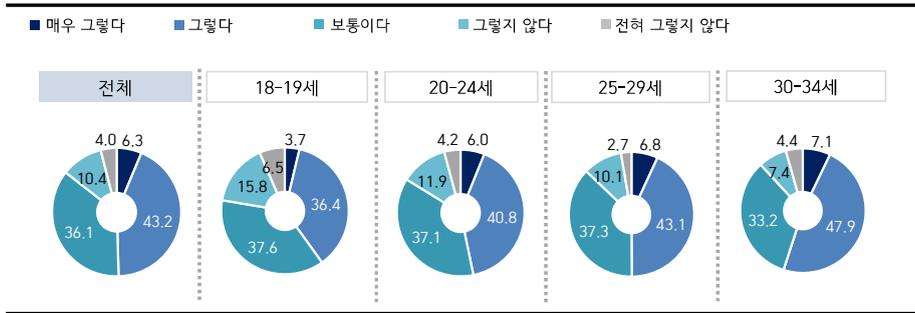


그림 III-148. 정치적 효능감\_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표 III-158 연도별 정치적 효능감 추이\_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8-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0-39세)
							(*19-29세)		
2017	전혀 그렇지 않다	1.7	1.8	1.5	1.4	-	1.9		1.6
	그렇지 않다	12.2	11.9	12.6	17.8	-	11.8		11.0
	보통이다	40.9	39.1	42.9	47.4	-	38.9		41.0
	그렇다	40.0	41.3	38.6	30.9	-	42.7		40.1
	매우 그렇다	5.2	5.9	4.4	2.4	-	4.7		6.4
2018	전혀 그렇지 않다	3.8	3.8	3.8	4.4	-	2.8		4.4
	그렇지 않다	15.3	14.0	16.7	16.9	-	16.7		13.6
	보통이다	40.3	39.9	40.7	43.2	-	41.7		38.2
	그렇다	38.0	39.4	36.4	33.0	-	36.1		41.1
	매우 그렇다	2.7	2.9	2.5	2.5	-	2.7		2.7
2019	전혀 그렇지 않다	5.0	5.1	4.9	11.3	-	3.4		4.8
	그렇지 않다	14.4	13.3	15.7	16.5	-	15.4		12.8
	보통이다	40.6	38.9	42.5	38.6	-	42.5		39.3
	그렇다	35.4	37.6	32.8	29.9	-	34.7		37.6
	매우 그렇다	4.5	5.0	4.0	3.6	-	3.9		5.4
2020	전혀 그렇지 않다	4.0	4.2	3.8	-	6.5	4.2	2.7	4.4
	그렇지 않다	10.4	9.7	11.2	-	15.8	11.9	10.1	7.4
	보통이다	36.1	34.8	37.6	-	37.6	37.1	37.3	33.2
	그렇다	43.2	43.9	42.3	-	36.4	40.8	43.1	47.9
	매우 그렇다	6.3	7.4	5.1	-	3.7	6.0	6.8	7.1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전체는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3)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마지막으로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37.6%(‘그렇다’ 32.7%+‘매우 그렇다’ 4.9%)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응답 비율 24.3%(‘전혀 그렇지 않다’ 7.6%+‘그렇지 않다’ 16.7%)에 비해 높아 정치·사회 참여로 인해 실제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특히 30-34세의 ‘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40.8%)이 타 연령대에 비해 정치적 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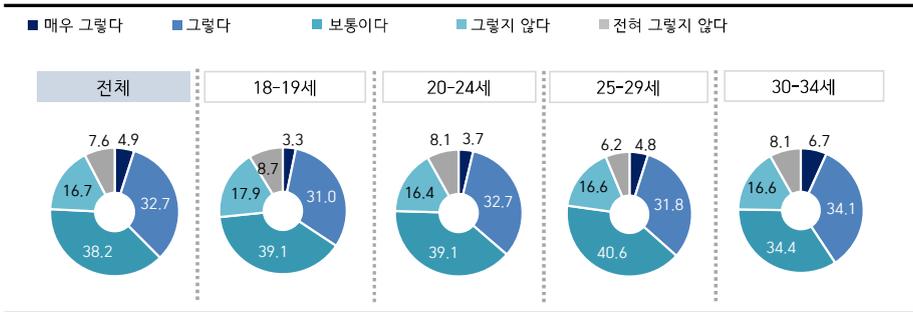


그림 Ⅲ-149. 정치적 효능감\_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III-159 연도별 정치적 효능감 추이\_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위: %)

연도	구분	전체 (18-34세, *15-39세)	성별		연령				
			남자	여자	*15-18세	18-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19-29세)		
2017	전혀 그렇지 않다	3.8	4.4	3.2	4.5	-	3.7		3.8
	그렇지 않다	19.8	20.3	19.3	21.3	-	20.1		19.1
	보통이다	43.4	41.9	45.1	45.2	-	42.0		44.3
	그렇다	29.7	29.7	29.6	25.9	-	30.5		29.9
	매우 그렇다	3.3	3.6	2.9	3.1	-	3.6		2.9
2018	전혀 그렇지 않다	4.7	4.6	4.8	6.4	-	4.4		4.5
	그렇지 않다	20.6	19.5	21.7	22.3	-	20.9		19.8
	보통이다	43.7	43.9	43.4	48.3	-	43.4		42.5
	그렇다	27.3	27.8	26.8	21.5	-	28.3		28.3
	매우 그렇다	3.7	4.1	3.3	1.5	-	3.1		4.9
2019	전혀 그렇지 않다	7.8	8.0	7.6	14.8	-	7.0		6.5
	그렇지 않다	23.6	23.7	23.5	25.2	-	23.2		23.5
	보통이다	39.4	38.9	40.1	34.6	-	41.7		38.6
	그렇다	25.0	25.1	25.0	22.2	-	24.9		26.0
	매우 그렇다	4.1	4.3	3.9	3.2	-	3.1		5.4
2020	전혀 그렇지 않다	7.6	7.6	7.5	-	8.7	8.1	6.2	8.1
	그렇지 않다	16.7	16.0	17.4	-	17.9	16.4	16.6	16.6
	보통이다	38.2	38.7	37.7	-	39.1	39.1	40.6	34.4
	그렇다	32.7	32.9	32.4	-	31.0	32.7	31.8	34.1
	매우 그렇다	4.9	4.7	5.1	-	3.3	3.7	4.8	6.7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연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2017년부터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전체는 2020년 18세-34세, 2016년-2019년 15세-39세 인구임.

3) 연령구분은 2020년 18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34세, 2016년-2019년 15세-18세, 19세-29세, 30세-39세임.

#### 4. 2020년 부가설문조사: 주거

##### 1) 자가 소유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본인 명의의 집이 꼭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청년 각각에게 상세 이유를 물어보았다. 우선 ‘그렇지 않다’(자가 소유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이유를 물어본 결과, ‘높은 집값 때문에’라는 응답 비율이 42.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가 보유 여부보다는 거주지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27.8%), ‘자가마련을 위해 현재의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20.5%) 등의 순이었다. ‘높은 집값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여자(46.9%)가 남자(39.2%)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세-34세(51.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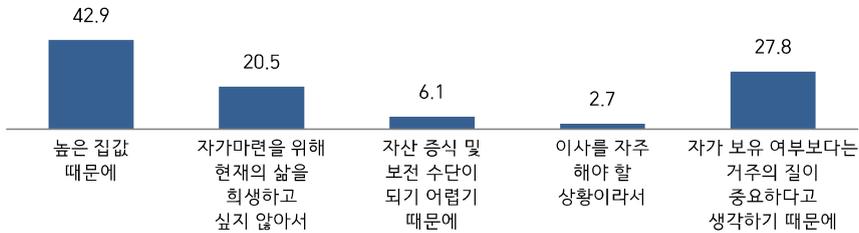


그림 III-150. 자가 소유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표 III-160 자가 소유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가구형태		
		남자	여자	18-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1인가구	부부가구	부모+ 청년가구
높은 집값 때문에	42.9	39.2	46.9	46.0	40.1	38.3	51.1	36.4	44.2	44.5
자가마련을 위해 현재의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20.5	20.6	20.5	17.9	19.0	26.6	15.6	27.4	19.9	18.6
자산 증식 및 보전 수단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6.1	8.5	3.6	6.3	4.9	7.3	6.2	6.4	5.8	6.2
이사를 자주 해야 할 상황이라서	2.7	2.8	2.5	1.3	2.9	3.1	2.3	4.4	0.0	2.7
자가 보유 여부보다는 거주지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7.8	28.9	26.6	28.5	33.1	24.6	24.8	25.5	30.1	28.0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금년도(본 연구)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는 꼭 있어야 한다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응답자만 대상으로 함

## 2) 자가 소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이번에는 ‘본인 명의의 집이 꼭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자가 소유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이유를 살펴본 결과 ‘이사하지 않고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어서’라는 응답 비율이 27.5%, ‘자산 증식 및 보전을 위해서’ (26.1%),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23.1%) 등의 순이었다.

‘이사하지 않고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어서’ 의견은 여자(30.4%)가 남자(25.1%)보다 높았고, 부부가구 형태(34.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산 증식 및 보전을 위해서’ 의견은 남자(27.1%)가 여자(24.7%)보다 높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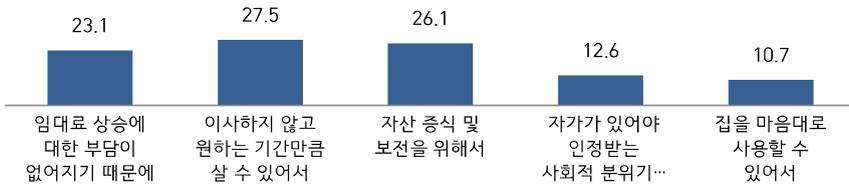


그림 III-151. 자가 소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표 III-161 자가 소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가구형태		
		남자	여자	18-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1인가구	부부가구	부모+청년가구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23.1	23.5	22.7	20.9	21.8	23.4	24.6	25.7	21.9	22.9
이사하지 않고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어서	27.5	25.1	30.4	22.9	25.9	29.1	28.5	25.0	34.4	25.5
자산 증식 및 보전을 위해서	26.1	27.3	24.7	22.7	25.9	26.4	26.8	23.5	26.2	26.7
자가가 있어야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12.6	13.3	11.7	16.9	14.5	11.3	11.1	13.8	9.2	13.6
집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10.7	10.8	10.5	16.5	11.9	9.8	9.0	11.9	8.3	11.2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금년도(본 연구)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문항에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지만 대상으로 함

### 3) 주택 점유형태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비동거 및 독립 상태인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의 점유형태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전세’ 점유형태로 거주 중이라는 응답 비율이 36.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증금이 있는 월세’(33.1%), ‘자가’(22.5%)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가 및 전세 유형은 남자가 여자보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 유형은 여자가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자가와 전세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율이 높은 반면, 보증금이 있는 월세 점유형태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1인가구 형태에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인가구 형태의 경우 보증금이 있는 월세 형태로 살고 있다는 비율이 58.2%로 매우 높은 반면, 부부가구 형태의 경우에는 전세(45.9%), 자가(37.3%) 2개 형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주거형태와 더불어 연령과 혼인 등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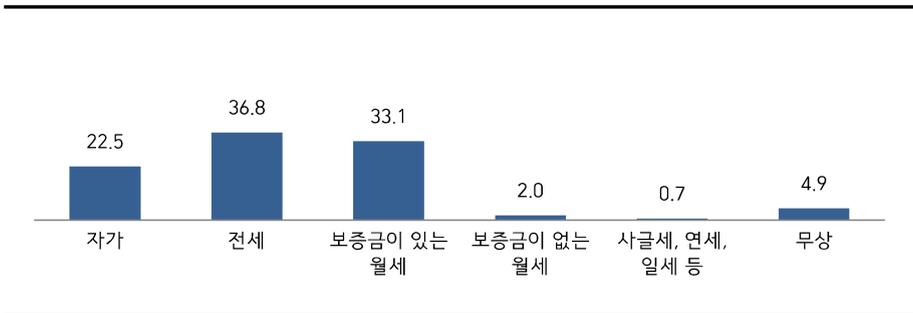


그림 III-152. 주택 점유형태

표 III-162 주택 점유형태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가구형태		
		남자	여자	18-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1인가구	부부가구	부모+청년가구
자가	22.5	18.8	26.1	0.0	8.0	17.5	30.2	5.0	37.3	-
전세	36.8	34.4	39.2	7.4	16.6	35.2	44.4	26.0	45.9	-
보증금이 있는 월세	33.1	38.2	28.1	71.0	64.7	38.0	20.0	58.2	11.8	-
보증금이 없는 월세	2.0	3.0	1.1	13.0	4.2	2.1	1.0	3.8	0.6	-
사글세, 연세, 일세 등	0.7	0.8	0.6	8.7	1.4	0.6	0.2	1.2	0.2	-
무상	4.9	4.9	5.0	0.0	5.1	6.6	4.1	5.8	4.2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금년도(본 연구)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2) 부모 동거 여부 문항에서 '비동거', '독립' 상태인 응답자만 대상으로 질문함

#### 4) 주거 비용 마련 방법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형태가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인 청년을 대상으로 자가의 경우 주택 구입비, 전·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전부 본인 스스로' 마련했다는 응답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부 본인 스스로 마련했다와 전부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마련해 주었다는 응답에서 20대 중반을 기점으로 응답률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었으며, 1인가구 형태의 경우 본인 스스로 마련했다는 응답 비율이 52.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부부가구 형태의 경우 본인 스스로(36.8%) 및 일부 도움을 받았다(부모님 등이 일부 도움 28.6%, 본인이 일부 도움 26.4%)는 응답 비율이 고르게 높아, 집값 상승과 경제적 여력 부족 등으로 인해 기혼자 주택 마련에는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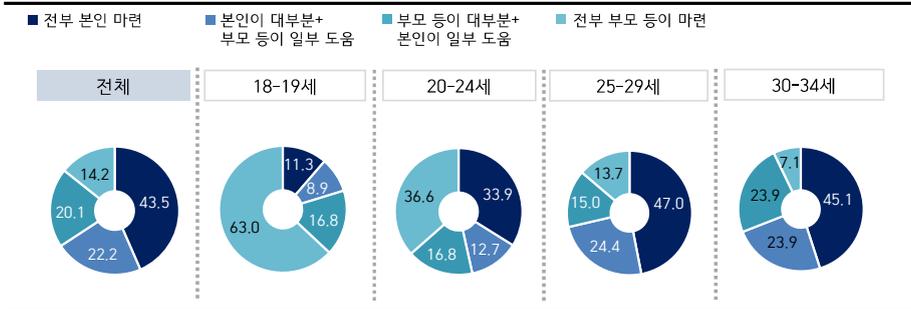


그림 III-153. 주거 비용 마련 방법

표 III-163 주거 비용 마련 방법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가구형태		
		남자	여자	18-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1인가구	부부가구	부모+청년가구
전부 본인 스스로	43.5	49.5	37.8	11.3	33.9	47.0	45.1	52.0	36.8	-
본인이 대부분 마련하고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일부 도움	22.2	19.3	24.9	8.9	12.7	24.4	23.9	14.0	28.6	-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대부분 마련해주시고 본인이 일부 도움	20.1	18.3	21.9	16.8	16.8	15.0	23.9	12.2	26.4	-
전부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마련해 주심	14.2	13.0	15.4	63.0	36.6	13.7	7.1	21.8	8.2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금년도(본 연구)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2) 부모 동거 여부 문항에서 '비동거', '독립' 상태인 응답자만 대상으로 질문함

## 5) 월세 비용 마련 방법

이번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형태가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인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주거비용과 마찬가지로 ‘전부 본인 스스로’ 마련했다는 응답이 7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부 본인 스스로 마련했다는 응답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부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마련해 주었다는 응답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1인가구, 부부가구 형태 모두 본인 스스로 마련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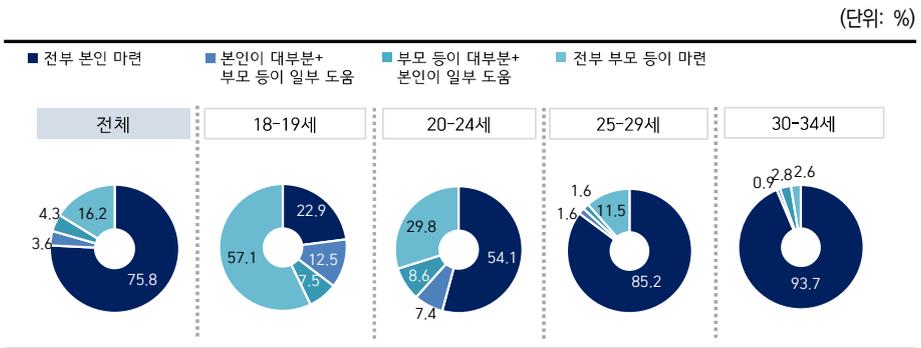


그림 III-154. 월세 비용 마련 방법

표 III-164 월세 비용 마련 방법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가구형태		
		남자	여자	18-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1인가구	부부가구	부모+청년가구
전부 본인 스스로	75.8	77.3	73.8	22.9	54.1	85.2	93.7	72.1	91.5	-
본인이 대부분 마련하고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일부 도움	3.6	2.2	5.6	12.5	7.4	1.6	0.9	4.4	0.6	-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대부분 마련해주시고 본인이 일부 도움	4.3	5.6	2.5	7.5	8.6	1.6	2.8	5.3	0.0	-
전부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마련해 주심	16.2	14.9	18.0	57.1	29.8	11.5	2.6	18.2	7.9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금년도(본 연구)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2) 부모 동거 여부 문항에서 '비동거', '독립' 상태인 응답자만 대상으로 질문함

## 6) 현재 집을 선택한 주된 이유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선택한 주된 이유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물어보았다. 1순위 기준으로 ‘주택위치’ 때문에 거주 중인 집을 선택했다는 응답 비율이 33.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거비용’(28.1%), ‘주택유형’(16.7%) 등의 순이었고 1,2,3순위를 모두 합산한 응답 결과 역시 1순위 기준 응답 순위와 동일 순위(1위 주택위치 77.3%, 2위 주거비용 66.9%, 3위 주택유형 5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위치를 고려한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비용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30세-34세(31.1%) 다음으로 18-19세(26.7%)에서 높게 나타나 자가, 전세 비중이 높은 30대 이상 청년들과 경제력이 부족한 18-19세 청년들의 주거비용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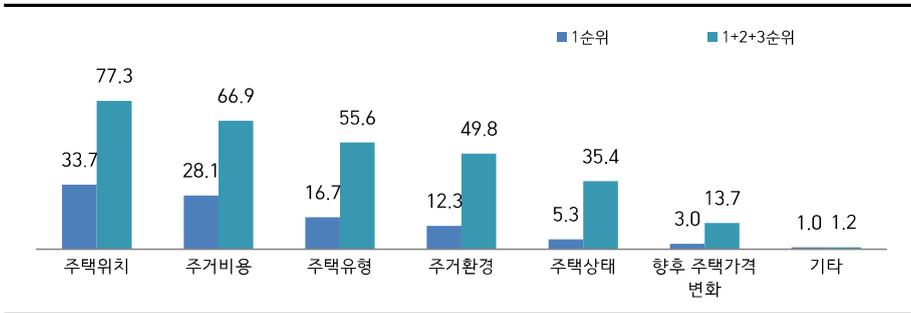


그림 III-155. 현재 집을 선택한 주된 이유

표 III-165 현재 집을 선택한 주된 이유(1순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가구형태		
		남자	여자	18-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1인가구	부부가구	부모+청년가구
주택위치 (직장/학교와의 거리, 부모님 집과의 거리)	33.7	34.5	32.8	48.2	40.9	35.8	29.9	38.4	29.7	-
주거비용 (매매가격, 전월세가격 등)	28.1	29.5	26.7	26.7	22.9	25.5	31.1	26.8	29.2	-
주택유형 (아파트, 다세대/빌라, 원룸(다가구), 오피스텔 등)	16.7	14.7	18.6	11.9	13.9	16.5	17.7	12.2	20.4	-
주거환경 (의료/문화/상업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성, 교통, 교육환경 등)	12.3	11.7	12.8	13.2	12.4	12.9	11.9	11.9	12.6	-
주택상태 (주택규모, 노후도, 방의 개수, 인테리어 등)	5.3	4.9	5.7	0.0	7.4	5.4	4.8	7.1	3.8	-
향후 주택 가격 변화 (미래 자산가치 상승 기대)	3.0	3.6	2.4	0.0	2.4	2.8	3.3	2.7	3.2	-
기타	1.0	0.9	1.0	0.0	0.0	1.1	1.3	0.9	1.1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금년도(본 연구)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2) 부모 동거 여부 문항에서 '비동거', '독립' 상태인 응답자만 대상으로 질문함

현재 집을 선택한 주된 이유 1,2,3순위 합산 결과에서도 주택위치를 고려한다는 응답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향후 주택 가격 변화를 고려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III-166 현재 집을 선택한 주된 이유(1+2+3순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가구형태		
		남자	여자	18-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1인가구	부부가구	부모+청년가구
주택위치 (직장/학교와의 거리, 부모님 집과의 거리)	77.3	77.4	77.3	90.9	79.6	78.1	75.8	79.0	75.9	-
주거비용 (매매가격, 전월세가격 등)	66.9	70.1	63.8	71.1	64.8	68.5	66.5	69.5	64.8	-
주택유형 (아파트, 다세대/빌라, 원룸(다가구), 오피스텔 등)	55.6	53.0	58.0	47.9	57.6	55.5	55.3	52.1	58.5	-
주거환경 (의료/문화/상업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성, 교통, 교육환경 등)	49.8	47.9	51.6	56.1	52.2	50.8	48.4	48.2	51.2	-
주택상태 (주택규모, 노후도, 방의 개수, 인테리어 등)	35.4	36.0	34.8	28.2	36.9	35.5	35.2	39.8	31.7	-
향후 주택 가격 변화 (미래 자산가치 상승 기대)	13.7	14.6	12.9	5.7	8.9	10.6	17.1	10.5	16.4	-
기타	1.2	0.9	1.5	0.0	0.0	1.1	1.7	0.9	1.5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금년도(본 연구)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2) 부모 동거 여부 문항에서 '비동거', '독립' 상태인 응답자만 대상으로 질문함

## 7)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의 의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의 의미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물어보았다. 1순위 기준으로 집은 ‘가족과 함께 하는 공간’이라는 응답 비율이 26.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휴식의 공간’(24.5%), ‘안전하게 보호받는 공간’(23.4%) 등의 순이었다. 1,2,3순위를 모두 합산한 응답은 ‘안전하게 보호받는 공간’ 응답 비율이 74.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휴식의 공간’(73.4%), ‘가족과 함께 하는 공간’(55.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순위 차이는 있지만 상위 3개 응답은 동일하였다.

1순위 응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부가구 형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집은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1인가구 형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집이 휴식의 공간으로서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연령과 가구구성원에 따른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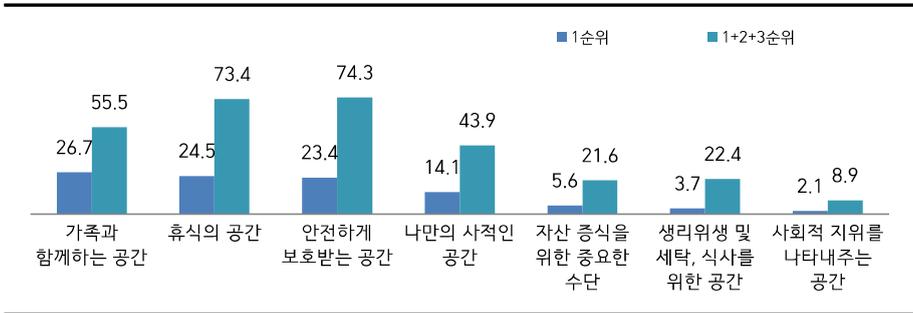


그림 III-156.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의 의미

표 III-167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의 의미(1순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가구형태		
		남자	여자	18-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1인가구	부부가구	부모+청년가구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	26.7	23.1	30.1	8.4	17.0	18.7	34.5	7.1	43.2	-
휴식의 공간	24.5	25.1	23.8	29.7	26.5	28.1	21.6	30.5	19.3	-
안전하게 보호받는 공간	23.4	22.1	24.7	25.3	22.8	25.5	22.4	26.2	21.1	-
나만의 사적인 공간	14.1	18.3	10.0	26.0	22.9	17.0	9.5	24.7	5.1	-
자산 증식을 위한 중요한 수단	5.6	6.4	4.9	5.8	4.2	4.8	6.5	5.0	6.1	-
생리위생 및 세탁, 식사를 위한 공간	3.7	2.9	4.4	4.0	5.4	4.1	2.9	4.7	2.8	-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주는 공간	2.1	2.1	2.1	0.7	1.2	1.9	2.5	1.8	2.4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금년도(본 연구)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부모 동거 여부 문항에서 '비동거', '독립' 상태인 응답자만 대상으로 질문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의 의미 1,2,3순위 합산 결과에서는 18-19세 청년층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공간(79.6%), 휴식의 공간(84.6%), 나만의 사적인 공간(74.6%)라는 응답 비율이 다른 연령대 대비 높았으며, 30-34세 청년층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65.9%), 자산 증식을 위한 중요한 수단(26.0%)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형태별로는 1순위 응답과 마찬가지로 부부가구 형태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응답 비율이, 1인가구 형태에서는 나만의 사적인 공간으로서 집이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168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의 의미(1+2+3순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가구형태		
		남자	여자	18-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1인가구	부부가구	부모+청년가구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	55.5	51.2	59.7	20.2	37.8	48.0	65.9	24.4	81.7	-
휴식의 공간	73.4	75.3	71.5	84.6	78.0	77.9	69.2	78.9	68.7	-
안전하게 보호받는 공간	74.3	72.2	76.5	79.6	73.7	74.1	74.5	75.4	73.4	-
나만의 사적인 공간	43.9	48.5	39.4	74.6	61.0	52.6	33.0	69.3	22.4	-
자산 증식을 위한 중요한 수단	21.6	21.5	21.6	7.4	14.8	18.0	26.0	15.7	26.5	-
생리위생 및 세탁, 식사를 위한 공간	22.4	23.4	21.5	32.8	26.8	22.5	20.8	28.3	17.5	-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주는 공간	8.9	8.0	9.8	0.7	7.9	6.9	10.6	8.0	9.7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금년도(본 연구)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2) 부모 동거 여부 문항에서 '비동거', '독립' 상태인 응답자만 대상으로 질문함

## 8) 향후 주거 마련에 있어 가장 고려해야 하는 사항

마지막으로 향후 주거 마련에 있어서 가장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물어보았다. 1순위 기준으로 주거 마련 시 ‘매매가격, 전월세가격 등’ 주거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34.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택위치’(21.0%), ‘주거환경’(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2,3순위를 모두 합산한 응답 결과 역시 1순위 기준 응답 순위와 동일 순위(1위 주거비용 66.9%, 2위 주택위치 61.6%, 3위 주거환경 58.4%)인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 기준 응답을 성별로 살펴보면 주택유형과 주거비용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주택위치와 주거환경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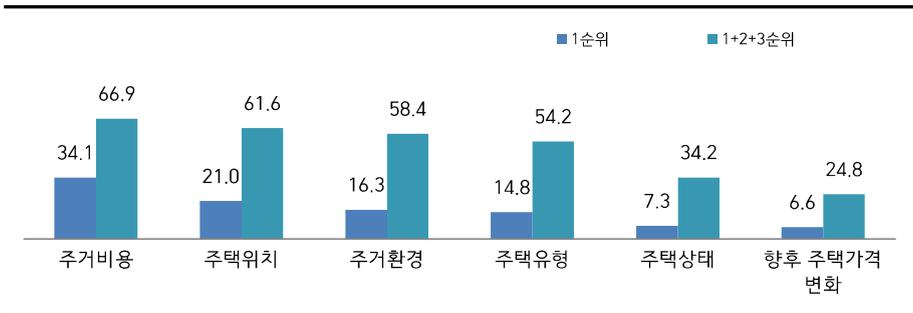


그림 III-157. 향후 주거 마련에 있어 가장 고려해야 하는 사항

표 III-169 향후 주거 마련에 있어 가장 고려해야 하는 사항(1순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가구형태		
		남자	여자	18-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1인가구	부부가구	부모+청년가구
주택위치 (직장/학교와의 거리, 부모님 집과의 거리)	34.1	35.7	32.5	21.9	34.8	38.5	31.8	33.2	34.9	-
주거비용 (매매가격, 전월세가격 등)	21.0	19.7	22.2	31.9	17.6	19.9	22.1	23.2	19.1	-
주택유형 (아파트, 다세대/빌라, 원룸(다가구), 오피스텔 등)	16.3	14.2	18.3	11.1	17.7	14.6	17.0	14.9	17.4	-
주거환경 (의료/문화/상업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성, 교통, 교육환경 등)	14.8	16.2	13.4	14.0	17.1	14.1	14.6	13.9	15.6	-
주택상태 (주택규모, 노후도, 방의 개수, 인테리어 등)	7.3	6.8	7.7	11.1	9.5	7.0	6.6	7.6	7.0	-
향후 주택 가격 변화 (미래 자산가치 상승 기대)	6.6	7.5	5.7	10.0	3.3	5.9	7.8	7.1	6.1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금년도(본 연구)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부모 동거 여부 문항에서 '비동거', '독립' 상태인 응답자만 대상으로 질문함

주거 마련 시 고려 사항 1,2,3순위 합산 결과에서도 주거비용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남자가, 주거환경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여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집을 선택한 이유 조사 결과(1위 주택위치, 2위 주거비용, 3위 주택유형)와 비교했을 때, 향후 주거 마련 시에는 가격이나 환경 등을 더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70 향후 주거 마련에 있어 가장 고려해야 하는 사항(1+2+3순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가구형태		
		남자	여자	18-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1인 가구	부부 가구	부모+청년 가구
주택위치 (직장/학교와의 거리, 부모님 집과의 거리)	66.9	68.3	65.4	58.2	67.3	71.2	64.5	68.5	65.4	-
주거비용 (매매가격, 전월세가격 등)	61.6	60.8	62.3	70.6	61.2	63.8	60.1	64.1	59.5	-
주택유형 (아파트, 다세대/빌라, 원룸(다가구), 오피스텔 등)	58.4	55.9	60.9	57.7	57.3	56.8	59.7	56.6	60.0	-
주거환경 (의료/문화/상업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성, 교통, 교육환경 등)	54.2	56.2	52.2	48.8	55.7	53.0	54.6	50.7	57.1	-
주택상태 (주택규모, 노후도, 방의 개수, 인테리어 등)	34.2	32.8	35.6	39.0	38.0	34.2	33.0	37.7	31.2	-
향후 주택 가격 변화 (미래 자산가치 상승 기대)	24.8	26.0	23.6	25.7	20.6	20.9	28.1	22.4	26.8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금년도(본 연구)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2) 부모 동거 여부 문항에서 '비동거', '독립' 상태인 응답자만 대상으로 질문함

### 9) 청년 주거 정책 인지도

부모 비동거 및 독립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공급, 주거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대학기숙사 공급 및 기숙사비 지원 정책, 4가지의 주거 관련 정책별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물어 보았다. 그 결과 ‘청년 주택공급 정책’을 안다는 응답 비율이 68.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44.7%), ‘대학기숙사 공급 및 기숙사비 지원 정책’(38.0%), ‘청년 주거환경 개선 정책’(21.7%)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대학기숙사 공급 및 기숙사비 지원 정책을 제외하면 연령대가 높을 수록 정책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특히 주택공급 정책, 주거비 지원 정책 등 직접적인 지원의 경우에는 특히 경제활동 연령대인 20대 후반부터 인지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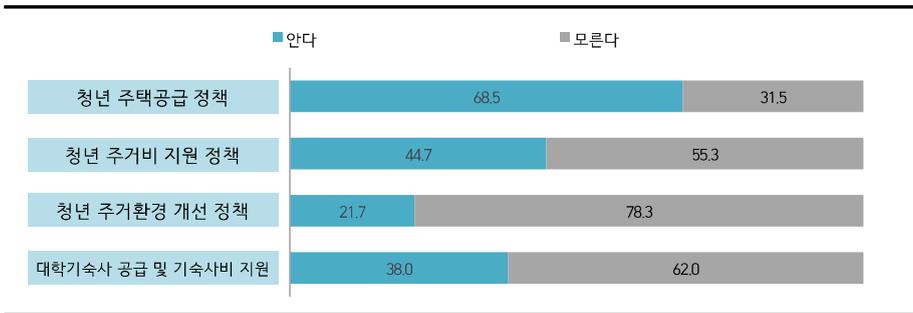


그림 III-158. 청년 주거 정책 인지도

표 III-171 청년 주거 정책 인지도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가구형태		
		남자	여자	18-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1인 가구	부부 가구	부모+청년 가구
(1) 청년 주택공급 정책	68.5	67.4	69.6	30.4	58.4	71.4	71.0	64.6	71.8	-
(2)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	44.7	44.9	44.5	27.1	35.8	47.2	46.4	43.5	45.7	-
(3) 청년 주거환경 개선 정책	21.7	23.1	20.3	10.4	15.0	23.0	23.2	19.3	23.7	-
(4) 대학기숙사 공급 및 기숙사비 지원 정책	38.0	38.3	37.8	30.2	42.1	37.9	37.3	36.5	39.3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금년도(본 연구)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 주 1) 각 정책별로 '안다'라고 응답한 비율
- 2) 부모 동거 여부 문항에서 '비동거', '독립' 상태인 응답자만 대상으로 질문함
- 3)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10)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청년 주거 정책

부모 비동거 및 독립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향후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해 물어본 결과, ‘청년 주택공급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63.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23.2%), ‘청년 주거환경 개선 정책’(7.6%), ‘대학기숙사 공급 및 기숙사비 지원 정책’(6.2%) 순이었다. 청년 주택공급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반면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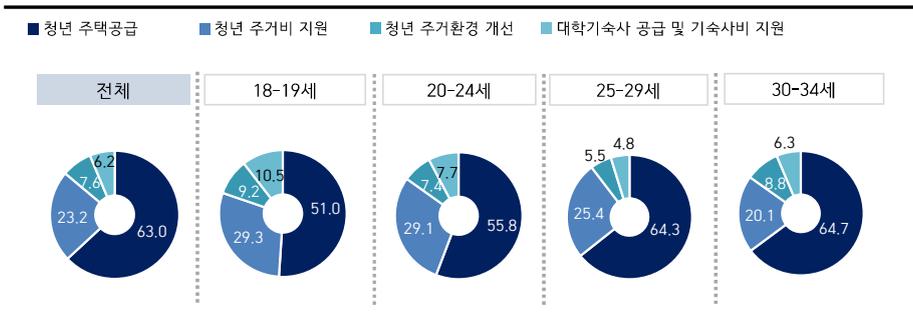


그림 Ⅲ-159.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청년 주거 정책

표 III-172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청년 주거 정책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				가구형태		
		남자	여자	18-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1인가구	부부가구	부모+청년가구
(1) 청년 주택공급 정책	63.0	62.9	63.1	51.0	55.8	64.3	64.7	59.9	65.7	-
(2)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	23.2	23.4	23.0	29.3	29.1	25.4	20.1	27.5	19.6	-
(3) 청년 주거환경 개선 정책	7.6	7.5	7.7	9.2	7.4	5.5	8.8	7.3	7.8	-
(4) 대학기숙사 공급 및 기숙사비 지원 정책	6.2	6.2	6.2	10.5	7.7	4.8	6.3	5.3	6.9	-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금년도(본 연구)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주 1)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부모 동거 여부 문항에서 '비동거', '독립' 상태인 응답자만 대상으로 질문함

# ○ — 제4장 청년 주거의식 심층면담

- 1. 면담조사 개요
- 2. 면담조사 분석 결과
- 3. 소결 및 시사점



## 1. 면담조사 개요

본 연구는 2016년부터 수행된 1차 연구의 5차년도 후속 연구로서 2017년부터는 청년들이 당면한 현안을 중심으로 부가조사를 추가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에 5차년도에는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중심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청년들의 주거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존의 청년 주거와 관련한 연구들을 청년들의 주거 실태나 경험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주거 의식이나 정책적 요구에 대한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청년들의 주거 의식과 관련한 연구들이 있어왔으나, 특정 가구나 사안에 대한 인식조사에 국한되어 있어 전반적인 청년의 주거 의식을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 주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청년 주거의식에 대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다양한 가구 형태를 지닌 3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탐색과정 및 거주과정의 경험, 주거에 대한 의미와 희망, 주거 전략 및 계획, 주거 지원 정책관련 인식과 요구, 청년주거지원 정책 수혜 경험에 대한 의식 등에 대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 1) 면담조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주거 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20세-34세의 청년을 대상

15) 이 장은 연보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 참여자는 가구형태와 점유형태, 주택형태 및 성별, 연령, 지역, 청년 주거지원 정책 수혜 경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가구형태는 청년 1인가구, 청년 부부가구, 부모·청년 가구로 대별할 수 있으며, 점유형태는 월세, 전세, 자가로 구분하였다. 주택형태로서는 비주거시설 거주자(옥탑방, 반지하, 지하 등)와 청년 주거지원 정책 수혜 경험자(공공임대지원, 금융지원 등)도 함께 포함하였다. 그 외에 성별(남/여), 연령(20대/30대), 지역(서울/수도권/지방)으로 구분하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면담조사 참여자는 총 30명으로, 먼저, 가구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청년 1인가구 13명, 청년 부부가구 9명, 부모·청년가구 8명이었으며, 청년 1인가구 및 청년 부부가구 내 점유형태에 따라 월세 7명, 전세 8명, 자가 7명 모집하였다. 비주거시설 거주자 5명과 청년 주거지원 수혜 경험자 5명(공공임대지원 3명, 금융지원 2명)도 함께 포함되었다. 성별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남성 15명, 여성 15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15명, 30세-34세 15명임. 거주 지역별로는 서울 11명, 수도권(경기 및 인천) 9명, 지방(광주, 대구, 대전, 부산) 10명으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면담조사 참여자의 세부 프로파일은 다음과 같다.

표 IV-1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

연번	가구형태	응답자	성별	연령	거주지역	주택형태	점유형태	청년주거지원 수혜경험
1	청년 1인가구	A	남성	29	대구	비주거시설(고시원)	월세	-
2		B	여성	31	경기	비주거시설(반지하)	월세	-
3		C	남성	29	서울	비주거시설(반지하)	전세	-
4		D	남성	30	서울	비주거시설(옥탑방)	전세	금융지원
5		E	남성	24	서울	비주거시설(옥탑방)	월세	-
6		F	여성	30	서울	주거시설	월세	공공임대
7		G	여성	24	서울	주거시설	전세	공공임대
8		H	남성	24	서울	주거시설	월세	-
9		I	여성	22	대전	주거시설	월세	-

연 번	가구 형태	응답자	성별	연령	거주 지역	주택형태	점유 형태	청년주거 지원 수혜경험
10		J	남성	33	경기	주거시설	자가	-
11		K	남성	29	광주	주거시설	자가	-
12		L	남성	33	서울	주거시설	전세	-
13		M	여성	30	서울	주거시설	전세	-
14	청년 부부 가구	A	여성	28	경기	주거시설	월세	공공임대
15		B	남성	29	광주	주거시설	전세	금융지원
16		C	남성	31	서울	주거시설	자가	-
17		D	여성	26	경기	주거시설	자가	-
18		E	여성	33	대전	주거시설	자가	-
19		F	여성	32	대전	주거시설	자가	-
20		G	여성	31	대구	주거시설	자가	-
21		H	여성	33	서울	주거시설	전세	-
22		I	여성	32	부산	주거시설	전세	-
23	부모 · 청년 가구	A	여성	20	서울	주거시설	-	-
24		B	남성	27	인천	주거시설	-	-
25		C	여성	27	인천	주거시설	-	-
26		D	남성	30	경기	주거시설	-	-
27		E	여성	25	경기	주거시설	-	-
28		F	남성	30	인천	주거시설	-	-
29		G	남성	32	광주	주거시설	-	-
30		H	남성	28	대구	주거시설	-	-

## 2) 면담조사 내용

청년 주거의식에 대한 조사 내용은 크게 1) 주거탐색과정 및 거주과정의 경험, 2) 주거에 대한 의미와 희망, 3) 주거 전략 및 계획, 4) 주거 지원 정책관련 인식과 요구, 5) 청년주거지원 수혜 경험에 대한 영역으로 대별할 수 있다. 청년 1인가구와 청년 부부가구, 부모·청년가구 등 가구형태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역별 세부 내용에 차이를 두어 조사하였다. 또한 5) 청년주거지원 수혜 경험에 대한 내용은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주택 입주 경험자 및 청년 주거 금융지원 수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와 같이 청년 주거의식에 대한 면담조사는 정책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로 탐색적 경험의 의미보다는 실제 청년들의 주거 의식 구조에 대한 사실 확인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V-2 청년 주거의식 면담조사 주요내용

구분	세부 내용	
	청년 1인가구, 청년 부부가구 대상	부모·청년 가구 대상
1) 주거탐색과정 및 거주 과정의 경험	① 현재 주거 실태 ② 주거 탐색 과정 및 주거비용 마련 방법 ③ 현재 주거를 선택한 이유 ④ 현재 주거 상황에 대한 인식 ⑤ 주거탐색 및 거주과정의 장애 요인 및 애로사항	① 현재 주거 실태 ②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이유 ③ 현재 주거 상황에 대한 인식 ④ 거주과정의 장애 요인 및 애로사항
2) 주거에 대한 의미와 희망	① 주거의 의미, ② 주거와 독립, 결혼, 취업, 삶의 질 ③ 자가 마련에 대한 인식, ④ '주거사다리'의 가능성	
	청년 1인가구, 청년 부부가구 대상	부모·청년 가구 대상
3) 주거 전략 및 계획	① 주거 이전 계획 ② 향후 주거 선택 시 주요 고려 사항 ③ 주거 이전을 위한 준비 및 애로사항	① 주거 독립 계획 ② 향후 주거 선택 시 주요 고려사항 ③ 주거 독립을 위한 준비 및 애로사항
4) 주거 지원 정책관련 인식과 요구	①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인식 ② 청년 주거 문제와 사회 구조(주거불평등)에 대한 인식 ③ 주거지원과 자산형성, 고용, 교육지원과의 연계 필요성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주택 (공유주택 포함) 입주자 대상	청년 주거 금융지원 수혜자 대상
5) 청년주거지원 수혜 경험에 대한 의식	① 입주기회, ② 입주조건, ③ 도움 정도 ④ 개선방안	① 금융지원의 조건, ② 도움 정도, ③ 개선방안

### 3) 면담조사 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청년의 전반적인 주거 의식에 대한 심층적인 파악을 위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고, 면담조사지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먼저, 관련 연구와 자료들을 토대로 조사 내용(안)을 개발하였고, 연구진 협의를 토대로

수정·보완한 후, 청년 주거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을 받아 개발하였다. 최종 개발된 조사 내용(안)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통해 2020년 6월 18일 승인(승인번호:202004-HR-고유-003)을 받았다.



그림 IV-1. 면담조사지 개발절차

이후 가구형태나 점유형태, 주택형태, 정책 수혜 경험, 성별, 연령, 지역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면담조사 참여자를 선정하였는데, 우선적으로 조사업체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적합한 면담 참여자를 선정하였고, 최종적으로 면담 참여에 동의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구성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조사는 2020년 7월 10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 방법은 주로 개별심층면담(In-Depth Interviews)(28명)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일부 주거 지원 관련 수혜자 면담의 경우는 좌담회(Focus Group Discussion)(2명)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면담조사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고, 해당 내용은 전사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반복 읽기를 통해 주요 내용을 파악하였고, 기존 선행연구들과 가구형태 및 면담조사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내용을 해석하였다. 또한, 면담조사의 분석방법으로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는 텍스트 마이닝 분석의 일종으로서 최소 의미를 지닌 형태소를 분석하고, 해당 빈도에 따라 문자의 크기를 시각화하여 직관적으로 텍스트의 키워드와 빈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한무명초, 김양석, 이충권, 2017). 구체적으로 전사된 텍스트 파일을 형태소분석기를 통해 분리하고, NIA사전으로 단어를 인식한 후, 명사를 추출하여 단어별 빈도표를 생성하였다.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상위 30개의 단어를 추출하여 시각화하였다. 전술한 워드클라우드 분석에는 R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 2. 면담조사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청년 1인가구, 청년 부부가구, 부모·청년가구 등 다양한 가구 형태를 포함하여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가구 형태에 따라 청년들의 주거 상황이나 조건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내용도 가구 형태별 특성을 반영하였다. 이에 면담조사 분석은 크게 청년 1인가구, 청년 부부가구, 부모·청년 가구로 대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청년의 가구 형태별 주거의식의 전체적인 관계나 정책적 요구의 맥락적 이해를 고려하였다.

### 1) 청년 1인가구

#### (1) 주거탐색과정 및 거주과정의 경험

#### “온라인(앱, 커뮤니티 사이트, 알림서비스 등)을 활용한 주거 탐색”

청년 1인가구에 해당하는 조사 참여자들은 주거를 탐색할 때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청년 1인가구의 주택 형태를 살펴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원룸이나 다세대, 빌라 등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방이나 직방과 같은 부동산 전문 중개 앱이나 포털사이

트 증개 앱을 활용하여 주거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또한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올리는 포털사이트 카페나 다양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직접적인 경험담도 청년들의 주거 정보 수집의 중요한 경로였다. 온라인에 익숙한 청년 세대의 경우 주거선택과정에서도 우선적으로 증개 앱이나 커뮤니티 사이트, 유튜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주거 정보를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는 친구랑 같이 둘이 살다가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각자 집을 구하자 해서 어플을 통해서 직방이랑 다방, 네이버 부동산 어플을 깔아서 주변 집 매물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가 한두 달 정도 지켜보다가 괜찮은 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직접 보고 계약해서 살게 됐어요.” (청년 1인가구, 월세, H)

“막연하게 피아노를 갖고 주거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해서 찾아본 게 네이버에서 막연하게 검색을 했던 것 같고 원장님 카페에 올린 글을 보고 찾아가서” (청년 1인가구, 월세, 비주거시설\_옥탑방, E)

“제가 생각하는 1순위는 반지하만 아니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집의 방향. 예를 들어 남향이나 북향을 따졌고 버스나 지하철 기준으로 접근성을 봤어요. 인터넷으로 탐색한 후에 부동산에 전화해서 여기에 방이 있는지 살펴보고,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 좋은 집 구하기도 보고” (청년 1인가구, 전세, 비주거시설\_옥탑방, D)

“일단, 저는 학교에 다닐 때 알아본 거라서, 학교 근처 부동산에 올라온 것도 보고 학생들이 살고 나갈 때 올리는 글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데에서도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알아봤고 학생들이 올린 건 학교 홈페이지 커뮤니티가 있고 부동산은 직방이나 어플을 보기도 했고 다양하게 본 것 같아요.” (청년 1인가구, 전세, G)

“광주 코멘트가 있어요. 사이트인데 사랑방이라고 광주사람들은 거기에 웬만하면 올리거든요. 광주 직방입니다. 거기에 올라오는 것 괜찮은 게 있으면 전화해서 부동산에 찾아가서 얘기해요 결국은 부동산인데 전체적인 시세나 흐름은 사랑방 사이트에서 보고 진짜 괜찮은 지 있으면 전화해서. 어차피 아파트라면 그 근처에 다 있잖아요.” (청년 1인가구, 자가, K)

또한, 청년 1인가구는 부동산 매물 정보뿐 아니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나 혜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으로도 온라인을 활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조사 참여자들은 주거지원을 위한 실시간 정보를 받 빠르게 획득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나 온라인 정보알림 서비스를 신청하기도 하고, 자신의 상황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에 대한 조건이나 절차에 대해서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동산에 방문하며 발품을 팔아 원하는 주거 매물을 탐색하는 방법도 존재하였다. 온라인 주거 정보의 경우 허위인 경우가 종종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매물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중개인을 통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으로서 부동산에 방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와 LH(사이트)에 맨날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정보알림이라고 정보가 올라오면 문자 메시지로 받는 서비스가 있어서 그런 것 신청해서 매일매일 구하려고 알아본 것 같아요.” (청년 1인가구, 월세, 공공임대지원, F)

“카페 같은 데를 많이 봤어요. 어떻게 대출이 나오는지 중요하고 처음에는 대출을 제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걸 다 뽑아서 어떤 대출이 나오는지 본 후에 그 중에서 이율이 어떤 게 제일 싼지, 그리고 한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이고 대출 나오는 게 얼마이고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가격에 맞춰서 집을 구하고 집구할 때도 부동산에서 중소기업 청년 대출을 받을 건데 집주인이 허락해 주는 지 안 해 주는지 궁금하고” (청년 1인가구, 전세, L)

“인터넷으로 먼저 찾아보고 책도 사전에 정보를 습득하고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인 부동산이나 가 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채널을 더 신뢰했던 것 같아요.” (청년 1인가구, 자가, J)

“다양하게 알아봤던 것 같아요. 직방 어플도 봤는데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네이버 부동산을 첫 번째로 찾아보고 그걸로 대략적으로 알아본 후에 발품을 팔았던 것 같아요. 부동산에 다녀보면서. 실제로 나온 전세 같은 경우는 매물이 별로 없어서 일단 나온 것 위주로 봤어요. 직방에 있다고 해서 막상 부동산에 방문해 보면 그 가격이 아니라고 하거나 다 나갔다고 해서 허위 매물이 많았다고 생각했어요.” (청년 1인가구, 전세, M)

### “주거 선택이유: 주택위치, 주거비용, (여성)안전과 보호”

주거 선택이유를 살펴보면, 주거비용, 주택상태, 주택위치, 주거환경, 향후 주택 가격 변화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년 1인가구 조사 참여자의 경우 직장이나 학교와 이동하기 편리한 주택위치가 주거 선택에 주요한 요인이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청년 1인가구의 주거 선택 이유를 분석한 결과, 1순위부터 3순위의 합을 기준으로 주택 위치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지하철역 근처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도 주거 선택에 고려 요인 중의 하나였다.

또한, 청년 1인가구에게 주거비용도 주거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비주거시설 거주자들에게 이러한 경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비주거시설의 다소 열악한 주택상태를 일정부분 감수하면서 비용절감의 측면에서 주거를 선택하였고, 저렴한 주거비용 때문에 주거 선택에 만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위치. 일단 방을 구하고 자체가 학교는 편하게 다니지 위해서니까 아무래도 위치를 1순위로 생각하고 그 위치 안에서 조금이라도 싼 걸 생각한 것 같아요.” (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H)

“일단 제 거주 조건이나 지역에 맞으면 웬만하면 다 신청을 했는데 여기로 하게 된 이유는 교통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교통이 일단 제가 그때 당시 일하던 곳이 서대문구였는데 그쪽은 안으로 들어가면 교통이 불편한데 여기는 지하철이 근처에 있고 공항철도도 이용할 수 있고 해서 교통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았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F)

“위치는 완전 고려 대상이었어요. 학교랑 가까웠어야 하고 제가 밤길을 무서워해서 너무 한적하지 않으면서 흥대여서 흥대 근처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너무 시끄럽지 않은 곳으로”(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G)

“일단 출퇴근. 그리고 술 먹는 것 좋아해서 그게 큰 것 같아요. 출퇴근 때문에”(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반지하, C)

“전에 살던 집 보다 큰 집이 다른 동네도 있었는데 거기는 학교랑 너무 멀어서. 여기는

학교랑 가깝고 조용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위치. 유흥가에서 먼 위치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학교랑 가깝고 중심지에서 먼 쪽으로.”(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I)

“원래 아파트에 들어가려다가 말았는데 아파트는 편하기는 하지만 관리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10만원에서 15만원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빌라는 저 혼자 살고 관리비가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10만원 안으로 7, 8만원 나오니까 크게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이자도 13만원 정도. 전세금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여기가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사를 못하는 이유가 너무 전세금이 다 올라서 이 돈으로 다른 곳은 갈 수가 없어요.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시설이 있는 집은 구하기 힘들어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L)

“깨끗한 것까지 바라지는 않았는데 가격 대비 이 정도라면 만족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몰랐던 별레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오래된 아파트이다 보니까”(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M)

“고시원은 이번이 처음이라. 옛날에 살았던 곳은 수도세, 전기세는 따로 냈는데 여기는 수도세는 내가 내고 전기세는 주인이 내 주시고. 에어컨은 빵빵해요. 방이 좁다 보니까 바로 추워져요.”(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고시원, 월세, A)

한편, 여성 청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과 보안을 우선시 하여 주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하여 다가구 주택보다는 가족 단위의 주거 형태인 아파트를 선호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아파트가 비교적 안전하고 보안 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여성 1인 가구 대상의 범죄가 이슈가 되면서 안전과 보안의 문제가 여성 청년 1인가구에게는 주거 선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것도 꽤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이전에 살던 집이 다가구 주택이었는데 보안에도 취약한 것 같고 주변에 사는 사람도 1인 가구가 많으니까 가족이 사는 아파트 형태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여성, 주거시설, M)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청년 1인가구의 현재 주거 선택 이유와 관련하여 가격, 아파트, 위치, 상태 등의 단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청년 1인가구 참여자들이 주거 비용이나 편리한 주택 위치, 안전과 보호 측면에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과도 유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IV-2.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현재 주거 선택 이유(청년 1인가구)

**“주거 현안: 주거 비용 마련의 부담, 중개사 이용의 어려움, 주거 정보의 부족”**

청년 1인가구가 겪고 있는 주거 문제로는 주거 비용 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에 대한 임대료는 청년 1인가구에게 주거 비용의 부담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또 자가를 마련한 청년에게도 가장 어려웠던 점은 주거 비용 마련에 대한 부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이나 자가 마련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은행 대출로 상황에 대한 부담감이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출 지원의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을 연장하는 과정이나, 또는 심사 과정에서 조건이 되지 않아 대출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 및 심리적인 불안감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가장 어려운 것은 비용 조달, 자금조달이 가장 어려웠고”(청년 1인가구, 자가, J)  
“대출도 있고 하나까 부담이 되는 것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아파트를 선택하고 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당하지만 결정하기 전에 좀.”(청년 1인가구, 자가, K)

“저도 대출을 받은 입장이라 최대한 적게 받고 싶었거든요. 이자도 조금 썼으면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대로 적은 이자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1%대인걸 보고 부럽다고 생각했어요.”(청년 1인가구, 전세, M)

“제일 어려운 게 대출 연장하는 게 중소기업 청년 대출도 2년에 한 번씩 연장해야 하는 데 회사에 다니고 있어야 해요 회사에 다니지 않고 이직하게 되면 소명 자료를 내야 되고 만약 이 대출 받은 걸로 제가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 목적론을 변경해야 되더라고요. 이사를 하려고 하는 데 그게 어렵다는 것. 대출한도가 기 대출이 있다 보니까 다른 대출이 막히고 그렇다고 대출금을 상환하자니 빼고 다시 넣으면 순간적으로 저는 집이 없어지니까 계속 힘들더라고요. 한도가 안 나오니까.”(청년 1인가구, 전세, L)

“일단은 제 돈으로 다 하면 좋는데 대출 심사를 받아야 되고 기간이 길어지고 부결 나면 어쩌나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반지하, 전세, C)

주거 탐색과정에서 부동산 이용과 관련한 정보의 부족이나 중개 수수료 부담도 청년 1인가구가 겪는 주거 문제 중의 하나였다. 사회초년생으로서 처음으로 스스로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정보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집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였다. 예컨대, 주거를 선택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하는지 노하우가 부족한 것도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다. 청년들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다소 높은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근래에 주택 가격이 높아지면서 중개 수수료도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온라인을 활용한 주거 탐색에 부정확한 정보가 많아 매물의 실시간 거래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고, 부동산에서 미끼용 허위 매물을 올려놓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불만족스러운 게 주택 가격이 올라가려면 공인중개사 비용 비율이 올라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가격도 올라가는데 지불하는 비율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기하급수적으로 중개비용이 올라가는 데 하는 일과 저주는 책임과, 법률적인 책임에 비해서 받아가는 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높다고 생각해요.”(청년 1인가구, J)

“가격만 보면 중개사분들이 하는 것에 비해서 많다는 생각을 하는데”(청년 1인가구, K)

“좀 저렴하게 낼 수 있는 부분에서 잘 알지 못하고 정보가 없어서 중개비를, 원래를 타협해서 정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타협을 안하고 중개사분이 가장 높게 금액을 책정해서 계약서를 해 주시더라고요.”(청년 1인가구, H)

“이사를 처음 하는 거라 이전에 집을 보러 다닐 때 어떤 점을 위주로 봐야 하는데 체크 리스트 같은 게 없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없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M)

“아무래도 계약이라는 자체가 적은 돈이 오고가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 아니면 안내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청년 1인가구, D)

“블로그나 카페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방이 나갔는데 글을 안 내린 건지를 잘 모르니까. 실시간 반응이 잘 안 되니까 불편했어요.”(청년 1인가구, E)

“간혹 어플에는 등록이 되어 있는 데 부동산에 전화하면 집이 없다고 다른 방을 소개 해 주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청년 1인가구, D)

청년 1인가구가 안고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하여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림 IV-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보, 대출, 부담, 중개사, 수수료 등의 단어가 자주 언급되었다. 청년 1인가구의 상당수는 주거비용 마련이 가장 큰 고민인데, 대출 연장이나 상환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고, 정보 부족 및 높은 중개 수수료도 청년 1인가구의 주거 탐색과정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IV-3.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주거 현안(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 거주자: 열악한 주택상태로 인한 심리적 우울과 사회적 위축”**

비주거시설 거주자의 경우 열악한 주택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비좁은 주거 공간과 부족한 채광 등 비주거시설의 생활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주거는 거주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하기도 하는데, 비주거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거주자들은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처음 서울에 올라와 고시원 생활을 경험하였던 참여자는 당시의 시간을 떠올리며 짧았던 기간이었으나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다고 회고하였다. 어둡고 좁은 공간의 고시원은 잠만 잘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공간이었고, 고시원 생활 동안 삶의 질은 낮아지고,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높았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정신적인 우울감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살짝 불만족. 일단은 많이 좁다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고. 많이 비좁다.”(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고시원, A)

“건물이 낡아서 마이너스 요인이 있고 되면 지층에 살면 좋은데 너무 급하게 들어가서 반 지하로 들어간 게 마이너스 요인이고 건물이 오래 된 것과 반 지하라는 것...”(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반지하, C)

“(반지하에 산다는 것을) 남들한테 얘기할 때는 창피한 게 있는데...(중략)...요즘은 사람들이 약삭같이 돈을 모으는 사람도 있지만 보여주는 걸 중요시 여기는 데 저는 아니라 돈이 없어도 4, 50만원씩 주고 오피스텔에 산다거나 그런 걸 못하겠더라고요. 친구들 데리고 와서 잘 못 노는 건 좀 그렇지만 신경 쓸 건 아니지라고 위안을 해요.”(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반지하, B)

“고시원에서 지내봤지만 정말 지내기 힘들더라고요. 한 평 두 평정도 될까요? 정말 들어가서 잠만 자고 나가는 정도의 삶의 질... (중략) 일단 옆방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겠고 방 자체가 어둡고 공용공간도 있는데 사용하기 꺼려지는 면이 있었어요. 원룸에 살 때는 방이 밖으로 나 있는 곳에서 지냈는데 제가 불을 켜면 밖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들어갔을 때 조금 있다 불을 켜거나 제가 어느 방에 들어갔는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티비 불을 먼저 켜고 불을 켜다든지...(중략) 일단, 제가 월세를 높여 창문이 있는 방에 들어가는 했는데 창문도 오피스텔 식의 창문이라 햇빛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울한 게 있었고 되게 좁고, 화장실이 있는 곳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독립적으로 있는게 아니라 한 공간에 변기랑 세면대가 있고 유리로만 막아놓은 형태여서 습기 냄새랑 그런 것도 같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와서 왜 이려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우울한 감정도 생기는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고시원 거주 경험, F)

## (2) 주거에 대한 의미와 희망

### “편안한 휴식의 공간으로서 주거, 나만의 공간”

청년 1인가구가 생각하는 주거에 대한 의미는 휴식의 공간, 사적인 공간,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 안전과 보호로서의 공간 등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청년 1인가구에게 주거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의 의미가

보다 큰 것으로 보여진다. 즉, 주거는 청년 1인가구가 바쁘고 힘든 사회생활이나 외부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안식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단지 편안하게 잠을 자거나 육체적인 피로를 해결하는 휴식뿐 아니라 심리적인 안식처로서의 주거의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었다.

“휴식처. 밖에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더라도 항상 마지막에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거기에서 에너지 충전을 잘해야 다음날 일을 잘 해낼 수 있어서 충분한 휴식을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H)

“혼자 사니까 해야 할 일도 늘어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오는 평화로움이 같은 게 있어요. 내가 내 주변을 만든다. 이런 느낌.”(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옥탑방, E)

“실 수 있는 공간.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을 끝내고 와서 나만의 공간이랑 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내가 편하게 실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L)

“일단 쉼의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전 집에 살 때도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일단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오면 내가 마음이 편하게 쉬어야 하는 데 집 컨디션이 안 좋거나 불편하면 집에서 편히 실 수 없을 것 같아서 월세가 있더라도 쾌적한 곳에 집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집의 쉼의 공간이 저한테는 컸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F)

“편안함. 보통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하루 대부분을 밖에서 보내면서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교류를 하잖아요 그것을 벗어나서 온전히 아무 생각 안하고 실 수 있는 공간으로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편안함”(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옥탑방, D)

“일 끝나고든 뭘 하고 나서든 거기서만큼은 제가 편하게 실 수 있고 온전히 저만의 공간이니까”(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G)

“안식처. 그냥 쉬기만 한다. 출퇴근하고 잠만 잔다 이건 잠만 자면 집이라고 생각이 안 되고 집에 진짜 다 내려놓고 실 수 있으니까 주거는. 그래서 잠만 자는 것과 별개로 안식이 되는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반지하, C)

또한,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사적으로 보호가 되는 공간으로서 주거의 의미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1인가구에게 주거는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

의 의미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공간으로서의 주거의 의미가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주거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혼자서 휴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이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가장 사적인 공간이다.

“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혼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적으로 보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중략)1순위로는 혼자만의 공간이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가족과 함께 하는 공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H)

“남의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내 사적인 공간.”(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J)

“회사나 다른 데에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쓰며 살아야 하는데 집에서만큼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가장 사적이고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해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M)

“나만의 공간, 그리고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 살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하물며 사적으로 통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옥탑방, D)

“지금은 솔직히 혼자 살고 있어서 크게 중요한 건 개인공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공용공간은 공용공간이고 개인의 공간이 중요해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I)

한편, 여성 참여자의 경우 안전과 보호로서 주거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여성 참여자들도 편안한 휴식처로서 주거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동의하였으나, 안식처로서의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과 보호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여성 1인가구 여성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러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번히 발생되면서 외부인 침입이나 범죄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 1인가구는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문단속이나 방범창 설치 등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으며, 여자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보호받아야 하는 곳이 맞는 데 요새 아무래도 집에 훔훔한 일들이 많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살다 보면 야까 게스트 하우스 외부인 그런 일도 있다 보니까 문단속이 나 이런 것에 있어서 괜히 철저하게 되는 것 같고 창문 열었을 때 누가 보인다거나 이런 것도 신경이 쓰여요. 저는 1.5층이라 잘 보이거든요. 그런 정도.”(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여성, G)

“다른 친구들을 봤을 때 저도 그렇고 안전이나 보호의 이유 때문에 저도 여자이고 여자인 친구들이 많아서 창문에 방범창도 신경 많이 쓰고 밖에서 창문이 보이는 위치에 있으면 커튼을 달아놓기도 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중략)안전과 보호의 공간이라서 야까 말한 것처럼 저를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여성, I)

“어디 무서운 곳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이제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될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여성, M)

###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된 주거, 혼란스러운 청년 세대”**

청년 1인가구에게 주거는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조사 참여자들은 부동산이 다른 재테크에 비해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이에 합리적인 투자 수단으로서 주거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최근에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자신의 근로소득만으로는 자산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투자는 부동산뿐이라는 생각도 존재하였다. 한편, 주거에 대한 주변의 기성세대의 인식과 행태도 청년들이 주거가 자산 증식의 수단이라고 인식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처럼 투자 목적으로서의 주거의 의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주거가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된 것은 본래 주거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인데, 불필요하게 집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반대급부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참여자 중에서는 자산이 자산을 버는 불로소득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었으며, 투기를 규제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한 불만도 존재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월급이랑 이런 걸 저축해서 쌓는 건 한정적이잖아요. 돈의 가치는 항상 떨어지면서 이게 집값이 오르는 걸 보면 답이 없더라고요. 집값이 올랐다고 하고 기준 금리도 내리면서 우리나라는 투자하는 게 집 밖에 없다.”(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I)

“다른 재테크보다 안정적인 것 같고 다른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주거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테 텀으로 따라오는 거라서 선택을 한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J)

“현재 한국사회에서 주거란 자산 증식의 수단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것보다 아파트 같은 게 제일 안정적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M)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된 주거) 그런 일들 때문에 불필요하게 집값이 올라가서 피해를 본 사람도 생기는 것 같고 원래는 휴식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인데 그걸 통해서 뭔가 돈을 벌려고 하고 생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이 뭔가 목적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 같아요...(중략) 주변에서 어른들, 주로 친척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른들이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랐다가 아니면 그것을 위해서 집을 샀다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되는구나라고 인식이 된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H)

“다른 사람들이 땅 가지고 투기하는 걸 보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지요. 저걸 규제를 못하나? 불로소득을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요.”(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옥탑방, E)

이와 같이 청년 1인가구가 생각하는 주거의 의미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였으며, 워드클라우드 분석결과에서도 휴식, 가족, 사적, 안전, 보호, 자산, 증식, 사회, 지위 등의 단어가 빈번히 언급되었다. 청년 1인가구에게 주거는 편안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가족이 함께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적인 공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자산 증식이나 사회적 지위의 표현으로서 주거의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IV-4.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주거의 의미(청년 1인가구)

### “주거는 독립과 결혼의 필수 조건”

청년들의 대다수는 독립과 결혼을 위해서는 주거 공간 마련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먼저, 물리적으로 주거가 마련되어야 독립이 가능한데, 이러한 주거 마련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1인가구 중에서는 독립을 위한 주거비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존재하였는데,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주거비 마련이 쉽지 않아 부모님 집에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경우도 많았다.

“왜냐하면 일단 저도 집을 구하면서 봤지만 전세나 월세 다 구하는 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경제적인 게 준비가 안 되면 독립하기는 힘들지 않나 생각해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M)

“일단 부모님 집에서 지내는 경우에 독립을 하고 싶어도 주거비가 모자라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 주변을 봐도. 어른이 되면 개인적으로 밥벌이를 하고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부모님의 간섭에서 벗어나게 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립적으로

해야 할 일도 많으니까.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못 나오는 주변 언니들이나 오빠들을 많이 봤어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F)

“학교를 다니면서 보면 분명히 집이 먼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부담이 되고 어떤 경우는 애매한 거리 때문에 집을 구하기 부담이 되어서 학교를 힘들게 긴 시간 동안 왔다 갔다하는 친구들을 많이 봐 와서 확실히 집값이 부담이 되면 독립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H)

“독립에서는 그냥 자유를 얻으려 나왔다고 생각해요. 결혼보다는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는 집구하는 스트레스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독립하기에는 나라에서 정책이 괜찮은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가 대출 같은 게 좀 더 잘나 오고 혼자 살면 식사도 신경 안 써도 되니까싼 집을 구할 수 있고싼 집도 많아요. 그런데 결혼을 생각하면 기대치가 올라가니까 구하기 힘든 것이고...”(청년 1인가구, 전세, L)

마찬가지로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거문제인데, 주변의 간접경험을 통해 주거마련이 쉽지 않아 결혼이 미뤄지는 사례를 보면서 결혼을 위해서는 주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특히, 독립은 혼자 거주하는 공간을 마련하면 되지만, 결혼은 가족과 함께 생활해야하기에 주거에 대한 요구 수준에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에 상대적으로 결혼을 위한 주거 마련에 더 많은 스트레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굳이 결혼을 할 필요가 없고,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고 1인가구로서 사는 것이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결혼을 하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집이고 요즘은 서울에서 집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니까. 그리고 결혼을 일찍 못하고 미루게 되고 취업하고 나서 자리를 잡고 나서 결혼하는 이유가 다 경제적인 능력이 생겨서 그게 다 결국에는 목적이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결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H)

“실제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거 문제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형들에 많아서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집값이 오르고, 이게 좀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반지하, C)

“결혼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주거공간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혼을 해서도 계속 뭔가 불안하고 굳이 결혼을 하는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수단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혼자 사는 데에도 예를 들어서 주거 공간이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같이 사는 데 주거공간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혼을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M)

“결혼에 엄청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제가 결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조그마한 방에서 신혼을 시작해도 괜찮다는 말이 있기는 한데 막상 그렇다면 사실 저는 그냥 결혼을 안 하고 자기 삶을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사는 공간으로서 그런 게 마련이 되어야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G)

### **“자가 마련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청년 1인가구는 대체로 자가 마련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월세와 전세 같은 임대인 경우 계약만료에 따라 매번 이사를 가야한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자가는 심리적인 안정감 측면에서 중요할 수 있다. 또한 집값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향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자가를 마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인식하였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청약도 당첨되기 힘든 상황이라 자가를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자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세나 월세는 1년 또는 몇 년 기간을 두고 계속 이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에게 안정감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제가 죽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자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옥탑방, 전세, D)

“자가가 있으면 뭔가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집 주인이 방 빼라고

하면 빨리 뺄 수밖에 없잖아요. 법적으로 걸리기는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집 주인이 된다는 거니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안심이 될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고시원, 월세, A)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있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이 없으면 뭔가 좀 불안할 것 같고 내가 상대방에 비해서 부족한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 할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월세, H)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자가, J)

“일단 집 값 자체가 제가 들어보지 못한 액수까지 많이 가니까 요즘 작은 평수의 아파트들도 물량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10억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이 어렵지 않을까.”(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월세, F)

“있으면 좋은 데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힘든 것 같아서. 그냥 없으면 말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전세, G)

“자가는 결혼을 한다고 하면 결혼하고 자식들 다 키우고 나서. 왜냐하면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청약도 넣는다 해도 당첨도 힘들고 해서. 무리를 해서 빚을 낸다면 결혼할 때 운 좋게 소도시에 살 수는 있겠지요. 서울로 집을 생각한다면 많이 힘들지요.”(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반지하, 전세, C)

월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월세에서 전세로까지의 단계는 가능하지만, 자가 마련이 어려운 현실에서 전세에서 자가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청년 1인가구 참여자들은 청년 대상의 전세대출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월세에서 전세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지만, 현재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월세를 감당하면서 돈을 모으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힘들게 전세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자신의 소득으로 저축하는 속도보다 집값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근로소득만으로는 자가 마련이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의 응답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사다리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월세에서 전세까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신용 대출이라든지 전세 대출이 잘되어 있어서, 전세까지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가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자가를 가더라도 굉장히 대출을 많이 받아서 정말 내 돈 조금에 대출 많이 해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거의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소득으로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서울, F)

“월세에서 전세로는 생각보다 쉬워요. 그런데 자가로 가는 과정이 엄청 어렵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집값이지요. 집값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니까.”(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반지하, 서울, C)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힘든 것 같아요. 월세자체가 월세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돈을 모을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전세로 올라가서 전세에서 매매로 갔을 때 전세에서 돈을 모으는 속도랑 집값 오르는 속도를 비교해 보면 집 값 오르는 속도가 서너 배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진 실질적으로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주거 사다리...”(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서울, L)

“요즘 전세가 2, 3억 되는 데 월세 살면서 돈을 못 모으잖아요. 쥐어짜서 100만원씩 저축해도 10년이면 1억 2천인데 근로소득만으로 주거 마련을 못하지요. 광주도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광주, K)

“자신의 소득으로 자가 마련을 절대 못 해요. 일단 수입 자체가 청년들은 일단 사업을 하는 청년도 있지만 일반 직장에 다니는 청년이 많잖아요. 월급쟁이 봉급으로는 그 수십억대에 달하는 아파트를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공공임대지원, 월세, F)

### (3) 주거 전략 및 계획

#### “잡은 이동, 불안한 주거. 상시적인 이사 계획”

자가가 없는 청년 1인가구는 임대주택 및 전·월세 계약 만료로 인해 주거 이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다수의 청년 1인가구 조사 참여자들은 자가 마련의 필요성으로 안정감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전세와 월세의 경우 계속 이사를 해야 하는 문제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한 참여자도 정기적으로 연장해야 하는 상황으로 갱신 조건에 따라 상시적인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 임대주택이 계속 지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최대 6년까지 지낼 수 있거든요. 2년 초기 계약을 하고 연장 2회해서 연장할 때도 저의 소득기준에 맞추어서 갱신 조건이 되면 갱신을 하는 것이고, 최대 6년까지 지낼 수 있어서 가능한 오래 여기에서 지내고 나갈 시기가 되면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공공임대지원, F)

“이사를 계획하는 이유는 보통 집 계약 만료지요, 앞으로는 이사를 위해 일단 LH같은 데에 공고 뜨면 꾸준히 확인을 해요 괜찮은 위치에 괜찮은 조건이 있다면 지원해 볼 생각이요 청약도 꾸준히 넣고 있어서 되면 그쪽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반지하, 전세, C)

“대학교 졸업까지의 기간도 계약 기간과 비교했을 때 애매하게 얼마 남지 않아서 일단 학교 다닐 때까지는 이곳에 살다가 새로운 직장이 생기면 그때 위치 때문에 구할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월세, H)

### **“비주거시설 거주자: 부정적 사회적 시선, 주거 환경 변화를 위한 이전”**

반지하나 옥탑방과 같은 비주거시설 거주자인 참여자들의 경우 사회적 시선이 나 주거 환경 때문에 주거 이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반지하에 살고 있는 한 참여자는 비주거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이 있기 때문에 계속 현재의 주거에 머무를 수는 없다고 하였다. 젊었을 때에는 주변의 시선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주거가 사회적 지위의 하나의 표현이 된다는 점에서 계속 반지하에 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비주거시설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주거 이전의 계획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를 계획하는 이유는 일단 나이가 먹으니까 지하를 탈출하고 싶고, 신경 안 쓴다 고는 하지만 어쨌든 사회적인 시선이 있잖아요”(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반지하, 월 세, B)

“2년 후에 지금은 옥탑방에 살고 있는 데 밑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1 인가구, 비주거시설\_옥탑방, 전세, D)

### “향후 주거 선택 요인: 쾌적한 주택 상태, 편리한 주거 위치”

앞으로 집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택의 상태나 주거 위치, 주거 비용, 주택 유형, 주거 환경, 향후 주택가격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의견을 나타내었다. 이 가운데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신축과 같이 보다 쾌적하고 유지하는 데에 편한 주택 상태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통근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운 곳을 선호하거나 교통수단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을 선호 하는 경향이 있었다.

“새로 지어진 건물에 가고 싶어요. 그게 더 쾌적하고 계속 유지하는 데 편할 것 같아서. 곰팡이가 있으면 계속 번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깨끗한 상태로 가면 깨끗한 것만 유지하면 되니까. 더러운 집에 가면 더러운 걸 치우고 유지해야 하는데 깨끗한 채로 유지하고 싶어서...”(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I)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금은 오래된 구옥인데 나중에 신축으로 가고 싶어요.”(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옥탑방, 금융지원, D)

“그 상태가 신축이나 아니냐로(결정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에 둔감하기는 한데 곰팡이나 이런 게 보인다면 다른 데를 알아보지 않을까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K)

“중요한 건 주택 환경. 벌레 안 나오고 화장실 깨끗하고 안 축고 안 덥고 이 정도...”(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옥탑방, E)

“일단은 교통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직장과의 거리는 가까웠지만 다른 곳으로 나갈 때는 교통이 불편해서, 버스로

지하철역까지 가서 다시 지하철을 갈아타야 했는데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 근처의 역세권인 곳으로 가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청년 1인가구, 공공임대지원, F)

“교통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지하철역이나 자동차나 고속도로와의 인접성이나. 1순위는 대중교통과 가깝고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이에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J)

“역세권에 한번 살아보니 얼마나 편한지 알아서 앞으로 먼 곳은 못 갈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M)

“역세권이면 좋겠지만 직장이란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구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반지하, C)

#### (4) 주거 지원 정책 관련 인식과 요구

##### **“정책 인지 경로: 주변 지인, 포털 검색, 광고, 공공기관 소식지”**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인지하게 된 경로에 대하여 청년 1인가구는 주로 주변의 경험담이나 인터넷 검색, 뉴스 및 지하철 등 광고, 공공기관 소식지 등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가령, 주변 지인들이 지원 정책에 대하여 신청을 권유하거나 간접적인 수혜 경험담을 통해서 정책에 대하여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뉴스나 지하철 배너 등 청년 대상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광고도 청년들이 관련 정책을 인지하는 데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직접 주거 정책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검색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청년들도 있었다. 한편, 시청 또는 구청의 소식지를 구독 신청을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잘 빠르게 탐색하는 사례도 존재하였다.

“주변 지인들한테, 집 어떻게 샀어? 그러면 대출이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고 전세 대출이나 이런 건 잘되어 있는 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직접 찾아보기도 했고..”(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반지하, 월세, B)

“아는 언니가 알려줬어요. 지인을 통해서.”(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월세, I)

“주변에 신청을 하더라고요. 3년 전에 저도 신청을 해 봤어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자가, K)

“그건 부모님이 먼저 알아보고 알려주셨어요. 집을 같이 알아보던 중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해 보자 그래서.”(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전세, G)

“주변 지인과 많이 얘기를 해요. 오늘도 얘기하다 왔는데 친구들끼리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서로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써 봐라. 우리한테 해당이 된다. 너한테 해당이 되냐 나는 안 된다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를 해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전세, L)

“직접 검색해 보기도 했고 그 주택 같은 경우도 내가 대상이 될까 해서 알아봤는데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알아본 적이 있어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월세, F)

“이사할 때 다방도 보고 공고 뜬 것 있는지 자세히 봤어요. 검색도 해 보고 블로그로 보고 자세히 알아봤어요.”(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반지하, 전세, C)

“뉴스를 통해서. 따로 검색은 안하고 뉴스 할 때 청년 어찌고 저찌고 나와서 보면 이런 혜택도 나오는구나 나한테 이득이 될까 안될까 그런 정도..”(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고시원, 월세, A)

“지하철을 타는 데 지하철 상단에 광고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옥탑방, 전세, D)

“저는 메일을 받고 있어요. 구청 시청에서 이메일이 와요. 소식지가 거의 한 이틀에 한 번씩 오더라고요. 뉴스레터 신청해서 새로운 정책이나 변화하는 게 있으면 와서 저는 따로 찾아보고 있어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전세, L)

주거 정책을 인지하게 된 경로와 관련하여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주변, 검색, 대출, 신청, 얘기 등의 단어가 자주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분석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청년 1인가구 참여자들이 주로 주변의 경험담이나 대출 신청 등을 위해 직접 인터넷을 검색하여 관련 정책들을 알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IV-5.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정책 인지 경로(청년 1인가구)

“계층 간, 세대 간 주거불평등 심각”

청년 1인가구 참여자들은 대체로 주거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주거불평등은 계층 간, 세대 간 모두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거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먼저, 계층 간 주거불평등과 관련하여 청년들은 소득에 따라 마련할 수 있는 주거 유형에 격차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소득뿐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계층 간 주거불평등 격차가 발생한다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즉, 부모의 재력에 기인하여 계층 간 주거 소유 여부에도 차이가 존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에도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청년들이 부모의 경제력이 좋은 주변 친구나 지인이 주거를 마련하는 과정을 목격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일단 서울은 집값이 너무 비싸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로 소득만으로는 집을 구할 수가 없고 계산기만 두드려 봐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타고난 게 중요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불평등한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M)

“그렇지요. 왜냐하면 강남 쪽만 해도 이 안에서도 엄청 심한 것 같아요 강남에 고시원도 많은 것 같은 데 길가다가 보이는 데 그런 곳에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으리으리한 집에 사는 사람도 보이고 그래서 차이는 엄청 심하지 않나 싶어요.”(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반지하, 전세, C)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서울같은 데는 심하잖아요. 아까 청담동이나 이런 데는 건물도 높고 아래 편의점이나 이런 게 아파트에 있는 경우도 많은데 서울에 있는 다른 지역을 보면 대문도 험겍고 반 지하에 살고 계시는 분도 있고 제가 직접 느낀 적은 없는 데 들었을 때 심한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I)

“(주거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데 더 심한 이유는 저도 아까 초반에 말했지만 자가를 마련할 때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마련하기 힘든 상태이고 그렇게 치면 여러 개 있는 집 사람들은 집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미 그런 집이 많고 제 주변 친척들도 신혼 초부터 청담동에 집을 마련한 사람도 있어요. 부모가 10억 가까이 해 줘서. 부모의 여력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이 집이 있고 없고는 차이가 많지요.”(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반지하, 월세, B)

“정말 부유한 층은 어린 청년들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비싼 아파트나 그런 곳, 그리고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는 경우에는 1인 가구라도 하더라도 굉장히 비싼 오피스텔, 넓은 오피스텔에 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약간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친구의 친구인데 그 친구도 지방에서 상경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바로 부모님이 집을 구해주셔서 자기 부담 없이,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는 조금의 보증금을 지원받기는 했지만 내가 벌어서 생활하는데 그 친구는 부모님 지원으로 편하게 지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F)

세대 간 주거불평등과 관련해서는 과거와는 달리 개인의 노력으로는 주거 마련이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였다. 부모세대의 경우 주택 가격이 안정적이었던 반면, 현재 계속되는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다. 노력해도 자가를 마련할 수 없는 시대라는 인식하에 청년들은 자신이 나이가 들어 부모님 정도의 나이가 되어도 부모세대처럼 자가를 마련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때(부모님 세대)는 지금보다 집값이 더 안정적이었고 보통 부모님 세대에는 다 아마 자가가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부모님 세대가 됐을 때 과연 내가 자가로 갈 수 있을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 집값이 역대로 올랐다는 뉴스밖에 안 보여요 집값이 잡혔다는 뉴스는 안 보이니까 이런 식이면 힘들지 않을까.”(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반지하, 전세, C)

“심각해요 그건 주택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건 주택에 대해서 좋은 여건을 누리시는 분들은 50대 중반 60대라고 생각해요 그 분들은 중간에 IMF가 있기는 했지만 계속 고도성장기에 있었고 은행에 두면 잘 붙어나고 은행이 아니라고 해도 경제가 호황이었고 그리고 집값이 정말 가파르게 많이 올랐었고 그래서 그걸로 이미 재테크를 잘 하셨던 분들이고... 집이 썼는데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이미 많은 이득을 봤고,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이미 뭔가는 비싸졌을 때. 또는 이미 국가 경제가 어려웠을 때 시작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갈수록 재산을 증여받는 것 때문에 더 심해진다고 보고...”(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반지하, 월세, B)

또한, 이러한 주거불평등 문제가 해소되어야 청년 주거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거불평등 문제가 비단 청년만의 문제라기보다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주거불평등 문제가 해결된다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주거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청년세대는 경제적으로 충분히 자립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주거불평등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거불평등 해소는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청년 1인가구 한 참여자는 주거 불평등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주거불평등은 청년들의 삶의 동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

도 자신의 집을 마련할 수 없는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는 청년들이 삶의 동력을 잃어버리기 쉽다.

“주거 불평등이 해소가 되면 엄청 좋은 집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괜찮은 집은 쉽게 구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청년들도 쉽게 집을 구할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반지하, 전세, C)

“주거불평등 해소와 청년 주거 문제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불평등을 가장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게 더 어린 세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미 집값이 기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비싸다고 하는 수준인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부모가 집을 한 채 주지 않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주거 문제가 같은 얘기라고 생각해요.”(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반지하, 월세, B)

“열심히 사는 청년들이 물론 지원을 받는 친구들이 열심히 안 사는 건 아니지만 자기 노력으로 뭔가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모아서 내 집을 마련했다. 아니면 내가 혼자 지낼만한 곳을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또 일을 하려는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 없이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월세, F)

물론, 청년세대가 성인기 이행을 위한 과도기라는 점에서 청년의 주거문제가 일정부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청년의 시기를 지나면 현재의 주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적인 의견도 존재하였다.

“청년이 주거 문제에서 힘든 건 시기적으로 뭔가 준비를 하는 기간이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월세, H)

하지만 대다수의 청년 1인가구는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주거불평등의 문제가 단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따라서 개인의 노력으로는 이러한 주거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로서 관련 정책들을 통해 주거불평등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불평등을 해소하기가 개인의 노력으로는 해소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주거는 사람들이 다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 불평등을 해소할 수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정책을 통해서 꼭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도 내가 이런 행복 주택이나 이런 데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전세, M)

청년 주거 문제와 사회 구조에 대하여 청년 1인가구의 응답을 워드클라우드 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IV-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님, 집값, 불평등, 지원 등의 단어가 자주 언급되었는데, 이는 부모님으로부터 대물림되는 주거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청년들의 인식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림 IV-6.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주거불평등(청년 1인가구)

“청년 주택공급 정책: 청년 주거 안정에 도움, 저렴한 주거비용의 장점,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작은 평수와 불편한 위치는 개선 필요”

청년 1인가구 참여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청년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는데, 가격에 비해 우수한 주변 환경이나 집의 상태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다수의 청년 1인가구 참여자들은 주변의 경험을 통해 주택공급이 주변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반응이다.

“원래 월세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행복주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전세, M)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 역시도 결과적으로는 안 됐지만 그 제도를 통해서 독립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한테도 희망을 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서울 주거 청년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온 그런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만족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제도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옥탑방, 금융지원, D)

“저는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실제 제가 집을 구하려고 할 때 부담이 있었는데 그런 부담이 떨어지기도 했고 주변에서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걸 보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전세, 공공임대지원, G)

“좋은 것 같아요. 엄청 싸던데요. 필요한 사람한테는. 무조건 많이 지어줘야지 공급 정책은 어떤 형태로든 되게 좋은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자가, K)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확실히 어려운 층이고 미혼 청년 대학생 취업 준비생 전부 다 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월세, H)

“금액적인 측면이나 환경적인 측면이나 집의 상태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청년 1인가구, 공공임대지원, F)

한편, 일부 주택공급이 임대료가 생각보다 비싼 경우도 있어 청년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청년 1인가구에 해당하는 주택공급의 경우 잠만 잘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매우 협소한 경우가 대다수이며, 신청할 수 있는 평수가 제한적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신혼부부뿐 아니라 청년 1인가구에게도 보다 다양한 평형에 대한 선택지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청년 공공임대 주택이 주변 상권이 발달하지 않은 외진 곳이거나 자가용이 없으면 다니기 힘든 위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청년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위치적인 측면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청년 1인가구 대상의 주택 공급 정책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현재의 주택 청약 시스템이 미혼인 1인 가구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 청약을 통한 내집 마련이 힘든 청년 1인가구에게 적극적인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비싼 데는 60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료 자체가 있다는 게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지요 전세대출을 받아도 이자나 전세금이 빛은 있는데 다달이 임대료 관리비 10만원 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임대료 자체가 비싸요.”  
(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전세, L)

“일단 굉장히 좋고 기회가 생긴다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데 행복주택 같은 경우도 청년형이 있고 신혼부부형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 넓은 곳에 지원하려고 하면 그건 신혼부부예요. 그래서 청년들은 항상 거의 정해져 있어요. 13제곱미터. 살 수는 있는 데 좀더 넓게 만들어줬으면. 조금 더 삶의 질이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살기만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몇 년 지내다 보면 짐도 많이 늘어나고 아무래도 혼자 살지만 친구가 가끔 놀러 올 수도 있는데 여러 명이 놀러 오면 협소하지요. 지내는 게 문제는 없지만.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 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좁은 평수와 좁은 평수. 애초에 지을 때 그것보다는 넓게 지어주면 좋겠고 좁은 평수와 넓은 평수가 어쩔 수 없이 나눠지게 되더라도 넓은 평수에 청년 1인가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월세, 공공임대지원, F)

“제가 본 건 위치가 별로였어요. 성남에서도 있었는데 미 분양권이 있다고 해서 보러

갔는데 위치가 너무 아니었어요. 위치가 차를 타지 않으면 어디든 갈 수 없고 인접 근처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산, 아파트 새로 지은 동네라 버스도 없고 지하철도 없고 차가 없으면 나갈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행복주택이라는 제도 자체는 좋은데 출퇴근 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리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위치가 좋았으면 경쟁률이 엄청 낮겠지요. 이런 게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년들이 취업을 많이 하는 공간에 그런 지역에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중략) 추가로는 공급 정책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공급 정책.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미혼 대상이잖아요. 미혼은 주택 청약이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집을 마련하고 싶어하는 데 결혼을 안 하면 이도저도 안 되기 때문에 미혼 청년들을 위한, 미혼 1인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이 조금 더, 새로운 정책보다는 기존 정책에 1인 미혼 가구에 대해서 많이 보완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반지하, 월세, B)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 주거 비용 감소에는 긍정적,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 주거비 상승에 따른 대출 한도 부담”**

청년 대상의 주거비 지원 정책에 대하여 대부분의 청년 1인가구 참여자는 주거에 지출하는 비용이 줄어 결과적으로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데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실제로 전세 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참여자의 경우 다른 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거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이는 목돈을 마련하거나 절약한 비용을 다른 생활비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럽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의 경우 주택공급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거주 환경이나 위치 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을 지닌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 친구는 집안이 되게 안 좋은데 돈이 없어서 자취를 하기 꺼려진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친구들이 편해질 수 있겠다. 저만해도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봐요.”(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옥탑방, E)

“이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월세가 한 달에 60만원 들 것을 시에서 지원해 주면 30만원정도 지원해 주면 결국은 30만원이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30만원으로 제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옥탑방, 금융지원, D)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정부의 학자금 대출처럼 그런 개념인 것 같은 데 힘든 학생들에게 대출해 주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잘 썼고 혜택을 받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당장 목돈 마련해서 살 수 있으니까 나중에 갚아나갈 능력만 되면 충분히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자가, J)

“되게 만족합니다. 일단 대출 이자금만 봤을 때도 이 대출이 연 1.9%인데 다른 대출은 기본 2, 3%가 넘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이 굉장히 세이브가 되어서 그 돈으로 제가 목돈을 마련하거나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만족스럽습니다.”(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옥탑방, 금융지원, D)

“요구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에서 살고 싶고 나는 이 정도는 괜찮다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작은 정부 차원에서 본다면 일단은 개개인 수요에 맞게 지어주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확실적인 집을 짓는 것 보다는...”(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옥탑방, E)

“전월세지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숙사 같은 건 혼자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고시원보다 큰 곳을 원할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집이 각각 다르니까 주택은 있고 사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내가 집을 알아보고 직접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집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월세, I)

한편, 주거비 대출과 관련한 정책에 대하여 다소 우려를 나타낸 참여자도 있었는데, 당장은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청년을 위하여 주거비를 대출해 주었으나, 이러한 대출금이 청년들이 상환할 수 있는 여건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에서 좋은 취지로 주거비 대출을 실행하여도, 실제 청년들이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 빚에 허덕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근래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전세금도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따라서 청년 1인가구 대상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실제 전세금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 이는 지역에 따라 일부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데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참여자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한도에 맞는 집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출한도를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중소기업대출을 받고 있는 수혜자도 대출비율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청년들의 경우 현재의 대출 비율만으로는 주거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수혜자는 기간 연장에 대한 바람을 나타냈는데, 청년들이 해당 정책을 발판을 삼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이룰 수 있도록 일시적인 정책보다는 지속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을 위하여 대출해 준다는 건데 대출 자체를 이들이 감당할 수 있다면 좋은 정책인데 대출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빚이 되고 그 빚에 허덕여서 파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걸 조금 케바케(케이스바이케이스)인 것 같습니다.”(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고시원, 월세, A)

“한도를 늘려도 이자가 나가니까 계속 모으지 못하고 그냥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느낌. 이달 살고 다음 달 살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지요...(중략)전세 지원금 %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게 70%에서 80%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신용이 좋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조금 더 힘든 친구들도 많아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전세, L)

“제가 받았었던 한도가 7천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면 솔직히 한도가 낮은 것 같기는 해요. 한도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천이 어디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렴한 지역에 가면 7천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반지하, 전세, C)

“지금 이 제도가 제가 받고 있는 제도가 내년까지도 알고 있는 데 그 기간도 조금 더 늘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진다고 나와서 그 기간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단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걸 발판 삼아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옥탑방, 금융지원, D)

### “셰어하우스(share house)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

청년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셰어하우스 등 공유형 주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에 정부에서는 최근 청년 1인가구 등을 위한 셰어하우스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청년 1인가구 참여자들은 대체로 셰어하우스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는 반응이었다. 물론 주거를 함께 공유하면 주거 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에 저렴한 주거 비용 측면에서는 이점을 가질 수 있지만, 타인과 주거 공간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셰어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로서 사람들 간의 소통이나 유대 관계가 중요한데, 이는 이상적인 바람이고 현실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 또는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과의 주거를 공유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앞서 청년 1인가구에게 주거란 편하게 쉴 수 있는 사적인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컸는데, 다수의 청년 1인가구 참여자들은 함께 공유하는 주거보다는 개인적인 주거 공간에서 거주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셰어를 하면 더 값이 싸지거나 그런 게 많아서 해당이 되면 더 좋은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전세, 공공임대지원, G)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렴한 방이 청년들이 자취하는 데 제일 목표로 생각하거든요.”(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옥탑방, E)

“조금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가족끼리 같이 지내는 경우도 트러블이 있는데... 셰어하우스가 가장 장점이라고 꼽히는 게 사람들 간의 소통, 같이 지내는 사람들 간의 유대 관계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작업을 하지 정말 마음이 맞는 친구가 되지 않고서는 그런 유대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월세, 공공임대지원, F)

“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공간을 마련하고 싶지 셰어하는 공간에 살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자가, J)

“주방도 공유해야 되고 화장실 다 생활공간을 공유해야 하는 데 맞는 사람과 있으면 괜찮은 데 분명히 세어하우스라면 모르는 사람이고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반지하, 전세, C)

### “대학기숙사 공급이 긍정적이지만 학교와의 거리가 중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학기숙사 공급 확대 및 기숙사비 지원 등과 같은 정책에 대하여 조사 참여자들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는 크게 수용인원의 확대와 비용절감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의견으로 나눌 수 있었다. 먼저, 청년 1인가구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해당 주거 지원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을 오는 청년들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대학교의 기숙사는 부족한 상황이라 부모로부터 충분한 경제적 지원이 없는 경우 주거 부담이 클 수 있다. 실제 대학기숙사 공급 지원 정책 수혜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해당 경험을 행복한 기억으로 회상하였다. 참여자는 주변 시세에 비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고, 식사도 해결할 수 있으며, 시설부분에서도 학교 기숙사보다 더 나은 환경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또, 대학기숙사 공급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도 있었다. 다만 학교 밖에 있는 기숙사의 경우 교통의 편의성이 중요한데, 학교와의 거리가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면 청년들의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의견도 존재하였다.

“실제로 봤는데 S대가 밖에 나와 있더라고요. 1층에서 밥도 먹을 수 있게 해 놨다고 들어서 친구들도 지방에 사는 친구들도 나와서 공부하기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도 전세금을 학생들한테 해 줘야 하는 데 엄청 비싸고, 저희 학교 앞에도 보면 너무 비싸요. 1억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방 친구들도 와서 기숙사 할 수 있고. 그러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공부에 집중할 수도 있고...”(청년 1인가구, I)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반 기숙사가 대학교 근처에 있는 월세 방 보다는 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학생들 입장에서 부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같아도 월세 방보다는 기숙사로 선택을 할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D)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 기숙사가 부족한 학교들이 많은데 기숙사도 없는 데 주변 집값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알아서 월세 하시는 분들이 가격도 내릴 것 같고 학생들은 부담도 덜 되어서 좋을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C)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로 학교를 오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한테 집을 싸게 주는 건 아니고 일반 직장인과 똑같이 받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서울에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 집에 돈이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서 이런 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청년 1인가구, B)

“잘 알아요. 이런 건 무조건 많이 해야 해요. 14만원 내거든요. 한 달에. 세끼 다 주고. 학교 기숙사는 시설도 안 좋은데 여기는 시설도 좋고 저는 거기가 행복한 기억이에요.”(청년 1인가구, K)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학교 기숙사에 못 들어가는 친구들이 지낼 수 있는 곳이니깐. 그리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행복기숙사 말고도 다른 지역, 전라북도나 그런 지역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지내는 기숙사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정책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F)

“대학교는 다 기숙사가 기본적으로 원래 있으니까 이런 걸 할지. 진짜 학생들이 이용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대학기숙사를 더 선호할 것 같아서. 제가 졸업하고 나서 저도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오피스텔같은 게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곳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학교에서 거리도 좀 있어서 학생들이 기숙사를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캠퍼스 내부에도 있는데 굳이 다른 걸 이용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청년 1인가구, M)

### **“청년 1인가구가 소외되지 않는 정책 필요”**

청년 1인가구 참여자들은 현재의 청년 주거 지원 정책에서 1인가구가 일부 소외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앞서 주거사다리에 대한 인식에서도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전세까지는 가능하지만 매매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의견과도

관련이 있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갖지 않는 등 최근 다양한 가족형태가 늘어나고 있지만 청약이나 주택 공급정책에서 신혼부부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어 청년 1인가구가 소외되고 있다는 의견이었다.

“신혼부부만 집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일단 다양한 가구 형태가 있는데 너무 신혼부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사실 어떤 걸 하든, 청약을 하든 행복 주택이나 이런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관련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걸 신혼부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많아서 거의 생각도 잘 못해본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전세, M)

“약간 정부는 신혼부부한테 주는 게 주거 안정목적보다는 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요즘 때가 굳이 출산을 하려고 결혼하려는 때도 아니고 결혼을 해도 거의 1인가구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 신혼부부에 초점을 맞추는 건 시대를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출산 교육지책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출산할 것 같지도 않고 시대를 거스르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사람들이 살기 편하게 하는 게 낫지 출산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반지하, 월세, B)

“신혼부부한테 이렇게 많이 가게 되면 요즘은 결혼을 안 하려는 사람도 많으니까 각자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혼부부 뭔가 더 많이 가게 되면 억울해 하게 될 것 같아요. 1인가구가 소외 받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월세, I)

한편, 일부 참여자들은 저출산 시대에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공감하기도 하였다. 근래에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주거문제이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러한 부분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만으로는 청년들의 결혼 비율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는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이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청년 1인가구의 주거가 안정되고 개선되어야 이를 기반으로 목돈을 마련하여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저는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결국 신혼을 넘어가고 신혼이 아이를 낳아서 지원을 받아야 나라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데 너무 청년한테만 맞춰지면 넘어가지 못하고...그 다음 단계인 신혼부부로 넘어가서 아이도 낳을 수 있게 해 줘야 그 다음 세대가 이루어지니까. 조금은 기초 단계에서는 신혼부부한테 좀 더 많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전세, L)

“결혼을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 요새 결혼하는 나이도 굉장히 높고 하기도 힘들고 저출산 문제도 있고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산점을 조금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월세, H)

“요즘에 시작하는 나이도 늦어지다 보니까 결혼 나이도 늦어지고 사실 3포세대, 4포 세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택 마련이 어려워질수록 결혼하게 되는 것도 늦어지고 낮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율도. 그런데 계속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만, 가구만 제공한다고 해서 청년들이 결혼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독립을 하고 1인 가구에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고 안정이 되어야 거기에서 1인 가구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자금을 마련하고 기반을 쌓아서 신혼부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신혼부부만 제공해 준다고 해서 그게 실효성이라고 할까? 좋은 결과를 낳는 것 같지는 않아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월세, F)

### **“고용, 교육과 주거 지원 연계의 필요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삶의 현안은 비단 주거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청년 1인가구 참여자들은 청년 주거지원 정책이 고용 및 교육 관련 정책과도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조사 참여자들은 지방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주거 공간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청년들이 지방으로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늘 것으로 기대하였다. 청년들이 수도권 취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감소시키고, 일정 부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또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중소기업청년대출 역시 고용과 연계된 정책으로서 청년들의 취업뿐 아니라 지역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사람이 대도시만 몰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도움을 줘서 중소기업이나 지방에 사람이 가서 살게 된다면 그건 인구 분산에도 괜찮고 이 지역에 가게 된 작은 도시지역 발전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월세, I)

“지금 중소기업청년대출도 고용이랑 연결이 되어서 66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그 회사 이름으로 보증을 해서 대출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더 확대되어야지 사람들이 취업을 어떻게든 약착같이 해서 버텨서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지역마다 지역 불균형이 있으면 우리 동네 와서 거주를 하면 중소기업 대출 120%해 주겠다 400% 해주겠다고 하면 청년들이 일을 하러 올 것이고 그 청년들을 모으기 위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지요 그런 게 좀 더 향상이 됐으면 좋겠어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전세, L)

아울러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주거지원 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부 참여자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미취업 청년의 경우 현재 경제적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간 동안 주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청년들도 있었다.

“(교육과 주거지원이 연계가 되면)그렇게 되면 알바 시간이 줄기 때문에 영향이 있겠지요.”(청년 1인가구, 비주거시설\_옥탑방, E)

“교육 받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당장 생산적인 활동, 일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정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청년 1인가구, 비주거 시설\_옥탑방, 금융지원, D)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뭔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데 그게 해결이 안 됐을 때는 그 교육이라는 것 자체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일단 그게 해결이 되면 아무래도 좋은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주거시설, 전세, G)

### “적극적인 주거 정책 홍보, 맞춤형 주거 상담 필요”

청년 1인가구 참여자들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도입해야 할 정책으로서 홍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해당 정책들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가령, 청년들의 자주 사용하는 매체를 통하여 홍보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중개 앱이나 SNS 등 다수의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청년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도 많은 광고를 보기는 했는데 그때 그 때 공고를 확인하지 않으면 놓치는 게 많잖아요. 알림 서비스도 받기는 했는데 좀 더 많이 홍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M)

“홍보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몰랐고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청년 1인가구, H)

“홍보는 앱이다. 직방이라든지 카카오톡 위에 광고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곳. 지금은 이런 정책은 알아보지 않고서는 알기 힘든 면이 있더라고요.”(청년 1인가구, B)

또한 청년 대상의 유사한 주거 정책 및 지원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적합한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시·도 및 구, LH, SH 등 청년 대상 주거 정책의 추진 주체가 다르다보니, 청년들이 분산된 각각의 정책들을 개인적으로 찾아보고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다. 자신의 취업 및 학업상태, 자산 등 경제적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조건과 혜택에 대한 개별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예컨대, 지자체 수준에서 청년 주거 지원 상담 센터 등이 있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향후 거주 계획이 있는 청년들이 센터를 통해 자신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이 비슷비슷한 정책이 많다 보니까 혼란이 되고 나한테 누가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내가 챙겨야 하는데 10개 정책 중 나한테 맞는 정책이 3개인데 이 중 가장 이득이 되는 게 뭔지. 다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건데 여기에서 어떤 게 좀 더 나한테 이득인지를 내가 찾아야 하는 데 상담센터나 이런 게 있으면 나의 자산이나 나의 상태. 내가 원하는 주거 환경을 하면 맞춤형서 이런 정책이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에 맞춰서 집을 구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알아봐야 되고 통합된 시스템이 아니라 다 다르니까. 서울시, 구, LH, SH 정책이 다 나누어져 있으니까 다 찾아서 정리하는 데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내 나이가 어땠고 이런 상태다 그러면 이쪽에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어디에 있고 대출이 몇%다 라고 정리를 해 주면 내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청년 1인가구, L)

## 2) 청년 부부가구

### (1) 주거탐색과정 및 거주과정의 경험

#### “가족과 함께 직접 부동산을 방문하여 매물 확인”

청년 부부가구의 상당수는 주거 탐색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실제 거래 매물을 확인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하였다. 결혼할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직접 부동산에 방문하여 매물을 살펴보았는데, 남편과 아내뿐 아니라 양가 부모님과 함께 탐색하는 경우도 다수 나타났다. 이는 신혼집을 마련할 때 경제적으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부모님의 의견이 주거 결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결혼해서 일단 집이 필요했고 지금은 시어머님이 많이 발품을 파셨어요 부동산에. 그래서 저랑 남편이랑 직장 위치 고려해서 집 가격 다 고려해서 남편이랑 시어머님 두 분이 많이 알아보셨어요.”(청년 부부가구, 자가, D)

“부동산에 가서 집 보고 계약 하고 대출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왔어요. 부동산은 발로 뛰어서. 아파트 근처에 있는 부동산으로...”(청년 부부가구, 자가, E)

“시택에서 시부모님과 남편이 돈을 만들어서 구입해서 들어왔고 시어머님과 몇 군데 돌아보고 엄마랑도 돌아보고 해서 구입했어요. 부동산도 보고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도 보고 만나서 가 보고 했는데 스무 곳은 돌았을 것 같아요. 어플 보기는 봤어요...(중략)그래도 아직은 지역 부동산이 제일 빠르지요.”(청년 부부가구, 자가, G)

“들어가기 직전에 월세비가 비싸다고 부모님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위약금을 물고 계약해지하고 다시 한 달 정도. 엄마 집에 살면서 계속 집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해운대에 있는 곳 많이 돌아다니고 오피스텔을 보다가 아파트를 봤는데 아이가 태어날 것을 보고 베란다가 있어서 빨래 말리기 좋은 건 아파트인 것 같아서 지금 사는 집을 보다가 조건이 좋아서 들어가게 됐어요.”(청년 부부가구, 전세, I)

또한 청년 부부가구는 온라인 속의 주거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주거 정보를 사전에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참여자들은 거주 후보 지역이나 주거 지원 정책과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실제 매물에 대한 사전 정보와 경험담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검색 등 원하는 지역 주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획득하는 데에도 온라인 매체가 적극 활용되었다.

“일단 인터넷이 대부분이기는 한데 그냥 검색했고 주로 중요한 정보를 얻은 곳은 공공임대 카페에서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당첨된 사람들에 의해서 정보를 얻었어요. 처음부터 여기에 살아야겠다는 아니었고 결혼 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한번 해 본 게 커요. 되겠지! 라는 것 보다는 그냥 그 당시에는 원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나은 집을 탐색하다가 시험 삼아 넣어봤는데 당첨이 된 거지요.”(청년 부부가구, 월세, 공공임대지원, A)

“아이들 키우기 좋다고 해서. 여기 많이 알아보다가 가격은 이쪽 동네에서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한데 초등학교가 아파트 안에 있어서 아이들 생각해서 그 점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지상에 차가만 다니고 걸어서 병원이나 슈퍼 약국 다 갈 수 있고, 초등학교가 도보로 3분 정도.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기에는. 직방은 안 보고 부동산과 부동산 카페, 네이버 카페. 거기에서 사람들 의견 같은 것 검색해 보고 물어봤지요. 인터넷으로...”(청년 부부가구, 자가, F)

“광주나 인근으로 봤을 때는 사랑방이라는 걸 많이 이용을 한 편이에요. 사랑방 위주로 많이 봤었고, 그걸로 보다가 매물, 혹시나 다른 게 있을까 싶어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주말에 공인증개사를 돌아다닌 것 같아요.”(청년 부부가구, 전세, B)

“결혼 전 3, 4개월 전부터 네이버 부동산에 검색해서 삼성역 근처가 직장이라 2호선 라인으로 알아봤고 그러면서 회사에서 집까지 1시간이 넘지 않는 기준으로 가격이 맞는 것들을 봤는데 스무 군데 정도 봤어요.”(청년 부부가구, 전세, H)

### **“주거 선택이유: 자녀 양육을 고려한 주택유형(아파트), 주택상태, 주거환경”**

청년 부부가구의 주거 선택이유는 주거 비용이나 주택위치, 주택상태, 주거환경, 향후 주택가격 변화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앞서 청년 1인가구의 주거 선택이유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특히, 분리수거, 경비 상주, 아파트 단지 내부 커뮤니티 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 편리하고, 주변 상권과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 깨끗한 주택 상태도 주거 선택의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

“현재 주거를 선택한 이유는 아파트 관리해 주시잖아요. 경비도 있고 분리 수거나 이런 것도 실제 거주하기 편하니까. 아파트라는 게 마음에 들어요. 대부분 아파트만 알아봤고 빌라는 시끄럽거나 차 지나다니는 위치에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남편이랑 저도 계속 아파트에 살아서 빌라는 고려를 안 했어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D)

“아파트라서 장점이 좋아서. 베란다 있고 주변에 오피스텔을 보면 상가만 있고 황량하더라고요 주변이. 그런데 아파트는 신도시라서 주거용으로 학교도 있고 주변에 식당도 많고 마트도 있고 지리도 좋고 그런 걸 판단해서...”(청년 부부가구, 전세, I)

“새집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저희가 가격적으로 지리적으로 알아봐서 봤던 모든 집들을 필요한 것 보다는 평수가 컸어요. 그리고 20년 정도 된 아파트들이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넓은 건 좋은데 수리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커뮤니티 시설이 없다거나, 아니면 안전한 것에서 봐도 조금 더 골목길이 있다든가 그런 단점이 있었고, 여기는 대단지이기도 했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수리가 필요 없다는 것 때문에. 신축 입주라서

싸게 들어갔거든요.”(청년 부부가구, 전세, H)

“새 집이면 좋고 좀 깔끔했으면 좋겠고 도배도 새로 되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제일 우선이었어요. 일단 곰팡이가 없고...”(청년 부부가구, 자가, E)

“중요하죠. 집에 있을 시간이 많으니까 깨끗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30년 된 아파트에 살아봤는데 곰팡이도 있었고 바퀴벌레도 있었고 잠깐이지만 너무 안 좋은 기억이어서 깨끗한 게 중요 하구나 했어요.”(청년 부부가구, 자가, F)

다만, 청년 부부가구의 경우 전술한 이유들의 공통점으로 자녀 양육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자녀를 키우기 좋은 주택 유형과 주택 상태, 자녀 양육을 고려한 주거 환경 등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청년 부부가구의 경우 대체로 아파트를 선호하였는데, 이는 아이를 키우기에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자들은 자녀의 학교와의 거리를 고려하기도 하였는데,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인프라도 청년 부부가구의 주거 선택에 주요 이유였다.

“분양가에 맞춰서 들어왔고, 아이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 게 제일 1순위였어요. 학교. 찾길 안 건너도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 아파트라면 분리수거도 잘 되어 있고 커뮤니티도 잘 되어 있어서 아파트를 선호했던 것 같아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E)

“중요하지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안전하고 쾌적하려면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관리가 잘 되어서. 안전은 저희는 아파트 1층에 내려가면 연못도 있고 수목원도 있고 자연 친화적인데 빌라는 골목길에 많아서 아이들이 위험하잖아요. 안전하고 쾌적하고 깨끗하고 아이 키우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고 그러면 아파트에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교육 문제 때문에...(중략)아이들 학교도 가깝고 남편이 IC를 많이 이용하니 고속도로도 가깝고 그 두 가지...”(청년 부부가구, F)

“살 집이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된 집을 선택하고 싶지는 않았고 저희가 지금 임신한 상태인데 애들 같이 살 것까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시설이 안 좋거나 환경이 안 좋은 (곳은 배제한...)”(청년 부부가구, B)

청년 부부가구의 현재 주거 선택 이유에 대하여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아파트, 가격, 위치, 주거, 환경 등의 단어가 빈번히 나타났고, 남편, 아이에 대한 언급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 부부가구 참여자들이 가족, 자녀 양육을 고려한 주거 환경, 특히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과도 일치하는 모습이다.



그림 IV-7.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현재 주거 선택 이유(청년 부부가구)

**“주거 현안: 대출 연장/상환에 대한 부담, 중개수수료 부담, 인터넷 정보의 한계”**

청년 부부가구 참여자의 상당수는 주거 마련 과정에서 금융대출을 받고 있었는데, 대출 연장이나 상환에 대한 부담이 가장 고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신청 과정에서도 대출 조건이 맞지 않거나 탈락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대출 상환 금액이 과거보다 높아져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였다.

“대출을 찾아보면서 안 될 수도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기는 했어요. 둘 다 처음이다 보니까.”(청년 부부가구, 전세, 금융지원, B)

“어려운 점은 대출이 잘 나올까? 이런 것을 첫 번째로 걱정을 했고...(중략)대출을 받으면 한 달에 내는 돈이 있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예전에 냈던 것 보다 3배는 되거든요. 그런 압박감은 있어요.”(청년 부부가구, 자가, F)

또한, 앞서 청년 1인가구와 마찬가지로 청년 부부가구도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수수료 부담을 토로하였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더 높기 때문에 중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외에도 중개인이 매수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매물을 소개해주기 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매물을 편향되게 소개하거나, 조건에 맞지 않는 매물을 보여주기도 하고, 허위 매물 소개 및, 전문성 부족 등 거래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생각보다 그분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가지고 가는 것 아닌가 라는 건 있었어요. 예. 0.6%인가? 최대 다 드렸거든요. 그런데 부담스럽더라고요...(중략)불편한 점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을 먼저 소개해 주잖아요. 그럴 때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아파트를 마음에 들어 하면 단점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걸러 들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청년 부부가구, 자가, F)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요 사실. 매매 같은 경우는 0.3%인가? 그 정도 받던데 제가 공인 중개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0.3%라고 한다면 3억짜리 집이라면 100만원 넘을 거잖아요. 뭘 해서 왜? 그런 느낌. 크게 자기들이 광고한 것도 없는 데 뭘 해서, 왜? 그런 느낌.”(청년 부부가구, 자가, G)

“그 조건에 맞게 집을 알아보고 싶은 데 부동산 중개인들은 금액이 큰 집을 보여주려고 해요. 그런 것에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 답답한 적이 있어요.”(청년 부부가구, 전세, I)

“막상 한번도 가보지 않은 집을 집주인 말만 듣고 저한테 설명하고 막상 가보니까 다르고 그랬던 게 중개인이 자기도 모르는 집을 설명하고, 자기도 보려고 데리고 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중략)네이버 부동산 통해 매물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없었던 적도 있고.”(청년 부부가구, 전세, H)

이와 같이 청년 부부가구가 안고 있는 주거 현안으로 아파트 대출 상환이나 연장에 대한 부담이 있으며, 높은 중개 수수료나 계약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는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대출, 아파트, 중개사, 계약, 수수료 등의 언급이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8.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주거 현안(청년 부부가구)

(2) 주거에 대한 의미와 희망

“가족과 함께하는 휴식을 위한 공간, 부가적으로 자산 증식까지”

청년 부부가구의 주거란 주로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으로서 휴식을 위한 공간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서, 청년 부부가구의 주거의 의미에 대하여 1순위부터 3순위까지 합한 결과,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응답이 81.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청년 부부가구가 결혼하기 전에는 주거의 사적인 공간으로서의 의미도 중요했지만, 결혼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더 커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배우자와 함께하기 위해 결혼하였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공간을 통해 밝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개인적인 공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주거 자체를 가족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생각하였다.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개인적인 공간도 중요했는데 이제는 부부 2인가구라서 많이 바뀐 것 같은 데 지금은 65대 35. 가족과 함께 하는 게 65 정도. 저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랑 살려고 결혼을 한 거라 만약 개인적인 공간만 너무 우선시 되면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함께 하려고 결혼한 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청년 부부가구, 자가, D)

“맞아요. 거실에 모여서 애들과 같이 놀기도 하고 밝은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족이랑 밥먹고 같이 하면...”(청년 부부가구, 자가, E)

“주거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남편이 직장에 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 집에서 만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주거란 제 가족들이 함께 하는 공간이에요.”(청년 부부가구, 전세, I)

“저만의 사적인 공간은 아니에요 배우자가 있으니까. 오히려 사무실 제 공간이 어떻게 보면 더 사적인 공간인 것 같아요.”(청년 부부가구, 자가, C)

“그렇게 사적인 공간까지는 아닌 거 같아요. 집 자체를 그냥 서로 편안하게 쓰는 공간이지, 제가 집에서 사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생각자체를 안 해 봐서.”(청년 부부가구, 전세, B)

또한, 주거는 온전히 가족들이 외부의 요인들로부터 벗어나 편안한 휴식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하여 청년 부부가구 참여자들은 직장이나 바깥의 여러 가지 일들로부터 벗어나서, 외부의 요인들은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가족들의 사적인 공간으로서 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저는 그냥 편안한 공간. 거기에서 잠을 푹 잘 수 있는 공간.”(청년 부부가구, 자가, C)

“일단 잠을 집에서 자고 첫 번째 휴식이고 두 번째는 집이 본인의 삶에 맞게 형성되어 있고 만족스럽다면 밖에서 보는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요.”(청년 부부가구, 월세, A)

“집에 와서 편안하고 여러 가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쾌적하고 편안했으면 좋겠다.”(청년 부부가구, 자가, F)

“주거란 나를 안정되게 하는 곳이다. 밖에 나갔다가 일보고 오면 피곤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집에 들어오면 조용하면 제가 쉴 수 있는 게 준비되어 있고..”(청년 부부가구, 전세, I)

한편, 주거는 자산 증식의 수단이기도 하였는데, 한 참여자는 실제 거주하면서 부가적으로 재테크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를 장기적으로 투자할 우량주로서 비유하기도 하였다. 또한,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면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참여자도 있었다. 전세에 거주하는 청년 부부참여자 중에서는 최근 가격이 오르는 상황을 보면서 당시 투자로서 집을 매매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장기적으로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거주라서 주식도 단기 투자면 하루에 1, 2위를 하겠지만 장기 투자하는 우량주는 묻어놓고 가는 것처럼 거주를 하는 데 시세 오르는 건 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우량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청년 부부가구, 자가, C)

“가능하다면 자산증식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면 그 방법을 택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으면 같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나중에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걸 우선적으로 고르지 않을까.”(청년 부부가구, 자가, D)

“신혼 부부 때 신혼 부부 특권으로 관저동 아파트 하나는 분양 받았는데 그때는 멋모르고 받았어요. 아파트 한번 해 볼까? 해서 됐는데 운 좋게 당첨이 됐는데 예상치 못하게 입주하고 저희가 1년 만에 팔았어요. 분양가보다 한 1억 5천에서 1억 6천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큰돈이잖아요.”(청년 부부가구, 자가, F)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주거를 못하고 있어서 속이 쓰려요. 어쨌든 주거 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사람들이 다 살고 싶은 곳이 동일하잖아요. 역세권이고 신축이고 그러니까 자연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은 변동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매매를 했으면 지금이랑 몇 억 차이가 나도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때도 지금 시기가 아니더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걸 샀으면 더 좋은 집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지요.”(청년 부부가구, 전세, H)

### “사회적 지위의 표현,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시선의 차이”

청년 부부가구 참여자들은 주거가 사회적 지위의 표현이라는 데에 대다수 동의하였다. 즉, 어디에 사는지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낸다는 것인데 이를 동의하면서도 자녀를 양육하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문제의식을 지니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브랜드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다르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이야기를 통한 간접경험뿐 아니라 실제 본인의 직접적인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생각이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편견이 많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청년 부부가구 참여자들은 자녀들까지 이처럼 주거가 사회적 지위의 표현으로서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갖고 있었다. 일전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만큼 아이들이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서 서로 계급을 나누고 조장하는 분위기에 대한 걱정이었다. 한편, 일부 참여자들은 자신의 자녀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을 것을 생각하여 주거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도 살아봤지만 강남에 산다고 하면 반응이 달랐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빌라에 사는 분들은 어디에 살아? 그러면 어느 동네에 살아요. 그러는 데 아파트에 살면 이름도 얘기하고 이런 게 달라서 확실히 아파트에 살 때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청년 부부가구, 전세, H)

“헬리오시티 사는 애, 애는 주공 LH에 사는 애, 이렇게 얘기한데요 어린애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빈부에 대해서 계급을 나누는 조장하는 느낌이라서 너무 보기는 싫은 것 같아요 그런 행동은”(청년 부부가구, 자가, C)

“보통 대치동에 산다 그러면 부자 이렇게 인식되는 게 있고...(중략) 저희 동네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이젠 제가 살아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 동네는 부자 동네 우리 동네는 그렇지 않은 동네로 나누는 그런 게 있어요”(청년 부부가구, 자가, D)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파트 브랜드 명을 많이 따라가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하고 싶은 데 주변 환경만 봐도 이름이 있는 아파트 사람들이 텃새를 부린다는 그런 게 많아요...(중략) 거기에서 살면 그 사람 좀 잘 사나 보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맞는 것 같아요. 내 아이한테는 알려주고 싶지 않지만 자꾸 뭔가 오니까 애를 키우면서 내가 실감을 하니깐 나도 저쪽으로 이사를 가 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청년 부부가구, 자가, E)

“애들이 휴먼시아 이런 걸로도 자기들끼리 친구를 나눈다고 들어서 브랜드 평판으로 나누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엄마들도 약간 맘충. 이런 사람들도 그런 게 많고, 사회적으로 이런 이슈가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브랜드 평판이 없어졌으면 좋겠다.”(청년 부부가구, 자가, G)

청년 부부가구가 생각하는 주거의 의미에 대하여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아파트, 사적, 가족, 증식, 사회, 지위, 수단 등의 언급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이는 전술한 분석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서, 청년 부부가구에게 주거는 사적인 공간뿐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하는 공간으로서 의미를 지니며, 사회적 지위의 표현이나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서 주거를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IV-9.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주거의 의미(청년 부부가구)

## “주거는 독립과 결혼에 필수적인 조건”

청년 1인가구와 마찬가지로 청년 부부가구 역시 주거는 독립과 결혼에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독립하는 과정에서 주거 문제는 목돈 마련, 월세 및 생활비 지출 등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 참여자는 사회초년생에게 원룸을 구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 것인데 현재의 집값으로는 매우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주변에 주거 문제 때문에 실제로 독립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향후 결혼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거비용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독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원룸 구하는 것도 되게 사회초년생들한테 부담이거든요. 버리는 돈이기도 하고 접근성이나 삶의 질 이런 게 나만을 위한 공간이니까 독립할 때 되게 힘든. 약간 사회초년생한테는 지금 집값이나 체계가 많이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고...”(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D)

“저는 결혼해서 잘 모르겠지만 결혼 안 했을 때 보다 월세로 살기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월세 내는 것도 그렇고 생활비랑 이런 것 다 부담해야 하는 거니까 그것도 힘들고 보증금 내기도 힘들고. 목돈 마련까지 거기까지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E)

“돈이 가장 큰 문제겠지요. 주거비용을 마련 못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이 어렵지요. 그 부분이 독립 못한 분들 중에는 그런 이유가 많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제 주변만 봐도 결혼 안하고 있는 형들 같은 경우도 굳이 큰돈 들여가면서 따로 살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아직도 부모님과 사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나중의 결혼을 위해서 저축하기 위해서. 어찌됐든 집이 있어야 같이 살 수 있으니까.”(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B)

더욱이, 결혼은 함께 거주하는 공간으로 의미가 크기 때문에 주거 마련이 더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향후 자녀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짐에 따라 독립보다는 결혼에서 주거의 중요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최근 높아진 부동산 가격으로 부모님의 도움 없이 주거를 마련하기 힘들어졌는데, 주거

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혼 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참여자의 의견도 있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청년 부부가구 참여자의 경우 주거 마련 과정에서 주택의 형태나 크기도 고려하겠지만 결혼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거 마련 여부가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였다.

“저 혼자 살 때는 저만 생각하면 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거리를 택하고 오래된 아파트를 택하더라도 옳고 옳은 게 내가 결정할 수 있지만 결혼할 때는 나도 생각해야 되고 배우자도 생각해야 되고 오래 살았을 때 나중에 2세도 생각할 수 있는 거라 그 모든 걸 고려하는 게 좀 더 복잡하지 않을까 해서...”(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D)

“결혼에 주거는 필수요소다. 집이 있어야 살 수 있고 살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C)

“개인적으로는 저도 지금 결혼해서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혼 자체는 대단한 집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공공임대 들어가서 돈을 모아서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로 원룸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그건 개개인의 기대치에 따른 부분이 큰 것 같아서 저는 10평 15평 빌라건 아파트건 결혼 자체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공공임대지원, A)

“결혼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주거가 없다면. 부모님이 안 도와주시면 집을 구하는 것도 요새는 힘들고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기도 하고 자기가 버는 것도 그렇고 주변을 보면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자들을 보면 특히 그러더라고요. 내가 집을 해 갈 수가 없으니까. 주거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는 말 동의해요. 주변만 보면.”(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E)

### “자가 마련은 필요, 하지만 부모 도움 없이는 불가”

청년 부부가구 참여자들은 자녀 교육 문제나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에 자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소득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자가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계약종료 시기에 맞춰 매번 이사를 해야 하고, 이러한 잦은 이사가 결과적으로 자녀의 교육 문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청년들은 우려하였다.

또한, 제한적인 주거 활동 등으로 심리적인 불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자가 마련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한데 계속 지출되는 이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집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청년 부부가구 참여자들은 자가 소유가 안정적이라고 기대하였다.

“첫 번째로는 언제까지 전월세로 살기에는 심리적인 불안정한 부분이 있고 특히 결혼을 했을 때는 그것과 연장선으로 추후에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다면 계속 이사 다니거나 그랬을 때 아이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고, 교육적인 면이나 적응하는 데 좋지 않을 것 같고 부부한테 있어서도 어떤 일을 하든지 본인의 자가에서 살게 되면 안정적이고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나은 삶이 될 것 같아요.”(청년 부부가구, 월세, 공공임대지원, A)

“자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마음의 안정. 나중을 생각했을 때 집이 없어서 전세로 계속 왔다갔다해야 된다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애들한테는 많이 피해를 볼 것 같아서. 지금 자가가 아니고 전세로 사는 이유 중 하나도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전세를 선택한 건데 나중에 많이 모아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자가를 구매할 것 같아요.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아이한테 전달이 되니까.”(청년 부부가구, 전세, 금융지원, B)

“경제적 측면에서 자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장 눈에 띄는 건 아닌 것 같은 데 집값이 내리는 경우는 못 봤어요. 수도권에서. 일단 갖고 있으면 그건 자산의 수단이 될 수 있고 키울 수 있고 내가 무슨 일을 안 하더라도 집값이 오르는 걸로 인해서 이득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전세를 2년마다 이사를 다니다 하면 부동산 비도 만만치 않고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청년 부부가구, 자가, D)

“일단 제 명의의 집이 하나 있을 때 집 값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의연하게 마음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집이 없는 데 올랐다가 그러면 더 불안해지고 못 살 것 같고 떨어졌더라 그러면 지금 사야 되나? 그런 건데 집이 있으면 고민도 줄어들고 여기에서 집을 못 구하면 내 집에 가서 살면 된다는 생각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전세를 주든 월세를 주든 수입이 나오는 것도 좋고.”(청년 부부가구, 전세, H)

“예. 왜냐하면 2년마다 이사를 가게 되는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안정감을 위해서. 이사 다닐 때도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중략) 지금 갖고 있으면 내 재산이 되는 것이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집값이 오르는 걸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청년 부부가구, 자가, F)

청년 부부가구 참여자들은 근로 소득에 비해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이 높아 본인의 소득만으로 자가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청년 1인가구의 응답과도 유사한 것으로, 근래에 부모님의 지원 없이 부부만의 소득으로는 주거를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작금의 현실이다. 즉, 주거비용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소득을 통한 저축으로는 그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 초기자본이 없다면 주거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수도권에 거주하는 참여자들의 경우 최근 부동산 정책 변경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낮아졌는데, 이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금수저가 아닌 이상 자가 마련이 더 힘들어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월급에 비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신이 돈을...(중략)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데 그런 비용이 누가 어떻게 모으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아요. 월세에서 전세까지한 어떻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전세에서 자가까지는 두 세배는 더 힘든 것 같아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광주, B)

“저희 같은 경우를 보면 모아둔 돈으로 했고 전체 다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서 조금씩 모으는 게 가능할 것 같은 데 초기 자본이 없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부산, I)

“이번에 발표된 정책에서 대출이 많이 줄었거든요. 투기 과열 지구 이런 걸 봤을 때는 청년들 월급을 가지고 금수저 아닌 이상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희도 느꼈어요. 저희도 더 좋은 곳에 가고 싶은 데 지금 상황에서 대출이 더 적게 나오니까 못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금은 많이 내야 되니까, 집값이 상승하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집을 못 팔면 전세 가격이 무조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전세금 마련하는 것도 어렵겠지요.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지금 정책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대전, F)

### (3) 주거 전략 및 계획

#### “자녀 양육 및 교육을 위한 이사 계획”

청년 부부가구의 주거 이전 경험이나 이전 계획은 주로 자녀의 양육 및 교육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자녀를 키우기 위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지도 청년 부부가구가 주거를 이전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청년 부부가구 참여자들은 주변 생활 편의시설이 잘 구축된 곳으로 이전하기도 하고, 자녀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이사를 계획하기도 하였다. 한편, 전월세 등 임차인에게 향후 주택 가격 변화는 주거 계획에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지방에 거주하는 참여자는 최근 부동산 정책에 따라 전세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계속 살 수가 없어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기는 주변 환경이 별로였어요. 정말 외딴 섬 같은 느낌이라서 저도 생활하기 편하고 그런 데로. 애들 병원. 저 다리는 병원도 없었고. 병원, 커피숍 이런 게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마트라고 하기는 슈퍼가 있었고, 교통편은 좋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설들이 없어서 인프라가 부족했어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자가, E)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 대전에서 교육열이 높은 동네로 이사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어요.”(청년 부부가구, 대전, 자가, F)

“아이가 곧 태어나긴 하는 데 장성은 아무래도 교육 환경적으로 애들한테는 부족한 면이 있기도 하나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빠르면 5년 정도 이후에는 이사할 계획이 있어요.”(청년 부부가구, 광주, 전세, B)

“이사를 계획하는 이유는 지금 살고 있는 해운대가 전셋값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어서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다시 구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엔 다시 봐야겠지만 전세 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사는 게 자동은 아니고 다른 해운대 안의 조금 더 싼 곳이 나오면 옮겨야 될 것 같아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전세, I)

### “향후 주거 선택 요인: 아파트 선호, 자녀를 위한 주거 환경 고려”

청년 부부가구가 앞으로의 주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거 비용, 주거 위치, 주택 유형, 주거 환경, 주택 상태, 향후 주택가격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된다. 앞서 현재 주거를 선택한 이유와 마찬가지로, 주변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편의시설 이용 및 보안이 우수한 아파트를 대체로 선호하였다. 아파트가 갖추고 있는 기본 인프라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에 편하고 안전하기 때문이다. 아이와 함께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깨끗한 주택 상태도 청년 부부가구 참여자들이 향후 주거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를 선호해요 다른 주거 이용 시설과 다르게 단지 내에 편의시설들이 많고 헬스장, 도서관 등등 단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아서 편리하고 다른 주택 같은 곳과 다르게 공동시설들도 있잖아요. 쓰레기 처리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편리하고 앞으로의 가치를 봐도 그렇고.”(청년 부부가구, 공공임대지원, A)

“편리하니까. 분리수거도 편리하고 빌라는 분리수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 사무소라는 게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케어해 주는 것. 환경적인 부분들, 주변 조경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애들이 놀기도 편하고 안전하고.”(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E)

“아파트 아파트 주위가 인프라가 좋고 깨끗하고.”(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F)

“아무래도 아이가 있는 집이라고 하면 집에 왔을 때 편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파트 쪽으로 더 기우는 것 같아요 보안이라든지 아파트 주변은 뭐가 많이 생기기도 하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만약 주택이라고 했을 때는 제가 집 외적으로 뭐가 관리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로 관리를 해 주는 부분이 있고 보안도 주택보다는 나올 것 같아서 아파트로 갈 것 같아요...(중략) ”애들을 위해서라도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애들이 있는 집은 다 똑같은 것 같은 데 누가 더러운 집을 애들한테 살게 하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깨끗하고 그런 곳을 찾을 것 같아요.”(청년 부부가구, 금융지원, B)

이 외에 주거 위치도 청년 부부가구의 주거 선택에 주요 요인이었다. 청년 부부

가구 참여자들은 자신 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장과의 거리, 대중교통이 편리한 위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청년 부부가구에게 자녀의 교육 문제로서 학군은 주거 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한다. 참여자들은 교육환경이 좋은 곳을 선호하였는데, 주변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많이 신경을 쓰고, 학원들이 잘 갖춰진 지역을 선호하였다. 비록 주거 비용이 조금 부담스럽고, 주택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교육을 위한 좋은 학군은 주거 선택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교육 환경이 좋은 동네. 부모님들이 아이들 교육을 많이 신경쓰는 곳. 인프라에 학원도 속하니까 학원이랑 여러 상권 아이 교육 때문에. 학원이 잘 되어 있는 곳.”(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F)

“저도 교통에 대형마트. 주변 인프라와 교통 주거 환경에서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게 학군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주택가격을 탐색하다 보면 유난히 서울지역에서싼 동네가 있어요. 왜 싸냐? 보면 임대 아파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지금 사는 지역이 학군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노후화가 되고 좁다 보니까 저는 학군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C)

#### (4) 주거 지원 정책 관련 인식과 요구

##### **“정책 인지 경로: 결혼한 주변 지인, 카페, 블로그 등 온라인 검색”**

청년 부부가구가 주거 지원 정책을 알게 되는 경로는 대체로 주변 지인이나 카페, 블로그 등의 온라인 검색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주변, 지인, 결혼 등의 단어가 빈번히 언급되는 양상을 보였다. 청년 부부가구는 주로 먼저 결혼을 한 주변 지인이 해당 정책을 알려주거나, 실제 지인의 수혜 경험을 통해 관련 정책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뉴스를 통해 알게 되거나, 직접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검색하여 정책에 대한 정보를 탐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의 청년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인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실제 청년 부부가구가 체감하는 홍보의 효과는 적은 것으로 보여진다.

“집을 구하면서 당연히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이었는데 주변에 알고 계신 분이 이런 정책이 있는 데 혹시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 보라고 해서 찾아봤어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전세, B)

“지인의 아는 지인이 이런 걸로 해서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들어본 것 같아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자가, F)

“결혼을 저보다 먼저 한 지인이 그런 게 있다고 알려 줬고 저도 뉴스에 가끔씩 경기도 청년 통장 이런 것 오늘이 마감이다 아니면 곧 시행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뉴스에 뜨면 그런 것 알아보면서 같이 제도가 이런 게 있다 우연히 읽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자가, D)

“주변에 결혼한 친구가 행복주택에 대해서 소개를 해 줘서 알게 됐고 동생이 전세자금 대출을 저리로 받았는데 주변에서 아름답 아름답 알았던 것 같아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자가, C)

“인터넷에. 주변 지인한테도 물어보고.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직원들이랑 친척들한테 물었어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전세, H)

“어떤 지역에 어떤 공고가 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전형에 지원해야 하는지 그 전형에 지원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등. 인터넷 블로그나 청약 관련 카페에서 찾아봐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월세, A)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데 신혼부부 위주로 알아봐서 자세히 알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검색하다가 인터넷에서 본 것 같아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전세, I)



그림 IV-10.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정책 인지 경로(청년 부부가구)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주거 불평등 심화”

청년 부부가구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에 주거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이야기한다. 계층에 따라 주거 점유 형태가 달라지고, 주택의 크기나 상태, 주거 환경에 격차가 크다는 것을 참여자들은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거 불평등이 부모로부터 대물림되고 결과적으로 청년 부부가구의 자녀세대로까지 대물림된다는 점에서 문제의식도 존재하였다. 계층 간 주거 격차는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주고, 실제로 자녀가 성장하여 주거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부모가 누구인지에 따라 계층 간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부모의 부가 주거라는 수단을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데, 소위 금수저인지, 흙수저인지에 따라 자녀의 주거도 이미 결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 청년부부가구 참여자는 이러한 엄혹한 주거 현실에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는 점,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를 물려줄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미리 걱정하기도 하였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요새는 아파트에 수영장도 있고 아이들 놀이방도 있고 너무 좋은데 한편에는 아직도 단칸방에서 아이들이랑 몇 명씩 사는 게 심심치 않게 보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 양극화가 정말 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잘 사는 동네는 부모들이 교육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니까 좋은 교육을 접할 기회도 많고 교육이나 부가 대물림 되는 것 같아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F)

“(계층간 불평등)그런 건 심하지요. 나는 왜 없을까 나는 왜 내 자식이 생겨도 그렇게 못해 줄까 그런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만약 내가 그렇게 해 줄 수 있다 해도 급 좋은 아파트가 아닐 거잖아요. 급 좋은 주택도 아닐 테고 그런 것. 심하다고 봐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G)

“주변에서만 봐도 그런 부유한 집은 굳이 내가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얼마를 해 줘서 집을 구했네 라는 말을 쉽게 들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그런 부분도 있고 돈이 없는 집안은 월세도 같까 말까 하는 집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갭이 큰 것 같아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B)

“심한 것 같아요. 계층 간이지요. 어떻게 보면 요즘은 거의 태어나자마자 정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흙수저랑 금수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자수성가해서 엄청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고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지요. 금수저로 처음부터 태어나면 편한 것이고, 그런 차이가 큰 것 같아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A)

한편, 일부 청년 부부가구 참여자들은 부동산 투기로 인해 과열된 집값 상승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선도 있었다. 이는 세대 간 주거불평등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기성세대가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아서 청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4, 50대 다주택자가 부동산 시세차익을 통해 이익을 얻음으로써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청년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청년 부부가구 참여자들은 부모 세대에서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자가를 구할 수 있었던 세대였지만, 그 자식세대인 청년 들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노력에 비해 집값이 크게 오르니 집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그것도 크지요. 지금 4, 50대 분들이 제가 알기로 집 소유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 데 그 분들이 다주택자라서 집을 많이 사고팔아서 오른 것 같아서 청년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F)

“부모님 세대에서는 본인이 성공하면 쉽게 집도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자식세대에서는 본인이 노력한다면 당연히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노력하는 것에 비해 집값도 그렇고 변하는 게 너무 커버려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성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B)

청년 부부가구가 인식하는 청년 주거 문제와 사회 구조에 대하여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수행한 결과, 불평등, 아파트, 계층, 동네, 자식, 심각 등의 단어가 자주 언급되었다. 이는 앞서 분석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서 볼 수 있는데, 청년 부부가구는 주거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였으며, 특히 계층 간 주거불평등은 자녀에게까지 대물림된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 IV-11.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주거불평등(청년 부부가구)

**“청년 주택 공급 정책: 경제적 부담 해소의 이점, 까다로운 신청 조건, 공급 부족 문제는 존재”**

주거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도 높다. 청년 부부가구 참여자들은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청년 대상의 주택 공급 정책이 주거 비용 부담 해소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우선, 정부에서 공급하는 주택들의 임대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거 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좋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정적인 부분도 주택 공급 정책의 장점으로 보여진다.

“제 친구도 행복주택에서 거주하는 친구가 있어서 들어봤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임대료가 엄청 저렴하고 그래서 그 청년한테.”(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자가, D)

“장점은 저렴한 주거비용. 저렴한 주거비용에 아파트에서 살 수 있고 인프라가 좋고 실질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것. 원래라면 전세에 큰 돈이 묶이거나 월세로 몇십만원씩 써야 하는데 여기에 있음으로써 저렴한 월세만 지출하고 그 외에는 돈을 모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중략)일반적인 매매나 전세의 계약에 비해서 조금 편하다고 할까요? 쉽고 나라에서 관리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고 저렴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번 주택공급이 많이 되면 청년들이 정말로 자가를 위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월세, A)

다만, 주택 공급 대상의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소득조건과 차량가액 등 정책 수혜를 위해 만족해야하는 기준이 생각보다 높으며, 실제로 신청하기 위해 알아보다가 조건이 맞지 않아 포기하였다는 일부 참여자도 있었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주택 공급 대상자의 까다로운 선정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현재 청년들이 자신의 소득만으로 집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불가능한 상황이다. 오히려 그 대상자 선정 기준의 경계에 놓여있는 청년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됨에 따라, 주거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주택 공급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절대적인 공급량 측면에서도 주택 공급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수에 비해 주택 물량이 부족해 당첨될 확률이 희박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실제 공공임대 정책의 수혜 경험이 있는 청년 부부가구에 따르면, 주택 공급의 목적에 맞게 공급 면적이 좀 더 늘어날 필요가 있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신혼부부 우대 정책인데,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우며 생활하기에는 평수가 작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주택 공급 정책으로서 자녀 계획을 가진 신혼부부들이 신청할 수 있는 평형이 보다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저도 공공임대도 많이 알아봤는데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어요. 저도 힘들다고 생각하는 데...(중략) 공공임대는 조건이 많이 풀어줘야 해요. 진입조건은 하위 2, 30%가 들어가기 쉽게 하고 그 안에서 10년 동안 살아야 내 집이 되게 한다.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런 걸 완화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자가, C)

“그런 걸 한번 찾아봤었는데 소득기준이라든가 기준이 있는 데 저는 안 맞아서 사실 더 이상 알아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그렇게 해서 신청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떨어졌어요.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아서 되게 어렵다는 인식이고 조건도 까다롭다는 생각이 있어서 나이가 있을수록 실수령액이 엄청 차이가 난다거나 제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닌 데 그런 선택이 작게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나는 저런 것에서 다 배제가 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전세, H)

“소득 조건. 자산 조건, 차량 가액, 신혼부부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혼인 관계여야 하고, 수도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 정도. 입주 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 소득 조건과 차량가액이 제일 까다로워요 사는 동안 변하면 안 돼요...(중략)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신혼부부 전용 아파트인데 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 작다...(중략)실제적으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라는 목적의 아파트인데 너무 작아요. 평수가 너무 작고 주변 단지도 있지만 부족해...”(청년 부부가구, 공공임대지원, A)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 주거비 경감에 도움,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에 대하여 청년 부부가구 참여자들은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매달 지출되는 주거비용이 감소되기 때문에 청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이를 토대로 목돈 마련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월세에 대한 지원보다는 전세 대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는데, 참여자들은 목돈이 없는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줌으로써 월세로 매달 지출해야할 비용이 감소하고, 이자 부담도 적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청년 주거비 정책의 경우 주거비 경감의 이점뿐 아니라 청년들이 거주하고 싶은 주거 형태나 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여타 정책들에 비해 긍정적인 부분이었다.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다달이 월세를 내고 지내더라도 부담이 없다면 괜찮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전세로 했을 때 좀 더 지출이 줄어들잖아요. 전세로 했을 때의 문제점은 대부분 청년들이 목돈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건데 대출을 통해서 그걸 지원해 주고 이자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이자를 적게 해 줌으로써 월세 대신 전세로 살 수 있게 해 주고 대신 대출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청년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월세, 공공임대지원 A)

“진짜 잘 버는 사람이 아니라면 2-300인데 집값 내고 생활비 내면 2-300만원도 빠듯할 것 같은데 목돈 마련에 좋을 것 같아요. 목돈 마련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자가, E)

“좋은 것 같아요. 전세 대출로 받는지 월세보다 전세에 살고 싶은 데 전세가 목돈이 들어가니까 전세대출이 좋은 것 같아요. 월 납입금이나 그런 게 은행보다 이자가 저렴하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H)

“내가 원하는 주거 형태를 고를 수 있고 지역 위치, 내가 있는 위치로 조금 덜 불편할 것 같고. 딱 정해져 있지 않는 구역일 테니까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자가, G)

그렇지만 전세 대출과 같은 주거비 지원 정책이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임시방편이라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대출 한도를 높이고, 이자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대출은 어쨌든 갚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쉽게 빚을 낼 수 있는 정책 이전에 사회 전반적인 주거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 소득 수준에 비해 급격히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청년 주거 정책의 효과도 요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출 한도만 상향하면 어쨌든 갚는 건 똑같잖아요. 더 많이 빌려줄 뿐이고.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 거니까. 이걸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크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에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그걸 언제 갚아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자가, D)

“이게 그렇다고 이 사람이 집을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임시방편인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 시간에 집값은 더 오르기 때문에 임시방편의 느낌만 들어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자가, F)

“당장은 전세금을 도움 받아서 사고 싶은 집을 살 수는 있는 데 전세값이 뛰면 똑같은 일이 발생하잖아요. 결국에는 집값 안정이 되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전세, H)

### “셰어하우스, 대학기숙사 공급 및 기숙사비 지원 확대 긍정적”

청년 부부가구의 참여자들의 대다수는 셰어하우스 등의 공유형 주택과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공급 및 기숙사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단독으로 주거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공유형 주택을 활용하면 목돈 마련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데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일단 1인가구 사회초년생이 혼자서 집 한 채를 계약하는 것보다 셰어하우스 했을 때 부담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이진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자가, D)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완전 목돈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것. 그리고 내 방이 있는 거라 불편한 건 없을 것 같아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자가, E)

대학생 대상 주거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대학교 내에 기숙사 경쟁률이 높아 기숙사를 배정받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많고, 대학가 원룸도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학생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청년 부부가구 참여자들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 공급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지방에서 올라오거나 본가와 학교와의 거리가 멀어 주거 마련이 필요한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좋을 것 같아요. 원룸도 서울지역은 비싸잖아요. 학생이라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기숙사에 못 들어가면 원룸에 들어가거나 고시원에 들어가는 게 이런 게 공급이 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운택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청년 부부가구, C)

“기숙사가 잘 없거나 아니면 대학가 원룸도 엄청 비싸서. 대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잘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원룸 구하는 데 부담스러워 하는 대학생도 많거든요.”(청년 부부가구, D)

“이건 긍정적으로 봐요. 보증금이나 이런 게 쉰데 여기는 저렴하고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청년 부부가구, F)

“집이 학교랑 멀어서 집을 구해야 하는데 돈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청년 부부가구, I)

“기숙사도 경쟁률이 있더라고요.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신청에서 밀려나게 되면 기숙사보다 두 세배 더 주고 들어가는데 그런 기숙사가 많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청년 부부가구, H)

**“신혼부부 지원 정책: 저출산 시대에 필요한 정책, 지원 조건의 완화 및 청년 1인 가구 배려도 필요”**

신혼부부 지원 정책에 대하여 당사자인 청년 부부가구 참여자들은 저출산 시대의 필요한 정책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주거는 결혼의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주거 마련이 어려워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는 청년들에게 해당 신혼부부 지원 정책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이다. 다만, 지원 조건이 보다 완화되어 어려운 형편에 있는 많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갈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는 앞서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청년 부부가구의 응답과도 유사한 결과로 해석된다. 지원 자격 조건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의견이다. 가령, 맞벌이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주거 정책의 소득 구간에 벗어나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의 자산 형성 정도나 현재 부동산 가격을 고려해보았을 때 주거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이 다수이다. 이에, 청년 부부가구는 현실적인 주거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조건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신혼부부들 결혼을 못하는 이유 중 집을 어떻게 해소할 수 없으니까. 그게 나라가 계속 이어지려면 출산율을 높이는 게 맞아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이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다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자가, D)

“결혼에 대한 장려가 될 수도 있겠지요.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전세, B)

“좀 확대되어서 저도 혜택을 받고 싶어요. 일단 청약 특권도 소득 조건이 너무 낮아서 청년이 회사에 다녀서 33세 되면 충족할 수 없는 조건인데 20대에 결혼하면 모르겠지만 결혼 나이가 상향되서 거기 조건이 안 맞게 되고.”(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전세, H)

“맞는 것 같은 데 아닌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국가는 정책을 분별하는 데 결정할 때 신혼부부에 초점을 맞춘다면 결혼장려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은 데 저는 따로 보면 해당되는 게 없잖아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자체는 긍정적인데 뜯어보면 해당사항이 없어서 끝보기 정책인가? 그런 생각이.”(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자가, C)

한편, 비혼주의 또는 출산을 희망하지 않는 가구도 있기 때문에 해당 가구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하다. 최근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필수적인 요소라기보다 개인의 선택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청년 부부가구 참여자들은 신혼부부 지원 정책의 당사자로서 해당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지만, 전체 청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청년 1인가구 등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가구 형태에 따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요새는 결혼 안하는 사람도 많고 부모님과 같이 사는 사람도 많은 데 꼭 결혼을 해야 되고 아이가 있어야 되고 혼인 유지 기간도 몇 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불합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아도 집에 대한 욕망은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나.”(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자가, F)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모두가 결혼하지 않잖아요.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냥 1인가구로 계속 사는 가구들도 점점 늘어날 텐데 이렇게 신혼부부 위주의 정책만 하다 보면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불만도 많을 것이고, 좋은 영향이 지 않을 것 같아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월세, A)

### “고용, 교육 연계 주거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다음으로 고용 및 교육과 주거 정책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서는 청년 부부가구 참여자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먼저, 주거 지원 정책이 고용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데에 찬성하는 의견으로는, 지방 거주가 가능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 비용으로 주거비 마련 부담을 줄어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수도권 몰림 현상이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 긍정적이라는 의견이었다. 또한 (직업)교육을 받는 시기에 수입이 없기 때문에 주거가 지원되면 주거가 지원되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서울에만 몰리지 않을 것 같아요. 다 지역적으로 퍼질 수 있을 것 같아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자가, E)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방에 안 가려고 하는 데 좋은 직장이 있으면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도 내려와서 지방에 살면서 주거 문제도 해결이 되면 서울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게 분산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자가,F)

“그런 교육을 받는 동안 주거를 구하지 못한다면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수입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주거비용을 마련하기 힘든데 취업하기 전까지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전세, I)

“교육을 받고 있는 시기에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을 벌려고 일을 배우고 있는 데 거기에 돈까지 쓰라고 하면 빠듯할 것 같아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자가, E)

반면, 주거 문제는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고용 대상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대기업에 다니든, 중소기업에 다니든, 프리랜서이든 집을 사고 돈을 모으기 어려운 것은 모두 청년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과 교육은 개인의 선택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대상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보기는 봤는데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런지 이것 또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해요. 어차피 집 사기 어려운 건 똑같은 데 대기업에 다니든 중소기업에 다니든 다른 프리랜서든 집을 사기 어렵고 돈을 모으기 어려운 건 똑같은 데 그들한테만 혜택을 준다는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월세, A)

“그건 그 사람이 그걸 하고 싶어서 선택한 건데 그 직업을 갖는다고 해서 주택을 어떻게 해 주는 건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전세, B)

“좀 오버인 것 같아요. 취업을 한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고 취업까지 이어졌는데 회사랑 집이 멀어서 주거를 지원한다면 모르겠지만 교육을 받는다는 것만 가지고 지원을 한다면 악용할 것 같아요.”(청년 부부가구, 주거시설, 월세, A)

### **“적극적인 정책 홍보 필요, 청년부부 맞춤형 정보 필요”**

추가적으로 도입해야할 청년 주거 정책으로 청년 부부가구는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앞서 청년 1인가구의 응답 결과와도 유사한 것이다. 유튜브와 SNS 등 청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매체를 통해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정보가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어, 개인 수준에서 정확한 정보를 탐색하는 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청년 부부가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무엇인지, 자신의 상황에 따른 지원 가능 여부 등 맞춤형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건 제 생각에는 다 따로 알아봐야 알 수 있는 것 같고 지인한테 얘기를 듣던가 노출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생활에서는, 티비 광고나 유튜브 광고 SNS광고로 노출하면 사람들이 많이 접할 것 같아요.”(청년 부부가구, D)

“청년은 역시 SNS 이지 않을까요? SNS 유튜브 영상 자료들. 요새를 내가 차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차 이름을 네이버에 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쳐요. 그러면 직접 본 사람들이 영상으로 설명을 해 줘요.”(청년 부부가구, G)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뭔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찾아보려고 해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고 더 찾기 쉽고 보기 쉽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광고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게 있다는 건 아는 데 실제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무엇이고 이 시점에서 내가 비교해야 할 건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한 홍보...”(청년 부부가구, H)

### 3) 부모·청년 가구

#### (1) 주거탐색과정 및 거주과정의 경험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이유: 주거비용 부담 경감, 생활비 절약 가능”**

조사 참여자 중의 상당수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주로 주거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을 선택하였다고 이야기한다. 실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이유에 대하여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 부담, 월세, 준비, 주거비, 생활비 등에 대한 단어가 자주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스스로 독립을 원하고, 부모로부터도 독립에 대한 압박감을 받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상황이었다.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은 자신이 경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거비 지출이 어려워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취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독립하기에 충분한 자본금이 없는 경우나 월세와 식비 등 생활비를 절약하는 합리적인 수단으로서 부모님과 같이 사는 청년들도 있었다.

“자취나 독립을 하고 싶었는데 경제적인 부분에서 단순히 월세만 내고 관리비만 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같이 살게 됐어요.”(부모·청년가구, A)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월세가 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부모·청년가구, B)

“일단은 현실적으로, 저도 독립 생각은 있는데 어느 정도 자본금이 있어야 나오니까. 직장인이 된 지 2년 반 3년 됐거든요 돈이 모이면 나오지 않을까.”(부모·청년가구, C)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아직 독립하는 건 부담스러워서 돈을 모으고 기회가 되면 나갈 생각이 있어요.”(부모·청년가구, D)

“아무래도 집을 구하려고 해도 너무 비싸니까. 준비해야 될 건 맞고 결혼 자금이나 주택 구입자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따로 사는 것 보다는 같이 사는

게 나올 것 같아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부모·청년가구, F)

“구체적으로 생활비나 이런 것도 부모님과 같이 살면 제 경제적인 능력에서 쓰지 않을 부분들도 독립하면 써야 하는 부분도 있고.”(부모·청년가구, B)

“혼자 살 때 월세가 부담스럽고 식비도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줄었지요 생활비는 따로 안 나가요.”(부모·청년가구, H)



그림 IV-12.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부모와 함께 거주 이유(부모·청년가구)

“부모와 생활패턴의 차이, 자유롭지 않은 생활은 불편”

참여자들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어려운 점으로는 생활 패턴의 차이나 자유롭지 않은 생활이 다소 불편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자녀들은 성인이 되었지만, 부모와 함께 살면서 여전히 부모로부터 생활에 대한 통제를 받고 있었다. 기상시간과 귀가시간, 취침 시간에 대하여 부모들은 성인이 된 자녀를 규제하였고, 이를 따르기를 원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모로부터 주거를 제공받고 있기에 이러한 권력관계에서 청년들은 부모의 의견에 눈치를 보고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생활패턴에 대한 통제는 청년들이 주거 공간에서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원인이 되었다.

“기상 시간이라든지 제가 요즘 좀 늦게 일어나다 보니까 취업준비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취준생이 늦게 일어나느냐 빨리 일어나서 공부해라 그래서 아무래도 약간 눈치 보면서 일어나는 것도 있고.”(부모·청년가구, B)

“부모님이 간섭하거나 빨리 자라, 일찍 들어와라, 청소해라 그런 스트레스도 좀 있기는 해요. 저도 나가고 싶은 데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하고.”(부모·청년가구, G)

“확실히 혼자 살 때는 밤에 자유롭게 외출도 가능한데 부모님과 살다 보니까 12시 넘으면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늦어지면. 그게 조금 불편하기는 했어요”(부모·청년가구, D)

“8시쯤 되면 계속 전화를 해서 빨리 들어오라고.”(부모·청년가구, E)

“통금은 딱히 없는데 그래도 친구를 만나거나 회식을 한다거나 그럴 때 연락이 올 때 마다 저는 부담이 되지요.”(부모·청년가구, F)

### “부모님과 거주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은 도움”

한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1인 가구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혼자 살 때는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면서 안정감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반겨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도,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줄 가족이 있다는 것도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집에 가면 가족들이 있으니까 반겨주는 사람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심리적 측면에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우울증이 생길 때가 있는 데 부모님이 빨리 알아서 케어해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부모·청년가구, E)

“부모님과 거주하면서 긍정적인 부분은 제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그럴 때마다 어머님이 컨트롤을 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것 같아요.”(부모·청년가구, F)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것도 있어요. 혼자 오래 살아봤는데 외로울 때도 있고 있으면 좋겠다 싶은 데 부모님이 있으면 안정감이 있어요.”(부모·청년가구, G)

## (2) 주거에 대한 의미와 희망

### “나만의 공간, 편안한 휴식을 위한 주거”

현재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들은 가족과 함께 하는 주거가 아닌 ‘나만의 공간’으로서의 주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참여자들은 타인에게 침해받지 않고, 가족들에게도 눈치를 보지 않은 채 온전히 자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주거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앞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패턴에 부모의 감독과 통제로 심리적인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참여자들은 오롯이 혼자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에 대하여 갈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혼자 있는 게 더 편하고 아무것도 신경 안 쓸 수 있는 것 때문에.”(부모·청년가구, H)

“사적인 공간 중요해요. 개인적인 일이나 사적으로 연락할 때 웬만하면 혼자 통화를 하고 싶잖아요. 아무래도 방음도 안 되고 다 들리다 보니까 그런 건 신경이 쓰여요.”(부모·청년가구, D)

“주거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나만의 공간, 저는 닫힌 공간에 저만의 공간이 있어야 잠을 잘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집에 오면 편하게 쉬어야 하는데 그런 조건들이 되어야 집이라고 생각해요.”(부모·청년가구, B)

“사적인 공간이지요. 밖에는 CCTV도 있는 데 집에서만큼은 그런 것 상관없이 나의 사적인 일을 하는 공간이니까 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해요.”(부모·청년가구, E)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보고 가족들도 가끔 자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자기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부모·청년가구, G)

“회사 다녀와서 잘 때인데 그 시간만큼은 시달리지 않고 뭔가 할 생각 안하고 그냥 쉬고 싶거든요. 집에 들어왔을 때 간섭보다는 것 보다는 내가 음악 듣고 싶거나 뭐 해 먹는다거나 편안한 것 그게 주거의 의미가 큰 것 같아요. 휴식의 의미.”(부모·청년가구, C)

“일에서 스트레스 받고 돌아오면 그래도 직장에 있었던 건 잊어버리고 집에서는 그냥 쉴 수만 있으니까 분리된 공간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부모·청년가구, G)

또한, 참여자들은 주거의 의미로 안전과 보호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다른 가구 형태인 청년들의 응답과도 유사한 결과이다. 주거는 외부의 위협이나 침범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기능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최근 주거 공간을 배경으로 발생하는 위험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청년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주거의 안전성이나 보호의 기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안전과 보호 중요해요. 요즘에 안 좋은 뉴스들이 많잖아요. 아파트 살인사건 그런 것들. 처음에는 신경을 안 썼는데 오래 된 아파트이다 보니까 보안에 허술해서 그런 것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부모·청년가구, 남성, D)

“일단 집에 갔을 때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집에 누가 들어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없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부모·청년가구, 여성, A)

### “자산 증식의 수단이자 사회적 지위의 표현으로서의 주거”

다수의 부모·청년 가구 참여자들은 주거가 자신의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는 데에 동의하였다. 물론 주거의 본질적인 거주하는 기능도 있지만,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로서도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청년들의 인식은 근래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증가한 사회적 상황과 주변 지인들이 아파트 등 집을 매매하며 수익이 나는 경우를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부모·청년 가구 참여자에게 주거는 시장경제 체제 하에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서 인식되었다.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는 사는 것도 중요한데 나중에 이사했을 때 수익을 남기고 빠지잖아요. 요즘 아파트 관련된 것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고 집 값이 오르느냐, 떨어지냐의 민감한...”(부모·청년가구, D)

“요즘 부동산도 되게 많고 집이라는 게 사고 나서 나중에 보면 값이 올라 있잖아요. 다시 이사를 가고 집값이 오르고 그런 게 주변에 많이 있어서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부모·청년가구, E)

“부동산이라는 게 가격대가 있고, 사고 팔 수도 있는 것이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충분히 상품의 가치로, 또 상품의 도구로도 이용해서 투자도 할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 자산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부모·청년가구, B)

한편, 청년들은 주거를 사회적 지위의 표현으로서 인식하고 있었으며, 거주 지역이나 점유의 형태, 임대주택 거주 여부에 따라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 참여자는 주변으로부터 주거의 위치에 대한 질문뿐 아니라, 자가, 전세, 월세인지 점유 형태 등을 이야기하게 되고, 결국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시선도 달라진다고 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에 따라 주거가 명확히 결정되기 때문에, 주거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 소득이 자산 가격의 상승률을 따라잡기 힘든 사회적인 구조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표현으로서 자산이 지니는 의미가 클 수밖에 없고, 이러한 자산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주거가 되었다. 부모·청년 가구뿐 아니라 대부분의 청년들은 공통적으로 어린 아이들 사이에 주거 형태에 따라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청년들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분리하고, 함께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았는데, 어른들의 주거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아이들에게까지 투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 “주거가 마련되어야 실질적인 독립 가능”

부모·청년가구 참여자는 일반적으로 주거 마련의 어려움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이에 참여자들은 독립에 있어 주거가 필수적이라는 데에 적극 공감하였다. 경제적 독립뿐 아니라 주거를 마련하여 자기만의 공간이 생기고 부모로부터 물리적으로 독립되어야 실질적인 독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들은 가족으로부터 심리적인 안정감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인으로서 독립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독립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주거 공간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야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다수의 부모·청년가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주거 독립을 희망하고 있었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주거 마련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거가 있지 않으면 실질적인 독립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만의 공간,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 있어야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독립하고 싶은 데 집값이 너무 비싸서 주거지를 바꾸지 못하는 경우는 독립이 어려운 경우니까.”(부모·청년가구, 주거 시설, E)

“기존에 가족들과 같이 살다가 혼자 산다는 게 물리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서 나오는 심리적인 것들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사는 경제적으로 스스로 독립을 해도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가족과 같이 거주를 하면 독립 아닌 독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중략)방금 전에 제가 심리적인 걸 말씀드렸는데 일단 같이 살게 되면 심리적으로 그냥 아! 나태해지고 같이 사는데 지금 만족하며 산다 굳이 무슨 독립이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부모·청년가구, 남성, B)

마찬가지로 결혼을 위해서도 주거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었다. 한 참여자는 주거를 생존수단으로 비유하기도 하였는데, 결혼과 출산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다른 가구 형태의 청년 참여자들과 마찬

가지로 참여자들은 결혼은 혼자가 아닌 다른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하기 때문에 주거 선택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였다.

“결혼도 확실히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요.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독립이나 결혼 문제나 출산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생존수단이 주거가 해결이 되어야 안정적인 내 울타리가 생겨야 거기에서부터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데 주거 해결도 못하는 데 결혼해서 애는 낳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F)

“월세여도 상관이 없는데 결혼할 때는 저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가정을 이루어서 같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전세는 필요할 것 같아요. 월세를 살게 되면 불안정한 점도 있고 그 불안정한 느낌이 혼자서 살 때부터 둘이 살 때 더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A)

### **“안정감과 자산 증식을 위해 자가 마련 필요, 자기 소득만으로는 불가능”**

부모·청년 가구 참여자들 역시 내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자기 소득으로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자가 마련에 대하여 청년들은 ‘안정감’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경제적 안정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매우 크다. 집값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고, 불안정한 전월세 가격 때문에 임차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하여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이다. 소위 청년들을 주거불안계급으로서 일컫기도 하는데(박미선, 2017), 부동산이 안정화되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주거 불안정성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참여자들은 자가를 소유하게 되면 이러한 집값 변동에 상대적으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주거비 절약 및 자산 증식의 발판으로 삼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부모·청년 가구 참여자들은 자가 마련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는데, 월세에서 전세로의 전환은 가능할 수 있지만, 높은 집값으로 인해 전세에서 자가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임금 상승률보다 집값 상승률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인데, 부모님의 지원 없이 자신의 소득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 자신의 소득만으로는 자가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자가가 있어야 심리적으로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도 자기 집이나 월세 사는 친구가 있는데 월세 사는 친구가 자가인 친구와 같이 술 한 잔 하다 보면 자기 월세 나가는 돈을 모았으면 얼마나 모았다 그런 얘기 하는 걸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월세가 아깝다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H)

“자기 집이 아니면 항상 불안한 게 집값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고 월세가 얼마가 될지 모르고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정감이 없는 것 같아요.”(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G)

“심리적으로도 대출비, 월세 이런 게 덜 들어간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전세였다가 자가로 변경된 케이스인데 그러면 전세자금 부담도 줄어드니까 생활비도 조금 더 여유가 있게 된 것 같거든요.”(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E)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데 결국 그건 인플레이션인데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갈면 갈수록 날 수 밖에 없거든요.”(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F)

“자가를 갖고 있는 것이 나중에 혹시나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매도를 하고 재산을 증식해서 옮겼을 때. 그래서 자가는 확실히 있는 것과 없는 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D)

“전세는 어떻게 해서든 가능할 것 같은 데 대출을 끼든 모으든 언젠가는 가능하겠지만 자가를 구하는 건 혼자서 번 돈만으로는 힘들지 않을까.”(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광주, G)

“집값은 계속 오르잖아요. 자기 소득만으로는 자가 마련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대구, H)

### (3) 주거 전략 및 계획

#### “경제적 여건 마련 후 독립 계획”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향후 주거 계획의 주요한 이슈는 독립이다. 참여자들은 경제적으로 자립이 어느 정도 되면 독립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참여자들은 현재 자신의 상황을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성인으로서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고 혼자 살아가기를 희망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제적 자립의 첫 번째 조건으로 취업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미취업 상태인 상황에서 청년들이 독립하기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청년 가구 참여자들은 취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독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취업하고 1, 2년 후. 일단 대학교 때 모으는 돈은 살 수가 없을 것 같고, 1, 2년 후라면 적금을 들어서 돈을 모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졸업 후 취업을 못 한다면 내가 무리해서 나가기보다는 부모님과 조금 더 살고 취업한 후에 경제적인 여건이 되면 나갈 것 같아요.”(부모·청년가구, A)

“취직을 하면. 저도 계속 부모님과 함께 살았으니까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나면 자립해서 부모님께 도움을 덜 받고 혼자서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부모·청년가구, E)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독립을 계획은 하고 있지만 현실은 정말 어려운. 그런데 제일 큰 것 같아요. 5년에서 10년 사이인데 그것도 불분명해서 잘 모르겠어요. 경제적인 조건이 제일 크지요.”(부모·청년가구, F)

이러한 경제적인 여건 마련도 필요하지만,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얻는 편의성 때문에 결혼하기 전까지 독립할 계획이 없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이는 결혼하기 전까지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정서와도 관련이 있다. 일부 참여자들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게 되면 주거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결혼

자금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인 유인으로 결혼 전까지 계속 부모와 함께 거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

“해야지요. 일단 결혼 준비를 하면서 따로 살아야지요.”(부모·청년가구, G)  
“결혼 전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일단 경제적인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편의성.”(부모·청년가구, H)

### “향후 독립할 주거 선택 요인: 가격, 편리한 위치, 아파트, 신축 선호”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들이 향후 독립할 주거를 선택할 때에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주거 가격, 편리한 위치를 고려하였고 아파트와 신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우선적으로는 청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고려하여 주거를 선택하게 되는데, 특히 직장과의 거리와 대중교통 등의 교통 접근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였다. 이는 청년 1인가구의 향후 주거 선택 요인에 대한 응답과도 유사한 결과로서 이해할 수 있다. 부모·청년 가구 참여자들은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운 곳으로 독립할 주거를 선택할 계획이었고, 교통 편의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선호하였는데, 역세권의 경우 주변 편의시설 또한 확보가 되는 점도 이유로서 작용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요. 회사나 학교나 그런 위치. 집은 오래 살잖아요. 한번 구매를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위치인 것 같아요 어디에 가려고 해도 바로 바로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G)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통 환경, 인프라 접근성.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출퇴근에 있어서 회사랑 집이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그렇고 어디에 이동할 때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니 교통과 인프라가 중요해요.”(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F)

“아무래도 제가 일하는 곳이랑 가까운 곳이 제일 괜찮을 것 같고, 왜냐하면 거의 맨날 왔다갔다해야 되는 거니까 그 시간 소유하는 데 영향을 많이 끼치잖아요.”(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C)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건 교통. 지하철이 가까우면 서울은 오가기가 편하더라고요.”(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E)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이 될 것 같아요. 역세권. 왜냐하면 일단 지하철역 주변에는 편의시설이 잘 확보가 되어 있고, 교통이 편리하면 굳이 차가 있지 않아도 더 멀리 갈 수 있으니까.”(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A)

주택 유형으로는 아파트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그 다음으로 빌라 등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생활하기에 편의시설 및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자들은 신축과 같이 깨끗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주택상태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향후 주택가격의 변화를 고려하여 경제적으로도 구축보다 신축을 선호하기도 하였다.

“아파트나 주택. 편의시설이 많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일단은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가게 가서 구매할 수 있고,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가 생겨도 교통이 편리해야 되고 학교가 있어야 되고 거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많으면 안전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좀 편리함. 주차장이나 분리수거 장, 아파트 안에 상가가 있을 수도 있고 청소도 다 해 주시고 경비원도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부모·청년가구, H)

“아마도 빌라나 이런 거라면 좋을 텐데 그쪽은 비용이 비싸니까 아파트에 가지 않을까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는 시설이 좀 더 잘되어 있으니까. 마트나 생활권에 필요한 것들이 웬만큼 다 있을 것 같아서.”(부모·청년가구, G)

“아파트 단지 내에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편의시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집값도 확실히 신축이 구축 대비해서 평수 차이가 많은 데는 집값은 더 빨리 오르다 보니까 신축을 웬만하면 살고 싶어요.”(부모·청년가구, D)

“깨끗하고 신축이면 당연히 좋지요.”(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F)

“아무래도 오래된 빌라는 벌레도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신축이 깔끔하다고 여겨지잖아요. 주변 사람들을 봐도 비슷한 조건이라면 신축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E)

### “독립을 위한 자본금 마련”

참여자들은 향후 독립을 위한 준비로서 자본금을 마련하고 있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은 독립하기 위해서 주거의 보증금으로 목돈이 필요한데, 생활비나 취업준비 비용을 제외하고 최대한 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취업을 하지 못해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자금을 모으고 있었고, 그 외에도 생활비를 절약하여 주거비용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한 참여자는 취업 준비(학업) 비용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커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취업준비생으로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주거비는 절약하고 있지만, 생활비나 취업준비비를 스스로 충당해야하는 청년들의 경우 취업준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청년 실업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취업 준비 기간도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청년들은 결과적으로 취업 경쟁에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고, 취업과 자본금 마련이 지연되어 독립에도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일단은 부모님과 살고 있을 때 최대한 돈을 많이 모을 생각을 하고.”(부모·청년가구, D)

“일단은 청약 통장 만들어뒀고, 따로 돈도 모으고 있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 외에 딱히 돈을 더 안 쓰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하지요 사고 싶은 걸 덜 사거나 덜 먹고 덜 나가고, 주거비 마련 때문에...”(부모·청년가구, G)

“지금 취업 준비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고, 그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학업에 관한 비용이 지출되는 것도 크고 해서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간도 뺏기고 체력적으로도 힘이 들어서 그런 점이 힘든 것 같아요.”(부모·청년가구, B)

“아직은 없고 그냥 돈을 모으는 정도. 과외 아르바이트를 해서 시간이 남는다고 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으는 목적은 1차적으로 독립 때문에.”(부모·청년가구, A)

#### (4) 주거 지원 정책 관련 인식과 요구

##### “정책 인지 경로: 주변 지인, 포털 검색”

청년 대상 주거 지원 정책을 알고 있는 참여자들은 주로 주변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하거나, TV, 포털 검색 등의 경로로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청년 1인가구나 부부가구의 정책 인지 경로와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출, 검색, 광고, 친구, 얘기 등의 단어 언급 빈도가 높았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들은 자신의 지인들과 특정 지원 정책에 대하여 이야기하거나 주변에 정책 지원을 받은 경험담 사례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V에서 홍보 광고를 통해 해당 지원 정책을 알게 된 사례도 있었으나, 청년들에게 실제 정책 수혜자의 경험담이 관심을 가지게 된 주요 기제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직접 인터넷 포털 검색을 통해 수혜 경험담이나 대출 등 관련 정보를 탐색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임대 들어본 것 같아요 LH에서 하는 것. 친구들끼리 얘기했어요.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 그런 정도.”(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A)

“동기들. 지방에서 올라온 동기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분도 있고 진짜 10에 6명은 전세 대출 받아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C)

“티비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데 서울시에서 직장 출퇴근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오래 된 주택을 리모델링을 해서 지원해준다는 말도 들었고, 노후 된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임대하면 깎아준다든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얼핏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것도 티비 광고가 나와서 지나가면서 들은 것 같아요.”(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F)

“청년 혜택 같은 걸 찾아보다가 시청에 들어가서 본 게 있는데 광고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시청 사이트를 찾아본 것과 정말 듣게 되는 건 주변 사람들. 실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관심을 갖게 되어서 그때서야 검색을 해 보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검색해 본 적은 없어요. 있는지도 몰랐고...”(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C)



그림 IV-14.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정책 인지 경로(부모·청년가구)

### “내집 마련의 계층간, 세대간 불평등 심각”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불평등 문제는 자신의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청년 1인가구와 청년 부부가구 집단은 주거의 점유형태나 주택형태를 제쳐두고서라도 자신만의 주거가 있지만, 부모·청년가구의 경우 경제적인 여건 등 다양한 원인으로 현재 주거를 마련하지 못하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부모·청년가구의 경우 주거 마련 여부가 주거불평등의 주요 이슈로서 거론되었는데, 이러한 주거불평등은 계층 간뿐 아니라 세대 간에도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먼저, 경제적 수준에 따라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확률에 차이가 크고, 특히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가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차이가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들은 독립하지 못한 원인이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주변 친구나 지인들 중에는 부유한 가정배경에서 부모가 마련해 준 주거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또한 학업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은 스스로

주거비용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부모로부터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받는 청년들이 성적이나 취업에도 보다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 조사의 참여자 가운데에는 자녀의 주거 마련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이야기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쉬워하는 청년들은 없었지만, 이처럼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계층 간 주거 불평등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아 주거를 마련한 주변 사례 등을 보며 상대적인 박탈감이 존재하였다.

한편, 다수의 참여자들은 부모세대와 달리 청년세대는 자신의 노력만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데에 동의하였다. 부모세대에는 스스로 벌어서 자가를 언젠가는 마련할 수 있었겠지만, 현재 소득대비 집값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인 양극화도 더욱 심해졌다는 의견이다. 참여자들은 청년들이 아무리 좋은 직장을 취직해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주거불평등 문제)심각을 지나서 매우 심각합니다. 저는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계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적게 보는 사람의 계층으로 나눌 수 밖에 없는 데 많이 버는 사람은 그만큼 집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확률적인 게 높아지겠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은 그만큼 확률적으로 집을 구하기 어렵겠지요. 그게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세대간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영화에서도 봤지만 8, 90년대는 강남 개발을 했을 때도 집을 구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1, 2억만 있어도 살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택도 없고 10억 그 이상 올라가니까 옛날 세대는 내 주거는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반면, 요즘 세대는 정말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F)

“돈이 많은 애들은 자기 집에서 바로 집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해 주신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 살면서 편하게 생활을 하는 것 같고 이게 차이가 나는구나. 다른 애들은 비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알바를 해 가면서 학업을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든데 거기다가 월세까지 얹혀 지면 먹고 사는 정도. 그러면서 알바도 하고 공부도 해야 하는 데 그런 부담이 없는 사람들이 당연히 성적이나 그런 면에서 훨씬 유리하지



**“청년 주택공급 정책: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독립에 도움, 불편한 위치와 부족한 공급은 문제”**

청년 대상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독립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들이 독립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인데, 저렴한 임대료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독립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시세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할 뿐 아니라 제공되는 주택 상태나 시설도 양호하다는 점도 청년 주택공급 주택의 이점 중의 하나였다.

“현재 선배들을 봐도 독립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게 한 몫 할 것 같아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나 그리고 대상이 청년들에게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A)

“제가 들을 때 그 친구도 한 달에 크게 많은 비용을 안 내더라고요. 저렴하게 오래 쓸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D)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게 공통점인 것 같은 데 아무래도 이런 데에서 해 주는 임대주택은 시설이 나쁘지 않잖아요. 저렴한 임대료로 해 줄 수 있다는 건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니까.”(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E)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렴하니까. 그런데 그걸 좋은 데 잘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청년 공공지원 주택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직장인은 두 개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H)

부모·청년 가구 참여자들은 청년 주택 공급정책에서 몇 가지 부족한 점도 지적하였는데, 일부 청년 대상 임대주택이 주변 직장과 매우 거리가 먼 곳에 있거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곳에 있어 불편한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신축이고 아파트 내부 시설은 매우 만족하지만, 청년들이 주거 선택에서 편리한 교통이나 편의시설 부분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에서 해당 주택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역세권 리모델링과 같이 교통이 편리한 위치를 리모델링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긍정적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현재 주거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수에 비해 이러한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한 부모·청년 가구 참여자는 청년 대상 주택공급 지원을 받는 것을 ‘로또당첨’에 비유하기도 하였는데, 당첨되는 일이 거의 희박하여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생각보다 이게 많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는 데 실제로 저희가 살아야 되는 지역이 아닌 다른 쪽에 있더라고요. 신도시쪽, 최근에 개발하는 데 거기에 직장이 많이 없어요. 거리가 있는 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해결이 되면 너무 좋지요. 임대료 싸니까.”(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C)

“친구 중에 이걸 하고 있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실제 집에 가 봤는데 그렇게 작지도 않고 신축이다 보니까 깔끔하고, 다만 아쉬운 건 그 지역 자체가 아직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험하더라고요.”(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D)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디에서 공급이 되는지 모르니까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만약 위치만 괜찮은 곳으로 지원이 된다면 고려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원되는 주택이 다 필요한 곳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G)

“지인이 엄청 오랫동안 시도해서 겨우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되기 힘들다고 해서. 이걸 꿈같은, 내가 로또 같은, 넣어놓고 현실적으로 아예 안 되겠지 하고 기대가 많이 없던 것 같아요. 당첨되기 힘들다고 느껴져서.”(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F)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 독립을 위한 주거비 부담 경감, 자유로운 주거 선택의 이점,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 계약 체결의 어려움 존재”**

마찬가지로 부모·청년 가구 참여자들은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독립을 위한 주거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정책들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또, 참여자들은 주택 공급 정책은 정책 위치에 있기에 선택할 수 없지만, 주거비 지원 정책은 자신의 원하는 위치의 주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앞서 여타 가구의 청년 참여자들의 응답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합리적인 제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은 월세도 내기도 버거운 상황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나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B)

“돈만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한 게 없지요. 제일 큰 고민인데. 거의 8, 90% 정도 해 주지 않나요? 지금 정도만 유지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돈의 범위보다는 해줄 수 있는 인원의 범위가 넓어지면 너무 괜찮지요.”(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C)

“이건 돈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제가 골라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월세지원을 확대해 줘서 마음에 드는 곳에 갈 수 있도록.”(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H)

“전월세 혜택은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내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쪽에 살기 싫으면 이 혜택을 이용해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내가 골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F)

하지만 주거비용 대출과 같은 지원 정책의 경우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감이 높기 때문에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점도 존재한다. 낮은 이율로 대출해주는 정책이 일정 부분 이자 비용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되겠지만, 어찌되던 대출은 빚이기 때문에, 결국은 상환해야 하는 것이고 대출 상환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청년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현실이다. 한편, 전세 대출에 대한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선호하지 않아 계약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돈을 못 빌려서 목돈을 못 마련하기보다는 빌려서 언제 갚을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대출을 해 준다고 해서 청년들이 집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A)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어쨌든 대출이잖아요 집을 당장 공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어쨌든 상환해야 하는 것이고 대출이라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나. 크게 와 닿지는 않아요.”(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D)

“친구가 전세 지원을 받아서 자취를 했거든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집주인과 계약을 하는 건데 집주인들은 학교 근처에 있는 집주인들은 이렇게 하는 걸 선호하지 않아서 계약하기 힘들었다고 들었어요.”(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E)

### **“대학기숙사 공급 및 기숙사 지원: 부족한 기숙사 해결 도움, 학교와 거리 중요”**

청년 1인가구나 청년 부부가구 참여자와 유사하게 부모·청년 가구 참여자들도 대학기숙사 공급 및 기숙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대학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이 적어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 부족한 기숙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거처를 마련하기 힘든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다만, 학교 밖에 공급되는 기숙사의 경우 학교와의 위치가 중요할 수 있는데, 대학교와의 위치가 거리가 멀어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앞서 여타 가구 집단의 응답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청년 가구 대상 기숙사 및 주택 공급 정책에서 주거의 위치가 정책 효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서울에 있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경기도나 지방권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숙사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점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는데 기숙사 수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그게 늘어나면 더 낫지 않을까.”(부모·청년가구, A)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진학하면 자취방을 구하는 게 어렵잖아요.”(부모·청년가구, F)

“행복기숙사는 들어본 것 같기는 해요. 장학재단에서 모집하는 광고를 본 것 같아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행복기숙사는 저도 관심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여러 학교가 있는 중간쯤에 애매하게 있다 보니까 굳이 기숙사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학교 앞에 있는 기숙사는 아니니까.”(부모·청년가구, E)

### **“다양한 가구 형태를 존중한 청년 주거 정책 필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들은 신혼부부 외에 다양한 가구 형태를 존중한 청년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저출산시대에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정책에 대하여 필요하지만, 결혼가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청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대상에서 해당 청년들도 소외되지 않는 세심한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신혼부부 대상 주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혼부부 이전의 주거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주거 마련의 어려움일 것이다. 이에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당 정책 지원은 신혼부부가 되고 나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결국, 청년들이 해당 지원 정책을 통해 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제 결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부모·청년 가구 참여자들은 혼인 이전의 청년 1인가구 대상의 주거 정책이 선행되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주거가 확보되어야 결혼에 대한 계획도 가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신혼부부 되기 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혼부부 되고 난 다음에 주거지원해주는 건 늦다고 생각해요.”(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F)

“청년들이 주거가 확보되어야 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 정책을 확대했으면 좋겠어요.”(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A)

“신혼부부라고 하면 결혼을 해야 하는 법적 장치가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에 혼인 신고 안 하고 동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 나이대로 그렇고 점점 결혼을 하기 보다는 비혼주의자들도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그걸 무조건 신혼부부에 게만 조금 더 큰 혜택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선택을 해서 결혼을 안 한 것일 뿐인데 나는 그 주거의 혜택을 못 받나? 차별이라는 걸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C)

“청년 지원 정책이 있는 데 그 중에 신혼부부에 비중이 크다면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청년이라는 범위 안에서는 결혼한 것 보다는 1인 가구가 더 많을 텐데 너무 한쪽에만 치중하는 지원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A)

### “고용, 교육과 주거 지원 연계 필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들은 고용과 주거 지원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참여자 중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 등 기존에 고용과 주거 연계 정책들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청년들이 일자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정책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특히, 지방으로 취업을 알아보고 있는 참여자들의 경우, 청년들의 취직 기회가 넓어질 뿐 아니라 지방으로 청년들이 유입되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중소기업대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꼭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더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G)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방으로 취업을 알아보는데 지방에 뭐가 없어서. 거기 직원들도 KTX로 출퇴근한다고 하더라고요. 출퇴근을 하면 지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그쪽 지역에 살게 해서 도와주면 소비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E)

부모·청년 가구의 상당수는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주거비 부담 등 경제적 요건을 고려하여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참여자들은 청년 취업준비생들에게 교육과 주거 지원 연계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청년들이 취업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주거를 일정부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주거비 부담이 해소되어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 및 직업 훈련 등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었다.

“단기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교육을 받고 싶어도 아마 왔다갔다 시간이나 비용적으로 못하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이 더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요.”(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G)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불안정한 시기잖아요. 뭔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머물 곳이 있다는.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그러면 더 심리적인 안정을 갖고 직업 훈련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E)

“취업단계에 있어서 지원을 많이 받으면 확실히 취업할 때 좀 더 조금해 하지 않고 여유롭게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부담을 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해 주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D)

“이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직업교육을 받고 아까와 같은 맥락이며 직업교육을 받으면 언젠가 취업을 할 텐데 직업 교육을 받고 회사에 취업해서 집까지 준비를 해준다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부모·청년가구, 주거시설, F)

### **“SNS와 유튜브를 활용한 홍보 강화, 맞춤형 정보 제공도 필요”**

앞서 청년 1인가구와 청년 부부가구 면담결과와 유사하게, 참여자들은 정책 홍보에 대한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 청년 주거 문제의 심각성과 지원의 필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당 정책들이 충분히 알려지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지 않는 경우 대다수 모르는 현실이다. 이에 부모·청년 가구 참여자들도 보다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청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SNS와 유튜브 등 관련 정책 홍보 채널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 한 참여자는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요 내용은 실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담으로, 이를 콘텐츠로 개발하여 홍보한다면 청년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현재 청년들은 흩어져 있는 주거 정책 정보를 스스로 찾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신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필요하다.

“노출이 많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관심이 갖고 찾아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정부에서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면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관련된 채널을 활성화시켜서 많은 사람한테 노출해서 볼 수 있게 하고 SNS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보다 더 많이 노출시켜서, 카톡에도 정부 기관 채널들이 있잖아요 친구 추가해서 볼 수 있게 하는 마케팅적인 걸 하면 좋겠어요.”(부모·청년가구, D)

“유명한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랑 같이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서 광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주제로 같이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그래서 실제로 이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줘서 이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더 와 닿을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 데? 그런 식으로 찾아보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부모·청년가구, C)

“대상자가 어떤 지 그런 걸 알 수 있게 홍보를 해야 하는 데 제가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게 해야 하는 데. 아니면 대상되는 사람한테 이런 정책이 있다는 걸 문자로 알려주든가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부모·청년가구, H)

### 3. 소결 및 시사점

청년 주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청년의 주거탐색과정 및 거주과정의 경험, 주거에 대한 의미와 희망, 주거 전략 및 계획, 주거 지원 정책관련 인식과 요구 등 주거 의식에 대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청년 1인가구, 청년 부부가구, 부모·청년가구 등 가구 형태에 따라 주거 실태 및 의식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었다. 면담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주거탐색과정 및 거주과정의 경험

##### (1) 주거 탐색 경로

청년들의 주거 탐색 과정은 주로 온라인을 활용하거나 부동산에 방문으로 실제 거래 매물을 확인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거 탐색 양상은 가구 유형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컨대, 청년 1인가구는 부동산 전문 중개 앱이나 커뮤니티 사이트 등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주거 정보를 획득하는데, 청년 1인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주택 형태에 따른 탐색 경로 차이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에서 청년 1인가구의 주택 형태를 살펴보면, 원룸(다가구)이 34.1%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빌라가 29.7%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이 원룸이나 빌라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은 청년 1인가구에서 온라인 앱 등을 통한 주거 정보 획득이 더 활성화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청년 부부가구는 대체로 가족과 함께 직접 부동산에 방문하여 주거를 선택하였는데, 신혼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부모의 의견이 일정부분 반영되고 있었다.

## (2) 현재 주거 선택 이유

현재 주거를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청년들은 주거비용, 주택상태, 주택위치, 주거환경, 향후 주택가격 변화 등 다양한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1인가구는 우선적으로 직장과의 편리한 주택위치를 고려하여 주거를 선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에서 1인가구의 주거 선택 이유로서 (1+2+3순위 기준)주택 위치에 대한 응답이 79.0%로 가장 높았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청년 부부가구는 자녀 양육을 고려한 주택 유형, 주택 상태, 주거 환경을 고려하였는데, 이처럼 가구 유형에 따라 현재 주거를 선택한 이유도 차이가 존재하였다. 혼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우선적으로 본인의 일과 생활 편의성을 고려하여 주거를 선택한다면, 청년 부부가구는 자신보다 자녀의 양육 환경을 위주로 주거를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주거 현안

거주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청년들은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 현재 집값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청년들의 85.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최근 집값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청년들에게 전월세 임대료는 주거 비용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금융대출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대출 연장이나 상황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고민으로 작용하였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증함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에 대한 면담도 진행하였는데, 주거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청년들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청년의 비중이 전체(18세-34세) 중 63.9%에 해당하며, 30세 이상인 경우에도 3명 중 1명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면담자 중에서는 주거 제공이라는 내제된 권력관계에서 부모로부터 생활 전반적인 규제와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주거비 마련을 위한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독립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들의 '취업절벽' 문제도 심각하지만, 높은 주거비 부담은 이른바 갱거루족이 증가하는 데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부족한 부동산 정보도 청년들이 처음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 중의 하나인데, 정책 수혜자의 입장에서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한편, 옥탑방이나 반지하, 고시원 등 비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용 때문에 해당 주거를 선택하였지만, 열악한 주거 환경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주택 외 가구 거주 비율이 청년층(20-34세)에서 12.2%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4.8%보다 높은 수치이다. 최근에는 그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나, 청년의 주거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비주거시설에서의 낮은 삶의 질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결과적으로 심리정서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청년들이 적어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2) 주거에 대한 의미와 희망

### (1) 주거 의미

청년에게 주거는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안전하게 보호 받는 공간, 사적인 공간으로서의 의미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가구 유형에 따라 주거에 대한 의미에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청년 1인가구나 부모·청년 가구의 경우 나만의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으로서 사적인 의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와도 유사한 것이다. 가구 형태에 따른 집의 의미를 조사한 결과, 청년 1인가구는 (1+2+3순위 기준) '나만의 사적인 공간'이라는 응답이 69.3%로 높게 나타났으나, 청년 부부가구의 경우 22.4%에 불과하였다. 오히려 청년 부부가구에게 주거는 가족과 함께 휴식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청년 부부가구의 경우 (1+2+3순위 기준)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응답이 81.7%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여성 청년의 경우 안전과 보호로서의 주거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최근 여성 1인가구 대상의 범죄가 빈번히 발생되면서, 외부인 침입이나 범죄 노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들은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주거를 의미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청년들에게 주거는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 최근 집값 상승률이 소득 상승률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주거를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투자 수단으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물론, 불로소득이나 투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였지만, 근래에 부동산 가격이 급증함에 따라 부동산으로 수익을 얻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청년들의 주거에 대한 시각도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주거의 본질적인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 주거는 사회적 지위의 표현이기도 한데, 청년들은 어디에 사는지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낸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청년들은 이러한 주거가 사회적 지위의 표현으로서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임대아파트 문제 등 아이들 사이에 주거 형태에 따라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문제라고 생각하면서도, 청년 부부가구 중에서는 현실적으로 자녀가 영향을 받을 것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을 계획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 (2) 주거와 독립/결혼, 자가 마련의 필요성

청년들은 독립과 결혼에서 주거가 가장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독립을 미루거나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특히, 결혼은 본인 외에 배우자, 그리고 자녀 등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기에 고려할 요소가 많고, 주거의 중요성 또한 독립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인 안정감 측면에서 자가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가능성은 불가능하다고 예측하였다. 월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자가로의 '주거사다리'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세까지는 일정 부분 가능할 수도 있지만, 부모의 도움 없이 자신의 소득만으로 자가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여겨진다. 아무리 벌어도 따라갈 수 없는 치솟는 집값에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희망은 사라지고 있으며, 청년 주거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동산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3) 주거 전략 및 계획

### (1) 주거 이전/독립 계획

자가 없는 청년들은 임대 계약 만료에 따라 잦은 주거 이동으로 불안함을 토로 하였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 역시 정기적인 연장이 필요함에 따라 갱신 조건에 따른 상시적인 이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가구 형태 및 주거 상황에 따라 이전을 위한 이유에 차이가 있었다. 반지하나 옥탑방 등의 비주거시설 거주자의 경우,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이나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이전을 계획하였다. 한편, 청년 부부가구는 주로 자녀 양육이나 교육을 위한 이사를 계획하였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은 독립을 위한 자본금을 모아,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여건이 마련 되는대로 독립을 계획하고 있었다.

## (2) 향후 주거 선택 요인

향후 주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청년 1인가구와 부모·청년 가구의 인식이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직장과의 거리나 교통 접근성 등 편리한 주거의 위치, 아파트, 신축 등 쾌적한 주택 상태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앞서 현재 주거를 선택한 요인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청년 부부가구는 현재의 주거 선택의 이유뿐 아니라 향후 주거 선택과정에서도 자녀 양육을 위한 인프라와 편의시설을 갖춘 아파트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향후 주거 선택 요인으로 청년 부부가구는 (1+2+3순위 기준) 주거비용(65.4%) 다음으로 주거환경(60.6%)에 대한 응답이 높았는데, 자녀를 기르는 데에 필요한 의료, 문화, 상업, 공원, 교통, 교육환경 등 주거 환경을 고려하며,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와 관련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청년 가구 유형에 따라 주거 선택 과정에서 고려하는 요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청년 대상의 주거 정책 추진에서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가구 유형별로 필요한 주거 요소를 고려하여 맞춤형 주거 지원의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4) 주거 지원 정책관련 인식과 요구

### (1) 주거불평등 인식

청년들은 한국사회에서 주거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계층 간뿐 아니라 세대 간 주거불평등을 모두 포함하는데, 특히,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주거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계층에 따라 주거의 점유 형태, 주택의 크기나 상태, 주거 환경에도 많은 차이가 존재하며, 부모의 부(富)는 주거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어 부모에 따라 자녀의 주거도 결정되는 상황이다. 또한, 부모 세대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이 가능

한 세대였지만, 청년들은 노력을 해도 집값이 너무 올라 자가를 마련할 수 없는 세대라는 점에서 세대 간 주거불평등 문제도 지적되었다. 집값 상승률이 근로소득보다 높아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존에 집을 소유하는 기성세대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주거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청년들에게 더 많은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한국사회의 주거불평등 문제에서 청년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성인기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경제적으로 충분히 자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불평등 문제가 해소되어야 청년들의 주거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2) 청년 주택공급 정책, 주거비 지원 정책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청년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는데, 청년 주택 공급 정책과 주거비 지원 정책의 경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는 데에 이점을 지니고 있으며, 관련 정책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서, 우선적으로 확대가 필요한 주거 정책으로 청년 주택공급정책(63.0%),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23.2%)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정책의 개선점에 대한 의견도 있었는데, 청년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 1인가구나 자녀 계획을 지닌 신혼부부 대상의 임대주택 공급면적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으며, 청년들의 수요를 고려한 적합한 공급 위치 선정이 요구된다. 또한, 높은 집값에 비해 현실적으로 자가 마련이 어려운 소득 및 자산기준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청년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에 현실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하여 주택 공급 대상의 신청조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

은 주택 공급에 비해 자유로운 주거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청년들은 대출 연장과 상환에 대한 부담이 늘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는데,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함께 청년들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이 사회적으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주거비 지원 정책의 효과 또한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 (3) 셰어하우스, 대학기숙사 공급

셰어하우스 등의 공유형 주택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나뉘었는데, 실제 입주 대상으로 청년 1인가구 참여자들은 실효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주거 공간의 공유에 대한 심리적인 불편함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청년 사회·경제실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향후 공동주거에 대한 의향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5.9%로 나타났다. 공유형 주택의 주 정책대상자인 청년 1인가구의 경우에도 의향이 있는 경우는 8.3%에 불과하였다.

앞서 청년 1인가구는 사적인 공간으로서의 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이러한 충분한 개인 공간과 사생활이 보장되면서 공동생활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 및 기숙사비 지원 등의 정책에 대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비용절감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대학교와 거리가 가깝고 통학이 편리한 위치에 공급될 필요성이 있다.

### (4) 신혼부부 관련 정책, 고용·교육 지원 연계

아울러, 청년 1인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가구 형태를 배려한 청년 주거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시대에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도 그 타당성이 있지만,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갖지 않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주택 청약과정에서 불리한 청년 1인가구도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청년들의 삶의 현안은 비단 주거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고용 및 교육 관련 정책과 주거 지원 정책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년들은 지방이나 중소기업에 취업과정에서 주거 지원이 연계된다면, 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뿐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일정 부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청년 1인가구와 부모·청년가구 참여자들은 교육과 주거지원 연계에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취업준비과정에서 주거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취업준비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5) 주거 정책 홍보 및 맞춤형 주거 정보 제공

마지막으로 주거 정책 홍보의 강화와 맞춤형 주거 정보 제공도 필요하다. 이는 청년 1인가구, 청년 부부가구, 부모·청년 가구 등 모든 참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의견이었다. 청년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하여 알고 있는 청년들은 주로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나 스스로 직접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 청년 대상의 다양한 주거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청년들의 인지도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청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SNS나 유튜브를 통해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 또, 청년들의 개인별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적합한 주거 지원 정책을 상담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먼저,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일원화된 포털이 필요하며,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자체별 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상담 채널 확보에 대한 필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3 심층면담 결과 요약

		청년 1인가구	청년 부부가구	부모·청년가구
(1) 주거 탐색과정 및 거주 과정의 경험	주거 탐색 경로	온라인(앱, 커뮤니티 사이트, 알림서비스 등)을 활용한 주거 탐색	가족과 함께 직접 부동산을 방문하여 매물 확인	
	현재 주거 선택 이유	주택위치, 주거비용, (여성)안전과 보호,	자녀 양육을 고려한 주택유형(아파트), 주택상태, 주거환경	(부모와 함께 거주 이유) 주거비용 부담 경감, 생활비 절약 가능, 심리적 안정감 도움
	주거 현안	주거비 마련 부담, 중개사 이용의 어려움, 주거 정보의 부족 (비주거시설 거주자) 열악한 주택상태, 심리적 우울과 사회적 위축	대출 연장/상환 부담, 중개수수료 부담, 인터넷 정보의 한계	부모와 생활패턴의 차이, 자유롭지 않은 생활은 불편
(2) 주거에 대한 의미와 희망	주거 의미	편안한 휴식의 공간으로서 주거, 나만의 공간, 자산 증식의 수단	가족과 함께하는 휴식을 위한 공간, 부가적으로 자산 증식까지 사회적 지위의 표현(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시선의 차이)	나만의 공간, 편안한 휴식을 위한 주거자산 증식의 수단이자 사회적 지위의 표현으로서의 주거
	주거와 독립, 결혼	주거는 독립과 결혼의 필수 조건	주거는 독립과 결혼에 필수적인 조건	주거가 마련되어야 실질적인 독립 가능
	자가 마련 필요성	자가 마련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자가 마련은 필요하지만 부모 도움 없이는 불가	안정감과 자산 증식을 위해 자가 마련 필요, 자기 소득만으로 불가능
(3) 주거 전략 및 계획	이전/독립 계획	잡은 이동, 불안한 주거, 상시적인 이사 계획 (비주거시설 거주자) 부정적 사회적 시선, 주거 환경 변화를 위한 이전	자녀 양육 및 교육을 위한 이사 계획	경제적 여건 마련 후 독립 계획, 독립을 위한 자본금 마련 중
	향후 주거선택 요인	쾌적한 주택 상태, 편리한 주거 위치	아파트 선호, 자녀를 위한 주거 환경 고려	가격, 편리한 위치, 아파트, 신축 선호

		청년 1인가구	청년 부부가구	부모·청년가구
(4) 주거 지원정책 관련 인식과 요구	정책 인지 경로	주변 지인, 포털 검색, 광고, 공공기관 소식지	결혼한 주변 지인, 카페, 블로그 등 온라인 검색	주변 지인, 포털 검색
	주거 불평등 인식	계층 간, 세대 간 주거불평등 심각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주거 불평등 심화	내집 마련의 계층간, 세대간 불평등 심각
	청년 주택공급 정책:	청년 주거 안정에 도움, 저렴한 주거비용의 장점,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작은 평수와 불편한 위치는 개선 필요	경제적 부담 해소의 이점, 까다로운 신청 조건, 공급 부족 문제는 존재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독립에 도움, 불편한 위치와 부족한 공급은 문제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	주거 비용 감소에 긍정적,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 주거비 상승에 따른 대출 한도 부담	주거비 경감에 도움,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	독립을 위한 주거비 부담 경감, 자유로운 주거 선택의 이점,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 계약 체결의 어려움 존재
	세어하우스, 대학 기숙사 공급	세어하우스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 대학기숙사 공급이 긍정적이지만 학교와의 거리가 중요	세어하우스, 대학기숙사 공급 및 기숙사비 지원 확대 긍정적	대학기숙사 공급 및 기숙사 지원 필요, 학교와의 거리가 중요
	신혼부부 관련 정책	청년 1인가구가 소외되지 않는 정책 필요	저출산 시대에 필요한 신혼부부 지원 정책, 지원 조건의 완화 및 청년 1인 가구 배려도 필요	다양한 가구 형태를 존중한 청년 주거 정책 필요
	고용, 교육 지원 연계	고용, 교육과 주거 지원 연계의 필요성	고용, 교육 연계 주거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고용, 교육과 주거 지원 연계 필요
	추가 필요 정책	적극적인 주거 정책 홍보, 맞춤형 주거 상담 필요	적극적인 정책 홍보 필요, 청년부부 맞춤형 정보 필요	SNS와 유튜브를 활용한 홍보 강화, 맞춤형 정보 제공도 필요





## 제5장 정책 제언 및 결론

- 1. 정책 비전 및 분야
- 2. 정책 제언
- 3. 결론



## 1. 정책 비전 및 분야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와 심층면담 등의 결과를 근거로 ‘한국 청년의 삶 개선’이라는 비전하에 인구 및 교육·훈련, 경제 및 고용, 건강 및 문화, 관계 및 참여, 주거, 법·제도 기반 등 6개 분야 총 17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그림 V-1. 정책 비전 및 제언 분야

16) 이 장은 김형주 선임연구위원, 연보라 부연구위원, 배정희 부연구위원(이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집필하였음

## 2. 정책 제언

### 1) 인구 및 교육·훈련 분야

#### (1) 시·도별 이주배경 청년지원센터 설치

##### 가.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핵심지표 중 청년층 이주배경 인구를 살펴보면 체류외국인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 문제는 이들이 성장하여 우리 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으로 전환되었다.

##### 나. 추진근거

체류외국인통계(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단기체류외국인의 합)를 통해 청년층 다문화 인구 규모를 살펴보면,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층 연령(19-34세)에 준하는 20-34세 체류외국인 수는 2019년 약 102만 5천여 명으로 2011년 59만 1천여 명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9년 만에 두 배에 가까운 숫자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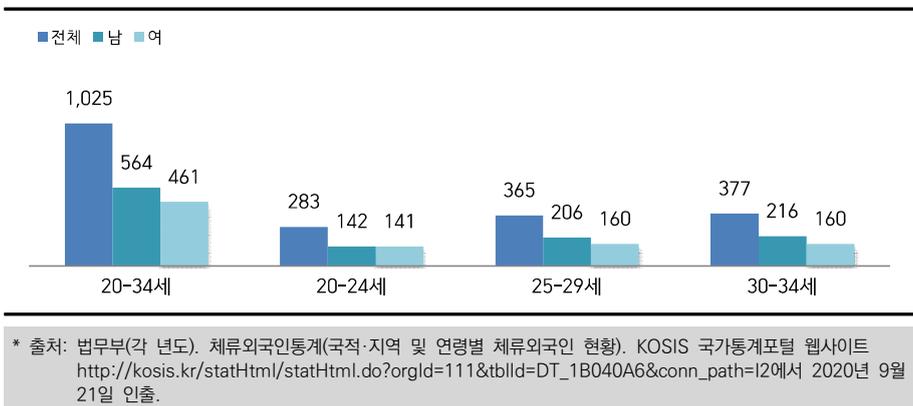


그림 V-2. 체류외국인 수

다. 추진내용

이주배경 청년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하는 인권 보호적 측면과 다양한 국민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이들의 사회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는 일은 필요하다. 중앙단위의 이주배경 청년중앙센터를 두고 전국 17개 시도에도 이주배경 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일관된 정책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이주배경 청년들의 진로, 취업, 주거, 금융 등의 종합상담 및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라. 추진체계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추진단이 중심이 되어 정부출연기관에 이주배경 청년중앙센터를 지정하고 17개 시도 이주배경 청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마. 소요예산

표 V-1 시도별 이주배경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이주배경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방안 정책연구	2021년	90	-
중앙 및 시도 이주배경 청년지원 센터 운영비	2022년	7,610	3,260
	2023년	7,610	3,260

※ 2020년도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원예산(시도별 6억4천만원) 준용 국고:지방비 = 7:3 매칭

## (2) 직업훈련 온라인 콘텐츠 오픈마켓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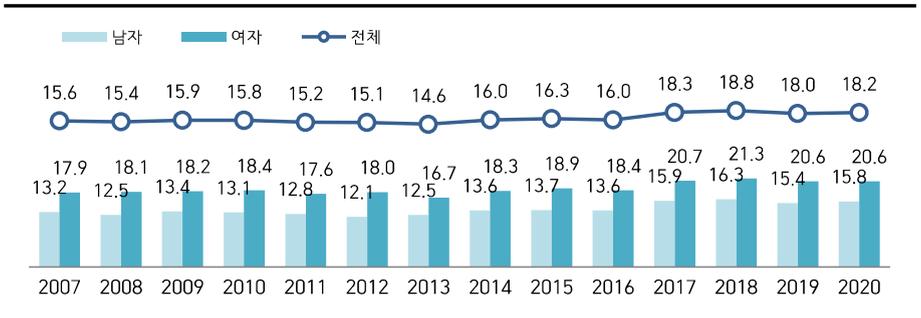
### 가. 필요성 및 목적

현행 제도권 교육은 입학 시 결정되는 전공분야와 해당 대학이 제공 가능한 교육과정이란 한계가 있어서 졸업 후 다양한 고용시장에 유연하게 적응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대학의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방식의 활용과 다양한 직업훈련 콘텐츠의 유연한 접근 체계가 필요하다.

### 나. 추진근거

2020년 기준 15-29세 청년층의 직업훈련 참여율은 18.2%로 2007년 15.6% 이래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4년간은 18%대를 유지하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여성(20.6%)이 남성(15.8%)보다 직업훈련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여성의 직업훈련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단위: %)



\* 출처: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53S&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9053S&conn_path=I2)에서 2020년 9월 22일 인출.

그림 V-3. 연령별 직업교육 훈련 참여율

다. 추진내용

직업훈련 콘텐츠 오픈마켓 구축은 두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대학의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방식과 같이 기존 대학 등 제도권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 관련 콘텐츠를 개방하는 것이고, 둘째는 각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청년들이 자신의 요구에 맞는 직업훈련 콘텐츠를 수월하게 검색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직업훈련 콘텐츠 오픈마켓인 종합지원시스템의 경우는 직업훈련기관에서 유료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오픈마켓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라. 추진체계

고용노동부와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기관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주관한다.

마. 소요예산

표 V-2 직업훈련 온라인 콘텐츠 오픈마켓 구축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직업훈련 온라인 콘텐츠 오픈마켓 ISP 및 개발	2021년	1,000	-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및 직업훈련기관 인센티브 지원	2022년	8,780	-
	2023년	9,040	-

※ 2021년 예산은 ISP연구 및 시스템 구축 예산이며, 이 후 소요예산은 2020년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 운영예산(8787억원) 기준 시스템개발 및 운영비 10% 산정

## 2) 경제 및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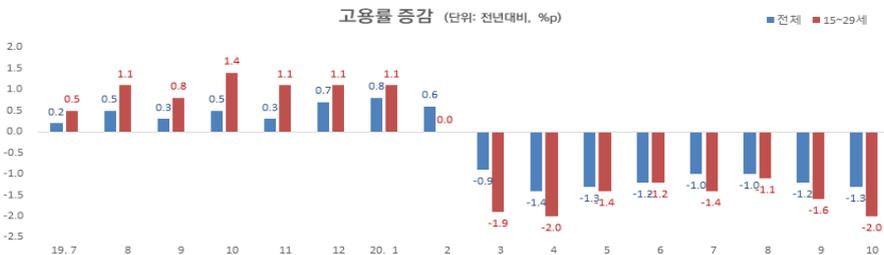
### (1)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 가. 필요성 및 목적

금년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가 경제를 비롯하여 청년 고용, 소득 등의 문제가 악화되는 상황에 놓여졌다. 전체 취업자가 급감하는 가운데 특히, 청년의 고용률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처럼 청년들의 구직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기본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청년의 생활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나. 추진근거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고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전년 대비 지속적인 감소를 나타냈다. 전체 연령에 비해 15세~29세 고용률이 크게 감소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2020년 3월 -1.9%p, 4월 -2.0%p 하락하였다가 9월부터 다시 -1.6%p, 6월 -2.0%p 감소폭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 출처: 통계청(2020), 2020년 10월 고용동향 보도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3/1/index.board?bmode=read&bSeq=&aSeq=386062&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3/1/index.board?bmode=read&bSeq=&aSeq=386062&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20년 11월 27일 인출.

그림 V-4. 코로나19 이후 청년층 취업자 증감 및 고용률 추이

다. 추진내용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발생함에 따라 내년 고용 불확실성도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청년 고용의 회복도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이 충실하게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지원금을 계획보다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2021년 1월부터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운영되는데, 기존에 직종, 구직준비도 등 청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가 필요하다.

라. 추진체계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여 운영한다.

마. 소요예산

표 V-3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2021년	328,396	-
	2022년	337,591	-
	2023년	347,043	-

※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산(10만명 기준, 164,198백만원)으로 2021년 20만명으로 확대 지원예산(328,396백만원) 준용, 연차별 물가상승률에 따른 증액분 반영

## (2) 청년 내일채움공제 확대 및 개선

### 가. 필요성 및 목적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간 격차 해소 목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청년들에게 조기 노동시장 진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금년도 실태조사에서 실제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청년은 3.4%로 불가하였고, 해당 정책을 알고 있지 못하는 비율도 53.9%로 높게 나타나 적극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또, 코로나19 상황으로 고용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불가피하게 납입 중지가 발생한 청년 대상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

### 나. 추진근거

금년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참여율을 조사한 경우 3.4%로 사업에 대한 인지도도 '모른다'는 응답이 53.9%로 청년 중 절반 이상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들의 도움 정도를 파악한 결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80.3%(조금 도움이 되었다 50.0%+많은 도움이 되었다 30.3%)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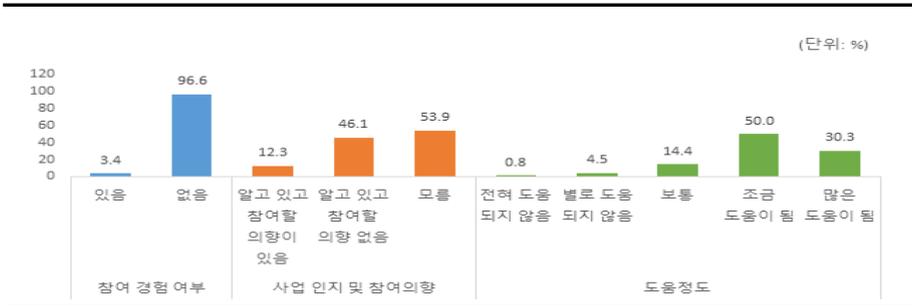


그림 V-5. 청년 내일채움공제 경험 및 인식

다. 추진내용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는 청년들의 초기 노동시장 진입 기간을 줄이고, 노동 시장 성과 격차 해소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참여 청년들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는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며, 참여율도 저조한 상황이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2021년 가입 규모가 13만2천명에서 10만명으로 줄어들었다.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대상자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휴업이나 권고사직을 하게 된 경우 납입 중지 기간 불산입이나 기간 연장 등 장기근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라. 추진체계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주무부처로서 대상자 확대 및 개선을 시행하고, 홍보 사업을 주관한다.

마. 소요예산

표 V-4 청년 내일채움공제 확대 및 개선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 내일채움공제 확대 및 개선	2021년	1,401,700	-
	2022년	1,873,200	-
	2023년	1,925,700	-

※ 2021년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예산 계획(10만명, 1조4017억원) 준용, 2022년 가입규모 확대 (10만명-)13만명), 연차별 물가상승률에 따른 증액분 반영

### (3) 창업대학 지정 및 운영

####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들의 취업난은 정형적 조직을 갖춘 사업체에 입사하는 사회진출 관행을 좀더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시켰다. IT를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을 독려하는 시장환경의 변화와 정책적으로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LINK+)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노력들이 있어 왔는데, 이제는 보다 규모와 제도를 갖춰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 추진근거

금년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창업을 생각해 보았고 실제로 창업을 했다’는 창업 경험자 비율은 9.0%로 나타났다. 창업 경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10.1%로 여자(7.7%)보다 높았고, 20대 이하의 경우 창업 경험이 10% 미만이었으나 30-34세의 경우 18.6%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창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창업을 고려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25.9%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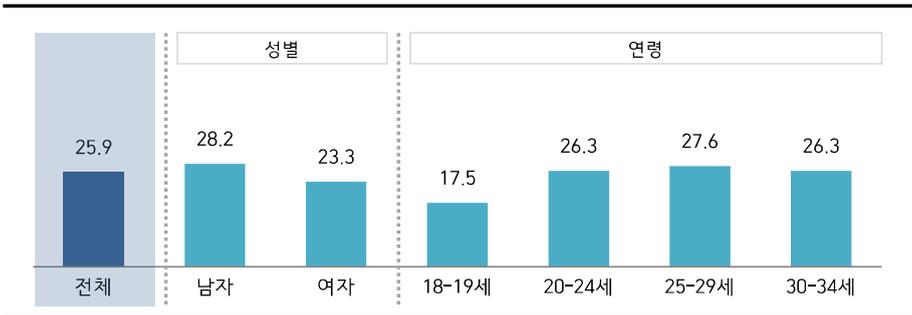


그림 V-6. 창업 의사

다. 추진내용

그동안 교육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LINK+)의 일환으로 창업 관련 지원을 하였으며, 여러 산학협력사업 중 하나로 창업지원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였는데 이제는 창업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창업대학을 지정하여 스타트업을 비롯한 창업 전반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역별로 창업대학을 지정하여 전국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은 대학 재학생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청년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교육훈련, 상담, 산학연계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한다.

라. 추진체계

교육부가 주관하여 기존의 LINK+사업에서 창업지원체계 구축사업을 별도의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중점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소요예산

표 V-5 창업대학 지정 및 운영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창업대학 지정 및 운영	2021년	304	-
	2022년	313	-
	2023년	322	-

※ 2020년 교육부의 LINK+사업의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지원예산(304억원)을 준용, 연차별 물가상승률에 따른 증액분 반영

### 3) 건강 및 문화 분야

#### (1) 청년 국가건강검진 내실화

##### 가. 필요성 및 목적

현행법상 영·유아기에는 「모자보건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아동·청소년기에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학생 건강검진을 매년 주기적으로 받게 되고, 취업 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취업하기 전까지의 청년층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2019년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기존 만 40세에서 만 20세로 확대되었으나, 금년도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 나. 추진근거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지난 1년간 건강검진(종합건강검진 또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년층의 59.3%가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만 18-24세 청년층의 경우 지난 1년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가 7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 건강검진 수검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520	40.7	59.3	
연령	만18~19세	477	19.3	80.7
	만20~24세	1,095	24.5	75.5
	만25~29세	1,050	45.1	54.9
	만30~34세	898	59.5	40.5

#### 다. 추진내용

2020년 청년층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매우 낮은 상황으로, 청년층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국가건강검진의 홍보강화 및 내실화가 필요하다. 홍보와 관련해서는 매년 검진 안내문이 1-2월경 우편물을 통해 일괄 발송되고 있으나, 우편물 외에 문자안내, SNS 및 인터넷 홍보, 대학교 및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한 건강검진 실시 등 보다 청년 친화적인 건강검진 홍보·실시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청년층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일반건강검진의 내용은 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 검사, 구강검진 등이 있는데, 이 외에도 청년기 위험질병 등에 대한 검사항목을 대폭 추가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건강검진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라. 추진체계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수행 및 홍보를 실시한다.

#### 마. 소요예산

표 V-7 청년 국가건강검진 내실화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건강보험재정
청년 국가건강검진 내실화	2021년	2,000	130,000
	2022년	2,000	130,000
	2023년	2,000	130,000

\* 보건복지부(2020) 건강검진 사업안내에 따르면, 2020년 건강검진사업의 예산 중 일반건강검진 사업예산은 국고(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관련 비용)와 건강보험재정(건강보험가입자 검진관련 비용)을 합하여 629,601백만원임. 위 소요예산은 일반건강검진 사업예산에 청년층 인구비율(21%)을 곱하여 산정함.

## (2) 청년 정신건강 지원 사업 확대

### 가. 필요성 및 목적

금년도 본 연구에서 청년 정신건강의 핵심지표인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장애 유병률, 자살률을 살펴본 결과 청년의 정신건강 수준이 최근 3년간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취업난 및 경제난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도 약화되어 청년들의 정신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청년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나. 추진근거

2018년 기준으로 19-29세의 청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5.7%, 30-39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4.3%로 19세 이상 전체인구 평균값인 27.3%보다 약 8%p 높게 나타났다. 우울장애 유병률의 경우 19-29세 5.7%로 19세이상 전체인구 평균값 4.2%보다 1.2%p 높았다. 특히 두 지표에서 여성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남성 청년보다 훨씬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V-8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장애 유병률 (2018)

(단위: %)

	전체 (19세-)	19-29세			30-39세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스트레스인지율	27.3	35.7	28.2	44.5	34.3	33.6	35.1
우울장애 유병률	4.2	5.7	2.8	9.0	3.9	2.4	5.5

#### 다. 추진내용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청년특화 정신건강센터인 ‘마인드링크’를 시범사업으로 광주에서 운영 중에 있다. 그룹인지행동치료, 영양 및 신체건강 관리, 가족중재, 사례관리, 스트레스 관리 등 청년층의 정신건강 향상 및 정신의학적 질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청년특화 정신건강센터는 향후 청년센터 설립과 연계되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청년센터가 존재하거나 설립될 예정인 지자체에서는 ‘마인드링크’ 사업을 주요 청년센터 사업으로 운영하여 청년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 및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센터가 없는 지역의 경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청년층에게 특화된 ‘마인드링크’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 라. 추진체계

청년 정신건강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며, 지자체 청년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사업을 운영한다.

#### 마. 소요예산

표 V-9 청년 정신건강 지원 사업 확대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 정신건강 지원 사업 확대	2021년	450	450
	2022년	900	900
	2023년	1,275	1,275

\* 국무조정실(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에 따르면, 광주시 마인드링크 사업의 예산은 국고 및 지방비 1:1 매칭으로 150백만원임. 위 예산은 마인드링크 사업을 2021년 6개 시도, 2022년 12개 시도, 2023년 17개시도로 확대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추정예산임

### (3) 청년층 특화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가. 필요성 및 목적

금년도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과 여가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조사 결과 여가를 중시한다는 응답이 47.7%로 일을 중시한다는 응답 25.5% 보다 22.2%p 높게 나타났다. 청년층의 여가중시 경향은 2016년 첫 조사(40.6%)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여가활동은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감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청년층이 보다 만족스러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및 취미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나. 추진근거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20-30대 청년층은 여가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다양한 여가시설의 확충과 질 좋은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으로 보고 있었다.

표 V-10 여가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 1-5순위 (2019)

(단위: %)

	20대	30대
질 좋은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3.5	72.9
다양한 여가시설	72.7	73.2
여가와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45.5	45.1
공휴일과 휴가의 법적 보장	28.8	26.5
소외계층을 위한 여가생활 지원	28.0	28.3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a). 국민여가활동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7129&conn\\_path=I30](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27129&conn_path=I30)  
 서 2020년 11월 24일 인출.

#### 다. 추진내용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 발표한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민의 여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가 참여기반 구축, 여가 접근성 개선, 여가 생태계 확대 등 다양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가 접근성 개선과 관련하여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직장인 등에 대해서는 특화된 여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과 달리,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 지원 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청년 특화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자체 거주 청년들에게 질 좋은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에서는 그림책 읽는 모임, 네트워크 취미 클래스, 반려식물입양 클래스, 맥주/전통주 탐구 클래스 등 청년층이 흥미로워하는 다양한 취미 클래스들을 개발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라.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며, 지자체 청년센터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 마. 소요예산

표 V-11 청년층 특화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층 특화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2021년	225	225
	2022년	450	450
	2023년	765	765

\* 서울특별시 청년센터(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영등포’의 2020년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전체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모두 합하여 300백만원임. 위 예산은 청년층 특화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청년센터 전체 예산 중 1/10 규모인 30백만원이라고 가정하고, 2021년 5개 시도\*3개 센터, 2022년 10개 시도\*3개 센터, 2023년 17개 시도\*3개센터로 확대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추정예산임. 국고와 지방비의 비율은 1:1로 하였음

#### 4) 관계 및 참여

##### (1) 청년 정책참여 거버넌스 제도화 및 확대

######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정책형성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형성, 집행, 평가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는 청년들의 청년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율과 낮은 만족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청년들이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단위의 청년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참여 거버넌스를 제도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 추진근거

금년도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은 정치·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요건으로 청년들의 기본 고용과 주거 안정(48.9%) 다음으로 청년정책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의 직접 참여 보장(38.5%)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 청년 정치·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요건-1+2+3순위(상위5위)

(단위: %)

청년들의 기본 고용과 주거 안정	청년정책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의 직접 참여 보장	청년기본법 시행 및 제도 활성화	청년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청년참여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48.9	38.5	35.6	34.1	33.1

#### 다. 추진내용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는 2020년부터 청년참여단 사업을 시행중이다. 만 19-34세 전국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참여단 150명은 정책 아카데미 수업을 통해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기초소양을 쌓은 후 토론회, 전체회의, 분과회의 등을 통해 정책제안서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정부부처에 제안하게 된다. 청년층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청년참여단의 참여인원을 점차 확대하고 참여내용의 범위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년참여단의 경우 청년들의 정책제안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2021년부터 실시될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과정에 청년참여단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정책 평가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정책제안은 각 부처의 수용여부 의견까지 받는 것을 내용으로 포함할 때 의미 있는 정책참여가 될 수 있다.

#### 라. 추진체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주관 및 운영한다.

#### 마. 소요예산

표 V-13 청년 정책참여 거버넌스 제도화 및 확대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 정책참여 거버넌스 제도화 및 확대	2021년	300	-
	2022년	400	-
	2023년	500	-

\* 국무조정실 청년참여단과 유사사업인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정책참여단 예산규모를 토대로 추정하였으며, 2021년 300명, 2022년 400명, 2023년 500명을 모집인원으로 하였을 때 추정예산임

## (2) 청년 대상 온라인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 가. 필요성 및 목적

김기현 외(2019)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층의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율은 국가장학금 등 몇몇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에 대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과 정책 형성과정에서 이해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가 있을 때 청년들이 사회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질 높은 민주시민 교육 및 정책교육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나. 추진근거

금년도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년층 중 정치적 효능감이 높은 청년들은 5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5명 중 1명은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청년 4명중 1명은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V-14 정치적 효능감

(단위: %)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20.5	34.8	44.8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14.4	36.1	49.5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4.3	38.2	37.6

다. 추진내용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지도자 정치캠프’, ‘대학생 선거·정치참여 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미 정치/사회참여 활동에 활발히 참여 해 온 청년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년 대상 민주시민 교육은 지금까지의 정치/사회참여 경험 여부와 무관하게 관심 있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을 온라인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제안한다. 온라인 교육은 K-MOOC 강좌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라. 추진체계

교육부가 주관하고 온라인 민주시민 교육 개발 및 관리는 K-MOOC 관리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한다.

마. 소요예산

표 V-15 청년 대상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 대상 온라인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2021년	250	-
	2022년	250	-
	2023년	250	-

\* 국가평생교육원(2019) 2019년 K-MOOC 사업설명회 자료집에 따르면, 6주차 이상 강좌에 대해 강좌당 개발·운영비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위 예산은 5개 민주시민 교육 강좌를 개설할 때를 기준으로 최대 예산을 추정한 것임

### (3) 청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카드 도입

####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들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시킬 때 유용한 정보나 자원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도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청년들이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여유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도권보다 사회참여의 기회가 적은 지역 청년, 그리고 당장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의 경우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있더라도 이를 현실화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청년들의 사회참여에 수반되는 경제적·시간적 기회비용을 최대한 감소시켜 청년들이 부담 없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나. 추진근거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의 정치·사회참여에 대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28.8%),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23.5%), 단체(모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9.7%)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6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 1-3순위 (2019)

(단위: %)

	전체	성별		연령	
		남	여	15-29세	30-39세
시간이 부족해서	28.8	30.5	27.0	27.8	29.9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23.5	24.2	22.7	22.7	24.4
단체(모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9.7	9.4	10.0	10.2	9.1

\* 출처: 김형주 외(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p.381

#### 다. 추진내용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제공 및 할인혜택과 함께 본인의 사회참여 활동 이력을 관리하고 사회참여 포인트를 지급하는 청년카드의 도입을 제안한다. 청년카드의 개념은 청년들의 이동권과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유럽청년카드(European Youth Card)에서 유래한 것인데, 청년카드를 발급받은 만30세 이하 청년들은 교통, 숙박, 문화 활동, 교육 서비스 등과 관련된 할인혜택을 받으며, 다양한 시민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국내 청년카드의 도입을 통해 청년들은 다양한 사회 참여에 소요되는 비용(교통비, 숙박비, 참가비 등)에 대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회 참여 활동에 대해서 포인트를 지급받아 이를 또 다른 사회참여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청년정책 등 유용한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것을 제안한다.

#### 라. 추진체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총괄하고, 사업 내용별로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마. 소요예산

표 V-17 청년 대상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카드 도입	2021년	152,000	-
	2022년	152,000	-
	2023년	152,000	-

\* 국내 유사사업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누리카드 예산은 1261억원(177만명\*10만원 지원)임. 위 예산은 국내 청년인구의 20%인 217만명을 대상으로 연 10만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추정치임

## 5)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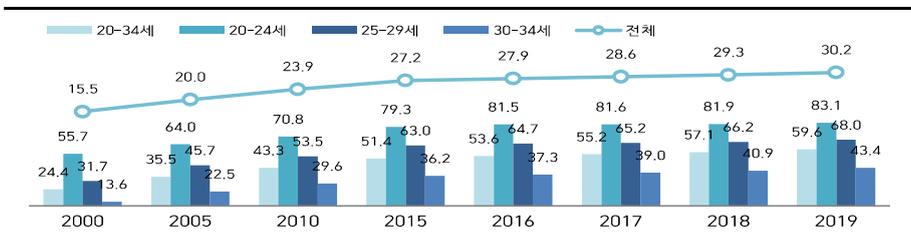
### (1) 청년 1인가구 주택공급 확대

#### 가.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청년 1인가구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 가구 형태의 이질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청년 1인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가구 형태를 배려한 적극적인 주거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 주택공급정책 및 주택 청약과정에서 불리한 미혼·비혼 청년 1인가구가 배제되지 않고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 나. 추진근거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청년(20-34세)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24.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59.6%에 이르렀다. 이는 2019년 기준 전체 가구주의 1인가구 비율(30.2%)보다 약 2배 가량 높은 것으로서, 청년 가구주 10명 중 6명은 1인 가구로 확인된다.



\* 출처: 통계청(각 년도). 인구총조사(가구주의 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 가구(일반가구)-시군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7&conn\\_path=I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7&conn_path=I2) (2015-2019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017&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017&conn_path=I3) (2010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A0504&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A0504&conn_path=I3) (2005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A0020&conn\\_path=I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A0020&conn_path=I3) (2000년)에서 2020년 10월 3일 인출

그림 V-7. 청년층(일반가구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율

#### 다. 추진내용

다양한 청년 가구 형태를 존중한 청년 주거 정책 추진이 요구되며, 우선적으로, 청년 1인가구 대상의 주택 공급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청년 1인가구 수 증가율을 반영하여 행복주택,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청년 공공지원주택과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기숙사형 청년 주택 등 청년 1인가구가 지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또, 본 연구의 심층면담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청년 1인가구 대상 공급 주택의 평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평형에 대한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 덧붙여 청년 1인가구에게 불리한 현행 청약 제도의 개편에 대한 요청이 높는데, 인구 구성의 시대적 변화에 조응하여 청약제도의 현실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라. 추진체계

청년 1인가구 대상 주택 공급 확대는 기존의 청년 주택공급정책의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한다.

#### 마. 소요예산

표 V-18 청년 1인가구 대상 주택 공급 확대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 1인가구 대상 주택 공급 확대	2021년	50,428,000	-
	2022년	56,213,000	-
	2023년	62,662,000	-

※ 2020년도 청년 1인가구 대상 주택공급 정책(행복주택,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청년 공공지원주택과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기숙사형 청년 주택 등) 지원예산(5조428억원) 준용, 연차별 최근 청년 1인가구 수 증가율(2018년대비 2019년 108.4%증가) 및 물가상승률 반영

## (2) 셰어하우스 공급 개선

###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들의 주거난이 심각해지면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크게 청년 주택공급정책과 주거비지원정책으로 나뉠 수 있으며, 근래에는 청년 주거 특성을 반영한 역세권 노후 고시원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셰어하우스 공급을 위한 노력도 있어왔다. 이러한 주택공급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주거 의식과 요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정교화된 추진이 필요하다.

### 나. 추진근거

금년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공동주거(가족이 아닌 다수가 한 집에 살되 방은 따로 쓰고 거실, 욕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의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비율은 5.7%로 많지 않았는데, 향후 공동주거를 할 의향에 대한 응답 역시 의향이 있다는 응답률은 5.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주요 수요층인 청년 1인가구의 경우에도 향후 공동주거 의향 비율이 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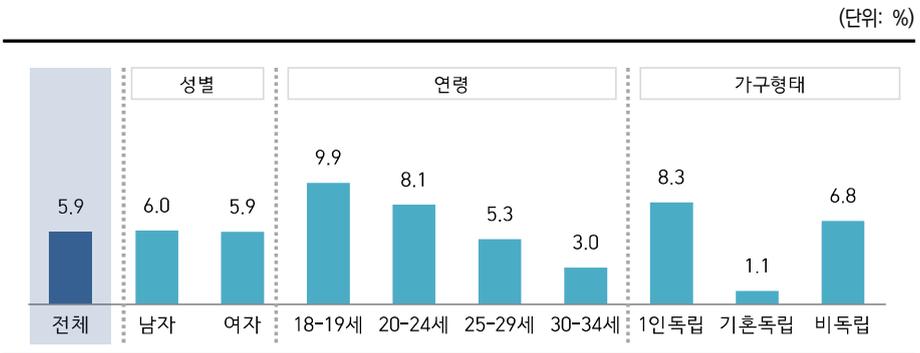


그림 V-8. 공동주거 의향

#### 다. 추진내용

그동안 국토부에서는 사회주택 공급활성화,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등 청년들의 주거난 해결을 위하여 여러 맞춤형 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청년의 주거 의식과 요구를 반영한 셰어하우스 공급 정책의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청년 주거 의식 심층면담결과에서도 청년 1인가구는 사적인 공간으로서 주거의 의미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 공간 공유에 대한 심리적인 불편함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셰어하우스 공급 시 청년들의 충분한 개인 생활 공간(침실, 거실, 주방, 욕실)과 사생활이 보장되면서 공동생활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청년 맞춤형 주택 설계를 위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셰어하우스 공급을 개선한다.

#### 라. 추진체계

사회주택 및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등을 시행하고 있는 국토부가 주무부처로서 관련 연구 수행 및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공급 정책을 개선·운영한다.

#### 마. 소요예산

표 V-19 셰어하우스 공급 개선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셰어하우스 공급 개선을 위한 청년 맞춤형 주택 설계 방안 연구	2021년	90	-

※ 청년 맞춤형 주택 설계 방안 연구는 2020년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비(9천만원) 준용

### (3) 청년 주거상담센터 지정 및 운영

####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층 대상 주거 정책의 추진체계는 다양하기 때문에, 지자체별, 부처별로 공급자 중심으로 분산된 정책들을 개인이 모두 탐색하고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유사한 주거 정책 및 지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주거 지원 정책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에 수요자 중심에서 청년 개인의 취업 및 학업상태, 자산 등 경제적인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한 지원 조건과 혜택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이 필요하다.

#### 나. 추진근거

금년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였으며, 정책 유형별로는 ‘청년 주택공급 정책’의 인지율이 68.5%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는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 인지율이 44.7%로 절반에 못 미쳤으며, ‘대학기숙사 공급 및 기숙사비 지원’ 인지율은 38.0%이고, ‘청년 주거환경 개선 정책’에 대한 인지율은 21.7%에 불과하여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 본 연구의 심층면담결과에서도 주거 정책의 홍보 강화와 맞춤형 주거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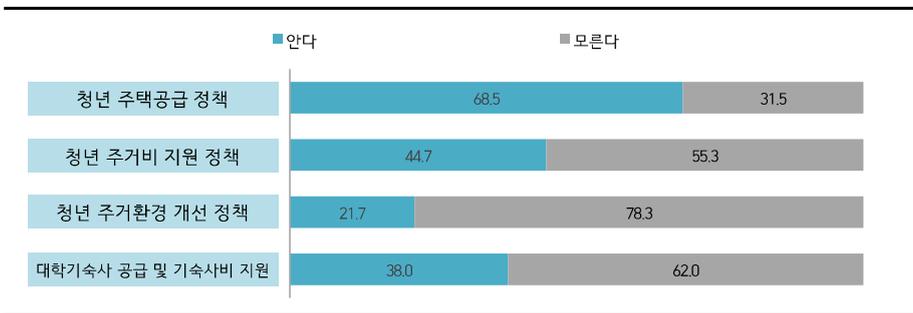


그림 V-9. 청년 주거 정책 인지도

다. 추진내용

중앙부처, 지자체 및 LH, SH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창구로서 청년주거상담센터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서울시와 SH공사는 서울하우징랩(Seoul Housing Lab)에 서울시 청년주거상담 센터를 설치하였는데, 지자체별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지자체 거주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개인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가능한 정책을 안내해주고, 사회초년생으로서 주거 매매 및 임차, 계약 등 다양한 주거 고민에 대한 도움 등 맞춤형 종합상담의 창구로서 주거상담센터 지정 및 운영을 제안한다.

라. 추진체계

국토부가 주관하여 기존 중앙주거복지센터(또는 지역주거복지센터) 내에 청년 주거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소요예산

표 V-20 청년 주거상담센터 지정 및 운영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 주거상담센터 지정 및 운영	2021년	5,450	2,336
	2022년	5,608	2,404
	2023년	5,771	2,473

※ 2020년 서울시 청년 주거상담센터(주거복지센터 운영 중 청년주거종합지원단 운영 예산) 지원 예산을 준용 (각 시도별 458백만원). 연차별 물가상승률에 따른 증액분 반영

## 6) 법·제도 기반 분야

### (1) 생애 전반기 법령체계 연계

#### 가. 필요성 및 목적

2020년 초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기존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 청년과 연계된 연령층에 대한 법안 등이 여전히 병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령의 증가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효과의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민의 생애 전반기 법령체계의 연계 및 통합이 필요하다.

#### 나. 추진근거

금년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청년’의 연령 범위에 대해서 평균 19.6세에서 32.3세 사이를 ‘청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연령별로 비교 했을 때 상한-하한 연령 범위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하한 연령은 낮아지고, 상한 연령은 높아져 청년 연령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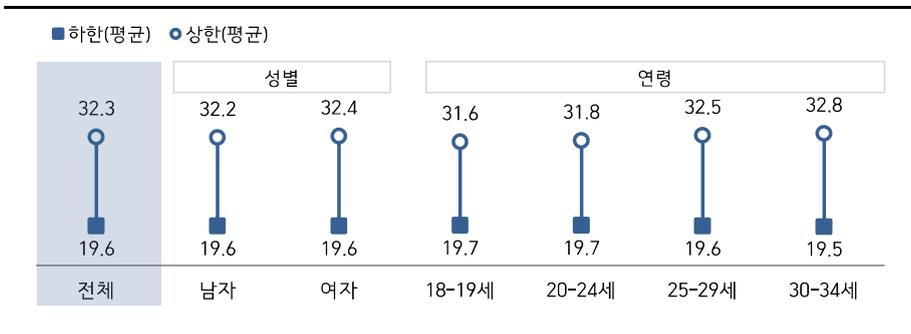


그림 V-10. 청년 연령규정

다. 추진내용

생물학적인 혹은 발달심리학적인 청년 연령의 범위는 학문적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정책이란 측면에서 보면 정부재정투입의 대상 범위를 구획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현행 청년 연령의 하단에 연계되는 아동복지법(18세 미만)과 청소년기본법(9~24세)과의 연령층의 중복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년기본법과 이 두 법령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더욱이 아동, 청소년, 청년으로 이어지는 생애 전반기의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연령층의 국민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라. 추진체계

청년정책추진단이 설치되어 있고 각 부처의 정책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한다.

마. 소요예산

표 V-21 생애 전반기 법령체계 연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생애 전반기 법령체계 개선 방안연구	2021년	90	-
생애 전반기 법령체계 연계 및 통합을 위한 법 제정 지원	2022년	50	-
	2023년	50	-

※ 법령체계 개선 방안 연구는 2020년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비(9천만원) 준용, 법 제정 지원은 공청회 개최 및 법률 지원 예산으로 추산

## (2) 국가청년진흥원 설치 및 운영

### 가. 필요성 및 목적

금년도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청년들은 우리 사회가 청년층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제도적으로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청년정책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출연 기관 설치가 필요하다.

### 나. 추진근거

금년도 실태조사에서 우리 사회가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고졸자 및 대졸자 모두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고졸자 40.9%, 대졸자 27.3%)이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고졸자 14.7%, 대졸자 24.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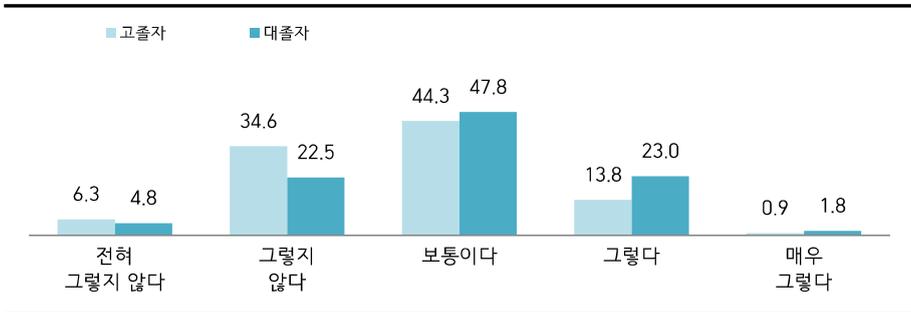


그림 V-11. 우리사회는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정착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다

다. 추진내용

청년정책사업은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중앙행정기관에서 각자의 목적 하에 수행되고 있고, 산하기관으로는 고용정보원 등이 고용지원사업을 중점 담당하고 있다. 청년의 문제가 고용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 복지, 주거, 참여 등 삶의 전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가칭)국가청년진흥원의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한다. 국가청년진흥원을 통해서 청년정책사업의 지속가능성과 부처별 각각 추진하는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추진체계

국가청년진흥원은 현행 청년정책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 산하기관으로 설치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마. 소요예산

표 V-22 (가칭)국가청년진흥원 설치 및 운영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가칭)국가청년진흥원 설립 방안 정책연구	2021년	50	-
(가칭)국가청년진흥원 운영	2022년	56000	-
	2023년	56000	-

※ 국가청년진흥원 설립 방안 정책연구는 교육부의 국가단위 평생교육 추진 전담기구 통합구축방안 연구비(4천만원)에 누적물가상승률 반영하여 추산, 운영 예산은 2020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운영예산(561억) 준용하여 산정

### (3) 청년지원전담공무원제 도입

####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문제에 대한 각 지역 지자체의 안정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청소년기본법 상의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제도와 같이 ‘청년지원전담공무원제’ 도입이 필요하다.

#### 나. 추진근거

금년도 실태조사에서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졸자 및 대졸자 모두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고졸자 38.5%, 대졸자 27.8%)이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고졸자 16.4%, 대졸자 24.8%) 대비 높게 나타났다. 고졸자, 대졸자 모두 정부 및 지자체의 졸업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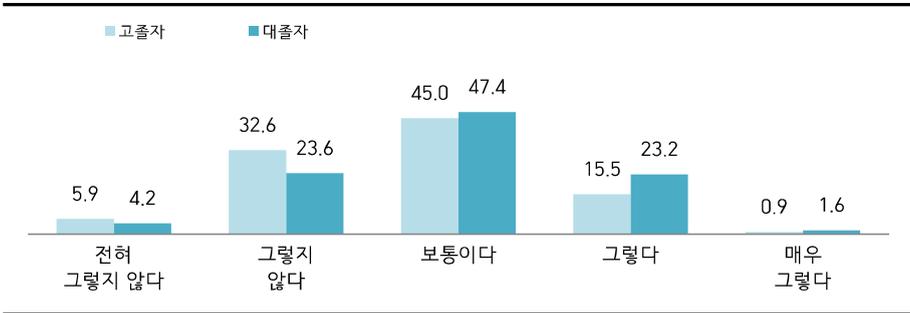


그림 V-12.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 추진내용

청소년기본법 제25조는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을 광역시도, 시군구 등에 둘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 초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는 제16조에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순환배치를 기본적인 인사제도로 운영되는 직업 공무원제도에서 청년문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 조항으로 ‘청년지원전담공무원제’를 명시하여 실무자급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전문성을 가진 전담인력이 배치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청년기본법의 하위 조항으로 청년지원전담 공무원의 자격사항, 역할 및 책임의 범위, 관련행정기관 협조의무사항 등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라. 추진체계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되므로 청년정책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주관할 필요가 있다.

마. 소요예산

표 V-23 청년지원전담공무원제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기본법 개정 및 공청회	2021년	900	-
청년지원전담공무원제 운영	2022년	-	9500
	2023년	-	9500

※ 2020년 6급(4등급) 공무원 1호봉(2,094,500원) 기준 전국 378개 시군구 각 1인 배치로 추산

### 3. 결론

전체 5개년 연구로 추진된 본 연구의 목적은 2020년 한국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기반으로 취업과 경제생활,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 교육, 가치관, 신체 및 정신건강, 주거, 결혼, 양육, 출산, 문화생활 등 청년의 삶을 둘러싼 사회·경제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1차년도부터 금년도 5차년차도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차별 핵심지표에서 나타난 한국 청년들의 삶의 질은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되어 왔다고 평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 것 같다. 지속적으로 부정적 상황이 심화되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정확한 실태를 대하는 연구진으로서 객관적 입장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갖게 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금년도의 경우 국가적인 청년층 지원의 법적 토대가 되고 청년층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정책사업 및 재정투자의 확대를 통해 청년 삶의 개선을 기대하는 한 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다만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보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청년정책의 사회적 공론화의 확산과 관련 정책의 과감한 실천을 어렵게 하였다는 점은 아쉬운 측면이라 할 것이다.

금년도 5차년도 연구가 이전년도 연구들과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금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19세~34세)을 중심으로 하여 선거권 연령인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청년기본법 제정 이전의 본 연구들(2016년~2019년)에서는 만 15세에서 39세를 대상으로 청년층의 폭을 비교적 넓게 살펴보았고, 금년도 연구는 정책연구로서 청년기본법에서의 청년 연령규정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금년도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년 사회·경제 실태에 있어서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 인구수는

2020년 현재 1,089만 명이며 청년층의 전체 인구수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특히 19세-24세 청년층은 2019년 대비 2020년 11만여 명 감소로 저출산 심화로 인한 저연령층의 인구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은 2000년대 들어 99% 이상의 비율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통계 기준이 변경된 2011년 이래로 꾸준히 감소해 2016년 이후에는 60%대의 진학률을 보이다 2019년 다시 70%대로 진입하였다. 20세-34세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9년 69.1%로 나타났는데, 20세-34세 청년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율(72.9%)은 15세 이상 전체 남성(73.5%) 보다 0.6%p 낮았다. 20세-34세 청년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율은 2019년 기준 59.6%로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8년 대비 2.5%p 상승하였는데, 2000년부터 2019년까지 1인 가구 비율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전부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2019년 기준 전체 1인 가구 비율(30.2%)과 비교했을 때 청년 1인 가구 비율은 59.6%로 약 두 배 가량 높고, 특히 20-24세 청년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율은 83.1%로 전체 대비 52.9%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35세-39세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 당 28.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살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8년 대비 30세-34세는 1.0명 감소, 35세-39세는 0.2명 감소하였다. 일과 여가 중에서는 여가가 중요하다가 47.8%로 일이 중요하다(25.5%)보다 높게 나타났고, 현실과 이상 중에서는 현실이 중요하다가 68.8%로 이상이 중요하다(14.1%) 대비 높았다. 기성세대(40, 50대)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세대라는 대해 청년들의 65.5%가 동의하여 비동의하는 비율(7.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정치적 영향력이 과대하고 특히 다른 세대에 비해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심층면담으로 이루어진 주거의식 조사에서는 거주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청년들은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에 대한 임대료는 주거

비용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금융대출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대출 연장이나 상황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고민으로 작용하였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증함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에게 주거는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더불어 주거는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로 즉, 집값 상승률이 소득 상승률보다 높은 작금의 상황에서, 주거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투자 수단으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향후 주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직장과의 거리나 교통 접근성 등 편리한 주거의 위치, 아파트, 신축 등 쾌적한 주택 상태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들은 한국사회에서 주거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계층 간뿐 아니라 세대 간 주거불평등을 모두 포함하는데, 특히,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주거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와 주거의식에 대한 심층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년의 삶 개선이라는 비전하에 6개 분야 총 17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인구 및 교육훈련 분야에서는 시도별 이주배경 청년지원센터 설치, 직업훈련 온라인 콘텐츠 오픈마켓 구축, 경제 및 고용 분야에서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청년 내일채움공제 확대 및 개선, 창업대학 지정 및 운영, 건강 및 문화 분야에서는 청년 국가건강검진 내실화, 청년 정신건강지원 사업 확대, 청년층 특화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관계 및 참여 분야에서는 청년 정책참여 거버넌스 제도화 및 확대, 청년 대상 온라인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청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카드 도입,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1인가구 주택공급 확대, 세어하우스 공급 개선, 청년 주거상담센터 지정 및 운영, 법·제도 기반 분야에서는 생애 전반기 법령체계 연계, 국가청년진흥원 설치 및 운영, 청년지원전담공무원제 도입 등이다.

본 연구는 한국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에 대해 7개 대분류, 14개 소분류, 총 115개의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지난 5년 동안 살펴보았다. 특히 핵심지표를 개발한 첫해를

제외하고 2차년도부터 매년 주요 청년현안에 대해 부가조사를 통해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2차년도에는 청년 니트(NEET) 문제, 3차년도에는 학교 신규졸업자(졸업예정자) 문제, 4차년도에는 청년 참여 문제, 금년도 5차년도에는 청년 주거 문제를 다룸으로서 청년들이 직접 제기하는 밀도 있는 삶의 얘기를 연구에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본 연구가 갖고 있는 제한점은 전국 청년층의 삶의 전체적인 면모를 기본적으로 실태조사라는 형식으로 파악하다 보니 세밀한 삶의 구석구석까지 모두 짚어내는데 한계가 있었고 특히 청년의 삶에서 특별히 나빠진 측면을 집중 조사하기 어려웠다는 측면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행한 부가조사도 심층적인 파악이 필요한 주제들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청년 연구의 양적·질적 확대를 통해서 청년의 삶에 대한 큰 그림과 더불어 삶의 각 부분의 현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원인 진단과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보다 필요할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올해 마지막 5차년도 연구를 하면서 지난 5년 동안 핵심지표를 통해 나타난 한국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삶이 지속적으로 좋아지지 않고 있는 것을 조사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일은 청년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진으로서 안타까움과 깊은 책임감을 느끼게 하였다. 청년들이 자신의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토대를 마련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지난 5년 동안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 적지않은 청년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결과론적 측면을 살펴볼 때, 이미 상대적으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기성세대와 기성정책들의 이해관계 조정과 배려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 강순희 (2018). 대졸 청년 노동시장 이행의 코호트 간 비교연구. **노동정책연구**, 18(4), 1-29.
- 경향신문(2017.3.20). 이나영의 고령사회 리포트: 64세 노인, UN 기준으로는 청년이다. 경향신문, 2017. 3. 20. 경향신문 홈페이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03201104002](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03201104002)에서 2020년 12월 11일 인출.
- 고원식, 김대일 (2019).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와 청년층의 독립 선택. **한국인구학**, 42(2), 51-82.
- 고인석 (2018). 영국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영국의 지방분권이 한국 헌법개정 논의에 미치는 함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18(1), 123-141.
- 고용노동부(각 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에서 2019년 7월 22일 인출.
- 관계부처합동 (2017).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2017.11.29.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9992](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9992)에서 2020년 5월 15일 인출.
- 관계부처합동 (2018a). **청년 일자리 대책**. 2018.03.15.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161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161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에서 2020년 5월 15일 인출.

- 관계부처 합동 (2018b).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2018.7.5.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1018](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1018)에서 2020년 5월 15일 인출.
- 관계부처 합동 (2018c). **청년고용 촉진방안**. 2018.3.14.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581](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581)에서 2020년 5월 15일 인출.
- 관계부처합동 (2019).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2019.7.17. 청년 기획재정부 웹사이트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29092&searchBbsId1=MOSFBBS\\_00000000028](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29092&searchBbsId1=MOSFBBS_00000000028)에서 2020년 5월 15일 인출.
- 관계부처 합동 (2020a). **제1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 국무조정실 웹사이트 <http://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25852>에서 2020년 5월 15일 인출.
- 관계부처 합동 (2020b). **제2차 청년의 삶 개선 방안**. 국무조정실 웹사이트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28785>에서 2020년 12월 2일 인출.
- 교육부(2020). **2020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std.kedi.re.kr> 에서 2020년 9월 28일 인출.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9a). **교육통계분석자료집-유초중등 교육통계 편**.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kess.kedi.re.kr/index>에서 2020년 9월 22일 인출.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9b). **2019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kess.kedi.re.kr/index>에서 2020년 9월 22일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청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3951&efYd=20200805#0000>에서 2020년 5월 4일 인출.

- 국가평생교육원(2019) 2019년 K-MOOC 사업설명회 자료집. [http://www.kmooc.kr/comm\\_view/R/1/334](http://www.kmooc.kr/comm_view/R/1/334) 에서 2020년 11월 26일 인출.
- 국립국어원 (2020). **국립국어원 우리말 검색**. <https://www.korean.go.kr/front/search/searchAllList.do>에서 2020년 5월 4일 인출.
- 국무조정실 (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 내부자료.
- 국민건강보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2017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 한국의료패널 웹사이트 <https://www.khp.re.kr:444/web/research/board/list.do?bbsid=13>에서 2020년 10월 3일 인출.
- 국토교통부 (2020). **주거복지 로드맵 2.0**. 2020.03.20.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693](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693)에서 2020년 5월 15일 인출.
- 권민지 (2018). ‘내 집’ 만들기 주거불안계급 청년 여성의 공간전략. **공간과 사회**, 28(3), 271-301.
- 기획재정부 (2020). **2020년 10월 고용동향 보도참고자료**.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340233> 에서 2020년 11월 26일 인출.
- 김기현 (2017). 청년 정책의 현황 진단과 개선 방향. **보건복지포럼**, 244(5), 54-68.
- 김기현, 배상률, 성재민, 배진우. (2018).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청년 니트(NEET)**(연구보고 18-R1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유민상, 변금선, 배정희, 차세영, 강정석, 이화진, 권향원, 이승호, 김문길, 박미선, 이민정, 배진우 (2020).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협동연구총서 20-23-0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이윤주, 유설희, 배진우 (2017).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연구보고 17-R0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도균 (2018). 취업준비 활동의 계층화와 청년정책의 발전 방향. **비판과 대안을**

-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8(5), 308-332.
- 김민수 (2017). 청년 일자리 정책. **월간 복지동향**, 220, 27-32.
- 김민영, 장원섭 (2017). 4년제 일반대학 취업준비생의 취업스터디를 통한 경력개발에 대한 질적 연구. **진로교육연구**, 30(2), 81-101.
- 김민정, 김숙희, 이동현, 성백춘 (2019). 대학교 창업교육이 청년창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비즈니스연구**, 3(1), 43-56.
- 김선희, 남경숙 (2020). 공유의 개념에서 바라본 청년문화공간의 시지각 감성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 청년층 사용자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9(1), 105-115.
- 김세영 (2018). 청년 1인가구의 정신건강과 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 발표대회 자료집**, 11-16.
- 김소라, 남해경 (2019). “Co-Housing” 개념을 접목한 청년 1인 주거공간 계획 기초연구.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31(2), 251-254.
- 김안나, 홍연우 (2018). 청년 빈곤 및 고용실태 분석. **사회복지연구**, 49(2), 93-124.
- 김안정 (2017). 청년층 인구 감소와 고학력 청년 실업 심화. **고용동향브리프** 2017(1),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 김용희, 한창근 (2019).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인식의 잠재계층유형: 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50(1), 309-339.
- 김정숙, 강영배 (2017).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연구보고 17-R0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종욱 (2017). 최근 청년층 니트(NEET)의 특징과 변화. **노동리뷰**, 2017(4), 97-110.
- 김종욱 (2019). 직장체험과 직업교육이 첫 직장 이행기간에 미치는 영향: 대졸자와 전문대졸자를 중심으로. **노동리뷰**, 2019(6), 51-64.
- 김준영 (2019). 비수도권 청년 인구의 유출과 수도권 집중: 최근의 변화.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 2019, 27-42.**

- 김지경, 이윤주, 이민정 (2017).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연구보고 18-R0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형주, 연보라, 유설희, 배진우 (2019).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V**(연구보고 19-R0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형주, 임지연, 유설희, 배진우 (2018).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II** (연구보고 18-R0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남혜명 (2018). 청년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 현황에 관한 연구. **젠더와사회, 여성 연구논집 29**, 89-116.
- 대학알리미 (각 년도a). **등록금 현황**. 대학알리미 웹사이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0년 9월 28일 인출.
- 대학알리미 (각 년도b). **학자금 대출 현황**. 대학알리미 웹사이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0년 9월 28일 인출.
- 대학알리미 (각 년도c). **장학금 수혜 현황**. 대학알리미 웹사이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0년 9월 28일 인출.
- 대학알리미(각 년도d). **기숙사 수용 현황**. 대학알리미 웹사이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0년 10월 3일 인출.
- 문화체육관광부(각 년도a). **국민여가활동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 문화체육관광부(각 년도b). **국민독서실태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 문화체육관광부 (2019).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s://policydb.kcti.re.kr/#/surveyLeisureDetail?bbstypecd=3003013&postno=200313&poststatcd=1300>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 민경선 (2018). 워라밸 세대의 여가와 삶의 만족도. **한국웰니스학회지, 13(3)**, 377-388.

- 박미선 (2017). 한국 주거불안계급의 특징과 양상: 1인 청년가구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62, 110-140.
- 박미선, 강미나, 임상연, 유은영, 오주형 (2017).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방향** (전략수시17-02). 세종. 국토연구원.
- 박미희 (2017). OECD 국가의 청년니트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17(3), 1-44.
- 박수정, 권오정. (2016). 20·30대 청년층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및 견해 조사 연구.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8(2), 227-232.
- 박은선, 노현선, 김수경 (2018). 50+세대와 청년세대의 주거의식 및 요구 비교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주거요구 분석** (50+당사자연구 18-03). 서울. 서울시50플러스재단.
- 박은하 (2018). 취약 청소년·청년의 진로·직업역량 현황과 자립지원정책 방안 연구. **청소년학연구**, 25(10), 299-319.
- 박정민, 이기원, 하은솔 (2018). 청년 채무 보유의 관련요인. **한국사회복지학**, 70(4), 93-116.
- 배나래, 소권섭 (2019). 청년층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사회복지정책적 제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3), 394-399.
- 배호중, 한창근 (2018). 학자금 대출과 혼인이행: 4년제 대학 졸업 여학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8(1), 520-555.
- 법무부 (각 년도). **체류외국인통계**.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에서 2020년 9월 21일 인출.
- 변금선, 김기현, 하형석, 이용해, 배진우, 이민정 (2019).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방안 연구**(연구보고19-R53). 세종: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 변수정, 조성호, 이지혜 (2018).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연구보고서 2018-23).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각 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에서 2020년 10월 3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20). **2020년 건강검진 사업안내**. <http://www.g-health.kr> 에서 2020년 11월 26일 인출.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20). **2018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3차년도**. 질병관리본부 웹사이트 <https://knhanes.cd.c.go.kr/>에서 2020년 10월 3일 인출.
- 서준교, 김용현, 이성근 (2017). 청년일자리정책의 취업 및 임금 효과분석 - 2~3년제 대학 및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7(4), 61-80.
- 손현 (2019). **사회통합형 주거복지법제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19-02).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 신선미, 김영옥, 김종숙, 안준기 (2017). **청년여성의 직업훈련 참여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심미승, 박지현 (2019). 청년주거복지 대안으로서의 셰어하우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방행정학보(KLAR)**, 16(1), 31-51.
- 안수란 (2017). 미국의 고용·훈련정책과 견습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 **국제사회보장리뷰**, 2017(겨울호 3), 53-63.
- 양승광 (2017). 청년고용정책 관련 법률에 관한 소고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7, 87-109.
- 오세제 (2018). **청년 정치가 답이다**. 서울: 지에이소프트.
- 오재호 (2020). 청년기본법, 어디를 향해 가야하나?. **이슈&진단**, 406. 경기. 경기연구원.
- 유계숙, 강민지, 윤지은 (2018). 청년층의 가족개념과 가치관: 2001년과 2017년 20대 미혼 청년세대 비교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30(3), 42-69.
- 유수진, 조희선 (2019). 청년세대의 주거공동체 경험을 통한 식구되기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7(2), 139-155.
- 유정미 (2017).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단계의 성별임금격차 분석. **한국여성학**, 33(1), 107-155.

- 윤윤규 (2019). 청년고용의 현실과 정책방향. **노동리뷰**, 2019(2), 3-4.
- 윤초롱, 이자명 (2018). 취업준비생의 취업준비 경험 및심리적 지원 요구.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8(1), 817-847.
- 의안정보시스템 (2020). **청년 관련 기본법안**.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2020년 4월 27일 인출.
- 이봉조 (2019). 청년 주거문제와 주거박탈 경험: 30대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9(6), 105-106.
- 이상아, 이승윤 (2018). 지역고용정책은 청년실업 해소의 대안일 수 있는가?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의 한계와 가능성. **노동정책연구**, 18(2), 27-59.
- 이상욱, 권철우 (2019). 청년층의 지역이탈과 이주지역 선택: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연구**, 37(1), 43-66.
- 이소영, 엄순철. (2018).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주거요구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7(2), 77-85.
- 이소영, 이창무 (2019). 부모의 경제력이 청년층 임차가구의 주거사다리 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25(4), 85-102.
- 이송림 (2020). 「청년기본법」 제정 의의 및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1659,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이수욱 (2016). 청년 주거문제 완화를 위한 주택정책 방안. **국토정책 Brief**, 560, 1-8.
- 이수현 (2019). 한국 청년들의 여행 경험에 관한 연구. **여가학연구**, 17(1), 49-71.
- 이승윤, 백승호, 김미경, 김윤영 (2017).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54, 487-521.
- 이승주 (2019). 청년기본소득 도입의 효과 분석: 소득재분배 및 빈곤완화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5(1), 89-131.
- 이영범, 유해연 (2018). 청년주거 운영방식에 따른 유형별 사례연구. **IDI 도시연구**, 13, 7-42.

- 이윤주 (2018). 성인이행기와 관련된 지위의 변화가 청년 남녀의 성역할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30(2), 105-128.
- 이윤주. (2019). 청년기 여성의 결혼 및 부모 지위 변화에 따른 건강의 변화.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37(2), 193-205.
- 이정 (2019).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비교. **공공사회연구**, 9(2), 34-58.
- 이정아 (2019). 20대 대졸자의 실업률 상승과 구직 기간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6GOMS를 이용하여- **고용조사브리프 2019(1)**,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 이정아, 김수현 (2017). 정규직의 허구적 안정성과 청년의 불안정성. **경제와사회**, 114, 194-224.
- 이지민 (2017). 대졸청년 니트족(NEET) 특징과 시사점. **고용패널브리프**, 2017(8),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 이태진, 김태완, 정의철, 최은영, 임덕영, 윤여선, 최준영, 우선희. (2016).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태진, 우선희, 최준영. (2017). 청년층의 주거 실패는 어떠한가. **보건복지포럼**, 2017(2), 38-53.
- 이흥경 (2017). 유희공간에서 피어난 청년문화 공간? -베를린의 '젊은 세입자들' 프로젝트. **독어독문학**, 58(3), 115-133.
- 이희정 (2018). 청년층 계층인식 변화가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사회학**, 52(3), 119-164.
- 임준형, 최인영, 박혜경 (2019). 라이프스타일 기반 다학제적 청년층 1인 가구의 주거 환경 선호 및 요구 분석.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37(1), 249-260.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19).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서 2020년 4월 28일 인출.
- 장동호 (2018). 청년 연체의 규모와 결정요인 탐색. **복지상담교육연구**, 7(2), 49-75.

- 장용언, 황명주 (2018).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학교사회복지**, 41, 55-75.
- 장인성 (2019). 청년 취업준비생 증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동리뷰**, 2019(2), 7-19.
- 장효진 (2017). 노동시장정책이 청년의 고용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행정학보**, 51(3), 325-358.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2020.01.09.).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성명자료. 전국청년네트워크 웹사이트 <https://youthpolicy.kr/Press/?q=YToxOntzOjEyOjRZl3b3JkX3R5cGUiO3M6MzoiYWxsJlt9&bmode=view&idx=2961199&t=board>에서 2020년 4월 28일 인출.
- 정수남, 김정환. (2017). '잠재적 청년실업자'들의 방향과 계급적 실천. **문화와 사회**, 23, 195-264.
- 정우준 (2019). 취업준비생에서 청년노동자로: 2000년대 이후의 청년노동. **문화과학**, 98, 64-85.
- 정지혜, 양수진. (2019). 성인 초기 청년들의 그릿과 정신적 안녕감: 진로소명과 취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2(3), 37-59.
- 조영림, 문승현. (2017). 장기취업준비생의 취업준비활동에 대한 사례연구 -취업스트레스와 대처자원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4(9), 145-175.
- 주휘정, 김민석 (2018). 청년층의 결혼 이행 여부에 대한 경제적 배경 요인의 영향.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8(2), 59-88.
- 중소벤처기업부 (각 년도). **창업기업동향**.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2&tblId=DT\\_142N\\_A10252C&conn\\_path=I2\(2010-2016년 자료\)](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2&tblId=DT_142N_A10252C&conn_path=I2(2010-2016년 자료)),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2&tblId=DT\\_142009N\\_102&conn\\_path=I2\(2017-2019년 상반기 자료\)](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42&tblId=DT_142009N_102&conn_path=I2(2017-2019년 상반기 자료))에서 2020년 9월 29일 인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년도).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국가지표체계 웹사이트 <http://www.index.go.kr/>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진미정, 한준, 노신애 (2019). 20-30대 청년세대의 결혼·출산 가치관의 잠재유형과 한국사회 인식 및 개인적 미래 전망의 관련성. **가족과 문화**, 31(1), 166-188.

채창균 (2018). 청년고용대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지**, 15-36.

청년기본법안 (2016). [신보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0024호].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W6J0Q5G3Y0D1U4M2D3Z4H3A6J8A5](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W6J0Q5G3Y0D1U4M2D3Z4H3A6J8A5)에서 2020년 4월 27일 인출.

청년기본법안 (2016).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1778호].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J6E0D8T2Q4W1G4U5R0Y5M7J6C7V1](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J6E0D8T2Q4W1G4U5R0Y5M7J6C7V1)에서 2020년 4월 27일 인출.

청년기본법안 (2017).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6739호].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H7S0K4Z1K3C1I1C4O2D5T7N8V3B5](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H7S0K4Z1K3C1I1C4O2D5T7N8V3B5)에서 2020년 4월 27일 인출.

청년기본법안 (2018a).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13684호].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V8Q0Q5Y2P1S1B8V2V9Q5K1U0D6I8](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V8Q0Q5Y2P1S1B8V2V9Q5K1U0D6I8)에서 2020년 4월 27일 인출.

청년기본법안 (2018b). [채이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11990호].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1Q8W0I2V1F9V1W6C0Z7B0S4Q8H3O7](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1Q8W0I2V1F9V1W6C0Z7B0S4Q8H3O7)에서 2020년 4월 27일 인출.

청년기본법안(대안) (2019). [정무위원장 제안, 의안번호 제2023987호].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T9M1O1H2R2J1N8G1Z9Y3J6Z0Y4Y6](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T9M1O1H2R2J1N8G1Z9Y3J6Z0Y4Y6)에서 2020년 4월 27일 인출.

청년발전기본법안 (2016). [김해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4070호]. 의안 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J6H1O2K0Z2E1G4X3H0C0D8H0B4Y1](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J6H1O2K0Z2E1G4X3H0C0D8H0B4Y1)에서 2020년 4월 27일 인출.

청년발전지원기본법안 (2017).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7738호].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H7Z0I6C3Z0G1R8S0E5A5X0N2M4J3](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H7Z0I6C3Z0G1R8S0E5A5X0N2M4J3)에서 2020년 4월 27일 인출.

청년발전지원법안 (2018). [신보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16948호]. 의안 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P8S1F1V3I0R1E4U4F5U1H3N5K9C5](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P8S1F1V3I0R1E4U4F5U1H3N5K9C5)에서 2020년 4월 27일 인출.

청년정책기본법안 (2016).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1620호]. 의안 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O6C0B8G1A7H1B4L3L5M5L7U9F2R1](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O6C0B8G1A7H1B4L3L5M5L7U9F2R1)에서 2020년 4월 27일 인출.

최문석, 송일호 (2019). 청년층의 교육 및 전공불일치가 임금과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6(2), 85-102.

최상미, 유효은, 김한성 (2019). 당사자의 목소리로부터의 빈곤 청년의 삶에 대한 탐색. **사회과학연구**, 26(2), 32-58.

최석현, 김정훈, 김재신 (2018). 새로운 청년고용전략. **이슈&진단**, 332, 1-23.

최요한 (2018). 청년층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이행확률의 추정. **노동정책연구**, 18(4), 31-50.

최은희 (2018). **미취업청년의 취업(준비)활동과 정신건강의 관계 - 청년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기본과제 2018-21). 충북. 충북연구원.

최지원 (2018). 대졸자의 첫 일자리 학력 및 스킬 미스매치와 개인 특성, 취업준비

- 특성, 첫 일자리 특성 및 첫 일자리 성과의 관계. **직업능력개발연구**, 21(2), 1-30.
- 최지훈, 안선희 (2017). 청년층의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이 미래의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26-226
- 최효미 (2017). 청년 미혼층의 결혼 및 출산 의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49-55
- 최효미, 김지현 (2018). 청년 1인가구 현황 및 청년층의 1인가구에 대한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17-21.
- 통계청 (2020). **2020년 10월 고용동향 보도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6062](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6062)에서 2020년 11월 26일 인출.
- 통계청 (각 년도a). **장래인구추계**.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에서 2020년 9월 21일 인출.
- 통계청(각 년도b). **인구동향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에서 2020년 9월 21일 인출.
- 통계청(각 년도c).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에서 2020년 9월 22일 인출.
- 통계청(각 년도d). **사회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에서 2020년 9월 21일 인출.
- 통계청(각 년도e).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에서 2020년 9월 28일 인출.
- 통계청(각 년도f). **기업생멸행정통계**.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에서 2020년 9월 29일 인출.
- 통계청(각 년도g).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에서 2020년 9월 29일 인출.
- 통계청(각 년도h). **가계동향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

- kr/에서 2019년 9월 3일 인출.
- 통계청(각 년도i). **가계금융·복지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에서 2020년 9월 23일 인출.
- 통계청(각 년도j). **인구총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에서 2020년 10월 7일 인출.
- 통계청(각 년도k). **사망원인통계**.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에서 2020년 10월 3일 인출.
- 한겨레 (2020.02.03.). 시대변화의 '아픈 손' 맞잡아줄 청년기본법...기대해도 될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6714.html#csidx9302d89b14976d1b5bc4f3a495c99e6](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6714.html#csidx9302d89b14976d1b5bc4f3a495c99e6)에서 2020년 4월 28일 인출.
- 한국경영자총협회 (각 년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 웹사이트 <http://www.kefplaza.com/>에서 2019년 7월 22일 인출.
- 한국노동연구원 (2017). 신규 대졸자 교육계열별 취업 현황. **노동리뷰**, 2017(6), 95-98.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한국행정연구원(각 년도). **사회통합실태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 한국행정연구원 (2018).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8-01-01).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한무명초, 김양석, 이충권 (2017).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동남권 신공한 신문기사 분석. **스마트미디어저널**, 6(1), 48-54.
- 호정화 (2014). 비혼과 1인 가구 시대의 청년층 결혼 가치관 연구. **한국인구학**, 37(4), 25-59
- 황명주, 장용언 (2017).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4(1), 113-136.
- Cedefop (2020). European database on apprenticeship schemes. 웹사이트

- 트 <https://www.cedefop.europa.eu/en/publications-and-resources/data-visualisations/apprenticeship-schemes/scheme-fiches/apprenticeships-ireland>에서 2020년 8월 2일 인출
- Department of Children and Youth Affairs (2015). 아일랜드 National Youth Strategy 2015-2020 웹사이트 [www.dcy.a.ie](http://www.dcy.a.ie)에서 2020년 8월 7일 인출
- EACEA (2020a). 영국 청년정책. 웹사이트 <https://eacea.ec.europa.eu/national-policies/en/youthwiki/countries>에서 2020년 7월 15일 인출.
- EACEA (2020b). 아일랜드 청년정책. 웹사이트 <https://eacea.ec.europa.eu/national-policies/en/youthwiki/overveiw-ireland>에서 2020년 7월 30일 인출.
-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Youth Programs(2013). Pathways for Youth: Draft Strategic Plan for Federal Collaboration. Youth.gov에서 2020년 8월 10일 인출.
- Ireland Government (2020). 아일랜드 Tús (community work placement initiative). 웹사이트 <https://www.gov.ie/en/service/de6a8b-tus-community-work-placement-initiative>에서 2020년 8월 5일 인출
- U.S. Government (2013). Pathways for Youth: Draft Strategic Plan for Federal Collaboration.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Youth Programs.
- U.S. Department of Labor (2020). 미국 청년정책 웹사이트 <https://www.dol.gov/general/topic/training/youth>에서 8월 8일 인출
- U.S. Department of Education(2020). 미국 청년층을 위한 Upward Bound 프로그램 웹사이트 <https://www2.ed.gov/programs/trioupbound/index.html>에서 8월 8일 인출



## ○ — 부 록

- 1.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항목
- 2.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표



# 부록

## 1.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항목

	조사내용	문항번호	신규문항 여부
1. 인구와 가족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문1	
	원가정으로부터 독립 필요성 및 적정 독립 시기	문2	
	결혼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시기	문3	
	자녀 필요성 및 적정 자녀 계획 시기	문4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양육 대책	문5	
	결혼 여부	문6	
	결혼 준비 경험 여부	문7	
	결혼 준비 시 망설임 경험	문7-1	
	결혼을 망설임 이유	문7-2	
	맞벌이 유무	문8	
	현재 자녀 존재 유무	문9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문10	
	2025년 출산율 전망	문11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	문12	
해외이주를 고려한 이유	문12-1		
2. 교육과 훈련	2025년 입시경쟁 전망	문13	
	우리사회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	문14(1)~(3)	
	대학(교) 진학 경험 여부	문15	
	대학(교) 유형, 소재지, 전공계열, 졸업여부, 학년, 입학 및 졸업연월	문15(1)~(7)	
	대학 등록금을 마련한 방법	문16	신규
	학자금 대출 금액	문16-1	신규

	조사내용	문항번호	신규문항 여부
	학자금 대출 상환 예상 시기	문16-2	신규
	졸업 요건 이수 후 유예 경험	문17	
	졸업 유예 위해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문18	
	졸업 유예 사유 및 미이수 사유	문19	
	대학교육 만족도	문20	
	향후 대학원 진학 의향	문21	
	대학원 학위과정	문21-1	신규
	대학원 재학상태	문21-2	
	대학 미진학 사유	문22	
	향후 대학 진학 의향	문23	
	고등학교 재학 경험	문24	
	고등학교 유형	문24-1	
	고등학교 재학 시 학교로부터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 제공 경험	문24-2	
	제공받은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문24-2-1	
	취업 준비 여부	문25	
	취업 준비 기간	문25-1	
	취업 준비 방법별 경험 여부	문26	
	취업 준비 지원 대상별 도움 여부	문27	
	취업 준비 지원 대상별 도움 정도	문27-1	
	취업 준비 지원 대상별 도움 내용	문27-2	
	도움을 받은 사설기관 월 이용 비용	문27-3	
	사설기관 외 취업준비 관련 월 이용 비용	문27-4	
	평일 기준 취업 준비 투자 시간	문27-5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문28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	문29	
	향후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교육 대책	문30	신규
3. 경제와 고용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문31	
	2021년 적정 최저 임금	문32	
	한달 본인 생활비(용돈) 정도	문33	
	한달 본인 생활비(용돈)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문33-1	

조사내용	문항번호	신규문항 여부
지원받는 비율		
값아야 할 채무 여부	문34	
채무 발생 사유	문34-1	
대출을 받은 기관	문34-2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	문35	
고졸 및 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의식	문36	
중소기업 취업 의향	문37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문37-1	
창업 고려 또는 경험 여부	문38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더 중요한 정책 분야	문39	
노동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문39-1	
노동수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	문39-2	
중소기업 일자리 선호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점	문39-3	신규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문40	
지난 4주 내 구직 경험 여부	문41	
지난주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주된 이유	문42	
항목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해당 여부	문43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중 가장 주된 이유	문43-1	
학업,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 지속 기간	문44	
구직활동을 한 기간	문45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의 직업 분류	문46	
현재 본인의 월 평균 소득	문47(1)	
본인이 원하는 월 평균 소득	문47(2)	
현재 본인의 주당 노동시간	문47(3)	
지난주 더 많은 일 및 시간을 할 수 있는 직장 내에서 업무 가능 여부	문47-3-1	
지난 4주 내 현재 일을 더 찾아보거나 다른 일(직장)을 찾아본 경험 여부	문47-3-2	
본인이 원하는 주당 노동시간	문47(4)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	문48	
이직 의향	문49	

조사내용	문항번호	신규문항 여부
이직 희망 사유	문49-1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경험 여부	문50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작)년도	문50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인지 및 참여 의향	문51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 구직활동에 도움을 준 정도	문52	신규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경험 여부	문53	신규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시작)년도	문53	신규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인지 및 참여 의향	문54	신규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가 안정적 직장생활에 도움을 준 정도	문55	신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경험 여부	문56	신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인지 및 참여 의향	문57	신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구직활동에 도움을 준 정도	문58	신규
이전 취업 경험	문59	신규
이전 직장 채용 과정의 공정성	문60	신규
취업 후 퇴사 및 해고 경험 여부	문61	
가장 최근 일자리를 그만 둔 시기	문61-1	신규
가장 최근 그만 둔 일은 몇 번째 일자리인지 여부	문61-2	신규
가장 최근 그만 둔 일은 스스로 원해서 그만둔 것인지 여부	문61-3	신규
(가장 최근 그만둔 일 기준) 그만둔 이유	문61-4	신규
(가장 최근 그만둔 일 기준) 그만 둔 후 가장 어려웠던 점	문61-5	신규
실업급여 인지 여부	문62	
실업급여 수급 여부	문63	
실업급여 미수급 이유	문63-1	
직장내 괴롭힘 및 산업안전 관련 경험	문64	신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정책 및 대응 절차 유무	문65	신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고충처리 담당자 또는 담당 창구 유무	문66	신규
직장 내 괴롭힘의 상담 또는 고충 처리 절차의 작동 여부	문67	신규

	조사내용	문항번호	신규문항 여부
	직장 내 업무 관련 결정에 참여 또는 영향력 행사 여부	문68	신규
	직장 내 노사협의, 업무제안, 조직적응 제도 유무	문69	신규
4. 주거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	문70	
	자가 소유에 대한 필요성	문71	
	자가 소유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문71-1	신규
	자가 소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문71-2	신규
	지금의 집 값 수준에 대한 적정성	문72	
	부모 도움 없이 내 집 마련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 <sup>17)</sup>	문73	
	공동주거 경험 여부	문74	
	공동주거 거주 의향	문75	
	부모 동거 여부	문76	
	미혼 혼자 거주 여부	문77	
	현재 주거 형태	문78	
	현재 거주 주택의 점유형태	문78-1	신규
	주거비용(주택구입비, 전세금) 마련 주체	문79	신규
	월세비용 마련 주체	문80	신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선택한 이유	문81	신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의 의미	문82	신규
	향후 주거 마련에 있어서 가장 고려하는 사항	문83	신규
청년 주거 정책 관련 인지	문84(1)~(4)	신규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청년 주거 정책	문85	신규	
5. 건강	주관적인 신체건강에 대한 인식	문86	
	현재 본인의 체형에 대한 생각	문87	
	건강검진 수검 여부	문88	
	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	문89	
	질환 발생 후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문90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	문91(1)~(5)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	문92(1)~(11)	
	규칙적인 운동 여부	문93	

	조사내용	문항번호	신규문항 여부
	규칙적인 운동 빈도	문93-1	
	인생에서 외모의 중요도	문94	
	성형수술 경험	문95	
	성형수술 목적	문95-1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이유	문95-2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건강관련 정책	문96	신규
6. 가치관	가치 항목별 선호도	문97(1)~(4)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문98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	문99	
7. 관계 및 참여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 유무 및 수	문100	
	평소 외출 정도	문101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의 지속 기간 정도	문101-1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	문101-2	
	지난 주 혼자 밥을 먹은 경험 여부(점심 기준)	문102	
	지난 주 혼자 술을 마신 경험 여부(저녁 기준)	문103	
	기성세대 및 노인에 대한 생각	문104(1)~(7)	
	사회·정치 문제 의견 표명 행동별 참여 경험	문105(1)~(5)	
	사회·정치 문제 의견 표명 행동별 참여 의향	문106(1)~(5)	
	정치적 효능감	문107(1)~(3)	
	청년들의 사회·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문108	
청년들에게 정책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	문109	신규	

17) 2019년 이전년도까지는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의 부정문 형태로 질문하였으나 2020년도 조사 시에는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긍정문 형태로 질문함

## 2.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조사표



###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년들의 일과 삶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청년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개인정보도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한,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의 의무)에 따라 응답 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은 절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각각의 조사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활실태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비싼시더라도 조사문항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지는 조사기준일(2020년 6월 1일) 현재만 18세~만 34세(1985년 6월 2일~2002년 6월 1일)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아래 사항은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면접원 ID		면접원 이름		응답자 이름	
조사구 일련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주소(구/동)	시/도	구/시/군	동/읍/면	S.V 최종확인	
응답자 연락처	( ) - ( ) - ( )		생년월일	년	월 일
주택 유형	1. 단독 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주택    4. 기타(적용 것 : _____)				

구 분	남 성	여 성	합 계
총 가구원 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가구원 수			
가구당 조사표 부수	조사대상 가구원 수 총 ( )부 중 ( )부 진행		

※ 조사원: 동일 가구인 경우라도 모든 설문지 표지에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미진행 가구원 사유	유치조사 진행 여부 ※ 해당되는 모든 내용에 표시	① 직접 만나서 조사 ② 설문 파수 시 미남 ③ 파수 후 전화로 응답확인 ④ 유치조사
------------	--------------------------------	--

조사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조사 수행기관

Hankook Research (주) 한국리서치



조사문의

김수진: 02-3014-0982  
이동휘: 02-3014-0995  
정화숙: 02-3014-0120

##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귀하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귀하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면접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표시하는 방법1

대부분은 주된 응답 할 가지만 고르는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응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표로 구성된 질문은 ①에서 ⑤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렇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	②	③	④	⑤

### ❖ 표시하는 방법2

숫자를 기입해야 할 때는 박스 안에 한 자리씩 기입해 주세요.

<보기2>

문A.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   명)

###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3>과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3>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	③	④ X	⑤

###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4>

문B.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B-1로 이동**                      ② 없다 → **문C로 이동**

☞ 나는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B-1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 설명문 반드시 참고

질문 아래 설명문(응답 기준, 용어 설명 등)이 있는 경우, 설명문을 읽고 응답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질문해 주세요.

<보기5>

문C.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 **문C-1로 이동**                      ② 없다 → **문D로 이동**

1. 먼저 「인구와 가족」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는 아중,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 중 : 만   세 ~ 만   세
- 청소년 : 만   세 ~ 만   세
- 청 년 : 만   세 ~ 만   세

문2) 귀하는 몇 세부터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 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독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③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3) 귀하는 몇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③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4) 귀하는 몇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③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5) 귀하는 다음의 출산·양육 대책 중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선택해 주십시오.

- ☞ \* 아동수당이란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함
- \* 은종일 돌봄체계란 학교 내 돌봄교실 및 지역사회 다함께 돌봄 등 초등학교 대상 돌봄 수요의 대응체계를 의미함

1순위	2순위	3순위
-----	-----	-----

- ①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 ② 출산 장려금 확대
- ③ 출산 휴가 장려 및 출산 휴가 급여 보장
- ④ 육아 휴직 장려 및 육아 휴직 급여 확대
- ⑤ 임신·출산기 근로시간 단축
- ⑥ 육아·돌봄기 근로시간 단축(자녀돌봄 휴가 확대)
- ⑦ 배우자 육아 참여 확대(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확산)
- ⑧ 아동수당 지원 확대
- ⑨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대
- ⑩ 가정 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 ⑪ 은종일 돌봄체계의 안정적 정착(학교, 지역사회)
- ⑫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 ⑬ 기타(적용 것 : \_\_\_\_\_)

문6) (2020년 6월 1일 기준) 귀하는 결혼하셨습니다?

- ① 배우자 있음
- ② 사별·이혼
- ③ 결혼하지 않음

문7) (2020년 6월 1일 기준) 귀하는 결혼을 준비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문8로 이동

문7-1)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혼을 망설인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문8로 이동

문7-2) 결혼을 망설인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결혼비용 때문에 (주택마린, 혼수비용)
- ②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때문에
- ③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 ④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 ⑤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 ⑥ 기타( )

문8) (2020년 6월 1일 기준) 귀하의 가정은 맞벌이를 하고 계십니까?

☞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있는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맞벌이)
- ② 아니오(외벌이)

문9) (2020년 6월 1일 기준)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있다면 자녀가 몇 명입니까?  명)
- ② 아니오

문10) 귀하는 자녀를 가지실 의향이 있습니까?

☞ 이미 자녀가 있으신 경우, 향후에 추가로 자녀를 가지실 의향 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 → 문11로 이동
- ② 아니오

문10-1) 위 문10)에서 ②아니오라고 답하신 경우, 자녀를 가지실 의향이 없는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① 이미 계획한 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 ② 분임, 난임 등 임신의 어려움 때문에
- ③ 맞벌이로 인한 자녀 양육의 어려움 때문에
- ④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 ⑤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때문에
- ⑥ 자녀가 살아가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 ⑦ 기타 ( )

문11) 귀하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    ② 출산율이 유지될 것이다    ③ 출산율이 내려갈 것이다

문12)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교육 및 훈련, 영역(문13)으로 이동**

문12-1) 해외이주를 고려하셨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자기계발을 위해서  | ②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
| ③ 행복한 삶을 위해서 | ④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
| ⑤ 취업이 어려워서   | ⑥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
| ⑦ 빈부격차가 커서   | ⑧ 집값이 너무 비싸서        |
| ⑨ 안보가 불안해서   | ⑩ 기타(적을 것 : _____)  |

II. 다음은 「교육 및 훈련」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3) 귀하는 우리나라 입시경쟁이 현재와 비교하여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 ② 경쟁이 유지될 것이다
- ③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문14) 귀하는 다음 우리 사회의 교육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15) 귀하는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습니까?(대학교 졸업, 중퇴, 재학, 휴학이신 경우 모두 '① 있다' 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있다
- ② 없다 → 문22도 이동

문15-1) 가장 최근에 진학한 2-3년제 및 4-6년제 대학(대학원은 포함되지 않음)의 학교유형, 소재지, 전공 계열, 입학년월, 졸업여부, 학년, 졸업년월을 응답해 주십시오.

학교유형	학교 소재지 (* 보기1 참조)	전공계열 (* 보기2 참조)	(년) 입학년월	졸업여부	학년 (4학년 이상인 경우, 4학년에 응답)	졸업년월 (졸업한 경우 응답)
① 전문대 (2-3년제)			_____년 _____월	① 졸업 → 졸업년월 ② 재학 → 학년 ③ 휴학 → 학년 ④ 중퇴 → <b>문16</b>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_____년 _____월
② 대학교 (4-6년제)						

\* 보기1(소재지)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⑱ 기타(해외 등)

\* 보기2(전공계열)

- ①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경상계열 제외) ③ 경상계열 ④ 자연계열 ⑤ 공학계열
- ⑥ 의/약학계열 ⑦ 교육계열 ⑧ 예체능계열 ⑨ 사관학교, 경찰대 ⑩ 기타

문16) 귀하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한 가장 주된 방법은 무엇입니까?

☞ "대학 등록금"은 문15)에서 응답한 전문대(2-3년제) 또는 대학교(4-6년제)를 다니기 위해 지불한 등록금을 의미하며, 대학원은 포함되지 않음

☞ "학자금 대출"은 생활비, 주택 등을 위한 대출은 제외하고 "학자금 대출"이라는 이름이 붙는 금융상품의 이용뿐만 아니라, 학자금의 지불을 위하여 각종 기관 및 개인에게 돈을 빌린 경우를 모두 포함

- ① 국가 장학금 → 문17로 이동
- ② 민간 장학금 → 문17로 이동
- ③ 학자금 대출 → 문16-1로 이동
- ④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의 지원 → 문17로 이동
- ⑤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스스로 마련 → 문17로 이동
- ⑥ 기타 ( ) → 문17로 이동

→ ※ 위 문16에서 '③ 학자금 대출'을 선택한 분들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16-1) 귀하의 총 학자금 대출 금액은 얼마입니까?

( )만원

문16-2) 귀하는 학자금 대출을 언제쯤 모두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 ① 이미 모두 상환했다.
- ② 향후 1년 이내
- ③ 향후 1년 이상 3년 미만
- ④ 향후 3년 이상 5년 미만
- ⑤ 향후 5년 이상 7년 미만
- ⑥ 향후 7년 이상 10년 미만
- ⑦ 향후 10년 이상
- ⑧ 상환하지 못할 것 같다.



\* 다음(문22-문23)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분(고졸 이하 및 재수생 등 비진학자)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22) 귀하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 ②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 ③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 ④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 ⑤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 ⑥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문23) 귀하는 추후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24) 귀하는 고등학교를 다니셨습니까?(혹은 다니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문25로 이동**

문24-1) 다니셨던(혹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일반고                       | ② 자율형고                 |
| ③ 특성화고(공고, 상고, 실업고, 전문계고 등) | ④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특목고) |
| ⑤ 과학/영계고(특목고)               | ⑥ 외국어/국제고(특목고)         |
| ⑦ 예술/체육고(특목고)               | ⑧ 기타(적을 것 : _____)     |

문24-2) 고등학교 재학 시 다음의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적이 있습니까? (본인이 직접 찾아 개인적으로 참여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문24-2-1)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받았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 항	문24-2)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경험	문24-2-1)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진로, 직업, 취업 상담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2) 진로와 직업 수업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3) 진로, 직업 체험(현장 견학, 현장 직업체험, 직업실무 체험, 캠프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4) 학과, 전공 체험(대학교 방문, 학과 및 전공 체험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5) 진로, 직업 특강강의 및 설명회/박람회 참석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6) 취업처 연계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 다음(문25-문30)은 모든 대상자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25) 귀하는 지난주(2020년 5월25일~5월31일)에 주로 취업준비를 하셨습니까?

 취업준비란 구직, 이직, 창업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탐색 이상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준비, 취업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도 취업준비에 포함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문28도 이동

문25-1) 귀하는 취업을 얼마동안 준비하셨습니까?

( )년 ( )개월 (예: 6개월 일 경우 0년 6개월)

문26) 귀하는 취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응답)

문항	취업준비 경험	
(1)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통학을 통한 교육이나 훈련(어학, 면접 제외)	① 예	② 아니오
(2) 인터넷 강의, 어플, 동영상 등을 활용한 교육이나 훈련(어학, 면접 제외)	① 예	② 아니오
(3) 영어회화, 제2외국어, 한자능력, 토익, 토플 등 준비(인터넷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4) 해외 연수, 어학 연수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5) 면접 훈련(인터넷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6) 자소서 작성 훈련(인터넷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7) 취업전문회사 자문이나 컨설팅	① 예	② 아니오
(8) 현장실습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9)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① 예	② 아니오
(10) 인턴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11) 봉사활동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12) 동아리, 스터디 활동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13)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① 예	② 아니오

문27) 귀하는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어디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응답)

문27-1)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항	문27) 도움 받은 경험	문27-1)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상당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이나 친인척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5) 친구, 선후배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 문27에서 도움 받은 경험이 모두 ② 아니오 인 경우는 문27-4로 이동

문27-2) 귀하는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주체로부터 주로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

(문27에서 '예' 라고 응답한 항목만 선택하여 응답)

문항	정보 제공	교육/훈련	상담	일자리 알선	금전적 지원	기타 (구체적으로)
(1) 학교(상당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4) 부모님이나 친인척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5) 친구, 선후배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 [3] 사설기관 문항에 응답한 자는 문27-3으로 이동, 아닌 경우는 문27-4로 이동

문27-3) (문27-2에서 (3)번 항목 응답자만) 귀하가 도움을 받은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을 이용하는데 월평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셨습니까?

약  만원

문27-4)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에 지불한 비용을 제외하고 시험응시료, 취업을 위한 교재, 도서 구입 등 취업준비를 위해 월 평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셨습니까?(중·고등학교 및 대학(원)의 정규 수업료 및 등록금 제외)

약  만원

문27-5) 취업 준비를 위해 평일 하루에 투자한 시간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십니까?

1일 평균 약  시간

문28) 귀하는 현재까지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교원 임용 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습니까?

 시험 준비는 학교 재학 시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의 시험 준비를 의미하며, 공단(공사) 내부의 진급 시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있다

② 없다

문29) 귀하는 향후 직업 훈련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직업훈련은 취업 및 창업 준비,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 및 훈련과 인턴 근무 등도 포함합니다. 단순한 취미활동을 위한 학원수강과 정규학교교육과 관련된 학원수강 및 실습(교생실습, 사회복지사 실습, 병원실습 등)은 제외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③ 이미 받고 있다

문30) 귀하는 다음 교육 대책 중 정부가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학 장학금 지원정책(국가장학금 등)

②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정책

③ 청년 진로관린 정책(진로상담, 진로교육 등)

④ 청년 직업교육 정책(취업지원센터, 입학승명행체 등)

⑤ 청년 인재양성 정책(청년인재 집중양성, 이공계 미취업자 산업맞춤 연수 등)

⑥ 기타 (적을 것: \_\_\_\_\_)

III. 다음은 「경제와 고용」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31)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은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분위기 좋은 회사
- ② 급여가 높은 회사
- ③ 유명한 회사
- ④ 안정적인 회사
- ⑤ 퇴근이 빠른 회사
- ⑥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 ⑦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 ⑧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
- ⑨ 기타(적용 것 : \_\_\_\_\_)

문32) 귀하는 2021년도 최저 임금으로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실제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 2017년은 6,470원, 2018년은 7,530원, 2019년은 8,350원, 2020년은 8,590원이며, 전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청년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2020년도 최저 임금 평균은 9,202원입니다.

시간급  원

문33) 한 달 생활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가족을 제외한 본인 생활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생활비 포함 내용: 식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오락, 문화생활, 도서구입 등), 학원수강비, 시험응시료, 취업을 위한 도서 등 자료 구입비, 주거비 등

약  만원

문33-1) 생활비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약  %



문37) 귀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현재 귀하의 취업상태와 상관없이, 귀하가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 → **문38로 이동**
- ② 아니오

문37-1)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
- ② 관련된 여러 업무 경합이 부재
- ③ 고용 불안정
- ④ 사회적으로 낮은 인지도
- ⑤ 낮은 급여 수준
- ⑥ 대기업으로의 이직이 불가능
- ⑦ 개인의 발전가능성이 없음
- ⑧ 대기업보다 낮은 복지 수준
- ⑨ 기타(적용 것 : \_\_\_\_\_)

문38) 창업을 해 보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창업을 생각해보았고 실제로 창업을 했다
- ② 창업을 생각해보았으나 실제로 창업을 해 본 적이 없다
- ③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문39) 귀하는 청년 고용위기 해법으로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개인, 교육)과 노동수요 측면의 정책(일자리, 경제)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노동공급: 교육 및 직업훈련 등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 취업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
- \* 노동수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

- ① 노동공급(개인, 교육)
- ② 노동수요(일자리, 경제)

☞ 문39의 응답 결과와 상관없이 문39-1, 문39-2, 문39-3을 모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39-1) 노동공급(개인, 교육)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지도 활성화
- ② 독일이나 스위스식의 일과 학습 병행제도 활성화
- ③ 고학력화로 인한 대졸자 과다 배출 억제
- ④ 청년들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취업지원 강화
- ⑤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높은 선호도(청년 눈높이) 완화
- ⑥ 청년들의 능력 향상과 핵심역량 수준 제고
- ⑦ 미취업 청소년 및 청년 대상 수당, 배당, 급여 지급
- ⑧ 기타(적용 것 : \_\_\_\_\_)

문39-2) 노동수요(일자리, 경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고용위기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대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
- ② 공공부문 채용 확대
- ③ 청년 창업/창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 ④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 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확대
- ⑥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 ⑦ 해외취업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 ⑧ 기타(적용 것 : \_\_\_\_\_)

문39-3) 청년층의 중소기업 일자리 선호도 개선을 위해 어떤 점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임금수준 향상
- ② 정규직 고용 확대
- ③ 유급휴가, 퇴직금, 초과근무수당 등 복리후생 개선
- ④ 근로시간 준수
- ⑤ 민주적 의사소통 문화 정립
- ⑥ 자기개발 기회 제공
- ⑦ 기타 (적용 것: \_\_\_\_\_)

문40) 귀하는 지난주(2020년 5월25일~5월31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셨습니까?

\*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 한 경우도 '일을 하였습니다'입니다.

- ① 일을 하였음           → 문40-1로 이동
- ② 휴가 및 일시 휴직       → 문40-1로 이동
- ③ 일을 하지 않았음      → 문41로 이동

문40-1) 지난 주(2020년 5월25일~5월31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거나 현재 휴가 및 일시 휴직 상태인 일자리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취업자: 지난 한 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가족사업체 및 농장에서 무급으로 18시간 이상 근무, 휴가, 휴직 등의 사유로 직장은 있었지만 일을 하지 않은 경우가 취업자에 포함됩니다.

구분	내용	
(1) 종사상 지위	① 임금 근로자	② 비임금 근로자
(2) 고용형태	① 정규직(상용근로자) ②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용역 등)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3) 근로시간 유형	① 전일제    ② 시간제	
(4) 직장 유형	①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② 외국인회사 ③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기업 ④ (재단, 사단)법인단체 ⑤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⑥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⑦ 기타 ( _____ )	
(5) 종사자 수 (아래 사업체 기준 참고)	① 1-4인 ③ 10-29인 ⑤ 100-299인 ⑦ 500인 이상	② 5-9인 ④ 30-99인 ⑥ 300-499인
(6) 근속년수 (현 직장을 기준으로 응답)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개월	
(7) 현재 직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의 직무 수준은		
(7-1) 나의 교육수준보다	① 낮다                      ② 유사하다                      ③ 높다	
(7-2) 나의 기술수준보다	① 낮다                      ② 유사하다                      ③ 높다	
<p>➡ (7-3)번은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분(문15 '① 있다' 응답)만 응답해 주십시오.</p>		
(7-3) 나의 전공분야와 (**대학진학 경험자)	① 일치한다                      ② 불일치한다	

☞ 사업체란 기업체보다 작은 단위의 개념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부여하여 조사대상자가 직접 일하고 있는 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은행 △△동 지점에 근무하는 경우, 기업체인 ○○은행 전 사원 수 15,000명 기준이 아닌 △△동 지점의 인원 수 20명을 기준으로 응답해야 함

➡ 응답 후 문46으로 이끔

문41) 귀하는 지난4주(2020년 5월 4일~5월 31일) 내에 직장(일자리)을 구해 보았습니까? (창업준비도 포함됩니다.)

- ① 직장을 구해보았고,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 **문45으로 이동**
- ② 직장을 구해보았지만,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 **문42로 이동**
- ③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 → **문43으로 이동**

문42) 귀하는 지난주(2020년 5월 25일~5월 31일)에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육아나 돌봄, 출산, 가사 활동으로 인해
  - ②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 ③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 **문50으로 이동**
  - ④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 ⑤ 진학 준비 중이어서
  - ⑥ 취업 준비 중이어서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응답 후 문45으로 이동**

문43) 다음의 각 항목이 지난주(2020년 5월 25일~5월 31일)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해당되는지 응답해 주세요.

구 분	예	아니오
(1)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①	②
(2)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①	②
(3) 여행이나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위해서	①	②
(4)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①	②
(5)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야 해서	①	②
(6) 질병이나 지병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①	②
(7)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①	②
(8) 입시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①	②
(9) 학원에 다니지 않고 진학준비 중이어서	①	②
(10)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 중이어서	①	②
(11)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고 취업준비 중이어서	①	②
(12) 군 입대 대기 중이어서	①	②
(13) 학교와 학원 입학 혹은 직업훈련기관 통학 대기 중이어서	①	②
(14) 계속 취업에 실패해서	①	②
(15)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①	②
(16)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①	②
(17) 기타(적을 것 : _____)	①	②

문43-1) 위의 항목에서 '예' 로 응답한 항목 중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하나만 선택)

( ) 번 → **문43-(7)에 '0'에 를 선택한 경우 문50으로 이동, 그 외 번호는 문44로 이동**

문44) 귀하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항목 한 가지만 선택 후, 응답해 주십시오)

선택(V)	비교육 및 미취업 기간
(1) 1개월 미만 ( )	( )일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5일)
(2) 1개월 이상 ( )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3개월)
(3) 1년 - 2년 미만 ( )	( )년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년 6개월)
(4) 2년 이상 ( )	( )년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2년 6개월)

➡ **응답 후 문50으로 이동**

문45) 귀하가 구직활동을 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가장 최근 구직활동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항목 한 가지만 선택 후, 응답해 주십시오)

선택(V)	구직활동 기간
(1) 1개월 미만 ( )	( )일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5일)
(2) 1개월 이상 ( )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3개월)
(3) 1년 - 2년 미만 ( )	( )년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년 6개월)
(4) 2년 이상 ( )	( )년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2년 6개월)

➡ **응답 후 문50으로 이동**

※ 다음(문46~문49-1)은 취업자 및 지난 1주간(2020년 5월25일-5월31일) 1시간 이상 일한 경우 또는 휴가, 일시 휴직 상태인 경우(문40 '① 일을 하였음', '② 휴가 및 일시 휴직'인 경우) 응답해 주십시오.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자영업, 고용원이 있는 자영자, 사업체 운영, 프리랜서 등) 모두 응답대상에 포함됩니다.

문46) 귀하가 현재(2020년 6월 1일 기준) 종사하고 있는 일은 다음 중 어느 직업에 해당합니까?

☞ 세부 직업에 대한 분류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①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 ③ 사무 종사자               | ④ 서비스 종사자           |
| ⑤ 판매 종사자               | ⑥ 농업·어업·축산 종사자      |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 ⑨ 단순노무 종사자             | ⑩ 직업군인              |
| ⑪ 기타(자세히 적을 것 : _____) |                     |







문56) 귀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거나 지원받고 있습니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 졸업, 종퇴후 2년 이내이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미취업 청년(18-34세)을 대상으로
-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시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클린카드 포인트(취업준비 관련 업종에서 사용가능)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신청은 고용노동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① 지원받고 있다. → **문58로 이동**
- ② 지원받은 적이 있다. → **문58로 이동**
- ③ 지원받은 적이 없다.

문57) 귀하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알고 계시고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참여할 의향은 있었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참여할 수 없었던 경우는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로 응답해 주세요.

- ① 알고 있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
-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 ③ 모른다

→ **응답 후 문59로 이동**

문58)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귀하의 구직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 ② 별로 도움 되지 않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도움이 되었다
- ⑤ 많은 도움이 되었다

문59) (2020년 6월 1일 기준) 귀하는 이전에 취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을 하였다면 '예'에 응답)

① 예

② 아니오 → 「추가」 영역(문70)으로 이동

문59-1) 귀하께서 가장 최근 그만둔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임금근로자

→ 문60으로 이동

② 비임금근로자

→ 문61로 이동

문60) 귀하는 이전 직장 채용 과정이 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

② 공정하지 않은 편이었다

③ 보통이다

④ 공정한 편이었다

⑤ 매우 공정했다

문61) 귀하는 취업 후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②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 로 응답 해 주세요.

① 스스로 그만둔 적이 있다

②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

③ 둘 다 경험한 적이 있다

④ 둘 다 경험한 적이 없다 → 「추가」 영역(문70)으로 이동

문61-1) 가장 최근 일자리를 그만둔 시기는 언제입니까?

년 월

→ 가장 최근 일자리를 그만둔 시기가 2017년~2020년 인 경우 문61-1-1로 이동, 그 외 기간인 경우 문61-2로 이동

문61-1-1) 2017-2020년 이내 그만둔 일자리 중 가장 최근 그만둔 직장(일자리)에 관해서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가족사업체 및 농장에서 무급으로 18시간 이상 일을 했던 일 중 가장 최근 그만둔 직장에 관해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내용	
(1) 그만둔 직장 종사상 지위	① 임금 근로자	② 비임금 근로자
(2) 그만둔 직장의 고용형태	① 정규직(상용근로자) ②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용역 등)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3) 그만둔 직장의 근로시간 유형	① 전일제      ② 시간제	
(4) 그만둔 직장의 유형	①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② 외국인회사 ③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기업 ④ (재단, 사단)법인단체 ⑤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⑥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⑦ 기타 ( )	
(5) 그만둔 직장의 종사자 수 (이례 사업체 기준 참고)	① 1-4인 ③ 10-29인 ⑤ 100-299인 ⑦ 500인 이상	② 5-9인 ④ 30-99인 ⑥ 300-499인
(6) 그만둔 직장의 근속년수	□□ □□ 년 □□ □□ 개월	
(7) 그만둔 직장의 주당 근로시간	약 □□ □□ 시간	
(8) 그만둔 직장의 월 소득	약 □□ □□ □□ □□ 만원	
(9) 그만둔 직장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의 직무 수준은		
(9-1) 나의 교육수준보다	① 낮다      ② 유사하다      ③ 높다	
(9-2) 나의 기술수준보다	① 낮다      ② 유사하다      ③ 높다	
<b>→ (9-3)은 대학(교)를 졸업한 분(문15-1 대학(교) 졸업여부 ① 졸업)만 응답해 주십시오.</b>		
(9-3) 나의 전공분야와 (**대학졸업 이상)	① 일치한다      ② 불일치 한다	

☞ 사업체란 기업체보다 작은 단위의 개념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부여하여 조사대상자가 직접 일하였던 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우리은행 삼성동 지점에 근무하는 경우, 기업체인 우리은행 전 사원 수 15,000명 기준이 아닌 삼성동 지점의 인원 수 20명을 기준으로 응답해야 함

문61-2) 가장 최근 그만둔 일은 몇 번째 일자리였습니까?

- ① 첫 번째
- ② 두 번째
- ③ 세 번째
- ④ 네 번째 이상

문61-3) 가장 최근 그만둔 일은 스스로 원해서 그만둔 것이었습니까?

고용계약의 종료, 업체의 폐업, 해고 등은 ② 아니기에 응답 하시면 됩니다.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 **문 61-5로 이동**

문61-4) 그 일을 그만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 ② 개인발전/승진
- ③ 더 나은 근무환경(직장상사, 동료, 식대, 출퇴근 시간/거리 등)
- ④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 ⑤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 ⑥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 ⑦ 개인 사업을 위해서
- ⑧ 건강상의 이유로
- ⑨ 집안사정 때문에(육아, 가사부담 등 포함)

문61-5) 그 일을 그만둔 후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웠던 점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비 부족
- ② 재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기회 부족
- ③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정보 부족
- ④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기회 부족
- ⑤ 이전 직장경력으로 인한 재취업 과정에서의 차별
- ⑥ 창업을 위한 자금조달 등 어려움
- ⑦ 가족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 부족
- ⑧ 기타(적용 것 : \_\_\_\_\_)
- ⑨ 특별히 없었음

문62) 직장을 그만두었을 당시,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문64로 이동**

문63) 귀하는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문64로 이동**

② 아니오

문63-1)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②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③ 절차가 복잡해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④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혜택이 크지 않아서

⑤ 신청 도중에 취업이 되어서

⑥ 기타(적용 것 : \_\_\_\_\_)

※ 문64번~문69번 문항은 현재(2020년 6월 1일 기준)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문40번의 ① ② + 문40-1-1번의 ① 응답자) 혹은 2017년~2020년 사이에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임금근로자(문59번의 ① 응답자 + 문61번의 ① ② ③ + 문61-1번의 2017~2020년 응답자)만 응답하는 문항입니다. 아래 표를 참조 하셔서 시 확인 후 진행 해 주십시오.

대상	대상 조건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 (2가지 조건 모두 해당)	문40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경험 문항 → ① 일을 하였음 또는 ② 휴가 및 일시 휴직 응답 문40-1-1(1) 현재 일자리 종사상 지위 → ① 임금근로자 응답
2017~2020년 사이에 그만둔 경험이 있는 임금근로자 (3가지 조건 모두 해당)	문59 이전에 취업한 경험 → ① 예 응답 문61-1 가장 최근에 일자리를 그만둔 시기 → 2017년 ~ 2020년 사이 응답 문61-1-1(1) 그만둔 직장 종사상 지위 → ① 임금근로자 응답

■ 위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문64로 이동,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70으로 이동

문64) 귀하는 (현재 또는 직전)직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취업자는 현재 직장, 미취업자는 가장 최근 그만둔 직장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근로자의 존엄성이 침해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 업무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9)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10)의 '위험한 근로환경', 이란, 기계 등의 진동, 심한 소음, 일하지 않을 때조차 땀을 흘릴 정도로 높은 온도, 실내/실외에 관계없이 낮은 온도, 연기, 먼지(목분진, 광물 분진 등) 등의 흡입, 신너 등 유기용제 증기 흡입, 화학제품/물질을 취급하거나 피부와 접촉, 다른 사람이 피는 담배연기, 폐기물, 체액, 실험물질 등 감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취급하거나 직접 접촉하는 경우를 의미함.

문 항		있다	없다	모르겠다
직 장 내 괴 롭 힘	(1)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일을 떠넘겼다.	①	②	③
	(2)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나에게 소리치거나 화를 내거나 모욕적인 욕설을 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①	②	③
	(3) 고용주, 직장상사가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암묵적·직접적으로 강요하였다.	①	②	③
	(4)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였다.	①	②	③
	(5) 교육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 대우 등에서 나를 다른 동료들보다 불합리하게 차별하였다	①	②	③
	(6)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요구할 수 없도록 암묵적·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내 요구를 무시하였다(병가, 휴가, 휴직, 교육훈련 등)	①	②	③
	(7) 나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 또는 행동을 했다 (이메일, 메시지, 전화 포함/성적 농담, 성추행 등 포함)	①	②	③
	(8)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업무 외의 대화나 식사, 모임 등에서 나를 조직적으로 제외하였다.	①	②	③
	(9) 회사로부터 업무수행 중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인 및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혹은 교육을 받았다.	①	②	③
	산 업 안 전	(10) 나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근로환경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다.	①	②
(11) 업무수행 중 업무로 인하여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로 인해 다친 적이 있다.		①	②	③
■ (11)번에 ①있다 로 응답한 경우 (12)번을 응답, ②없다, ③모르겠다로 응답한 경우 문65로 이동				
	(12) 산업재해보험 급여(병원비,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보상금 등)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문65) 귀하의 (현재 또는 직전)직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책이나 대응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취업자는 현재 직장, 미취업자는 가장 최근 그만둔 직장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① 있다
- ② 현재 만들고 있는 중이거나 곧 만들 예정이다
- ③ 관련 정책이나 규정이 없다
- ④ 모르겠다

문66) 귀하의 (현재 또는 직전)직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상담하거나 고충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담당자 또는 담당 창구가 있었습니까?

(취업자는 현재 직장, 미취업자는 가장 최근 그만둔 직장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① 있다
- ② 없다
- ③ 모르겠다

문67) 귀하의 (현재 또는 직전)직장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의 상담 또는 고충 처리 절차가 적절히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취업자는 현재 직장, 미취업자는 가장 최근 그만둔 직장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① 나의 직장에서 직장 괴롭힘이 발생한 적이 없다
- ② 나의 직장에서 괴롭힘이 발생한 적은 있지만 직장에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 ③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직장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였다
- ④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 ⑤ 모르겠다

문68) 귀하는 (현재 또는 직전)직장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취업자는 현재 직장, 미취업자는 가장 최근 그만둔 직장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1) 나의 업무 내용이나 방법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의 업무일정(휴식, 초과근무, 휴가 등)	①	②	③	④	⑤	⑥
(3) 내가 속한 팀(부서, 작업반 등)의 업무 목표	①	②	③	④	⑤	⑥
(4) 내가 속한 팀(부서, 작업반 등)에 필요한 훈련	①	②	③	④	⑤	⑥
(5) 함께 일할 신입사원의 채용	①	②	③	④	⑤	⑥
(6) 나의 임금 인상	①	②	③	④	⑤	⑥
(7) 나의 복리후생	①	②	③	④	⑤	⑥
(8) 사업장의 산업안전 기준의 설정 혹은 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문60) 귀하의 (현재 또는 직전)직장에는 다음과 같은 조직 혹은 제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취업자는 현재 직장, 미취업자는 가장 최근 그만둔 직장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노사협의회의란?**

노동자 대표와 고용주 대표가 각각 동수로 구성된 기구로, 3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생산성 향상 및 성과배분, 근로자의 채용·배치, 교육훈련, 고충처리, 작업환경개선과 노동자의 건강증진, 인사 및 노무관리 개선,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작업및휴게시간의운용, 임금 지불방법 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등을 협의합니다.

**업무 관련 제안제도란?**

업무혁신과 경영 효율화, 노동자 복리증진 등에 관련하여 직원이 의견을 개진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제출된 제안에 대해 절차를 거쳐 심사, 포상, 사내규정 재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조직적응 프로그램이란?**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 및 조직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문항	있다	없다	모른다
	①	②	③
(1) 노동조합	→ ①있다 응답 시 문69-(3)으로 이동		→ ②없다, ③모른다 응답 시 문69-(2)로 이동
(2)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 (1)노동조합 문항에서 ②,③인 경우만 응답 )	①	②	③
(3) 업무 관련 제안제도	①	②	③
(4) 조직적응 프로그램	①	②	③

IV. 다음은 「주거」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70) 귀하는 본인 명의의 집을 언제쯤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 ① 이미 소유하고 있다
- ② 향후 1년 이내
- ③ 향후 1년 이상 3년 미만
- ④ 향후 3년 이상 5년 미만
- ⑤ 향후 5년 이상 7년 미만
- ⑥ 향후 7년 이상 10년 미만
- ⑦ 향후 10년 이상 20년 미만
- ⑧ 향후 20년 이후
- ⑨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 문71~문73은 평소 집에 대해 귀하께서 갖고 계신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71)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문71-1로 이동
- ② 그렇지 않다            ➡ 문71-1로 이동
- ③ 보통이다                ➡ 문72로 이동
- ④ 그렇다                 ➡ 문71-2로 이동
- ⑤ 매우 그렇다          ➡ 문71-2로 이동

문71-1) 문71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다' 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주시시오)

- ① 높은 집값 때문에
- ② 자가마련을 위해 현재의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 ③ 자산 증식 및 보전 수단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 ④ 이사를 자주 해야 할 상황이라서
- ⑤ 자가 보유 여부보다는 거주지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⑥ 기타(적용 것 : \_\_\_\_\_)

■ 응답 후 문72로 이동

문71-2) 문71에서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 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주시시오)

- ①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 ② 이사하지 않고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어서
- ③ 자산 증식 및 보전을 위해서
- ④ 자가가 있어야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 ⑤ 집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 ⑥ 기타(적용 것 : \_\_\_\_\_)

문7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문73)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문74) 귀하는 공동주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동주거(Share house)란 가족이 아닌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방은 따로 쓰고 거실과 욕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를 의미함(고시원 및 하숙 거주 경험은 포함하지 않음)

- ① 예
- ② 아니오

문75) 귀하는 공동주거를 할 의향이 있으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76)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통기] 현재 같이 살고 있다 → 문86으로 이동
- ② [비통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학업, 군복무, 직장 등의 이유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
- ③ [독립]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상태이다(결혼, 장성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문77) (문76에서 ②,③ 응답자만) 귀하는 현재 미혼으로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78) 귀하는 현재 주거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니까?

- ① 원룸(다가구) : 전체 집이 1인 개인 명의로 된 집으로 방 하나가 침실, 거실, 부엌을 겸하도록 설계된 집
- ② 아파트
- ③ 다세대/빌라 : 공동주택의 일종, 개별 방마다 소유주가 다른 경우
- ④ 오피스텔 : 세탁기, TV, 냉장고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관리인이 있는 경우
- ⑤ 하숙
- ⑥ 기숙사
- ⑦ 고시원
- ⑧ 단독주택
- ⑨ 기타 : 일반주택의 방 하나만 임대, 지역운영회사 등

문78-1) 귀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자가
- ② 전세
- ③ 보증금이 있는 월세
- ④ 보증금이 없는 월세 → 문80으로 이동
- ⑤ 사근세, 연세, 일세 등 → 문80으로 이동
- ⑥ 무상 → 문81로 이동

문79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의 점유형태가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인 경우에만 응답해주세요.

문79) 주거비용 마련은 누가 하겠습니까?

- 주거비용은 자기인 경우 구입 비용, 전세와 보증금 있는 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말함.
- 금융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출을 누가 갚느냐를 기준으로 응답함.

- ① 전부 본인 스스로
- ② 본인이 대부분 마련하고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일부 도움
- ③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대부분 마련해주시고 본인이 일부 도움
- ④ 전부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마련해 주심
- ⑤ 기타(적용 것 : \_\_\_\_\_)

→ **응답 후 문(8-1) 주택 점유형태 응답이 ①자가, ② 전세인 경우 문히도 이동**

문80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의 점유형태가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인 경우에만 응답해주세요.

문80) 월세비용 마련은 누가 하겠습니까?

- ① 전부 본인 스스로
- ② 본인이 대부분 마련하고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일부 도움
- ③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대부분 마련해주시고 본인이 일부 도움
- ④ 전부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마련해 주심
- ⑤ 기타(적용 것 : \_\_\_\_\_)

문81)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집을 선택한 가장 수반 이유는 무엇입니까?(우선순위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주거비용 (매매가격, 전월세가격 등)
- ② 주택유형 (아파트, 다세대/빌라, 원룸(다가구), 오피스텔 등)
- ③ 주택상태 (주택규모, 노후도, 방의 개수, 인테리어 등)
- ④ 주택위치 (직장/학교와의 거리, 부모님 집과의 거리)
- ⑤ 주거환경 (의료/문화/상업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성, 교통, 교육환경 등)
- ⑥ 향후 주택 가격 변화 (미래 자산가치 상승 기대)
- ⑦ 기타(적용 것 : \_\_\_\_\_)

문82) 귀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우선순위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안전하게 보호받는 공간
- ② 휴식의 공간
- ③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
- ④ 나만의 사적인 공간
- ⑤ 생리위생 및 세탁, 식사를 위한 공간
- ⑥ 자산 증식을 위한 중요한 수단
- ⑦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주는 공간
- ⑧ 기타(적용 것 : \_\_\_\_\_)

문83) 향후 주거 마련에 있어서 다음 항목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우선순위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주거비용 (매매가격, 전월세가격 등)
- ② 주택유형 (아파트, 다세대/빌라, 원룸(다가구), 오피스텔 등)
- ③ 주택상태 (주택규모, 노후도, 방의 개수, 인테리어 등)
- ④ 주택위치 (직장/학교와의 거리, 부모님과의 거리)
- ⑤ 주거환경 (의료/문화/상업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성, 교통, 교육환경 등)
- ⑥ 향후 주택 가격 변화(미래 자산가치 상승 기대)
- ⑦ 기타(적용 것 : \_\_\_\_\_)

문84) 귀하는 다음의 청년 주거 정책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주택공급정책 (청년 행복주택,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청년 공공지원주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행복주택은 19세~39세 미혼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li> <li>-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은 19세~39세 미혼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전용85m<sup>2</sup> 이하 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해 LH 및 지방공사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li> <li>- 청년 공공지원주택은 19~39세 무주택자 청년층을 대상으로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지원을 통해 민간임대사업자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li> </ul> </li> <li>▪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 (청년 전 월세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전 월세지원은 모든 마련이 어려운 청년을 위하여 전세대출 및 월세대출 조건을 완화하여 저소득 청년의 주거자금 대출한도 상향</li> </ul> </li> <li>▪ 청년 주거환경 개선정책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은 역세권 고시원을 청년 쉼터하우스로 리모델링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li> </ul> </li> <li>▪ 대학기숙사 공급 및 기숙사비 지원 정책 (기숙사형 청년주택, 행복기숙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이 밀집한 지역의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생활편의시설 등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li> <li>- 행복기숙사는 공공기금으로 기숙사 신축,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기숙사</li> </ul> </li> </ul>
---	--

문 항	안다	모른다
(1) 청년 주택공급 정책 (청년 행복주택,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청년 공공지원주택 등)	①	②
(2)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청년 전·월세지원)	①	②
(3) 청년 주거환경 개선 정책(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등)	①	②
(4) 대학기숙사 공급 및 기숙사비 지원 정책 (기숙사형 청년주택, 행복기숙사 등)	①	②

문85) 귀하는 다음의 청년 주거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청년 주택공급 정책(청년 행복주택,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청년 공공지원주택 등)
- ②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청년 전·월세지원)
- ③ 청년 주거환경 개선 정책(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등)
- ④ 대학기숙사 공급 및 기숙사비 지원 정책(기숙사형 청년주택, 행복기숙사 등)
- ⑤ 기타(적용 것 : \_\_\_\_\_)

V. 다음은 「건강」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86) 귀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문87) 귀하는 현재 본인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마른 편이다
- ② 약간 마른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비만이다
- ⑤ 매우 비만이다

문88) 귀하는 **지난 1년간(2019년 6월~2020년 5월)** 건강검진(종합건강검진 혹은 일반건강검진 모두 해당)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89) 귀하는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 ①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 → **문91로 이동**
- ②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 **문90로 이동**
- ③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 **문90로 이동**
- ④ 기타(적을 것 : \_\_\_\_\_) → **문90로 이동**

문90) (문89에서 ②,③,④ 응답자만) 귀하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 ②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 ③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 ④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 ⑤ 기타(적을 것 : \_\_\_\_\_)

문91) 귀하는 지난 2주 간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다음 각 문항들에 대해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집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	①	②	③	④	⑤

문92) 귀하는 지난 1주 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문 항	극히 드물다 (일주일에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에 1-2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에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에 5일 이상)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	①	②	③
(2) 비교적 잘 지냈다	○	①	②	③
(3) 상당히 우울했다	○	①	②	③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	①	②	③
(5) 잠을 잘 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	①	②	③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	①	②	③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	①	②	③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	①	②	③
(9) 마음이 슬펐다	○	①	②	③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	①	②	③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	①	②	③

문93)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문93-1 이동**

문93-1)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 |           |           |
|-----------|-----------|
| ① 일주일에 1번 | ② 일주일에 2번 |
| ③ 일주일에 3번 | ④ 일주일에 4번 |
| ⑤ 일주일에 5번 | ⑥ 일주일에 6번 |
| ⑦ 매일      |           |

문94) 귀하는 우리 인생에서 외모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어느 정도 중요하다
- ⑤ 매우 중요하다

문95) 귀하는 성형 수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목적과 미용(보톡스 등) 목적을 모두 포함)

- ① 예
- ② 아니오 → **문95-1로 이동**

문95-1) 귀하가 하신 성형수술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 **문96으로 이동**
- ② 미용(쌍꺼풀, 보톡스, 지방제거 등) → **문95-2로 이동**

문95-2) (문95-1에서 ② 응답자만)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자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 ②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 ③ 취직에 도움이 되므로
- ④ 결혼이나 연애에 도움이 되므로
- ⑤ 자기만족을 위해
- ⑥ 기타(적용 것 : \_\_\_\_\_)

문96) 귀하는 다음의 건강관련 정책 중 정부가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청년 건강검진 지원 정책
- ② 청년 심리지원 서비스 정책
- ③ 생활체육시설 확대 정책
- ④ 청년 주요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
- ⑤ 출산지원 정책
- ⑥ 기타 (적용 것: \_\_\_\_\_)

VI. 다음은 「가치관」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97)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양 쪽의 표현을 보고, 귀하가 더 선호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선호 정도							항 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일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여가 중시
(2) 현실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상 중시
(3) 결과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과정 중시
(4) 개인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집단 중시

문98)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재산·경제력
- ② 화목한 가정
- ③ 자아성취
- ④ 건강
- ⑤ 감사·긍정적 태도
- ⑥ 종교생활
- ⑦ 직업·직장
- ⑧ 연인(이성관계 등)
- ⑨ 친구·내인관계
- ⑩ 꿈·목표의식
- ⑪ 기타(적용 것 : \_\_\_\_\_)

문99)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Ⅶ. 다음은 「관계 및 참여」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00)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및 친지, 지인,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  /  명)

문101) 귀하는 평소 얼마나 외출하십니까?

- ①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 ②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 ③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 ④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 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 ⑥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 ⑦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 ⑧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 문102로 이동

→ 문101-1로 이동

문101-1) (문101에서 ⑤, ⑥, ⑦, ⑧ 응답자만)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 ① 6개월 미만
-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③ 1년 이상 ~ 3년 미만
- ④ 3년 이상 ~ 5년 미만
- ⑤ 5년 이상 ~ 7년 미만
- ⑥ 7년 이상

문101-2) (문101에서 ⑤, ⑥, ⑦, ⑧ 응답자만) 현재의 상태가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① 학업중단이나 대학진학 실패로
- ②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 ③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 ④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 ⑤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 ⑥ 기타(  )

문102) 귀하는 지난주에 점심기준으로 혼자 밥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일주일에 \_\_\_\_\_회) (최소 1회 ~ 최대 7회)

문103) 귀하는 지난주에 저녁기준으로 혼자 술을 마신 경우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일주일에 \_\_\_\_\_회) (최소 1회 ~ 최대 7회)

문104) 다음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세대는 40대, 50대 / 노인은 70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성 세대 (40,50대)	(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노인 (70세 이상)	(4)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①	②	③	④	⑤
	(5)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①	②	③	④	⑤

문105) 사회·정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항목에 대해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 항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①	②	③	④	⑤
(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배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①	②	③	④	⑤
(3)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5) 항의 전화하기	①	②	③	④	⑤

문106) 사회·정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항목에 대해 귀하는 앞으로 참여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 항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임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①	②	③	④	⑤
(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배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①	②	③	④	⑤
(3)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5) 항의 전화하기	①	②	③	④	⑤

문107)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108) 귀하는 청년들의 사회·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선택해 주십시오.

☞ \*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 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                       |                                 |
|-----------------------|---------------------------------|
| ① 청년기본법 시행 및 제도 활성화   | ② 청년정책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의 직접 참여 보장     |
| ③ 청년정책 선담부처 구성        | ④ 청년참여 공간(시설, 온라인 포털) 확대        |
| ⑤ 청년참여 활동비 지원         | ⑥ 청년참여 지원정책의 예산 확대              |
| ⑦ 청년참여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 ⑧ 청년들의 기본 고용과 주거 안정             |
| ⑨ 청년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⑩ 청년 할당제 도입(정당 비례대표, 지자체 위원회 등) |
| ⑨ 기타(적용 것: _____)     |                                 |

문109) 귀하는 청년들에게 정책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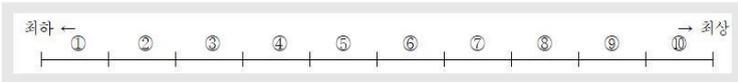
- ① 인구 및 가족 (출산 휴가, 출산 장려금, 육아 휴직, 아동수당 등)
- ② 교육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 등)
- ③ 진로 및 훈련 (진로상담, 진로교육, 직업훈련 등)
- ④ 고용 (구직활동 지원, 일자리 확대, 일자리의 질 개선 등)
- ⑤ 경제 (채무부담 경감, 생활비 지원 등)
- ⑥ 주거 (청년 주택공급, 주거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 ⑦ 건강 (청년 건강검진 지원, 심리지원 서비스, 체육시설 확대 등)
- ⑧ 관계 및 정치·사회 참여 (청년정책 활성화, 청년 정책참여 보장, 청년 공간 확대 등)
- ⑨ 기타 (적용 것: \_\_\_\_\_)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경문항 1)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배경문항 2) [가족배경] 귀하의 부모님 소득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배경문항 3) [교육]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 이 아닙니다)

구분	학교 안 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본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3)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BSTRACT

### A Study of Youth Socio-Economic Reality and Policy Direction V

The purpose of this study, which marks the fifth year of a five-year study, is, based on core indicators that can grasp the overall life of Korean youth in 2020 such as employment and economic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toward life, education, personal values, physical and mental health, housing, marriage, child-raising, childbirth and cultural life, to identify the overall socio-economic reality surrounding the life of young people and to propose policy measures thereon.

Maintaining the framework of the core indicators for the previous annual studies from Year 1 to Year 4, respectively, the core indicators for the survey on youth socio-economic reality are divided into seven master categories including population and family, education and training, economy and employment, housing, health, culture and personal values, and relationship and participation, which in turn are composed of a total of 115 core indicators across 14 subcategories. Together with the results from the survey, the study identified the reality for each core indicator through a secondary analysis of the previously publicized statistics (Kim Hyung-joo, Yeon Bora and Yoo

Sul-hee, 2019). In particular, the study conducted an in-depth research each year with supplementary surveys on major youth issues, except for the first year in which it developed the core indicators. The study endeavored to capture real-life stories told by young people themselves by addressing issues such as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NEET) (Year 2), new (or soon-to-be) graduates (Year 3), youth participation (Year 4) and youth housing (current Year 5)

Furthermore, in order to analyze the raw data of the youth socio-economic survey, focusing on the current issues of our society, an in-depth analysis study was carried out on the 2019 public data approv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is year, the study selected three themes, namely the impact of student loans on housing,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college education, job security, expectations for home ownership, marriage and childbirth, and a comparison based on whether one has moved out of his/her parent(s)'s house, to analyze deciding factors in college graduates' intention to leave his/her current job.

Based on this year's survey of youth socio-economic reality and in-depth interviews on their perceptions on housing, a total of 17 policy tasks across six areas are proposed under the vision of "Improving the lives of Korean youth". In the area of population and education and training, the study proposes to establish a youth support center in each city and province and to create an open market for online contents for vocational training. In economy and employment, it proposes to increase the monetary assistance for youth job search activities, to expand and improve the government-business joint

financial support for young SME employees (Naeil Chaeum Mutual Aid), and to designate and operate start-up colleges. In health and culture, it proposes to improve the national medical examination plan for youth, to broaden youth mental health support projects, and to develop and expand youth-specific leisure programs. In relationship and participation, it proposes to institutionalize and expand youth policy participation governance, to promote online education on democratic citizenship for young people, and to introduce Youth Card to promote youth social participation. In the area of housing, it proposes to increase the housing supply for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to improve the supply of share houses, and to designate and operate housing counseling centers for young people. In terms of legal and administrative basis, it proposes to match the legislative system with the first half of life, to install and operate a National Youth Promotion Agency, and to create a public services position assigned to assisting young people.

This year, the COVID-19 pandemic, an unprecedented health crisis, has cast uncertainty over all areas of our lives, including the national economy. Moreover, all the issues surrounding the daily life of youth such as employment, income and housing are back to the point where they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all over again. In order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our society, it is very important that older generations should lay the groundwork so that young people can have hope for their lives and future society. In that sense, there is a desperate need for public discussions about the coordination of interests and consideration among older generations and policies that

already have vested interests.

Key words: Youth, Core Indicators, Socio-Economic Survey,  
Perceptions on Housing, Youth Policy

##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 기관고유과제

- 20-R01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 김영한·이유진·조아미·임성택
- 20-R02 청소년·청년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유민상·최정원·이수정·장혜림
- 20-R03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 오해섭·문호영
- 20-R04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 최용환·성유리·박윤수·김보경
- 20-R05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방안 연구 II: 청소년상담사를 중심으로 / 최창욱·좌동훈·이종원·남화성·정지희
- 20-R06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 20-R06-1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연구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 20-R06-2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 20-R07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II / 김경준·김정숙·윤철경
- 20-R08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서정아·성윤숙·송태민
- 20-R08-1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데이터 분석 보고서 1\_청소년 비만에 대한 비정형 빅데이터 연구 / 송태민
- 20-R08-2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데이터 분석 보고서 2\_청소년 행복 결정요인에 대한 정형 빅데이터 연구 / 홍성호
- 20-R09 청소년의 주거권 실태와 보장방안 연구: 사회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 김지연·김승경·임세희·최은영
- 20-R10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 보고서 / 김영지·황세영·최홍일·이민희·김진호
- 20-R10-1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 분석보고서 / 박환보·주경필
- 20-R10-2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 분석보고서 / 김영지·황세영·최홍일

- 20-R1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 II / 최인재·강경균·송민경·조윤정·김가희
- 20-R12    202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 / 하형석·황진구·김성은·이용해
- 20-R12-1    202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황영식
- 20-R13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 양계민·장운선·정윤미
- 20-R13-1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 1기패널 / 양계민·장운선·정윤미
- 20-R13-2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 2기패널 / 양계민·장운선·정윤미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2-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질적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장근영·이동훈·윤철경 (자체번호 20-R1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2-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 III: 학교 밖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 오은진·장희영 (자체번호 20-R14-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3-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I: 청년 이직자 - 총괄보고서 / 김기현·신동훈·변금선·고혜진·신인철 (자체번호 20-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3-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I: 청년 이직자 - 심층분석보고서 / 김기현·신동훈·고혜진·신인철 (자체번호 20-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위기 청소년 / 백혜정·임희진·송미경·김양희 (자체번호 20-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위기 청소년-국내·외 주요 법령 및 건강정책 분석 / 류정희·이상정·박선영·전민경 (자체번호 20-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4-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위기 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백혜정·임희진 (자체번호 20-R1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1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초등학생 / 배상률·이창호·이정림 (자체번호 20-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2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초등학생 - 해외사례 조사 / 정현선·심우민·윤지원·김광희·최원석 (자체번호 20-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85-03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초등학생 - 기초분석보고서 / 배상률·이창호 (자체번호 20-R17-2)

## 연구개발적립금

- 20-R24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 황여정·이정민
- 20-R24-1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예비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황여정·이정민·김수혜
- 20-R25 10대 청소년 포럼 운영 / 모상현
- 20-R26 코로나 19 확산 및 이후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대응방안 / 김현철

## 수시과제

- 20-R18 학생 인권교육을 위한 현장 실천 강화 방안 연구 / 이정민·이종원
- 20-R19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배정희·김기현
- 20-R20 가출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재구조화 연구 / 황진구·김지연
- 20-R21 선거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 정책 및 활동 지원 방안 연구 / 이창호
- 20-R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 개편 방안 연구 / 김경준·이종원·박정배
- 20-R2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모형 개발 / 김희진·백해정

## 수탁과제

- 20-R27 청소년 비즈쿨 활성화를 위한 고교교육 정책 연계방안 연구 / 강경균·안재영·황은희
- 20-R28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 김기현·유민상·변금선·배정희
- 20-R29 (가칭)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타당성 연구 / 김영한
- 20-R29-1 (가칭)청양군 청소년재단 설립타당성 연구(요약본) / 김영한
- 20-R30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양미석
- 20-R31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5종)
- 20-R31-1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1~2학년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2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3~4학년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3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초등학교 5-6학년용)/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4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중학교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1-5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기본 프로그램(고등학교용) / 성윤숙·서정아·장윤선·서고은·김성은
- 20-R32 2019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양미석
- 20-R33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적용방안: 회복적 생활교육을 중심으로 / 성윤숙·양미석
- 20-R34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
- 20-R34-1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초등학교) / 성윤숙·이윤소
- 20-R34-2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중학교) / 성윤숙·이윤소
- 20-R34-3 2018~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구학교 결과보고서(고등학교) / 성윤숙·이윤소
- 20-R35 교육과정 기반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사례 / 성윤숙·이윤소
- 20-R36 어울림 자유학기 프로그램(5종)
- 20-R36-1 어울림 자유학기 주제선택 프로그램(놀러와! 어울림 세상) / 성윤숙·이선희·정미선·선보라·이혜옥·이윤소
- 20-R36-2 자유학기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 성윤숙·배은정·이윤소
- 20-R36-3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사회) / 성윤숙·선보라·이윤소
- 20-R36-4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도덕) / 성윤숙·이혜옥·이윤소
- 20-R36-5 어울림 자유학기 교과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국어) / 성윤숙·이선희·정미선·이윤소
- 20-R37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동향 / 성윤숙
- 20-R38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종합성과평가 평가지표 개선 용역 / 김형주·김혁진·김정주
- 20-R39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기현·유민상·변금선·배정희
- 20-R40 학교 안·밖 청소년정책 협력체계 구성 및 연계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남화성
- 20-R41 소년원학생 재범방지 통합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유진
- 20-R41-1 꿈과 친구사이: 소년원학생 재범방지 통합프로그램 매뉴얼 / 이유진
- 20-R42 청소년 주도적인 활동지원을 위한 법률개정 방안 연구 / 최창욱·문호영
- 20-R43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사례관리사 및 자립업무종사자 직무분석 연구 / 김지연·백해정·이상정
- 20-R44 2020년도 청소년 인터넷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평가 / 배상률·유홍식·김동일
- 20-R45 청소년 교육·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지자체·교육청 협력 강화 방안 / 김영지·황세영·손진희·박명선·박종원·조기영
- 20-R46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연구 / 최창욱·좌동훈

- 20-R47    농업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농촌 청소년 실태조사 / 오해섭·최홍일
- 20-R48    성남시 청소년시설 확충 및 개선 연구 / 황진구·남화성
- 20-R49    다함께돌봄센터 현장적용 프로그램 개발연구 / 황진구·좌동훈
- 20-R50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최창욱
- 20-R51    지역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평가지표 개선방안 / 최용환·곽창규·이성규
- 20-R52    수원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 최용환·김보경
- 20-R53    202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양계민
- 20-R54    2020년 학교 내 대안교실 모니터링 연구 / 최인재·송원일·박지원
- 20-R55    2020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실태조사 연구 / 최인재·송원일·배수인
- 20-R56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의 성장관리 및 성과측정 방안 연구 / 이정민·성유리·김혜원
- 20-R57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 20-R57-1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위기청소년 결과 분석)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 20-R57-2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김지연·김승경·백혜정·황여정
- 20-R58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직업계고 혁신 지원 방안 연구 - 특성화고 혁신지원 운영모형 개발 / 강경균·김영만·김용성
- 20-R59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20 / 김희진·임희진·정윤미
- 20-R60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모델 개발 / 연보라·최정원·김성은
- 20-R61    학업중단 현황 및 지원 방안 / 김성은·박하나·김현수
- 20-R62    환경 변화에 따른 후기청소년 정책 발전 방향 연구 / 장근영·김기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20-S01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1.30)
- 20-S02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성과보고회(1.31)
- 20-S03    2020년 제28회 청소년정책포럼: 학교밖 청소년 취업 및 자립지원 방안(1.22)
- 20-S04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1.31)
- 20-S05    제25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강원국 교수의 매력적인 글쓰기 특강(4.23)

- 20-S06 제26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김병완 작가의 쿼텀 독서법 및 책쓰기 특강 (4.21)
- 20-S07 2020년 제29회 청소년정책포럼: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방안(6.19)
- 20-S08 2020년 제30회 청소년정책포럼: 18세 선거권 이후 청소년 정치교육의 방향 및 과제(7.17)
- 20-S09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실무 역량 강화 연수(초등, 중등, 고등)(7.28)
- 20-S10 2020년 제31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정책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7.28)
- 20-S11 제30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플랫폼 노동의 미래를 묻다 <별점 인생>(8.5)
- 20-S12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상반기 성과보고회(8.11)
- 20-S13 제31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Z세대의 SNS 마켓에서의 소비자사회화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8.26)
- 20-S14 2020년 제32회 청소년정책포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의 방향(8.18)
- 20-S15 청소년 이슈 관련 네트워크 분석(8.25)
- 20-S16 2020년 제33회 청소년정책포럼: 학교 안밖 청소년 협력체계 구성 연계 방안(9.23)
- 20-S17 제32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방안(10.6)
- 20-S18 2020년 대안학교 관리자 협의회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10.5)
- 20-S19 2020년 학교 내 대안교실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10.5)
- 20-S20 2020년 제34회 청소년정책포럼: 코로나 시대 청소년 성장지원의 방향(10.21)
- 20-S21 2020 유로필로조피 서울 대회(11.12~13)
- 20-S22 2020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온라인 워크숍(11.13)
- 20-S23 제35차 청소년정책포럼: Z세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11.18)
- 20-S24 2020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해외 사이버폭력 정책 동향 및 국내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방향 모색)(12.18)
- 20-S25 제3회 한일진로교육포럼(11.28)
- 20-S26 제9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11.20)
- 20-S27 제36차 청소년정책포럼: 우리나라 한국아동·청소년의 삶은 어떠한가?(12.1)
- 20-S28 제37차 청소년정책포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지원 체계의 과제와 방향(12.8)
- 20-S29 제1차 10대청소년목소리포럼: 코로나로 세겨진 우울의 시대 우리의 꿈과 이상을 쓰다 - 동고동락, 각양각색 청소년의 희망이야기(12.5)
- 20-S30 제38차 청소년정책포럼: 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12.17)
- 20-S31 제39차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주요 결과와 과제(12.22)
- 20-S32 진로위기학생 유형별 진로교육 실천과제 성과보고회 자료집(11.27)

##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1호(통권 제9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2호(통권 제97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3호(통권 제9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1권 제4호(통권 제99호)

##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9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질 제고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0호: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 학교 졸업예정자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1호: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의 운영 현황 및 발전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2호: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3호: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 지원방안 모색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4호: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5호: 미래지향적 청소년관계법 정비 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6호: 「청년기본법」제정 전·후 정책형성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7호: 청년예술인 지위 및 권리보장을 위한 '예술 활동 증명' 기준의 적정성 검토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8호: 청년종합실태조사(안) 시행을 위한 조사 설계 방향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29호: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정책참여 현황과 과제

NYPI Bluenote 통계 49호: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 대학교 실습학기제를 중심으로

NYPI Bluenote 통계 50호: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있을까?

NYPI Bluenote 통계 51호: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관련 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52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2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번역 · 집필진 ◆

김 수 혜 (고려대학교 사회통합교육연구소·박사)



연구보고 20-R06

---

##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V

---

**인 쇄** 2020년 12월 31일

**발 행** 2020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삼일기획 전화 044)866-3011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269-8 94330

979-11-5654-268-1 (세트)